장편소설

돌파구

리 종 렬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4(2005)

장편소설 《돌파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용사들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박은 력사적사실을 어느한 인민군중대군인들의 전투과정과 생활모습을 통하여 진실하게 보여준 작품이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구상에 따라 후방에서 대오를 정비한 중대군인들이 전선동부의 전략적요충지에 긴급이동하여 갱도를 굴설하고 적극적인 방어전으로 적들의 발악적인 공세를 격퇴함으로써 전쟁행정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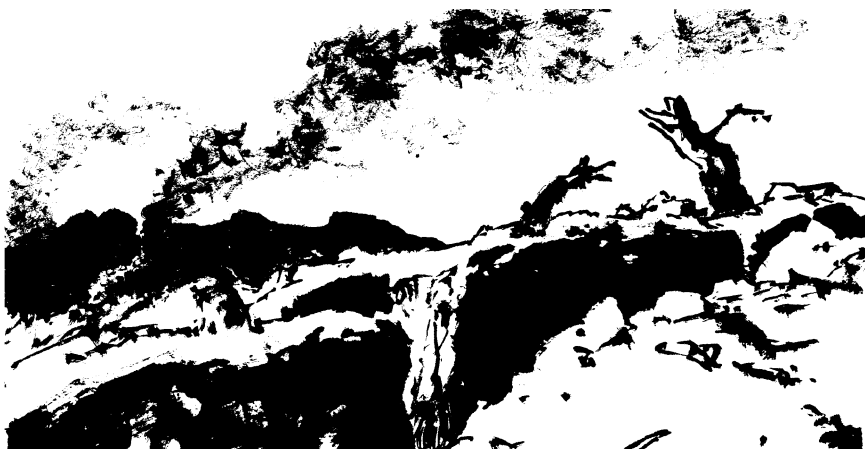
우리 생활에 실재한 인물성격과 생동한 생활세부들, 구수하고 신통한 병사격언과 결말들을 통하여 작품은 인민군전사들의 완강한 투쟁정신과 혁명적락관주의, 랑만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특히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불비쏟아지는 최전연고지에까지 나오시여 적들의 작전적기도를 일격에 짓뭉개버릴수있는 천재적인 묘안을 제시하시고 이에 고무된 인민군용사들이 최후승리를 위한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싸우는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령장의 슬하에서 지난날 천대받고 버림받던 조선인민이 어떻게 세계를 놀래우는 영웅인민으로 자라나게 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적들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전략전술적, 정치도덕적우월성으로 짓부셔버리는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투쟁이야기를 감명깊게 서술한것으로 하여 오늘 선군의 기치높이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해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크게 고무하여 줄것이다.

편집부

주 요 인 물

곽병식(최송림)	조선인민군 소대장
강 태 욱	조선인민군 련대장
고 병 근	조선인민군 중대장
김 문 규	정치부중대장
한 철 흠	분대장
조 칠 성	병 사
렉스포드	미제침략군 중좌
백 상 기	괴뢰군 소령(대대장)

차　　례

제 1 장

기관총수의 아들

1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아늑한 산골, 들쑹날쑹한 길로 마초를 높다랗게 실은 한대의 마차가 한가로이 굴러가고있었다.

흔들거리는 마초더미우에는 두사람, 보병중대장과 전사가 누워있었다. 두사람 다 볕에 타서 새까만 얼굴들이다.

중대장은 잠이 들었는지 눈을 꾹 내리감고있다.

전사는 새초잎을 잘근잘근 씹으며 생각에 잠겨 파랗게 높은 하늘을 쳐다보고있다. 감때사나운 그 얼굴에 무엇인가를 비웃는듯한 미소가 어리더니 어금이를 으드득 간다.

굴러가는 마차바퀴는 삐거덕거리고 푹신한 마초속에 묻혀있는 두사람의 몸은 가볍게 흔들거린다.

어디선가 산골물이 바위짬으로 콸콸 쏟아지는 소리며 풀벌레들의 평화로운 울음소리들이 들려오고 씁쓸하고 향긋한 풀냄새가 가슴가득 스며든다. 이 모든것은 전사의 가슴에 지난날 어느 어촌 일요일의 달짝지근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거치른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덜커덩 마차가 들췄다.

전사 조칠성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마사원에게 속삭였다.

《아바이!… 쉿!… 쉬!… 조용조용 몰라요! 깊은 잠에 들었소!… 십년만이요!》

밑에서 긴 보총을 어깨에 건 나이지긋한 마사원이 먼지가 뽀얗게 오른 얼굴로 치떠보더니 늘 과장해서 엄포를 놓는 익살군의 말버릇에 습관된 모양 입을 비죽거리며 시무룩 웃는다. 마차는 다시 굴러간다. 잔파도를 헤쳐가는 매생이우에 탄것처럼 두사람의 몸은 흥겹게 흔들거리고 전사는 잠자는 중대장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산간농촌 달구지군들속에서 흔히 만날수 있는 무던한 얼굴 그대로인 중대장의 얼굴에는 유표한 점들이 더러 있다. 철갑같이 단단해보이는 이마밑의 더부룩한 눈섭은 끌으로 가면서 굵어질사한데 왼쪽눈섭에는 사마귀가 숨어있다. 언젠가 조칠성은 중대장의 면도를 해주다가 그놈을 건드렸는데 그때 그는 버럭 소리쳤다. 《에크, 큰일 날번했군. 그것때문에 내가 천리를 내다본단말이요!》

조칠성은 배를 그러안고 웃어댔다. 두리뭉실한 코는 후한 인품을 말해주고 두툼하면서도 무겁게 닫겨있는 입술은 엄한 빛을 띠고있다. 대들보같은 목에는 굵은 피줄이 불거져 성을 낼 때나 웃을 때면 그것이 바줄처럼 살아오른다.

조칠성은 이마와 눈가에서 주름살들을 살펴보고는 저도모르게 한숨을 지으며 련락병의 말대로 중대장이 정말 서른네살일가 아니면 그보다 나이를 더 먹었을가 하고 생각한다. 그의 태평스러운 숨결소리에 조칠성은 느닷없이 언짢아진다. 갑자기 중대장의 숨결이 고르롭지 못하게 울리고 관자노리가 씰룩거린다. 이윽고 중대장은 잠결에 빙긋이 웃는다.

조칠성은 이렇게 배포유하게 자고있는 중대장의 얼굴을 들여다보느라니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그는 마초우에 벌렁 몸을 던지고 높고 파란 가을하늘을 쳐다본다. 그의 눈은 열기를 띠고 번뜩이더니 무엇인가를 더듬어보는듯 부드러워진다.

아무리 수수해뵈는 사람도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어깨가 으쓱했던 시절이 한번은 있는 법이다. 이 오랜 보병중대에도 떠들썩한 전성기가 있었다. 중대의 이름은 한때 전선에 소문이 자자하게 났다.

적군의 방어지탱점인 감제적고지에 은밀히 접근했다가 표범처럼 달려들어 마구 두들겨대고 짓이겨서 15분만에 새벽하늘에 신호탄을 쏘아올려 련대의 공격을 보장한 일도 있었다. 여름에도 산골짜기에 눈이 깔려있는 설악산을 넘어 준령을 누비며 수백리길을 단숨에 질러나가 적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천여명의 적들을 사로잡은 일도 있었다. 비록 하루이긴 했어도 중대는 25문의 적 대구경포와 수십대의 자동차와 전차들을 차지한 일도 있었다. 그때 기세충천한 전사들은 길바닥에 널린 공기마다라스며 장교용 고급모포들을 누데기처럼 짓밟고 다녔으며 조칠성이또래들은 로획한 성조기에 대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는 찢어서 발싸개를 하려다가 그따위 더러운것으로 보병의 보배로운 발을 감겠느냐고 침을 뱉어 마구 짓밟아버렸다. 지난해 장마철에만 해도 고지에서 강냉이 두이삭으로 하루끼니를 에우며 적들의 파도식 공격을

98차나 격퇴하고 놈들의 시체로 릉선과 골짜기들을 덮었었다.

수많은 습격, 매복, 포위전들에서 중대는 영웅과 모범전투원들도 여러 명 냈고 눈물겹기도 하고 배터지게 웃을만한 전투일화들도 남못지 않게 남겼었다. 구름에 휘감긴 태백준령을 넘나들며 싸울 때 고병근중대장자신이 고지와 릉선들에 붙인 《하모니카고지》, 《호미고개》, 《뱀릉선》이란 이름들은 그후 군단사령부 장령들의 작전지도에도 그대로 표기되였었다.

중대의 봄, 중대의 청춘시절은 과연 그때가 아니였던가!

고병근소속구분대란 이름은 최고사령부의 보도에도 두번이나 올랐고 전선신문의 한면 가득 중대의 전투기가 실린 일도 있다. 이 조칠성이만 해도 련대군무자총회 주석단에 오른 일이 있지 않았던가!

하나 련대가 2제대에 들어와 휴식하게 되면서 《신수》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중대는 련대장의 명령으로 한적한 산골에 와 묵으며 마초를 베고있는것이다. 처음 한달동안 전사들은 갑갑증이 나고 속이 클클하여 견디지 못했다. 그러나 날이 가자 따분한 생활에도 락이 생겼다. 싱그러운 풀냄새를 맡으며 새초를 베고 산골 도랑물에 뛰여들어 미역을 감으며 물쌈도 하고 따벌이에게 쏘여 눈두덩이 퉁퉁 부어오른 전사들을 놀려도 주고…

태평스러운 날들이 흘러갈수록 련대가 중대를 저버리고 어디론가 먼 싸움의 길을 떠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이 들기도 했으나 제때에 찾아오는 련대선동원이 전사들을 안심시켜주었다. 그는 국내소식들과 련대의 전투훈련소식들을 전했다. 그리고 유엔총회에서 미제의 피둥피둥 살진 사환군들과 어중이떠중이 졸개놈들이 우리를 어떻게 헐뜯었는가 하는 이야기로 전사들의 가슴에서 증오를 불러일으켰다. 한주일에 한번씩 기통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찾아와 신문과 화보 그리고 고향 어머니와 누이와 안해들의 편지들을 전했다. 사람이 그립고 새 소식이 그리운 외로운 섬사람들처럼 전사들은 좋은 소식을 날라온 기통수를 안아서 하늘에 던져올리며 떠들썩했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도 살뜰한 기별을 보낼 사람도 없는 조칠성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뒤척이면서 포연과 불바다와 새벽돌격의 나팔소리를 가슴태우며 그리워했다.

제길, 중대장동무도 이 농사군생활에 만족했단말인가? 새초잎에 손을 베며 풀단과 씨름하고 따벌이한테 쏘이고 부근농가에서 망돌을 빌려다 두부를 앗아먹고…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타번져 저고리단추를 끌러 절벽같은 가슴을 헤쳐놓았다.

마차는 굴러가고 저멀리 마초더미 있는데서 전사들이 부르는 건드러진 노래가락이 들려온다.

그렇게 알길 없던 정든 님 소식
집에 들은 군대동무 전해주었네
…

어느 친구인가 녀자의 목소리를 흉내내여 숨이 넘어갈듯이 길게 뽑아넘긴다.

나라의 자랑인 우리의 영웅을
그대로야 점직해 어찌 만나나

조칠성은 그 노래소리에 역증을 내며 돌아누웠다.

마차의 한쪽바퀴가 덜커덩 뛰여오르더니 마초더미가 한옆으로 넘어질듯이 쏠렸다.

조칠성은 얼결에 마초단을 잡으며 중대장을 돌아봤다.

중대장은 눈을 뜨고있다. 놀라우리만치 심각한 빛이 그의 눈에 어려있다.

조칠성은 중대장의 눈을 빤히 들여다본다.

《중대장동무… 아까 자면서 왜 웃었습니까?》

중대장은 눈을 슴벅거리며 그를 쳐다본다.

《웃던가?!》

《예.》

《꿈을 꿨네.》

《참 중대장동문 속이 편한 모양이군요.》

조칠성은 어처구니가 없어 허구프게 웃었다.

《칠성이!》

《예.》

심드렁한 대답이다.

《대황령꼭대기에 묻은 정치부중대장이 날 찾아왔더란말이야.》

《…》

《날더러 자꾸 깨라구 흔들거던. 눈을 비비적대구 보니 웬통 하늘이

금빛으루 다 뻔쩍뻔쩍하거던. 넓은 광장인데 포병,해군,보병들이 례복들을 떨쳐입은데다 흰 장갑들을 끼구 렬을 지어 서있는게 아니겠나. 광장 저쪽 한끌에서 우리 사단군악대가 이상한 옷을 입구 취주악을 불더군. 꿈속에서두 아하,이게 승리의 열병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데. 정치부중대장을 쳐다보니 그 동무는 대좌가 됐는데 산뜻한 례복에다 훈장들을 눈부시게 주런이 달았더군. 한데 난 이런 위장그물이 떠있는 낡은 군복을 입은 농사군 보병중대장 그대로야. 야,이런 옷주제를 해가지구서 어떻게 열병식대오에 들어서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쑥스럽더군. 그래서 옷에서 먼지를 털었지. 넨장,아무리 털어야 먼지가 세상 다 털어져야지. 계속 풀썩풀썩 인단말이요. 그러자 정치부중대장이 버럭 성을 내는게 아니겠나. 〈중대장동무,그 먼지가 어쨌는가요,예?! 설악산,1211고지,현리포위전에서… 생각해보십쇼. 미제를 때려부시는 수천리 싸움길에서 오른 먼지가 아닙니까?!〉… 이렇게 꾸짖는데 그 목소리가 석쉼한게 예전과 다름 없더란말이야…》

《그래서요?》

《빌어먹을 마차가 덜커덩하는바람에 깨고말았네.》

이때 마차가 멎으며 아래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3중대가 어딥니까?》

《예— 여깁니다.》

마사원의 느른한 대답이다.

《고병근중대장동무가 어디 계십니까?》

고병근은 권총을 뒤로 가져가며 아래를 내려다봤다.

초록빛 새 군복을 산뜻하게 차려입은 20대의 말쑥한 소위가 서있었다.

《내가 고병근이요!》

소위는 놀라서 마초더미우를 쳐다봤다. 다음순간 그는 발꿈치를 딱 갖다붙이더니 중대장을 쳐다보며 경례를 했다.

《중대장동지,강건군관학교 졸업생 곽병식은 3중대 3소대장으로 배치되여왔음을 보고합니다!》

고병근은 두길이나 되는 마초더미우에서 뛰여내렸다.

《어디서 온다구?!》

《〈강건〉에서 옵니다!》

《〈강건〉에서?!》

《예.》

소위는 련대기요과의 봉인이 찍힌 봉투를 내밀었다. 뜯어보니 파견장

과 졸업성적표의 사본이 들어있었다. 최우등 졸업생이였다. 그리고 표창선물로 이름이 새겨진 권총을 수여받았다는것과 무기번호가 밝혀있었다.

《반갑소！ 오느라고 수고했소！》

고병근은 그의 두손을 뜨겁게 잡아흔들었다.

곽병식은 감격에 사무쳐 얼굴이 상기되며 미소를 지었다.

《며칠전에 온다는 소식을 받았소. 련대에 그렇게 사람이 없었는가. 왜 이렇게 혼자 떠났소？》

《경비소대 전사를 따라보내는걸 제가 사양했습니다. 마침 이쪽으로 오는 련대후방부 차편이 있어서.》

《좌우간 잘됐소.》

그들은 마차옆에서 가지런히 걸어가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고병근은 정규군의 생신한 면모가 풍기는 젊은이의 옆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불쑥 이렇게 물었다.

《시를 발표한적이 없소？ 인민군신문에말이요.》

예리한 물체에 쿡 찔리운 사람처럼 신임소대장은 반사적으로 중대장을 돌아봤다.

곽병식은 겸손때문에 자기를 숨기는 성미가 아니였다.

《있습니다. 중대장동지.》

《음…》

《그건 몇달전 일인데요. 시를 좋아하시는군요！》

신임소대장은 중대장과 자기 사이에 공통점을 찾은듯 반색을 하며 말했다. 하나 고병근은 눈을 쪼프리며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농민다운 공상에 곧잘 잠기기는 하나 시에 대하여는 전혀 문외한인 자신을 《목석》이라고 개탄하는 고병근이였다. 그저 그는 락동강에서 전사한 동생이름이 병식인지라 가슴 짜릿한 아픔과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그 무명시인의 시를 여러번 읽어봤던것이다.

이때 신임소대장이 갑자기 차렷자세를 취하더니 봉투를 정중히 내밀었다.

《중대장동지,련대참모장동지가 이걸 전하라고 했습니다.》

《뭐요？！》

고병근은 근엄한 얼굴로 봉투를 뜯더니 한눈에 쭉 훑어본다.

《진달래 1번동무,4일 정각 14시까지 13호실로 올것,13번.》

고병근은 그것을 주머니에 쓸어넣고 헛기침을 몇번 깇더니 경계하는듯한 눈을 마사원쪽에 보냈다가 마초더미우를 쳐다본다. 벌써 조칠

성은 거기에 없다.

그는 어느새 저만치 앞에서 먼지 이는 길을 따라 껑충껑충 뛰여오르며 달려가고있었다.

곽병식은 이상한 긴장을 느끼며 의아해하는 눈으로 중대장을 돌아봤다. 이 순간 고병근도 그와 시선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웃으며 무엇인가 안심시키려는듯 그의 팔을 꽉 잡아주는것이였다.

《보병에 근무해본 일이 있소?》

고병근은 아까와 같은 여유작작한 태도로 돌아와 말을 건넸다.

《예, 1차공격때 좀…》

《그때하고야 많이 달라졌지… 음, 다행이요… 시장하겠소?》

《괜찮습니다.》

《전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마초를 베며 이렇게 태평하게 지내오. 허허… 보병이야 무슨 일인들 못하겠소…》

두 군관은 마초를 높다랗게 싣고 육중하게 뚱기적거리며 굴러가는 마차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2

저녁노을이 피빛으로 타는 하늘밑으로 한떼의 새무리들이 야단스럽게 우짖으며 날아갔다.

망돌 한짝씩을 등에 업은 조칠성이와 열일곱살의 소년병사 리명보는 언덕길에 서서 그 새무리들을 시름없이 쳐다보다가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선들선들한 바람이 향긋한 향나무냄새며 씁쓸한 쑥내를 날라왔다. 전선중부쪽에서 둔중한 포성이 먼 우뢰소리처럼 울려왔다.

고병근중대장은 련대로 떠나며 부근농가들에서 빌려온 일체 쟁기들을 돌려주며 전사들을 개별임무를 줘서 외출시키지 말라는 의미심장한 명령을 내렸던것이다.

지금 두 전사는 구림이네 집에서 빌려온 망돌을 돌려주러 가는길이다.

저 아래 산기슭 버섯지붕을 한 낡은 초가집에는 50이 넘은 어머니가 홀로 살고있었다. 가난한 집에 자식만 많다고 어머니는 아들 여덟형제를 보았으나 락을 누리지 못하고 한숨속에 살아왔다. 맏아들 일림이와

둘째아들 이림이는 돌을 넘기자 홍역에 걸려 약 한첩 제대로 쓰지 못한채 숨지고말았다.

삼림이는 왜놈 《징용》에 걸려 저주로운 이국땅에 실려가다가 배가 파산되여 침몰되는바람에 현해탄의 검푸른 물결에 휘말려들어가고말았다.

불길한 《사》자를 건네여 오림이라고 이름붙인 넷째아들은 자기를 짐승처럼 모욕한 지주아들놈을 때려눕히고 도망쳤는데 먼 북만의 어느 탄광에서 일하다 갱이 허물어져내려 수천길 지심속에 묻히고말았다. 지난 세월은 어머니의 검은 머리에 일찌기 서리를 뿌렸다. 하지만 어머니도 광복후 토지를 받고 아들들을 공부시키게 되였다. 어머니는 살아남은 아들들중에서도 륙림이때문에 더욱 마음이 즐거웠고 의젓하기도 했다. 륙림은 마을 민청위원장으로서 사람들앞에 나서서 연설도 곧잘했고 일처리도 솜씨있게 해제꼈던것이다. 그러나 그 륙림은 일시적인 전략적후퇴때 유격대 소대장으로 싸우다가 부상당한 몸으로 놈들에게 체포되여 총살당했다. 칠림은 1948년도에 군대에 나갔는데 서울해방전투에 참가하고 군공메달을 받았다는 기별을 한장 날려보낸후로는 종무소식이다. 팔림은 인민군대에서 싸우다가 외국에 류학을 갔고 막냉이 구림은 작년 열여섯살에 군대에 간다고 집에서 도망친후 소식이 감감했다. 지난 세월 몸매 다부진 이 어머니의 아들들은 넓은 아시아판도에 값없는 유골로 묻혔다면 광복후 나머지 아들들은 조국을 위해 성스러운 피를 흘리며 싸웠다. 어머니는 아들들로 하여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다. 기구한 운명을 지닌 어머니는 얼핏보기에 자식들에 대한 고집스러운 노여움에 차서 살아가는것 같았다.

강씨는 전사들에게 애지중지 키워온 막내아들 구림에 대한 험악한 욕을 탕탕 퍼부어댔다.

《임자네들은 에미속을 태우지 말라구.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나. 고녀석이 제 에미 애간장을 요렇게 싹싹 태우는게 어디 가서 군관들속을 안썩이겠나…》

말은 이러면서도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애정이 극진했다. 매일 아들의 편지를 기다렸고 아들이 쓰던 수저와 밥그릇을 윤이 나게 닦아놓군했다.

어머니는 조칠성의 호방한 성미가 칠림이와 비슷하다고 여느 전사보다도 그를 더 사랑했다. 어머니는 집에 자주 찾아오는 조칠성의 엉뚱한 대포와 익살에 정을 붙였다. 그래 어머니는 그를 칠성이라 부르지 않고 칠림이라고 불렀으며 남몰래 그의 바지주머니에 구운 고구마며 삶은 강냉이이삭을 찔러넣어주었다. 하나 자기에 대한 어머

니의 남다른 애정을 자랑하고싶은 칠성은 즐겨 그것을 동무들과 나누었다. 어머니는 그들이 떠나면 허전해서 어떻게 살겠는가고 조바심하며 조칠성이더러 언제쯤 떠나는가고 자주 묻군했다. 그때마다 칠성이는 여기 그냥 눌러앉아 농사군이 될것이라고 대포를 놓았다. 어머니는 그것이 턱없는 소린줄 알면서도 마음을 놓았다.

지금 조칠성은 망돌을 업고 가면서 어머니 생각을 했다. 어머니가 눈치를 채겠는데 무어라고 말한다？…

망돌은 두 전사의 잔등을 무겁게 지지눌렀다. 그들은 아기를 서툴게 업은 사내애들처럼 망돌을 자주 추슬러올리며 뚱기적뚱기적 걸어갔다.

《칠성동무.》

《왜？》

《새 소대장동무 권총을 봤나요？… 소제하는걸 봤는데 손잡이에 이름이 새겨있어요.》

《군관학교 최우등생이야！ 우에서두 생각이 있겠지. 이 조칠성이한테 〈우로 돌앗〉, 〈좌로 돌앗〉, 〈돌격 앞으로〉 구령을 내릴 상관인데 아무나 무턱 내려보냈을고？》

《쳇…》

《시인이야… 시인이란게 뭔지 아나？ 감정이 있다는 말이거던！》

《히야— 핑장한데, 아까 군관동무들이 악수하는걸 봤는데 하늘에다 대구 축포를 탕탕 쏘구싶더란말입니다.》

《하하… 중대에 다시 운이 트는 모양이구나.》

《우리 중대 군관동무들은 얼마나 끌끌해요. 우선 1소대장동무야 더 말할게 있나요. 최호찬이라구 하면야 군단사령관동지두 알고계신데 열네개의 훈장이 가슴에 빛나구 몸에 남은 열세개의 상처자국이 그 훈장들에 어떤 값을 치렀는가를 말해주거던요. 2소대장동문 유명한 축구선수겠다, 중기소대장동무야 방어전에 소문난 곰소대장이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인젠 불어볼 때가 됐단말이야. 에이참… 명보！》

《예？》

《중대장동무가 왜 갑자기 련대로 떠났나？ 냄새를 못맡았어？》

《뻔하지요뭐.》

《아니야, 어제 큰길에 나갔다가 고향 동무를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만포에 말 접수하러 가더군. 우리두 그러루한데 뽑히는게 아니야？！》

《중대장동무가 헛기침을 하는걸 못들었나요？》

고병근의 련락병으로 한해 남짓 근무한 명보는 그의 체취며 버릇이며 속마음까지 속속들이 꿰들고있어 비밀을 지켜낼수 없었다. 그를 해임한데는 명보가 소대전투원으로 보내달라고 자꾸 조른데도 있었겠지만 이런 지나친 통찰력에도 원인이 있는지 모른다.

《틀림없어요. 전선출동이 아니면 내 손바닥에 장을 지지라요.》

《보자.》

《보라는데두요.》

조칠성은 이런 문제에서는 오랜 련락병의 말을 믿었다. 그는 피가 끓어오르고 기쁨에 가슴이 터질듯하면서도 구림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에 그늘이 비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걷는새에 어느덧 구림이네 집뒤에까지 왔다.

새 짚으로 이영을 덮은 지붕우에 박광준전사가 웅크리고 앉아서 새끼를 늘이고있었고 한철흠분대장이 처마밑에 새끼줄끝을 비끄러매고 있었다.

《야, 새집이 됐구만요!》 하고 명보가 소리치자 지붕우의 박광준이가 내려다보며 벌쭉이 웃었고 처마밑의 한철흠분대장은 의아해서 돌아보더니 사다리에서 뛰여내려 그들에게로 달려왔다.

명보에게서 중대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하여 대충 듣고난 한철흠분대장은 지붕우에 대고 내려오라고 손짓했다.

박광준은 익숙한 농사군의 솜씨로 마지막 마무리를 해놓고는 엉성한 짚을 토닥토닥 다독여놓으며 엉기적엉기적 기여내렸다.

이때 부엌에서 어머니가 《우리 칠림이 왔나?!》 하고 반색하며 달려나왔다.

《오마니, 그새 안녕하세요?》

《오냐, 어서 들어가세.》

다음순간 어머니는 전사들에게서 이상한 기색을 느끼자 얼굴색이 흐려졌다.

《아니 이사람들, 세간을 가를 때가 왔나?》

《오마니, 이 칠림의 말을 믿으시라요. 이제부턴 후방부에서 두부를 앗아서 공급한대요.》

조칠성은 미리 생각해두었던 말로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어머니는 떠나려는 그들을 한사코 마당으로 끌어들여서는 멍석을 펴고 두리반을 놓더니 방금 가마에서 쪄낸 누런 호박들을 한상 가득 차려놓았다.

어머니의 지극한 지성을 물리칠수 없어 그들은 상에 빙 둘러앉아 후한 대접을 받았다.

어머니는 간장을 떠온다, 랭수를 떠온다 부엌으로 들락날락하며 전사들에게 말을 건넸다.

《저놈들 쌕쌔기가 요새 우리 마을 다리하고는 죽자고 해보네. 벌써 네번째 끊어놓은걸 녀맹에서 들고 일어나 밤새 말끔하게 고쳐놨지… 과부로친네 집인줄 알구 업수이 보구 그런지 쩍하면 우리 집에도 내리꽂힌단말이네. 제깐놈들이 아무리 지랄해보지, 어림두 없지… 이 사람들, 저 지붕을 좀 보게나. 새 짚을 덮으니 황금지붕이야! 끌끌한 령감태기 하구 아들 삼형제가 사는 집두 이렇진 못하리!》

전사들은 호박을 입에 가득 문채 뒤로 몸을 젖히며 웃어댔다.

《들게, 어서 들게나.》

어머니는 연신 큰 호박쪼각들을 전사들앞으로 밀어놓았다.

《어머니, 저… 어머님이 미국놈을 잡았다는게 정말인가요?》

명보가 불쑥 물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러던가?!》

어머니는 저으기 난처해하며 전사들을 돌아봤다.

《다 들었어요.》 하고 조칠성이 벌쭉이 웃었다.

《아니 그 소문이 군대에까지 들어갔단말인가. 어디 뭣이라고들 이야기하던가?》

칠성은 명보에게 눈짓했다. 명보는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며 이야기했다.

《미국놈들이 쫓긴다는 소식을 듣고 신새벽에 어머니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부엌문이 왈카닥 열리며 허우대 큰 미국놈이 무명치마를 도적질해 두르고 뛰여나왔다거던요.》

《원 저런! 그래서 어쨌다던가?》

《…어머님은 얼결에 도리깨를 들고 놈을 쫓아가며 소리소리쳤다나요. 〈이 도적놈새끼야, 남의 치마는 입고 어딜 도망쳐, 서라 섯!〉 그놈은 어찌나 바빠맞았던지 제정신없이 뛰다가 그만 꼬꾸라졌답니다. 어머니는 도리깨마당질할 때처럼 놈을 몇개 후려쳐서 초벌죽음을 시켜놓고 둘렀던 치마를 북북 찢어서 놈을 타고앉아 콩단 묶듯 팔, 다리, 눈, 목을 다 비끄러매서 리인민위원회로 끌고갔다던데요.》

어머니는 펄쩍 뛰였다.

《아니 이 일을 어쩐담… 이 로친네 가슴에 메달이라두 붙이자는 심

산인가, 사람들이 왜 이리 보태기를 좋아할고… 이 소문이 퍼지구 퍼지다가 상부에서라도 알게 되면 어찔텐가？！》

《그럼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한철흠분대장이 다소 실망한 낯빛으로 물었다.

《원 사람들두… 도리깨구 치마구 누가 갖다붙여놨는지… 그놈이 글쎄 종자낟알이 든 주머니를 안고 뛰여나오긴 했지.》

《그래서요？！》

이번에는 명보가 도리여 놀라며 다그쳐 물었다.

《얼핏 생각나는게 미국놈은 허우대만 컸지 아래도리는 허재비란 말이였네. 그래서 괭이를 쥐고 쫓아가다가 아래정갱이를 겨누어서 뿌렸네. 아닌게아니라 끄꾸라지더군. 북에서부터 쫓겨오느라구 며칠 굶은놈이 분명해. 이제 말처럼 그놈을 타고앉아 새끼로 팔다리를 묶어놓고 리위원회에 알리러 갔지. 돌아와보니 싹 풀어버리고 도망친게 아니겠나… 에이구, 그때 화가 나던 생각을 하면…》

《놓쳤나요？》 하고 명보가 물었다.

《들어보게, 이튿날 아래마을 자위대에서 잡았는데 끌려서 우리 집앞을 지날 때 나를 보자 눈이 뒤집혀 외마디소리를 지르며 피해 달아나는게 아니겠나…》

《하하…》

《허허…》

《하긴 그놈이 어머니한테 단단히 혼뜨검이 났구만요！》

《하하…》

명보는 입가녁에 누런 호박칠을 잔뜩 해가지고 좋아라 웃어댔다. 천진하게 웃고있는 그를 보자 어머니는 막내아들 구림이 생각이 나 가슴이 찡 저려들었다. 가신듯이 웃음이 사라지고 모두 제생각에 잠겨 말없이 호박만 먹었다.

칠성이는 이것이 마지막 자리가 되겠구나 생각하니 어머니가 측은하게 여겨졌다.

박광준은 머리를 수굿하고 입속에서 호박을 우물우물 씹고있었다. 그는 벽에 흙매질을 하고 짚으로 이영을 올릴 때 흙물이며 짚에서 풍겨오는 행복한 옛생활의 들크무레한 향기에 가슴이 뻐근하여 내내 고향의 안해 생각때문에 달달한 호박이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다.

《아니 왜들 이러나, 들라구.》

어머니는 다시 쾌활해져서 전사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님자네들, 쌈판을 돌아다니다가 우리 구림이녀석을 만나거든 붙잡아서 볼기를 쳐주게. 제 에미를 잊어먹은 녀석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잘 싸우겠다구?》

《어머니, 걱정 말라요!》 조칠성은 벼르는척 입술을 깨물어보였다.

…곽병식은 욕심스럽게 일에 달라붙었다. 그는 빨리 중대생활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 분위기에 휩쓸리고싶었다. 중대장이 떠난 다음 소대장들과 오래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중대의 실정을 대충 료해하게 되였으며 전투의 불바다를 헤쳐온 이 오랜 보병중대의 생활력이며 인습에 적지 않은 호기심이 끌렸다.

1소대장 최호찬은 갈린 목소리로 뜨직뜨직 말했는데 그에게서는 로병의 권위와 약간의 꾸민듯한 권태도 느껴졌다. 그가 뚫어지게 바라보며 이야기할 때면 병식은 지어 위압감까지 느꼈다. 2소대장 서동길이 제일 많이 말했다. 몇달간의 강습을 받고 군관으로 제발되였다는 그는 아직 하사관의 때를 벗지 못한 티가 첫눈에 알렸다. 이를테면 박격포탄 신관보호씌우개로 만든 번쩍번쩍하는 니켈판을 덧댄 전투견장이며 모자 턱끈에 예비별 두개를 붙이고 다니는 천진한 취미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었다. 중기소대장 황득범은 내내 사람좋은 미소를 짓고있었다.

곽병식은 소대장들에게 안내되여 중대식당이며 병실들을 돌아봤다. 각 소대의 분대장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자기 소대의 무기들도 검열해봤으며 탄약 정량들을 알아봤다. 마초를 베면서도 어찌나 극성스럽게 무기를 거두었는지 흠할나위없었다. 군관학교시절에 전사의 량심을 보려거든 그의 총신을 들여다보라는 시까지 지은 그는 이 사실이 무척 만족스러웠다. 한편 소대장의 대리임무를 수행한 한철흡이란 분대장의 성실성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였으며 그를 어서 만나고싶은 조급성을 느꼈다.

안경을 낀 중대 위생지도원이 조용한 중대부에 자리를 펴주며 푹 쉬면서 로독을 풀라고 권했으나 신임군관의 흥분으로 하여 누워있을수도 앉아있을수도 없는 그는 밖으로 나왔다.

선들선들한 바람이 불어왔다. 식당쪽에서 칼도마소리가 들려오고 저쪽 산중턱에서 어느 전사가 《박—동무— 어서 내려오라요— 분대장동무가 찾—아—요—》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곽병식은 무릎을 폈다, 굽혔다 해보고는 몸을 좌우로 놀려봤다. 뼈마디마다에서 우직우직 소리가 나는것 같다. 이때 중대부옆 밤나무그늘밑 의자에 한 전사가 앉아서 무엇인가 골똘히 손질하고있는것이 눈에 띄였다.

곽병식은 그리로 다가갔다. 종이우에 시계부속품들과 수리도구들을 널어놓고 30남짓한 전사가 구식 벽시계를 수리하고있었다.
눈이 영민하게 빛나고 목이 우습강스레 길어보이는 그 전사는 벌떡 일어나 빳빳하게 서며 소리쳤다.
《전사 신찬일!》
《앉으시오!》
전사는 어줍게 웃으며 그를 쳐다봤다.
덧이에 해박은 한대의 금이만 아니였던들 이 전사의 얼굴은 퍽 호감을 주었을것이다.
《앉으시오!》
전사는 다시 앉아 익숙한 솜씨로 집게를 놀리며 시계에서 부속품들을 떼내놓았다.
곽병식은 빙그레 웃으며 종이우에 널려있는 크고작은 치차들과 눈에 거는 확대경을 비롯한 시계수리도구들을 구경했다.
《시계수리공》이 먼저 말을 건넸다.
《평양서 오시나요?》
《예, 평양에 들렸댔습니다.》
《모란봉에 지하극장이 생겼다면서요? 궁전같다지요?》
《예.》
《영화도 합디까요?》
《영화두 하구 매일 예술공연이 있습니다!》
《경상골에 살았시다.》
《예… 수리도구들은 모두 집에서 가지고 온겁니까?》
《휴— 력사가 있시다.—》
곽병식은 호기심이 끌렸다.
《언제 입대했습니까?》
《저두 50년 10월에 입대했지요.》
그의 목소리엔 긍지가 울렸다.
준엄한 일시적전략적후퇴시기 수령님의 10월방송연설을 받들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무장을 잡고 조국수호에 떨쳐나섰는데 이 전사도 그중 한사람이였다.
《예— 그렇습니까!》
곽병식은 대견한 생각이 들어 반가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협동에서 일했지요. 길건너편에 개인시계포 두집이 있었는데

우리를 좋아하지 않았거던요. 그놈들은 왜정때 수리공들을 많이 고용해서 돈벌이하여 배를 두드리면서 살던 자식들이였으니까요. 다른 개인시계포들은 교양을 받아서 협동의 길로 많이 나왔으나 그자식들은 우리가 협동을 무어가지고 신용있게 헐값으로 시계를 고쳐주면서 손님들을 모조리 끌어당기는게 속이 꼬여서 은근히 앙심을 품었단말입니다.

하루밤 어떤놈이 우리한테 망짝같은 돌멩이를 던지구 내뺐시다. 유리구 부속이구 산산 부서지구 란장판이 됐지요. 길건너집 놈팽이들 작간인게 뻔하지요. …대들이판싸움이 붙었시다. 치구 받구 이마가 터지구… 그때 나두 이발이 부서졌시다. …》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그놈들은 남으로 내뺐시다. 알고보니 그놈들은 시내에 숨어있던 악질반동놈들의 꼬임을 받아 못된짓을 한두번만 한게 아니였지요. 에— 그자식들을 놓친걸 생각하면 그저…》

《하하하… 아니, 이발까지 부러뜨리면서 그까짓놈들을 때려엎지 못했단말이요?!》

신찬일은 자기도 어처구니없다는듯 어색하게 웃더니 귀밑이 불깃해지며 시계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나사틀개를 쥐였으나 일손이 잡히지 않는듯 후— 한숨을 내쉬였다.

《…에이구, 후퇴직전에 평양이 불타는걸 보니 가슴이 터집디다요. …녀편네는 길건너집놈들이 미국놈들 꼬리에 묻어 들어오면 앙갚음을 하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날칠텐데 어찌겠느냐, 없는 재간에 왜 손찌검은 했느냐고 근심하거던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 꽥 소리지르고 그깐 놈팽이들은 내 새끼손가락으로도 해치울수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아닌게아니라 속이 좀 떨리긴 합디다요. 후퇴지시를 받고 옆공장으로 달려가보니 모타랑 마차에 싣구 길을 떠난단말입니다. 우리 기계란거야 점심곽 하나면 다 들어가지요. 그래서 얼른 챙기구 길을 떠났습니다. 포부대를 따라 강계까지 갔는데 그들이 저를 버리지 않구 먹여주고 나중엔 아주 받아줬지요. 제가 뭘루 그 은혜를 갚겠나요.… 점심곽을 열구 이놈을 끼구 포부대 군관들 시계를 고쳐올렸지요.… 에이구, 이놈 소시민 짓을 그만두려구 몇번 마음먹었는데 군대란게 알구보니 시간을 목숨처럼 여깁디다. 그래 일감이 계속 생기구 이날 이때까지 짬만 생기면 이 짓이지유… 군단참모장 시계두 제가 고쳐올렸시다.… 여기 와보니 보병들 시계란게 말이 아니군요. 유리가 성한게 있나, 긁히구 오그라지구 한본새로 그 모양이지요. …》

《중대에 이런 시계도 있습니까?》

《예— 이건 저기 인민들 집게지요. 구림이네라구 요전 폭격을 맞을때 떨어져서 망가졌지요. 분대장동지랑 모두 그 집 수리하러 갔습니다. 저는 그저 이런 일이나 하지요. 예, 저기 옵니다.》

돌아보니 듬성듬성하게 선 애솔나무들 사이로 네명의 군인들이 걸어오고있었다. 가까이 오는것을 보니 그들은 삽, 괭이, 도끼 등 작업도구들을 들었고 한팔에는 호박 한개씩을 안았다. 분대장뒤에 선 조칠성이만은 보병삽 한개를 쥐였을뿐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곽병식은 그들에게로 마주 걸어갔다.

중키에 모든것이 두리뭉실하게 생겼으나 몸에서 하사관의 절도가 풍기는 분대장이 정보로 걸어와서 필요이상 높은 목소리로 류창하게 보고했다.

《소대장동지, 분대장 한철흠외 3명은 후방가족 집을 수리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오랜 하사관생활에서 생긴 버릇인듯 경례를 붙인 손쪽으로 머리를 갸웃하고 보고했다. 그의 몸에서는 드팀없는 신념과 억센 의지력이 풍겼다.

《곽병식이라고 하오. 같이 싸웁시다!》

한철흠은 차렷자세를 취하며 소대장의 손을 덥석 잡았다.

《수고 많았겠습니다!》

《옛… 기다렸습니다!》

두사람은 마주보며 정겹게 웃었다.

곽병식은 뒤에 서있는 나이들고 무던해뵈는 전사에게로 걸음을 옮겼다. 그 전사는 손에 든 괭이며 호박을 얼른 내려놓고 손바닥을 엉뎅이에 대고 문질렀다.

곽병식이가 손을 내밀자

《전사 박광준!》 하고 크게 소리치고는 허리를 굽히며 손을 잡았다.

조칠성이와 명보는 소대장과 이미 구면이란듯 빙그레 웃고있었다. 명보의 입가녁엔 아직도 누런 호박칠이 묻어있었다.

곽병식은 명보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뭘하고계시오?》

《제철소에서 로장으로 일하다가 후퇴때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조칠성이가 벙글거리며 끼여들었다.

《로동계급대표이지요!》

저녁에 중대오락회가 열렸다.

식당옆 공지에 소대별로 빙 둘러앉아 노래를 불렀고 각 소대에서 경쟁적으로 뛰여나와 장끼들을 부렸다. 박수를 치고 발버둥치며 웃어대기도 했다. 전사들은 무랍없이 군관들을 끌어냈으며 나오지 않으면 온 중대가 떨쳐일어나 《나오시오！ 나오시오！》 부르짖으며 박수의 《집중포화》를 들씌웠다. 하는수없이 끌려나간 《곰소대장》 황득범은 눈을 부릅뜨고 큰기침을 세번하고는 뛰여들어왔다. 전사들은 그것도 좋아라 웃어대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들의 장끼는 익살이 태반이였다. 그것은 예술발표라기보다 끓어번지는 열정과 기백의 시위였다.

이렇게 웃어대고 떠들어대다 맥이 진하여 오락회가 식어갈쯤 되여 누군가 《조대장 나오시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와 웃음이 터지며 온 중대가 떨쳐 일어나 폭풍같은 박수를 들씌웠다. 여태 웃지도 않고 시무룩해 앉아있던 조칠성이는 사양하는척했다. 1소대 전사 4명이 달려와서 그의 팔을 잡아끌었다.

《조대장 나오시오.—》

《조대장 나오시오.—》

전사들은 박수를 치며 목이 터지게 부르짖었다.

갑자기 조칠성은 팔을 끄는 전사들을 힝 밀쳐버리고 공중제비를 두번하더니 복판에 가 떡 벋딛고 섰다. 와— 웃음이 터졌다.

하나 칠성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져있었다. 그는 허리를 구부정하고 오그라쥔 두주먹을 쌍안경처럼 눈에 갖다대며 두리번거렸다.

그는 갑자기 손으로 자기 궁둥이를 탁 쳤다. 그리고는 쏜살같이 내달렸는데 그것은 적진으로 돌진하는 기마병의 모습이였다. 칠성이는 말타는 흉내를 내며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오락회장을 돌았다.

전사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며 와—와— 떠들어댔다.

곽병식은 놀랍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여 웃음이 나가지 않았다. 옆에 앉은 최호찬소대장이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몇번 그의 표정을 곁눈질해보는것이 느껴졌다.

《기병》은 입술을 깨물고 허리를 바싹 낮추며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아마 비발치는 탄우속을 헤쳐가는 모양이였다. 별안간 그는 말울음소리를 내질렀다.

전사들은 와— 떠들며 웃어댔다. 곽병식이도 웃음이 나왔다. 최호찬소대장은 그를 돌아보며 아직 더 있다는듯 눈을 끔쩍해보였다.

신바람이 난 《기병》은 질풍같이 달려나가더니 공중제비를 서너번하여 굴러가서 벌렁 넘어졌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무릎을 꿇고

앉더니 손으로 땅을 쓸어만지며 어깨를 들먹거렸다. 쓰러진 군마의 갈기를 쓰다듬으며 소리없이 우는 기사의 모습이였다. 중대는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다. 곽병식이도 가슴이 별스러워났다.

갑자기 칠성이는 벌떡 뛰여오르더니 오른손을 높이 쳐들며 무엇이라고 부르짖는듯 입을 쩍 벌렸다. 전사들속에서 누군가 보총을 던졌다. 그는 뛰여오르며 총을 잡더니 육박격투를 벌렸다. 그의 눈은 열기를 뿜으며 번뜩거렸다. 그는 번개같이 달려나가며 총창으로 허공을 찌르고는 발로 찼으며 어느새 총탁판을 휘둘러쳤다. 총창은 그의 아래우 좌우량옆에서 번개처럼 번쩍거렸다. 그는 입을 쩍 벌리며 뒤걸음질치더니 몸은 뒤로 공중제비를 하고 총은 허공에 뿌리워 올라갔다. 그는 다시 뛰여오르며 총을 잡더니 앞으로 달려나가며 찌르고 또 찔렀다. 그러면서 코소리로 말울음소리를 질렀다. 총창을 번쩍 쳐들었던 그는 말울음소리에 놀란듯 뒤를 홱 돌아보더니 달려오는 《새 군마》에 뛰여올랐다.

경탄의 부르짖음, 박수갈채, 조칠성이는 《군마》를 타고 전사들앞을 지나가면서 총을 높이 들어 답례했다.

전사들은 와—와— 환성을 올리며 박수를 쳤다.

《조대장—》

《조대장—》 하는 부름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졌다.

오락회가 끝난 다음 곽병식은 서동길소대장과 함께 병실주변 풀밭을 거닐었다.

하루살이떼들이 이상야릇한 소리를 내며 눈앞에서 맴돌았다.

곽병식은 쑥대로 다리를 때리며 머리를 수굿하고 걸었다.

서동길은 손으로 하루살이떼들을 쫓기도 하고 발길로 풀을 툭툭 차기도 하면서 유쾌한 얼굴로 수다스럽게 이야기했다.

《…오늘 오락회는 최호찬소대장이 마련한겝니다. 나두 처음 와서 이런 오락회대접을 받았는데 그 익살과 기세에 눌려 주눅이 들었댔습니다. 굉장하지요! 조칠성이는 최호찬동무가 키운 사람입니다. 왜정때는 곡마단배우도 했다고 하는데 그 친구 말이야 모르지요.… 중대의 익살대장이구 싸움군이지요. 소대장동무가 새로 온데다가 조칠성이까지 가졌으니 3소대는 운이 튼셈이지요. 허허… 어떻습니까. 중대가 맘에 듭니까?》

곽병식은 진짜 보병들의 거창한 생활속으로 왔다는 가슴벅찬 환희와 함께 자신도 가늠할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으로 스며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놀라운 상봉과 인상으로 하여 어정쩡해진 그는 자기 감정을 분석하고 판단해볼 여유조차 없었다. 그저 오랜 전투생활에서 고생도 많이 한 이들의 모든것을 존중시해야 되겠다는 겸손한 마음이 앞설뿐이였다.

《예…》

《나두 처음 배치되여와서 며칠은 뗑했습니다. 지내보면 중대란것도 사람들처럼 성미가 저마끔이거던요. 우리 중대는 익살이 세단말입니다.…》

《그런것 같구만요.》 곽병식은 미소를 지었다.

《익살이 있어야 어려운 때 이겨내기 쉽고 쌈하기도 헐하지요. 나도 처음엔 서먹했는데 익숙해지니 참 흥겹단말입니다. 내가 배치되여온지 며칠후의 일인데 전사들이 〈련대공병들이 호감자 심으러 나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알고보니 지뢰매설하러 나온다는 소리지요. 이렇게 전선보병들은 자기나름의 결말을 쓴단말입니다. 적들의 60미리박격포는 〈재채기포〉, 그놈 박격포 쏘는 소리가 독감에 걸린 사람이 재채기하는 소리와 같다는게지요. 정찰기는 〈빨간 주둥이〉, 구라망은 〈달구지〉, 포지휘기는 〈잠자리〉, 직승기는 〈까투리〉, 적 감시병은 〈소경〉…》

서동길은 엮어내려갔다. 곽병식은 자기가 군관학교에 가있는 사이 보병들의 생활이 새롭게 만들어낸 결말들을 들으며 껄껄껄 웃었다.

3

이날밤 곽병식은 잠들수 없었다. 군관학교졸업식에서부터 보병들의 결말에 이르기까지, 이 한달동안 그가 느끼고 체험한 인상들은 너무나 아름찬것이였다.

가슴을 뒤흔드는 취주악이 울리고, 표창선물 권총을 수여받았을 때 곽병식은 영예와 행복과 그 어떤 설음으로 하여 무기를 가슴에 꽉 대며 소리없이 울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칠 때마다 그의 가슴에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솟아올랐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의 기관총수였던 아버지는 사령부의 안전을 위한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했었다. 전우들은 구만리로 비낀 조국의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를 무한령 높은 령마루우, 매도 날아오르지 못한다는 상상봉에 묻었다.

혁명가요의 장엄한 선률이 장내를 가득 채우는 속에서 아들은 먼 무한

령의 령마루에서 아버지가 내려다보는것 같은 숭엄한 감을 체험했다.
그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었을 때 주석단에 정중히 모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최고사령관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그를 내려다보고계셨다.
수령님의 시선앞에서 그의 가슴은 확 불타올랐다.
《…아버지처럼 조선혁명과 장군님께 마지막피 한방울 남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혁명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곽병식은 그 불타는 열정과 흥분을 그대로 안고 결사전의 불바다 속에 뛰여들고싶었다.
하지만 정규적군사교육을 받았으며 총명하고 전도가 유망한 젊은 군관은 총참모부 장령들의 마음을 끌었다. 몇몇 장령들이 그와 담화했다. 그에겐 당과 최고사령부에서 중책을 맡아보는 장령의 부관자리가 마련되여있었다.
그것은 책임적이고도 영예로운 사업이였다. 게다가 외국군사대표단과 사회활동가들과의 회견을 준비하거나 모란봉지하극장에서 열리는 회의들에 참가하고 영화와 예술공연도 관람하는 등 젊은 군관의 정서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생활이 전혀 그를 유혹하지 않은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곽병식은 전선으로, 그것도 가장 어려운 난관과 엄격한 조건이 있는곳으로 보내달라고 간절히 청원했다. 곽병식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의 날까지 수령님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투사로 되자면 자기의 정신력을 완강하게 단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의미에서도 그는 자기가 생애에서 가장 의의있고 중요한 시기에 들어섰다고 생각하였다.
간부부는 그에게 하루의 휴식을 주었다.
곽병식은 평양시내로 나갔다. 그날 마침 평양은 전대미문의 대공전투를 벌리고있었다. 적 대형폭격기 편대들이 하늘을 덮었고 유구한 력사를 가진 대도시는 불바다에 잠겼다.
조국의 수도는 불멸의 전사처럼 복수전에 일떠섰다. 모란봉과 만수대, 대동강반과 보통벌, 평천벌과 가루개, 파괴된 고층건물의 옥상들에서 숲을 이룬 고사포와 고사기관총들이 하늘을 향해 보복의 불을 뿜었다. 치솟는 화염과 시꺼먼 연기에 덮인 하늘에서 적기들이 불덩어리가 되여 떨어졌다. 직탄을 맞은놈은 허공에서 산산쪼각이 되여 흩어졌으며 빗맞은놈은 검은 연기를 뿜으며 뺑소니치다가 미림벌판에 가 구겨박히고말았다.
우뢰치는 포성, 포성, 대지는 진감하고 수도의 상공은 고사포탄의 연기로 새까맣게 덮였다.

적기들의 비명, 고사포지휘관들의 《쏴！》《쏴！》《쏴！》 하는 피타는 목소리들, 제속창처럼 시꺼먼 연기를 토하며 하늘높이 치솟아오르던놈이 재차 명중탄을 맞아 불덩어리가 되여 흩어졌으며 한쪽 날개가 부러진놈은 락엽처럼 빙글빙글 돌며 대동강 한복판에 떨어져 하늘에 치솟는 물기둥을 일으켰다.

력사깊은 평양은 침략자들에게 자기의 주먹맛을 톡톡히 보이고있었다.

파괴된 어느 2층 벽돌집 옥상에는 백발이 성성한 로인이 지팽이를 짚고 서서 하늘을 쳐다보며 적기들이 박산이 될 때마다 《그렇지 그래！ 이놈들！ 허…허…허…》 하고 온몸을 떨며 너털웃음을 웃었는데 그것은 그대로 평양사람들의 꺾이지 않는 기상을 시위하는것 같았다.

전투가 끝나자 평양은 복구대의 노래소리로 들썩했다.

군인들, 녀인들, 아이들 할것없이 떨쳐나와 불을 끄고 허물어진 토굴집을 수리하고 거리를 청소했다. 곽병식은 그들속에 끼여 하루종일 일했다.

곽병식은 가슴이 터지는듯한 감격을 안고 거리를 헤매였다.

자기의 행복한 청춘시절이 흘러간 도시의 거리거리로 걷고 또 걷고싶었다. 도시 요소요소에서 아직도 불길이 타오르고있었다. 파괴된 집들, 물이 고인 폭탄구뎅이들, 숯으로 된 가로수들…

그의 가슴은 란도질을 당한듯 저려났다.

그가 모교에 도착한것은 밤이 이슥해서였다.

반나마 파괴된 건물의 우중충한 벽체가 그 어떤 신성한 분노의 상징처럼 말없이 서있었다. 공지에 긴 그림자를 늘어뜨린 벽체의 창구멍들로는 눈부신 달빛이 각광처럼 쏟아져내리고있었다. 아, 창문마다 밝은 얼굴들이 있었던곳, 층계마다, 복도마다 웃음소리 랑랑했던곳, 밀물처럼 밀려드는 갖가지 추억에 곽병식의 가슴은 터질것만 같았다.

그는 폐허에 깃든 태고연한 정적에 눌려 조용조용 현관층계로 올라가다가 가늠할수 없는 생활의 온기에 놀라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층계와 복도를 누구의 손길인가 말끔히 쓸어놓고있어 깨진 벽돌장 하나, 부서진 유리쪼각 하나 밟히지 않았다. 학교 둘레에는 잡초들이 말끔히 뽑아져있었고 누구의 손길인가 화단도 예전처럼 알뜰하게 가꾸어놓은것이 분명했다.

그는 화단속으로 뛰여들어갔다.

달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는 이슬을 머금은 꽃들이 살랑살랑 설레며 수집은 미소를 날리고있었다. 그는 알지 못할 손길에 대한 고마움과 사무치는 감회에 젖어 꽃속에, 향기속에 얼굴을 묻고말았다.

곽병식은 운동장에 뛰여가 보고 기숙사로 달려갔다.

기숙사지하실문옆에 삐여져나와있는 나지막한 쇠통굴뚝에서 연기가 몰몰 피여오르고있었다.

그는 널문을 열고 들어갔다.

《계십니까？》

안에서 《거 누구요？》 하는 굵은 목소리가 울렸다.

곽병식은 안문을 열고 들어갔다.

천장이 낮은 방안에 김이 뽀얗게 서려있고 촉수낮은 흐릿한 전등불빛에 부엌에서 엉거주춤 일어서는 아바이의 모습이 보였다. 철이른 솜저고리를 입은 그는 아닌밤중에 찾아들어온 젊은 군관을 빤히 쳐다봤다.

곽병식은 첫눈에 그를 알아봤다. 기숙사 식당부엌에서 무연탄을 때던 《박아바이》였다. 황해도 안악땅에서 어느 지주집 머슴을 살던 그는 홀아비품에서 자란 아들이 장군님의 은덕으로 예과에 오게 되자 애국미 한달구지를 싣고 올라왔다가 그냥 대학에 눌러앉게 되였던것이다.

《아버지！》

《누구요？》

《박아바이,접니다. 곽병식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는 군모를 벗어보였다.

아바이는 실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아니,이게 2층 47호 아니야？！》

《예,그렇습니다！ 2층 47호 실장입니다！》

아바이는 부엌에서 뛰여오르더니 돌같이 굳은 손바닥으로 그의 손을 덮쳐쥐였다.

둘이 가마목에 가지런히 앉았을 때 그는 곽병식의 잔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이 그렁하여 말했다.

《큰사람이 됐군그래… 우리 두꺼비두 소대장이야…》

《아버지,왜 아직 여게 계십니까？》

《내가 어디루 가겠나. 님자네들 군대로 갈 때 뭐라고 했나. 미국놈을 치구 인차 돌아오겠는데 책이랑 짐들이랑 잘 봐달라구 했지. 그래 이불짐이랑 일기책이랑 감춰놓구 지키구있었지. 요새는 낮이면 양말공장에 나가네…》

《후퇴때도 여게 계셨나요？》

《그랬네.》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고생이야 님자들이 더 했겠지. 하긴 나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네. 후퇴때는 저 물리학부 실험실 허물어져내린 층막짬에 온돌을 놓구 기숙사 열쇠랑 가지구 숨어있었네. 눈이 내리면 밤마다 나가서 학교둘레를 쓸어놓았지, 한데 괴상한 소문이 퍼졌네. 저 허물어진 빈 학교터에 귀신이 살고있는데 밤마다 눈을 쓸구 깊은 밤중이면 빈 복도로 다니며 뗑뗑 종을 친다구말이야. 하긴 3층천장에 양철판이 걸려있었는데 그놈이 밤마다 바람에 시끄럽게 뎅강뎅강 소리를 냈지.》

《하하하… 그래서요?》

《좀 얘기를 들어보게. 후퇴하다가 학교에 들린 동무들이 나한테 수류탄 세발을 주고 가면서 쓰는 법까지 대줬지. 이걸로 몇놈이나 잡을수 있는가고 물었더니 잘만 쓰면 쉰놈은 넉근히 잡을수 있다는게 아니야. 나는 그놈을 문고리에 달아매서 줄만 잡아채면 터질수 있게 덫을 만들어놨네. 맘이 든든해지며 담이 커지더군. 하루는 어슬막녘인데 세녀석이 학교로 들어오더군. 옳지, 이 더러운놈들 혼쌀 나봐라. 그놈들을 내가 만든 덫으로 끌어들일 심산으로 모래 한줌을 쥐고 엉기적엉기적 걸어나갔네. 그때 내 주제란게 말이 아니였어. 몸엔 누데기를 걸쳤지, 보름씩이나 세면을 못한데다 수염이 텁수룩한게. 나는 그놈들 앞길을 막아 현관앞에 나섰네. 그놈들도 나를 보더니 뚝 멎어서더군. 보니깐 미국놈과 괴뢰장교 하나에 왜가리처럼 목이 쏙 빠진 〈치안대〉놈이 따라왔더군. 나는 떡 뻗치구 서서 놈들을 쏘아봤네. 〈치안대〉놈은 〈학교귀신〉소문을 들었던지 비실비실 뒤걸음치더군. 옳지 됐구나 생각하구 나는 입을 짝 벌리며 하품을 했네. 장교놈은 권총을 뽑으며 〈넌 누구야?〉하고 겁에 질려 버럭 소리쳤는데 그 소리가 학교벽에 부딪쳐 쩡 메아리치는통에 더 으시시해졌지. 옳지, 이때로구나 하구 그놈 상판에 모래를 확 뿌리며 하하하… 너털웃음을 웃었네. 〈치안대〉놈이 멱따는 소리를 내며 혼비백산해서 뛰는통에 두놈 다 화닥닥 놀라며 들구빼더군. 그래서 잡지는 못했지만 그후부턴 어느놈 하나 이 학교에 얼씬 못했다네.》

곽병식은 아바이의 두손을 잡고 눈물이 날 지경으로 웃어댔다.

《아버지, 정말 학교를 멋지게 지켜냈군요!》

《허허허… 그놈들이 시라소니 돼서 그렇지.》

아바이도 눈물을 씻으며 웃었다. 즐거운 이야기는 계속되였다. 수요일과 토요일의 맛좋은 특식이며 일요일의 영화구경이며 아바이의 애를 태우던 기숙사 말썽군들에 대하여…

《아버지, 여기까지 오니 교실이 보고싶군요!》

아바이는 의미심장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더니 부엌으로 내려가 불이 황황 붙는 장작개비 두가치를 들고 나왔다.

《따라오게！》

아바이는 불붙는 장작개비를 홰불처럼 들고 대학의 긴 복도로 걸어갔다. 곽병식은 그의 뒤를 따라 낯익은 교실로 들어갔다.

아바이는 장작불을 높이 쳐들어 환히 교실안을 비쳐주었다. 아바이의 알뜰한 손길로 마루바닥은 깨끗이 쓸어져있고 책상들은 예나 다름없이 줄지어있었다.

곽병식은 시야를 넓혀주던 흥미있는 강의와 학과토론들,민청회의 그리고 랑만적인 꿈으로 차고넘치던 학창생활의 가슴벅찬 감회로 하여 차츰 목이 메고 숨이 차올랐다.

《아버지,더러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었나요？》

《아무렴,왔댔네. 금년 이른봄 어느 날일세. 여기서 인기척이 나서 올라와보니 한 특무장이 저 뒤줄 책상에 앉아있는게 아니겠나. 생각나나,우리 기숙사 〈대식가〉말이야.》

《성팔이말입니까？》

《음,병원에서 퇴원해서 전선으로 나가는길이라나. 나를 막 부둥켜안고 돌아가며 전쟁의 불바다속에서두 기숙사 밥맛을 잊지 않았노라면서 웃어대더군. 여전히 호걸이야. 그 사람한테서 여러 동무들 소식을 들었네. 오규식이는 고사포 지휘관이 돼서 미국놈 비행기 여섯대나 떨구고 영웅이 됐다는구만. 그리구 저 3층 5호실에 있던 축구선수 생각이 나나？》

《고현수동무말입니까？！》

《음,그래. 그 사람은 소대장인데 인천방어전투때 미국놈 수백놈을 쓸어눕히고 국기훈장1급을 수여받았다더군. 참,모두들 장하게 싸웠어.》

학창시절의 친우들의 소식은 그의 젊은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곽병식은 격동된 심정으로 아바이를 돌아봤다. 이글거리는 아바이의 눈은 자랑으로 빛나고있었다.

《2층 6호실에 자네들이 〈부정의부정의법칙〉이라고 부르던 키큰 학생이 있었지. 그 동무 이름이 창민이던가？》

《예,철학강좌 박인학교수선생님앞에서 늘 땀을 뺀다고 그렇게들 놀려줬지요.》

《그 동무도 찾아왔댔어.》

곽병식은 성급하게 물었다.

《어디 있답디까？》

《사람이 통 알아볼수 없게 름름해졌더군. 어느 포부대 지휘관이야. 나한테 주소까지 적어두고 갔는데… 글쎄 물리학강좌 성일수선생님이 그 부대에서 복무하는데 모범전투원이라는구만. 사모님을 만나면 꼭 소식을 전해달라고 당부했네. 그리구 또 그 사람과 같은 호실에 윤영남이라고 있지 않았나…》

《예!》

《영남이는 인민유격대 소대장으로 적지휘부들을 들이쳐서 큰 공을 한두번만 세우지 않았는데 그만 놈들한테 잡혀서 잘못됐다네. 저 짐승같은놈들이 영남이를 빈집기둥에 묶어놓고 불을 질렀는데 이사람아, 불길이 충천하는 그 집속에서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끝까지 울려나왔다네… 장하지, 장해!… 나는 여기 있으면서 참 뜻밖의 일들을 여러번 당했다네. 글쎄 어느날 새벽인데 이쪽에서 말소리같은게 나는것 같아 와보니… 이 교탁에 어떤 전사가 서서 교실안에 민청원들이 가득 차서 회의라도 하는 때처럼 방안을 둘러보면서 나직하면서두 가슴이 터지는 소리로 말하는게 아니겠나. 〈동무들, 평화시기에 동무들의 비판을 제일 많이 받았던 나는 화선에서 피로써 과오를 씻고 입당했소. 동무들, 장군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나는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우겠소! 동무들,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남호철이야! 에이구, 그 녀석이 얼마나 반가왔던지! 둘이서 막 안고 돌아가며 울었네… 호철이는 자기 사진이 실린 신문까지 나한테 주고 갔네… 또 한번은 어떤 얌전하게 생긴 간호원처녀가 찾아왔지. 처녀 말이 현종우란 분대장이 자기네 야전병원에서 치료받고 곧장 적후로 들어갔는데 자기는 이 대학 조문과 1학년생이라면서 모교에 가서 자기 소식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누만. 처녀소행이 얼마나 고마왔던지 내 멀리까지 바래웠다네. 그런데 이 늙은 정신에 그만 처녀 이름을 묻질 못했네그려.》

《현종우동무가요?!》

《음, 고지에서 적의 공격을 마흔일곱차례나 물리친 영웅이라네. 다들 정말 수령님의 품에서 자란 젊은이들답게 잘 싸웠어…》

곽병식은 현종우가 앉았던 창곁, 제일 앞줄의 자리로 가서 걸상에 앉았다.

커다란 격동에 사로잡힌 그는 지난 생활의 행복한 추억들과 벗들을 만난듯한 환희 그리고 이름할수없는 비분때문에 두팔로 책상을 짚고 한동안 머리를 수굿하고 앉아있었다. 이윽고 그는 아바이의 손에서 불붙는 장작을 받아쥐고는 책상줄들 사이를 천천히 누비며 친우

들이 앉았던 자리에서 자리로 눈길을 옮겼다. 그 자리들에서는 그립고 정다운 얼굴들이 자기를 쳐다보며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고있는 이 시각 그대는 어떻게 살며 싸웠는가고 묻는듯했다. 그는 이렇게 거닐며 친우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앞에 그려보면서 젊은 가슴에서 터져오르는 불타는 맹세의 말들을 거듭 속삭이고싶었다. 숨결은 걸음마다 세차지고 몸가짐도 격렬해졌다.

아바이는 그의 앞을 막아섰다.

《이사람아, 그만하고 쉬자구.》

《아버지, 전선으로 떠나겠습니다!》

아바이는 그의 손을 덥석 쥐였다.

《떠나려나?!》

《이 밤으로 떠나겠어요. 동무들 못지않게 싸우겠습니다!》

하늘에서 폭음이 우뢰쳤다. 적야간폭격기편대들을 요정내는 고사포탄들의 화광이 번개치듯 번뜩이고 탐조등의 줄기찬 불빛이 대도시의 상공을 환히 밝히고있었다.

바깥에 눈길을 돌렸던 아바이는 물기가 떠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더듬더듬 말했다.

《떠나게… 잘 싸우라구! … 영웅이 되라구! … 어느 하늘밑에 가서나 평양을 잊지 말라구! …》

《아버지!》

…전사들의 코고는 소리가 생각을 깨쳤다.

곽병식은 몸을 일으켜 잠자는 전사들을 돌아보았다. 밤늦도록 소대장에게 소대의 실정과 대원들에 대하여 차근차근 이야기해주던 한철흠분대장은 반듯이 누워서 조용한 얼굴로 자고있다.

저쪽에서 조칠성은 모포를 걷어차버리고 막 엎어져 자고있다. 박광준은 자면서 불길한 꿈이라도 꾸고있는지 신음소리를 내며 허리를 꼬부린채 자고있다. 명보는 날개처럼 두팔을 벌리고 쌔근쌔근 숨소리를 내며 잔다. 그들의 얼굴들처럼 그들의 숨결소리도 서로 달랐다. 어떤 전사는 입을 하— 벌리고 코를 드렁드렁 고는가 하면 어떤 전사는 죽은듯 조용히 숨쉬고있었다. 또 어떤 전사는 푸푸 불며 소란스럽게 자고있었다.

그들의 숨소리들에는 지난날 삼복더위밑에서 조발을 매던 때의 단숨결이며 열풍을 내뿜는 로앞에서 삽질을 하던 때의 거센 숨결소리와 탄광막장에 탄차를 밀고 나오던 때의 가쁜 숨소리들이 아직도 가시지 않

고 배여있는것 같았다.

곽병식은 정어린 눈매로 대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돌아봤다.

그는 군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자기가 맡게 될 소대에 대하여 공상하며 전혀 이런 얼굴들을 상상한것 같지 않았다. 지금 그 얼굴들은 엄연한 현실로 그의 앞에 줄지어 누워있는것이다.

《아, 저들도 나처럼 각이한 길을 거쳐 싸움의 거센 흐름에 실려 여기 이 좁은 토굴에 이르렀겠지. 이제는 직장장, 반장, 로동자, 아버지, 외삼촌이 아니라 경기사수, 1보총수, 2보총수, 3보총수로 되여 이렇게 나란히 누워있다. 나보다 손아래 나이는 열명도 안된다. 나는 자기의 구령으로 이들을 돌격에로, 결사전에로 이끌고 가야 한다.》

곽병식은 저도모르게 무거운 숨을 내쉬였다.

제 2 장

장 마 행 군

1

보병들이 행군하면 의례 비가 오고 높은 령이 앞을 막아서는것이였다. 하여 노래에서도 오르면서 칠십리 내리면서 칠십리… 가벼운 안개도 힘겨워선가 무거워선가 높은 령 중턱에서 잠들고말았다고 불리우지 않았던가.

가을장마는 계속되고 련대는 가파로운 운산령을 톺아오르고있었다.

령 중턱부터는 짙은 구름에 덮여있었다. 행군대오의 머리는 이미 그 구름속에 삼키워버린지 오래고 꼬리는 아득히 내려다뵈는 저 아래 계곡의 젖빛 안개속에 묻혀있었다. 머리는 어디까지며 꼬리는 그 어디까지냐… 외줄로 늘어선 전사들의 길고 긴 대오가 안개속에서 빠져나와 구름속으로 기여들어가고있었다. 후날 전사들은 이 행군을 《장마행군》이라고 불렀다.

전사들은 빽빽이 들어선 고목들과 천년 이끼오른 기암절벽들의 짬으로 새여나간 길을 따라 간신히 한걸음,한걸음 령을 톺아오르고있었다. 운산령의 령길은 그 옛날 세상을 등진 은둔자들의 발길에 닦이여지고 등산가들과 지질학자들의 탐구열로 하여 풀넝쿨에 덮이지 않고 남아있던 가파로운 길이였다.

공병들이 닦아놓은 넓은 전략도로와 19세기말부터 닦이여진 3등도로를 버리고 강태욱련대장은 어찌하여 이런 심산속 험한 길로 련대를 이끌었던가？

모든 배비변경이 다 그러했지만 이번의 군단배비변경,수만대군의 이동은 은밀한 비밀준수를 요구했다. 보병들의 대도로행군은 금지되였다.

련대와 구분대단위로 깊은 계곡과 령마루의 오솔길을 따라 눈에 띄지 않게 전선으로 슴새여나가게 되여있었다.

비는 짝짝 퍼부었다. 하늘과 대지가 그대로 비줄기로 이어진듯했다.

강행군에 화끈 단 전사들의 덜미에서는 김이 문문 서려올랐다.

3중대는 사흘만인 오늘아침에야 행군중에 있는 련대를 따라잡았다.

그들은 낮에 밤을 이어 달려왔었다. 련대로 돌아왔다는 기쁨이 한동안 전사들의 다리에 힘을 돋우었으나 령중턱에 와서 모두 헐떡거렸다. 한시간이나 에돌아올라갔으나 아래를 내려다보면 자기들의 지나온 그 길을 따라오는 다음 구분대 전사들의 머리가 바로 발밑에 내려다보이는 짜증나는 길이였다.

《앞으로 전달, 돌을 굴리지 말것!》 하는 전달이 지쳐버린 전사들의 입에서 입을 거쳐 아래에서 구름속대오를 따라 흘러올라갔다.

이런 때 부주의하여 돌을 굴리면 하나의 돌이 다른 돌을 쳐서 굴리고 그 돌들이 또 다른 돌들을 굴려 삽시에 행군대오는 무서운 돌사태의 벼락을 맞기 쉬운것이다.

《앞으로 전달, 돌을 굴리지 말것!》

《앞으로 전달, 돌을 굴리지 말것!》

끄덕끄덕 졸면서 걷던 한 전사가 고향집 우물가의 휘늘어진 수양버들가지가 눈앞에 아물거린듯 빙긋이 웃다가 전달이 오자 전기에 닿은듯 정신이 번쩍 들어 어김없이 앞으로 전달한다.

《앞으로 전달, 돌을 굴리지 말것!》

지휘관들은 휴식에 대하여 생각할 때였으나 대오는 쉬임없이 령을 톺아오른다.

곽병식은 대원들을 자주 돌아봤다.

그의 뒤에서는 한철흠분대장이 자동총을 앞가슴에 받들어쥐고 단숨을 몰아쉬며 걸어오고있었다. 그는 비물이 좔좔 흘러내리는 얼굴을 팔소매로 연신 씻으며 몸을 앞으로 숙일사하고 걸었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분대원들을 모두 끌고있는것 같았다. 조칠성은 장마에 대하여, 하늘에 대하여 욕설을 퍼부었으며 노상 히죽거리며 걸었다. 광준은 머리를 수긋하고 농사군의 억센 힘으로 한걸음, 한걸음을 헤면서 걷는듯 침착하게 발을 옮겨놓고있었다. 그는 총구에 가둑나무잎 고깔을 씌워놓았다. 총구에 비물이 들어갈가봐 안심치 않았던 모양이다.

행군대오에서 총구에 그런 고깔을 씌운것은 박광준이 한사람인것 같았다. 그 고깔은 총구우에서 재롱스럽게 한들거리며 제법 함석지붕처럼 소리까지 내며 비물을 흘려 떨군다.

곽병식은 비물이 좔좔 흘러내리는 광준의 무던하고 투박한 얼굴을 유심히 돌아보며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어디서 저런 꾀가 떠올랐을가？！) 대견한 생각까지 든다.

신찬일은 어깨로 파고드는 배낭끈때문에 바줄같은 피줄이 튀여오른 목을 길게 뽑아들고 울상이 되여 발을 헛디디며 걸었다.

《광준동무, 꼭대기가 아직 멀었대？》

신찬일이가 벌써 몇번째 묻는 말이다.

조칠성이가 히죽거리며 돌아보면서 한마디 던진다.

《십년은 더 올라가야 돼, 해에다 담배불을 붙여물구 넘는다는 령이거던…》

《에이구 좀 씨원한 소리라두 할게지.》

광준이가 측은한 눈매로 찬일이를 돌아보며 말한다.

《내 배낭뒤를 잡으라구.》

이때 그들의 옆으로 포탄상자들을 등에 실은 박격포중대 말들이 목을 길게 뽑아들고 끄떡거리면서 역한 오줌냄새를 풍기며 지나간다.

조칠성이가 그들에게 소리친다.

《여 여 굴뚝포, 빨리 지나가라구！》

마사원이 그에게 롱말을 던진다.

《여— 이거 조대장께서 수고하네. 오래간만일세. 마초를 벴다면서？ 고마우이！ 박격포중대 말들의 이름으로 님자한테 감사를 드리네！》

《넨장 빨리 지나가라는데두！》 조칠성은 손바닥으로 군마궁둥이를 철썩 친다. 군마는 흠칫 놀라며 뛰여간다.

오르고 올라도 끝이 없는 령이다.

중대는 어느덧 구름속에 삼키웠다. 눈앞이 짙은 안개에 덮여 앞에 가는 사람의 등이 흐릿하게 어른거렸다. 숨을 들이킬 때마다 눅눅한 김이 가슴가득 스며들며 호흡이 가빠났다. 전사들은 헉헉 헐떡거렸다.

《뒤로 전달！ 구름속이다. 거리 간격을 좁힐것！》

《뒤로 전달！ 구름속이다. 거리 간격을 좁힐것！》

전사들은 걸음을 재우쳐 앞전사와의 거리를 좁혔는데 제일뒤에 전사는 좋이 20분이나 뛰여야 했다.

이때까지 대오의 앞장에서 말없이 걷던 고병근중대장은 비로소 활동을 개시했다. 그는 대오의 앞뒤로 뛰여다니며 전사들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누군가？ 황명근이 아니야？》

《옛.》

《왜 절뚝거리나？ 첫 황명근이 녹았구만.》

《일없습니다！》

전사는 힘차게 대답하며 껑충껑충 뛰여간다.
《이게 누구야?》
《전사 오일남!》
《일남동무, 조금만 참으면 돼. 자, 힘을 내라구!》
고병근은 그의 잔등을 떠밀어준다.
《2소대 1분댄가?》
《옛!》
《이거 어찌된 셈판이야?! 1소대 1분대는 씽씽 날아가는데.》
《중대장동무, 우리가 뭐 떨어졌나요?!》
《하하하… 이거 안개때문에 보여야지…》
고병근은 코집이 센 전사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의지가 약한 전사에겐 힐난조로 고무의 말을 던지기도 하며 전사들의 가슴에 슬그머니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며 대오를 앞으로, 앞으로 이끌었다.
그는 맥이 진한 전사들옆에서 걸어가며 이렇게 말했다.
《발을 맞추면 힘드는줄 몰라. 자, 나하구 발을 맞추자구. 하나… 둘… 하나…둘…》
비는 쫙쫙 퍼붓는다. 전사들은 발을 맞춘다.
곽병식은 고병근중대장의 정력적인 활동에 경탄했다. 그는 요긴한 때 쓰려고 자기의 힘과 정력을 아껴온 모양이다.
그러나 자기자신은 어떤가? 저 령중턱아래에서 맥을 다 뽑고 지금은 다리가 휘청거리고 숨이 턱에 닿아 헐떡거리고있는것이다.
그는 짙은 안개속의 뿌연 공간을 내다보며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전사들에게 취약성을 보이거나 허세를 보여서도 안된다. 그들의 눈은 밝다. 그들은 뒤에서도 내 얼굴표정을 보고있을게다. 힘을 내자, 앞으로, 앞으로!)
곽병식은 흘러내리는 땀과 비물을 주먹으로 훔치고 허리를 펴며 몸매를 다잡았다. 그는 목구멍에서 치미는 쇠비린내를 꿀꺽 삼키며 속으로 자기 마음과 다리에 구령을 쳤다.
《발을 맞추라! 하나, 둘, 하나, 둘…》
한철흠은 앞에서 걷는 소대장의 몸에서 일어난 변화를 륙감으로 느꼈다. 새 힘과 용기가 뻗치는듯 률동적으로 힘있게 움직이는 그의 발걸음에서는 도도한 기백이 풍겼다. 한철흠의 발은 저도모르게 소대장과 보조를 맞추었다.
박광준은 그 자리에 물앉고싶었다. 그는 뒤에서 따라오고있는 꼬

마병사 명보앞에서의 체면때문에 쓰러지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머리를 수굿하고 조칠성의 발뒤꿈치만 보면서 걸었다. 되는대로 움직이던 조칠성의 발이 일정한 사이를 두고 박자를 치듯 힘있게 움직였다. 그 발을 보며 걷노라니 광준이는 몸이 절로 률동적으로 움직이며 걸음이 가벼워지는것 같았다.

곽병식은 걸어갔다. 뒤에서 쩌벅쩌벅 조잡하게 울리던 전사들의 발자욱소리들이 차츰 하나의 호흡에 맞춰지는것 같았다.

《하나, 둘, 하나, 둘.》

어딘가 머리우 아득히 높은 구름속에서 질겁하는듯한 말 울음소리가 울렸다. 아까 올라간 박격포중대의 말들인 모양이다.

《아직도 멀었구나! 하나, 둘, 하나, 둘.》

비는 쫙쫙 소리를 내며 퍼부었다. 땀에 뒤섞인 찝찔한 비물이 흘러들어 눈이 쓰려났다. 덜미로 흘러든 비물은 등골로 도랑을 이루어 쏟아져내려 다리를 지나 군화속에서 꿀쩍거렸다.

(하나, 둘, 하나, 둘.)

앞에서 전달이 흘러왔다.

《뒤로 전달! 건빵을 씹으며 걸을것!》

《건빵을 씹으며 걸을것!》

곽병식은 주머니에서 비물에 젖은 건빵을 꺼내 와작와작 씹었다. 입으로 흘러드는 찝찔한 비물과 건빵이 한데 버무려진다. 꿀꺽 넘긴다.

또 씹는다. 씹으며 걷는다. 비물에 흐려진 눈앞에 무엇인가 친근한 모습이 어른거린다. 그것은 어머니다.

집에서 그가 성급하게 밥을 퍼먹을 때면 곁에 앉아 너그럽게 웃으시던 어머니의 그 모습이 지금 안개속에서 자기를 빤히 보고있는것 같다. 곽병식은 웬일인지 목이 꺽 멘다. 군대에 입대할 때 평양역에서 만나지 못하고 떠나온 어머니, 지금은 어느 야전병원 정치부원장으로 계신다는 어머니, 어머니네 야전병원은 어디에 있을가? 지금 어머니는 무엇을 하고계실가? 그런데 웬일인지 군복 입은 어머니의 모습은 도저히 상상되지 않는다. 옥당목저고리를 입은 어머니의 수수한 모습만 가슴에 새겨져있다.

(아, 어머니, 어머니! 이 아들은 전선으로 나갑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나갑니다!)

눈이 쓰려나며 뜨끈뜨끈한것이 흐른다.

(아니, 내가 울고있는게 아닌가?! 하나, 둘, 하나, 둘.)

곽병식은 걸어간다. 안개가 더 짙어지며 눈앞이 어둑해진다. 바로 앞에 가는 전사의 배낭이 아득히 멀리서 아물거리는것 같다. 갑자기 모든것이 조용해진다. 안개속에서 우중충한 그림자처럼 보이는 기암절벽들과 고목들도 죽은듯이 서있다. 이 무슨 신비의 정적인가?

눈앞에서 짙은 안개만 소용돌이치고 귀안에서 앵앵—소리가 난다.

철썩하고 누가 넘어지는 소리.

곽병식은 흠칫 놀라며 돌아봤다.

명보가 흙탕물에 막 엎어졌다. 곽병식은 그에게로 달려가서 팔을 잡아일으켜세웠다.

한쪽 볼과 가슴팍이 흙물에 범벅이 되였다.

《다치지 않았소?》

명보는 옷을 털고 총을 바로잡으며 일어나더니 대오를 따라잡는다.

곽병식은 소대의 막내인 그의 옆에서 걸으며 측은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타이른다.

《잘 보고 걸을게지…》

명보는 배낭을 추슬러올리며 수집게 웃는다.

《무르팍이 아프지 않아?》

《일없어요.… 에익 그놈 굴뚝포 말때문에…》

《말이 무슨 상관이게.》

《고놈 말새끼가 날 물자구 하잖아요.》

명보는 코를 흑 들이키더니 빙긋 웃는다.

《꿈을 꿨댔는가?》

《첫,어처구니없어서…》

《하하하…》 곽병식은 소리내여 웃었다.

오르고 올라도 끝이 없는 령이다.

안개속에 묻혀 대오는 죽은듯이 움직이고있다. 전사들은 머리를 수굿하고 기계적으로 발을 움직이고있다. 저 뒤 1소대쪽에 가있는지 고병근중대장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떠들어대기 좋아하는 조칠성이도 머리를 푹 떨구고 씩씩거리며 걷고있다. 박광준은 무슨 생각에 잠겼는지 눈을 내리뜨고 수걱수걱 걷고있다. 전사들은 말할 힘도 없는 모양이다.

그저 걸어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으로 한걸음,한걸음 천근같은 발을 옮겨딛고있었다.

곽병식은 대오의 앞에서 걸어갔다. 서늘한 안개가 훌훌 날려오며 얼굴을 어루만진다. 걷고있는지 안개속으로 천천히 날아가고있는지 한결

음이라도 대오에서 물러서면 쓰러져 열흘이고 백날이고 세상없이 잠들어버릴것만 같았다. 전사들은 자기 힘으로만 가는것이 아니였다. 대오의 끝에서 끝까지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의지력이 전사들을 자력처럼 끌어당기고있다. 하여 맥이 다 빠진 전사들도 그 힘에 몸을 맡기고 허덕허덕 따라가고있었다.

갑자기 길은 또 꺾어져 가파롭게 치달아올라갔다. 먼저 올라간 전사들이 미끄러져 내렸다가는 간난신고를 겪으며 다시 기여올라간 자리들이 눈에 띄였다. 곽병식은 그 급한 경사지중턱에 서있는 나무를 잡고 서서 전사들의 팔을 잡아 올리끌었다. 조칠성은 혼자서 고집스럽게 엉기엉기 기여올라왔다.

광준은 소대장이 내미는 손을 죄송스레 꽉 잡고는 믿음에 찬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 눈은 이렇게 당부하는것 같았다. 《놓지 말아주십시오. …》

《자! 하나, 둘, 셋!》

곽병식은 그를 힘껏 끌어올렸다. 광준이도 황소처럼 《응!》 하고 힘을 썼다. 뛰여올랐다.

신찬일은 네발걸음으로 기여와서 소대장의 손을 덥석 잡았으나 《에이쿠!》 소리치며 발이 미끄러져 쭉 밀려내려갔다. 뒤따르던 한철흠분대장이 아니였던들 그는 나무토막처럼 떼굴떼굴 굴러서 저아래 아찔하게 깊은 낭떠러지 계곡으로 날아떨어졌을것이다. 한철흠에게 안기운 신찬일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었다.

《자, 다시한번!》

한철흠은 뒤에서 그의 엉뎅이를 떠밀었다.

《떨지 말구, 자신있게, 자!》

곽병식은 힘껏 당겼다. 신찬일은 그 힘에 이끌려 훌쩍 뛰여올랐다.

이때 저 웃쪽에서 전사들의 탄성이 터졌다.

《야, 다 왔구나!》

《꼭대기다!》

《만세!》

그 부르짖음소리는 긴 행군대오우로 뢰성처럼 메아리쳐 지나갔다. 그것은 승리의 개가처럼 지친 전사들의 가슴에서 힘과 생기를 불러일으켰다.

《동무들, 앞으로!》

한철흠분대장이 소리쳤다.

종대는 흩어지고 전사들은 앞을 다투어 안개속을 빠져 령꼭대기로

뛰여올라갔다.
조칠성은 밑에서 치달아오르는 전사들을 돌아보며 입을 짝 벌리고 너털웃음을 웃어대더니 잔등의 배낭을 들썩거리며 룡마처럼 올리뛰였다.
명보도 그의 뒤를 따라올라갔으며 찬일은 바빠맞아 엉기적거리며 기여가다가 몸을 일으키고 쩔뚝쩔뚝 따라올라갔다. 전사들의 앞장에서는 한철흠분대장이 돌격선에서처럼 기관단총을 받들어쥐고 뛰여가고있었다.
곽병식은 모자채양을 올리고 땀을 씻으며 우습강스럽게 뛰여가는 전사들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걷잡을수 없는 희열이 북받쳐올라 얼이 나간 사람처럼 《하…하…하…》 웃어댔다.
박광준전사만이 그 자리에 못박힌듯 총을 짚고 서서 웃음어린 환한 얼굴로 령마루를 쳐다보더니 소대장을 돌아보며 목이 메여 부르짖었다.
《소대장동무, 다 올라왔구만요！》
그는 물기에 젖은 눈을 슴벅거렸다.
곽병식은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자, 올라가보자요！》
령마루에는 전사들이 담장처럼 늘어서서 앞을 바라보고있었다. 그들의 발밑으로부터 아득히 먼 하늘가까지 일망무제한 구름바다가 펼쳐져있었다.
곽병식은 가슴이 확 트이는것 같았다.
어딘가 저 멀리 구름속에서 서로 가로채며 짖어대는 기관총소리와 포성들이 울려왔다.
저 짙은 구름바다밑에서 처절한 격전이 벌어지고있으려니 생각하니 곽병식은 가슴이 울렁거렸다.
《아, 저기가 1035고지겠구나…》
그곳은 그가 여태까지 공상해오던 불바다의 첨단이며 그들이 가야할 곳이였다.
곽병식은 날개라도 있었으면 구름속을 훨훨 날아가 격전장의 한복판에 뛰여내리고싶은 마음속 충동을 느꼈다.
그들은 령마루 턱밑에서 휴식을 하며 요기를 했다. 피곤에 지친 전사들은 끄덕끄덕 졸면서 주먹밥을 씹고있었다.
《아니 저게 뭐야？！》
갑자기 명보가 놀란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전사들은 모두 그가 가리키는쪽을 보았다. 길건너 저편 얇게 서려있는 안개뒤에 우뚝 솟아있는 절벽에 지팽이를 짚은 《로인》이 기대여 서있었다.
몇몇 전사들이 벌떡벌떡 뛰여일어났다.
《누구야？！》
《뭐야？！》
《야！》
그들의 목소리는 절벽에 부딪쳐 쩡 메아리쳤다. 조칠성이가 달려나갔다. 그는 절벽앞에 우뚝 서서 한참 바라보더니
《하하하…》 웃어댔다.
《바위야！ 바위！ 하하하…》 그는 《로인》의 턱과 가슴이며 배를 만져보이며 웃어댔다.
곽병식은 그들과 백보 남짓한 거리에 있는 아찔하게 높은 절벽앞으로 걸어갔다.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절벽밑부분에서 기묘하게 삐여져나온 두길 잘되는 바위였는데 그것이 안개의 조화로 멀리서는 로인의 형상처럼 보인것이다.
절벽은 천년이끼에 덮여있고 《로인》앞에는 펑퍼짐한 제돌이 놓여있는데 그우엔 깨진 질그릇쪼각들이 딩굴고있었다.
《소대장동무, 옛날 사람들은 령을 넘을 때면 이 절벽에 대고 절을 꾸벅꾸벅 했겠지요. 허참, 허허허…》
《그랬을거요. …》
곽병식은 질그릇쪼각을 들고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아찔하게 솟은 절벽을 쳐다보며 명상에 잠기는것이였다.

천년 이끼오른 절벽이여
태고연한 침묵에 굳어버린 력사의 증인이여！

말하라！
세월은 흐르고 흘러…
네앞을 지나며 명복을 빌던
길손들 몇천몇만이였더냐
지난 세월의 험악한 발톱에 뜯기운 운명들
네앞에 허리 굽혀 절하며
먼 류랑의 길, 죽음의 길을 가지 않았더냐

봉건을 저주한 김삿갓의 방랑의 걸음도
네앞에서 쪽잠에 들지 않았더냐?
왜적과 싸우다 뜻 못이룬 마지막 의병도
네앞에서 화승대를 꺾어버리며 통곡하지 않았더냐…

하나 보라
유구한 력사의 안개를 헤치고
오늘은 우리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들이 령마루에 올랐다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영예를 떨치며
반제투쟁의 홰불을 추켜올리려
오늘은 우리가 령을 넘는다
길을 내라, 짙은 안개여!
길을 내라, 기암절벽들이여!
길을 내라, 울울창창한 수림이여!

2

날이 캄캄하게 어두운 다음에도 행군대오는 령중턱을 내리고있었다. 가파로운 령길을 발더듬해서 내리기란 오를 때보다 몇갑절 힘겨웠다. 게다가 폭우가 쏟아져 모래를 파헤치며 여기저기서 흘러내리는 물때문에 행군은 갑절 어려워졌다. 지꿎은 하늘은 비가 아니라 물을 그대로 퍼붓는듯했다. 어디서나 산 한모퉁이가 사태져 내릴것만같은 불안감이 들었다. 어딘가 저 아래 깊은 계곡에서는 산골물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수림우로 지나가는 바람소리처럼 쏴—쏴— 들려온다. 전사들은 나무에서 나무를 옮겨잡아가며 피곤에 지쳐서 떨리는 다리를 가까스로 옮겨짚으며 령을 내리고있었다. 자칫 잘못하여 미끄러지면서 몸의 균형을 잃으면 저 아래 깊은 계곡으로 날아떨어지고만다.

곽병식은 박광준전사의 팔을 잡아 부축하며 한걸음, 한걸음 령을 내리고있었다. 광준은 아까 령을 오를 때는 수걱수걱 잘 따라왔는데 몸이 둔한 그는 내리막길에서는 옴짝을 못했다. 오히려 신찬일전사

가 더 날래였다. 그는 민첩하게 나무와 나무를 잡으면서 껑충껑충 뛰여내려갔으며 드문드문 우스개소리까지 던졌다.
조칠성은 쭈르르 미끄러져내리기도 하고 마음놓고 달려내리다가 나무를 확 잡았다.
《칠성동무！ 사고를 치고싶은가？！》
한철흠분대장이 그를 엄하게 꾸짖었다. 광준은 죄송스러워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대장동무, 인젠 혼자 내려갈만합니다！》
《발을 자신있게 내짚으시오. 떨기 시작하면 굳어져서 못내려갑니다！》
《예…》
곽병식은 뒤따라오는 명보와 또 다른 전사들의 팔을 잡아주기도 하고 자기 발로 디딤돌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갑자기 저 웃쪽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숨가쁜 소리로 부르짖었다.
《돌이야！ 돌이 군다—》
행군서렬우에 벼락이 친 그 한마디 목소리는 소리에 소리를 불러일으켰다.
군관들과 하사관들이 부르짖었다.
《돌이 군다—》
《돌사태다—》
《은페—》
《나무뒤에 숨어라.》
돌들이 굴러내리는 우당탕, 와지끈소리가 가까와졌다.
행군종대는 흩어졌다. 전사들은 바위와 아름드리나무뒤에 숨었다.
와르릉…와르릉… 산이 울고 나무들이 부러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곽병식은 정신없이 뛰여다니며 어쩔바를 모르고 우두커니 서있는 전사들을 바위아래며 나무등걸밑에 밀어던졌다.
《은페！》 《은페！》 그는 목이 터지게 부르짖었다.
곽병식은 누가 또 서있는 전사가 없나 하고 두리번거렸다. 순간 윙—울며 돌이 그의 머리우를 스쳤다. 모자가 훌렁 벗겨져 날아났다. 곽병식은 나무그루밑에 몸을 던졌다.
순간 윙—울며 잔등우로 날아간 돌이 아래나무에 부딪쳤다. 우지끈 소리를 내며 나무가 쓰러지며 가지들이 그의 잔등우에 덮씌웠다.
와라랑…와라랑… 산이 그대로 허물어져내리는것 같았다. 어둠속

에서 바람을 탄 바위들이 튀여오르며 날아지나는 소리가 포탄의 비명처럼 울부짖었다. 수림은 태풍에 휩쓸리우는듯 무서운 함성을 내며 설레이였다. 여기저기서 천년묵은 고목들이 돌과 바위에 부딪쳐 와지끈 와지끈 꺾어지며 쓰러지는 소리가 울렸다.

불안해진 전사들이 여기저기로 뛰여다니며 자리를 옮겼다.

《엎드렷！ 엎드렷！》 지휘관들의 부르짖음이 수림에 메아리쳤다. 저 아래 계곡쪽에서 군마들의 질겁한 울음소리들이 터졌다.

누군가 곽병식의 옆에 와 엎드렸다.

《누구야？！》

《소대장동무.》

명보의 떨리는 목소리다.

곽병식은 그의 머리를 꽉 끌어안았다.

모래를 뿌리며 굴러오던 바위가 그들앞에 있는 나무를 쳤다. 《쩌정—》 하고 나무가 울더니 굵은 비방울들이 쏟아져내렸다.

《소대장동무, 찬일동무가 없던뎁니다.》 명보가 소스라쳐 놀랐다. 곽병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몸을 벌떡 일으켜 그리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쓰러진 고목밑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디로 갔을가？ 불안이 엄습했다.

《찬일동무！》

《찬일동무！》

《찬일이—》

누군가 옆에서 그를 와락 밀쳐서 쓰러뜨리고는 몸으로 덮었다.

《누구야？！》

《소대장동무, 정신있습니까！》

한철흠분대장의 목소리였다. 그는 뿌리치려는 소대장을 꽉 끌어안고 몸으로 덮었다.

황소같은 돌멩이가 씽 날아와서 바로 그들앞의 나무를 쳤다.

비방울이 후두둑 떨어졌다. 곽병식은 머리를 번쩍 쳐들었다. 나무밑둥에 와 부딪친 돌은 모로 기울어지면서 다시 굴려고 했다. 이때 누구인가 몸을 날려 돌밑에 어깨를 들이밀었다. 한철흠이였다. 곽병식은 달려나가 자기 어깨도 들이밀어 힘을 합쳐 힘껏 떠밀어 돌을 모재비로 눕혀놓았다. 숨가삐 달려온 명보가 다시 굴지 못하도록 밑에다 잔돌들을 괴여놓았다. 그리고는 환희에 차서 탄성을 질렀다.

《돌을 잡았다— 동무들— 돌을 잡으라요— 나무에 걸려 속도가 죽은놈을 잡아넘어뜨리면 돼—요—》

이때 저쪽에서 맞받아 조칠성의 목소리가 울렸다.

《돌을 잡았다— 명보, 오라구—》

이리하여 돌을 잡으라는 소리는 행군대오를 따라 저 아래까지 흘러내려갔고 돌을 잡았다는 소리, 웃음소리들이 터져올랐다.

전사들의 희생적투쟁에 의하여 이윽고 돌사태는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뚝 그쳤다.

곽병식은 몸을 일으켰다.

《소대장동무, 다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한철흠의 목소리는 떨렸다.

《다치지 않았소?!》

《예.》

곽병식은 처음으로 돌밑에 어깨를 들이밀었으며 몸으로 자기를 덮어준 한철흠분대장의 얼굴을 바라보노라니 육친의 정이 쏠리며 가슴이 뜨거워났다.

그는 저도모르게 분대장의 손을 으스러지게 잡았는데 이날밤의 추억은 젊은 그의 가슴에 뿌리를 내려 그후의 생사판가리의 어려운 날에도 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곽병식은 후에도 《장마행군》을 추억할 때마다 눈물이 그렁하여 그의 말없는 얼굴을 그려보군했다.…

《신찬일동무— 신찬일동무—》 한철흠분대장은 잃어진 대원을 찾았다. 저 아래쪽에서 전사들의 번호 부르는 소리와 웃음소리들 속을 누비며 신찬일의 애잔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여기 있시다— 전사 신찬일— 여기 있시다—》

《히야— 날쌘데!》

하고 조칠성이가 웃어댔다.

《에익, 그저…》

한철흠이 볼부은 소리를 했다.

곽병식은 울컥 화가 치밀었으나 한편 마음이 놓이기도 하여 《후—》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3

중대가 령을 내려왔을 때 앞에서부터 대대련락병이 달려와서 행군을 중지하고 숙영하라는 지시를 전했다. 앞에서 범람한 산골물이 다리

를 흔적없이 밀어가서 련대공병들이 복구하는중이라는것이다. 이 소식은 고병근을 아연하게 했다. 이런 때는 대오에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며 무작정 움직여야 하는것이다. 맥을 놓고 휴식하고나면 전사들은 아주 녹초가 되여버려 다시 대오를 불러일으켜 행군속도를 보장하기란 갑절 어려워지는 법이다. 더군다나 장마속행군에서 지칠대로 지치고 비물이 뼈속까지 스며들어 떨고있는 전사들을 이 의지할곳없는 심심산중 어디에다 숙영시킬것인가?

배비변경이며 행군속도며 앞으로 있을 전투와 탄약보유량 등 두서없는 생각에 골똘하며 령을 내려온 고병근의 머리속에는 이 순간 전쟁과 관련된 그런것들은 깡그리 사라지고 잠자리며 가마 걸 자리, 식사준비니 음료수보장 등의 살림걱정이 가득 들어차는것이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끝없이 비를 퍼붓는 컴컴한 하늘과 숨가쁘게 막아선 우중충한 산발들을 둘러보았다. 어디에나 비소리, 쏴—쏴— 흘러내리는 산골물소리뿐, 장마로 하여 전쟁이 중단된듯한 적막감이 엄습했다.

《허, 자 보자구, 무슨 마련이 있겠지!》

고병근은 허구픈 웃음과 함께 군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경계근무를 세우게 하고 숙영지를 찾아 떠났다.

무겁게 펄럭이는 비옷을 끌며 숲속을 헤매던 고병근은 깎아지른듯한 벼랑밑에서 한점의 불빛을 찾아냈다. 가까이 가보니 새초로 고깔지붕을 한 아담한 반토굴이였다. 인계하고 들어갈 사단의 중간통신초소였다. 고사기관총탄피로 만든 등불이 가물거리는 토굴안에는 1개분대가량의 통신병처녀들이 근무를 수행하고있었다. 고병근중대장은 불이 있고 사람이 있고 생활의 온기가 풍기는 이곳, 반토굴앞의 공지에 중대를 숙영시키리라 마음먹었다. 깊은 산중에서 사람이 그리웠던 통신분대장은 무뚝뚝한 낯선 군관의 제의를 쾌히 승낙했다.

특무장의 지시에 따라 전사들은 소대와 분대별로 천막을 칠 자리를 고르면서 떠들썩하게 뛰여다녔다. 그들은 처녀들이 있는 토굴을 그 어떤 범접 못할 신성한곳으로 바라보며 가까이 접근하지 않았다.

한편 고병근중대장은 군관들을 거느리고 공병들이 다리를 복구하고있다는 현장으로 떠났다. 그의 뒤를 따르는 소대장들은 심술궂은 하늘에 대하여, 전쟁과 장마에 대하여, 행군만 하면 언제나 이런 단련을 받게 되는 중대의 《신수》를 두고 한마디씩 했다. 곽병식은 군모채양밑으로 흘러내리는 비물을 손등으로 씻으며 서동길소대장뒤에서 묵묵히 걷고있었다.

그는 웬일인지 가슴이 들먹이고 설레였다. 황해도 벌방지대에서 자라

난 그에게 있어서 장마란것은 범람한 강, 떠내려가는 지붕우에 앉아서 구원해달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아낙네들과 아이들, 바다로 되여버린 논밭, 사품치는 흙탕물우에 떠내리는 집짐승떼와 온갖 잡동사니들과 같은 소년시절의 참혹한 재난의 표상들과 결부되여있었다. 그러나 전선에서 처음으로 겪는 장마, 흘러가버린 다리며 행군대오를 두동강으로 끊어버린 산골물이 무엇을 가져다줄지 아직은 알수 없으나 행군이 중단되였다는것과 이제 비속에서 전사들을 재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무거워졌다.

도하장에는 공병들이 한벌 깔려서 붐비고있었다. 여기저기서 타오르는 우등불에 통나무를 메나르거나 도끼질, 톱질하는 전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시커먼 물결은 무서운 함성을 내지르며 사품치면서 살같이 흘러내리고있었다. 물결밑에서 바위들이 우당탕 굴러가는 소리, 물살소리, 공병들의 부르짖음, 다리복구장은 한창 북적거리고있었다. 공병들은 20메터남짓한 저쪽 대안에다 여러 갈래의 로쁘를 늘이고 그우에 통나무들을 굴리면서 허궁다리를 놓고있었다. 키가 구척같은 련대공병장이 이쪽 대안바위우에 서서 저쪽 대안의 공병들에게 소리소리 지르며 작업을 지휘하고있었다. 질풍같이 달려가는 기차소리와 같은 물살소리는 공병지휘관들의 웨침소리와 전사들의 말소리들을 삼켜버렸다. 그때문에 공병들은 가까이에서도 목청껏 소리지르며 작업했다.

물에서 풍기는 찬 기운에 가슴이 써늘해진 곽병식은 놀라운 마음으로 공병들의 작업을 보고있었다. 공병들은 마치 사납게 기승을 부리는 물살과 승벽을 다투듯이 벅짝 끓어번지며 뛰여다니고있었다. 이때 곽병식은 웃도리를 벗어던지고 일하는 억대우같은 공병들속에서 병사용비옷을 땅에 끌리게 폭 쓴 꼬마병사의 뒤모습에 주의가 갔다. 꼬마병사는 일손이 바쁜 공병들을 붙잡고 무엇이라고 열정적으로 요구하고있었다. 공병들은 저쪽 대안을 가리키며 난처해하는 몸짓을 하는가하면 시커먼 물살을 가리키며 위혁적인 시늉을 하는것이였다. 물살소리, 떠드는 소리, 도끼질소리들 속에서 꼬마병사의 목소리가 도간도간 들렸다.

《…건네주오！… 건네주오！… 사단으로 가오！… 공병들의 의무가 아니요？！… 책임지겠소？！》

처녀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장난군 사내아이의 목소리 같기도 한 그 목소리는 애처롭게 울리기도 하고 사납게 쏘아붙이기도 한다.

웃도리를 벗어 알몸뚱이인 황소같은 공병이 비물에 번들거리는 잔등을 그에게 들이밀며 소리쳤다.

《…자！… 자！… 업히라니깐！… 닁큼 건네다주겠소！》

《하하하…》

《허허허…》

작업장은 들썩 웃음이 터졌다.

꼬마병사는 성난듯 홱 돌아서 바위우에 서있는 련대공병장에게로 가더니 무엇이라고 소리쳤다.

공병장은 허리를 굽히고 그에게 고함쳤다.

《동무만 급한게 아니란말이요! 어디서나 자고 오라고 하지 않소!》

《어디서 잡니까?! 혼자서… 어디서 잡니까?!》

울음섞인 목소리다.

《챠,이거 왜 나한테 와서 성화요?! 공병장이 잠자리까지 마련해달라오,엉?! 저 동무들은 동무보다 더 급하지만 잠자코 있단말이요!》 하며 공병장은 3중대 군관들쪽을 가리켰다. 꼬마병사는 돌아봤다. 순간 비옷 머리씌우개안에서 둥실하고 해맑은 처녀의 얼굴이 불빛을 받아 선명하게 드러났다.

처녀는 두손으로 비옷앞섶을 사뿐 들고는 그들 앞으로 뛰여왔다.

《어디까지 가요?!》

푸접이 좋은 서동길이가 벙글거리며 대답했다.

《1035고지쪽으로 가오.》

《전 사단지휘부 2제대를 찾아갑니다.》

《아,알겠소! 군의소로 가겠구만!》

《야전방송원입니다.》

중기소대장 황득범이가 곽병식의 옆구리를 건드리며 알아들으라는듯 귀띔했다.

《…방송원이요!…》

곽병식은 흘러내리는 비물때문에 낯을 찡그리며 별로 놀라와하는 기색도 없이 처녀를 돌아봤다. 이마우에 내리드리운 촉촉히 젖은 머리칼밑에서 상쾌하게 동그란 눈이 울분에 차서 날카롭게 반짝이고있었다. 곽병식은 전쟁의 길에서 이렇게 드세고 고추처럼 매운 처녀들을 자주 만났었다. 그는 이 방송원도 그런류의 처녀려니 생각하며 공병들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그는 여러 군의소들이나 도로의 위생검역소들에서 특히 젊은 군관들과 하사관들에게 인정사정없이 엄격하게 굴며 털끝만한 흠집이라도 찾아내면 호되게 몰아세우는 이런 류의 처녀들에 대하여 은근한 반감을 품고있었던것이다.

《공병들하군 그런투로 말해선 못쓰지요. 이 전쟁에서 제일 수고하는 병종이거던요. 나무하구 바위와 씨름하는 친구들인데 떠끔해나 할것 같소. 가만 있어두 그들이 다 알아맞혀서 해결한단말이요. 여기서 애를 태우지 말구 우리하고 갑시다. 우리 중대 숙영지옆에 녀동무들의 병실이 있소.》 하고 서동길은 군관들에게서 좀 떨어져서 방송원을 데리고 오며 내내 위로의 말을 하는것이였다.

중대부 천막에 돌아와서 소식통인 서동길은 옷을 벗어 쥐여짜며 군관들에게 방송원에 대하여 이것저것 말했다. 처녀가 뛰여난 미인이긴 하나 함경도처녀가 돼서 말씨가 별스럽게 굳다는둥, 성격이 차돌같다는둥…

고병근중대장만은 방송원처녀이야기에 흥미가 없는듯 행군총화를 짓기 시작했다.

숨이 컥컥 막히는 밤, 비는 하염없이 내렸다.

전사들은 천막속에서 잤다. 천막이 모자라 들어가지 못한 전사들은 밖에서 자기 비옷이며 모포들을 쓰고 쪼크리고 앉아 졸고있었다. 하사관들은 모두 밖에서 잤다.

비는 점점 기승을 부리며 억수로 퍼붓는다. 전사들의 머리와 어깨우에서 물보라가 인다. 그래도 행군에 지쳐버린 전사들은 코를 드렁드렁 골며 잔다. 어떤 대원은 꿈을 꾸며 헛소리까지 친다.

곽병식은 비옷을 푹 쓰고 머리를 두무르팍 짬에 박고 끄덕끄덕 졸았다. 오만가지 생각들이 머리를 스친다. …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는 온몸이 와들와들 떨려 잠을 깼다. 그는 어금이를 꽉 다물고 두팔로 다리를 힘껏 부둥켜안고있었다.

저쪽 1분대쪽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더니 누구인가 저벅저벅 뛰여오는 소리가 났다. 억센 손길이 그의 어깨를 쥐고 흔든다.

《소대장동지! 주무십니까? 소대장동지!》 한철흡분대장의 목소리다.

곽병식은 불길한 예감에 비옷을 젖히며 벌떡 일어났다.

한철흡분대장이 허리를 구부정하고 서있었다.

《무슨 일이요?》

《소대장동지, 찬일동무가 수류탄을 분실했습니다.》

《뭐요?!》

《령꼭대기에서 쉴 때엔 있었다는데 아마 돌사태를 만났을 때 떨군것 같습니다.》

저만치 뒤에 머리를 떨구고 서있는 신찬일의 그림자가 보였다.

곽병식은 울컥해서 그에게로 성급히 다가갔다. 쏟아지는 비줄기와 어둠을 뚫고 해쓱하게 질려있는 그의 얼굴을 느낄수 있었다. 추위때문인지 자책감때문인지 그는 우둘우둘 떨고있었다. 비에 함뿍 젖어 후줄근해진 그는 목이 엉성하게 길어진것이 더 초췌해보였다. 대원의 그런 몰골에 곽병식은 측은한 생각보다도 오히려 화가 동했다.

《어디서 떨궜소?》

《어느쯤에서 떨궜소?!》

《소대장동지!… 이거… 이거 어쩌면 좋나요?!》

《생각 안나오?!》

《저… 사태를 만났을 때 뒤번 굴렀는데 거기 아닌지…》

찬일은 깊은 한숨을 내쉬였다.

곽병식은 이 순간 전사에 대한 측은한 동정심이 일어났다. 그는 전사를 외면하고 서서 미간을 찌프리고 어둠속을 내다보고있었다. 그의 머리는 한동안 착잡했다.

미끄러지고 기면서 령을 톺아오르던 찬일의 모습이 떠올랐다. 비가 쫙쫙 퍼붓는 이 캄캄한 밤에 다시 저 험악한 령으로 오르게 하고 가파로운 산비탈을 헤매게 한단말인가?…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다르게 울렸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날 새기전에 찾아내오! 령으로 오르시오!》

신찬일은 준엄한 선고라도 받은듯 머리를 번쩍 들고 그를 쳐다봤다.

한철흠분대장이 한걸음 나서며 다짐하듯 말했다.

《소대장동지, 제가 책임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떠나오!》

그리고 곽병식은 중대부 천막으로 갔다. 중대부 천막안에서는 최호찬소대장과 서동길소대장의 말소리가 새여나오고 고병근중대장의 기침소리가 났다. 그들은 중대가 가야 할 1035고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었다. 곽병식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가 천막을 들치고 들어갔다. 천막안은 훈훈했다.

《3소대장동무요? 거기 걸터앉소.》 하고 고병근이가 반겨맞았다.

《앉으라구.》 하며 최호찬은 궤짝에서 옮겨앉으며 자리를 내주었다.

서동길은 곽병식이가 들어온데는 아랑곳없이 열기띤 목소리로 소식들을 쏟아부었다.

《도꾜에 앉아있는 어느 〈장군〉놈은 1035고지계선에서 공격에 성공하는 〈용사〉에겐 자손만대로 내려가며 부귀영화를 누릴 재부

를 안겨줄것이라고 담보했다누만. 저놈들이 1개사단이나 녹아났다오. 어찌나 포사격을 무지막지하게 했는지 무릎까지 푹푹 빠진다니까. 한 꼬마전사는 육박전에서 미국놈을 한두름이나 찔러죽였다 하지 않소. 그 고지에서 영웅이 여섯명이나 배출됐다니 굉장하지！》

소식통인 서동길은 고지에서 후송되여들어오는 부상병들과 통신병, 련락병들의 입에서 입을 거쳐 퍼진 단편적인 소문들을 한줄로 꿰여서 신이 나서 주어섬기는것이였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있는 최호찬의 부리부리한 눈은 탐스레 번뜩거렸다.

고병근은 젊은 소대장들의 이런 흥분이 리해할만한것이면서도 한편 마음에 들지 않기도 했다. 그는 1035고지 방위자들의 명성에 시기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끄떡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대했으며 오히려 서동길의 이야기를 들으며 빙그레 미소를 짓고있었는데 그 미소는 이런 뜻이였다. 《하, 이 사람들, 나이탓이로구먼. 우리한테두 다 있었던 일들이야！》

그는 어둑시근한 속에서 소대장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더듬어보며 생각하는것이였다.

(저 최호찬동무가 이번에 마음을 단단히 먹는구만. 1소대는 중대의 주력인데 극력 아껴야 한다. 함부로 전투에 투입해서는 안된다. 서동길, 사람두 아무때나 진정을 못하구 가슴을 설설 끓이며 살아간단 말이야. 3소대는？ 이 사람은 시인이라는데…)

중대장의 시선을 느끼자 곽병식은 벌떡 일어나며 보고했다.

《중대장동지, 행군도중 소대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라니？！》

고병근의 눈은 커졌다.

곽병식의 이야기를 다 듣고난 중대장은 말없이 입만 다시였다.

한철흠분대장을 따라올려보냈다고 하자 그는 다소 안심이 되는듯 후—한숨을 내쉬였다.

얼마후 최호찬이 곽병식에게 타이르는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3소대장동무, 너무 속을 썩이지 말라구. 신찬일이나 박광준 같은 동무들은 보병전투소대에선 힘들다니. 이제 화선에 나가서두 우에서 동원이 자주 제기될테니깐 그때말이요, 대대 마사간이나 련대량식창고같은데 보내라구. 거기 가면야 한몫 막을테지만 전투소대에선 힘들다니까. 힘들어！》

《이래저래 떼버리면 누굴 데리구 싸우나？》 서동길이가 격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쳇, 사람 머리수로 싸우는가? 배짱이 맞는 대원 몇에다 수류탄만 쌓아있으면야 고지 하나 타고앉아 지켜 못내리?!》 하고 최호찬은 담이 큰 소리를 한다.

《태줄을 끊으면서부터 영웅이 따로 있을가. 키워야 돼, 키워야 돼.》 하고 말하며 고병근은 배낭에 기대여 비스듬히 누웠다. 그는 피곤에 지친 얼굴로 눈을 감으며 잠에 취한듯한 느른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저 조칠성이를 보라구, 처음엔 헤덤비며 총도 제대로 못쐈어. 하지만 지금이야 룡이지. 다 그렇소, 그래…》

곽병식은 밖으로 나왔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최호찬이 자기를 위로하며 한 말이였으나 그가 자기의 대원으로 된 박광준이며 신찬일에 대하여 다른 소대장들앞에서 그런 평가를 함부로 내리는것이 마음에 거슬렸다. 이 순간 그는 그 두 전사에 대하여 감싸주고 두둔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들의 부족점은 보이지 않고 그들의 우점만 눈앞에 확연히 돋보이며 뜨거운 련민의 정이 북받쳐올랐다.

(신찬일동무는 얼마나 손재간이 있는가! 그는 이 세상 모든 시계를 다 고칠줄 안다! 그는 후퇴때 강계까지 포병부대를 따라왔다! 그는 우리 혁명의 수도를 사랑하고있다. 박광준동무는 무던하고 근면하다. 그는 장군님의 은덕에 땅의 주인이 되였던 모범농민이다. 령을 넘을 때 총구에 비물이 새들지 않게 풀잎으로 고깔까지 해 씌운 슬기! 그는 지휘관들을 걱정시키고는 인차 체면을 생각하며 창피해 한다!)

그는 이런 생각에 잠겨 비속에서 자고있는 대원들을 돌아보았다. 비옷들을 쓰고 쪼그리고 앉아 자고있는 전사들의 모습들은 한데 몰켜있는 크고작은 봉우리들 같았다. 곽병식은 그 《봉우리》들을 만져도 보고 쓰다듬어도 보면서 소대의 숙영지를 돌아보노라니 가슴 뻐근하게 뜨거운 정이 사무쳐왔다. 그중 한 《봉우리》가 특별히 크게 퍼져있었다. 물보라가 이는 비옷우에 마주 붙어있는 두개의 크고작은 머리륜곽이 드러나보였다. 곽병식은 누구들일가 하는 생각으로 그 머리들을 두루 만져보았다. 비옷속에서 생기있는 목소리가 새여나왔다.

《소대장동지십니까?!》 박광준의 목소리다.

곽병식은 어떻게 내 손길을 알아맞혔을가 하는 호기심과 함께 은근한 기쁨이 가슴에 흘러들었다.

《옆에 있는건?》

《명보입니다. 자그마한 화독을 끼고 앉은것 같거던요. 몸은 작아도 불덩이 같습니다.》

안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났다. 명보도 자지 않는 모양이다.
《하, 그거 대단하구만!》
《소대장동지, 들어오십시오. 박광준아바이 가슴은 부뚜막처럼 뜨뜻합니다! 소대장동지, 정말입니다. 들어와 손을 대보십시오!》
비옷밑에서 봉긋이 솟아오른 명보의 머리가 움쭉거렸다.
곽병식은 그 머리를 또닥또닥 두드리며 물장구를 쳤다.
《허허… 부뚜막에 화독이라! 자 그럼 푸근히들 자라구. 래일 행군에선 씽씽 날아보자구!》
《예…》
《소대장동지, 저희들 걱정은 마십쇼.》
두 전사는 즐겁게 대답했다.
곽병식은 훈훈한 행복감이 가슴에 스며들었다. 그는 다른 전사들에게로 걸음을 옮겼다. 비옷들을 여며주고 모포들을 바로 덮어주기도 하면서 그는 전사들속으로 거닐었다. 지금쯤 산중턱에서 헤맬 찬일의 생각을 하니 가슴이 쓰리였다. 자기가 너무 가혹하지 않았는가 하는 자책도 들었다. 그러나 돌아온 다음 군복을 벗어 물을 짜버리게 하고 자기 배낭속의 새 내의를 갈아입히리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 곽병식은 반토굴안에서 들리는 두 처녀의 말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동무, 문을 왜 닫아요?》 부드러우면서도 불만에 찬 목소리다.
《불빛이 새나가면 어떻게 해요?!》
두번째 목소리는 도하장에서 만났던 함경도처녀의 그 독특한 음성이였다.
《동문 정말 모르는군요.》
《아니 뭘 모른다고 그래요. 야간폭격기한테 발견되면 저 중대가 어떻게 돼요?!》
《아이참, 비가 이렇게 오는데 야간폭격기는 무슨 야간폭격기야요. 참, 밖에 나가보세요. 모두 이 등불에 의지하고있어요. …》
문이 열리며 함경도처녀가 뛰여나오는 소리가 나더니 나직한 탄성이 터졌다.
《아니, 정말! 정말! …》
곽병식이도 잠자는 전사들을 돌아보게 되였다. 놀라운 광경이였다. 누가 지시한것도 타이른것도 아니건만 전사들은 토굴속에서 타오르는 하나의 등불을 마주 향해 부채살처럼 벌려서 빙둘러앉아있는것이였다. 등불을 등지고 앉아있는 전사는 한명도 없었다. 장마속 수백리길 행군에

서 옷이며 성냥,종이니 할것없이 푹 젖어 비물이 배여 살가죽이 부풀어올랐으며 더운 밥,더운 국,더운 기운 한점 맛보지 못한 그들은 등불빛을 가슴에 받으며 훈훈한 위안을 느끼는듯했다. 전사들은 허리를 꼬부리고 머리를 무르팍짬에 틀어박고도 그 등불을 가슴에 품고 쪽잠이 든듯했다. 아마 어떤 전사는 꿈속에서 고향집의 따뜻한 아래목에 누워있을지도 모른다. 또 어떤 전사는 누이와 함께 감자를 구워먹던 갑산 산골집의 장작불이 툭툭 튀는 부엌아궁이앞에 앉아있을지도 모른다.

자박자박 발걸음소리가 나더니 비옷을 되는대로 걸친 함경도처녀가 그의 옆에 와 섰다.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격동에 떠는 고르롭지 못한 숨소리가 들렸다.

《소대장동지！ 전 몰랐어요！》

처녀의 목소리는 사죄하듯 떨렸다. 곽병식은 그를 돌아보았다. 복스럽게 생긴 동실한 얼굴에서 총명하고 그윽한 눈이 빛나고있었다.

《전 후방에서 너무나 호강스럽게 떠받들려 살았댔어요！》

뜻밖에 이런 말을 듣자 곽병식은 다소 당황해졌다. 그는 이 동무가 서동길의 말과는 달리 그지없이 섬세하고 다감한데가 있다는 생각이 들며 위로와 고무의 말을 해주고싶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며 말은 다르게 나갔다.

《동무,비를 맞지 말고 들어가오. 우리 보병들은 아무데서나 잘줄도 알고… 일없소. 들어가오！》

《전 전쟁이란것이 뭔지도 모르고있은것 같아요.》

처녀의 그 말을 확증이라도 하듯 토굴쪽에서 통신병처녀의 애타는 목소리가 울렸다.

《〈진달래！〉,〈진달래！〉,〈진달래！〉… 여보세요,〈진달래！〉…〈지리산〉에서 오는 말을 〈할미꽃〉이 중계하겠어요！ 여보세요,〈지리산！〉… 말씀하세요. 〈지리산！〉 〈지리산！〉…〈진달래！〉,〈진달래！〉,들으세요！…〈지리산〉 5번이 말합니다. 7번동지는 로동당원답게 조국의 아들답게 전사했습니다. 고지에는 우리 8명이 남았습니다.…》 처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다.《〈지리산！〉… 말씀하세요. 방금 공개당총회를 했습니다. …〈진달래！〉,〈진달래！〉… 방금 공개당총회를 했답니다！… 결정서…전우들의 피로 물든 고지를 목숨으로 지키리라. 마지막 전사가 살아남을 때까지 수령님을 위하여,조국을 위하여 용감하리라… 한놈의 적도 조국의 고지에 올려놓지 않으리라… 마지막 살아남은 전사는 신

호탄으로 포사격을 부를것이며… 쓰러진 전우들의 이름으로… 고지에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를것！…》
비는 쫙쫙 퍼붓고 바위돌을 굴리며 흐르는 산골물소리는 밤을 뒤흔든다.
《아！》
방송원처녀는 얼굴을 싸쥐며 흐느꼈다.
곽병식은 이런 준엄한 환경에서 나약한 마음을 보는것 같아 속이 울컥해져 처녀에게서 몇걸음 걸어나가다가 알수 없는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 돌아봤다.
처녀는 비속에 그대로 서있었다.
곽병식은 그에게로 다시 걸어와 나직하나 거치른 목소리로 타일렀다.
《동무, 이러지 말고 들어가오. 전사들을 깨우겠소. 들어가오！》
처녀가 토굴로 들어간 다음에도 곽병식은 숙영지의 변두리를 한동안 거닐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비옷을 뒤집어쓰고 잠을 청하려고 했다. 그러나 령중턱에서 헤매고있을 한철흠과 신찬일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며 정신이 점점 날카로와지고 착잡한 걱정들이 가슴을 죄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던지 뒤쪽에서 다급한 발자국소리들이 저벅저벅 울렸다.
곽병식은 벌떡 뛰여일어나서 돌아봤다.
한철흠이와 신찬일이가 마주오고있었다.
한철흠은 절도있게 경례를 붙이며 수류탄을 찾았다고 보고했다.
《찾았소？！ 어디 있었소？！》
《소대장동지, 돌사태를 만나 딩굴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찬일이가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고했소. 앞으로는 무기와 전투기재들을 눈동자와 같이 아껴야겠소.》
《예…》
곽병식은 신찬일을 천막속에 들여보내고 한철흠이보고도 좀 눈을 붙이라고 일렀다. 그러나 한철흠은 웬일인지 그자리에서 머뭇거리다가 소대장곁으로 다가왔다. 어둠속에서도 근심에 잠긴 그의 얼굴표정을 가늠할수 있었다.
한철흠은 귀뜸이라도 하듯 나직이 속삭였다.
《소대장동지, 우리가 령꼭대기에 올랐을 때는 전선쪽에서 포소리, 총

소리가 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올라가보니 조용합니다. 전선이 더 긴장된게 아닐가요?》

《알겠소. 내 배낭속에 새 내의가 있는데 찬일동무에게 입히오.》

《제게도 있습니다.》

한철흠은 역시 절도있게 경례를 붙이고는 홱 돌아서서 천막쪽으로 걸어갔다.

곽병식은 그 즉시로 중대부천막으로 갔다. 고병근중대장은 없고 황득범이와 최호찬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코를 골며 자고있었다.

곽병식이 최호찬을 깨우려는데 고병근중대장이 몸에서 서늘한 기운을 풍기며 들어왔다. 곽병식은 수류탄을 찾았다는 보고를 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전선쪽이 더 긴장된게 아닌가요?!》

《내 지금 도하장에 갔다오는길이요. 공병들이 다리를 다 복구했소. 우리는 2대대 박격포중대 다음에 다리를 건느게 되오. 곧 출발해서 행군을 다그쳐야겠소!》

자면서도 전투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 듣는 능력을 기른 로병들인 황득범과 최호찬은 어느새 벌떡 뛰여일어나서 중대장곁으로 왔다. 천막이 펄럭이더니 서동길이도 뛰여들어왔다.

깊은 산골의 날은 갑자기 저물고 갑자기 밝아오는지라 고병근이 중대를 이끌고 도하장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날이 희붐하게 새여 모든것이 다 보였다.

도하장은 여러 구분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로 붐비였다. 세찬 산골물소리가 도하장의 복잡한 소음들을 삼켜버렸다.

박격포중대가 한창 다리를 건느고있었다.

포마들은 노상 흔들거리는 허궁다리와 그밑에서 줄달음치는 시커먼 물살에 질겁한듯 앞발을 뻗치고 머리를 쳐든채 코투레질을 하면서 다리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포수들과 마사원들이 앞에서 고삐를 끌고 뒤에서 궁둥이를 치며 몰아댔다.

도하장직일관인 허우대 큰 련대공병장이 바위우에 올라서서 팔을 내저으며 소리쳤다.

《박격포! 빨리! 빨리 빠지오!》

말들은 일단 허궁다리에 들어서기만 하면 냅다 뛰여나갔다. 그 모양이 재미나서 껄껄 웃는 축들도 있었다. 이때 아구리로 재봉기대가리가 삐죽 내민 배낭을 걸머진 한 하사가 말들사이로 뛰여들어 박격포중

대와 함께 빠져나가려고 했다.
　공병장은 그를 보자 버럭 소리쳤다.
　《피복수리소！ 비켜서라구！》
　공병장은 도하장에 엄격한 규률을 세우고 개별적인원들은 물론 련대 피복수리소나 야전우편소 같은 후방부문의 소구분대들은 뒤로 밀어제끼고 전투구분대부터 질서정연하게 뽑고있었다.
　고병근중대장은 도하장규률에 복종하여 대오를 신속히 뽑기 위해 중대를 3렬종대로 세우고는 소대들을 돌아봤다. 그는 2소대 대렬의 제일 마지막에 방송원처녀가 서있는것을 보자 아무말없이 서동길에게로 다가와서 팔을 툭 건드렸다.
　고병근은 서동길의 얼굴은 보지 않고 어딘가 다리쪽에 눈길을 주면서 나직이 물었다.
　《동무가 방송원동무를 마지막에 세웠소？》
　《제가 와 서더군요.》
　《동문 공병장동무 성미를 모르오. 그저 규률대로 하는게 제일이요. 대렬밖에 세우오.》
　고병근은 곧바로 공병장앞으로 걸어나가 3중대는 도하준비가 되였다고 우렁차게 보고했다. 공병장은 매우 만족해하며 박격포중대의 뒤를 따라 곧 다리를 건느라고 말했다. 고병근은 사단정치부로 가는 야전방송원처녀동무가 있는데 데리고 가도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공병장은 얼굴을 들어 엄격한 눈으로 3중대대렬을 한눈에 훑어보더니 대렬밖에 차렷자세로 서있는 처녀를 보자 《좋소. 나도 알고있는 동무요. 중요한 임무를 띤 처녀동무인데 도와줘야지.》라고까지 말하며 쾌히 승낙했다.
　중대는 질풍같이 다리를 건넜다.
　물건너에서는 김이 문문 오르는 가마마차 여러대를 세워놓고 공급소대대원들이 지나가는 전사들에게 따끈한 주먹밥을 나누어주었다.
　가마마차옆에서 대위견장을 붙인 얼굴이,곰살스레 생긴 군관이 방송원처녀를 보더니 반색을 하며 달려나왔다.
　《동무,동무！ 사단정치부에 오지 않소？！》
　처녀는 흠칫 놀라 돌아보더니 그의 앞으로 달려나갔다.
　《네,그래요.》
　《방송원 류정혜동무지요？》
　《네.》

《오느라고 수고했소. 하참, 우린 동무가 홍수에라도 떠내려간줄 알았소.》

군관은 사단정치부에서 몹시 걱정했다는것, 자기는 그를 찾아 밤새껏 골짜기를 헤맸다는것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들을 알아보더니 《지난 밤은 어디서 지냈소?》 하고 물었다.

《한 보병중대를 우연히 만나…》 그리고 정혜는 길쪽을 돌아봤다. 자기를 보살펴준 보병중대는 보이지 않고 낯선 중기관총중대가 지나가고있었다.

길게 늘어선 행군종대는 안개가 서린 계곡을 따라 줄기차게 흐르고있었다.

처녀는 전쟁로상에서 이런 우연적인 상봉과 급작스러운 작별을 수없이 체험했건만 잘 가라, 잘 싸우라 인사말도 나누지 못한것이 마음에 걸려서인지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였다.

그는 이름모를 보병중대가 사라진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포성이 울려왔다.

제 3 장

1035고지

1

련합부대참모부 무전대는 포연속에 잠긴 련대들에서 오는 전파를 받았다. 강태욱련대장이 날려보낸 진기한 꽃들과 물고기 이름들로 엮어진 무전암호문도 능숙한 변신참모에 의하여 쉽사리 풀렸다.

《새벽4시 정각 배비변경을 끝냈음. 인원,기재 손실 없음. 강태욱.》

…

멀리서 바라보면 1035고지부근의 전연 산발들은 전투에 부대껴 날이 떨어져나간 장검처럼 들쑹날쑹한 봉우리들을 감추며 길게 드러누워있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그것은 험악한 산악의 거치른 파도들이였다.

낮에 밤을 이어대는 포화에 흙덩이,돌덩이들이 쉴새없이 튀여오르며 몸부림치고있는 고지는 마치 갈기를 날리며 치솟아오른 하나의 분노한 파도인듯했다.

1035고지로부터는 가위다리처럼 쩍 벌린 두개의 릉선이 가지를 치고있었다. 하나는 잔파도를 이루며 남으로 길게 뻗어나간 《칼릉선》이였고 다른 하나는 짤막한 곁가지를 쳐서 독립고지를 이룬 《주먹릉선》이였다.

고지의 이 이름들은 처음 고지를 방어한 전사들이 붙인것이였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지의 이름도 한번 지어놓으면 내내 그대로 불리우기 마련이였다. 고병근의 중대 전사들에게는 《칼릉선》,《주먹릉선》이니하는 과단성과 무자비성을 상징하는듯한 그 이름들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인계하고 들어간 로병들에 의하여 엮어진,피땀으로 얼룩지고 노을빛이 물들여진 고지에 깃든 《전설》은 그들의 가슴을 들먹이게 했다.

옛날 이 산들은 이름조차 없었으며 누구의 주의도 끌지 않은채 수만

년 자연의 꿈속에 졸고있었다. 빽빽이 들어선 나무가지들은 하늘을 덮어 해빛조차 스며들지 못했다. 음침하고 습한 계곡들로는 메돼지들이 새끼들을 달고 나무뿌리를 뚜지며 기여다녔으며 다래넝쿨의 서늘한 그늘밑에서는 포식한 곰이 느침을 흘리며 졸고있었다.

자연의 정적속으로 날아든 첫 포탄이 아름드리고목들을 와지끈 쓸어눕힌 그때로부터 한달도 못되여 고지에는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성한 바위 하나 남지 않았다. 모든것이 불타고 부서지고 찢기여져서 지진의 퇴적처럼 재만 바람에 날리였다.

미제침략군 제8군의 미련한 우두머리들은 1035고지계선에 총공격의 쐐기를 박아보려고 집요하게 시도했다.

놈들은 포격, 폭격으로 들부시고 만여명의 졸병들을 들이밀었으나 인민군방어선에는 미미한 균렬조차 생기지 않았다. 놈들은 깊은 종심에서 새로운 기갑부대와 포병대를 끌어내오고 무능한 장교들을 갈아대고 자총자들과 도망병들을 총살하면서 고용병들을 몰아세웠다.

하여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을 비롯하여 영국군, 뛰르끼예군등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이 길을 메우며 집짐승떼처럼 1035고지쪽으로 몰려들었다.

그 무리들은 포병준비사격과 파상식공격이란 도식적인 전술의 우리안에 갇히여 전후 90여차에 걸쳐 고지로 밀려올라왔다. 그것은 포성으로 날이 밝고 육박전으로 해가 저무는 나날의 련속이였다. 전대미문의 폭격에 산은 활화산처럼 불타오르며 정점이 낮아졌으며 나무와 풀, 모든것이 불타버렸다. 모든 색갈이 죽어 고지는 하나의 빛, 재빛으로 덮였다. 하지만 사람들, 전사들은 불멸했다. 하루에도 몇차례씩 겪는 육박전에서 날창이 휘여들면 보병삽을 바위에 갈아서 들고 일어났으며 노래를 부르며 돌들을 굴렸다. 아, 수류탄묶음을 안고 적들속에 육탄으로 뛰여든 꽃나이 병사들은 그 몇이였던가!

불탄 땅을 꺼멓게 덮으며 밀물처럼 밀려오던 적들은 산기슭과 골짜기를 시체로 한벌 깔고 살아남은놈들은 태풍에 휩쓸려가는 락엽처럼 유수강너머로 쫓겨갔다. 수백의 사병들을 잃고 군법회의 처형이 두려웠던 한 장교놈은 자결을 앞두고 불사신같은 고지의 신비력의 비결이라도 알려고 고지에 기여올랐다가 전호에서 울려나오는 화선악기의 구성진 가락을 듣자 심장마비를 일으켜 타래엿처럼 몸을 비틀며 뒈졌다 한다.

혈전의 나날속에서 1035고지의 이름은 우리 전사들에겐 승리의 선언처럼, 적병들에겐 죽음의 선고처럼 울리게 되였다.

1035고지, 그 이름은 패망의 절망에 빠진 《유엔군사령부》의 무전수신지우에 피방울처럼 찍혀나왔으며 전화통에 대고 얼굴이 흙빛이 되여 호통치는 적장군들의 입우에, 절망과 책임추궁이 두려워 자살하는 하급장교의 마지막 넉두리속에, 야전병원의 몽유병환자의 환각속에, 미국본토 전쟁과부들의 통곡속에 떠올랐다. 신경이 곤두서고 불면증에 허덕이는 우두머리놈들은 승산이 있어서 싸우는지 참패는 불가피하나 오만한 명예의식때문에 싸움을 계속하는지 자신들도 종잡을수 없었다.

1035고지, 이 네 단위의 수자묶음에 불과한 고지의 이름은 날이 갈수록 무서운 암시와 거대한 뜻을 가지고 울리였다.

고병근의 중대는 바로 이러한 고지를 인계받았다.

새벽어스름속에서 3소대 전사들은 《주먹릉선》의 산기슭에 한줄로 늘어서서 참호를 파올리고있었다. 삽소리, 기침소리 그리고 이따금씩 던지는 엉뚱한 롱지거리들과 두덜대는 소리들.

《넨장, 이건 땅이 아니라 재더미구만…》

《찢어죽일놈새끼들… 웬통 포탄으루다 밭갈이를 해놨네그려.》

《농사군과 보병은 문세가 비슷하다네. 군말말구 땅을 잘 뚜져야 하네…》

전사들은 묵묵히 땅을 파올리고있다. 전선은 고요하다.

1035고지를 타고앉은 고병근중대장은 깐진 살림군처럼 머리속에서 주판알을 거듭 튕겨보고는 2소대에는 《칼릉선》을 맡기고 3소대에는 《주먹릉선》을 주었다. 그리고 싸우고싶어 근질거려 하는 1소대는 예비대로 틀어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주먹릉선》의 앞코숭이 831고지를 인계받은 곽병식은 반나마 허물어지고 만신창이 된 참호를 돌아보자 첫눈에 불만을 느꼈다. 여덟명이서 지켜냈다는 그 참호는 고지꼭대기두리에 빙 둘러 판 작은 원형방어선이였다.

이것은 소수의 인원으로 적의 공격을 막는데 유리한 방어선이였다. 적의 공격을 불벼락으로 좌절시키며 질풍같은 반돌격도 예견하는 공세적인 방어선을 펼쳐야 했다. 그리하여 곽병식은 그 위훈떨친 옛 참호에서 50메터나 더 내려와 새로운 참호를 파기로 결심했던것이다.

곽병식은 분대장들을 거느리고 참호를 파야 할 계선에 선을 그어주고는 매 전사들이 7메터씩 파야 한다고 말했다.

한철흠분대장은 정확한 발걸음으로 땅을 재서 매 전사에게 7메터씩 떼맡겼으며 혹시 자기에게 적게 차례지지 않았나 하여 옆전사의 구간에 눈

길을 파는 전사가 있으면 보병삽자루로 다시 재주었다. 그는 자기 발걸음측정이 어김없이 정확했다는것이 판명되였을 때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런 일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있으며 일종의 즐거움을 느끼고있는듯했다. 한철흠은 땅을 파기 시작하는 전사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규정대로 파야 하오! 피곤하다고 대강 뚜져놔서는 안되오. 근면하지 못한 병사는 전투에서도 용감할수 없소.》

그는 이 마지막 말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아니면 생활체험에서 얻은것인지 기회만 있으면 자기 좌우명처럼 즐겨쓰는것이였다.

곽병식은 한철흠의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들었으며 그리고 그의 좌우명에 공감하면서 자기가 맡은 가운데부분을 삽으로 파기 시작했다. 장마비가 깊은데까지 스며들어 땅은 부석부석했다.

그는 나무뿌리들을 삽날로 치며 흙을 푹푹 퍼올렸다. 인차 몸이 후끈해오며 등골에 땀이 내돋았다. 그는 잠시 허리를 펴고 훤히 밝아오는 새벽 어스름속에서 앞을 내다보았다. 좌우 골짜기와 고지앞에 펼쳐진 개활지대는 짙은 안개에 덮여있고 저 멀리 유수강너머 적진쪽은 그 무슨 음흉한 계교를 꾸미고있는듯 죽은듯이 고요했다.

군관학교 시절과 잊지 못할 평양의 나날에 그처럼 갈망하고 공상했던곳, 시정에 잠겨 즐겨부르던 《불바다의 첨단》이 바로 여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가슴이 설레였다.

불바다의 첨단, 그렇다. 앞에는 아무도 없다. 오직 적이 있을뿐.

매 전사들은 자기가 맡은 7메터 구간을 목숨으로 지켜 적을 방어진지전연에서 소멸해야 한다. 그것이 곧 조국을 지키는 길이며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전사의 임무를 다하는 길이다. 뒤에 예비대가 있고 제2, 제3제대의 종심방어선들이 늘어져있다는것을 생각지 말라! 7메터의 구간, 그것은 조국의 첫 성문의 문턱이나 다름없다. 첫 문턱에서 적을 무자비하게 족쳐 기를 꺾어버려 놈들로 하여금 다시 기여들 엄두도 못내게 하라!

7메터의 구간, 여기에서 자기의 젊음을 영예로 빛나게 하라. 여기에서는 모든것이 명백하고 예리하게 판가리될뿐이다. 승리와 패배, 삶과 죽음, 영예와 치욕… 참호, 여기에서의 공훈은 불멸의 메아리처럼 세월과 함께 영생하며 사소한 비겁이라도 그것은 씻을수 없는 치욕으로 남는다. 이것이 참호의 진리이며 화선철학이다!

젊은 소대장은 벅차오르는 격정을 누르며 수걱수걱 땅을 파고있는 대원들을 돌아보았다. 첫눈에 띄우는것이 박광준이다. 그는 참호의 자기구간 량끝에 큼직한 돌을 세워 옆에 전사와의 경계를 표시해놓고 걸

싸게 땅을 푹푹 파올리고있었다. 박광준은 토지개혁때에도 마을 앞강에 나가 망짝같은 돌들을 업어다가 멀리서도 눈에 띄게 분여받은 땅 네귀에 지경돌로 박아세우고는 그것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일했던것이다.

그는 자기의 전선생활이 땅파기로부터 시작되며 이 일이 보병전사에게 있어서 그리도 중요하리란것을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웬일인지 야전병원침대에서 딩굴며 밤새도록 무훈담으로 젊은 녀군의들과 간호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던 부상병들도 야간기습이며 육박전이며 포위전에 대해서는 신바람이 나서 이야기했으나 보병의 땅파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것이다.

광준은 자기 집 김치움이나 감자움을 파던 솜씨로 차례차례로 네모반듯하고 알뜰하게 참호를 파들어갔다. 그는 삽등으로 흙을 쳐서 다지고는 한삽씩 뜨는 족족 떼여냈다. 그의 옆에서는 조칠성이가 씩씩거리며 땅을 뚜지고있었다.

그는 여기저기 파기 쉬운데부터 흙을 조잡하게 파올리고는 광준이쪽에 탐욕스런 눈길을 흘끔흘끔 던졌다.

《여, 광준동무!》

《왜 그러나?》

《자리를 바꾸지 않을라우?》

《땅이 고약하나? 내 제꺽 다스려놓구 파주지.》

《아니, 다 판 다음에말이야, 슬쩍 하자구!》

《사람두 우리 맘대루 하나?》

광준은 어처구니가 없어 사람좋은 미소를 지었다. 조칠성은 말에 졌다고 생각했는지 시무룩해서 돌아서더니 삽을 휘두르며 나무뿌리를 치기 시작했다.

광준은 삽질을 하며 조칠성이가 파는쪽을 자꾸 엿보게 되였다. 땅세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어슷비슷한것 같은데 저녀석이 어디다 탐을 내는지 그 속궁냥을 도무지 가늠할수 없었다.

조칠성의 참호흉장앞은 적들이 기여오르기 불리한 급한 경사지였으나 광준의 앞은 완만하고 밋밋한 경사면이였다. 적들은 기여오르기 쉬운 광준의 앞으로 더 밀려들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조칠성은 광준의 자리를 탐냈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만한 씨름군의 배심으로 원쑤와 동등한 조건에서 맞서 겨루어보고싶었던것이다.

이 속내를 모르는 광준은 어쨌든 싸움군인 칠성이가 눈독을 들이

는것을 봐서 분명 자기가 파는곳이 으뜸가는 자리인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더 극성스럽게 참호밑바닥을 긁어냈다.

매캐한 린냄새와 휘발유냄새같은것이 전사들이 참호를 파는 산기슭에 서려있었다. 발작적으로 삽을 재게 놀리다가는 자주 허리쉼을 하는 신찬일은 웬일인지 속이 메슥메슥해났다.

어느새 날이 환히 다 밝았다.

신찬일은 손바닥에 야단스레 침을 퉤퉤 뱉으며 삽질을 하면서도 눈길은 딴데로 두리번거렸다.

날이 희뜩 밝으면서 갑자기 드러난 스산한 포탄구뎅이며 연막탄 터진 자리,부서진 바위들이며 너저분히 널린 오그라진 철갑모와 적군의 썩은 군복쪼박지들,이 모든 처절한 싸움의 흔적들은 그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그럴수록 그는 허세를 부려 흙을 참호밖으로 씽씽 내뿌리며 옆에서 땅을 파는 꼬마병사 명보에게 제법 담이 큰 소리를 탕탕 던지는것이였다.

《명보,이놈새끼들이 되겐 얻어맞았군그래. 너무 힘을 빼지 말라구. 우리 3소대 맵짠 주먹맛을 톡톡히 뵈줘야지.》

명보는 응대를 안했다. 그는 아까부터 참호바닥에 깊이 박힌 작은 바위와 씨름하고있었다.

고병근의 련락병 자리에서 풀려나온 명보는 꿈이 하늘만했다. 그는 짬만 있으면 나어린 리수복영웅,황순복영웅,19살에 2중영웅이 된 비행기사냥군조원들의 전투기들을 탐독했다. 밤에 토굴에 누워서 피곤한 전사들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에도 그는 어둠속에서 눈을 슴뻑거리며 공상에 가슴이 부풀어올라 잠들지 못했다. 영웅들이 공훈을 세우던 그 순간은 얼마나 장쾌했을가. 그들도 나처럼 민청에서 비판도 받고 감기에도 걸렸을가?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에서 자기 이름을 봤을 때 그들의 가슴은 얼마나 벅찼을가? 한데 전투기필자선생님들은 다른것은 다 쓰면서도 그들이 자면서 어떤 꿈을 꾸었는가는 왜 신통히 다 빼놓았을가.…

요새 명보는 꿈속에서 늘 별이 총총한 하늘을 날고있었다.

명보는 1035고지에 나오자 작은 가슴이 터질듯이 왈랑거렸다. 그는 련락병으로 있으면서 남에게서 귀여움을 받는것이 싫었다. 명보는 나많은 전사들과 동등하게 되고싶었다. 그는 이 고지에서 영웅이 되리라 남몰래 마음먹고있었다.

명보는 그 첫걸음인 참호작업부터 부리나케 삽질했다. 한데 이 못된 놈의 바위가 앞을 막아선것이다. 그는 바위옆을 빙 둘러파고 곡괭이로 툭툭 치며 얼려도 보고 까내려고 두드려패기도 했다. 그럴수록 바위는

심술궂은 사내애처럼 고집스럽게 틀고앉아서는 옴짝을 안했다.
명보는 골이 잔뜩 났다.
(이놈새끼 맞아봐라!)
명보는 곡괭이를 마구 휘두르며 바위정수리를 내리깠다. 괭이끌이 바위에 부딪칠 때마다 불꽃이 번쩍번쩍 일었다.
《아, 아, 가만, 비키라구. …》
뒤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울렸다.
명보는 놀라서 돌아봤다.
참호뒤에 강태욱련대장과 고병근중대장 그리고 대대장이 벙글거리며 서있었다.
다부진 몸을 날려 참호에 뛰여든 강태욱련대장은 그 인상적인 숱진 눈섭을 치켜올리며 명보를 넌지시 흘겨보았다.
바위와 싸우느라 골이 잔뜩 나서 얼굴이 시뻘개진 명보는 숨을 가쁘게 씨근거리며 한걸음 물러섰다.
강태욱련대장은 바위를 살펴보느라고 쭈그리고 앉았는데 팽팽한 옷이 터질것만 같았다. 련대장은 머리를 기웃거리며 이쪽저쪽을 살피며 손으로 바위를 만져보기도 하고 툭툭 쳐보더니 머리를 끄덕였다.
《음, 요놈이 우리 명보를 골려준단말이지?!…》
련대장은 말없이 삽을 쥐더니 한옆을 깊숙이 파고 괭이자루를 들이밀고 그밑에 돌멩이를 괴여 지레대를 만들었다.
고병근중대장은 엉뎅이를 하늘로 쳐들고 괭이자루끌이 턱에 제대로 물렸나 하고 밑을 들여다봤다. 대대장이 또 막대기 하나를 얻어들고 들어와서 바위밑에 들이밀었다.
전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구경했다.
련대장은 흙이 묻은 괭이날을 두손으로 잡더니 《이놈아!》 버럭 소리치며 꾹 눌렀다.
바위는 움씰하며 쳐들렸다. 그것은 마치 지레대의 힘이 아니라 련대장의 호령에 놀라서 껑충 뛰여오른것 같았다.
전사들은 술렁대며 《하하…》 웃었다. 명보도 소매로 코밑을 씻으며 시무룩 웃었다.
혈기왕성한 얼굴이 힘을 쓰는바람에 불깃해진 강태욱은 꼬마병사에게 삽을 쥐여주며 잔등을 또닥또닥 두드렸다.
《참호를 잘 팠소. 중대장동무, 이런 착실한 련락병을 왜 내놨소? 쫓겨났나, 제가 뛰쳐났소?》

《글쎄요…》

고병근은 손으로 덜미를 쓸며 어줍은 미소를 지으면서 옛 련락병을 정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이때 릉선 저쪽 참호끝에 가서 전사들의 작업을 도와주던 곽병식 소대장이 걷어올렸던 팔소매를 풀어내리며 달려왔다. 그는 련대장앞에 와 경례를 붙이며 보고했다.

《련대장동지, 3소대는 현재 참호작업중입니다. 작업중 사고 없습니다!》

몸을 뒤로 젖힐사 하고 엄한 얼굴로 경례를 붙인 강태욱은 보고를 도중에서 그만두게 하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련대장은 불덩이같이 화끈한 손으로 그의 손을 꽉 잡아흔들었는데 젊은이는 그 뜻을 깊이까지 가늠하기엔 너무나 모르는것이 많았다.

련대장은 참호를 돌아봤다. 곽병식은 자기 결심이며 굴설된 참호가 어떤 평가를 받겠는가 하고 가슴을 조이며 뒤따랐다.

련대장은 흙을 퍼올려 쌓은 참호흉장을 손으로 꾹꾹 눌러도 보고 참호에 엎디여서 사격자세도 취하여보면서 천천히 걸어나갔다.

전사들은 그가 옆을 지날 때마다 빳빳하게 차렷하면서 나지막하면서도 힘찬 목소리로 인사했다.

《전사 신찬일!》

《전사 박광준!》

《전사 조칠성!》

련대장은 조칠성의 옆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능청스러운 눈길로 그를 돌아봤다.

《마초를 베기 싫어서 꾀병까지 앓았다면서?》

《아닙니다!》

《쌈판에 나오니 여기가 어드래?》

강태욱은 주먹으로 조칠성의 왼쪽 가슴을 꾹꾹 눌러보며 물었다.

《현리 포위전때와 같습니다!》

《허허… 그럴테지. 그래 동무는 이 참호를 파올리며 무슨 생각을 했나?》

《이전에도 수백개의 전호를 팠지만 여기처럼 맘에 드는 자리가 드물었던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명당자리를 떼우면 어찌겠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흠, 그러니 동문 내가 와서 좀 싸워보자구 해두 자리를 안내주겠구만.》

《그럴리 있나요. 련대장동지가 오시면야…》
조칠성은 한걸음 옆으로 척 물러서며 발뒤축을 모아붙였다.
강태욱은 한손으로 허리를 짚고는 상반신을 흔들며 웃었다.
고병근과 전사들도 벙글거리며 웃었다. 참호에는 어느새 화기가 돌았다.
《동무들, 이 참호를 한놈의 원쑤도 뛰여넘지 못하게 해야 하오! 뒤에 제2방어선이 있다는걸 생각마오! 저놈들이 이 참호앞에 주검으로 산을 쌓게 답새기자구!》
이렇게 부르짖는 강태욱의 곤두선 눈섭은 푸들푸들 떨었다. 그는 발걸음을 옮겨 참호끝까지 가보고는 곽병식에게 아무런 평가도 주지 않고 릉선으로 올라갔다.
부서진 바위에 걸터앉아 짙은 안개바다에 덮인 적진쪽을 한동안 바라보던 강태욱은 문득 이렇게 물었다.
《지휘관으로서는 첫 싸움이겠지?》
《예.》
《지휘관이 결심을 정확히 내린다든지 의지가 굳다거나 전술적지혜가 특출하다든지 이런것만으로는 전투에서 이길수 없소. 실지 싸우는건 전사들이거던. 그 사람들 가슴속에 싸움에서 이길 밑천이 있단말이요. 그 밑천을 잘 들어내는 지휘관이라야 어떤 어려움속에서도 실수 없이 승리를 하오. 이를테면 전사대중들에게 잘 의거해서 그들의 힘과 지혜를 잘 계발해야 되오. 이게 중요하오.》
곽병식은 련대장의 흙투성이 된 장화를 내려다보며 묵묵히 서있었다.
강태욱련대장은 무슨 딴궁리를 하는것이 아니냐는듯 엄한 눈길로 그를 흘깃 쳐다보고는 적진쪽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더니 불쑥 이렇게 물었다.
《소대장동무, 저놈들이 왜 이렇게 조용하오. 동무 생각을 좀 말해보오. 싸움을 포기한겐가? 숨을 돌리고있는겐가? 어찌된셈이요?》
강태욱은 그 속내를 몰라서 진정 속을 태우는 사람같았다.
곽병식에게 있어서 이것은 뜻밖의 질문이였다. 그는 그저 적이 올라오면 치겠다는 생각만 했지 이것에 대하여 한번도 추리해본 일이 없었다.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고있었소?!》
《…》
《올라오면 치겠다는 생각만 하고있었나?》

련대장은 그의 가슴속 구석구석을 만져보며 말하는것 같았다.
《그건 벌써 수세요. 방어는 공격이요! 칠놈을 잘 관찰해야 숨통을 찌를수 있단말이요. 참호는 왜 내려다 봤소?!》
강태욱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곽병식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젊은 소대장은 그 시선에 위축되여 변명하는것이 아니라 심장을 내대듯 주저없이 자기 주견과 신념과 결심을 토로했다. 그러자 강태욱은 눈을 지그시 내리감으며 그의 말을 주의깊게 듣더니 보일듯말듯 머리를 끄덕였다.
《음…》
강태욱은 오랜 군대생활을 통하여 지휘관의 성실성에 대한 엄격한 요구를 갖고있었다. 지휘관은 상관의 애매한 눈빛앞에서 신념이 흔들리거나 그의 눈치와 기분에 맞춰 엄혹한 현실을 분식하거나 일시적위안을 위해 진실에 사탕발림을 하려고 들어서도 안되는것이다.
그것은 상관을 참되게 보좌하는 길이 아니며 가장 위험하고 죄악적인 후과를 가져올수도 있는것이다. 참된 지휘관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과학적인 신념에 안받침된 배심을 가져야 하는것이다. 왜냐 하면 그는 어떤 우연적인 위기에서도 대원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며 조국땅의 한쪼각을 맡아서 지키는 사람이기때문이다.
곽병식의 인격에서 이와 같은 지휘관다운 자질의 씨앗을 엿보게 된 강태욱은 못내 기뻤으나 그 감정도 가슴속깊이 묻어두고 드러내지 않았다.
《내 생각은 이렇소.》
강태욱은 은근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차근차근 말했다.
《저놈들이 조용한건 유수강상류인 저앞 골짜기물이 범람했기때문이요. 산골물이란게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닷새를 못가오. 물이 줄면 덤벼들게요. 포사격을 안하는걸 보면 저놈들이 여기서 배비변경이 있은줄 모르고있는게 분명하오. 닷새후이면 꼭 정황이 있을게요.》
강태욱은 눈을 가느스름히 좁히고 적진쪽을 보며 말했다. 그의 추리는 혼돈의 안개를 헤치고 화살처럼 앞으로 날아갔다.
《놈들은 그새 무슨 변동이 없는가 해서 위력정찰을 선행할게요. 증강한 중기화점들을 절대로 로출시켜서는 안되오. 한개 분대로만 방어하면서 만만히 보이란말이요. 그러면 대무력이 밀려들게요. 그땐 탄약을 아끼지 말구 집중사격과 교차사격으로 갈겨대오. 우린 박격포로 놈들의 퇴로를 답새기겠소. 단매에 놈들의 유생력량 절반을 없애치워야겠소!》
곽병식은 그 통쾌한 순간이 방금 눈앞에 펼쳐지기라도 하듯 가슴이 설레여 《옛!》 하고 저도모르게 대답했다.

강태욱은 그의 때이른 흥분을 눌러버리며 못마땅한듯한 눈길로 흘끔 돌아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놈들은 포사격으로 화풀이를 할게요. 그땐 모두 굴속에 들어박히오. 감시와 전투경계를 철저히 조직해놓고 전사들이 푹 쉬게 하오.》

《네…》

23살의 청년에게 조국의 한 메부리를 떠맡기고 가는 련대장의 발걸음이 가벼울리 없었다. 강태욱은 자주 뒤를 돌아보았다.

항일빨찌산 기관총수의 아들은 831고지 꼭대기에 초병처럼 움직이지 않고 서서 그들을 눈바래움하고있었다.

강태욱련대장은 칼릉선의 2소대에 못지않게 3소대에 와서도 만족했다. 칼릉선의 전사들은 반석같은 신념으로 그를 맞이했다면 주먹릉선의 전사들은 공세적인 기백으로 그를 맞이했던것이다.

곽병식이가 참호를 내려다 파고 《공세적인 방어선》을 펼친것을 봤을 때 그의 가슴은 장하다는 생각과 함께 짜릿한 아픔을 느꼈다.

(아, 과연 최무성의 아들이로구나!)

가슴속깊이 간직된 추억이란 맑고 깊은 호수밑바닥에 가라앉은 황금빛 락엽들처럼 그 무슨 충격이나 설레임만 있어도 한꺼번에 몰려서 떠오르기마련인가.

참호를 돌아본 강태욱은 갖가지 장엄한 추억들이 떠올라 목이 꺽 메였다.

오, 그것은 어느해, 어느날이였던가.… 밤하늘에서는 별찌들이 떨어지고 부풀어오른 대지에선 꽃망울들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듯하던 봄밤, 유격대원들은 깊은 잠에 들고 꺼져가는 모닥불우 차관에선 물만 설설 끓는데 기관총수 최무성은 부사수로 갓 들어온 소년광부 강태욱의 손을 꽉 잡고 씁쓸한 마라초내를 풍기며 왜놈을 치고 이 기관총을 같이 메고 조국으로, 고향으로 가자고 속삭였었다. 그러나 석달후 그의 최후는 너무나 장렬한것이였다.

간도의 저녁노을은 그날따라 유별나게 찬란하고 붉게 탔었다. 망국노의 운명에 신음하는 불운한 겨레들의 가슴을 비쳐주시는 태양, 혁명의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사령부쪽으로 밀려드는 《토벌대》와 맞서 방차대에서 싸우던 기관총수 최무성은 여섯발의 총탄을 맞았다. 방차대로 달려드는 원쑤들의 아우성을 듣자 그는 벌떡 일어서 적을 맞받아 쏘고쏘고 또 쏘며 걸어나갔다. 긴 여운을 끌며 강산에 메아리친 그

총성은 원쑤들에게 죽음을 선언하는 그의 마지막 웨침이였다.
기관총을 안은채 쑥밭에 쓰러진 최무성이옆에서 강태욱은 형을 잃은 막내동생처럼 땅을 치며 통곡했다.
꽃나이 청춘에 너무도 일찌기 간 기관총수의 선혈이 산야에 뿌려진듯 그해에 핀 메꽃들과 단풍은 전에없이 붉게 탔었다.…
잊지 못할 1948년 2월 8일,새로 창건된 인민군대오가 장군님앞을 충성의 맹세를 다지며 열병행진해간 그날밤 조선인민혁명군의 전우들은 평양 창광산에 있는 옛 기관총수의 안해 김봉순의 집을 찾아가는 것을 잊지 않았다. 축배의 술기운에 모두들 거나해졌을 때 누군가 《사향가》의 가락을 은은하게 뗴였다. 투사들은 풍상고초에 거칠어진 목소리로 그 노래를 합창했고 두손에 턱을 고이고 듣고만 있는 김봉순의 얼굴로는 후더운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었다.
방안이 다시 흥성거리고 떠들썩해졌을 때 강태욱은 김봉순에게 황해도 땅 어느 향토시인이 지어주었다는 아들의 이름을 왜 바꾸지 않았는가고 물었다.
봉순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이름이 대순가,그 애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후 강태욱의 마음은 창광산 전우의 집으로 매일밤 달려갔으나 38도선에서의 팽팽한 정세는 그의 몸을 놓아주질 않았다.…
련대간부참모에게 안내되여 곽병식이가 그의 반토굴안에 들어섰을 때 강태욱은 기관총수 최무성이가 인민군군관복을 산뜻하게 입고 환한 얼굴로 들어서는것 같아 놀라서 뛰여일어났었다. 환각의 희롱은 찰나적일뿐 그의 앞에는 양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있는 전우의 아들,신임소대장 곽병식이가 서있었다.
혁명의 우여곡절과 시련의 험준한 산악들을 수없이 넘어온 강태욱은 전쟁이란 이 무자비한 불도가니속에서 상관과 부하간에 달짝지근한 인정세태적인 감정이 끼여드는것을 제일 두려워했다. 그렇게만 되면 상관에겐 (그도 사람인 이상!) 부하에 대한 값눅은 동정과 련민으로 하여 엄격한 요구대신 나약한 고려와 그 어떤 사소한 우유부단이 생길수 있으며 부하에겐 상관앞에서의 절대복종의 리념보다도 여러가지 자질구레한 감정들과 어리광 비슷한 천진한 감정도 생길수 있는것이다. 그렇게 되면 벌써 칼날같은 원칙이 번쩍이던 대오도 빛을 잃고 문문해지기 시작하며 융화와 묵과가 곰팽이처럼 번성하여 전투력이 피기를 잃게 되며 부하를 참된 혁명전사로 키우는데도 우여곡절을 겪을수 있는것이다.

원칙적으로 사랑하며 원칙적으로 키우자! 이것이 또한 최무성동지앞에서 참된 혁명적의리를 지키는것으로 될것이다. 강태욱은 반가움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지휘관의 엄격한 자세를 허물지 않고 신임군관들과 하는 일상적인 담화를 나누고는 그를 내보내고 저녁에 야전병원 정치부원장 김봉순에게 편지를 썼다. 며칠후 받은 회답편지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저는 지난날 제자식을 맡아서 키워준 의로운분들에 대하여 잊지 않을것입니다. 양부모들이 사망한후 저는 그 애를 찾아와 곁에 데리고 있게 되면서 얼마동안은 날이 가는줄도 시간이 흐르는줄도 몰랐어요. 밤이면 불을 끄고 누워서는 옆에 누운 아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게 꿈이 아닌가, 내게도 어쩌면 이런 행복이 차례졌을가 하는 생각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이 자꾸 보고싶어 가만히 일어나 불을 켜고 아들의 손을 잡고 앉아 아버지를 닮은 그 용모를 밤 가는줄 모르고 내려다봤어요. 강태욱동지, 제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 이때 못해준것을 다 해주고싶었습니다. 손발도 씻어주고 옷도 입혀주고 먹고 싶다는것을 다 먹이고싶었습니다. 퇴근할 때면 방에 불이 켜져있는 것을 보고 벌써 학교에서 돌아와 공부하는게구나 생각하며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어른처럼 허리를 구부정하고 마당을 쓴다든지 나무를 패안고 부엌으로 들어오는것을 보면 그게 너무 대견스럽고 기쁘고 내게두 언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생각이 들며 눈물이 앞섰습니다. 저는 그 애가 조그마한 일이라도 해놓으면 칭찬의 말을 아끼고싶지 않았습니다. 저게 없을 땐 어떻게 살았을가 하는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 애는 봄비가 내리면 방에 뛰여들어와 기쁨에 넘쳐 소리소리치고 날이 무겁게 흐리면 울적해하였습니다.

처음엔 저 애가 왜 저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날 그 애는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대중적시위가 놈들의 탄압으로 무참히 진압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보도를 거리에서 듣고 뛰여들어와서는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고 욕설도 퍼붓고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팔을 드리우고 침대에 누워 절망에 빠진 사람의 얼굴을 하고있었습니다. 파리하고 해쓱한 얼굴에서는 눈물방울이 맥없이 굴러떨어지고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이런 지나친 감정의 파동에 놀랐습니다. 그리고보니 그 애 몸이 불면 날아갈것처럼 약해보였습니다. 문득 나에게는 양부모가 저 애를 어떻게 키웠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날밤 피로움을 참으면서 이전 있던 집애기를 물었습니다.

지난세월 량심을 지키며 살았으나 투사는 아니였던 향토시인의 감상적인 입김이 그 애 정신에 깃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마음이 복잡해지고 괴로왔습니다. 광복된 조국에서는 모든것이 밝기만 하리라고 생각했던 제가 아들과 자기 마음을 놓고 고민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제자식을 키워준 고인으로 된분들에 대하여 어찌 털끝만한 불만이라도 품을수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모자랐던것을 제가 보충해준다면 그분들도 저 땅밑에서 기뻐하리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며칠후 평천리에 가서 쇠장대를 메왔습니다. 제손으로 마당을 파고 철봉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그 애를 흔들어깨워 랭수마찰을 시키고 철봉대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모내기철에 몸이 약하다고 학교선생이 집에 돌려보낸것을 도로 쫓아보냈는데 그만 앓아누워버려 병원에 입원한 일도 있었습니다. 항간에서는 나를 보고 기른 정이 없으니 저런다고 〈독한 어머니〉라고 머리를 젓는가 하면 자식은 저렇게 키워야 한다고 혀를 차는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아들을 **김일성**장군님께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워야 한다는 립장에서 물러설수 없었기때문에 강하게 키우려고 했었습니다. 그후 나는 그 애를 기숙사에 내보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업은 바빠져서 나는 그 애를 몇번밖에 찾아못갔고 그 애도 몇번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져 나는 아들과 작별했습니다. 강태욱동지, 고맙습니다. 그런 엄격한 립장을 취하여줘서 고맙습니다. 그것이 곧 최무성동지에 대한 동지적의리이기도 할것입니다. …》

편지를 읽고난 강태욱은 자기의 로파심을 속으로 웃으며 담배를 피워물었다. 어머니의 그 마음이 대견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가슴이 무거워났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위하여서는 모든 개인적인 감정을 누르고 혁명투사의 그 엄격한 요구성으로 고인이 된 전우의 아들을 대해야 되겠기때문이였다.

여기까지 생각한 강태욱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난데없이 일어난 회오리바람에 노한 파도처럼 사품치며 날려오르는 안개바다가 모든것을 삼켜버리고말았다. 831고지도, 전우의 아들도 보이지 않았다. 상실감 비슷한 허전한 감정이 가슴에 흘러들었다. 강태욱은 명상에 잠긴듯 눈을 쪼프리고 발밑에 펼쳐진 망망한 안개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련대장동지, 갑시다. 저놈들 직일포가 날아올 시간이 됐습니다.》 옆에 온 부관이 말했다.

강태욱은 그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뒤따라온 고병근을 돌아봤다.

《중대장동무, 동무는 어떻게 생각하오?》

고병근은 련대장이 신중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말하지 않고 《동무는 어떻게 생각하오?》 하고 묻는 습관을 알고있는지라 얼굴이 긴장해지며 차렷자세를 취했다.

《예?!》

《인계받은 방어시설이 맘에 드오?》

《그 동무들이 싸움을 하느라고 방어공사할 짬이 없은것 같습니다.》

언제나 남의 일을 깎아내리는 성미가 아닌 고병근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게만 생각할게 아니요. 그 동무들이 갱도전에 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상의 진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것 같소… 갱도를 든든한 은폐호로만 여겨서는 안되오. 휴식할 때에만 안전한곳에 있고 싸할 때엔 참호에 나가 엎디여있을바엔 갱도가 무슨 그리 필요하겠소.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갱도는 전사들의 안전한 휴식터로 될뿐만 아니라 적을 치는 방어전의 요새로 돼야 한다고 가르치셨소. 적 류산탄밑에서 전혀 무방비상태인 참호에 저 동무들을 그냥 둬둘수 없소!》

강태욱은 이렇게 말하고 언제나 감정의 변화를 알수 없는 고병근의 무표정한 눈을 찌르는듯 주시하다가 다시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다. 릉선은 점점 가파로와졌으나 강태욱련대장의 발걸음은 자국마다 빨라졌다.

2

중대부는 하나의 자연동굴 비슷했다. 암반을 뚫고 들어간 이 굴은 동발을 댈 필요가 없었다. 락수물이 떨어지는 천장에다는 병사용 비옷을 치고 한쪽 귀에 물받이 밥통을 달아매놓았다. 중대부는 중대장, 정치부중대장, 특무장, 서기, 위생지도원, 련락병, 전화수들이 림시로 모두 한방에 있어 비좁았다.

중대부 한쪽벽에는 강습에서 돌아온 정치부중대장 김문규가 정히 간수해가지고 온 최고사령관동지의 새 초상화를 정중히 모셨다.

고병근은 텁텁해보이면서도 알뜰한것을 좋아했다. 손수 방을 쓸고 모포들을 털어내고 배낭들을 벽에 가지런히 걸어놓고 하는통에 련락병, 서기, 전화수들이 앉아있을새가 없이 하루종일 방을 꾸리고 쓸어내고 해서 제법 살림방처럼 아늑한 기운이 돌았다.

그날은 《칼릉선》의 서동길이와 《주먹릉선》의 곽병식이가 린접구분대와의 교차사격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왔고 거기에다 1소대장 최호찬, 중기소대장 황득범이까지 끼여들어 중대부는 떠들썩했다.

정치부중대장 김문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긁적거리더니 특무장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이거 손님들이 왔는데 뭐 좀 대접할게 없을가. …》

특무장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듯 싱긋 웃어보이고는 밖으로 뛰여나갔다.

정치부중대장 김문규는 소대장들로부터 각 소대 방어시설물들의 상태와 전사들의 사기에 대하여 료해하고 이렇게 말했다.

《모두 알고있겠지만 지금 미제침략자들은 또다시 침략적인 공세를 감행해보려고 그 준비를 발악적으로 다그치고있소. 요새 저놈들은 〈교살작전〉이요, 〈초토화작전〉이요 하고 떠벌이는 공군작전으로 우리 후방을 야만적으로 무차별폭격하면서 한편으로는 상륙부대들을 준비시키고있소. 그리고 전선에 병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아군방어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시탐식공격〉을 계속하고있소. 놈들의 기도는 불을 보듯이 명백하오. …》

김문규는 하던 이야기를 중동무이하고 공간의 한점을 잠시 응시했다. 교원생활에서 생긴듯한 그의 이런 습관적인 표정은 듣는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미제침략자들이 또다시 침략적공세를 감행한다면 그를 일격에 물리칠수 있도록 전선과 동서량해안방어를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방어전에서 군사활동을 더욱 적극화하여 적들을 피로케 하며 놈들의 유생력량과 기재들을 소멸할데 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소. … 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방침에 의하여 전선방어뿐아니라 해안방어도 매일매일이 다르게 강화되고있소. 미국놈들의 공군작전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대공화력도 비할바없이 증강되여 후방 어느곳에서나 적기가 얼씬만 해도 고사포탄들이 하늘을 포연으로 덮으며 튀여오르는판이요. …》

총명한 젊은 소대장들은 정치부중대장의 신중한 얼굴표정으로 보아 그의 말뒤에 숨어있는 군사기밀과 관련된 더 깊은 내용들을 가늠해보면서 바싹 정신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들었다.

김문규는 열기를 띠고 번뜩이는 최호찬소대장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말을 이었다.

《청천강 이북상공에서는 요새 우리 〈제비〉들이 나타나서 적기들을 쫓아다니면서 요정내고있소. 그래서 저놈들이 자랑하던 비행기들이 진짜 늦가을 파리처럼 맥없이 떨어진다니깐.… 농민들이 낫과 괭이를 들고 달려들어 미국놈비행사들을 포로해서 끌고가는 형편이요. 우리 뒤는 하늘이나 해안이나 다 든든하오. 문제는 우리가 전선에서 방어를 잘하는데 있소.
분초를 다투어서 방어진지를 튼튼히 꾸리고 놈들이 공격해오면 약점을 보이지 말고 방어전연에서 소멸해버려야 하오. 여기서 장기방어를 할것이 예견되는것만큼 마음들을 누긋하게 먹고 갱도를 기간으로 해서 방어진지를 튼튼히 꾸리면서 살림살이를 펼 생각부터 해야겠소.…》 이때 특무장이 밥통에다 김이 문문 나는 감자를 가득 담아가지고 들어와서 군관들 앞에 내놓았다.
주먹만큼씩한 감자를 보자 대식가인 중기소대장 황득범이가 환성을 올렸다.
《야, 이거 무산감자, 진짜배기 무산감자로구먼！》
김문규는 잘 익어서 껍질이 툭툭 터진 감자들을 골라서 소대장들의 손에 쥐여주고는 자기도 하나 들어 후후 불며 껍질을 벗겼다.
김문규는 한집안의 떠들썩한 형제들처럼 롱지거리를 하며 감자를 성급하게 먹고있는 젊은 소대장들을 미소어린 눈길로 돌아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체하겠다구. 원, 성미들두… 방어를 하자면 성미부터 누긋하게 고쳐야 하오. 하루이틀도 아니고 오래동안 붙박여서 장기방어임무를 수행하게 되는것만큼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야 하오. 그러자면 우선 전사들이 여기 고지와 릉선들에 빨리 정을 붙이도록 해야 할텐데…》
감자를 한입 가득 물어 량볼이 불룩해진 황득범은 《정을 붙인다》는 그 말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지 곽병식을 돌아보며 넌지시 눈웃음을 지어보였다.
다변가이며 활동가인 서동길이가 활기를 띠며 입을 열었다.
《정말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알고보니 우리 고지엔 정을 붙일만한게 한두가지 아니거던요.》
중대의 예비로 남게 되여 전연고지를 차지하지 못한 최호찬은 부러움을 감추며 서동길을 치떠봤다.
《동무네 그 칼릉선에？！》
서동길은 그의 이런 물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계속했다.

《왜 칼릉선이라구 했는가? 아득한 옛날에는 이 릉선이 없었다누만. 임진란때 어느 장수가 여기서 사로잡은 왜장의 목을 쳤대. 장수는 하늘이 무너져내리게 호령을 하며 장검으로 내리쳤는데 대가리는 구십리밖으로 뿌리워나고 쳐든 칼날에서는 왜장의 검은 피가 뚝뚝 떨어졌대. 장수는 칼을 던져버렸는데 그게 이 릉선을 이루었다는거요.》

사람좋은 황득범은 머리를 끄덕였고 곽병식은 감자를 손에 쥔채 눈을 내리깔고 제혼자 생각에 잠겼다.

《대포를 놓아도 분수가 있지 누가 그러던가? 쳇, 아니 버린 칼이 저렇게 큰 릉선이 됐단말이야?!》

귀가 좁기로 유명해서 웬만한 말을 믿지 않는 최호찬이 서동길을 흘겨보며 쿡 찔렀다.

《나하구 인계한 소대장이 한 말이라니까…》

《아니 강원도 이 심심산골로 왜장이 말을 타구 들어왔단말이야? 력사박사를 옆에 놓구 흰소릴 작작 하라구. 정치부중대장동무, 그렇지 않습니까?》

최호찬은 열기 떤 눈을 디굴거리며 김문규를 보면서 응수하기를 바랐다.

평화시기 어느 교원대학 력사교원을 지낸 일이 있는 김문규는 난처한 미소를 지으며 판가리하기를 주저했다. 어린애와 같이 천진한데가 있는 서동길은 궁지에 빠져 약이 바싹 올랐다. 그것이 재미있기도 했다.

《왜장들은 말을 타고도 다녔고 가마를 타고 다니기도 했으니까 이 산속으로 올수도 있고 못올수도 있지. 하여튼 이건 전설일테니까 전설에서야 돌멩이도 노래부르지 않소.》

전설이란 그 한마디에 구원된듯 서동길은 얼굴이 환해지며 환성을 질렀다.

《옳습니다. 전설입니다! 우리 고지엔 전설이 한두가지가 아니거던요!》

《또 무슨 얘기가 있소?》

력사가인 김문규는 바싹 구미가 당겼다.

《고지중턱에 샘물이 있지요. 〈장수샘〉 혹은 〈중기샘〉이라구 하는데 마셔보니 배속이 막 얼어듭디다. 옛날 장수들이 새벽에 일어나 이 샘물로 눈을 닦으면 천리를 내다봤답니다. 중기방열통에 그 물을 퍼넣구 쏘면 제격이랍니다. 아무리 쏴야 물이 끓지를 않는다거던요. 조화지요. 그 샘물에 버들치 여섯마리가 살았는데 지난 여름에 어느

친구가 네마리를 지져먹구 특무장한테 처벌을 받았는데 지금 두마리가 꼬리치고 다닙니다.》

《히야— 버들치가？！》

황두범이가 어린애처럼 호기심에 끌려 속삭였다. 김문규도 신기해서 미소를 지었다. 버들치소리에 기가 죽었는지 최호찬은 잠자코 있었다. 이때라는듯 서동길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최호찬을 넌지시 건너다보며 눈을 찡긋했다.

《여 최호찬이, 한번 칼릉선에 나오게. 버들치를 지져서 대접할테니.》

《버들치 아니라 잉어가 있대두 칼릉선은 탐나지 않네.》

《그러지 말구 솔직히 고백하게. 칼릉선에 와 싸우고싶어 죽겠다구. 그럼 내 방어선 한쪽 귀퉁이를 떼주지.》

약이 오른 최호찬은 얼굴이 뻘개져서 큰 소리로 억지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이 재미나서 김문규도 곽병식도 득범이도 빙그레 웃었다.

이때 고병근중대장이 들어왔다. 대대에서 오는길이다.

곧 린접구분대와의 협동과 교차화력문제가 토의되였다. 3중대에서의 군관모임은 언제나 엄격한 규률속에서 진행되였다.

고병근은 적들이 칼릉선과 주먹릉선사이의 골짜기로 들이밀 기미가 보인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 골짜기를 깊은골이라고 부르겠다고 언명했다. 특무장은 그 부름이 우스웠던지 키득했으나 인차 중대장의 근엄한 얼굴을 쳐다보고는 웃음을 꿀꺽 삼켜버렸다. 소대장들은 그 이름을 수첩에 적어넣었다.

《깊은골로 들어오는 적 유생력량에 대한 교차사격을 위하여 2소대, 3소대에서는 깊은골쪽 경사면에 각각 중기 1문과 경기 1문씩을 고정적으로 배치할것.》

고병근은 곽병식이와 서동길의 얼굴을 번갈아 돌아보면서 말을 이었다. 《린접구분대와의 협동작전, 교차사격의 집행에서는 동지애와 전투적련대성의 감정 등 지휘관들의 도덕상태가 검열되오. 이것을 잊지 마오. 탄알을 아껴야겠소. 장마가 갓 끝난만큼 아직 수송이 잘 보장되지 못하고있소.》

오랜 군대생활의 관습으로 하여 군말과 수식사를 질색해하는 고병근은 연설도 회의도 짤막하게 했다. 그는 의견이 있으면 제기하라고 했다.

서동길이가 칼릉선의 방어선이 보병전투규정에서보다 더 길므로 중대예비로 가지고있는 중기중대 배속중기중에서 한문만 더 내라고 요구했다.

《주먹릉선의 방어선도 동무네만 못지않은데 곽병식동문 그걸 요구

하지 않소. 그런데 동문 왜 중대예비를 벌써부터 뜯어먹자구 하우？！》
하며 고병근은 린색한 창고장처럼 거절해버렸다. 회의는 끝났다.
밖은 벌써 캄캄해졌다. 적 탐조등 불빛이 대들보처럼 하늘에 가로질렸다. 적진쪽에서 발동기소리같은것이 들리고 전선중부쪽에서는 먼 포성이 우르릉 우르릉… 울려왔다.
중대부에서 나온 곽병식은 서동길이와 악수를 나누고 헤여졌다. 곽병식은 몇걸음 걸어오다가 걸음을 멈추고 서동길을 불러세웠다.
《소대장동무！》
《왜？》
서동길은 무슨 일인가 호기심에 끌려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어둠속에서도 장난기 어린 눈의 반짝거림이 보였다.
《왜？ 왜？》
《칼릉선샘물에 진짜 버들치가 있소？》
《왜 그러나？》
《글쎄…》
《하하하… 내 말을 곧이 들었나？！… 하하하…》
서동길은 두손을 옆구리에 짚고 몸을 앞뒤로 흔들며 웃어댔다.
《최호찬을 톡톡히 골려줬지. 그 친구 싸우고싶어 죽을 맛이거던. 여, 최호찬이한텐 비밀을 지키라구.》
서동길은 그의 옆구리를 툭 치고는 돌따서 뛰여가버렸다. 그가 어둠속에 사라진 뒤에도 곽병식은 빙그레 미소를 지은채 서있었다.
(좋은 동무야. …)
그는 온몸이 따스하고 달콤한 행복감에 젖어드는 감을 느꼈다. 곽병식은 교통호를 따라 터벅터벅 내려오며 서동길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중대부에서 있은 군관모임에 대하여 생각하게 됐다. 화선에 나와 처음 있은 군관모임은 그의 가슴에 따끔한 자극을 주었다. 아까 중대부에서 서동길이가 자기 고지의 전설이며 샘물이야기를 늘어놓았을 때 그는 가슴이 섬찍했다. 물이 있어야 중기도 쏘고 밥도 짓고 싸울수 있다. 그러나 자기는 전사들이 떠다주는 물을 꿀꺽꿀꺽 들이키기만 했을뿐 그 물을 어디서 길어오는지 알려고도 안했다.
다변가인 서동길은 대원들에게 자기들이 지키는 고지를 두고 자랑과 긍지를 느끼게끔 얼마나 구수하게 엮어댔겠는가.
문득 곽병식은 서동길의 기세앞에서 위축감을 느끼는 자기를 발견했다. 그는 혁띠고리를 단단히 졸라매며 속다짐을 했다.

(고지에 새 전설을 만들자. 우리들의 피로 쓴 전설, 그건 어느 한 장수의 전설이 아니라 전사들의 대중적영웅주의에 대한 전설일것이다!)

곽병식은 가파로운 릉선길을 따라 쭈르륵 미끄러지기도 하고 달음치기도 하면서 소대가 있는 고지로 내려갔다.

3

닷새후면 정황이 있으리라던 강태욱련대장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아침 소대가 토굴속에 빙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있는데 감시를 서던 명보가 뛰여들어왔다.

《소대장동무, 적입니다. 놈들이 물을 건너옵니다!》

《놈들이?!》

누군가 어처구니 없다는듯 허구프게 웃었다. 소대원들은 식사를 그냥 하게 하고 곽병식은 권총을 쥐고 참호로 뛰여내려갔다.

아침해빛을 받아 반짝이는 강물로 시꺼멓게 보이는 두놈이 물살에 밀리지 않으려고 허우적거리며 건너오고있었다. 한놈이 물때오른 돌에 미끄러졌는지 뒤로 벌렁 넘어져 첨버덩거리다가 일어났다. 앞에 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걸어나왔다.

《갈겨버릴가요?!》 명보가 불찌같은 눈으로 소대장을 돌아봤다.

《가만…》 곽병식은 날카로운 눈길로 놈들을 쏘아보고만 있었다.

이 땅우에서 한시바삐 쓸어버리고싶은 조급한 욕망으로 그의 젊은 가슴을 태우던놈들이다!

물을 다 건너온놈들은 이쪽을 보며 두리번거리는것 같았다. 순간 곽병식에게는 저놈들은 근대문명의 수치인 어두운 세상에서 짐승으로 길들여지고 하느님이 있다는것을 믿으며 살았을테지… 하는 혐오감과 이상야릇한 호기심까지 들었다.

제김에 놀란놈들은 그 자리에 납작 엎디더니 허리를 꾸부정하고 달려와 언덕뒤에 숨어버렸다. 이윽고 물건너 숲속에서 네놈이 뛰여나오더니 한놈이 다른놈을 업고 나머지 두놈은 호위병처럼 옆에 서서 물을 건너왔다.

《업히운게 장교놈이 아닌가요?!》 명보가 속삭였다.

《명보, 쐈!》

탕… 장마후 짙은 안개속에서 쌓이고쌓인 무거운 정적을 깨치며 강산에 메아리친 그 총성은 수많은 대포들의 포문을 열게 하고 공격해오던 적들로 하여금 악악 소리지르며 떼지어 밀려가고 밀려오다 찔리고 총탄에 맞아 피를 토하며 딩굴게 한 처절한 이날 싸움의 첫 서곡으로 되였다.

장교를 업었던놈이 물에 푹 꼬꾸라져 일어나지 못했다. 물에 뛰여든 장교놈은 첨버덩거리며 건너왔고 나머지 두놈은 뿔뿔이 흩어지며 뛰여왔다. 놈들은 언덕뒤에 숨어버렸다. 언덕뒤 여기저기에서 철갑모들이 언뜻언뜻 보였고 기여다니는 잔등들이 보였다.

(저놈들이 새벽에 물을 건너와 언덕뒤에 산개해있었구나. …)

곽병식의 머리엔 중대장에게 박격포사격을 요구할가 하는 생각이 피뜩 스쳤으나 그만두었다. 고병근중대장이 그 성미에 배속 박격포를 함부로 로출시키지 않을것은 뻔한 일이였기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린접 2소대쪽을 바라보았다. 칼릉선은 죽은듯이 숨을 죽이고있었다. 어느 참호끝에서 장난군같은 서동길의 반짝이는 눈도 저 언덕을 내려다보고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한결 가라앉고 든든해졌다. 언제 와 엎드렸는지 한철흠분대장이 그에게 말을 건넸다.

《적정입니까?》

《저 언덕뒤에 산개해있소. 한개 중대가량은 되는것 같소.》

이때 칼릉선과 1035고지 꼭대기에 몇발의 포탄들이 날아와 시꺼먼 연기를 날리며 터지더니 그들이 엎딘 참호 바로 뒤에서도 두세발의 포탄이 터졌다.

두사람은 흙을 뒤집어썼다. 한철흠은 흙을 털며 소대장에게 말했다.

《무턱대고 쏘는겝니다. 처음엔 언제나 이 지랄이지요. 붙어보기전에 우리 이마를 튕겨보는겝니다.》

그는 모욕당한 사람처럼 얼굴이 뻘개지며 씨근덕거렸다.

포탄은 깊은골에도 터지고 칼릉선, 1035고지, 831고지의 중턱에서도 터졌다. 놈들은 여기저기를 쿡쿡 찔러보는것이였다. 기다리던 때가 왔다. 더 지체할수 없는 순간이라고 곽병식은 단정했다.

《명보동무!》

《옛!》

명보는 어느새 그의 곁에 와 한쪽 무릎을 꿇고앉았다.

《3분대장동무에게 전하오. 참호를 차지할것!》

《3분대장에게 전하겠습니다. 참호를 차지할것!》 명보는 련락병때의 관습대로 이렇게 복창하고는 날듯이 뛰여갔다.

소대방어선에는 3분대전사들이 성글게 산개했다. 곽병식은 참호를 따라 이끌에서 저끌으로 뛰여다니며 전사들의 전투준비상태와 산개정형을 검토했다. 그리고 복판에 엎드렸다.

언덕뒤에서 한무리의 적병들이 뛰여일어나더니 뒤를 이어 또 한무리, 또 한무리가 쏟아져나왔다. 놈들은 우리에서 풀려나온 집짐승떼처럼 흩어지면서 달려나왔다. 곽병식은 그 수가 200은 넘으리라 단정했다. 앞무리의 놈들이 달려나오며 한줄로 늘어서 긴 산병선을 이루더니 그 산병선은 뿌려던진 바줄처럼 칼릉선 앞기슭에 휘감겼다. 2소대가 먼저 불질했다. 그것은 빈약한 보총사격이였다. 뒤무리의 놈들은 주먹릉선의 앞코숭이로 몰려들었다. 놈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무엇에 걸려 넘어졌다가는 다시 일어나면서 허리를 구부정하고 기여올라왔다.

《쏴!》

곽병식은 목에 피대를 세우며 부르짖었다. 보총일제사격의 총성과 함께 적산병선에서는 몇놈이 쓰러지고 주저하는 기색이 보였다. 적들은 《위력정찰》을 위한 허위공격을 전후 세차례에 걸쳐 진행했는데 그때마다 곽병식은 강태욱련대장의 지시대로 《만만하게 보이면서》도 적들을 참호에 접근시키지 않았다. 젊은 혈기에 이런 성차지 않는 싸움을 하기란 더 괴롭고 어려운 노릇이였다.

적 고지너머로부터 보병전사들이 《달구지》라고 야유해부르는 적포병대 지휘기 2대가 날아왔다. 저렇게 육중해보이고 둔한것이 어떻게 날아다닐수 있을가 의심될 정도로 둔중한 포지휘기들은 아군방어선우 높은 하늘에서 대각선을 그으며 날아가고 날아오고 하더니 1035고지 중대장감시소근처에 와 연막탄이 터지며 눈부시게 흰 연기가 풀썩 피여올랐다. 뒤미처 수십발의 포탄이 그 근처에 와 터졌다. 이것은 면적사격의 시작이였다.

어느 살인장군이 고안해낸 이 포병사격법은 지정된 군사목표에 대한 조준이 없이 지도의 좌표에 의하여 일정한 면적 평방을 단위로 하여 차례차례로 수백문의 대포들이 일시에 포화를 들씌우는 가장 횡포한 《사격방법》이였다.

3중대의 방어선과 후방에 대한 면적사격은 3시간동안 계속되였다.

불탈것도 없고 부서질것도 없는 고지는 포화속에서 전률하며 흙먼지만 뿜어올렸다.

오후 1시 정각 포사격은 끝났다. 숨막히는 정적이 닥쳐왔다. 하늘을 덮은 포연과 흙먼지속에서 태양도 진흙빛으로 탔다. 저것은 어찌하

여 깨여지지 않았을가 하는 착각이 들었다. 전사들은 귀가 멍멍했다. 벌이 잉잉거리는 소리같기도 하고 싸이렌소리같기도 한 종잡을수 없는 음향이 귀속에서 계속 잉잉거렸다.

4

《흙비》가 내렸다. 수천수만발의 포탄의 작렬로 아득히 높은 공간에 뿌리워올라갔던 흙먼지, 돌부스레기, 썩은 군복쪼박들, 나무개비들, 철갑모며 군화쪼박들이 포격후의 정적속에서 먼지와 재로 되여 소리없이 내려앉는 전선의 기이한 현상을 전사들은 《흙비》라고 불렀다. 그것은 포격의 음울한 여운이였다.

숨막히는 정적, 재빛안개와도 같은 흙먼지와 초연이 시야를 뽀얗게 가리웠다.

곽병식은 준엄한 눈길로 반나마 허물어진 참호에 엎디여있는 대원들을 돌아보았다. 40명의 전사, 40명의 전우들이 목숨을 걸고 엎디여있었다. 40명의 운명, 40명의 산 력사, 40명의 생각들이 적을 기다리며 엎디여있었다. 참호란 사람들의 생명으로 구축된 보루이다.

포격후의 정적속에서 적을 기다리는 순간, 그것은 피를 말리우는 한초한초의 흐름이였다.

참호흉장에 엎디여 푹 눌러쓴 모자채양밑으로 앞을 노려보는 신찬일은 입안이 바싹바싹 말랐다. 그는 이 무서운 정적속에 자기 혼자 엎디여있지 않는가 하는 착각이 들어 때때로 옆을 돌아보았다. 명보도 조칠성이도 광준이도 죽은듯이 엎디여있을뿐이다. 찬일은 수류탄고리들을 펴놓고 탄띠주머니끈을 풀어놓았다. 귀안에서는 싸이렌소리같은 음향이 계속 울린다. 귀를 털어보고 막아봐도 소용없다. 그 소리에 어지럼증까지 났다. 그는 바지띠를 공연히 풀었다가 다시 졸라매였다. 또 엎디여 앞을 노려본다. 속이 답답하여 견딜수 없다. 소리치고싶다. (개자식들, 간을 태우지 말구 빨리 오너라!)

찬일은 다시 전우들을 돌아봤다.

(저 사람들은 모두 끄떡 않는걸 보니 나만 이런가. 아, 아, 빨리 붙었으면, 빨리 끝장을 냈으면.)

매캐한 초연에 눈이 쓰렸다. 손등으로 눈을 비볐다.

목에서 피줄기가 벌컥벌컥 뛰는 소리가 들렸다. 찬일은 벌겋게 피가 오른 얼굴을 참호 앞턱우에 쑥 내밀고 불찌같이 타는 눈으로 앞을 쏘아봤다. 트레트레 흐린 구름바다같기도 하고 안개같기도 한 초연이 눈앞을 소리없이 흐르며 적막감을 더해준다. 바로 앞, 짙은 안개속에 원쑤놈들의 징그러운 상판이 내다보이며 그것들이 유독 자기를 얕보고 제 앞으로만 몰려오는듯한 생각이 퍼뜩 스친다.

찬일은 거칠게 숨을 몰아쉰다.

(이놈들아, 옛날에 시계나 고쳐주고 밥벌이하던 내가 아니다. 이 총을 봐! 어깨에 붙은 견장을 보란말이다. 내가 엎딘 참호앞이라구 만만할줄 아느냐. 어림없다. 흙 한줌이라도 공짜로 내줄줄 아느냐. 나는 남의것을 공짜로 손에 넣는것도 질색했지만 제것을 공짜로 내주는법도 몰랐다. 어림없어!… 피값을 받아낼테다!)

목안이 타들었다. 물이 먹고싶었다.

벌떡 몸을 일으킨 그는 마음 유한 박광준이한테로 달려갔다.

《광준이!》

《신찬일, 자기 위치롯!》

소대장의 위압적인 부르짖음은 그를 제자리에 뿌려던졌다. 신찬일은 도로 자기 위치로 달려와 푹 꼬꾸라졌다. 황소처럼 힘꼴을 쓰면서도 의협심 많은 박광준은 저 사람이 무슨 청이 있어 달려왔댔나 하고 그 쪽을 측은한 눈매로 돌아보았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이 참호에서 무슨 구두쇠 부릴 일이 있으랴 하는 생각이 그의 유한 가슴을 더욱 부드럽게 했다.

신찬일은 자기 빈 물통을 꺼꾸로 들고는 물방울을 입안에 털어넣고 성차지 않아서 물통아구리를 핥고있었다.

(사람두, 물이…)

박광준은 얼른 물통을 뽑아서 조칠성이 앞에 던지며 찬일에게 전달하라고 눈짓했다. 조칠성은 사납게 번뜩이는 눈으로 광준을 퍼뜩 흘겨보더니 물통을 찬일이 앞으로 홱 팽개쳤다.

광준은 가슴이 섬찍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리 거칠어졌나.)

광준은 참호자리를 바꿔주지 않은데 마음이 꼬인게라고 생각했다.

그는 총탁판을 어깨에 꽉 대며 조칠성이가 탐을 낸 자리인데 착실하게 지켜내야지, 체면이 깎이지 않게 싸워야지 하고 속다짐하는것이였다.

앞을 가린 뽀얀 재빛 안개는 가셔지지 않고 더 짙어만지는것 같았다.

그는 눈을 똑바로 뜨고 앞을 쏘아봤다. 매캐한 초연에 눈알이 쓰

려나서 눈을 껌적거렸다.
(이거 참 어찌된 셈판인가. 이놈들이 잡도리는 해놓고 왜 올라오지 않을가.) 그러자 배짱을 부릴 생각이 났다. 그는 무심결에 참호앞턱에 두두룩하게 다져놓은 흙을 한줌 쥐고 부스러뜨려 만져도 보고 코에 대고 냄새도 맡아보며 콩이나 팥을 심어도 썩 잘될 땅이라고 생각했다. 물씬 코를 찌르는 흙냄새는 헤여진 련인에 대한 추억처럼 그의 가슴에 짜릿한 아픔을 일으켰다. 저도모르게 눈에 물기가 핑 어리며 자기 이름 석자가 새겨진 패말이 박힌 밭에 엎드려 땅을 안겨주신 장군님의 은혜에 목이 메여 흐느껴울던 일이 꿈속에서처럼 흐릿하게 떠올랐다.
(적이 당장 올라올텐데 이거 왜 이런 생각이 들가?! 어찌자구 이럴가?…)
광준은 어정쩡해져서 눈을 슴벅거렸으나 지난날에 대한 생각은 막을 수 없는 밀물처럼 가슴에 흘러들었다.
…그해봄 어느날밤, 밭가운데 앉아서 자기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던 안해의 귀여운 얼굴이 환히 떠올랐다.
그때 그는 안해더러 이렇게 물었다.
《왜 그렇게 보기만 하나?》
안해는 어리광부리듯 얼굴가득 밝은 미소를 그리며 속삭였다.
《당신 눈이…》
《뭐?! … 내 눈이 어떻게?》
《당신 눈이 그렇게 웃는걸 첨 봤어요. 여보, 무슨 생각을 하고계셔요?》
《원 참, 나는 또… 이 땅냄새를 맡아보라구. 전엔 봄이 와도 이렇지 못했어. 땅도 숨을 쉬기 시작한거야.》
《아니, 정말… 저 김이 오르는걸 보라요.》
《이봐, 밭도 어린애처럼 업고다닐수 있으면 좋겠지, 장날에 읍에 업고나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자랑하게. 그리구 밤이면 얼지 않게 이불이랑 내다 덮어줬으면… 넨장, 이런 어처구니없는 생각만 든단말이요. 허허허…》
티없이 밝게 웃던 안해의 얼굴에 느닷없이 그늘이 비꼈다.
《여보, 당신은 요새 떠돌아가는 소문을 들었어요? 땅을 분여받은 사람들은 이제 다 벼락을 맞는다는 말이 뒤로 돌아가요.》
광준이는 어처구니가 없어 너그럽게 웃었다.
《그건 다 땅을 빼앗긴놈들이 우리한테 앙심을 품고 퍼뜨리는 헛

소리야. 정신을 차려야 돼. 민청회의에 가서랑 졸지만 말구 여겨들으란말이요.》
《하기는 당신 얘기만 들으면 눈이 틔여요. 아니, 그런 헛소문을 듣구 속이 뒤숭숭해하는 늙은이들이 있다니…》
《리치를 따져보란말이야. 지주는 쫓겨갔겠다, 그놈들이 아무리 어두운 생각을 해두 어쩌는수 없단말이요. 땅에야 발이 있나 바퀴가 달렸나. 송아지 같으면야 밤에 몰래 코를 꿰서 끌구갈수도 있겠지만 땅이야 도적맞힐 걱정두 없는게거던, 그렇지 않아? 우리 손아귀에 들어왔으니 인제야 우리거지 별수 있나.… 하지만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해. 지주놈들은 금년농사가 제발 망해달라고 앙심을 품고있어. 올해 첫농사부터 잘 지어서 본때를 뵈줘야 돼. 우리 선참으로 거름을 내구 씨를 뿌리자구. 에—라, 이제 봄비도 오겠다, 곡식들도 기를 펴고 우줄우줄 자랄게라… 모두들 가을에 햇곡식을 지어가지구 땅을 주신 장군님께 감사드리러 가자구 하는데 우리도 축에 빠져서야 되겠나. 내 그때 님자도 달구지에 높다랗게 실은 햇곡식가마니우에 앉혀가지고 갈테니 도시구경이랑 같이 하자구…》
안해는 귀염성스러운 얼굴로 남편을 흘깃 쳐다보며 방긋 웃더니 부끄러운듯 바위같은 그의 잔등에 얼굴을 묻었다. 광준은 분여받은 자기 밭가운데에 안해를 앉혀놓고 달빛밑에서 그 얼굴을 보노라니 너무 귀여워서 사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덥석 안아주었다. 이튿날 아침 박광준은 마을앞 개울에 가서 망짝같은 돌을 업어다가 분여받은 밭두리에다 지경돌로 박아놓았다. 포화속의 고달픈 행군길에서도 그의 가슴에선 그 땅에 대한 련민이 한시도 떠나질 않았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그 지경돌뒤에 엎디여서 적을 노려보는것이였다.
누군가 곁에서 자기 속을 엿보는것만 같아서 광준은 흠칫 놀라 돌아봤다. 저쪽 참호흉장에 엎드려있는 소대장이 이쪽을 빤히 보고있었다.
《적 발견—》 하는 다급한 웨침소리가 송곳처럼 광준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소스라쳐 놀라며 앞을 쏘아봤다.
어느새 포연은 가시고 저 아래 둔덕진곳에서 몇놈의 그림자가 기여오르는것이 내려다보였다.
(저게 적이로구나. 한데 왜 저리 난쟁이처럼 보일가? 아하 그렇지, 우리가 높은데 엎디여있으니까. 참, 우습구만. 이게 전쟁이라…)
누군가 그의 뒤로 바람처럼 뛰여갔다.
광준은 홱 돌아봤다. 소대장이다.

곽병식은 참호끝까지 뛰여가서 그쪽 적정을 내려다보고는 다시 뛰여올라와 제자리에 엎드렸다.

적들은 5~6메터의 간격을 두고 일렬횡대로 바줄처럼 길게 늘어서서는 올가미를 조이려는듯 삼면으로 기여올랐다.

해빛을 등지고 기여오르는놈들은 시꺼멓게 타죽은 나무등걸처럼 보였는데 놈들은 산병선의 서렬을 유지하면서 이상하리만치 천천히 기여오르고있었다.

얼핏 보기에 검질긴 의지력이 그 산병선의 끝에서 끝으로 굽이치고있는것 같았다.

참호흉장에 몸을 붙이고 엎디여있는 곽병식은 가슴에서 피가 설설 끓는 소리가 들리고 온몸의 근육이 흥분으로 푸들푸들 떠는것을 느꼈다. 그는 웬일인지 목이 칼칼해지며 꺽 메였다.

(가만, 가만, 내가 왜 이러고만 있는가? 구령을 쳐야 한다. 가만, 내가 왜 이런가. 그렇지!)

《소대 사격준비―》 곽병식은 몸을 벌떡 일으키며 소리쳤다. 그러자 격발기들이 철커덕거리는 소리들이 참호를 따라 전류처럼 흘러가고 소대장의 한마디 구령에 화답하는 전사들의 웨침들이 뒤미처 울렸다.

《사격준비 끝!》

《사격준비 끝!》

《사격준비 끝!》

《사격준비 끝!》

짓눌렸던 침묵을 터치며 파도처럼 일어나는 전사들의 화답소리는 그의 가슴을 억세게 떠받들어주는듯했다.

적 산병선을 보자 표범처럼 사납게 날뛰던 그의 가슴은 반석같은 무게로 자리를 잡고 어느덧 자신만만해진 젊은 그 가슴엔 랑만의 윤기까지 돌았다.

곽병식은 상반신을 일으키고 팔을 앞으로 뻗치더니 손가락으로 다가오는 적 산병선을 찌르며 한일자를 쭉 그었다.

《목표― 적 산병선― 소대― 일제 사격―》

기백에 넘친 소대장의 그 모습은 전사들의 사기를 돋우었다. 죽은듯이 누워있던 참호는 갑자기 신경이 통한듯 용을 쓰고 꿈틀거리며 섬멸의 불을 뿜었다. 중기, 경기, 자동총, 보총의 일제사격은 태풍처럼 적 산병선을 휩쓸어버렸다. 적병들은 푹푹 꼬꾸라졌다. 적들속에서는 꿱꿱 고함지르는 소리가 났다. 아마 장교놈이 서렬을 유지하라고 강박

하는 소리같았다. 하지만 적 산병선은 란도질을 당하여 뭉턱뭉턱 동강이 난 뱀의 토막처럼 꿈틀거리며 나딩굴었다. 살아남은놈들은 숨을데를 찾아 이리저리 욱욱 밀려다녔다.
《좋구나!》
《개새끼들,올라오너라!》
총성에 전률하는 대기속에서 전사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울렸다.
곽병식은 몸을 일으키고 대원들을 돌아보며 웨쳤다.
《동무들— 한놈도 살려보내지 말라—》
다음 순간 그는 얼어붙은듯 굳어버렸다.
만신창이 되여 흩어져버린 적 산병선뒤로 새로운 산병선이 또 오고있었다. 그 뒤로 또 새 산병선… 산병선… 50메터의 간격을 두고 겹겹이 올라오는 적 산병선,그는 12개의 산병선까지 세고는 포연이 시야를 가려 더 세지 못했다. 사람의 파도로 고지를 짓밟아버릴듯한 기세를 뿜으며 적 산병선은 한걸음 한걸음 죄여오고있었다.
곽병식은 가슴이 후두두 떨렸다. 그는 참호에 엎드리며 흙을 꽉 그러쥐였다.
(개자식들,오라! 오라!)
한철흠분대장이 그의 옆에 와 엎드리며 보고했다.
《소대장동지,좌측 중기가 쏘지 않습니다!》
《뭐요?!》
곽병식은 허리를 구부정하고 좌측 참호끝으로 달려갔다. 구레나룻이 얼굴을 덮은 배속중기의 사수가 얼굴이 흙빛으로 질려서 그를 쳐다봤다.
《왜 쏘지 않소?!》
한손에 권총을 틀어진 곽병식은 위압적으로 부르짖었다.
《개놈새끼들이 사계를 벗어났습니다!》
《뭐요?!》
《저놈들이,에익! 저 아래 벼랑에 붙었습니다!》
이때 아래쪽 벼랑밑에서 적병들의 비명소리가 울렸다. 적병들의 시체가 깊은골로 굴러내려가는것이 보였다.
젊은 부사수가 주먹으로 땅을 치며 환성을 질렀다.
《칼릉선에서 쏴줍니다! 소대장동지,지원사격입니다!》
곽병식은 머리를 들고 포연에 잠긴 칼릉선을 건너다봤다. 포연밑에서 칼릉선으로 기여오르는 적병들의 무리가 언뜻언뜻 보였다. 그는 한동안 넋을 잃은 사람처럼 그쪽을 보고만 서있었다.

(자기 조건이 더 어려울텐데 나를 위해 쏴주는구나. …)

곽병식에겐 고병근중대장이 말하던 전투적련대성이란 그 말이 천근 무게를 가지고 안겨왔다. 이쪽에 탄알 한알을 보내주면 자기 앞으로 달려드는 원쑤 한놈을 잡지 못한다. 하지만 서동길은 탄알을 아끼지 않고 쏴주고있었다. 벼랑밑에서는 적병들의 아우성이 그칠줄 몰랐다. 서동길이가 날려보낸 탄알들은 적병들의 잔등을 갈겼고 놈들의 시체는 나무토막처럼 골짜기로 굴러내려갔다. 전투적련대성！ 곽병식은 뜨거운것이 가슴에서 치밀며 목이 메였다. 그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 서동길이, 고맙네！)

《사수동무！ 칼릉선에 답례를 보내오！ 칼릉선 우측 경사지에 붙은 놈들을 향해 쏴！ 탄알을 아끼지 말것！》

《옛！》

중기는 몸부림치며 불을 뿜었다. 지원사격—이것은 불바다속에서 맺어지는 특별한 우정이다！

곽병식이가 돌아서 몇걸음 달려왔을 때 참호 앞뒤에 와 포탄들이 터졌다. 흙덩이들이 윙윙 날았다. 그는 박광준의 옆에 와 소리쳤다.

《광준동무, 물이 있소？》

《예？！》 박광준은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 못하고 반문했다.

《수통에 물이 있나말이요！》

《없어요.》

《수통들을 걷어가지고 빨리 2소대에 지원사격을 하는 배속중기 방열통에 넣어주오！》

다음은 아무것도 기억못했다. 바로 뒤에 와 터진 포탄의 폭풍이 그를 참호바닥에 쓰러뜨렸고 눅눅한 흙은 펄떡거리는 젊은 그의 가슴을 덮어버렸던것이다. 곽병식은 몽롱한 의식속에서 《소대장동무！》, 《소대장동무！》 하는 피타는 부름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학교 종소리같은것이 뎅—뎅— 울렸다. 곽병식은 눈을 가느스름히 떴다. 흐릿한 안개속에서 누군가 그의 겨드랑이를 잡아끌어올리고있었다. 아니 이게 누군가？ 한철흠이와 명보가 아닌가？ 내가 그럼, 곽병식은 눈을 번쩍 떴다. 참호흉장너머에서 적병들의 철갑모가 해빛에 번뜩거렸다.

곽병식은 두팔을 쩍 벌리며 자기를 붙잡고있는 한철흠이와 명보를 뿌리쳤다.

《자기 위치롯！ 적이요！》

소스라쳐 놀란 한철흠은 몸을 날려 달려가더니 참호흉장에 뛰여오른

적병에게 자동총사격을 안겼다. 적병들은 모래자루처럼 참호안으로 굴러떨어졌다. 이 순간 곽병식은 참호흉장에 뛰여오른 조칠성이가 총창으로 적병의 배를 푹 찌르는것을 봤다. 또 네댓놈의 적병이 참호앞에 나타났다.

(저놈들이 내가 판 참호를 밟게 한단말인가. 안된다！… 안된다！)

흙에 묻혀 펄떡거리는 곽병식의 가슴에선 대들보같은 격분이 욱 치밀었다.

그는 무슨 힘에 이끌렸던지 꽥 소리치면서 거인처럼 흙을 털고 뛰여일어났다. 한놈이 뜨거운 입김을 그의 얼굴에 뿜으며 와락 덮쳐들었다. 곽병식은 놈의 목을 끌어안고 딩굴었다. 그는 재빨리 오른팔을 뽑고는 권총끝을 놈의 관자노리에 대고는 방아쇠를 당겼다. 놈은 푸들푸들 떨더니 사지를 쭉 뻗었다. 곽병식은 승리의 쾌감보다도 섬찍하는 징그러움이 몸에 사무쳐 후닥닥 뛰여일어났다. 포연에 덮인 참호는 격투의 수라장으로 변했다. 적병들은 미친 말처럼 뛰여들었고 전사들은 놈들을 총창으로 찔러넘기고있었다.

아우성소리, 웨침소리, 악에 받친 욕설… 곽병식은 달려나가면서 자신도 알지 못할 소리를 지르며 총탁으로 적병의 면상을 갈겼다. 순간 피투성이된 적병은 얼굴을 싸쥐며 비틀거렸다. 곽병식은 놈을 발길로 차서 넘어뜨리고는 뒤따라 달려드는놈들을 쏘았다. 성스러운 복수의 감정에 휩싸인 그의 가슴은 그대로 룡마로 된듯 펄펄 뛰며 부르짖었다. 이것은 강도와 주인의 싸움, 침략자와 조국수호자의 싸움, 정의와 부정의, 인간과 야수, 진보와 반동의 싸움… 무자비하라！ 죽여라！ 참호바닥과 흉장에는 적들의 시체가 쌓였다. 밀물처럼 밀려든 한무리의 적들을 요정낸 전사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참호흉장에 다시 자리를 잡고 엎드리며 시체들을 밀어제끼고 사격자세를 취했다.

박광준은 수통들을 걸어가지고 달려와 참호복판에 배치되여 자기들 앞으로 몰려드는 적병들을 보기좋게 쏴눕힌 중기옆에 엎드렸다.

《물！… 물이요！》

파편에 모자채양이 달아난 부사수가 반색을 하며 방열통마개를 열다가 흠칫 놀라며 손으로 귀를 잡았다. 그는 모자를 벗어서 마개를 싸쥐고 열었다.

이때 뒤에서 《광준동무！ 물을 어디다 넣소？！》 하는 벽력같은 꾸중소리가 울렸다.

광준은 놀라서 돌아봤다.

소대장의 성난 눈길이 그를 쏘아보고있었다.
박광준은 엉거주춤 일어섰다.
《소대장동지…》
《물을 어느 중기에 먼저 넣으라고 했소?!》
《예?!…》
《2소대쪽에 쏴주는 배속중기에 먼저 가져가오!》
박광준은 울상이 되여 턱을 덜덜 떨며 얼버무렸다.
《그럼 우리 중기는… 우리 중기는… 적이 오면 어떻게 쏩니까. 총신이 불덩이같은데…》
《빨리 집행하시오! 우리 중기엔 새 물을 떠다 넣소!》
소대장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울렸다.
박광준은 원망에 흐린 눈길로 소대장을 쳐다보고는 허리를 구부정하고 참호를 따라 배속중기쪽으로 뛰여갔다.
…박광준이가 새 물을 떠가지고 산기슭을 톺아오르는데 웃쪽에서 만세소리며 떠들썩한 웃음소리들이 들려왔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헐떡거리며 팔소매로 얼굴에서 철철 흘러내리는 땀을 훔치면서 고지꼭대기를 쳐다봤다.
(아니, 쌈이 끝난셈인가!)
이때 그의 앞으로 물통들을 뎅강거리며 명보가 뛰여내려왔다.
《야, 아바이 물 좀 줘요!》
《이사람, 중기에 넣을거야.》
《쌈이 끝났어요.》
명보는 다짜고짜로 광준의 손에서 물통을 앗아들고는 꿀꺽꿀꺽 삼켰다. 그의 량볼로는 물이 번쩍이며 흘러내렸다. 고지에서는 웃음소리들이 터져올랐다.
《아니, 왜들 저러나?》 하고 광준이는 의아쩍은 얼굴로 명보에게 물었다.
《하하하… 올라가 보라요. 하하하… 굉장해요.》
명보는 좋아라 웃어대며 샘터쪽으로 뛰여내려갔다.
박광준은 허둥지둥 고지로 올라갔다.
소대 은페호앞에 10여명의 전사들이 빙 둘러서서 떠들어대고있었다. 복판에 4놈의 미군포로가 머리를 떨구고 앉아있었다. 머리칼이며 몸은 온통 흙투성이가 되였으며 때국물이 흐르는 얼굴은 겁에 질려 피기를 잃고있었다.

어리벙벙해하는것 같은 광준을 보자 찬일이가 신바람이 나서 설명했다.

《마지막 공격을 물리치고 났는데 조칠성이가 냄새를 말았어. 이 놈새끼들이 참호아래 웅뎅이속에 꿩새끼처럼 머리를 틀어박고 배겨있었거던. 덜미를 잡아서 끌어올려왔지뭐야…》

그는 이 모든것을 조칠성이가 아니라 자기자신이 한것처럼 신이 나서 자랑스레 이야기했다.

조칠성은 입귀에 담배를 꼬나물고 벌쭉이 웃고만 있었다.

박광준은 시무룩해진 얼굴로 포로들을 눈여겨 내려다봤다. 제일 앞에 앉은 이마가 툭 불거져나오고 턱이 뭉툭한놈이 멀찡한 눈으로 그를 힐끗 쳐다봤다. 광준은 그놈의 파란 눈을 뚫어지게 쏘아봤다. 놈은 기가 꺾인듯 머리를 떨구고는 이가 서물거려선지 잔등에 손을 밀어넣고 긁적거렸다.

(원 참… 이놈들두 낟알을 먹구 사는 즘생이겠는데 세상 악착스런 짓은 다 하구서두 이렇게 뻔뻔스럽다구야…)

그는 메스꺼운 생각이 들어 돌아서려다가 옆에 선 찬일의 씨근거리는 숨소리를 듣고 그의 얼굴을 쳐다봤다.

신찬일의 얼굴은 시뻘겋고 목에는 피대가 툭툭 불거져있었다. 그는 잡아놓고보니 이따위 보잘것없고 께끈한놈들인데 접전이 있기전에 그처럼 간을 태우고 덤벼친것이 분하고 창피한 모양이였다.

찬일은 앞놈의 상판을 짓모아버릴듯 총탁을 번쩍 들었다.

《찬일동무！》 하는 소대장의 부름소리가 그의 행동을 제지시켰다.

곽병식소대장은 전사들 앞으로 걸어오더니 포로들을 중대부까지 호송하라는 임무를 찬일에게 주었다.

박광준은 부러운 눈매로 그를 돌아봤다.

신찬일은 기쁨을 감출수 없어 히쭉 웃더니 포로들을 매섭게 노려봤다. 그는 꽥꽥 소리지르며 포로들을 일어섰다 앉았다 하게 몇번 반복동작을 시키고는 놈들을 한줄로 세운 다음 총창을 꼬나들고 짐승처럼 몰아갔다. 몇걸음 걸어가던 찬일은 놈들에게 손을 들고 걸으라고 호령했다. 포로들은 그에게 겁을 먹고 손을 번쩍 들고는 발을 맞추어 걸어갔다.

《하하하… 잘한다！》 하고 조칠성이가 웃어댔다. 소대장과 한철흠 분대장도 서로 마주보며 의미있게 미소를 지었다.

박광준은 점직한듯 얼굴이 벌개졌다.

(비위가 저쯤 돼야지. … 쌈에선 쩔쩔매다가두 큰 소린 제 혼자 치거

던. 허…)
박광준이는 그 주눅이 부럽기도 했다.

5

첫 전투의 시련에서 승리자의 쾌감을 맛본 3소대원들은 저녁식사후 잠자리에 누웠으나 잠들줄 모르고 낮에 있었던 전투이야기들을 하며 웃어대고 롱지거리를 했다. 이런 때면 의례 조칠성이가 판을 쳤다. 그는 참호에서 적을 기다리며 찬일이가 바지띠를 풀었다가 다시 졸라매던 흉내를 내며 전사들을 웃겼다. 찬일은 마치 장한 일이나 치르고난 사람처럼 그에게 맞장구를 치며 좋아라 웃어댔다.
《아니 찬일이 이사람, 왜 그랬나. 그때 뭐가 나왔나, 응?》 하고 조칠성은 찬일에게 들이댔다.
《아니, 아니야. 난말이여 바지띠를 바싹 졸라매야 힘이 나거던. 어릴적부터 그래.》
《하하하…》
《허허허…》
여느때같으면 그것이 그닥 우스운 말인것도 아니였으나 승리한 전사들은 자꾸 웃고만싶어서 웃음거리를 만들어놓고 좋아라 떠들어대는것이였다.
전사들의 웃음판에 섭쓸려있던 한철흠분대장이 나중에는 조칠성을 꾸짖었다.
《칠성동무, 입을 다물라구! 취침!》
전사들은 모포들을 뒤집어쓰고 누웠으나 모포속에서도 한동안 키득거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제일 구석쪽에 누워있는 박광준이만은 면구스러운듯 얼굴이 벌개서 전사들의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못하고 내내 괴로운 생각에 잠겨있었다.
전투총화때 소대장은 매개 분대, 매 전사들의 전투공로를 정확히 평가해주고는 마감으로 이런 말을 했다.
《특히 오늘 전투에서는 2소대와의 교차사격이 잘되였습니다. 박광준동무는 교차화력의 보장을 위하여 적들의 포격이 제일 심할 때 방열통에 넣을 물을 가지고 배속중기로 뛰여갔습니다.》
옆에 앉았던 명보가 축하한다는듯 그의 팔목을 꽉 쥐였고 조칠성

이가 팔굽으로 옆구리를 툭 건드렸다. 박광준은 어정쩡한 김에 흐뭇한 미소까지 지었으나 차차 뜨끈한 뉘우침이 가슴을 지졌다. 참호에서 자기네 중기에 물을 먼저 넣겠다고 덤벼치던 일이 생각났던것이다. 그는 소대장과 전우들의 얼굴을 쳐다보기 면구스러웠다.

박광준은 반듯이 누워서 서까래들 짬으로 바위들이 울퉁불퉁 삐여져나온 천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후 한숨을 쉬였다. 지금쯤 안해도 자리에 누워 장호녀석의 차분한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자기를 그리워하리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더욱 어두워졌다.

그처럼 마음 어진게 자기 일을 알면 동리사람들앞에서 얼마나 창피스러워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박광준은 눈을 지그시 내려감았다. …암담한 어둠같은것이 눈앞을 가리더니 그것은 범람한 강의 흙탕물로 되여 번들거리며 소리치면서 흘러갔다. …

광복되기전해 장마철에 박광준이네 고향마을앞 강물에 홍수가 졌다.

사품치며 흘러내리는 흙탕물에 돼지와 닭, 집재목들이 떠내려왔다.

지주집 소작살이를 하던 더벅머리총각 광준은 홍수통에 이때까지 품어온 꿈인 오막살이집에 헛간 한채를 덩실하게 지을 마련을 해보자고 마음먹었다.

해종일 물가에 나가 갈구리로 떠내려오는 재목들을 건지던 광준은 소용돌이치는 흙탕물우에 떠오른 자주빛 저고리등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가슴을 치는 물속으로 들어가 수난자를 안아내왔다. 지주집 부엌살이를 하는 처녀 김옥녀였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는 읍에 술심부름을 갔다오다가 물에 빠졌던것이다.) 처녀는 자기가 어느 바위 아니면 나무뿌리에 걸린줄 알고 죽을 힘을 다해 총각의 목을 끌어안았다. 총각은 피지 못한 처녀의 몸에서 풍기는 온기에 더럭 주추러들며 얼른 처녀를 모래불기슭에 내려놓고 엉거주춤 선채 어찌할바를 몰랐다. 다음 순간 마을로 뛰여들어가며 소리소리 질렀다. 《사람 살리오—》

그후부터 옥녀는 간혹 길에서 광준을 만나면 손으로 얼굴을 가리우며 도망을 쳤다. 사람들의 인연이란 별스러운것이여서 그들사이엔 은연중 말없는 언약이 맺어졌다. 광복이 된 그해 가을 광준은 옥녀를 안해로 맞아들였다. 그는 고생스럽게 살아온 안해에게 모질게 구는 일이 없었으며 손아래 누이처럼 귀여워했다.

어느날 광준이는 안해더러 읍에 가서 신발을 사오라고 일렀는데 저녁에 빈손으로 돌아왔다. 어떤것이 당신 마음에 들는지 몰라 고르다

고르다 못해 그냥 왔다는것이다. 광준은 너그럽게 웃으며 임자 마음에 드는것이면 내 마음에도 든다고 일렀다. 안해는 그길로 달려가 평양고무공장에서 갓 나온 《해방》표 지하족을 사왔는데 그것이 발에 꼭 맞았다. 안해는 너무 기뻐서 눈물까지 가랑해서 방긋 웃었다. 광준은 안해가 좋았으며 생활이 즐거웠다. 그는 지경돌을 박아세운 자기 밭에서 힘든줄도 모르고 뼈빠지게 일했다. 가물에 갈라터졌던 대지가 따사로운 봄비를 욕심스레 빨아들이듯 그는 자기 집의 좁다란 삽짝문으로 고마운 세상이 주는 곡식이며 세간살이를 욕심스레 끌어들였다. 군대에 입대하여 어느 대렬참모앞에 섰을 때 어리무던해뵈고 몸에서 흙내와 토장냄새가 그대로 풍기는 그를 두루 훑어본 참모는 《취사원으로는 적임이군.》 하고 생각했다. 그후부터 그는 줄곧 야전병원 식당부엌에서 일했다. 그는 화약냄새보다 콩기름냄새를 더 많이 맡았고 보총이나 수류탄보다 국자나 식도를 더 많이 다루게 됐다. 이따금 경상당해 두세번 야전병원에 온 익살쟁이 정찰병또래들이 그한테 롱말을 던졌다.

《취사원아바이,아직 계시구만요. 밥만 짓다가 전쟁의 끝장을 보겠는데요? 후날 집에 돌아가 애들한테 전쟁에 나가 솥뚜껑운전만 했다고 하겠나요. 에—인젠 그만두구 우리하구 내뺍시다!》

광준은 이런 롱담을 반죽이 좋게 받아넘겼다.

《님잔 또 얻어맞구 들어와선 무슨 큰 소리야. 그렇게 싸울바엔 나하구 바꿉세. 여기서 밥을 지으라구. 내가 나가면 넨장 그까짓 놈팽이들 부지깽이를 가지구두 두들겨패눕히겠어.》

그는 이렇게 담이 큰 소리를 하면서도 장마철에 젖은 나무를 부엌에 쓸어넣고 불을 푸푸 불며 눈물을 흘리다가 집에 두고 온 안해와 아이와 소여물걱정을 했다. 봄이면 남새밭엔 퇴비와 두엄을 골고루 섞어 뿌리라느니 가을이면 감자움을 집아래에 파야 봄에 물이 나지 않는다고 안해에게 편지로 일러주는것을 잊지 않았다. …

그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 사이 전사들은 단잠이 들었다. 여기저기서 코고는 소리가 들렸다.

광준은 눈을 슴벅거리며 이 생각 저 생각을 했다. 다시금 오늘 교차사격을 하던 정경이며 자기를 꾸짖던 소대장의 모습이 눈앞에 우렷이 떠올랐다. (에이구 참,제 가슴으로 총알이 날아드는판에 남을 생각하여 총을 쏴준다는게 조만한 일인가. 우리 소대장동무나 2소대장동무들은 나보다 나이두 열살이나 아래인데 어쩌면 그리 도량들이 크고 마음들이 고울가.…) 군관들의 그 모범에 비해볼 때 자기의 속마음은 너무나 옹졸해보였다.

(에이구 참— 광준은 저도모르게 가슴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였다. —우리쪽에 탄알을 보내주던 2소대중기사수가 내 꼴을 봤다면 뭐라고 할건가. … 창피한 일이야…창피스러워！)

광준은 자기 속마음이 미워났다.

그는 자기 가슴을 집어뜯으며 무섭게 욕하기 시작했다.

(이 농사군아！ 지경돌을 세워놓구 네것 내것 갈라놓기를 좋아하는 잔살이야！ 에이구 쯧쯧. 군복이 아깝다！ 총이 아깝다！)

박광준은 몸을 뒤척이며 모대기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곽병식은 밤 늦어서 중대부에서 돌아왔다. 전투총화에서 그의 소대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곽병식은 참호보수정형을 살펴보려고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다가 무춤 서버렸다. 참호안에서 웬 그림자가 얼른거리고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박광준이였다. 그는 소대장이 뒤에 온줄도 모르고 참호벽에 박아넣었던 돌을 씩씩거리며 뽑아내고있었다. 광준은 한아름짜리 돌을 번쩍 들어서 참호밖으로 내던지려고 했다.

《그걸 왜 버립니까？》 곽병식은 얼결에 이런 말이 나갔다.

박광준은 돌을 안은채 놀라서 돌아봤다.

《둬두십시오. 적이 올라오면 굴립시다.》

박광준은 돌을 참호바닥에 내려놓고는 허리를 펴며 어줍은 미소를 지었다.

《왜 자지 않고 나왔습니까？》

광준은 머리를 수굿하고 덜미에서 땀을 씻었다.

《자, 좀 앉읍시다！》

두사람은 참호바닥에 가지런히 앉았다.

《소대장동지… 속이 썩겠습니다. …》

《？！…》

《제 오늘 구실을 못했습니다. 중기방열통물을…》

《하하…아바이두！》 곽병식은 광준의 어깨우에 스스럼없이 팔을 얹고 호탕하게 웃으며 하늘을 쳐다봤다. 하늘에서는 총총히 빛나는 별들이 미소를 보내고있었다. 곽병식은 이 말없이 무던한 전사의 가슴에서 무엇이 싹트고있는가를 온몸으로 느낄수 있었다. 그는 오늘의 전과보다도 그것이 더 대견했다. 곽병식은 그에게 담배를 권하고 불을 붙여주었다. 박광준은 점직한듯 머리를 수긋하고 담배를 뻑뻑 빨기만 했다.

《광준동무, 낮에 참호에 엎드려 적들이 올라오기전에 무슨 생각을 했더랬습니까？》

《예？！… 그때 소대장동지가 저를 봤습니까？》

《웃고있는것 같아서… 보게 됐지요.》

《참…참호란게 별스럽거던요. 거기 엎디면 무슨 생각이 많이 난단말입니다. 다른 동무들도 그런지…》

박광준은 꿈에 취한듯한 눈으로 소대장의 얼굴을 보며 두서없이 떠올랐던 그 생각들을 말하다가 자기 지난 생활에 대하여도 옛말처럼 이야기하게 되였다. 곽병식은 그 옛말을 통하여 이 말없이 무던한 전사의 마음속 바다를 들여다보는것 같았다. 문득 그의 눈앞에는 총구우에서 재롱스럽게 한들거리던 고깔이 눈부시게 떠올랐다. 아, 그것은 이런 마음의 토양에 뿌리를 박고 피여난 한떨기꽃이 아니였던가 하는 생각이 시정의 령감처럼 가슴에 번개쳤다. 그는 이 전사가 그지없이 사랑스러워 스스럼없이 그의 팔목을 잡았다.

《광준동무！ 앞으로 소대에서 누구보다도 주인답게 일해야겠습니다.》

《원 무슨 말씀을요…제 주제에.》

박광준은 머리를 숙이며 후—모두숨을 내쉬였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앞으로 찬일동무랑 맡아서 이끌어줘야 하겠습니다！》

제 4 장

증 오 의 반 격

1

렉스포드중좌는 네데를란드계 미국인이였다.

미국놈치고는 몸뚱이가 앙바틈한,이른바 워커형인 그놈의 체격을 두고 동료들사이에는 피탄면적이 작아서 륙군에 복무할 유리한 조건을 타고났다는 야유가 돌아갔다.

그의 둥실하게 두드러진 이마밑에 음침하게 패인 눈확속에서는 노르끼레한 눈섭에 가리운 가는 눈이 선의에 찬것인지 살기띤것인지 분간할수 없는 야릇한 빛을 뿜고있었다. 전투나 다른 불쾌한 사정으로 며칠만 면도를 못해도 그의 온 상판은 짐승의 털같이 더부룩한 수염에 덮여 그 몰골이 문명이전의 야생인을 방불케 했다. 바로 이런 몰골의 그가 뭉게치는 포연속에서 뛰여나오며 단말마의 함성을 지른다거나 야수의 열광으로 가파로운 경사지를 뛰여오르며 도망병들을 쏴제끼고 졸병들을 돌격에로 내몰 때면 그야말로 전투마당에는 중세기적살륙의 피비린내가 질게 풍기였다.

렉스포드 가문에서의 조선반도에 대한 침략적야망은 증조부때부터 끓어번졌다. 두차례의 대전후에 새로 정리한 지도에도 조선에로 지향한 조상들의 발자국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태평양상에 모래알처럼 널려있는 산호도들에는 그의 하내비들과 두 삼촌의 이름이 붙어있었던것이다.

태평양상 어느 섬 추장에게서 증조부가 뇌물로 받았다는 단검의 상아손잡이에는 해적들의 이런 격언이 새겨져있었다.

《기회는 단 한번. 먼저 찌르라！》

조상들의 진땀이 밴 그 단검은 세기를 넘어 후예들의 손에서 손으로 넘어왔는데 20세기중엽 그 가문의 계승자인 렉스포드한테까지 전달되였다.

지금 렉스포드는 그 단검의 시퍼런 날로 손톱끝을 다스리며 백상기소령의 말을 듣고있었다.

《…사단의무소에서 저를 박대한건 아닙니다.… 누구도 저를 패전장교로 치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300명 사병들을 잃은 제 마음이 편할수는 없습니다.…》

렉스포드는 백상기의 말에 공감하는듯하면서도 불만의 눈길로 흘깃 그를 쳐다봤다.

《내 한가지 묻겠소. 군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고있었소? 자기 신념대로 대답하오.》

백상기는 이런 전쟁마당에서 사관학교 강실에서처럼 현학적인 냄새를 풍기는데 아연해져서 렉스포드의 얼굴을 쳐다봤다.

《모르겠소?!》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장교의 두뇌와 의지력이요!》

백상기는 인차 모든것을 알아맞히고 눈을 온순하게 내리깔았다.

《제가 감상주의에 빠진건…》

《300이 아니라 3,000을 잃었대도 승리를 가져왔다면 나는 당신을 축하했겠소.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요. 자기 의지에 어떻게 그들을 틀어쥐고 다스리고 내미는가에 달렸소. 당신은 아직 손아귀가 약하오!》

사단의무소에서 일주일동안 치료를 받고 나오는 길인 백상기는 아직도 머리에 붕대를 감고있었다.

인민군곡사포의 사격거리를 벗어난곳에 위치한 렉스포드의 방에는 아늑한 기운이 돌았다. 탁자우에 놓여있는 전화기만이 그를 싸움마당과 련결시키고있었다.

백상기는 다시 방심한 태도로 손톱만 다스리고있는 상전의 얼굴을 흘끔 쳐다보고는 자중하는듯 머리를 수굿하며 침묵을 지키다가 적당한 순간에 말문을 열었다.

《저는 자기 두뇌와 의지력이 부족했음을 뉘우치고있습니다. 그러나 〈혜성작전〉의 실패가 전적으로 위력정찰을 잘못한데 기인한다는 참모부의 론의들에 대해선 동의할수 없습니다. 위력정찰을 맡았던 3대대장도 어쩔수 없었다고 믿습니다. 모든것이 장마때문입니다. 공산군은 장마를 리용하여 은밀히 배비변경해놓고는 아군의 위력정찰을 간파하고 화력을 감추었습니다.》

백상기는 이런 속에 없는 소리를 지껄여놓고는 상전의 얼굴을 흘

깃 결눈질해봤다.

렉스포드는 단검을 탁자에 소리나게 놓고는 랭소가 번뜩이는 눈으로 그를 노려봤다.

《그러니까 당신은 3대대장 변용구소령을 감싸주는 셈이로군. 흠…》

백상기는 가슴이 얼음장처럼 써늘해져 눈을 내리깔았다. 꾹 다문 그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다.

《변용구소령은 솔직하게 말하오. 공산군이 장마를 리용하여 은밀히 배비변경해놓고 화력을 감춘것도 사실이고 자기가 위력정찰을 잘못한것도 사실이나 그만한 화력을 감당 못하여 패한것은 공격을 지휘한 장교의 책임이라고…》

렉스포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야전지휘소의 궁륭식 천장밑을 뚜벅뚜벅 거닐었다. 그는 제딴의 《지휘예술》로써 패배를 거듭하면서도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부대를 틀어쥐고있었다.

렉스포드는 작전이 실패할 때마다 례외없이 그 책임을 집행단위에 있는 장교들에게 들씌워서 목을 떼버렸다. 그래야만 자기의 작전이나 지휘가 잘못된것이 아니라는것으로 정당화되였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장교들사이에는 자기를 보존하며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우기 위한 암투가 계속되였다. 놈은 자기의 정보망을 통하여 그 암투의 내막을 꿰뚫어보고있으면서도 시치미를 따고 내버려두었다. 렉스포드는 사람들이 서로 가까와지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만약 장교들사이에 친교가 맺어지면 서로 의사가 소통하여 자기의 비행이나 불의를 보고 뒤에서 헐뜯을수 있으며 나가서는 자기의 지반을 불안케 할수도 있기때문이다. 하여 놈은 은근한 암시와 비렬한 책략으로써 졸개들의 가슴에 불화의 씨를 뿌려 호상 적의를 품고 경계하게 하였으며 공명과 출세를 위하여 질시하면서 경쟁하도록 만들어놓았다. 이러한 수법은 그가 고안해낸것이 아니라 침략의 원흉들의 상투적인 통치방법에서 배운것이며 렉스포드가문의 유전적인 피에서 물려받은것이기도 하였다.

렉스포드밑에서 졸개노릇을 하는 백상기와 변용구의 사이도 요즘에 와서 험악해졌다.

백상기는 기업이 파산된후 울화증으로 병이 생겨 진해만에서 료양중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자주 편지를 받고있었다. 아버지는 렉스포드중좌밑에서 싸우는 아들을 통하여 렉스포드재벌에 붙어서 쓰러져가는 기업을 취세워보려고 꾀하였다. 상기는 제놈의 출세뿐아니라 기업의 부활을 위해서도 렉스포드에게 바싹 붙으려 했으나 미욱한 변

용구놈의 훼방으로 목적을 이룰수 없었다. 변용구는 상기를 자기 출세의 방해물로 알고 틈만 있으면 모해하려고 하였으며 작전이 실패할 때마다 모든 죄를 그에게 넘겨씌우려고 버둥거렸다. 상기는 자기를 쳐다보는 변용구의 눈에서 시퍼렇게 번뜩이는 적의의 빛을 감축하면서 놈에게 날카롭게 신경을 썼다.

1035고지에 대한 총공격—《혜성작전》이 실패한후 백상기는 머리에 입은 탄환 찰과상을 치료받으며 사단의무소 침상에서 뜬눈으로 밤을 샜다.

변용구가 위력정찰결과를 허위보고함으로써 자기를 죽음의 함정에 몰아넣었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하여 그의 몸에서 소리치며 흐르는 사나운 피는 이렇게 부르짖는것이였다.

《나는 네놈을 제거해버릴것이다!》

백상기놈은 렉스포드의 권위를 빌어 이 은밀한 목적을 달성해보려고 했으나 서두르지 않고 적절한 기회를 노리고있었다. 그는 렉스포드의 《과단성》을 알고있었다. 신앙심이 강한 렉스포드는 예감을 절대적으로 믿었다. 이제까지 《충신》이라고 믿었던자에 대해서도 자기 명예나 처세에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을 때엔 군법에 기소함이 없이 야전규률이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가장된 음모로써 없애버리는것이였다.

말없이 방안을 거닐던 렉스포드는 홱 돌아서 소창결으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백상기는 가슴이 왈랑거리며 무르팍이 떨렸다.

(왜 저러는가? 내 야심을 알고있는게 아닌가?!)

그는 벌떡 뛰여일어났다.

《저는 각하께 고백하는바입니다. 저는 위력정찰을 탓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인의 충실성을 다 바쳐 싸웠으나… 저를 일선에 내보내주십시오. 목숨으로 만회하겠습니다.》

백상기의 이마와 코등에는 식은땀이 내돋았다.

렉스포드는 음흉한 눈길로 그를 흘겨보고는 의자에 도로 앉아 피로운듯 눈을 내리감았다. 자기자신도 인민군진지에서 배비변경이 진행된것을 모르고있지 않았는가. 그는 장마가 시작되자 자기 정보망을 통하여 인민군후방에 특무들을 파했으나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으며 그자들의 생사여부조차 알수 없었다.

변용구도 위력정찰에서 인민군지휘관의 군사적계교에 속았을수도 있고 아니면 암투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허위보고를 했을수도 있다. 하지만 렉스포드는 어느쪽이냐고 판가리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전쟁승리후 《아시아의 이딸리아》라고 할수 있는 이 나라의 산악들이

자기 이름으로 명명되기를 희망했으며 자신은 식민지화된 이 나라의 총독격인 종신대사 자리면 자기 가문 재벌의 아시아침투를 위한 튼튼한 발판이 마련되리라고 망상했다.

그는 눈을 감은채 부드럽고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으나 그 목소리엔 위협조가 섞여있었다.

《3대대장은 위력정찰을 잘못한데 대하여 뉘우치고있소. 뉘우치는 사람을 괴롭힐수는 없소. 변용구소령도 자기를 만회하려고 또다시 출전했소. 오늘 아메리카군 포병대는 그를 지원하여 2,000발의 포탄을 날려보냈소. 이것은 그에 대한 신임의 표시요. 나는 승리를 가져오는 군인을 믿을뿐이요.》

《알았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왔다.

락엽이 진 앙상한 나무밑에 대기하고있는 찝차를 타고 일선쪽으로 달렸다. 쾌속으로 달리기를 즐기는 렉스포드의 취미를 알고있는 운전사는 무질서한 사병들의 대렬과 포차들이며 어느 후방보급소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들을 놀래우며 미친듯이 차를 몰아댔다. 길 저쪽 산밑에 널려있는 천막들옆에는 비에 젖은것들을 내다 넌 모포며 넝마같은 내의들이 언뜻언뜻 보였다.

밭가운데 있는 물이 고인 포진지들에서 견인차들이 대포를 끌어내는것이 보였다. 진탕투성이가 된 사병들이 포바퀴며 방순이며 포신에 매달려서 소리를 치며 대포를 밀고있었다. 장마가 멎자 전쟁다운 생활이 다시 활기를 띠며 소생하는것 같아 렉스포드는 자연 마음이 유쾌해졌다.

…오봉산 뒤골짜기우에는 뿌연 연기가 뜬김처럼 서려있었다. 그밑에서는 전쟁이 펼쳐놓은 구질그레한 생활이 와글거리고있었다. 골짜기 좌우기슭에 후방보급소들과 군속들의 천막이며 주보와 식당천막들이 줄지어있고 흙투성이 된 군인들과 로무인원들이 골짜기가 미여지게 가득차서 소리치며 욕지거리를 하며 궤짝들을 나르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어떤자들은 내물에 와 쌀을 씻기도 하며 도람통들을 굴리며 벌레처럼 붐비는 축도 있었다.

골짜기어구에 있는 밤나무밑에서 10여명의 병사들이 가마니를 깔고 앉은 늙수그레한 사병앞에 모여서서 떠들며 웃어대고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한명의 미군장교가 빈둥거리고있었다.

차에서 내린 렉스포드중좌는 그쪽으로 발결음을 옮겼다. 미군중위가 그를 알아보고 눈웃음을 지으며 경례를 붙였다. 괴뢰군병사들은 늙수

그레한 사병앞에서 물러서며 나무꼬챙이처럼 빳빳하게 굳어져버렸다.
렉스포드는 중위에게 힐난의 눈길을 던졌다.
《당신은 꽤 한가한 모양이군. 여기서 뭣들 하고있소?》
중위는 반죽이 좋게 벌쭉거리며 턱짓으로 가마니우에 앉아있는 사병을 가리켰다.
《흥미있는 일입니다. 저 얼뜨기가 출전하는 사병들의 운명을 예언하고있습니다. 일원짜리 지페 한장을 던져주면 되거던요. 저보군 23일을 언제나 주의하라고 경고하는군요. 하하하…》
중위는 옆에 송구스러워하며 서있는 난쟁이처럼 키가 작은 괴뢰군 이등병을 가리키며 덧붙여 말했다.
《이 친구 보군 서쪽에 가서 불을 조심하고 동쪽에 가서 계집을 멀리 하면 급살을 면하고 만년장수하겠다는구만요. 하하하…》
렉스포드는 점쟁이사병쪽에 흘깃 눈길을 던졌다. 얼굴에 주름살투성이고 때가 꾀죄죄한 그 사병은 신비의 감정에 잠긴듯 눈을 지그시 내리감고 올방자를 틀고 앉아있었다.
《중좌님,무료함을 덜수 있습지요.》
중위는 그를 꼬드겼다. 렉스포드는 그 사병의 외모가 역스러우면서도 은근히 흥미가 당겼다. 그는 사병앞에 다가서며 한손을 펼쳐보였다. 점쟁이사병은 그의 손을 잡으려고 했다. 렉스포드는 흠칫 놀란듯 손을 뒤로 끌었다가 그가 자기 손을 잡지 못하게 하면서 눈앞에 손바닥만 펼쳐보였다.
신비감에 잠긴 눈을 슴벅거리며 그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던 사병은 절망에 빠진듯 펑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다.
《아이고—아이고— 늬 팔자가 왜 이럴고—》
통곡소리는 가슴을 찢는듯했으나 사병의 두눈은 맹숭맹숭했다.
뜻밖의 봉변을 당한 렉스포드는 당황해서 손수건으로 손을 씻으며 중위며 사병들을 돌아보면서 어쩔바를 몰라했다.
점쟁이사병은 턱을 덜덜 떨며 부르짖었다.
《아이고—팔자야—아이고—대고—》
렉스포드는 왜서 저러는가고 백상기에게 물었다.
백상기는 점쟁이사병의 어깨를 거머쥐고 흔들어대며 따졌다.
《자식아,왜 말을 안하구서 이 야단이야. 말하란말이야.》
사병은 눈이 뒤집혀서 그를 쳐다보며 덜덜 떨었다.
《말 못하겠소. 목에 칼이 들어와두 못하겠소.》

《뭐야？！》 백상기는 눈을 부릅떴다.

《차라리 내 목을 눌러죽이시유… 으찌 나리님 사주팔자를 사병들앞에서 론하는기요？…》

백상기는 사병들을 쫓아버리고는 이자의 변덕때문에 맹랑한 일이 생길수 있다는 위구심으로 하여 부드러운 말로 달래였다.

《맘놓고 말하란말이야.》

점쟁이사병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지으며 오른손금만 봐서는 머리는 관북땅에 뿌리워가고 몸뚱이는 강남에 떨어질 팔자라고 했다. 백상기는 고약한 사병놈의 이 험담을 어떻게 옮길지 몰라서 난처해했다. 그 기색을 눈치챈 렉스포드가 따져물었다. 《뭐라고 하오？》

백상기는 그의 모난 말을 깎아버리고 부드럽게 다스려서 올리바쳤다.

렉스포드는 살기띤 눈웃음을 지으며 점쟁이사병앞에 지폐 한뭉치를 던지고는 왼손을 펼쳐보였다. 겁에 질린듯 얼굴이 해쓱해지며 손바닥을 들여다보던 사병은 무릎을 철썩 치며 일어나더니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천신이 도왔는고… 지신이 도왔는고…얼씨구…절씨구…얼얼사 절씨구…》

백상기는 다시 그의 어깨를 꽉 거머쥐며 따졌다.

《뭐야？》

《아이고—하늘이 도왔당게로—》

《말하란말이야！》

《어제 저승에 갈 날인데 오늘 살아계시니 하늘이 도왔사와요—》

백상기는 집어던지듯 그의 어깨를 놓아주었다.

점쟁이사병에게서 물러나오며 렉스포드는 백상기에게 불쾌한 어조로 말했다.

《저자는 여기서 뭣하는놈이요？》

《의무소에서 들것을 메나르는놈입니다.》

《일선에 내쫓으시오.》

의무소 성원들이 천막앞에서 세워놓은 위생차와 화물차에 들것에 눕힌 부상자들을 실어올리고있었다. 경상당한자들은 앞을 다투어 트럭에 기여올랐다.

신음소리, 욕설, 웃어대는 소리… 화물차 적재함우에서 팔을 붕대로 처매고 피를 쏟아 얼굴이 백지장같은 부상병이 밑에 서있는 의무소 하사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질렀다.

《자식아, 송장은 왜 실어. 끌어내리란말이다！ 끌어내려！》

뒤따라 두세명의 부상자들이 악에 받쳐 부르짖었다.

《끌어내려라！》

《내려라！》

《송장하구 같인 못가겠다！》

하는수없이 의무소 성원들이 숨이 진 부상자가 실린 들것을 내리우기 시작했다.

《어느 대대 사병들이요？》 하고 렉스포드는 상기에게 물었다. 이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인듯 의무소 천막속에서 몸이 뚱뚱한 소령이 뛰쳐나왔다.

왼손에 붕대를 감은 변용구놈은 부자연스럽게 차렷을 하며 상전에게 경례를 붙였다. 흙투성이 된 그의 군복은 파편에 여기저기가 찢겨졌고 두눈엔 피발이 서있었다.

렉스포드는 살기떤 눈웃음을 지으며 그를 쏘아봤다. 순간 3대대장의 얼굴빛은 시꺼멓게 죽었다.

《각하,…래일 다시… 각하… 다시 출전할 가능성을 주십시오！》

《변소령,어떻게 된 일이요？！》

《인민군특수지뢰원에 걸려서 대대공격은 좌절됐습니다.… 아군공병들이 지뢰해제를 태공했습니다！ 해제작업중 사상자 몇이 나자 특수지뢰원이라고 겁을 먹고 해제작업을 포기하다싶이했습니다！》

《흠…》

렉스포드는 그의 말을 긍정해서인지 아니면 조소해서인지 이렇게 코웃음을 지었다.

백상기는 애꿎은 공병들에게 슬쩍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시도하는 놈을 적의에 찬 눈으로 노려보고있었다.

이때 그들옆으로 탄약상자며 밀가루포대와 박격포탄상자를 멘 100여명 사람들의 행렬이 역한 냄새를 풍기며 지나갔다. 그것은 《사형수》들이란 어마어마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무고한 사람들의 행렬이였다.

괴뢰군 징집을 기피하여 산에 숨어있다가 잡힌 농사군의 아들들이거나 사위감들,목숨이 아까와 탈주하다가 잡혀서 《군법》의 선고를 받은 경상도내기 일등병들과 이등병들,자기를 개처럼 매질한 장교놈을 찔러죽인것이 발각되여 군적에서 제명되고 사형언도를 받은 고등학교 출신 사병,놈들의 강제부역을 반대해나섰던 농민들과 마을에 달려들어 행패질하던 미국놈을 때려엎은 로인,인민군정찰병을 도왔다는 《죄》로 무리로 잡혀온 한마을사람들… 각이한 운명의 그 사람

들은 일선에 끌려나와 마소처럼 부역에 시달리고있었다.
놈들은 힘이 진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쏴죽였다.
땀이 피눈물처럼 흘러내리는 그들의 얼굴과 우묵하게 패인 눈확마다엔 짙은 절망의 그늘이 비껴있었다.
그들속에는 늙은 어머니도 젊은 녀인도 끼여있었으며 어린 소녀의 애처로운 모습도 보였다.
외마디 구령소리를 노래보다 더 즐겨하는 하사관놈들이 그들을 집짐승무리처럼 몰아가고있었다.
《빨리… 빨리 걸엇！…빨리！…》
이때 갑자기 그 행렬에서 누데기같은 군복을 걸친 사람이 궤짝을 내동댕이치고 달려나오더니 변용구앞으로 달려왔다.
두놈의 하사관이 달려와서 그의 덜미를 잡아 질질 끌어갔다.
《저자식이 어떻게 된 일이요？》 하고 상기가 물었다.
《살인미수에 도망친 죄요！》
《자식이…》
렉스포드는 말없이 《사형수》들의 긴 행렬을 바라보고있었다. 그의 눈은 령감에 잠긴듯 부드럽게 빛났다. 이 순간 그의 머리엔 후날 전쟁사가들을 놀래울만한 《비범한 착상》이 떠올랐던것이다.

2

새벽에 백상기대대는 《사형수》들을 몰고 유수강상류의 찬물을 건넜다.
그들이 언덕뒤에 와 산개했을 때 변용구대대가 은밀히 물을 건너오고있었다.
언덕뒤 풀밭에 몰켜앉은 《사형수》들은 무엇인가 불길한 일이 있으리라는 예감에 우들우들 떨면서 지나가는 장교들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마주보기도 했다. 오덕보는 목을 길게 빼들고 산개하여 엎디여있는 사병들속에서 고향친구인 공달호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고향사람들에게 인사말이라도 전하고싶었던것이다. 부역에 시달리는 나날에 간혹 옆사람들이 친구들로부터 먹을것이나 담배같은것을 몰래 받는것을 볼 때면 오덕보는 은근히 공달호를 기다렸

다. 그러나 그는 한번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친구지간의 의리도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자기의 이 모든 불행이 그때문에 생긴것 같으면서 가슴에 원한이 서렸다. 사실 그의 불행은 공달호와 관련되여있기도 했다.

…일선에 끌려나온 이튿날 오덕보는 주보에 소대장의 술심부름 갔다온 동향친구 공달호를 우연히 만나 기막힌 소식을 들었다. 오늘 후방에서 새 《위안부》들을 한차 가득 실어왔는데 오덕보의 안해 순임이 같은 녀자가 차에서 내려 네번째 천막으로 끌려들어가더라는것이였다.

그날밤 자정이 넘어 오덕보는 탈영했다. 단숨에 고개를 넘어 《위안부》들의 천막촌으로 달려간 그는 네번째 천막문을 벌컥 열어제꼈다.

오덕보는 어슴푸레한 등불밑에서도 첫눈에 안해를 알아보고 그를 끌고 밖으로 뛰여나왔다. 이때 천막앞을 순찰하던 보초놈이 앞을 막아섰다. 오덕보는 와락 달려들어 총탁으로 놈의 면상을 깠다. 보초놈은 《으악!》 하고 소리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그는 기절한 안해를 업고 그밤으로 100리길을 달려 심심산골로 들어갔다. 이튿날 세상을 등지고 은신처를 찾는 그들 내외앞에는 빈 절간이 나타났다. 그들은 절간에서 하루밤 지내기로 했다. 처마밑에서 한쪽모서리가 썩은 멍석마리를 얻어온 오덕보는 제법 자리까지 깔았다.… 안해는 오덕보의 팔에 안겨 밤새 흐느끼면서 피눈물에 섞인 고생살이 이야기를 했다. 오덕보는 안해더러 인젠 그 지긋지긋한 옛얘기는 그만하고 살아갈 얘기나 하자고 했다. 그때 안해는 낟알 한줌, 돈 한푼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겠느냐고 한숨을 지었다.

오덕보는 빙그레 웃으며 군화를 벗고는 깔창을 뜯어내고 그안에서 꼬기꼬기 접어서 넣은 지폐 몇장을 꺼냈다.

안해는 웬 돈이냐고 반색을 하며 놀랐다. 오덕보는 혹시 집으로 가게 되면 임자한테 치마감이라도 끊어가려고 고향을 떠날 때 사람들이 한푼 두푼 모아준 돈을 투전군인 선임하사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런데 감췄노라 했다. 그 말을 듣자 안해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행복에 겨워 흑흑 느껴울었다. 오덕보는 그만 그치라고 달래였다. 이때 밖에서 발자국소리들이 저벅저벅 울렸다. 수색대놈들이 뒤따랐다는 생각에 소스라쳐 뛰여 일어난 그는 안해를 이끌고 뒤문으로 빠져나갔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졌던지 지금도 꿈에서 본 일처럼 삭막하게 떠오른다. 추격, 맞총질, 체포, 안해는 그가 잡히자 돌아서려고 했다. 수색대놈들이 더러운 소리들을 지껄이면서 안해에게로 몰려갔다. 오덕보는 몸부림치면서 어서 뛰라고 소리쳤다.

부대로 끌려오면서 그는 수색대놈들이 지껄이는 소리들에서 안해가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아찔하게 높은 벼랑에서 떨어져 꽃잎처럼 흩어져버렸음을 알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날이 훤히 밝자 백상기가 한데 몰켜서 우들우들 떨고있는 《사형수》들에게로 다가와서 이렇게 선포했다.

《우리는 너희들을 인민군측에 넘겨주기로 결심했다. 지정된 순위에 따라 넘어가되 도중에서 돌아서는자는 갈겨버리겠다!》

두놈의 소위가 《사형수》들을 네명씩 조를 짜서 언덕뒤에 차례로 앉혀놓았다. 놈들의 믿어지지 않는 말에 어리둥절해진 《사형수》들은 두리번거리며 장교들의 기색만 살폈다.

해가 뜨고 렉스포드놈이 정해준 시간이 되자 백상기는 소위에게 소리쳤다.

《자, 시작해라!》

두놈은 네명의 《사형수》들, 허름한 농민옷을 걸친 청년과 양복차림의 중년남자 세명을 끌고 중기관총이 탄띠를 물고 노리고있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들의 잔등을 떠밀었다.

《저기가 인민군 진지다. 뛰여가… 돌아서면 갈긴다!》

사복차림의 중년남자들은 와들와들 떨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소위는 꽥 소리질렀다.

《가란말이다!》

옆에 서있던 다른 소위가 능글맞게 웃었다.

《히히히, 인민군은 너희들을 환대할게다. 히히히…》

이때 누군가 옆에서 후닥닥 뛰여나갔다.

농민옷차림의 청년이였다. 그는 개활지대를 곧바로 가로질러 주먹릉선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며 한팔을 휘두르면서 소리를 질렀다.

《여보시우— 인민군대동무들—》

세 중년사나이도 그의 뒤를 따라 개활지대로 달려들어갔다.

쾅… 시꺼먼 흙먼지가 풀썩 일며 청년의 몸뚱이가 공중 뿌리워올라가더니 통나무처럼 땅바닥에 던져진채 일어나지 못했다. 질겁한 중년사나이들은 방향을 바꿔 뿔뿔이 흩어지며 달려나갔다.

《여보시우— 인민군대동무들—》

그들은 무엇이라고 부르짖으며 정신없이 달려나갔다.

쾅… 쾅… 지뢰의 폭발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그들을 삼켜버렸다. 연기속에서 떼굴떼굴 굴며 기여나온 한사람이 실명했는지 허둥거리며 이쪽으로 걸어왔다.

《쏴라!》 하고 소위놈은 소리쳤다.

가슴에 못을 치는것 같은 중기관총의 짤막한 련발사격소리와 함께 그 사람은 앞으로 푹 꼬꾸라졌다.

언덕에 납작 붙어서 지붕처럼 시야를 덮은 철갑모밑으로 이 모든 참경을 내다보는 백상기의 입술이 얄궂게 이그러졌다. 피발이 선 그의 눈은 광인의 그것처럼 번뜩거렸다. 지뢰원에서의 죽음을 본 그의 가슴은 미칠듯이 날뛰였다. 걷잡지 못할 통쾌감이 홍수처럼 폐부에 휩쓸어들며 살륙의 욕망이 전신에 차고넘쳐 오한이 나는듯 이가 떡떡 마주치며 두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동시에 그는 지뢰원을 이런식으로 헤칠것을 착안한 렉스포드의 《랭정한 파단성》에 자기 심장을 견주어보며 일종의 시기심을 느끼는것이였다.

백상기는 소위놈에게 손을 홱 저으며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다음!》

또 네명의 《사형수》가 언덕으로 끌려올라갔다.

오덕보는 《사형수》들속에 쭈크리고 앉아서 우들우들 떨고있었다. 그는 언덕너머에서 들리는 위협적인 고함소리, 폭발소리, 비명소리들을 듣고있었다. 그는 옆에 앉아있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얀 하사관출신 《사형수》에게 속삭였다.

《아니 왜 이러는가?… 이거 무슨 소리여? 예?!…》

하사관은 두손으로 귀를 꽉 틀어막고있었다.

《아니, 여보시오. 저 소리가 무슨 소리요?》

오덕보의 빛이 꺼진 두눈에선 절망의 눈물이 떨었다.

그의 뒤에 앉은 구레나룻이 얼굴을 꺼멓게 덮은 힘장수같은 사나이가 웅글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재수없이 지껄이지 마오. 우리 목숨으루다 지뢰를 해제한단말이여…》

그 사나이는 오덕보의 잔등을 두드렸다.

《떨지 말게, 하늘이 무너져두 살구멍이 있소. …》

《한사람이라도 살아남는다면 이 사실을 인민군편에 알려야 하오. 복수를 해줄게요. 복수를… 아, 총이 있다면…이놈들을…》

머리를 싸쥐고 앉았던 인민군정찰병을 도왔다는 건장한 농민이 씹어밸듯이 속삭였다.

또다시 언덕너머에서 땅을 들었다놓는 폭발소리가 울리더니 가슴을 찢는 비명이 울렸다.

오덕보옆에 앉았던 건장한 농민이 전기에 치운듯 와뜰 떨더니 소스라쳐 일어나 달려나가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 살인마들아!》

백상기가 그에게 권총을 발사했다.

농민은 얼굴을 싸쥐며 앞으로 넘어지더니 두세번 굴러서 언덕밑에 떨어졌다. 서너명의 사람들이 욱 밀려나가며 백상기놈에게 달려들었다. 힘장수같은 사나이가 벌떡 일어나 모자를 벗어 땅에 내동댕이치고는 소리쳤다.

《여— 일어나라— 이래도 저래도 죽을판이다— 피값이나— 치—르—자—》

그는 달려드는놈들을 발길로 차넘기고 뭇매질이 벌어지는 한복판으로 뛰여들었다.

오덕보는 우뚝 일어나 두리번거렸다. 사람들은 백상기와 소위 그리고 중기관총수를 안고 언덕밑으로 떼굴떼굴 굴러내려갔다. 한무리의 놈들이 그들에게로 달려들었다. 오덕보는 저도 모를 함성을 내지르며 몸을 날려 놈들을 닥치는대로 후려치고 쥐여박고 차넘기였다. 수십명의 《사형수》들이 한꺼번에 와락 달려들어 언덕밑에서는 치고 받고 물어뜯는 란투가 벌어졌다. 고함소리,비명소리,눈이 뒤집혀지고 피투성이 된 얼굴들과 벌건 잔등들이 눈앞에서 언뜻거렸다. 오덕보는 뒤로 덮치며 목덜미를 잡아채는 장교놈을 멨다꼰지고는 깔고앉아 돌멩이로 놈의 상판을 마구 짓모았다.

놈들은 처음에는 여러 사람을 쏴제낄수 있었으나 제편과 《사형수》들이 한데 몰켜서 딩굴게 되자 총질도 못하고 다급한 고함소리만 지르며 헤덤비였다. 이때 뭇매질밑에서 간신히 기여나온 백상기놈이 덤벼치는 땅딸보장교놈에게 빨리 1중대를 풀어서 《사형수》들을 뜯어내라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언덕으로 뛰여올라갔다. 백상기는 숨을 헙하게 몰아쉬며 입귀로 흘러내리는 피를 손등으로 훔치고는 옆에 서있는 소위놈에게 소리쳤다.

《야,계속해라. 빨리!》

그리하여 언덕밑에서는 혈투가 끓어번졌으나 반항 못하고있던 허약한 《사형수》들은 계속 언덕우로 끌려올라가게 되였다.

…곽병식은 참호흉장의 흙을 두손으로 움켜쥐고 아래를 내려다보고있었다.

주먹룽선앞 개활지대에서의 참극은 웬일인지 잠시 멎었다가 다시 계

속되였다. 전사들은 미제살인귀들의 만행을 절규하며 펄펄 뛰였다.
적들은 지뢰원에 내몬 사람 한명의 목숨으로 지뢰 하나씩을 폭발시켰다. 불우한 그들은 일정한 사이를 두고 네명씩 짝을 무어 자기네 운명의 처참한 나락을 향하여 절망적으로 달려나왔다. 폭발… 폭발…
그들이 달려나오며 부르짖는 소리들은 전사들의 가슴에서 복수의 피가 끓어번지게 했다.
《인민군대—동무들—》
《살려주시오—》
곽병식의 심장은 흉벽밖으로 튀여나올것만 같았다. 그는 일격에 반돌격해 내려가 살인마들을 총창과 총탁으로 탕을 쳐버리고싶었다. 입안이 바삭바삭 타들었다.
곽병식은 얼굴을 참호흉장에 박고 모지름을 썼다.
(안된다! 안된다! 반돌격은 이르다!)
리성의 목소리는 황황 타오르는 가슴우에서 헛되이 부르짖고있었다.
전사들은 치를 떨며 비분을 터뜨리고있다.
《아이쿠, 저놈새끼들을!…》
《이 승냥이들아!》
《살인귀들아!》
조칠성은 달려와서 눈물을 뿌리며 부르짖었다.
《소대장동지, 저놈들을 내려가 없애치우자요!》
《참소!》
《저놈새끼들을… 보구만 있으랍니까?! 반돌격하자요!》
《자기 위치롯!》 곽병식은 칼로 베듯 준절하게 소리쳤다.
그는 참호흉장에 엎딘채 애타게 중대부고지를 쳐다봤다. 고병근중대장도 이 모든 사태를 내려다보고있으련만 의연히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곽병식은 전화기가 있는곳으로 달려가 반돌격하여 내려가 저 살인마들을 족치게 해달라고 중대장에게 요청하고싶었으나 입술만 피터지게 깨물고 참고 참았다. 가슴에서 불길이 황황 타오르는듯했다. 그는 참호둔덕의 흙을 으스러지게 그러쥐며 밑을 내려다봤다.
…또다시 네명의 흰옷차림의 인민들이 지뢰원으로 몰려나왔다. 연거퍼 세개의 지뢰가 폭발하며 달려나오던 사람들은 연기에 휘말려 끄꾸라졌다. 제일 뒤에서 비칠거리며 나오던 녀인이 그 자리에 폴싹 주저앉았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참호에서 누군가 피타는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긴 중기관총 련발사격소리가 울리더니 녀인의 뒤에서 탄알들이 박히는 먼지가 폴싹폴싹 일었다. 녀인은 탄알을 피하여 몇걸음 주춤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중기탄은 녀인의 발꿈치를 따라오며 박혔다. 놈들은 위협사격의 채찍으로 녀인을 지뢰원 한복판으로 몰아가고있었다. 쾅…시커먼 흙먼지가 하늘에 솟고 녀인은 흔적조차 남지 않고 없어졌다.

《이 새끼들아！》 조칠성이가 참호에서 뛰여나가려고 했다.

한철흠이 억센 팔뚝으로 펄펄 뛰는 불덩이같은 그의 몸을 꽉 끌어안았다.

《어이쿠—》 조칠성이는 비분을 터치며 주먹으로 제 가슴을 쳤다. 한철흠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을 슴벅거리며 달려온 소대장에게 말했다.

《소대장동지, 참아내겠습니다. …》

곽병식은 자기 가슴에 불을 끼얹는것 같아서 그들을 외면하고말았다. 그는 참호에 엎드려 치를 떨고있는 전사들에게 무엇이라고 웨치고싶었으나 억이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명보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왜 반돌격을 안해요？！ 저놈들 만행을 보구 참으라요？！》

《자기 위치롯！》

《예？！》 티없이 맑던 명보의 눈은 원한을 품고 그를 쳐다봤다.

《우린 모두 비겁해요！》

명보는 눈물을 뿌리며 홱 돌아서 제자리로 달려가 참호흉장에 막 엎어지며 얼굴을 묻었다. 곽병식은 명보의 어린 량심이 부르짖는 마지막 말에 가슴이 도끼에 찍히운듯 얼얼했다.

(명보, 명보, 우린 비겁한게 아니다！ 비겁한게 아니다！) 그는 참호를 따라 걸어가며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고있었다.

이때 신찬일이가 몸을 반쯤 일으키며 얼이 빠진 사람처럼 소리치고있었다.

《아, 아—저게, 저게, 저게 누구야？！》

곽병식은 아래를 내려다봤다. 여기저기서 일어난 폭발의 연기가 가시지 않은 지뢰원의 한복판을 곧바르게 가로질러 한사람이 뛰여오고있었다. 시체들이 널려있는 지뢰원을 정신없이 달리며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부르짖고있었다.

지뢰에 걸리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사람은 폭탄구뎅이며 철조망 토막 등 앞을 막아서는 장애물들을 훌쩍훌쩍 뛰여넘으며 주먹릉선쪽으로 날듯이 뛰여오고있었다. 사람에게 저렇게 빨리 뛸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서 생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갈기갈기 찢어진 괴뢰군복을 걸친 그 사람은 새까만 얼굴에 흰 이만 드러내놓고 무엇이라고 부르짖으며 달려오고있었다. 사지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를 향하여 적 중기가 불을 뿜었다. 달려오는 그의 좌우앞뒤에서 중기탄들이 먼지를 일구며 박혔다.

참호의 전사들은 참을수가 없어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여보시오—》

《엎디오—》

《엎드렷.》

그래도 그 사람은 정신없이 뛰여올라왔다.

한철흠분대장이 날파람있게 달려나가 그를 한가슴에 안으려고 했다. 그 사람은 힘장수인 한철흠을 홱 뿌리치고는 참호를 뛰여넘어 무작정하고 뛰여올라왔다.

뛰여야 산다는 그 한가지 생각으로 수난자는 누구도 감당해낼수 없는 초인간적인 힘으로 막아서는 사람들을 뿌리치며 달려왔다.

《섯! 섯!》 곽병식은 달려나가 억센 두손으로 그의 목덜미를 틀어잡고는 땅에 엎어뜨려놓고 깔고앉았다. 그 사람은 몸을 푸들푸들 떨더니 거품을 물고 늘어졌다. 이를 사려물고 전률하는 수난자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는 곽병식의 가슴에선 불덩이가 치밀며 목구멍을 막아 숨이 막혔다. 그는 헉 느꼈다. 전사들의 피타는 부르짖음이 들렸다.

《이놈새끼들아—》

《복수하자—》

《소대장동지—》

곽병식은 경련하듯 머리를 돌려 아래를 내려다봤다. 흰 옷을 입은 10여명의 사람들을 앞세우고 쐐기모양으로 밀집대형을 지은 적병들의 시꺼먼 무리가 지뢰원을 지나 방어전연에 쓸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때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팔소리가 중대부고지로부터 증오에 타끓는 참호우로 울려왔다. 3소대의 반돌격을 명령하는 그 나팔소리는 고병근중대장의 격한 목소리와도 같이 떨리면서 격전장의 하늘높이 울려퍼졌다.

순간 탕개가 끊어져나가는듯한 둔중한 소리가 곽병식의 뇌리를 울렸다.

곽병식은 자기 몸뚱이가 허궁 날아나는 감을 느끼며 피타는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반돌격 앞으로—》

《만세—》

《만세—》
《만세—》
바람이 얼굴을 휘휘 스치고 전사들의 부르짖음소리가 들렸다.
소대의 반돌격서렬은 뒤에 먼지구름을 날리며 달려내려가 그바람으로 적과 부딪쳐 마구 무찌르고 짓이겨 채 산개하지도 못한 놈들의 공격서렬을 헝클어뜨려놓았다. 전사들은 적의 무리속으로 뛰여들어 날창으로 찌르고 박고 쏘아넘겼다. 혼란에 빠진 적장교들의 미친듯한 고함소리와 적병들의 비명이 전장가득 어지럽게 울렸다.
고병근중대장은 광란적인 포화를 들쓴 1035고지의 흙이 우수수… 우수수… 떨어지는 감시소에서 쌍안경으로 모든것을 손금보듯 내려다보고있었다.
얼마후 적의 한개 중대 력량이(변용구대대의) 개활지대에서의 혈투장을 피하여 빠른 기동으로 깊은 골로 들어와서는 831고지의 측면으로 치달아올랐다.
이것을 본 고병근은 얼굴 근육이 푸들푸들 떨렸다. 그는 손에다 침을 탁 뱉더니 감시소에서 뛰여나갔다.
고병근은 이런 때를 예견하고 예비로 아꼈던 1소대를 풀어놓기로 결심했다.
1소대는 칼릉선갱도 작업장에 동발목을 보장해주다가 전투가 붙자 중대의 예비대로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 대기상태에 있었던것이다.
고병근중대장은 최호찬을 불러 곧 3소대의 참호를 차지하고 결전에 진입하되 2소대와 협동하여 주먹릉선 우측경사면에 붙은 적을 소멸하는 한편 3소대의 전투리탈을 엄호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난 다음에는 진지를 인계받으라고 말했다.
1소대는 주먹릉선으로 내려오는 급한 경사지를 따라 먼지구름을 날리며 달려내려갔다.
고병근은 3소대가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자 신호총을 쥐고 포화의 불바다를 뚫고 1035고지 꼭대기로 달려올라가 하늘에 대고 신호탄 세발을 쏘았다. 그의 가슴에서 튀여나온 피방울 같은 붉은 신호탄들은 하늘높이 치솟아오르며 3소대를 안전한곳으로, 참호로 부르고있었다. …
개활지대에서는 한창 적아 량편이 한데 뒤범벅이 되여 돌아가며 찌르고 차고 붙안고 딩굴고있었다. 조칠성은 날창을 휘두르며 닥치는대로 찔러넘겼다. 그는 적들의 무리속을 꿰뚫고 펄펄 날아다니며 죽음을 안겼다. 그는 명보가 붙안고 딩구는놈의 잔등을 푹 내리찌르고는 꼬마

병사의 팔을 잡아 번쩍 일으켜주었다. 눈에 불을 켠 명보는 도망치는놈을 향해 몸을 날려 총탁으로 뒤덜미를 쳤다. 놈은 푹 꼬꾸라졌다.
박광준은 자기한테 달려드는 두놈을 량팔에 끌어안고 모지름을 쓰며 한철흠에게 소리쳤다.
《분대장동무— 이놈을… 이놈을…》
한철흠은 달려오며 두놈의 상판을 총탁으로 갈겼다.
번쩍이는 총창들, 부딪치는 총탁들, 웨침소리, 비명소리…작전이 실패하자 렉스포드가 날려보내는 류산탄은 이 혈전장의 하늘에서 번개처럼 짜르릉거리며 터졌다.
류산탄 파편들은 자기편도 가리지 않고 쓰러뜨렸다. 이마에서 피가 줄줄이 쏟아져내리는 장교놈이 무릎을 꿇고 쓰러지면서 하늘에 대고 저주를 퍼부었다.
《포사격을 중지시켜라—아이쿠—개새끼들아—포사격을 중지…》
놈은 명이 진한듯 푹 꼬꾸라졌다.
《소대장동지, 신호탄입니다！》
적 장교놈을 타고 앉아 목을 누르고있던 곽병식은 누군가 부르짖는 소리에 놀라서 하늘을 쳐다봤다. 세발의 신호탄이 꺼지면서 하늘에서 떨어지고있었다. …

3

휘몰아쳐 지나간 격전의 태풍은 유수강상류의 맑은 물을 흐려놓았다. 물밑과 기슭에는 적병들의 시체가 너저분히 널려있고 폭풍에 뿌리여온 흙덩이들과 먼지와 포연에 물결은 트레트레 흐려졌다. 그러나 땅우의 더러운것들을 씻어버리고 흘려보내는 자연력의 영원한 사명을 꾸준히 리행하는 강물은 바닥에 무겁게 가라앉은 시체며 오그라진 철갑모, 깨진 탄약상자, 군복쪼박, 군화 등속을 떠밀고 내려가면서 욕질하듯 주절거리며 쉬임없이 흘러내렸다. 고요가 닥쳐왔다. 어디선가 찌르러기소리 같은것이 울린다. 포연이 뜬김처럼 서린 물가의 수풀속에 몸이 비대한 장교놈이 하반신을 물에 잠그고 누워있었다. 변소령이다. 그는 백상기대대가 인민군의 질풍같은 반돌격에 질겁하여 퇴각하는바람에 포위될 위험에 빠져 황급히 도망쳐나오다가 부상당했다. 그의

몸에서 흐르는 피가 진흙물처럼 물밑으로 기여가며 번진다. 놈은 눈을 가느스름히 내리감고있었으나 모든것을 볼수 있었다. 퇴각하여 강을 건너가는 사병들의 그림자가 뿌연 안개속에서처럼 어른거린다.

《이 자식들아… 나를 업어가라… 민병일상사！ 민병일상사！》하고 소리쳤으나 모기소리만한 그 부름을 누구도 듣지 못했다.

두 그림자가 저벅거리며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구두가 새건데… 벗겨가질가…》

《늬 어쯔자구 그래, 귀신이 붙는다.》

두놈은 후닥닥 놀라며 도망쳐갔다.

(아니, 내가 죽었단말인가！ 그런데 말소린 왜 똑똑히 들릴가？ 나는 살아있다… 나를 버리구 가는구나… 죽어봐라…)

그는 손에 쥔채로 있는 권총을 들려고 했으나 천근같이 무거워 팔을 움직일수 없다. 눈앞에 막막한 안개바다가 서리고 떠들어대는 소리가 어지럽게 들린다. 나비수염을 기른 애비의 번들거리는 얼굴이 그를 내려다본다.

(아버지！…)

1946년도 봄,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되고 작인들이 나눠가진 땅에 자기네의 이름자를 쓴 패말을 박고 꽹매기를 치고 장고를 두들겨대며 춤을 추던 날 놈의 애비는 심장마비가 일어 까무러쳤다. 그밤 변용구놈은 수류탄 두알을 품고 농촌위원회 울타리밑에 세시간이나 엎드려있다가 그것을 던지고야말았다. 그밤으로 놈은 애비를 업고 38선을 넘었다. 벼르고 벼르던 그날은 4년후에 왔건만 놈이 속한 부대는 황해도쪽이 아니라 전선중부 강원도의 산악을 타고 북상하게 되였다. 인민군의 강력한 반공격에 괴멸되여 그해 겨울의 무서운 눈보라에 휘말리여 쇠잔한 부대와 함께 남으로 패주하면서도 놈은 고향에 두고 떠난 고집센 맏형을 잊지 않고 그를 데리러 자기 충복 민병일을 파견했다. 고생끝에 거지몰골이 되여 전선을 넘어온 민병일은 형이 처단된 소식과 함께 토지문서를 내놓았다. 그 문서를 내려다보며 변용구는 빼앗긴 옛생활의 영화가 그리워 흐느껴울었다.…

놈은 포연자욱한 전선너머 저 멀리 북쪽 밤하늘에서 가물거리는 별들을 바라보느라면 가슴속으로부터 짐승의 울음같은 신음소리가 새여나왔다.

(인민군방어선을 뚫고 북벌의 길이 다시 개척되는 날, 선참으로 고향으로 달려가 빨갱이들에게 앙갚음을 하리라. 그날이 오면 빼앗겼던 토지를 모조리 찾아내고 내 땅우에서 주인행세를 하면서 살아온 농사군놈들을 머슴으로, 작인으로 만들어 다시는 머리를 쳐들지 못하도록

채찍으로 다스리리라.)

놈은 광기어린 눈으로 북쪽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에서 피거품을 끓이다가 어금이를 아프도록 앙다물었다. (아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죽다니!)

변용구는 일어나려고 모지름을 썼으나 힘을 쓸수록 피가 콸콸 쏟아져 더 깊은 안개바다속에 잠겨들었다.

순간 누군가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 뿌연 안개속에 가리워 흐릿한 그림자만 어른거린다.

다가온 그림자는 가슴을 헤치기 시작했다.

(아, 민병일상사인가, 상처를 보는구나…)

호주머니도 뒤져보고 가슴안도 만져보더니 배에서 무엇인가 풀어냈다.

변용구는 소스라쳐 놀라며 눈을 떴다.

미국제 나이론방수보자기에 싸서 배에 둘렀던 토지문서마리를 움켜쥔 백상기의 얼굴이 흐릿한 안개속에 내다보였다. 백상기는 그것을 호주머니에 쑤셔넣더니 랭소를 머금고 뇌까렸다.

《개자식 끝내 뒈졌구나. 이것도 이젠 내거다. 네놈이 빚에 몰려 넘겨줬다면 그만이지.》

백상기는 천천히 돌아섰다.

변용구는 무슨 힘이 났던지 권총을 번쩍 들고 등을 겨누었다. 달려가던 백상기는 물가운데서 뒤등이 섬찍하여 돌아봤다. 두방의 총성이 울렸다. 죽어가는자의 맥빠진 팔뚝에 받쳐진 권총은 빗나갈수밖에 없었다. 백상기는 권총을 뽑아들고 다가오더니 이를 악물고 란사했다.

그리고는 얼이 나간듯 비칠거리며 물을 건너갔다. 그는 한번 더 뒤를 돌아봤어야 했다. 수풀속에서 두눈동자가 이 모든것을 내다보고있었던것이다. 그것은 왕가물에 뿌옇게 타버린 보리밭속에 서글프게 비스듬히 서있는 허수아비처럼, 찢어져 너덜거리는 헌 군복에 철갑모를 푹 눌러쓴 몸이 체소한 사병이였다. 땅에 구겨박혔다놔서 흙검댕이 투성이 된 그의 얼굴에서는 눈알만 꿋꿋하게 살아서 빤짝이고있었다.

그는 이등병 공달호였다. 여느때 그의 얼굴을 처음 본 사람은 누구나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된다. 눈에는 동심이 꺼지지 않고 남아있었으나 이마의 주름살들이며 홀쭉한 볼에는 늙은이의 암담한 한숨이 서려있었다. 그 얼굴에 청춘만은 없었다. 나이를 분간할수 없는 초라한 그 얼굴은 웃음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부조화된 인상을 자아냈다. 그러나 지금 전선의 중간지대에서 벌어진 이런 사살행위를 목격한

그 얼굴은 돌처럼 굳어져버렸다. 그는 너무나 끔찍스러워 눈을 딱 감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있었다.

공달호는 누데기처럼 더덕더덕 기운 자기 소대 천막앞에 오자 눈에 보이지 않는 손아귀에 꽉 쥐운듯 얼굴이 주름살투성이로 졸아들며 울적한 한숨을 내쉬였다. 소대의 하사들은 힘도 제일 약하며 좀 모자라는것 같은 그에게 별의별 희떠운 수작들을 다 걸며 히히덕거리는것을 오락으로 삼았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와 우울증에만 빠져서는 도저히 살아갈수 없기때문에 그를 못살게 굴면서 웃음을 만들어내는것이였다. 게다가 어디다 화풀이할데가 없을 때면 주먹으로 쥐여박고 발길로 걷어찼다. 그의 이런 처지때문인지, 아니면 이름때문인지 그에게는 《꽁다리》란 별명이 붙었다.

달호가 천막으로 들어갔을 때 여느때와는 달리 누구 하나 그에게 달려들지 않았다. 사병들은 겁에 질린 침통한 얼굴로 전투마당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하고있었다. 그는 문결에 웅크리고 앉아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얼굴을 돌아보며 그들의 말을 들었다.

울릉도내기 일등병은 오늘 인민군대들이 반격해내려오는것을 보니 바람같더라고 하며 보통사람의 힘으로는 그럴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담배를 말며 그들은 우리들처럼 납작보리밥만 먹는것이 아니라 보약을 먹으면서 특수훈련을 받은 새 부대가 분명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구석쪽에 앉은 전라도내기 이등병이 자기는 오늘 《공산군장교》를 봤는데 아주 젊은 사람인데 얼굴이 혈색좋게 불깃하고 눈이 불을 켠것처럼 번쩍거리더라고 하며 목소리를 죽여서 속삭였다.

《우리하군 달라, 무슨 조화가 있어, 세사람이 달려들었는데 눈깜짝할새 찔러넘겼어, 내 눈으로 봤어.》

라주 출신 여드름투성이 일등병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다르긴 뭐가 달라, 우린 밑에서 기여오르는데 그들은 우에서부터 달려내려왔거던. 그러니깐 힘이 더 셀수밖에 있나. 이런 쑥덕공론은 그만두자구. 좋지 못해.》

《개자식, 머저리같은 생각밖에 못하는 주제에 뭐가 어쩌구 어째?! 꽂아넣을테면 넣어라!》

벌렁 누워있던 억대우같은 일등병이 벌떡 일어나며 그의 멱살을 틀어쥐였다. 모두들 달려들어 뜯어말렸으나 다툼질은 한동안 계속됐다. 달호는 결불에 맞을가봐 잠자코 앉아서 눈을 감고 제 생각에 잠겨있었다. 오늘 싸움판 복새통에서 그가 죽은척하고 시체들옆에 늘어져있

을 때 우악스러운 손이 덜미를 쥐여 갑삭하게 자기를 들어서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내동댕이치고 가버리던 일을 생각하니 등골에 소름이 끼쳤다. 그는 몸을 옹송그리며 호— 한숨을 내쉬였다.

어렸을 때 인심 후하고 우스개소리 잘하는 마을 어른들은 달호보고 산수머리가 좋다고 이마를 튕겨주며 너는 커서 대학훈장도 될수 있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사회는 행길옆에 돋은 길짱구처럼 그의 천성이며 소질들을 마구 짓밟고 짓이겨서 구두쟁이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구두 깁는 일밖에도 리발기술과 땜쟁이재간도 배웠고 재봉기 고치는 기술도 배웠다.

그는 세상의 소란을 피해 조용히 살아보고싶은것이 일루의 희망이였다. 그 희망이란 신문지로 알뜰하게 도벽을 하고 알른알른 장판을 한 단간집에서 그닥 마음이 고약하지 않은 녀편네를 데려다가 어린것 한두놈 무릎우에 앉혀보고 드문드문 녀편네앞에서 술주정도 해보고 마당가득 청어굽는 냄새도 풍기면서 살아보자는것이였다. 그러나 험악한 세상은 자그마한 희망에 매달려 사는 그도 덜미를 쥐여서 고용병들의 무리들속에 내던졌다. 괴뢰군의 강압적인 규률과 무지막지한 생활은 얼핏 보건대 그에게서 모든 인격적인 요소들을 제거해버린듯싶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데서 눈에 띄지 않게 샘처럼 솟아오르는 삶에 대한 욕구만은 빼앗아낼수 없었다. 인간의 개성과 자주적인 정신을 짓밟아 대포밥으로, 노예로 만들것을 목적으로 한 괴뢰군의 몽둥이규률과 야만적생활질서의 희생물인 그는 암담한 절망속에서도 살구멍을 찾아 쉬임없이 생각하고 행동하였다. 그는 전쟁을 피하여 도망치려고도 생각해보았으나 자칫 잘못하여 잡히기나 하면 《죄수》의 멍에를 지고 죽을고생을 겪을것을 생각하니 그런 생각은 말끔히 달아나버렸다. 그는 살아남기 위하여 전투마당에서 여러가지 꾀를 부렸고 위험한 일들에서는 될수록 피해서 숨어있으려고 했다. 그러나 무슨 귀신의 조화인지 아슬아슬한 건에 자꾸 걸려들어 무거운 근심걱정의 멍에를 걸머지고 허덕이게 되였다. 지뢰원에서 죽은 오덕보건때만 해도 그런 결과가 올줄 알았더면 그에게 아무말도 안했을것이다. 오덕보가 자기한테서 들은것을 실토하면 어쩔가 하는 근심때문에 숨을 죽이고 살아갔으며 그럴수록 하사관들과 사나운 일등병들이 몇푼 안되는 봉급을 꿔달라고 하면 받지 못할줄 알면서 다 털어주었다. 오덕보건은 무사히 넘기고 한시름 덜었다 하고 생각했던것인데 오늘은 더 끔찍한것을 보게 되였다. 더 큰 건에 걸려들어 이번엔 무사히 넘길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굴러떨어지면 뼈도 못추릴 낭떠러지끝에 선듯 눈앞이 아찔했다. 못된 갈구리도 아닌데 이놈 눈엔 왜 그런것만 걸리는

가 하고 생각하니 자기 두눈이 원쑤처럼 미워났고 나무꼬챙이로 팍팍 찔러버려 참봉이 되고싶은 마음까지 들었다. 결불에 맞아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며 자기같은것은 누구 하나 눈만 깜짝해도 목이 날아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활랑거렸다. 찬바람이 불어드는 문결에 누워있는 그는 거적때기속에 머리를 감추며 오늘 본것을 털어버리려고 애썼다.

그는 속으로 아무것도 안봤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을 되뇌이며 잠에 노그라 떨어졌다.

얼마나 잤는지 엉치가 도끼에 찍히운듯 아파나서 눈을 떴다. 불줄기같은 눈길이 졸음에 취한 그의 눈을 찌른다. 민병일상사의 피둥피둥한 얼굴이다! 민병일상사는 문밖으로 나가며 《꽝다리야, 나왓!》 하고 소리쳤다.

보름달빛이 환한 밤은 사방에서 들리는 대포의 견인차들과 자동차들의 발동기소리들로 가득차있었다. 서리같기도 하고 이슬같기도 하고 눈물같기도 한것에 젖어 차겁게 번들거리는 풀잎들과 나무들은 짐승들의 영악한 부르짖음같은 그 소리들에 질겁한듯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골짜기치기 철조망옆에까지 오자 민병일상사는 맹수처럼 달려들며 달호의 멱살을 틀어잡았다.

《대라! 뭘 봤나?!》

이발들 짬새로 새여나오는 회파람소리같이 나직하면서도 비수처럼 날카롭게 찌르는 그 목소리는 상사의 입안에서가 아니라 펀들거리는 눈에서 불찌처럼 튀여나오는것 같았다.

잠결에 헛소릴 쳤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는 불에 덴 사람처럼 펄쩍 뛰여올랐다가 억세게 틀어잡는 상사의 주먹밑에 헝겊처럼 늘어져버렸다. 상사는 그를 가시돋친 철조망에 집어던지고 발로 짓밟고 주먹으로 면상을 마구 치고 총구를 가슴에 들이댔으나 달호는 눈을 딱 감고 입술을 앙다물고만 있었다. 그러나 상사가 까무러쳐 늘어진 그의 잔등을 밟고 오른팔을 비틀었을 때 그는 모든것을 실토해버렸다.

상사는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주며 코피를 닦으라고 일렀다.

그는 얼굴에 매닥질이 된 끈적거리는것들을 씻으며 멍이 들어 퉁퉁 부어오르고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상사의 얼굴에 흘깃 결눈을 팔았다. 푸짐한 주안상에 마주앉은 술군의 모양새와 비슷한 얼굴을 보자 이게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푸른 달빛밑에서 차겁게 번들거리는 풀잎들이며 자기 손가락들에서 뻘겋게 끈적거리는것을 만져보았다.

상사는 무엇이라고 부드럽게 타이르며 그에게 가치담배까지 권했다. 그러나 그는 몸이 얼음장처럼 얼어들어 그것을 받아쥘수 없었다.

4

반돌격의 숨가쁜 흥분이 채 삭지 않은 대원들과 함께 맨처음으로 고지에 올라온 한철흡분대장은 뜻밖의 정경을 보고 그 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참호에는 1소대 전사들이 뛰여다니고있었던것이다. 참호한가운데에서 최호찬소대장이 팔을 활달하게 내저으며 무엇이라고 커다란 소리로 지시하는것이 보였다. 중기총차와 총신을 멘 사수,부사수들이 그의 지시에 따라 좌우측으로 허리를 구부정하고 뛰여가고있었다. 군데군데 배치된 경기관총의 기름기 알른거리는 새 탄창이 해빛을 받아 번쩍이고있었다.

참호끝에 있던 1소대 3분대의 전사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맨처음으로 보고 달려와서 부축하며 손을 잡아끌기도 했다.

《수고했소!》

《잘 해댔네!》

《허,허,저자식들 혼이 났겠구만!》

고지에 갓 나온 1소대 전사들은 온몸에 혈투의 흔적이 력연한 3소대 전사들을 부러운 눈매로 바라보며 반겨맞았다. 그러나 3소대원들은 성풀이 못한 분기때문에 단숨을 험하게 몰아쉴뿐 말을 못하였다. 피발이 선 그들의 눈들은 사납게 번뜩이고있었다. 빳빳한 모자채양밑에서 장난군의 새까만 눈이 반짝이고있는 1소대 전사 독고세가 조칠성의 팔을 끼고 부축해서 끌고가며 다우쳐물었다.

《어디것들이던가?! 양키야?!… 영국이야?… 뛰르끼예야?… 타이야?…》

이런 경우 남달리 냄새를 빨리 맡는 조칠성은 의아해하는 눈으로 그를 보며 물었다.

《동무네는 왜 나왔소?!》

독고세는 칠성을 빤히 쳐다보다가 눈웃음을 지으며 막돌같이 생긴 자기 주먹을 내보였다.

《혼자 싸우겠나?! 야,정말 이게 근질거렸어!》

그리고는 손바닥을 펴보이며 벌쭉거린다.

《이 어른한테 총소제만 시키니 고민한단말이야. 밤이면 통세까지

나거던！》
　모자를 벗어 얼굴을 훔치고있는 한철흠의 앞으로 남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얼굴이 싱겁게 생긴 분대장이 다가와서 묻는다.
　《여, 3분대장, 여기 우물이 어디 있소？》
　한철흠은 아닌밤중 홍두깨와 같은 물음에 벙벙해져서 그를 빤히 보기만 한다.
　《물말이요, 우물！》
　《골짜기에 내려가면 샘이 있소.》
　《좌측？ 우측？》
　그는 두팔을 동시에 날개처럼 벌리고 좌우측을 성급히 가리킨다. 한철흠은 최면술에 걸려 무엇인가 혼란을 일으킨듯 어리둥절해진 눈으로 그의 량손바닥을 번갈아보더니 《우측이요！》 하고 말했다.
　《찬가？》
　한철흠은 수모를 당한듯 얼굴이 빨개지며 머리를 끄덕이고는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나는 옆을 돌아본다.
　그쪽에서는 두다리를 퍼더버리고 앉은 찬일이가 빙 둘러선 1소대 전사들에게 담이 큰 소리를 탕탕 던지고있다.
　《우리 소대가 냅다 달려내려가니 아새끼들이 벌써 겁을 먹구 주춤하는게 아니겠어. 막상 붙어보니 우리 힘을 알겠더군！ 내 박광준이도 달리 보게 됐다니, 여느땐 황소같이 힘만 썼지 행동이야 볼게 있었나. 한데 범처럼 펄펄 난단말이야. 명보도 만만히 볼건 아니더군. 한데 조칠성이가 역시 달라！ 해댄다는데는…히야, 말말라구！》
　그는 1소대 전사가 주는 물통을 받아 꺼꾸로 쳐들고 물을 꿀꺽꿀꺽 마신다. 량볼과 목으로 흘러내리는 물이 해빛에 눈부시게 번들거린다. 그는 손등으로 입을 씻더니 숨이 차서 성급히 말한다.
　《콱 찌르니 그자식이 펄쩍 뛰여오른단말이요. 그래서 뒤로 휙 뿌려던졌지！》
　《찬일동무가 그렇게 했단말이요？！》
　《그럼 내가 안했다 치세！》
　전사들은 유쾌하게 웃었다. 찬일은 흥에 넘쳐 손을 내저으며 큰소리를 쳤다.
　《저놈새끼들이 한 보름은 찍짹 못할거네. 혼뜨검이 났거던！ 하하하…》
　《찬일동무！》

전사들속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언제나 조용히 지내는 김영재전사의 날카로운 질책소리는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찬일이뿐만아니라 옆에 있던 1소대 전사들도 3소대 전사들도 모두 참호끝에 서있는 김영재전사를 보다가 그의 시선이 옮겨지는쪽을 돌아봤다. 마감으로 고지에 올라온 곽병식소대장이 참호를 뛰여넘어 고지꼭대기로 올라가고있었다. 그의 몸에서는 고지에 있는 모든 전사들의 각이한 감정들을 제압하는 그 무엇이 풍겼다. 앉았던 전사들은 일어서고 서있던 전사들은 긴장해 굳어지며 눈이 휘둥그래서 그를 바라보았다. 구리빛으로 탄 귀밑으로 땀발인지 피발인지 분간못할것이 유난히 빛나며 목으로 흘러내리고 살이 드러난 잔등은 군복이 어깨로부터 옆구리쪽으로 치째져 몸을 움직일 때마다 너풀거렸다. 그는 자기 육체안에서 요동치는 거대한 힘을 걷잡지 못하는듯 종전의 단정한 걸음걸이를 허물고 몸을 흔들며 발을 무턱대고 움직여 헛밟으면서 걸어갔다. 그는 무엇인가 한가지 생각을 좇아 줄달음치는 사람처럼, 곧바로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참호에서 뛰여오른 최호찬소대장이 뒤쫓아가며 《3소대장동무！》…《3소대장동무！》 하고 불렀으나 듣지 못하고 그냥 올라갔다.

최호찬소대장은 아연해진듯 서버렸다. 그는 웬일인지 한쪽 어깨를 주먹으로 두어번 치고는 한철흠에게로 돌아와서 담배를 권하며 너그러운 웃음을 얼굴에 그리였다.

《어떻게 된거요？ 가보라구.》

한철흠은 그 말에는 응대를 안하고 무슨 생각에 골똘한듯 어두운 얼굴로 소대장이 사라진 고지꼭대기쪽을 바라보았다. 거기서는 회오리바람에 먼지구름이 타래져오르고있었다.

《어째 저러는가？！》

《전화 걸러 갑니다！》

…중기화구처럼 낸 소창으로 흘러드는 밝은 빛에 훤한 토굴속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머리를 맞대고 앉아 적정을 기입해넣으며 토의하고있던 강태욱과 고병근은 문이 벌컥 열리는바람에 돌아보았다. 전화가 있는 방가운데로 뛰여들어온 곽병식소대장은 해빛 밝은 밖에서 들어온지라 자기 앞을 막아선 두사람이 누구인지 분간못하여 단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두리번거렸다. 그의 얼굴은 증오의 울분과 격정에 넘쳐 떨었고 눈에선 눈물이 번쩍거렸다.

곽병식은 중대장의 얼굴을 알아보자 목이 쉬여 갈린 소리로 부르짖었다.

《중대장동지, 어째 신호탄을… 저놈 짐승새끼들을…！》
그는 헉 느끼며 허물어지듯 주저앉았다. 그는 누를래야 누를길 없는 증오심이 가슴에서 터져올라 어깨와 잔등을 마구 떨었다.
고병근은 그의 팔을 꽉 잡아주며 진정시키려고 했다. 그는 오늘 전투에서 과감한 반돌격을 단행하여 적의 작전기도를 완전히 파탄시킨데 대하여 아낌없는 찬사의 말을 해주고싶었으나 련대장의 앞이라 자기가 나설수 없어 그저 상관의 얼굴만 쳐다봤다.
지휘관들에게는 웬만해서는 칭찬의 말을 하지 않는 강태욱련대장은 역시 짐짓 엄한 얼굴로 방가운데로 무겁게 걸어오더니 곽병식을 돌아보고는 소창쪽으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어깨우의 빳빳한 전투견장이 조용히 오르내리고있었다.
얼마후 최호찬이 들어와서 절도있게 경례를 붙이며 활기에 넘친 우렁찬 목소리로 보고했다.
《련대장동지, 1소대장 최호찬, 중대장동지를 만날수 있습니까？！》
고병근은 그를 돌아보며 소리를 죽여서 물었다.
《왜 왔소？》
최호찬은 강태욱련대장을 돌아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인계받으러 왔습니다…》
《나가 기다리오.》
련대장의 팽팽한 군복잔등은 여전히 무겁게 오르내리고 어깨의 전투견장이 조용히 움직이고있다. 무엇을 생각하고있을가？ 강태욱은 아까 방가운데로 걸어갔을 때 곽병식의 관자노리옆 면도칼로 가쯘하게 자른 머리칼밑에서, 세파에 그슬리지 않은 깨끗하고 혈색좋게 탄탄한 젊은 살결을 보는 순간 가슴에서 불찌같은것이 살아오르며 몸이 훈훈해지고 무엇인가 가슴을 쿡 찌르는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이때 등뒤에서 구두발뒤축이 《딱！》 하고 부딪치는 소리가 나더니 곽병식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다.
《련대장동지, 나가봐도 좋습니까？！》
《좀 앉아있소.》
이순간 가슴이 훈훈하게 더워나고 설레면서 (아, 그것이였구나！ 그것이였구나！) 하는 생각이 봄날의 선풍처럼 강태욱련대장의 몸을 휩쌌다. 아까 가슴을 찌른것이 흘러간 자기의 청춘시절에 대한 아리숭한 향수였다는것을 알았을 때 그의 두눈엔 행복한 미소와 함께 물기같은것이 어렸다.
청춘, 열정의 분출, 다정다감한 정서의 범람에서 오는 무분별, 정의

감, 대담성, 모험심, 그것 없이야 무슨 청춘이랴… 그자신이 달리는 말우에서 경기관총을 휘두르며 왜군들 무리속에 뛰여들지 않았더냐! 그자신이 길가의 나무우에 숨어있다가 달려오는 기마련락병의 말안장에 뛰여내려 문건을 탈취해가지고 달려오지 않았더냐! 동지를 구원하러 감옥담장을 기여넘지 않았더냐!…

그자신 지휘관들앞에서 원쑤를 더 치게 해달라고 비분을 터뜨린 일이 한두번이였던가.

강태욱은 곽병식의 가슴에서 터져오르는 증오를 보았을 때 그의 몸에서 끓어번지는 젊은 피의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느꼈던것이다.

곽병식은 오늘 그 나이에 용케 참아내다가 제때에 반돌격을 단행하여 전투를 승리로 결속지었다.

강태욱은 천천히 걸어서 젊은이 옆에 와 앉으며 그의 주먹을 꽉 잡았다.

《나도 치가 떨리오! 미국놈들은 온갖 야수적인 전쟁수행방법으로 우리 조선사람들을 꺾어보려 하오, 안되지! 안되지! 우리 인민이 어떻게 살아온 인민인데, 짐승같은것들, 어림도 없지! 안되지…》

곽병식의 손을 쥔 련대장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렸다. 련대장의 웅심깊은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격한 음성에 의지가 되는듯 곽병식은 숨을 고르로이 돌리며 머리를 수긋하고 듣고있었다.

이윽고 련대장은 그의 잔등에 손을 얹고 목소리를 바꾸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어제 저녁 중대장동무랑 토의하고 동무네를 갱도작업에 돌리기로 결정지었소. 동무도 알고있겠지만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요새화된 갱도에 의탁하여 적극적방어전을 벌려야 원쑤놈들을 더 많이 족치고 전쟁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쥘수 있다고 가르치셨소. 그런데 보다싶이 우리 련대 방어진지들에는 아직 부족점들이 없지 않소. 시간을 다투어 갱도를 요새화해야 되겠소. 그래서 동무네도 갱도작업에 돌렸는데 중요한 임무인것만큼 책임성을 높여서 일해야 되겠소.》

곽병식은 결의에 불타는 눈으로 대답했다.

《련대장동지, 알았습니다!》

《그럼 나가서 인계를 하오.》

곽병식이 나간 뒤에도 강태욱련대장과 고병근은 한동안 앉아서 전투조직을 빈틈없이 짜놓고 밖으로 나왔다. 내리쪼이는 가을의 찬란한 해빛때문에 눈이 시였다. 교통호와 산기슭의 비탈길로 누렇게 퇴색한 군

복을 입은 전사들이 분주히 오고가는 모습들이 보였다.

산비탈길로 걸어가는 두 지휘관을 만나면 전사들은 길을 비켜서서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고병근은 여전히 엄엄하게 굳어있는 련대장의 얼굴은 보지 않고 자기앞만 보면서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동무들이 여기 나와서 적을 250여명 소멸하고 포로 4명을 잡았습니다. 무전기 한대를 로획했는데 아주 새게더군요. 요전 전투에서 2소대와의 교차사격은 참 모범적인게였습니다.》

그리고 고병근은 저 웃쪽릉선에서 아름드리나무그루터기를 도끼로 찍고있는 전사에게 버럭 소리지른다.

《그건—왜—찍소?—》

그 전사는 엉거주춤해서 이쪽을 내려다보며 큰 소리로 대답한다.

《불—사르—개—를 하자고—그럽니다—》

강태욱은 농사군같은 고병근의 모습을 흘깃 돌아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고병근이, 이사람이 능청스럽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3소대동무들에게 표창이라두 주자는 속심이지 흠, 그러면서도 딴전을 펴는걸 보지…)

강태욱련대장은 흔히 고병근이 예비가 있으면서도 박격포탄이나 수류탄을 더 내라고 욕심을 부린다거나, 사격경기에서 지고서도 심판을 걸어 이 핑게 저 핑게를 꾸며대여 다시 쏘자고 생떼를 쓴다거나, 군관회의에서 자기 고집만 우겨 분위기를 흐려놓는다거나 할 때면 의례 《우리 련대에서 고병근동무는 우환단지요.》 하며 화를 내는것이였으나 그가 누구보다도 자기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며 자랑할줄도 아는것으로 하여 그에 대한 깊은 믿음과 사랑을 품게 되는것이였다. 그는 전우의 아들을 이런 미더운 중대장에게 맡기고있다는것으로 하여 오늘 한결 마음이 든든해졌다.

그들이 걸어가는쪽 저만치 앞, 불길에 시꺼멓게 그슬린 바위옆에서 곽병식이 한철흠분대장과 마주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린다. 모자채양 그늘때문인지 한철흠분대장의 얼굴은 가무잡잡하게 질려보였다.

《탄알과 수류탄들을 인계하기전에 녹이 쓴것이 있으면 전부 닦아놓아야겠소!》

《우리는 한정량만 휴대하랍니까?!》

《그렇소. 될수록 새것을 1소대에 넘겨줘야 하오! 그리고 이제부터 참호를 말끔히 파올려야겠소!》

《예?!…》
《저렇게 허물어진 참호를 인계해줄수 없소. 저런 참호를 그대로 인계해준다는것은 도리가 아니요! 다 허물어졌소. 반돌격에서 지쳤지만 해야겠소! 만약 인계사업에서 소대의 명예와 도덕상태를 털끝만치라도 훼손하는 일이 생겨도 용서를 안하겠소!》
《알았습니다!》
《집행하오!》
그 이야기를 듣고있던 강태욱련대장은 여전히 엄엄한 얼굴로 고병근을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소!!》
고병근은 얼굴이 밝아지며 활기있게 차렷자세를 취했다.
《련대장동지, 저는 인계하는걸 좀 봐주고 가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오. 나는 가겠소.》
고병근은 련대장을 바래운 다음 곽병식소대장에게로 갔다. 불에 그슬린 바위옆에서 련대장과 중대장의 작별을 지켜보고 서있던 곽병식은 다가오는 고병근중대장을 죄송스러운 얼굴로 맞았다.
《중대장동지, 말을 들었지요?! 제가 아깐 지나쳤습니다.》
고병근은 그를 흘겨보더니 잔등을 철썩 때렸다.
《원 별거가지고 다!》
마음 후한데도 있고 괴벽한데도 있는 이 중대장의 텁텁한 애정에 곽병식은 가슴이 저려나고 눈시울이 뜨거워올랐으나 무슨 까닭인지 시무룩 웃게 되였다.
고병근은 그의 팔을 끼고 산기슭으로 걸어갔다.
지나가는 전사들이 그들을 흘끔흘끔 돌아보았다. 고병근은 교통호로 뛰여다니는 전사들, 도끼질소리, 전사들의 웃음소리, 밥통, 물통들의 댕강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일상적인 군무생활의 번거로움에 흥이 난듯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인계를 잘해주고 밤에 은밀히 철수하오. 동무네는 칼릉선갱도공사장에 동발을 보장해야 되오. 중요한 전투임무요! 공급소대에서 돼지 몇마리를 보내주겠다는데 배를 두드리며 먹고 한 이틀 쉬고나면 피곤도 풀릴게요!》
3소대는 탄알과 수류탄을 닦아서 1소대에 넘겨주고 참호를 파올렸다. 그것은 병사들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으나 곽병식소대장의 엄격한 시선밑에서 작업은 묵묵히 진행되였다.

박광준이만은 지뢰원을 넘어온 오덕보를 대대에까지 호송하기 위하여 먼저 고지를 떠나갔다.

떠남에 앞서 두 소대전사들이 서로 뜨거운 말들을 주고받으며 인사들을 나누고있을 때 1소대의 키 크고 싱겁게 생긴 분대장이 한철흠의 앞으로 다가오며 벌쭉거렸다.

《허, 3분대장, 동무 심보가 그런줄 몰랐네. 우물을 좀 똑똑히 대줄것이지…》

《내가 언제 잘못대줬소?!》

한철흠은 당황해서 옆에 선 소대장을 돌아보다가 그 분대장을 뚫어지게 쏘아봤다.

《말말라구, 동무 말대로 오른쪽 골짜기에 내려가 헤매다가 죽을번했소.》

《동무, 나는 정확히 인계했소! 나는 자기를 기준해서 오른쪽이라고 말했단말이요! 나와 반대방향으로 마주선 동무를 기준하지 않았소!》

한철흠은 억울한 혐의를 받은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토막토막 잘라서 정확히 설명했다.

그 분대장은 이러한 인계시에 흔히 하사관들 사이에서 생길수 있는 방향착오를 자기가 범했다는것을 알자 주먹으로 머리를 치며 웃어댔다.

《아, 정말 미안하오!》

한철흠은 처음에는 수모를 당한 사람처럼 얼굴이 뻘개졌으나 그 분대장이 이렇듯 진심으로 사과한데다가 고지에서 승리하고 들어간다는 만족감때문에 즐겁게 웃었다. 모여선 군관들과 하사관들, 전사들도 모두 유쾌하게 웃었다.

그 밤은 바람 한점 없고 달빛이 환했다. 전사와 전사와의 간격을 일정하게 두고서 릉선우에 길게 늘어선 3소대는 릉선을 따라 묵묵히 움직여가고있었다.

우유빛 구름송이속에 숨은 달에서 쏟아지는 부채살같은 달빛은 그밑으로 기여가는 대오의 어깨우에 메여있는 무기들에 부딪쳐 차거운 섬광으로 부서진다.

처음 이 릉선을 따라 들뜨고 흥분된 마음으로 주먹릉선으로 달려내려가던 때와는 달리 승리하고 돌아가는 대오에서는 알수 없는 무게가 느껴졌다. 대오는 서두르지 않고 웅심깊은 생각에 잠긴듯 한걸음, 한걸음 무겁게 걸음을 옮겼다.

맨 앞장에서 상반신을 앞으로 숙일사하고 걸어가던 곽병식은 길에서 물러나 대오를 돌아봤다.

조칠성이가 그를 쳐다보며 한마디 한다.

《소대장동지, 달이 밝지요? 추석날같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간다. 그는 낮에 참호를 파올릴 때 삽질을 대강대강하다가 분대장에게서 꾸중의 말을 들었다. 속이 울컥 올라 무슨 대답질이 나가려는데 곽병식이 그의 자리에 가서 말없이 흙을 퍼올려주는바람에 그는 따라서 삽질했다.

배낭의 무게때문에 허리를 굽석거리며 걸어올라오는 찬일은 무슨 장한 일이나 치르고 오는 사람처럼 소대장을 쳐다보며 빙긋 웃어보인다. 앞가슴에 자동총을 드리우고 커다란 배낭을 진데다 통신줄퉁구리를 한쪽 어깨에 건 한철흠분대장이 멈춰선 소대장을 보자 땀내를 풍기며 다가와 무슨 지시라도 받을듯 차렷자세를 취한다.

《그건 뭐요?!》

《목도줄을 할가 해서요.》 하며 한철흠은 어색하게 웃는다.

그는 벌써 소대가 말아 해야 할 갱도작업에 대하여 생각하고있는것이다.

《소대장동지…》 하고 한철흠은 그를 빤히 쳐다본다.

《아무것도 아니요, 가기요.》

한철흠은 움쭉 뛰여오르듯 차렷자세를 취하고는 뚱기적거리며 대오를 따라 뛰여간다. 언제나 정직하고 근면하면서도 목석처럼 내심을 드러낼줄 모르는 불면불휴의 하사관의 뒤모습을 바라보느라니 곽병식은 웬일인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전사들은 그의 옆을 지나간다. 달빛을 받아 환한 그 얼굴들에서는 눈들만이 빤짝인다. 그 눈들은 여러가지 빛으로 슴벅거리고있는것 같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있을가? 곽병식은 그들이 이전날의 그 사람들이 아닌것만 같이 생각되였다. 그 얼굴들에는 무엇인가 알수 없는 엄숙한것이 깃들어있는것 같다. 승리도 시련도 함께 겪으며 사선을 뚫고 온 그 얼굴들은 혈육의 정을 불러일으키며 곽병식의 옆을 묵묵히 지나간다. 마지막 병사까지 다 지나보내고 그는 떠나온 고지쪽을 내려다봤다.

모든것이 불타고 부서지고 재로 된 벌거숭이고지, 남비를 엎어놓은듯한 고지의 꼭대기는 달빛밑에서 희끄무레 빛나고있다.

그 모양이 류다른데 없고, 보통지도에는 점으로도 나타나있지 않으련만 이 순간 그에게 있어서 그 고지는 말할수 없이 소중한것으로 안겨왔다. 그것은 그가 40명의 대원들과 함께 목숨으로 지키기 위하여

뗴말았던 조국땅의 한쪼각이였다. 그 고지는 자기의 공상이며 발견인 첫 참호를 팠던곳이였고 젊은 피를 뿌리며 조국의 영예를 지키리라 맹세다지며 내뿜은 더운 숨결들이 참호흉장의 흙속에 묻혀있는곳이였다. 그리고 승리의 환희와 시련의 쓴맛도 보았고, 처절한 포화의 울부짖음속에서 대원들과 가까와지고 그들의 가슴을 열어제끼고 그 내부의 찬란한 세계를 엿볼수 있었던곳이였다. 그 고지는 짤막하나 파란곡절도 더러 있었던 자기 지난 생활의 귀중하고 아픈 추억들과 함께 일생동안 가슴속에서 지워지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며 곽병식은 돌아섰다. 가파로운 릉선길을 따라 벌써 저만치 멀리 올라간 대오의 꼬리는 갑자기 일어난 바람에 날리는 뿌연 먼지구름속에서 어른거리고있었다.

곽병식은 지친 다리를 끌고 대오를 따라갔다. 찢어진 군복자락들이 바람에 너풀거렸다.

이날밤 소대는 1소대가 급히 떠나느라고 널어놓은 병실에 와서 방을 대강 치우고 깊은 잠에 노그라졌다.

곽병식은 잠결에 누구들인가 조용조용 주고받는 말소리를 들었다.

《체네를 모셔왔나?…》

《여기 방송국이 생긴다누만.》

《이러다간 소비조합상점도 나올지 모르지…》

《생각나나, 그 동무야…》

《음…》

곽병식은 자기가 꿈을 꾼다고 생각했다.

제 5 장

갱 도

1

곽병식은 도끼를 쥐고 릉선우에 서있었다. 그는 비장한 얼굴로 높고 푸른 하늘이며 그밑에서 넘실거리는 파도처럼 줄줄이 늘어선 산발들을 바라보며 크게 한숨을 내쉬였다.

(벌써 가을이구나…)

화선의 가을, 전선줄에 렬을 지어 앉아있는 제비들도 불타는 단풍도 들국화의 서글픈 미소도 없었건만 여기 화선에서도 가을은 계절에 민감한 농민출신 병사들의 가슴에 일찌기 찾아왔다.

누구인가 먼저 《야, 가을이구나!》 하고 말하자 전사들은 해빛이 쨍쨍 내리쪼이나 선기가 풍기는 대기속에서 무슨 냄새라도 맡아보듯 코를 벌름거리며 습관된 가을의 정기를 가슴이 터지도록 들이키는것이였다.

가을의 해빛과 포격과 하늘을 써는 적기들의 귀청을 찢는 폭음밑에서도 전사들은 갱도작업에 동원된 영예와 기쁨을 안고 걸싸게 일했다.

동발감나무를 찾고, 자르고 메나르는 일에서 전사들의 볕에 그슬린 얼굴은 눈에 띄게 축갔다. 그들의 피진 눈들은 열기를 띠고 번뜩거렸다.

하루 수메터씩 파져들어가는 칼릉선 갱도는 무지로 쌓였던 동발을 게눈감추듯 삼켜버리고는 또다시 동발, 동발을 찾았다.

그러나 여기, 끊임없는 폭격과 포격에 땅이 발칵 뒤집혀져서 기복이 심한 하나의 황토지대를 련상시키는 산악들에서 성한 나무를 찾기란 조련치 않았다.

도끼와 톱으로 무장한 곽병식의 소대원들은 두명씩 조를 무어가지고 포격에 허물어져 사태가 내린 가파로운 산비탈을 기여올라 릉선들을 살살이 훑어내리고 또다시 깊은 골짜기들로 미끄러져내리면서 성한 나무들을 찾았다.

혹시 산 뒤경사면 중턱에서 허리부러진 나무그루를 발견한 전사가 《나무다—》 하고 환성을 지르면 여기저기서 전사들이 달려왔다. 그러나 가보면 그 나무엔 수백개도 넘는 파편이 박혀있었다.

어떤 때는 골짜기에 딩굴고있는 통나무를 멀리서 보고 뛰여내려가면 비물이 습새여들어가 속이 썩은것이였다. 벼랑밑에 서있는 파편투성이인 한 참나무그루에는 이런 구호가 씌여있었다.

《동무들, 한치의 땅도 적들에게 내주지 말자! 전우들의 피로 물든 고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그것은 절절한 당부처럼 전사들의 가슴에 울렸다.

곽병식은 이전 방위자들이 남긴 그 말을 다음 오는 전사들에게 전하기 위해 쓰러지지 않으려는듯 서있는 그 나무를 말없이 쓰다듬어보며 대원들에게 찍지 말라고 했다.

다른 조들은 산판에 널려 성한 나무들을 용케 찾아서 메왔으나 한조가 된 조칠성이와 명보는 외딴데로만 돌아다녔다. 조칠성은 도끼를 뒤꽁무니에 척 차고는 깊은 골짜기밑에 난 오솔길을 따라 걸어올라가며 량옆 산기슭을 두리번두리번 살폈다. 그는 이따금 코노래까지 불렀다.

신고산이 우르릉
화물차 떠나는 소리에

그 코노래는 명보의 약을 바싹 올렸다. 다른 조에 비하여 자기네가 뒤떨어지는것 같아 명보는 얼굴이 가무잡잡하게 질려있었다. 그는 골이 잔뜩나서 입을 고집스럽게 다물고 칠성의 뒤를 따르고있었다.

요새 와서 명보는 아버지 생각이 간절해졌다. 학교에 다닐 때 장난이 심한 소년이였던 명보는 아버지때문에 우쭐해진 일이 한두번이 아니였으나 아버지를 은근히 두려워도 했다. 공장정문앞에 나붙은 경쟁도표에는 아버지의 이름우에 그어있는 붉은 줄이 언제나 제일 높이 솟아있었다.

사택마을의 조무래기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는 게시판앞으로 우르르 몰려가서는 경쟁도표들을 쳐다보며 아버지가 꼴찌를 한 아이들을 놀려도 주고 명보를 부러워하다가는 너무 우쭐하지 말라고 빈정대기도 하면서 떠들어댔다. 년간계획을 완수했을 때는 아버지의 큼직한 사진이 나붙었다. 아버지가 시대의원후보자로 추천되여 수백명의 사람들이 이른새벽에 선거장으로 몰려가 찬성투표했을 때 명보는 가슴이

부풀어나 터지는것 같았고 하루종일 밥먹을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 후부터 아버지는 어깨가 모가 지게 번듯하고 가랭이가 넓은 토목양복을 입고 회의나 무슨 강습에도 자주 다녔다. 하지만 경쟁도표의 붉은 줄은 여전히 제일 높이 솟아있었다. 명보는 이따금 그 경쟁도표앞에 혼자서서 자기 키보다 더 높이 올라간 붉은 줄을 쳐다보며 (아버지가 쎈데…) 하고 생각하며 빙그레 웃었다. 그 붉은 줄은 명보의 가슴속에도 옮겨져 쇠장대처럼 꿋꿋하게 그를 받들어주는것 같았다. 그는 언제나 아버지의 힘이 자기 몸에 뻗쳐오고있음을 느꼈다. 두려운것이 없었다. 씨름을 해도 이겼고 달리기를 해도 일등을 했다. 그는 하루하루가 명절처럼 즐거웠고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모두 자기를 위하여 있는것 같았다. 어느날 그는 사택마을길에서 자기네 또래들과 함께 공을 차다가 목욕탕유리를 깼다. 달려나온 목욕탕관리원아바이는 명보의 귀를 잡아끌며 《이녀석아, 누구네 아들이냐 대라!》 하고 을박질렀다. 명보는 시대의원이며 로장이고 모범로동자인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댈수 없어 이를 악물고 뛰쳐나려고 버둥거렸다. 이때 그는 전주대열에서 자기를 쏘아보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말없이 지나버렸다. 이날 명보는 집에서 다 잠이 들었을 깊은 밤중에야 몰래 집으로 기여들어갔다. 아버지는 불을 끄고 앉아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어둠속에서 아버지의 억센 손이 그의 덜미를 쥐여서 잡아끌었다. 아버지는 그를 끌고 방으로 올라가 불을 켜더니 문들을 안으로 걸었다.

명보는 범앞의 강아지처럼 오돌오돌 떨며 아버지앞에 앉아있었다. 그는 머리를 떨구고 무릎우에 놓여있는 아버지의 쇠돌같을 주먹을 곁눈질해보았다. 이제 저걸로 한대 치면 자기는 장판우에서 팽이처럼 돌아가리라고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는 간혹 못된 짓을 하고 아버지한테 매를 맞고 집에서 소리소리지르며 뛰쳐나오는 아이들을 봤다. 그러나 명보는 끝까지 앉아배길것이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것이라고 마음먹고 숨을 죽이고있었다. 아버지는 방구석에 있는 앉은뱅이책상에서 무엇인가 들어서 그앞에 내려놓았다. 필통, 공책, 수판 등속이였다. 필통에는 속대가 성한 연필 한대 없고 공책장에는 온갖 그림들이 그려져있었다. 그제야 명보는 아버지가 자기 없는 사이에 모든것을 검열해봤다는것을 알고 목을 움츠러뜨렸다. 무릎우의 주먹이 들렸다. 명보는 배속에 힘을 넣었다. 그러나 그 주먹은 명보의 뺨을 후려칠 대신 머리를 집게처럼 꽉 쥐여서 공책들을 보게 돌려놓았다. 다음 아버지는 탄재가 묻어 새까만 명보의 손발을 만져보았다.

《이게 뭐이냐！ 오늘 목욕탕아바이가 뭐라고 하더냐？》
명보는 잠자코 있었다.
《대답해봐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나직하면서도 엄하게 울렸다.
《누구네 아들이냐구 자꾸 물었어요.》
《그것봐라, 너 보고는 사람들이 리철구아들이라고 하고 나를 보고는 명보애비라고 한다. 출생증에도 그렇게 적혀있지？！》 아버지는 버럭 소리질렀다. 아래방에서 어머니가 문을 당기며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왜 그러세요？！》
아버지는 문쪽을 돌아보며 엄하게 말했다.
《우리끼리 좀 얘기할게 있어 그러오！》
명보는 갑자기 눈굽이 뜨거워났다.
《…너는 리철구아들이구 나는 명보애비란말이다！ 그러니 네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욕한단말이다. 저 사람이 용광로는 잘 길들여서 쇠물은 잘 뽑아내는데 아들은 불망종으로 키우누만 할게 아니냐 말야, 네가 좀 잘못하면 용광로가 거들리우구 쇠물이 입에 오른단말이다. 결국 뭐냐, 로동자들 체면밖에 깎일게 없어. 오늘 로동자들이 옛날과 같으냐, 로동계급은 나라의 주인이구 모든 사람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는걸 학교에서도 배웠겠지. 배웠냐, 안배웠냐？》
명보는 말을 못했다.
《배웠냐, 안배웠냐？！》 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왜 배웠다구 말 못하니…》
아래방에서 어머니가 타일렀다. 명보는 목구멍이 메여 말을 못했으나 눈에서 굴러떨어지는 불찌같은것에 볼이 데는것 같았다.
아버지는 공책이며 필통을 건드리고 그의 새까만 발을 꽉 쥐며 깊은 한숨을 지었다.
《네가 이렇게 남한테 축잡혀서야 무슨 쇠물뽑는 사람 자식이냐, 나이를 그만큼 먹었으면 제가 잘못하면 애비친구들 면목까지 깎인다는것쯤이야 알아야지. 나는 너만할 때 벌이를 시작해서 제입치레를 했다.》
고병근중대장과 아버지사이에 편지거래가 있게 되면서부터 명보는 중대에서 더 사랑을 받게 되였다. 그가 련락임무를 맡고 달려가면 소대장들은 《아, 우리 로동계급이 왔는가.》 하고 언제나 롱말로 대해주었다. 명보는 자기가 그렇게 불리우는것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했다. 싫은것은 그들이 귀여움을 품고 그렇게 부르기때문이였다. 소대가 참호에

서 철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소년병사의 가슴에선 눈부시게 빤짝이던 공상의 별무리들이 일시에 꺼지며 억이 막혔다. 《장마행군》의 령길을 톺아오르며, 참호를 파올리며, 주먹릉선의 토굴속에 누워서 작지만 티없이 순결한 그의 가슴은 얼마나 담찬 꿈에 뛰놀았던가! 그것은 설악산과 현리 포위이야기가 수없이 반복되는 조칠성의 구수하면서도 익살이 섞인 무훈담에 비하면 더 장엄하고 찬란한것이였다.

그는 토굴속에 누워 눈을 감으면 위훈떨치는 자기 모습이 그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매일밤 가슴벅찬 환희를 안고 그 공상의 그림을 펼쳤다. 온통 하늘은 붉은 기폭에 덮인듯 붉게 타는데 명보는 불을 뿜는 적 중기화구앞으로 노래를 부르며 육박해갔다… 돌격선에서 강태욱련대장이 그에게 공화국기발을 주며 고지를 점령하면 꽂으라고 명령한다. 련대는 사포군의 강유력한 지원사격을 받으며 적고지로 돌격한다. 나팔소리, 만세소리, 명보는 기발을 휘날리며 선두에서 달려간다. 비발치는 총탄에 기대가 부러진다. 명보는 기발을 자기의 긴 보총에 비끄러매고 금빛 아침노을을 향하여 달려나간다. 기폭은 눈부신 빛을 뿜으며 온 하늘에 펄럭인다. 그는 고지 꼭대기에 뛰여올라가 기발을 흔들며 만세를 부른다. 그에 화답하여 동해의 물결이 하늘에 파도쳐오르고 수백수천의 갈매기들이 승리한 련대의 머리우에서 춤추며 날아돌다가는 축하의 흰 꽃보라인듯 전사들의 어깨며 가슴에 내려앉는다. 그는 꿈속에서는 군복자락에 바람을 가득 안고 별이 총총한 하늘밑을 날았는데 한번은 북두칠성꼬리에 옷자락이 걸려 벗겨지지 않아 소리소리 질러서 분대원들을 몽땅 깨운 일까지 있었다. 한철흠분대장은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니 양지쪽 짚덤불속의 강아지잠처럼 그따위 꿈을 꾼다고 하면서 가볍게 꾸짖기까지 하였다.

그는 찬란한 공상을 안고 정성들여 팠으며 련대장동지가 친히 바닥에 배긴 바위까지 뽑아준 참호의 자기 자리를 1소대 전사 독고세한테 물려주는것이 죽도록 싫었다. 참호바닥에 펑덩 주저앉아 그냥 싸우겠다고 고집을 부릴 생각도 났으나 자기를 질책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독고세에게 참호의 위치, 사격목표, 방향, 우점과 결함을 빠짐없이 말해주고는 잘 싸우라고 손을 잡아흔들어주기까지 했다.

그날밤 소대가 바람세찬 릉선길을 따라 중대부 고지로 올라올 때 명보는 걸음을 멈추고 자주 뒤를 돌아봤다. 그때마다 한철흠분대장이 그의 등을 가볍게 떠밀며 《자, 걸으라구.》 하고 타일렀다.

그러나 이튿날 김문규정치부중대장이 소대로 내려와서 갱도작업의

중요성과 갱도전에 대하여 전사들과 담화하였을 때 그는 가슴가득 해발을 안은듯한 환희를 느끼며 눈을 빛내이였다.

명보는 동심이 가시지 않은 눈을 슴벅거리며 앞으로 있을 갱도전의 장쾌한 화폭을 그려보면서 이번 갱도작업에서는 주먹릉선에 나가 참호를 파던 때보다 더 알심을 넣어서 일해야겠다고 속다짐했다. 그런데 조칠성은 무슨 꿍꿍이판인지 앞에서 스적스적 걸어가며 배포유하게 노래가락을 불러넘긴다.

신고산이 우르릉
화물차 떠나는 소리에
구고산 간호원처녀가
막 달려나오는구나

《그만둬요！》 명보는 퉁명스럽게 내쏘았다. 조칠성은 능청스레 웃으며 그를 돌아봤다.

《왜, 듣기 싫나？》

《…》

이때 그들앞에서 도끼를 휘두르며 나무가지들을 치던 곽병식이 허리를 폈다. 그의 얼굴에서는 땀이 철철 흐르고있었다. 좀 떨어진곳에서 박광준이와 신찬일이가 앉아서 톱질을 하고있었다.

소대장은 조칠성을 보며 물었다.

《몇대나 찾았소？》

《…》

명보는 머리를 수굿했다.

조칠성이가 멀쩡한 얼굴로 소대장을 보며 얼버무렸다.

《소대장동지, 허참, 산이 빤빤합니다. 개놈새끼들이 아무데나 발갈이를 해놨거던요.》

곽병식은 가슴에서 분기가 욱 치밀었으나 꾹 누르며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광준동무네는 벌써 여섯대나 메갔소！ 눈여겨 살피지 않구 왜 자꾸 돌아만 다니오？！》

《소대장동지, 이제 봉창을 하겠습니다.》

《크게 봉창할 생각두 말구 한대라두 메오오.》

《예…》

조칠성은 박광준이네가 일하는쪽으로 다가갔다.
《허, 광준이. 어찌된 셈판이야. 여기 와선 펄펄나는데…》
광준은 그 말에 탓하지 않고 벌쭉이 웃으며 팔소매로 이마의 땀을 씻었다.
《이런 일에서야 뒤지겠나.》
명보는 잘라놓은 미끈한 동발목들을 내려다보며 광준에게 물었다.
《아니 이렇게 성한것들이 어디 있어요?》
그 물음에 찬일이가 자랑하였다.
《저 산중턱에 있었네. 광준동무가 다 발견했어. 내 눈엔 파편투성이만 보이는데 광준동무 눈엔 이런 미끈한 놈만 척척 띄운단말이야. 참, 조—화야. 나무 보는 눈이 따로 있는거지!》
박광준은 넌지시 웃으며 그를 돌아보며 퉁말을 던졌다.
《버섯이나 인삼 캐는 문세하구 비슷하단말이여. 마음을 곱게 가져야 돼. 남이 가는데를 앞질러다니질 말구. 뒤에 가만 앉아서 살펴보란말이야!》
《하하하 찬일이, 훈계하는 말씀을 잘 여겨 들으라구!》
이렇게 웃음 절반으로 말해놓고 조칠성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명보는 그의 뒤를 따라가며 볼부은 소리를 했다.
《우리두 중턱에 올라가 찾자요.》
《잠자코 따라오라구. 저렇게 한대, 두대 메날라서야 성이 차나. 로동계급이 왜 그리 통이 작은가 엉. 이전 있던 부대 낡은 포진지 자리만 만나면 노다지판이야.》
그들은 한시간 남짓 산판을 헤맸으나 《노다지판》을 만나지 못했다. 맥이 진한 그들은 산기슭에 앉아 땀을 들였다.
명보는 군복 앞섶을 헤쳐놓으며 단숨을 몰아쉬였다.
《에익, 이거야…》
조칠성은 끝없이 높고 푸른 가을하늘을 바라보며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속을 작작 태우라구. 이제 노다지판만 만나면 광준이네가 뭐야, 문제 없어. 본때를 보이자구.》
《아까 소대장동지가 뭐라고 했어요.》
《맘을 크게 먹어야 큰 일을 해.》
이때 웃쪽에서 누군가의 부름소리가 울렸다.
《여—3소대—》

명보는 몸을 일으키며 그쪽을 쳐다봤다.
련대로 가는 릉선길우에 키가 껑충한것들을 5～6명 주런이 세워놓고 몸매 다부진 전사가 허리를 구부정하고 이쪽에 대고 소리치고있었다.
《여—3소대—》
1소대 독고세의 목소리였다.
명보는 한손을 입에 가져다대고 큰소리로 대답했다.
《오—》
《3소대—수고—하—네—》
《오—》
《〈벌목〉이 잘되나？—》
명보는 심드렁해졌다.
《우린—큰—놈을—잡—았다네—》
《뭐？—》
《클—라—크〈장군〉이야—》
명보와 조칠성은 놀라서 마주보고는 뛰여올라갔다.
미제침략군포로들은 길옆에 쭈크리고 앉아있었다.
자동총을 앞가슴에 건 독고세는 기세등등하여 그들을 맞이했다.
《오늘아침에 잡은것들이야！》
포로들을 보자 조칠성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그 무슨 범인을 찾는듯한 날카로운 눈으로 그것들을 한놈한놈 쏘아봤다.
포로들은 그 눈길에 겁을 먹고 외면하며 머리를 가슴에 구겨박았다.
명보는 호기심에 끌려 물었다.
《어느놈이야？！》
독고세는 벌쭉 웃더니 제일 앞에 앉은놈의 턱을 자동총끝으로 가리켜보였다.
툭 불거진 이마밑에서 겁에 질린 노란 눈이 번들거리는 조개턱을 한 놈이였다.
《보라구, 이놈이야！ 상판대기가 전선신문 만화에 늘 나오는 클라크 같지 않아？！》
《허…허…허…》
《하…하…하…》
조칠성도 갑자기 어깨를 들썩거리며 크게 웃었다.
명보도 어처구니 없어 따라 웃었다.
미륙군 일등병인 그놈은 자기네 총사령관 이름이 나오자 웬 영문

인지 몰라 이 사람, 저 사람의 눈치를 살피더니 비굴한 웃음을 지었다.
명보는 부러움을 금치 못하며 물었다.
《누가 잡았나？！》
《내가 잡았어. 이쪽 네놈은 우리 분대장동지가 잡구.》
그 말은 송곳처럼 명보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은근한 시기심까지 불러일으켰다.
명보와 동갑인 독고세는 참호에 나가더니 키도 커지고 더 담차진 것 같았다. 그의 몸에서는 신선한 활기가 풍겼다. 조칠성은 그에게 역증을 냈다.
《왜 이것들을 앉아서 호강을 시키나. 일궈세우라구！》
두 전사는 터벅터벅 산중턱으로 걸어내려왔다.
《독고세, 저 친구 괴짜지요. 하하하, 나는 진짜라구. 머리가 돌거던요. 칠성동무, 우리두 포로를 잡았을 때 별명을 붙일걸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통령같은놈도 있었는데요. 내 우스워서 하하하. …》
조칠성은 아무런 대꾸도 없다. 그는 걸음이 빨라지며 발을 우악스럽게 내밟는다. 명보는 그의 몸에서 풍기는 열기를 느끼며 얼굴을 들었다. 조칠성의 귀박죽과 뒤덜미는 피기가 올라 불깃해졌다. 그의 손에 쥐여있는 도끼의 날은 번뜩하고 서슬푸른 빛을 뿜는다. 명보는 그의 기분의 이런 돌변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했다.
저녁식사후 명보는 중대부에 련락갔다오다가 주먹릉선으로 나가는 교통호에 엎드려 전방고지들의 화력전을 바라보며 가슴을 태웠다.
적 고지중턱에서 예광탄들이 부채살처럼 펴지며 1소대와 2소대 고지쪽으로 날아왔다.
아군 박격포진지들에서 불이 번쩍번쩍 일더니 잠시후 적중기화점근처에서 불꽃들이 튀여올랐다.
《잘한다！ 명중！ 쐇！》
명보는 두주먹으로 땅을 치며 부르짖었다.
이때 그의 앞뒤에 적 포탄 서너발이 터졌다.
명보는 교통호바닥에 엎드렸다. 흙덩이들이 목덜미며 잔등을 쳤다. 무엇인가 폭풍에 날려 그의 옆에 쿵 떨어져서 딩굴었다.
명보는 머리를 번쩍 들었다.
《누구야？！》
《어마나！》
어둠속에서 처녀의 부르짖음이 울렸다.

《누구요?》 명보는 퉁명스럽게 물었다.

교통호우를 스쳐지나가는 탐조등빛에 처녀의 자태가 환히 드러났다. 얼마전 령밀 도하장에서 헤여졌던 방송원처녀였다. 처녀는 꿇어앉아서 머리며 어깨의 흙을 분주히 털고나서 명보를 알아보자 반기는 눈으로 쳐다봤다. 탐조등빛때문에 눈이 부시여 가느스름히 쪼프린 처녀의 속눈섭밑에서는 장난기어린 미소가 떨고있었다.

《련락병동무! 놀랐지요?!》

명보는 뽀로통해서 불찌같은 눈으로 처녀를 쏘아봤다.

《호호호…》 처녀는 그를 골려주듯 좋아라 웃어댔다.

원래 호들갑스럽게 구는것을 좋아하지 않는 명보는 자기를 련락병이라 부르는데는 더욱 고까와났다.

그는 시무룩해서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교통호벽에 엎드려 저 멀리 전방고지쪽을 바라보았다. 처녀는 스스럼없이 그옆에 와 엎드리며 말을 건넸다.

《련락병동무!》 달래는 살뜰한 목소리다.

《…》

《난 여기로 나오면서 내내 동무들을 생각했어요. 그날밤 령밀에서 정말 고생스럽게 지냈지요?!》

《…》

《련락병동무…》

명보는 머리를 돌려 처녀를 봤다.

《여긴 왜 나왔나요.… 방송을 해서 미국놈을 얼려보자구 나왔나요? 욕하자구 나왔나요?!》

《어때요? 제가 온걸 달가와 안하지요? 방송하면 포사격을 얻어맞는다구.》

《그까짓 포사격이 문젠가요.》

《그럼?!》

《저것들하군 말로 해선 안돼요!》

《?!…》

《어떤 짐승들이게요!》

명보는 지뢰원에서의 놈들의 만행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정혜는 온 몸에 오한과 같은 전률을 느끼며 치를 떨었다.

《아니 그놈들이 정말, 그래 가만 놔뒀어요?!》

처녀의 이런 공감은 명보의 가슴에서 뽀로통했던 노기를 거품처럼

사그라뜨렸고 자기 소대의 영웅적인 반돌격과 그후에 있은 일들에 대하여 불같은 열변을 토로하게 했다.

정혜는 가슴이 후둑후둑 뛰였다. 그는 놀라운 눈으로 이 소년병사를 쳐다봤다. 어둠속에서도 그의 눈은 불꽃이 튀였다.

그의 오돌찬 몸이 내뿜는 열정에 정혜도 두볼이 달아오르는것 같았다.

정혜는 묵묵히 나무를 메나르는 소대원들을 무심히 보아왔었다. 그러나 그 이름없는 보병소대의 가슴에 어떤 마음이 쇠물처럼 끓어번지고있는것인가!

정혜는 그 쇠물에 자기 몸도 어서 융합되고싶은 조급한 마음과 함께 고지에 나와 손님처럼 대접을 받으며 지낸 며칠을 뉘우치게 되였다.

명보는 호들갑스럽게 보이던 처녀가 갑자기 왜 이리 마음이 무거워졌는가 하는 의아한 눈길로 그를 돌아보더니 선배연한 너그러운 웃음을 지어보였다.

《겁나 말라요. 일없어요.》

정혜는 명보의 그 말이 너무도 고맙고 미더워서 자기도모르게 소년의 주먹을 꽉 그러쥐였다. 주먹은 쇠돌처럼 단단했다.

2

이튿날 아침 정혜는 정치부중대장 김문규에게 방송실이 꾸려질 때까지 한가롭게 앉아있을수 없으니 아무 일이나 시켜달라고 제기했다.

마침 중대부에는 정치부중대장과 전화수들만 남아있었다.

김문규는 박격포탄상자를 뜯어서 만든 탁자앞에 수굿하고 앉아서 수첩에다 무엇인가 적고있었다. 그의 색날은 전투견장우에 박혀있는 별들은 하나 성한것없이 납작하니 오그라진것들이였다. 너부죽한 그의 얼굴에는 푸근한 안착감이 풍겼다. 그 얼굴은 보병중대에서의 자기 생활이야말로 이 세상 무엇과도 비길데 없이 재미나고 흡족하다는 빛이였다.

김문규는 펜촉끝에 엉켜붙은 먹즙을 종이쪼박으로 알뜰하게 닦아내고는 입을 쩝쩝 다시였다. 그리고는 처녀를 바라보며 난처한 미소를 지었다.

《알만하오. 그럼, 알만하지. 하, 그런데 련대장동진 우리한테 단단히 오금을 박아놓았소. 첫째, 함부로 밖에 내보내지 말것. 둘째, 부상이

라도 당하면 책임질것. 이렇소. 우리를 좀 안심시켜주오.》
김문규는 오히려 제편에서 사정하며 말했다.
《전 손님으로 오지 않았어요. 싸우러 왔어요!》
《글쎄 그렇지, 동무야 목소리로 싸우러 왔으니까. 이제 갱도속에다 방송실을 번듯하게 꾸려줄테니 그땐 짱짱 불어대오. 저놈들이 가슴이 서늘하게. 그럼, 화선에 나오면 누구나 조급한 마음이 앞서는 법이요.》
이때 흙먼지를 뒤집어쓴 고병근중대장이 엉거주춤하고 들어왔다. 그는 굳어진 몸가짐으로 조심조심 탁자앞으로 다가오더니 쌍안경을 쥐고는 얼른 나가버렸다.
그의 뒤모습을 보며 김문규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방송원처녀가 온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고병근중대장은 반가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보병중대에 처녀가 오게 된다는 희한한 소식앞에서 그러지 않아도 무뚝뚝해뵈는 얼굴이 더 굳어지며 이렇게 중얼거리는것이였다.
《하 이거, 세수는 어디다 시키구 밥은 어디다 먹인다? 잠자리는 어디다 정하구. 고병근이가 어떤 재목인거야 뻔한건데. 하, 이거 참 말째게 됐구만. … 여보, 정치부중대장동무, 동문 그런 속내를 좀 알테니깐 맡아서 잘 보살피우!》
정혜는 정치부중대장이 지금 이렇게 웃는것이 자기를 철없이 여겨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며 얼굴이 발깃하게 상기됐다. 그는 오르내리는 가슴을 누르며 잠자코 서있었다.
《여기 와보니 정말 가만 앉아 못있겠어요. 화선이 달라요!》
김문규는 그를 힐끗 치떠봤다. 그 눈길은 혈전을 겪고난 사람들 특유의 민감하고 꿰뚫어보듯 날카로우면서도 사나운 빛이 번뜩이는것이였다. 정혜는 그 눈길앞에서 가슴이 죄여듦을 느끼며 똑바로 몸가짐을 가졌다.
정치부중대장은 한눈에 모든것을 리해한듯 동정의 한숨을 가볍게 내쉬며 포근히 감싸주는것 같은 부드러운 눈길로 그를 보고있었다.
《화선소대엔 못나가오! 가만… 위생가방은 병원에 두고 왔겠지요?》
《화선에 나오면 필요할줄 알고 가지고 왔어요.》
《됐소! 3소대에 작업에서 손이랑 다친 동무들이 더러 있소. 가서 약이나 좀 발라주시오. 수일내로 방송실이 꾸려지고 정혜동무의 힘있는 목소리가 원쑤놈들의 간담을 서늘케 할거요.》
《정말 제 목소리에… 아이참.》
정혜는 빨리 그 시각이 왔으면싶으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근심때문에 가슴을 조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령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이 함화공작으로써 적들을 와해시키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한 우리 인민군방송원의 목소리가 적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지 못해서야 되겠소! 신심을 가지고 마음을 누긋하게 가져야 하오. 정혜동무, 방송실이 꾸려질 때까지 우선 3소대동무들속에서 〈위생지도원〉 사업이나 해주오.》

《네.》

《그러나 다른델 가서는 절대로 안되오!》

《넷!》

정혜가 위생가방을 들고 나갔을 때 마침 명보와 조칠성이가 칼릉선갱도공사장쪽에서 내려오고있었다. 그는 두 전사에게 안내되여 3소대로 향했다. 산기슭에 수없이 패운 폭탄구뎅이며 포탄터진 자리들에 눈이 팔린 나머지 자주 미끄러져 넘어질번했다. 그때마다 명보가 부축해주었다.

조칠성은 내내 말없이 뒤에서 따랐다.

명보는 그를 흘끔흘끔 돌아봤다. 서해어장에서 《조대장》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도 수영경기대회에서 1등을 해서 소문이 자자하게 난 뒤부터는 도소재지의 말쑥한 처녀들도 자기한테 은근한 눈길을 던졌노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장담을 곧잘 하던 그가 왜 이렇듯 주눅이 들었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얼마쯤 내려와서 조칠성은 명보의 팔굽을 잡아서 슬그머니 뒤로 끌었다.

명보는 걸음을 늦췄다.

조칠성은 명보에게 눈을 끔쩍해보이며 귀띔했다.

《한 십분 쉬다가 오라구…》

《?!…》

조칠성은 다시 눈을 끔쩍해보였다.

그들은 포사격이 넘어올수 있다는 핑게로 벼랑밑에서 쉬였다.

조칠성은 갑자기 펄쩍 뛰여일어났다.

《쟈, 이거! 부뚜막에 빨래를 널어놓았댔는데 다 탔겠구만!》

그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는 정신없이 뛰여내려갔다.

명보는 무슨 꿍꿍인지 몰라 눈만 슴벅거렸다.

방송원처녀는 소대에 대하여 이것저것 물었다.

명보는 자기 소대에 대하여 할수 있는껏 자랑했다. 지어는 자기네 분대장이 련대 하사관들중에서 구령을 제일 잘 치는데 협주단 고음가수들도 그 목소리를 부러워한다는것이며 소대장동지는 시인이라는

것까지도 빼놓지 않았다.

《시인？！》 정혜는 시는 많이 읽어봤으나 시인은 한번도 만나본적이 없었다. 그는 나무를 메나르는 소대에 시인이 있다는것이 어쩐지 기이하게 생각되였다.

한편 소대로 단숨에 뛰여내려온 조칠성은 우에서 검열관이 내려온다고 떠들어댔다. 소대에는 십여명의 전사들만이 있었고 소대장도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있었다.

소대는 발칵 뒤집혔다. 밖에 널었던 빨래를 걷어들인다, 벽에 걸린 배낭들을 정리한다, 방을 쓸어낸다, 전사들은 불이 일게 뛰여다녔다.

신찬일이가 칠성의 팔을 잡고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치문제도 물어본대？！》

《그게 기본이지 뭐야！》 조칠성은 짜증을 내듯 대답했다. 그러자 전사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여 유엔에서 저새끼들이 뭐라 지껄였나？》

《가만 국내문제가 더 중요해. 정전담판에서 적들의 목적은？》

《전쟁에서 패배를 거듭하게 되니까 외교적인 방법으로 뭘 좀 얻어보자는거야. 싸움을 끌다간 아주 망해버릴것 같으니 체면이 아주 땅바닥에 떨어지기전에 정전을 하자는거지.》

《한편 군사적압력도 가하려든단말이야.》

《정치적어부지리를 얻자는거요.》

《계속 때려야 돼. 그러면 흰기를 들고 기여든단말이야. 이게 중요하거던！》

《쉿, 조용해！》

《부산을 피우지 말고 앉으라구.》

전사들은 《선동원수책》이며 신문들을 들고 두줄로 나란히 앉았다.

문을 차고 한철흠분대장이 뛰여들어왔다. 그의 얼굴에서는 땀물이 번들거렸다.

《검열관이 어디서 온다우？ 사단이요？ 군단이요？》

조칠성은 벌쭉거리며 얼버무렸다.

《분대장동지… 저… 저… 그런게 아니라…》

이때 밖에서 《여깁니다.》 하는 명보의 목소리가 울렸다.

한철흠은 성악배우처럼 턱을 약간 쳐들며 그 류창한 목소리를 길게 뽑았다.

《소대—차렷！—》

《분대장동지, 아닙니다!》
명보의 뒤를 따라 처녀가 들어섰다. 상쾌하고 밝은 기운이 토굴안 가득히 찼다. 전사들도 한철흠분대장도 모두 어안이 벙벙해서 굳어졌다.
조칠성이가 처녀앞에 나섰다.
그는 난처해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거 작업을 하느라고 병실이 너저분합니다.》
정혜는 방안을 돌아봤다. 벽에 선을 그은듯 나란히 걸려있는 배낭들, 티끌 하나 없이 말끔한 방바닥, 그우에 줄지어 앉아서 손에 손마다 책자들을 들고있는 전사들을 돌아보며 그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알뜰히들 하고 지내요!》
조칠성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기 분대장을 소개했다. 《우리 분대장동지십니다!》
정혜는 존경어린 눈으로 분대장을 쳐다봤다.
한철흠은 자기보다 상급인 방송원앞에서 군인의 정중성을 지켜 차렷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그는 모욕당한듯한 노기를 얼굴에서 감추지 못하고있었다.
방송원처녀가 올라간 다음 한철흠은 조칠성을 외딴데로 불러냈다.
《동무, 어쩌자는거요?! 난 평화시기부터 복무하면서두 이따위 구령을 쳐본일 없소!》
조칠성은 처음엔 벌쭉거렸으나 차차 얼굴이 벌겋게 됐다.
《분대장동진 우리 소대의 너저분한 꼴을 남한테 뵈는게 좋나요?!》
《그럼 그렇다구 말해야 될게 아닌가. 〈검열관〉이 뭐요?!》
조칠성은 얼굴이 시뻘개지며 씨근거렸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간은 없지 〈검열관〉이라구 해야 펄쩍 뛰여오를게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소대꼴이 너절하면 소대장동진 어떻게 되구 분대장동진 어떻게 돼요!》
《동무, 좋소!》
…정혜는 매일이다싶이 소대로 내려왔다. 그는 작업에서 긁히우고 터지고 멍이 든 전사들의 손과 어깨며 무릎에 약을 발라주기도 했고 식사당번과 같이 쌀을 일고 망돌에다 비지콩을 갈기도 했다. 그리고 틈이 생기면 정치부중대장이 그처럼 경계했으나 칼릉선 갱도안에 들어가 적진쪽을 향해 화구를 뚫는 불꽃튀는 작업을 놀라운 마음으로 구경하다가 뭉툭하니 모지라진 괭이로 바위를 쪼아보았다. 밤이면 교통호작업을 하는 전사들속에 끼여서 삽질도 했다. 그는 모든 일에 호기심이 끌렸으며 자기 손으로

해보고싶었다. 그는 이 과정에 자기가 전쟁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리해하고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었다. 전쟁, 그것은 실로 대포를 쏘고 기관총을 쏘고 총창으로 적을 무찌르며 돌격하는것뿐아니라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모든것이 있어야만 되는 거창한 생활이였다. 전사는 용감하고 대담해야 될뿐만아니라 근면하고 생활력이 강해야 했다.

정혜는 지난날 자기를 분명 학자의 호강스러운 딸로, 응석받이로 만들려고 했던 아버지의 《사랑》에 고집스럽게 항거했던지라 전사들속에 와서도 부지런히 일하며 그들과 한가족 성원처럼 어울리려고 애썼다.

곽병식소대장을 처음 만난 순간 정혜는 지난 장마철 숙영의 밤에 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던 일이 생각나서 얼굴에 홍조를 띠웠다. 그러나 곽병식은 그런 일은 깡그리 잊어버린듯 전혀 생소한 인상으로 그를 맞이했다. 정혜에게는 이것이 다행이기도 하면서도 한편 무시를 당한듯한 서운한 감이 들기도 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도하장의 모닥불에 비쳤던 그 유순하고 그윽한 인상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화선의 포연탄우에 부대낀 구리빛얼굴은 강파르게 깎이여서 더 억세게 굳어져보였다. 피발이 선 눈에는 팽팽한 긴장이 어려있었다. 그는 한가지 생각에만 쫓기는 사람처럼 시선이 곧고 날카로왔다. 정혜가 내려갈 때마다 곽병식은 례절있게 인사했으나 그이상 불필요한 말은 건네지 않았다. 그렇다고 대원들이 그와 섭쓸리는것을 마다하는것도 아니였다. 그는 대원들에게 대체로 짤막하게 말했으며 전사들은 그앞에서 자유롭게 떠들어대고 롱말도 했다. 그는 정혜의 《수고》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도 별로 안했다. 그의 이런 자세에는 고병근중대장의 어색한 그것과도, 서동길소대장의 수다스러운 그것과도 다른 절제있으면서도 어딘지 모를 꾸민데가 있어보였다.

정혜는 가마옆에 웅크리고 앉아서 야전밥통에서 국을 훌훌 불며 마시는 그를 호기심어린 눈으로 넘겨다보며 생각하는것이였다.

(저 사람이 과연 시인일가? 아니면 전사들이 자랑하고싶어 꾸며낸 말일가?)

한철흠분대장은 사람들을 다스리는데서 만족을 느끼는듯했다. 그는 필요이상 대원들을 《모엿》시켰다가는 간단한 주의사항을 말하고는 《헤쳐》시켰다. 그의 말은 언제나 빈틈없이 정확했다. 그는 대렬에 선 인원수에 비해 필요이상 높은 소리로 구령을 쳤는데 그 목소리는 명보의 말대로 정말 협주단 성악배우들도 부러워할만한것이였다.

(진짜 하사관이구나. 구령을 썩 잘치는데.) 하고 정혜는 생각했다.

정혜가 위생가방을 열고 전사들에게 약을 발라줄 때면 그는 높은 소리로 전사들의 이름을 부르며 순서를 정해주었다.

《박광준동무, 김영재동무, 조칠성동무…》

정혜는 그것이 재미있기도 하고 어쩐지 좀 우습기도 했다.

전사들은 그와 인차 친숙해졌다. 박광준은 감자를 서툴게 깎는 그의 고운 손이며 해맑은 얼굴을 측은한 눈매로 돌아보며 이런 궂은일을 더러 해봤는가고 물었다. 그리고 군단사령부나 야전병원들에 적절한 직무가 많았겠는데 어쩌자구 이런데로 나왔는가고 걱정의 말도 하고 보병생활이란 고되긴 하지만 지내보면 재미나는 점도 많다고 부드러운 위로의 말도 해주었다.

정혜는 이 나이 지긋한 전사가 아저씨처럼 미덥게 생각되며 그와 같이 일하며 이야기하는것이 즐거웠다. 이따금 천진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마음놓고 깔깔 웃어대기도 했다.

부인은 무엇을 하는가고 묻자 박광준은 우리 집 사람은 무식해놔서 이러루한 궂은일에 들어서야 빛이 난다고 말했다.

조칠성은 나무에 긁혀 벗겨진 목에 약을 발라줄 때면 엄살을 부려 앓음소리를 냈고 익살로 배가 터지도록 웃기기도 했다. 명보는 그를 친누이처럼 따르면서도 은근히 보호자연한 태도를 가지였다. 그는 칠성의 익살이 도를 넘을것 같으면 얼굴이 빨개져서 칠성동무가 저래뵈도 정직하고 순박하다고 두둔했으며 분대장동무는 딱딱하게 굴지만 련대에서도 이름난 모범하사관이노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는 적들의 쏘구역이며 포사격《일과》에 대하여 설명도 해주고 놈들의 포지휘기가 홱 각을 꺾을 때면 포사격이 시작된다는것, 탄알속의 화약이 지사제보다 효능이 더 높다는것, 조명탄 락하산끈은 비물에도 썩지 않아 구두끈을 하면 제격이라는 등 화선전사들의 《상식사전》을 펼쳐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무슨 애로조건이 생기면 자기한테 말하라는 은근한 암시까지 주었다.

정혜는 화약내와 땀내가 풍기는 이들 화선의 보병전사들에게서 군단지휘부나 후방부대의 군인들과 다른 체취를 느꼈다.

그들에게 고무로 되고 기쁨으로 될수 있는 모든 일에 자기의 몸을 푹 잠그고싶었다.

정혜가 내려오면 소대전사들은 그를 둘러싸고 앞을 다투어 물었다. 지난밤에 칼릉선쪽에서 총소리가 그치지 않았는데 무슨 싸움이 있었는가? 새벽에 주먹릉선쪽에서 중기관총소리가 났는데 저놈들이 기습

해올라온게 아닌가? 정혜는 중대부에서 들었거나 소대련락병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날 오후 적들은 밀려드는 안개를 리용하여 깊은 골로 2개 중대가량의 병력을 불의에 들이밀었다. 1소대와 2소대는 교차화력으로 골짜기 어구에 물샐틈없는 탄막을 쳤다. 대대박격포가 골짜기에 들어온 놈들에게 무자비한 일제사격을 퍼부었다. 치솟는 포연과 불바다의 광란속에서 적병들의 비명소리만 높았다. 정혜는 고지의 교통호에 엎드려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도모르게 새된 탄성을 지르기도 하고 입술을 깨물기도 하고 주먹으로 땅을 치기도 했다.

화선에 나와 처음 맛보는 승리의 쾌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저녁녘에 소대로 날듯이 뛰여내려와 전사들에게 자기가 본 모든것을 이야기했다.

작업에서 돌아와 숫돌과 줄칼로 도끼며 톱을 갈면서 작업준비를 하던 전사들은 입을 하 벌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 자기들자신이 수없이 체험한 범상한 전투담이였으나 정혜의 입으로 옮겨지는 그 이야기는 그들에게서 새로운 감명을 불러일으켰다. 적들의 기도와 그 패배에 대한 처녀의 천진한 환상이며 대대박격포의 위력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과장에 대해서도 전사들은 그대로 공감하였다.

겁에 질린듯 굳어졌다가도 승리의 쾌감에 확 밝아지군하는 얼굴표정의 조화와 환희에 불타는 눈길은 전사들의 가슴에 전투의 흥분을 그대로 지펴놓았다.

《이거야 젠장!》 조칠성이가 도끼등으로 땅을 힘껏 내리쳤다. 그러자 전사들은 한마디씩 입을 열었다.

《1소대친구들이 우리가 파놓은 참호까지 차지하고 잘 두들겨패는 모양인데 히야, 우리두 지뢰원을 뚫고 들어온 놈들을 맞받아 반돌격해내려갈 땐 굉장했지. …》

하고 찬일이가 말했다.

《우린 언제 한번 붙어보겠나. 개자식들, 뼈도 못추린다.》

하고 조칠성이가 어금이를 으드득 갈며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신발끈을 고쳐매던 명보가 그를 언짢게 흘겨보았다.

《그런 생각을 하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지요.》

《지뢰원생각만 하면 가슴이 떨려서 그런다.》 하고 조칠성은 후— 모두숨을 내쉬였다.

《말말라구, 명보한텐 그런 마음이 없을가. 나도 그 생각만하면 밤에

잠이 안와. 저놈들이 우리가 갱도를 요새화하기전에 방어선을 뚫어보자고 한다는데 작업을 다그쳐야지. 아, 이 일이 어떤 일이라구.》

김영재는 담배를 말며 이렇게 말했다.

숫돌로 쓰는 펑퍼짐한 돌판에다 도끼를 수걱수걱 갈던 박광준이가 그들을 돌아보며 사람좋은 미소를 지었다.

《마음들을 누긋하게 먹으라구. …》

《그저 광준이가 제일이다.》 이렇게 우스개소리를 한마디 던지고 조칠성은 바위에 등을 기대며 깍지낀 팔우에 머리를 얹었다.

정혜는 누군가 자기 옆에 와 서는것을 느꼈다. 한철흠분대장이였다. 그는 말없이 전사들에게로 다가가 톱이며 도끼날을 만져보더니 채근했다.

《뭣들 하고있소. 갱도작업장에선 동발 독촉이 불같은데.》

분대장은 전사들의 얼굴을 돌아봤다.

《명보동무, 뭘 했소？！》

명보는 머리를 수긋하고 어물거렸다.

《뭘 안했습니다. 그저 말들을 하고있었습니다.》

《무슨 말？！》

조칠성이가 끄떡없는 얼굴로 분대장을 쳐다보며 말했다.

《속이 좀 클클해서 이것저것 말했습니다.》

《단추를 채우오！》

조칠성은 앞가슴단추를 채우고는 차렷자세를 취했다.

전사들에 대한 측은한 생각은 정혜의 몸을 떠밀었다. 그는 분대장앞에 한걸음 나섰다.

《제가요. 제가 전투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됐어요！》

한철흠분대장은 정혜쪽에는 눈길도 돌리지 않고 전사들만 보며 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어떤 중요한 일이요. 지휘관들은 우리를 크게 믿고 갱도작업에 동원시켰는데 분초를 다투어 일해야지. 앞으로는 외부인원과의 접촉때문에 시간을 랑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소！》

정혜는 얼굴이 화끈거려 어쩔바를 모르다가 돌아섰다. 그는 고지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뒤에서 병영생활의 번거로운 저녁을 련상시키는 분대장의 류창한 구령소리가 울렸다.

《모—엿—》

《우—로—나란히—》

《번호！》

전사들의 높고 낮은 목소리들이 북치듯이 떠들썩하게 울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렬의 빈틈없는 단결력을 확증하는듯한 그 번호 부르는 소리는 정혜의 등을 멀리로 떠밀어버리는것 같았다.
저녁 어스름속을 헤치며 걸어가는 그는 이따금 나무그루처럼 움직이지 않고 서서는 화끈 단 볼을 만지기도 하고 머리칼을 쓸어올려 바로잡기도 했다.
정혜는 군대복무기간 생활상의 이런 사소한 실책을 허다히 범했다.
그것은 8월의 태양이 눈부신 해방된 서울광장에서부터 시작되였다. 의용군으로 탄원한 녀학교학생들은 스크람을 짜고 거리를 가득 메우며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갔다. 그들은 《가슴에 끓는 피를 조국에 바치니》 하는 노래를 부르며 나갔다.
정혜는 환희와 격동에 목이 메여 제대로 노래도 부르지 못했다. (땅크병이 되리라! 땅크병이 되리라!) 그는 속으로 부르짖고있었다.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을 찌르는 해방된 거리로 달려나갔을 때 정혜가 물결치는 군중들의 머리들 짬으로 처음 본것은 긴 포신을 앞으로 내뻗친 어마어마한 무쇠덩어리였다. 그것은 은혜로운 조국의 품이 보내준 첫 사자였다. 포연탄우를 헤치고 온 땅크우에서는 남자처럼 건장한 녀성군인이 군모를 벗어쥔 주먹을 하늘에 쳐들고 역시 남자와 같은 우렁찬 목소리로 해방된 시민들에게 조국의 수도 평양의 인사를 전하고있었다. 찬연한 해빛아래서 그의 머리칼이며 얼굴이며, 어깨며 가슴팍은 은모래, 금모래를 쓴듯 눈부시게 불타올랐다. 그것은 꿈 많은 정혜의 가슴을 잠못들게 하던 그 랑만적인 환영이 현실속에, 바로 눈앞에 나타난것이였다. 군중들은 만세를 부르며 파도처럼 뛰여올랐으나 정혜는 자기를 두고 실망한 승벽이 센 어린 계집애처럼 오도카니 서서 뒤노는 팔들이며 머리며 겨드랑이들 짬으로 포탑옆에 서있는 그 눈부신 자태를 선망의 눈으로 지켜보았던것이다. 이 순간 억센것에 대한 매혹은 그의 가슴을 불살랐다.
《땅크병이 되리라! 땅크병이 되리라!》
정혜는 시대의 상징처럼, 조류처럼 흘러가는 대오속에서 걸어가며 부르짖었다. 그의 볼에서는 환희와 감격의 눈물이 흩날렸다.
대렬부의 젊은 군관들앞에서 정혜는 땅크병이 되겠다고 말했다. 누구도 그 말을 정색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하오! 어머니와 헤여지며 운 동무가 땅크를 타겠다!… 장한 일이요!》 한 군관의 말이다.

《전 울지 않았어요！ 울지 않았어요！》
정혜가 고집스럽게 변명을 하자 군관들은 기특해하는 눈매로 그의 얼굴을 보더니 자기들끼리 마주보며 즐겁게 웃었다.
거리의 먼지가 뽀얗게 오른 그의 두볼에는 눈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있었던것이다. 정혜는 간호원이 되였다. 처음엔 수술실에서 의료기구들을 소독하는 일을 맡아했으나 웬일인지 그를 약국으로 옮겨놓았다. 약국조제사밀에서 가루약을 종이봉지에 싸고 물약을 병들에 따라넣는 일을 했다. 그다음엔 군단사령부 군의소로 옮겨놓았다. 사령부 군관들에게 예방주사를 놓고 이것저것 닥치는대로 일했다.
《정혜는 아까와. 저렇게 이쁘장한 동무가 협주단 무용배우가 돼서 무대에서 춤을 춘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우아하겠어. 얼마나 어울리겠어！ 선녀가 울고 가지！》
《대렬부 서기자리가 비였대. 정혜는 글씨를 곱게 써… 틀림없을 거야.》
《정혜동무는 머리가 비상하오. 군대복무도 잘했는데 대학에 보내 공부를 시켰으면 어떻겠소.》
《정혜동무가 놓는 주사가 제일 아프지 않다나. 어찌나 손길이 살뜰한지…》
이런 말들이 떠돌기도 했다.
정혜는 어느날 우물에 물길러 갔다가 파란 하늘을 담은 수면우에 비쳐진 자기의 역겹도록 보기 싫은 얼굴이며 손길을 굽어보며 무거운 한숨을 지었다. 모든것이 아버지때문이였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이 몇해동안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고 생활상 사소한 실책이나 실패가 있을 때마다 감기처럼 머리를 지끈지끈 쑤시기도 하고 몸을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게도 했다.
…그가 어렸을 때 사람들은 아버지를 두고 의학계의 재사이긴 하나 세월탓으로 가난한 개업의의 신세를 면할수 없는것이라고 말했다.
어린 정혜는 《재사》란 무슨 말인지 《개업의》란 무슨 말인지 어른들의 우습강스러운 그 말뜻을 통 알아들을수 없었으나 어쨌든 그것이 자기 아빠를 욕하는 말은 아니란것쯤은 가려들을수 있었다.
오빠나 언니보다도 아버지는 정혜를 더 사랑하였다. 목마를 태우고 방안에서 껑충껑충 뛰여도 다니고 매일 아침 안고 세면도 시켜주고 밤에는 안고 잤다. 사람들은 정혜를 사슴이니 토끼니 그 무슨 새니 하는것들에 비기면서 아버지가 저렇게 쓰다듬어주니 저 애가 이뻐지는

게라고 말했다. 정혜는 자기가 칭찬을 받는것이 모두 아버지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살뜰하게 굴면서 허물없는 동무로 되였다. 그는 책을 보는 아버지의 잔등에 기여오르기도 하고 책상밑으로 기여들기도 했다. 숨박곡질을 하면서 아버지를 찾아 이방 저방으로 뛰여다니기도 했다. 정혜가 잉크병을 엎질러놓는다든지 공책을 찢어놓는다든지, 무슨 유리그릇을 깨뜨려놓으면 아버지는 대견하게 웃으며 엄마에게 자랑하듯 말했다. 《여보, 이 솜씨를 좀 보오. 남아대장부란말이요.》 정혜는 그때마다 우쭐해졌다가는 엄마의 흐린 얼굴을 보고는 눈이 올롱해졌다.

엄마는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며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온 참, 난 당신이 아이들을 뭘로 만들겠는지 모르겠어요.》

언니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버지는 언니에게도 오빠에게도 정혜에게도 새 의복을 사주었다. 아버지는 아들딸들을 앞세우고 거리를 산보하며 만나는 사람들과 활기있게 인사말을 주고받았으며 아이들보고도 인사를 올리라고 했다. 내내 아버지의 헌옷을 뒤집어만든 학생복만 입고 다니던 오빠는 처음으로 새옷을 입고 몸이 굳어지고 어정쩡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 정혜는 그것이 우스워서 언니의 옆구리를 꼬집었다. 창경원까지 돌아보고 늦게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났을 때 부엌에서 아버지와 엄마가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렸다. 《참 당신두, 당장 신을 구두가 없으면서 애들한테 저게 무슨 분수예요.》 《내 두뇌에 곰팽이가 쓸지 않는 한 저 애들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을테요. 나도 자식들의 랑비를 보면서 기뻐하고싶단말이요.》 정혜는 마루로 뛰여나가 아버지의 구두를 만져봤다. 먼지가 뽀얗게 오른 구두는 허리가 끊어져있었다. 정혜는 아버지가 가엾게 생각되였다.

거리에서 미국놈과 리승만을 반대하는 시위가 매일같이 벌어지자 오빠는 밤늦게 들어왔다. 정혜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웃방에서 언니와 오빠가 밤깊도록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었다. 시위, 프랑카드, 구호, 투쟁, 혁명, 결사전… 이 말들은 교향곡의 북소리처럼 정혜의 가슴을 울리며 뒤설레게 했다.

며칠후 온 집안은 노발대발한 아버지의 부르짖음소리로 들썩했다. 웃방문을 안으로 걸고 아버지와 오빠가 론쟁이 붙은것이였다. 《이 녀석아, 나는 민족도 모르고 조국도 모르는 식충인줄 아느냐. 못나간다!》 《아버지!》 정혜는 처음엔 겁에 질려 떨기만 했으나 차차 주고받는 말을 가려듣게 되였다.

오빠가 옳은것 같았다. 아버지가 무엇때문에 정의감에 불타는 오빠

의 앞길을 막아서는지 리해할수 없었다. 오빠는 굽히지 않았고 아버지는 소리소리 질렀다. 뺨을 치는 소리까지 들렸다. 정혜와 엄마는 발을 동동 구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날밤 오빠는 집에서 뛰쳐났다. 시위투쟁은 활화산처럼 터졌으나 기마경찰대의 말발굽밑에 참담하게 짓밟히고말았다. 거리마다 피비린내가 가득찼다. 밤중에 뒤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오빠의 학우들이 부상당한 동지들을 업고 찾아왔다. 아버지는 말없이 끔찍한 상처들을 처치해주었다. 정혜는 그들에게서 오빠가 경찰에 잡혀갔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며칠후 경찰에서 오빠의 시체를 찾아가라는 통고가 왔다. 오빠는 예심중 고문에 숨지고말았던 것이다. 정혜와 언니는 매일 밤 눈물에 젖어 오빠의 일기책을 읽었다.

정혜는 언니가 몸을 부르르 떨며 주먹을 꾹 쥐는것을 자주 느꼈다. 《언니, 왜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야.》 한달후 언니는 삐라를 붙이다가 기마순찰대의 총에 맞아 포도우에 쓰러졌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술을 마셨다. 어느날 술에 만취한 아버지는 정혜를 붙안고 통곡했다.

《정혜야, 너는 내 마지막 희망이구 기쁨이다.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내 사랑에 대한 보답이 이런 참담한것이냐말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미국놈과 리승만에 대하여 저주를 퍼부었으며 오빠와 언니를 무모한 시위에로 선동한 그 무슨 《위원》들을 원망했다. 그후부터 정혜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오는 편지들을 몰래 뜯어보고 일기장을 샅샅이 뒤져본다는것을 알았다. 그리고 정혜가 감기에라도 좀 걸리면 아버지는 약을 먹인다, 물을 떠온다, 머리에 고무주머니를 올려놓는다 안절부절을 못했다. 아버지는 밥상에 마주앉아서도 딸의 맑은 눈 한구석에 한점의 단호한 빛이라도 어려있지 않는가 살펴보는것이였다. 정혜는 잠결에 무엇인가 뜨끈뜨끈하고 끈적거리는것이 자기 머리며 볼이며 목을 쓸어만지는것을 느끼고는 소스라쳐 놀라 깨나군했다. 그러면 아버지의 멀건 얼굴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눈을 꾹 감고 돌아누워버렸다. 아버지의 그 뜨끈하고 검질긴 사랑이 역겹도록 싫어났다.

정혜는 어느날밤 산악처럼 우뚝 솟은 바위가 거리로 굴러가며 미국놈이며 기마경찰놈들을 마구 짓이겨버리는데 그우에 오빠와 언니와 자기가 손에 손을 잡고 서있는 꿈을 꾸었다. 정혜는 자신도 알수 없는 거대한 힘에 대한 갈망으로 가슴을 뒤설레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억센것에 대한 매혹은 이때부터 그의 가슴에

서 싹텄다. 군대복무의 나날에 정혜는 상관들과 녀동무들의 부러움과 애무에 찬 눈길을 느낄 때마다 그들이 자기 몸에서 아버지의 사랑의 그 흔적을 눈여겨보는것 같아서 얼굴이 달아올랐다. 정혜는 자기몸에 뜨끈하고 끈적거리는것이 묻어있는감을 느끼며 그것을 털어버리려고 버둥거렸다. 그것은 흙탕물을 들쓴 도요새가 털을 곤두세우고 부르르 떠는 모양과 흡사했다. 정혜는 아름답고 맑고 부드럽고 섬세한 그 모든것을 털어버리려고 애썼다.

그는 투박해지고 거칠어지고싶었다. 그는 군인답게 활개를 저으며 활달하게 걸어다녔으며 함경도 사투리와 평안도 말씨를 뒤섞어서 말했다.

전선으로 나가는 도로의 위생검역소에 나갔을 때도 드세고 지꿎은 운전사들에게 앙칼진 말씨로 깔끔히 굴었다.

바람처럼 전속력을 놓으며 지나쳐버리려는 자동차앞으로 기병총을 벗겨들고 뛰여들며 하늘에 공포를 놓고 새된 소리를 질렀다.

《섯! 쏜다!》

어쩌는수없이 차에서 내려 위생통과를 받고난 운전사는 얼굴이 빨개서 운전칸에 오르며 협조원에게 말하는것이였다.

《하, 그 동무 고추처럼 매운데!》

《함경도 체네란건 본래 그래요!》

녀성비행기사냥군조가 조직될 때 정혜는 맨처음으로 탄원했으나 부결되고말았다. 그는 병실에 들어와 모포를 푹 쓰고 누워 울었다. 그로부터 몇달후 뜻밖의 일이 생겼다. 전선고지들에 적군내부를 와해시키기 위한 화선방송국들이 생기게 되였다. 영어방송원이 필요했다. 외국어지식은 전선으로 나오고싶은 그의 소원을 풀어주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실려 허둥지둥 중대부고지쪽으로 올라가던 정혜는 주위에 와 두세발의 포탄이 터지는바람에 폭탄구뎅이속으로 뛰여들며 펑덩 주저앉았다. 흙덩이들이 날아들고 매캐한 초연이 쓸어들었다. 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초연을 마음껏 들이켰다. 가슴이 후드득 뛰였으나 전혀 겁나지 않았다. 자기옆에서도 포탄이 튀였다는것, 자기도 인제는 남의 팔에 주사나 놓고 귀여움을 받는 간호원이 아니라 적포병대의 포격대상이 되였다는 천진한 자부심과 함께 가슴이 커지는것 같았다. 정혜는 폭탄구뎅이에서 기여나오려고 버둥거렸다.

이때 말소리가 들렸다. 저 웃쪽에서 두사람의 그림자가 걸어오고 있다. 정혜는 소스라쳐 놀란듯 몸가짐을 바로 하며 머리칼을 쓰다듬고

흙을 털었다.
《이 길도 닦아야겠구만. 말들이 다니긴 힘들겠는데.》
《아무리 닦아야 그 턱이지요. 포탄이 또 다 파헤치겠는데요. 공급소대 말들은 여기를 지날 때면 사뿐사뿐 걷다가 냅다 뛥니다.》
《허,그것들두 쏘구역인줄 아는 모양이지. 사람보다 낫소.》
정혜는 고병근중대장과 곽병식소대장의 목소리란것을 인차 알아들었다. 그는 웬일인지 그들앞으로 뛰여나가는것이 쑥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정혜는 구뎅이 경사면 중간에 쪼크리고 앉아 어둠속에서 다가오는 두 군관의 모습을 내다보았다.
《중대장동지！》
《왜？》
《한 삼사십리 더 들어가서 나무를 하면 안될가요. 빨리 끌장을 내야겠습니다. 여기 포탄밭에서야 끌이 있습니까. 맨 파편투성인데…》
《안되네. 저놈들이 며칠내에 총공격을 할것 같소. 동무네는 예비대요. 임의의 시각에 1소대나 2소대 방어선에 투입될수 있는데 그 먼데 가있으면 어떻게 하오？》
두 군관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버렸다. 어둠속에 사라지는 그들의 뒤모습을 바라보는 정혜에게는 무엇인가 거세차고 신선한 바람이 자기앞을 불어지나간것 같은 감을 느꼈다.
갑자기 사위가 훤해지며 산들과 바위와 나무그루들이 생기를 띠고 소생한듯 어둠속에서 드러나면서 그 그림자들이 너울거렸다. 정혜는 이 놀라운 변화에 희열을 느끼며 하늘을 쳐다봤다. 적진쪽에서 뻗쳐나온 수십갈래의 탐조등 빛줄기들이 서로 부딪치기도 하고 서로 교차되기도 하면서 캄캄한 밤하늘을 란도질하듯 가르고있었다. 좀 밑에서는 대들보같은 두 줄기의 불빛이 미친듯이 하늘을 더듬다가는 아래로 떨어져내려와서는 고지들의 정수리를 대낮처럼 밝히며 쓸었다. 탐조등빛에 틀어쥔 주먹같은 륜곽을 드러낸 중대부 고지꼭대기에 부딪친 예광탄들이 피방울처럼 하늘에 튀여올랐다.
정혜는 폭탄구뎅이에서 뛰여올라와 두 군관이 간쪽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보이지 않고 캄캄한 어둠이 장벽처럼 눈앞을 막아섰다. 탐조등들이 일시에 꺼진것이다. 그는 한동안 어둠속에 그렇게 서있었다. 문득 고병근중대장의 며칠후에 공격이 있으리라던 말이 생각나며 가슴이 아프도록 뛰였다. 그는 이 어둠이며 정적에 놀란듯 홱 돌아서 고지쪽으로 달려올라갔다.

3

전사들속에서 희한한 소문이 떠돌았다.

요새 적 전연 고지들에 《까투리》(전사들이 직승기를 비하해서 붙인 별명)들이 부산스럽게 오르내리고있다. 클라크《장군》놈이 전선사단장놈들의 회의를 소집했다. 놈은 안전장치를 풀어놓은 대형권총을 책상우에 놓고 가을이 지나기전에 인민군방어선에 파렬구를 뚫을테냐 못뚫을테냐 하고 매사단장놈들한테서 다짐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단장놈들이 뻰질나게 전선시찰을 한다는것이다. 사단 정찰에서 《혀》를 자루에 넣어서 둘러메고 왔는데 그놈이 살려달라고 코물, 눈물을 흘리며 실토하는 말이 우리 사단앞에서도 집적거릴 차비를 하고있다는것이다. ×대대앞 적 릉선에는 벌써 땅크 2대가 올라와있다 한다. 칼릉선앞 적 무명고지 후면에서도 요새 밤마다 땅크기판소리 같은것이 울린다고 한다. 종군목사놈들이 전선에 나와서 졸병놈들의 목에다가 하느님의 뜻이 깃들어있어 탄알이 피해간다는 나무패쪽지를 하나씩 걸어주었고 장교놈들에게는 방탄조끼를 내주었다 한다.

전사들은 갱도를 빨리 완성해놓고 그속에서 적들을 속이 후련하도록 족치리라 속다짐하며 더욱 활기를 띠고 일했다.

그들은 식사를 하면서도, 밤에 자리에 누워 모포속에서도 소곤거렸다.

《들었나？》

《뭘？》

《1대대에서 굴뚝포로 빨간 대가리(정찰기)를 명중했대. …》

《박격포가？！》

다른 전사가 모포속에서 속삭였다.

《갱도작업을 다그쳐야겠는데…》

명보는 명절을 앞둔 사내애처럼 얼굴이 환해지며 들떠서 돌아쳤다. 조칠성은 깊은 밤중에 일어나서 총신을 소제대로 쑤셔놓고 격발기를 닦았다. 그의 눈은 사납게 번뜩였다.

그러나 한철흠분대장은 저녁이면 대렬을 짓고 번호를 부르게 한 다음 누구는 나무를 몇대 메왔고 누구는 몇대를 메왔는가를 따졌으며 조칠성에 대해서는 지명을 하면서 지적했다.

《칠성동무가 제일 락후하오! 박광준동무는 12대를 메왔는데 동무는 6대밖에 못했소. 그것도 파편투성이구 옹이투성이구 우불구불 비틀어진게 2대나 되오. 온전한건 4대밖에 안된단말이요. 광준동무나 동무나 다 같이 눈도 둘이고 손도 둘이요. 게으르기때문이란 말이요! 나는 게으른 병사가 용감한걸 보지 못했소!》

곽병식소대장은 한철흠분대장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댓걸음씩 왔다갔다하며 생각했다.

(아무렴, 박광준동문 근면하고 성실한 전사야. 대렬앞에서 감사를 줘야겠다.) 그러나 그는 분대장의 어조가 너무 신랄하게 울리자 걸음을 멈추고 대렬에 서있는 병사들의 얼굴을 돌아봤다. 조칠성의 끌날같이 번뜩이는 눈이 분대장을 보고있었다. 박광준은 머리를 수긋하고 부자연스럽게 서있었다. 그의 이런 모양은 자기를 빗대여 남을 비판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것 같았다. 그는 조칠성이 자기때문에 지적을 받는것 같아 죄송스러워하는것이 분명했다.

저녁식사후 곽병식은 한철흠분대장을 데리고 토굴뒤로 갔다.

《분대장동무, 대원들에게 그런 투로 말해서는 안되오. 갱도공사가 가지는 의의도 거듭 해설해주면서 접수되게 말해야 되오. 너무 욱박지르는게 아니요?》

《칠성동무에게 말입니까?》

한철흠은 그를 흘깃 돌아봤다. 그의 눈에서는 거의 힐난에 가까운 빛이 스쳤다.

《그렇소.》

《좋은 말로 해선 먹지 않아요. 성미가 이만저만 드세다구요. 한번 비틀어지면 다니까요. 갱도를 왜 파는지 모른단말입니까. …》

《그래도 대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해선 안되오. 한번 해설해서 안먹으면 두번 세번 해야 될게 아니요. 부하들에게 감정을 가지고 대해선 안되오.》

한철흠은 가슴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였다.

《소대장동지두…》

《…》

《군인이야 언제 어디서나 임무에 충실해야 될게 아닙니까. 쌈판에서 한몫 한다고 뒤에 들어와선 언제나 특세를 부리려든단말입니다.》

곽병식의 눈앞에는 조칠성의 이런 저런 모습들이 우렷이 떠올랐다.

그가 처음 배치되여온 날 창격전춤을 추던 열광적인 모습, 구림의 어

머니와의 관계, 장마행군때 령길에서 익살을 부리던 일, 돌사태를 만났을 때 부르짖던 그, 참호에서의 용감한 반돌격에 앞장섰던 그, 박광준과 신찬일에 대한 태도… 조칠성은 용감성과 익살, 이 두 극단에서 살고있는것 같았다. 줄달음치던 곽병식의 사색은 하나의 현상앞에서 흠칫 놀란듯 멈춰섰다. 그는 왜 집에다 그처럼 편지를 안할가? 중대 대렬명단에는 그의 주소와 부모 이름들이 정확히 밝혀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부모들은 동생들을 데리고 후퇴했다 한다. 어떤 때에는 행방불명이 됐다고 하고 어떤 때는 양덕 외가집에 가있는것 같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것 같지도 않았다. 친부모가 아닌가? 그 무슨 다른 운명의 장벽이 그들사이에 가로놓여있는가?

《칠성동무, 동무는 왜 집에다 편지를 안하오?》

곽병식은 밤에 그와 담화하다가 이렇게 물었다. 조칠성은 잠자코 있었다.

돌로 굳어진듯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하시겠소.》

그 말에 조칠성은 소리없는 허구픈 웃음을 웃었다. 반쯤 내리감은 눈엔 익살스러운 미소가 흘렀다.

《소대장동지두, 생각할게 뭡니까. 우리 집엔 동생들이 한구들 가득합니다. 제가 군대에 나올 때 모두들 씨원해했답니다. 인젠 마을이 조용해지겠다구요.》

《몹시 갈갰던 모양이군.》

《…》

《가족들이 외가집에 가있는게 분명하오?》

《예…》

《그럼 편지를 하오!》

《예…》

힘들게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났다.

《그건 그렇구, 내 동무를 좀 비판해야 되겠소. 동무는 참호에 나가선 잘 싸웠는데 여기 들어와선 왜 다른 동무들에게 뒤떨어지오?》

조칠성의 숨소리가 높아졌다. 그의 가슴이 오르내렸다.

《참호에서 싸우는 소대의 동무들이 피흘리며 쟁취한 시간으로 우리가 갱도를 굴설하는게 아니요? 참호에 엎드려 우리가 류산탄벼락밑에서 고생하던걸 생각해보라구. … 이제 갱도를 요새화해놓으면 류산탄이고 폭탄이고 움쩍을 못한단말이요. 그땐 적이 얼마나 올라오든 철벽이요! …》

조칠성은 진정이 된듯 머리를 떨구고있었다.
《분대장동무가 엄격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의견을 가져서는 안되오. 그 요구가 원칙적으로 옳다면 받아들이고 고쳐야지.》
그의 숨소리는 다시 높아졌다. 그러나 말은 안했다. 무엇인가 생각하고있는것 같았다.
갑자기 조칠성은 소대장을 돌아봤다가 인차 외면하며 머리를 떨구었다.
바위같은 그의 잔등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무엇인가 내부투쟁을 하고있는것이 분명했다.
곽병식은 그를 더 건드리지 않았다. 그가 스스로 투쟁하고 생각하고 깨닫기를 바라서였다.

숨막히는듯한 고요가 이 전선일대의 험준한 산악들과 골짜기들우에 무겁게 드리워있었다.
나무를 메고 산중턱을 내려오던 곽병식은 대기속에서 무엇인가 가늠할수 없는 팽팽한 긴장을 느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나무를 내려놓았다. 땀을 씻고 저고리 단추를 벗기며 부근 릉선과 골짜기와 산기슭들을 돌아봤다. 어디를 보나 전사들이 한벌 깔려있다. 그들은 릉선과 골짜기와 산비탈을 따라 나무들을 메고 골짜기밑으로 내려오고있었다. 찾아놓은 나무들을 골짜기밑에 집결하는중이였다.
집결장소에서는 한철흠분대장이 나무들을 받아서 내려놓고있었다. 그옆에서 5～6명의 전사들이 어물거리고있는것이 보였다.
맞은편 산기슭에서 먼지의 타래구름을 뽀얗게 일구며 통나무가 굴러내렸다.
곽병식은 그쪽에 대고 소리쳤다.
《어느—분—대—요？—》
그의 목소리는 골짜기들을 울리며 메아리쳤다. 그 메아리가 끝나기도전에 맞은편에서 다른 목소리가 대답한다.
《예？—》
《나무를—굴리지 말—라—구.—》
골짜기들은 쩌르렁 울었다.
전사들은 부상병이나 포탄을 운반하듯 나무를 메고 조심조심 내려왔다. 곽병식에게는 그들의 움직임이 그지없이 굼떠보였다. 그는 다시 나무를 메려고 허리를 굽혔다. 이 순간 그는 질풍처럼 들이닥치는

공기의 파동과 함께 앙칼진 비명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서 딩굴었다.
산악들을 들었다놓는 폭음이 울렸다.
그는 온몸에 전률을 느끼며 머리를 번쩍 들었다. 골짜기밑에서 시커먼 포연이 뭉게뭉게 솟아올랐다. 집결장소구나！ 하는 생각이 채찍처럼 뇌리를 쳤다. 포연속에서 누군가의 다급한 부르짖음소리가 울렸다.
곽병식은 정신없이 뛰여내려갔다. 그는 날듯이 포연속으로 뛰여들었다. 포연속은 밤처럼 어둑했다. 숨이 컥컥 막혔다. 전사들의 그림자가 앞에서 어른거린다.
《누구요？！ 다치지 않았소？》
곽병식은 부르짖었다. 포연이 가시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전사들이 털고 일어났다. 다친 전사는 없었다. 나무도 성했다. 포탄들은 좀 아래쪽 홈타기에 와 터졌던것이다. 위기를 무사히 치르고나면 언제나 그러하듯이 전사들은 갑자기 유쾌해졌다. 폭풍에 날아난 모자를 찾는다, 초연에 시꺼매진 얼굴을 서로 마주보며 웃어댄다, 누가 딩굴던 흉내를 낸다, 어깨며 잔등의 흙을 털어준다 하며 전사들은 흥에 겨운듯 떠들썩했다.
조칠성이만은 모욕이라도 당한듯한 찌뿌둥한 얼굴로 팔소매에서 먼지를 툭툭 털고있었다.
한철흠분대장은 언짢은 얼굴빛이 되여 소대장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이놈새끼들이 오늘 해보자는게 아닌가요？》
이 순간 앙칼진 비명소리가 머리우에서 울렸다. 아까것과는 달리 우직스러운 소리란것을 온 신경으로 느낀 곽병식은 소리질렀다.
《엎드렷！》
골짜기옆 벼랑에 와서 육중한것이 탁！ 하고 부딪치는 소리가 나며 땅이 울렸다. 곽병식은 머리를 번쩍 들고 그쪽을 보았다. 사람몸뚱이만한 시꺼먼 물체가 떼굴떼굴 굴러내려와서 바위옆에 엎드려있는 찬일의 옆구리를 슬쩍 건드렸다. 찬일은 전기에 닿은듯 와뜰 놀라며 몸을 날려서 한철흠분대장 발치에 가 엎드린다.
곽병식은 그 괴물을 쏘아봤다. 끝이 삐죽한 긴 원추형의 무쇠덩이다. 뒤꽁무니쪽에 둘러있는 구리띠에는 대포의 강선을 미끄러져나온 자리가 패여있는데 그것이 해빛에 날카롭게 빛난다. 누군가 후닥닥 뛰여와서 그놈을 타고 앉았다. 조칠성이다. 그는 전사들을 돌아보며 호탕하게 웃어댔다.
《하하하… 불발탄이야！ 203미리야！》
전사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조칠성은 엉치가 뜨거워난듯 흠칫 놀

라며 엉거주춤 몸을 일으키더니 그놈을 마구 짓밟기 시작했다.
《이놈아！ 이자식아！ 네가！ 네가！ 네놈이 우릴 날려보내려구！ 이놈아！ 너를 보낸게 누구냐？ 이놈아！ 이 도적놈아！》
조칠성은 진짜 강도나 도적을 짓밟는듯한 격분으로 부르짖어댔다.
《하하하…》
《허허허…》
전사들은 그 모양이 우스워서 어깨를 들썩거리며 웃었다. 곽병식이도 따라 웃었으나 점차 조칠성의 격분이 옮겨진듯 가슴에서 뜨거운것이 꿈틀거림을 느꼈다.
조칠성은 열기와 익살에 번들거리는 눈으로 전사들을 돌아보며 웃어댔다.
《하하하… 요따위 쇠덩이를 가지구 우리를 놀래워보려 한단말이야. 하하하…》
그리고 돌아서서 포탄에 퉤 침을 뱉았다. 전사들은 와 웃음을 터쳤다.
한바탕 웃고나서 그들은 나무를 메고 떠났다. 한동안은 흥겨운 기분이 지속되였으나 단조로운 로동의 흐름속에서 그것마저 가뭇없이 사라졌다. 또다시 어깨를 지지누르는 무게, 흘러내리는 땀, 가쁜 숨소리들… 통나무를 멘 전사들은 간격을 두고 길게 늘어서서 움직이고있었다.
그들은 도중에 여러번 포사격을 만났다. 곽병식은 그때마다 대원들을 은페시켰다가 다시 출발명령을 내렸다.
그들이 중대부 고지쪽으로 오르는 큰 골짜기에 들어서서 휴식을 할때였다.
고지너머에서 전투의 소음이 울려왔다. 폭음… 폭음… 중기와 경기들이 짖어대는 소리… 골짜기가 와르릉 와르릉 울었다. 전사들은 술렁댔다.
한철흠분대장이 얼굴이 긴장해서 소대장앞으로 달려왔다.
《소대장동지, 저놈들이 공격하는게 아닌가요. 아직 두축은 해야겠는데요！》
《빨리 출발하기요！ 분대장동무 제일 앞장에 서오. 난 뒤에 설테니！》
《옛！》
한철흠은 돌아서지 않고 머뭇거렸다.
《무슨 일이 생겼소？》
《모두 펄펄 뛰는데 이거 참. 폭음만 들으면 지뢰원생각이 나서 이러는것 같습니다.》
《저놈들이 우리 가슴에 불을 붙여놨소. 거리간격을 철저히 보장

하구 규률을 세우오!》
길게 늘어선 대오는 산중턱을 톺아오르고있었다. 전사들은 무거운 통나무를 메고도 뛰다싶이 했다. 여기저기에서 포탄들이 터지며 파편들이 윙윙 울며 머리우를 날았다.
곽병식은 목에서 쇠비린내가 솟구쳤다. 흘러내리는 땀이 눈앞을 가린다. 그는 한손으로는 통나무를 잡고 한손으로는 눈시울로 흘러내리는 땀을 빗씻으며 대오의 뒤를 따라갔다.
《자, 빨리! 빨리! 힘을 내자!》
그는 앞에서 우물거리는 전사들에게 이렇게 소리치기도 하고 발을 헛디뎌 비칠대는 전사의 나무를 받들어주기도 했다. 저 앞쪽에서 한철흠의 갈린 목소리가 울렸다.
《포사격이 넘어오기전에 빨리! 자, 힘을 내자! 빨리!》
전사들의 헉헉하는 가쁜 숨소리가 들렸다.
이때 수십발의 포탄이 날아와 그들의 량옆과 앞뒤에서 마구 터졌다.
《엎드렷!》
《엎드렷!》
곽병식은 나무를 내동댕이치고 그우에 몸을 던졌다. 귀청을 찢는 폭음과 함께 흙덩이들이 어깨와 옆구리를 아프게 때렸다. 귀가 꽉 멨다. 이윽고 그는 머리를 쳐들고 웃쪽을 바라보았다. 자욱한 포연속에서 흩어져 엎드린 전사들의 잔등이 보였다.
바위옆에 엎드린 한 전사가 그를 돌아보며 아무렇지도 않다는듯 빙긋 웃어보인다. 안도감이 들었다. 그는 툭툭 털고 일어나며 저 웃쪽을 쳐다보았다. 바람에 흩날려가는 포연속에서 전사들이 뛰여다니는것이 보이고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앞에서 무슨 일이 생긴것이 분명했다. 웃쪽에서 누군가 커다란 소리로 웨쳤다.
《누구요?!》
《김영재야!》
곽병식은 화석처럼 굳어져 그 자리에 서버렸다. 그러나 마음은 가슴으로 들이닥치는 참혹한 예감을 밀어버리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김영재가 어쨌단말인가? 저 사람들이 왜들 저러는가?)
다음순간 그는 가슴에서 묵직한 돌덩이같은것이 쿵 떨어지는듯한 충격을 느낌과 동시에 정신없이 뛰여올라갔다.
7～8명의 전사들이 빙 둘러서있었다. 명보가 머리를 돌리며 소대장을 바라본다. 그의 얼굴은 새까맣게 질려있었다.

《중상이요？！》

《…》

명보는 입술을 꽉 깨물며 외면했다.

곽병식은 전사들을 밀치며 뛰여들었다.

한철흠분대장이 김영재전사를 안고있었다. 위생지도원이 영재의 바지가랭이를 째고 붕대를 감고있다. 지혈대를 조이고 붕대를 칭칭 감았는데도 선혈은 그침없이 흰 붕대우에 배여올랐다.

김영재는 뒤로 젖힌 머리를 분대장의 어깨에 맥없이 던지고있었다. 해쓱한 그의 얼굴은 보숨털까지 돋보여서 처녀처럼 야들야들해보인다. 반쯤 내려감은 눈안에서는 물기가 번들거리고있었다.

오른쪽 골짜기 박격포진지에서 화력부관의 피타는 목소리가 울렸다.

《련발로— 쏫！ 쏫！》

박격포들의 포성이 우뢰처럼 대기를 뒤흔들고 땅을 진감했다. 그 포성에 곽병식은 가슴이 산산 쪼개지며 터져버리는것 같았다.

《영재！ 영재동무！ 내가 누군지 알겠소？！ 영재！》

곽병식은 그의 팔을 붙잡고 부르짖었다.

산너머에서는 전투의 소음이 끓어번졌다.

영재는 소대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조용한 전사였다. 그는 이 순간에도 온순하게 맥을 잃고있었다.

곽병식은 오늘 대원 하나를 잃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가슴에서 불덩이같은것이 욱 치밀며 목이 꺽 메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사의 목이며 어깨며 팔을 쓸어만졌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 그의 손을 꼭 쥐여서 치워놓았다. 그리고 옆에서 사내아이 목소리같은 야릇한 음성이 울렸으나 그것이 무슨 말인지 분간하지 못했다.

곽병식은 실신한 사람처럼 서서 박광준이가 영재를 업고 위생소쪽으로 내려가는것을 보고있었다. 그들의 옆에서 위생지도원이 따라가고있었다.

박광준은 걸음을 멈추더니 소대장쪽을 돌아보며 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대장동지, 찾습니다.》

곽병식은 뛰여내려갔다.

《영재동무！ 나요！ 내가 왔소！》

영재는 정기도는 눈으로 한동안 그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목쉰 소리로 속삭였다.

《… 소대장동지… 제 소제대가… 소제대가… 잘 맞지 않아요… 바꿔주겠다고 했는데요. … 특무장동무가 그랬어요. …》
이 순간 곽병식에게는 지난날 영재가 병실에 누워서 밤마다 기침을 깆던 일이 생각나며 말없이 조용한 그에게 지휘관으로서 너무나 적게 관심돌린것 같은 자책감이 가슴을 아프게 허비였다.
그는 영재의 갸름한 손을 꽉 잡아주며 말했다.
《영재！ 알겠소！ 제일 새걸로 맞춰놓을테니… 다시… 다시 오라구！》
《소대장동지！…》
이때 등뒤에서 철커덕！ 쇠소리가 울리더니 격렬하게 요동을 치는 소리가 났다.
곽병식은 놀라서 돌아봤다.
명보가 총을 꼬나들고 전투의 소음이 울려오는쪽 산마루로 정신없이 뛰여오르고있었다.
《섯！》
《섯！》
한철흠분대장이 뒤따라가며 소리쳤다. 명보는 탄알처럼 날아올라갔다. 뒤쫓아간 한철흠이 그의 어깨를 거머쥐고 끌어내렸다.
곽병식은 뛰여올라갔다. 명보는 경련을 일으킨듯 얼굴이며 온몸을 떨며 눈물이 끓는 눈으로 소대장을 보면서 소리소리 질렀다.
《소대장동지！ 복수를 하자요. 저 원쑤놈들을…》
그의 적개심에 불타는 부르짖음은 그대로 바늘이 되여 곽병식의 가슴에 와 아프게 박히는것 같았다. 그는 몸부림치며 손을 번개같이 권총집에 가져갔다.
《소대장동지！》
새된 처녀의 부르짖음과 함께 무엇인가 불덩이같은것이 그 손을 콱 덮쳤다. 곽병식은 그것을 와락 뿌리쳐버리며 홱 돌아봤다. 방송원처녀가 딩구는것이 언뜻 눈앞에 비쳤다. 아니다. 처녀여, 그대는 잘못 알았다！ 곽병식은 명보를 붙안고싶었다.
권총을 뽑아들고 하늘에 쏘며 소대를 질풍같은 공격에로, 무자비한 섬멸전에로, 영재가 흘린 피의 보복에로 불러일으키고싶었던것이다！
리명보, 령리하고 민감한 이 병사는 소대장의 불을 뿜는듯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 모든것을 인차 알았다. 하여 울분이 설음으로 뒤바뀌면서 터져오르는 울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피터지게 깨물고 어깨만 떨었다.

《메오！ 나무를 메자구！ 갱도를 꾸리고 원쑤를 백배, 천배 복수하자구！》

소대장의 목소리는 위로하듯, 쓰다듬는듯 부드럽게 울렸다.

명보는 헉 느끼며 통나무를 부둥켜안았다.

조칠성은 이그러진 얼굴을 쳐들고 그옆에 장승처럼 서있었다. 그의 가슴은 풀무질하듯 단숨을 내뿜으며 들먹거리고있었다.

곽병식은 그를 쳐다보며 명령조가 섞인 목소리로 나직이 말했다.

《칠성동무, 나무를 메오！》

《메랍니까？！》

《메오！》

조칠성은 후닥닥 뛰여들어 명보를 밀치며 혼자서 통나무를 번쩍 메고 일어섰다. 순간 태풍같은 폭풍이 그들을 쓰러뜨렸다. 곽병식, 한철흠, 명보, 정혜와 그 옆에 서있던 몇명의 전사들이 포연속에서 딩굴었다. 곽병식은 입안에 쓸어든 쓰거운 모래를 씹으며 앞을 내다봤다. 흐릿한 포연의 안개를 뚫고 나무를 멘채 뛰여가는 전사의 뒤모습이 언뜻 보였다. 조칠성이다.

《엎드렷！》

곽병식은 부르짖었다. 그러나 조칠성은 허리를 꿋꿋이 펴고 뛰여갔다. 여기저기서 포탄들이 터졌다. 흙덩이, 돌덩이들이 그의 머리우로 날아지나갔다.

《엎드렷！》

조칠성은 그대로 뛰여갔다. 확 퍼져오르는 시꺼먼 포연이 그를 삼켜버렸다. 나무를 멘 조칠성은 불사신처럼 포연속에서 뛰여나와 그대로 올리뛰였다. 세찬 가을바람은 솟구치는 포연을 눈보라처럼 땅에 눕히며 휩쓸어갔다. 조칠성의 상반신만 그 흩날리는 포연우에 떠서 앞으로 달렸다. 폭발, 폭발, 파편들이 울부짖고 대기는 떨었다.

한철흠분대장이 포연속으로 뛰여나가며 부르짖었다.

《엎드렷！》

《칠성이！》

《엎드렷！》

포탄의 울부짖음, 솟구치는 포연, 포연, 하늘을 찌르는 흙기둥！ 전률하는 대기！

《엎드렷！》

조칠성은 저 멀리 앞에서 나무를 멘채 허리를 꿋꿋이 펴고 뛰여가고

있다. 그는 타래지는 포연속에서 튀여나와서는 다시 확 퍼져오르는 포연속으로 뛰여든다.

《엎드렷!》

한철흠은 무엇엔가에 걸려 땅에 곤두박혔다가는 다시 뛰여일어나서 쫓아가며 부르짖는다.

산마루에서부터 파도처럼 들이닥치는 시꺼먼 초연이 한철흠을 덮친다. 곽병식은 그 초연속으로 뛰여들어 그를 와락 안고 땅우에서 딩굴었다. 한철흠은 몸을 떨며 소대장의 팔을 뿌리치려고 버둥거린다.

《놓아요! 놓으시오! 꺾어놔야 합니다!》

단김처럼 뜨거운것이 곽병식의 볼과 목에 끼얹힌다.

이때 포탄들이 근처에 떨어져 두사람은 포연속에서 딩굴었다. 곽병식이가 흙을 털며 일어났을 때 그의 앞으로 중대장 련락병이 마주 달려왔다. 그는 어찌나 세차게 달리는지 수류탄주머니며 보병삽주머니며 물통들이 모두 몸에서 들떠서 춤추고있었다.

련락병은 숨이 턱에 닿아 부르짖었다.

《소대장동지! 중대부로 오랍니다!》

《중대부로?!》

《저놈새끼들이 2소대방어선을 뚫자고 접어듭니다!》

《뭐라구?!》

련락병은 경례를 붙이는것도 잊고 박격포중대 포진지쪽으로 뛰여내려갔다.

(전투구나! 서동길을 지원하게 되는구나!)

곽병식은 가슴이 후두두 뛰였다.

4

칼릉선 앞코숭이, 2소대 방어계선은 포연에 덮여있었다. 그쪽에서는 총성이 끓어번지고 류산탄들이 하늘에서 백광을 뿜으며 터지고있었다. 교통호를 따라 수류탄상자와 중기관총 탄통을 멘 공급소대 탄약분대전사들이 칼릉선으로 달려올라가고있었다.

교통호를 따라 뛰여가는 곽병식은 자기를 반겨맞을 서동길의 얼굴이 떠오르며 가슴이 터질것만 같았다.

곽병식은 포연속을 뚫고 정신없이 달려가서 중대부 토굴앞에 다달았다.

토굴앞에서 련대장부관이 보병삽자루에 꺼꾸로 씌운 장화바닥을 돌멩이로 치고있었다.

곽병식을 보자 부관은 눈이 둥그래지며 속삭였다.

《돌아가오! 돌아가오!》

곽병식은 벙벙해서 그를 쳐다보았다. 부관은 수없이 긁히워 허옇게 껍질이 일고 흙투성이 된 장화를 손가락질했다가 안을 가리키고는 눈을 끔찍해보였다. 그제야 곽병식은 안에서 울리는 강태욱련대장의 노한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명령하오! 동무 결심은 취소요!》

《련대장동지! 2소대는 곤난을 겪고있습니다.》

고병근중대장의 떨리는 목소리다. 곽병식은 언제나 배포유하던 중대장의 그런 목소리를 처음으로 듣는지라 온몸이 긴장되였다.

《…포탄에 경기 2정과 중기관총이 파손됐습니다. 서동길동무는…》

《무슨 소리요?! 총이 몇자루 파손됐다구 방어선이 뚫린단말이요?! 사람이 있는데! 갱도요새화작업에서는 한명도 떼 못내오. 기관총은 중기중대에서 보충받소. 어떤 피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갱도를 한시바삐 요새화해야 되오. 이건 전쟁의 운명과 관련된 결정적인 문제요! 동문 눈앞의 곤난때문에 근시안이 되고있소. 저건 놈들이 좀 집적거려보는거요. 지금 적들은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있소. 한초가 새롭소. …》

다음 련대장의 목소리는 좀 누긋해지기 시작했다.

《서동길동무가 요구하고있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동무가?! 여보 고병근동무, 배짱이 절벽강산갈던 사람이 어떻게 된거요?! 마초를 베더니 이슬에 젖어 시들해진게 아니요?!》

련대장의 껄껄 웃는 소리가 났다. 고병근중대장의 헛기침소리가 들렸다.

《련대장동지, 참 제가 어떻게 된것 같습니까?》

《글쎄말이요.》

《황소도 늙으면 꾀를 부린단 말이 있지만 이 고병근이야 아직 시퍼렇지요. 내 2소대에 나가보겠습니다.》

《좀 솜씨를 보여 불러일으키오.》

부관이 다 고친 장화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와 엇갈리며 고병근중대장이 나왔다. 무안을 당한듯한 상기된 얼굴이다. 그는 곽병식

을 외면한채 내려가라고 손짓만 하고는 교통호를 따라 달려갔다.
곽병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있었다. 련대장이 나왔다. 그를 본 강태욱의 눈은 부드럽게 빛났다. 곽병식은 차렷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붙였다.
《일이 잘되오?》
《예…》
《부상당한 동무는 어떻소? 중상이요?》
《예…》
련대장은 말없이 담배를 붙여물더니 갑자기 총성이 끓어오르고 포연과 흙덩이들이 튀여오르는 칼릉선꾹대기쪽에 눈길을 돌렸다. 그의 눈은 준엄한 빛을 뿜으며 번뜩이였다.
련대장은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하나하나가 피의 대가로 이루어지는군!》
그 말에 곽병식은 가슴이 저려나서 련대장의 얼굴을 돌아보게 되였다. 내리쪼이는 가을해빛에 련대장의 눈섭그림자가 전에없이 짙어보이고 눈가의 주름살들은 더 깊어보였다.
《가보기요!》
곽병식은 련대장이 어디로 가보자는지도 모르고 뒤따랐다.
이날 오후 강태욱련대장은 웃도리를 벗어던지고 전사들과 함께 나무를 자르고 메날랐다. 강태욱은 파란곡절 많은 자기 지난 생활에서 목격했던 이러저러한 우스운 일화들로 전사들을 웃겨대면서 작업장을 흥성거리게 했고 나무를 메나를 때는 가파로운 산기슭을 내려오며 우물거리는 전사들을 골려도 주고 그들의 승벽을 돋구어도 주면서 작업을 다그쳤다. 그는 두개의 비슷한 통나무를 골라놓고 누가 자기와 적게 찍고 먼저 자르기내기를 해보자고 청했다. 조칠성이가 손바닥에 침을 밸아 썩썩 문지르며 나섰다. 강태욱련대장은 통나무를 발로 짚고 가쯘하게 잘라들어갔다. 그가 도끼를 내리찍을 때마다 도끼밥이 파편처럼 윙윙 울부짖으며 날아났다. 조칠성은 우악스런 힘으로 도끼를 메처럼 휘두르며 마구 내리찍었다. 나무는 껑충껑충 튀여오르며 도망을 쳤다. 조칠성은 입을 헤벌리고 나무를 쫓아가며 험악한 욕설을 퍼부어대며 도끼질했다. 전사들은 저절로 편이 갈라져 련대장을 응원하기도 하고 조칠성이를 부추기기도 했다. 웃음판이 터졌다. 시합은 무승부로 끝났다. 조칠성은 땀이 철철 흐르는 얼굴을 벌쭉거리며 한번 더 해보자고 했다. 강태욱련대장은 짐짓 성난듯한 얼굴로 눈을 부릅뜨고 조칠성에게 달려들며 주먹으로 엉뎅이를 쥐여박으려 했다.

《이 친구, 그래 끝내 련대장을 이겨보자구? 존엄성없이! 맞아봐라.》
《아이쿠—》
조칠성은 우야 엄살을 피우며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내질렀다. 전사들은 좋아라 웃어대며 들썩거렸다.
조칠성은 익살스럽게 얼굴을 찡그리고는 몇대 더 때려달라는듯 잔등을 련대장앞에 들이밀었다. 강태욱은 턱을 쳐들며 큰 소리로 웃어댔다.
그들은 포탄을 피할수 있는 절벽밑에 빙 둘러앉아 휴식을 하며 담배들을 피웠다. 강태욱련대장은 땀을 흠뻑 흘린 뒤라 마음이 흡족하여 담배를 피우며 전사들과 담소했다. 고향소식들이며 집에서 온 편지내용들이 화제에 올랐다.
강태욱련대장은 서기들의 손에 의해 인쇄한것에 못지않게 그려진 각종 양식의 문건들과 참모군관들의 규격화된 보고가 쌓여있고 그를 한시도 놓아주지 않는 전화가 있는 지휘부를 떠나 이렇게 전사들속에서 무랍없이 지내는 시간이 제일 즐거웠다.
이때야말로 그들의 꾸밈새 없는 산 목소리를 들을수 있고 젊은이들의 왕성한 열기와 패기가 고스란히 자기 몸에 옮겨지는듯하여 감정이 생신해지고 정열이 북받쳐올랐다. 그들속에는 또한 웃을 일이 많아서 좋았다.
그는 그저 소탈한 말동무로 되여 롱에 끼여들고 론쟁에도 휘말려드는척하면서도 담화를 자기가 의도하는 곬으로 몰아가 그들의 깊은 심정을 들여다보려고 했다.
싸우는 후방인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강태욱은 요새 야전우편소가 편지를 제때에 배달하는가고 물었다.
리명보가 총명한 눈에 미소를 빛내이며 그를 쳐다봤다.
《련대장동지, 편지가 잘 옵니다. 이전에 편지가 늦게 올 때에도 괜찮았어요. 우리는 후방소식을 늘 몸에 두르고 다니니까요.》
그리고 밝게 웃는다.
《두르고 다니다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두르고 다니는 탄띠나 수류탄주머니, 보병삽주머니만 봐도 후방형편을 다 알수 있습니다. 인젠 옛말로 됐지만 그전에 강원도아주머니들이 이불안을 뜯어서 지어보낸 보선을 신고 무명천으로 만든 탄띠를 두르고 다니면서 굵은 실로 듬성듬성 기운 실밥을 볼 때면 나라형편도 알게 되고 인민들의 극진한 지성도 느껴지면서 정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탄탄한 천에 재봉침으로 두르르 박아서 지은 멋진 탄띠와 수류탄주머니, 이

런 군복에다 신발까지 신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제가 두르고 다니는 장구류나 피복만 잘 살펴봐도 후방형편을 똑똑히 알수 있습니다.
이런 탄띠에 수류탄주머니를 두르고 이런 군복에다 신발까지 신고다니니 후방은 문제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든든해져서 동안 뜨게 오는 편지쯤 괜찮습니다.》
명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사들은 저마끔 탄띠와 수류탄주머니 등을 흘끔흘끔 내려다봤다.
강태욱은 나이 어리면서도 이처럼 총명하고 웅심깊은 명보가 하도 대견스러워 《옳은 말이요! 정말 좋은 이야기요!》 하면서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다가 손을 꾹 쥐여주었다. 그러나 명보는 갑자기 수집어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우고 손을 빼내려고 옴지락거렸다.
련대장은 그 손을 그냥 쥐고 자기 무릎우에 놓고는 흡족해하는 눈길로 전사들을 둘러보았다.
《동무들, 작업이 너무 고되지 않나? 내 련대직속에서라도 인원을 좀 떼서 지원내보내려고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안되는구만… 동무들, 애로조건이 있으면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라구, 응.》
《련대장동지.》 하고 박광준이가 엉거주춤 일어났다.
《말해보오.》
《너무 걱정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이 전쟁에 나와서 마른일, 궂은일 다 해봐놔서 일없습니다. 조칠성동무만 해도 전쟁마당을 돌아다니며 수백개의 전호를 팠습니다.》
그리고 박광준은 조칠성이를 돌아봤다. 조칠성은 자기 이름이 거들리우자 못마땅한듯 그를 치떠봤다.
그러나 마음씨 무던한 박광준은 여전히 웃는 얼굴로 말을 이었다.
《우리는 행군할 때면 무기와 탄약뿐아니라 먹고입을것까지 다 등짐으로 지고다녔습니다. 그리고도 박격포중대포탄도 몇백리씩 지고다녔고 중기와 경기탄창도 들어다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남의 힘을 빈다면 체면이 서겠습니까.》
강태욱련대장은 이러한 담화를 통하여 진심 그대로인 전사들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였으며 이들을 옳게 이끌면 못해낼 일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는것이였다.
무엇인가 이들에게 힘이 될 말을 해주려고 두루 생각하던 강태욱은 언젠가 련대에 출장나왔던 최고사령부 공병국의 한 일군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꺼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공병전문가들과 함께 갱도병실 설계를 작성하시고 그 설계에 따라 시범병실을 꾸리게 하신 다음 그것을 전선부대들에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시였소. 시범병실이 완공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친히 현장에 나오시여 부족점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였소. 시범병실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시던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문에 붙어있는 접철을 보시더니 화선전사들이 어디서 이런 접철을 구하겠는가고 하시며 전사들이 쉽게 만들수 있는 돌쩌귀로 바꿔달라고 말씀하시였소.

병실안에 들어가신 그이께서는 방바닥에 깔려있는 짚으로 엮은 멍석을 만져보시며 이런것을 깔면야 뜨뜻하고 푹신해서 좋기는 하겠지만 전선고지에 짚이 있겠느냐고 하시며 구름노전을 까는것이 좋겠다고 가르치시였소. 동무들, 생각해보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여기 화선에서 싸우는 동무들이 전투와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라도 느낄세라 이처럼 세심하게 보살펴주고계시오.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갱도를 더잘 꾸려야 하겠소. 그러자면 우선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갱도전의 의의를 더 깊이 리해해야 하오. 조선전쟁의 현실을 천재적으로 분석하시고 내놓으신 최고사령관동지의 탁월한 군사사상으로 무장됨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수 없소.》

어려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슬하에서 혁명의 걸음마를 배웠던 강태욱은 어떤 바쁜 가운데서도 학습을 번지지 않았다. 그에게서 학습은 하나의 생리적요구처럼 습성화되여있었다. 그는 학습장을 맨다든지 공책에 덧가위를 댈 때면 지난날처럼 혁명가요를 코노래로 불렀고 그 즐거운 일을 부관이나 그 누구에게도 맡기는 일이 없이 손수 했다.

강태욱은 이 몇달동안 갱도전에 대한 그이의 탁월한 사상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더 깊이 리해하기 위하여 수령님의 독창적인 군사예술의 제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탐구해나갔다.

얼핏 보아 단순하고 명백한 전법같은데도 그 본질을 파고들면 들수록 련관된 고리들이 한둘이 아니였으며 그것들을 다른 군사적명제들과 련결시킬 때 문득 암중모색하던 그의 눈앞엔 심원한 사상의 바다가 펼쳐지는것이였다. 민족의 운명과 기상을 안고 출렁이는 그 사상앞에서 그는 가슴이 벅차오르고 고마움에 목이 메여 저도몰래 눈물을 흘린 일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강태욱은 부풀어오르는 가슴으로 수령님의 천재적전략전술, 독창적인 전법들을 더듬어보는것이였다. 적 깊은 종심에서의 제2전선의 형성으로부터 적군 내부모순의 리용과 적 대집단군들의 린접에 대한 타격, 산악과 깊은 계곡을 리용하는

대담한 원거리포위전술, 대담한 선제타격, 공격하는 적에게서 주도권을 빼앗는 적극적 방어전, 갱도전, 포군의 형성과 포의 집중적리용으로부터 산악전에서의 곡사포와 박격포의 대대적인 리용, 기동포활동, 습격전 그리고 저격무기에 의한 비행기사냥군조활동, 저격수조활동, 땅크사냥군조활동 등등에 이르기까지 미제침략군의 운명에 죽음을 선언하는 이 모든 독창적인 전법들의 이름들은 강태욱의 상념속에서 승리의 축포처럼 휘황한 빛을 뿜으며 떠오르는것이였다.

갱도에 의탁한 적극적인 방어, 이것은 방어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세계군사예술사상 일대사변이며 위대한 전환을 이루어놓았다. 강태욱은 갱도전에 대한 그이의 구상을 연구한데 기초하여 련대공병장을 비롯한 각 병종참모들과 더불어 련대방어선에 있는 6개 고지의 갱도를 요새화할데 대한 설계를 작성하였었다. 갱도에는 각종 직사포진지들과 중기, 경기, 반전차총 화점들이 교차화력을 원활히 조직할수 있는 위치들에 굴설되고 소대와 분대들의 저격무기사격을 위한 화구들이 적절히 배치되며 그것들은 여러갈래의 소갱도들에 의하여 중앙갱도와 련결된다. 중앙갱도의 좌우측에는 소대와 분대, 배속병종구분대들의 병실들이 꾸려지고 병사들의 충분한 휴식과 학습을 위한 건국실이 마련된다. 그리고 식당, 세탁실, 목욕탕, 건열소독실 등 시설들이 꾸려진다. 또한 갱도안에는 장기전을 위한 충분한 탄약과 식량을 저장할수 있는 창고들이 굴설된다. 중앙갱도의 막장으로부터는 여러갈래의 계단식소갱도가 고지 정점쪽으로 올라가서는 이 지하요새를 위한 천리안의 눈이며 촉각인 보병, 포병, 정찰들의 감시소들이 설치되고 지휘통신, 무전의 보조안테나들이 늘여진다.

강태욱은 깊은 밤중 감시소밖으로 나가 달빛이 흐르는 푸르스름한 하늘밑에 컴컴하게 누워있는 방어선의 산발들을 굽어보느라면 갱도전에 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군사사상은 저 자연의 평범한 산발들로 하여금 불락의 요새들로 이어진 장엄한 성새로 솟아오르게 했다는 생각이 들며 절로 가슴이 벅차오르는것이였다.

강태욱은 자기가 최고사령관동지의 군사사상을 학습하면서 터득한 이상의 점을 전사들과 자유로운 호흡속에 이야기하고나서

《갱도전에 대한 그이의 사상, 이것은 장기적인 방어전의 불바다속에서 싸우는 수백만 전사대중들과 지휘관들의 앞을 밝히는 태양처럼 휘황한 빛발이요!》 하고 부르짖다싶이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곽병식의 무릎을 잡으며 전사들에게

한술한술 떠먹이듯 차근차근 말했다.

《그이께서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군대, 가장 현대적인 기술장비로 무장한 전례없이 포악하고 야만적인 미제침략군과의 이 싸움에서 군사예술사상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독창적인 리론들과 전법들을 제시하시고 구현하심으로써 우리 인민들을 승리의 한길로 인도하고계시오. 그이의 모든 전략전술들과 군사사상에는 인민대중들의 힘에 대한 믿음과 인민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깔려있소. 이것을 알아야 하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 가혹한 전쟁의 환경속에서도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공급할데 대하여, 전재고아들을 위한 초등학원을 더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 전재민들에게 원호물자들을 공급하며 후방가족들과 전사자가족들에게 국가적인 배려를 돌릴데 대하여 마음쓰고계시오. 그이께서는 고지의 전사들에게 더운 국을 먹일데 대하여 걱정하고계시며 싸우는 전사들이 헛된 피를 한방울이라도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음쓰고계시오. 갱도전에 대한 그이의 구상을 하나의 전법으로만 리해해서는 안되오. 그것은 화선에서 피흘리며 싸우는 100만전사들에 대한 그이의 위대한 사랑이요! 위대한 사랑!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똑똑히 알고 우리는 그에 보답하기 위하여 있는 지혜와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소. 이 사랑에 보답해야 되오. … 소대장동무! 동무는 누구보다도 갱도전에 대한 그이의 구상을 실현하는 일에서 앞장에 서야 할 위치에 있소. 그리고 동무들, 소대원들도 그이의 위대한 사상으로 무장하고 자기들이 가장 보람있는 임무를 수행한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나무를 메나르는 일에서도 더 큰 열성을 발휘해야 하겠소.》

전사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이 깃든 갱도전의 의의를 가슴뜨거이 느끼며 나무를 메고 올라갔다.

석양의 컴컴한 산그림자에 묻힌 골짜기의 길을 따라 곽병식은 소대로 돌아오고있었다. 그는 끝없이 걷고싶은 흥분에 휩싸여있었다. 곽병식은 환희라고만도 할수 없고 행복감이라고만도 할수 없는 크고 뜨거운 감정에 자신의 온몸이 용해되여 자기를 깡그리 잊어버린듯하면서도 두근거리는 심장의 박동과 뺨에 느껴지는 후끈한 온기와 함께 그 어느때보다도 자신을 뚜렷이 의식하게 되는것이였다. 그는 광복후 양부모를 잃고 평양에 올라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을 때, 어머니와 함께 모란봉에 올라가 수도의 전경과 조국의 산발들을 바라보았을때, 군중시위에 나선 사람들의 물결속에 서있었을 때 그리고 길지않은 자기 생애를 돌이켜볼 때 이와 류사한 감정을 허다히 체험했었다.

그러나 지금 느끼고있는 이 감정은 그가 체험했던 그 모든 감정들과는 비길수도 없이 온 넋을 승화시켜주면서 가슴도 몸도 커진듯한 자각을 느끼게 하는 말할수없이 크고 뜨겁고 숭고한 감정이였다. 문득 그의 눈앞에는 모교에 들려 박아바이에게서 들은 단발령에 누워있다는 정경학부 민청위원장의 가무잡잡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50년도 가을 전략적일시적후퇴의 길을 네 아이를 끌고 걸어가던 경상도아낙네의 모습이 떠올랐고 자기자신이 주먹릉선의 참호에서 싸우던 일이며 전쟁의 나날에 목격한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싸우는 전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생각이 가슴이 터지도록 뻐근하게 안겨왔다.

(사랑이다! 그들에 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힘이다!)

그는 새 생명으로 탄생한듯한 힘찬 정력을 온몸에 느끼면서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가 언제나 무의식중에 느끼고있던 잠재의식속에서 튀여나온 그 목소리는 이 순간 위대한 진리의 서광처럼 눈앞을 밝히며 전화속에서 피곤에 지친 눈에 뿌옇게 흐려만 보이던 모든 현상들의 본질을 똑똑히 들여다보게 하는것이였다. 주먹릉선참호에서 어느날밤 박광준은 자기 이름이 새겨진 패말을 안고 분여받은 땅에 무릎을 꿇고 쓰러져 장군님을 부르며 울었다고 했다. 밭에 안해와 함께 앉아서 달빛에 비친 얼굴을 마주보며 평생을 두고 장군님 은덕을 잊지 말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는것이다. 그에게는 이 전쟁마당에서 모든것을 이겨내며 묵묵히 수고하고있는 그 무던한 전사의 마음속 비밀이 눈부시도록 명백히 들여다보였다.

(그렇다, 우리를 어떤 시련속에서도 굴함없이 뛰여오르게 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과 투쟁을 움직이고있는 힘은 그이의 위대한 사랑이다! 그이께서 체현하고계시면서 우리들에게 부단히 주고계시는 그 위대한 사상과 도덕의 힘이다!)

이런 생각에 묻혀 걸어올라오던 곽병식은 골짜기의 공기속에 배여있는 밥탄 냄새를 맡고 걸음을 멈추며 앞을 바라보았다.

벼랑밑에 숨어있는 소대토굴의 구새먹은 나무굴뚝에서 파르스름한 연기가 평화스럽게 몰몰 피여오르고 밥주걱으로 가마를 긁는 소리며 밥통들이 뎅가당거리는 소리, 전사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들이 한데 뒤섞여 들려왔다. 문으로 두명의 전사가 뛰여나와 토굴우에서 서로 쫓거니 쫓기거니 하며 맴돌이치다가 한 전사가 밀치는바람에 다른 전사가 뒤로 벌렁 넘어져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런데 토굴우의 전사는 몸을 굽석거리며 큰 소리로 웃어대지 않는가.

그는 여느때 같으면 무슨 핀잔의 말을 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순간 그는 마음이 끝없이 너그럽고 부드러워져 아버지가 늘 곁에 있기에 그 사랑의 고마움을 모르면서 응석도 부리고 쌈질도 하면서 자라고있는 한가정의 장난군 형제들을 보는것 같아 저도모르게 눈굽에서 뜨거운것이 흘러내리며 《허허허…》 하고 웃었다.

밑에 굴러떨어졌던 전사가 엉뎅이를 털고 일어나며 이쪽을 돌아보자 곽병식은 버럭 소리쳤다.

《밥이 타지 않소?—》

《가마치가 먹고싶어 좀 그랬지요!》

곽병식은 뜨거운 애정이 가슴에 몰켜들어 토굴로, 전사들이 있는 집으로 달려올라갔다.

5

등불을 꺼버렸으나 정혜는 잠들수 없었다. 병사용 개인천막과 모포로 사이를 막은 저쪽 중대부에서는 특무장이 서기에게 무슨 잔소리를 하며 각 소대의 탄약소모통계를 불러주고있었다. 서기의 기침소리, 탁자가 삐거덕거리는 소리, 펜끝에 종이가 긁히는 소리… 무엇으로 양철판같은것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특무장이 핀잔의 말을 한다.

《또 오그라졌소?》

《예, 1소대로 련락갔다오다가 통신줄에 걸려 딩구는통에 에이참.》

신호수의 볼먹은 목소리다.

《왜 자꾸 넘어지나. 똑바로 보고 다닐게지.》

《통신줄때문에 그랬지요뭐.》

《첫, 찍하면 통신이야. 제눈은 해서 뭘하노?! 그러니까 나팔 하나 건사 못하지.》

전화수의 두덜대는 소리다.

뗙뗙뗙 두드리는 소리, 신호수가 보병삽자루의 동그란 대가리로 오그라진 나팔을 두드려펴는 모양이다.

《특무장동지, 인젠 고물이 다 됐는데 바꿔줘요. 1중대 신호수는 새걸 타와서 뻔쩍뻔쩍하는걸 메고 다녀요. 소리도 얼마나 고운지 몰라

요！ 이건 그저 암닭이 우는 소리같은게 에이참, 우에서두 3중대니깐 이런 고물을…》

《중대장동지앞에서 그따위 소릴 해보라구. 혼뜨검이 나지 않나. 그게 어떤 나팔인지 알구나그래. 동무보다 나이도 어른이야. 설악산두 넘구 우리 중대하구 내내 같이 다녔어. 소리가 곱지 못해두 련대장동지나 대대장동지들이 몇십리밖에서 듣구서두 인차 알아듣는단말이요. 〈아, 저게 3중대 목소리구만！ 고지를 점령했군！〉 소대전사들도 기상나팔을 불면 〈허, 우리 집 수닭이 우는군.〉하며 고향생각이랑 한단말이요. 그래뵈두 돌격나팔을 불면 죽었던 사람도 뛰여일어난다는게요. 뻰쩍뻰쩍하는건 해서 뭘해. 나팔이라는게 중대 사치품인줄 아나？ 보병은 사치를 좋아안해！ 전사들 귀에 익으면 좋은거지. 재로 잘 닦아서 기름을 살짝 발라두라구.》

중대생활의 비밀이 숨어있는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엿듣고있던 정혜는 은근한 시기심같은것이 머리를 쳐들어 돌아누우며 모포를 푹 올리써 얼굴을 덮어버렸다. 모포안에 서리는 입김때문인지 얼굴이 화끈거렸다. 저들은 나팔 하나를 놓고도 저렇게 끔찍스레 생각하고 쩍하면 보병, 보병 하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형제들처럼 지내면서도 나 하나만은 보병의 그 독특한 땀내가 풍기는 가정에 허물없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구나 하는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사위스러운 인상들만이 한데 몰켜 가슴에 쌓이고쌓이는것이였다. 고병근중대장은 자기 대원들과는 푸접이 좋게 대하면서도 자기하고만은 어색하고 무뚝뚝하게 대하였다. 처음 정혜의 구석쪽 잠자리와 중대부사이엔 병사용 개인천막과 모포만 쳤다. 며칠후 어디 갔다 와보니 그 경계선엔 중대의 서류함들과 빈 탄약상자들, 위생지도원의 붕대상자들이 높다랗게 쌓여있었다. 그는 첫눈에 그것이 고병근중대장의 고안이란것을 지레짐작했다. 김문규정치부중대장은 그를 어린 소녀처럼 보살피려 하고 자기는 모든것을 다 알고있다는듯한 너그러운 미소로 대했다. 한철흠분대장이 《외부인원과의 접촉》에 대하여 하던 말을 상기하자 정혜는 모욕감으로 몸이 달아올랐다.

생각은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러자 원인 모르게 자기를 잠 못들게 한 그것이 무엇이였던가를 알게 되여 정혜는 얼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났다.

곽병식소대장의 우악스런 팔힘에 뿌리워 우습강스럽게 나가넘어졌던 자기 모습이 눈앞에 환히 보였던것이다.

(아니, 어쩌면! 어쩌면!) 정혜는 분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여 울고싶었다. 차차 앙큼한 노여움이 송곳처럼 가슴에서 치밀어오르며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들었다. 지금 와서 정혜는 장마행군의 그 밤 곽병식의 앞에서 우연히 울음을 터뜨리게 되였던 일, 자기의 나약함을 보였던 일들을 후회하게 되였다.

(그때부터 그는 나를 멸시한것이다!)

그가 소대로 내려갔을 때마다 곽병식소대장에게서 보게 되는 절제있어보이던 자세들이 자기에 대한 무시, 내지는 멸시이기도 했다는것이 불을 보듯이 명백했다. 자기 소대장의 그 감정으로 한철흠분대장도 사고하고 행동했을것이다. 정혜는 모포를 쓴채 다시 돌아누웠으나 가슴에서 뜨거운것이 끓으며 진정할수가 없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론 야전병원의 군의들도 자기를 그렇게는 대하지 못했다. 분했다. 울고싶었다. 가슴에서 막대꼬챙이같은것이 머리를 쳐들었다. 그것은 자존심이였다. 곽병식소대장을 이 밤으로 만나 설분을 하지 않고는 잠들수도 숨쉴수도 없을것 같았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중대부를 빠져나와 산비탈길로 내려가게 되였는지 알수 없었다. 무엇때문인지 산비탈은 환히 밝아졌다가는 캄캄하게 어두워지군했다. 정혜는 돌부리에 발끝을 채워 넘어질번하기도 하고 쭈르륵 미끄러져 주저앉기도 했으나 아랑곳없이 내려갔다. 두볼만 화끈거렸다.

(《소대장동지, 류정혜 만날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말씀해주세요!》 아니, 아니 《소대장동무, 저는 전사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작은 힘이나마… 뭣이 잘못인가요?!》 《정혜동무, 내가 어쨌소?》 《소대장동무, 난 동무가 군관학교 최우등생이란것도 시인이란것도 알고있어요. 그것이 남을 무시할 권리로 되나요?! 저도 싸우러 나왔어요! 원쑤들 내부를 와해하러 나왔어요! 저놈들을 한개 소대가 아니라 옹근 한개 중대도 투항시킬수 있어요!… 저는 그때 모르고 비속에서 자는 전사들을 비치는 불빛을 막아버렸어요.… 저는 온몸을 홰불처럼 태워서 전사들을 밝힐수도 있어요! 있어요!》)

정혜는 자기 발길에 채운 돌이 굴러내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소스라쳐 놀라며 앞을 두리번거렸다. 그는 벌써 3소대뒤의 벼랑옆에 와있었다.

《누구요?!》

《누구야?! 련락병동무요?!》

벼랑밑에서 두사람의 그림자가 일어섰다.

《누구요?》

《련락병동무요?》

곽병식소대장과 한철흠분대장의 목소리가 엇바뀌며 다우쳐물었다.

정혜는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그저 자기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했을가 하는 생각만 들었다.

탐조등불빛에 마주 걸어오는 곽병식소대장의 빛나는 눈이며 견장과 군관혁띠가 유난히 눈에 띄였다. 정혜는 머리를 소곳이 숙이고 서있다가 자기앞에 너무 가까이 다가온것 같은 곽병식소대장의 체취를 느끼고 돌아섰다.

곽병식은 그의 옆으로 오며 물었다.

《무슨 일이 생겼소? 말하오. 무슨 일이요?》

정혜는 걸음을 멈추고 울음섞인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배우겠어요! 배우고야말겠어요!》

그리고는 향긋한 선풍을 일으키며 돌아서더니 달려올라갔다.

곽병식은 처녀의 돌연한 행동에 그의 뒤모습이 어둠속에 녹아없어진 다음에도 덤덤히 서있었다. 문득 낮에 있었던 일이 뇌리를 때렸으나 번개의 섬광에 언뜻 비쳤던 물체를 다시 기억해내기 어려운것처럼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었던지 도무지 상상할수 없었다.

곽병식은 입술이 말라드는것 같아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모를 일이구만!)

옆으로 온 한철흠분대장이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곽병식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곽병식은 이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옆에 누운 한철흠은 인차 잠이 들었으며 태평스럽게 코까지 골기 시작했다. 그는 자야 할 때면 잤으며 일어날 때면 제때에 일어났으며 모든것이 기계처럼 정확했다. 그가 부러웠다.

곽병식은 돌아누우며 그의 얼굴을 호기심에 끌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언제인가 박광준이 안고왔던 단호박처럼 두리뭉실하고 기름한 얼굴, 훤한 이마, 남달리 넓은 미간, 입귀쪽으로 내려오며 더 진하고 까칠하게 돋은 수염, 이 모든 호인다운 얼굴인상은 웃을 때면 헝클어지고 뒤범벅이 되여 선량한 익살쟁이같이도 보인다. 문득 곽병식에게는 책에서 읽은것 같기도 하고 누구에게서 들은것 같기도 한, 사람은 정신없이 잠들면 자기 심혼의 진정한 빛을 얼굴에 얼마간 드

러낸다는 말이 생각났다.
(이를데없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빙그레 웃었다.
저녁식사후 곽병식은 한철흠이와 함께 벼랑밑에 앉아서 돌이 굴러내려올 때까지 담화했었다.
《칠성동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배짱을 그냥 둬두고는 대렬관리를 못합니다. 지휘관이 엎디라고 하면 엎뎌야 할게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쇠꼬챙이처럼 두들겨서라도 바로 펴놓아야 합니다.》
한철흠은 이렇게 말하며 분을 참지 못해하였다.
《담화해봤소?》 곽병식은 침착한 어조로 물었다.
《못들었다고 우깁니다.》
《폭음때문에 그 친구 정말 못듣지 않았을가?》
《아닙니다, 그 능청스러운 속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구령을 듣고도 그랬다면 단단히 비판해서 고쳐줘야 하오. 하지만 그의 대담성까지 꺾어버려서는 안되오. 병사한테서야 대담성이 영예처럼 귀중한게지. 분대장동무, 단순한 반발로 그런 대담한 행동을 할수 있을가? 동무 생각엔 어떻소? 그 동무 가슴엔 뭔가 꿈틀거리는게 있는것 같단말이요. 수수께끼같은게 많소. 요새도 집에 편지를 안쓰오? 부모들이 후퇴때 정말 양덕 외가집에 가긴 갔다오?》
《모르지요. 집에 편지를 쓰기 싫어서 행방불명이라고 하는지… 사내대장부연해가지구 고민이라든지 그런 자질구레한 걱정일랑 하는줄 압니까. 참, 누가 저런 소힘줄같은 친구를 이 세상에 낳아놓았는지. …》
그리고 한철흠은 허구프게 웃었다.
《분대장동무, 대원들 심정을 더 깊이 리해하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옳게 이끌어줘야겠소.》
한철흠은 자기 목단추를 바로 채우는것 같더니 빛나는 눈으로 그를 돌아보며 큰 숨을 내쉬였다.
《소대장동지, 제가 자기 결함을 모르는게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기본을 빼놓고 일하거던요.》
곽병식은 강태욱련대장이 소대원들과 이야기한후 자기를 따로 불러놓고 더 긴 시간에 걸쳐 같은 사상을 거듭해가며 차근차근 말해주던것을 생각하며 분대장에게 말했다.
《분대장동무자신이 래일 작업을 하면서 짬짬이 대원들과 담화를 하오. 나도 하겠소. 그리고 래일 시간을 내서 소대군무자총회를 여는

게 어떻겠소? 작업량이 베차서 시간이 좀 딸리기는 하겠지만.》
한철흠은 활기를 띠였다.
《소대장동지, 오전 작업을 다그칩시다. 회의장은 소대병실로 하지요. 구호도 새로 써붙이겠습니다. 저한테 백포 새것이 있습니다. 중대장동지랑 대대장동지랑 오시겠는데 주석단에 덮읍시다. 전사들한텐 목달개를 새로 달게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에서는 집행대책만은 샘처럼 솟아오르는 모양이였다. 곽병식은 미소를 금치 못했다. 한철흠은 언제나 이렇게 빈틈없는 집행자였다.
애정에 넘친 미소를 지으며 잠자는 한철흠의 얼굴을 들여다보느라니 그와 관련된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그는 근면하고 성실한 집행자였다. 대원들에게 쉬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걱정을 하고 요구를 들이대는 모습이 눈앞에 환히 떠올랐다. 그의 행동은 군인의 의무나 군사규범상 요구들에 비추어볼 때 빈틈이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엄격한것처럼 딴 사람들에게도 절대적인 요구성을 가지고 대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저런 결함들이나 부족점이나 못마땅한것을 보면 참지를 못하고 분격했으며 안달아했다. 그러면서도 전사들의 익살이며 엉뚱한 행동들에 대한 관용성이 부족했다. 마치 그의 두뇌에는 《사람이란 그럴수도 있다.》 하고 생각하는 신축성이라 할가 아량이라 할가 하는것이 모자라는것 같이 보이기도 했다. 그는 보병소대, 이것이 하나의 전투단위일뿐만아니라 하나의 가정이며, 자그마한 사회며, 하나의 세계라는것, 때문에 인간생활에서 있을수도 있고 또 있어야만 되는 그 모든 밝은 감정들과 정서들이 무기처럼 중요하다는것을 리해하려고 하는것 같지 않았다. 전사들은 군인으로서, 하사관으로서의 빈틈없는 자세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웃음으로 대할사하기도 하고 좀 두려워하기도 했으나 누구나 그가 소대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존재란것에 대하여서는 깊이 자각하고있었다. 한철흠은 음치였으나 오락회때면 꽁무니를 빼는 일 없이 전사들의 노래를 유심히 들었다. 한번은 그가 군관들과 전사들의 우격다짐에 못이겨 《태백산맥에 눈내린다》를 부른 일이 있었는데 첫 소절은 제대로 넘겼으나 다음부터는 아리랑곡조 비슷한것으로 되여버렸다. 그러나 그가 어찌나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불렀던지 누구도 웃지 못하였다.
《나는 부를줄 몰라도 듣는건 취미있어하오.》 하고 말하며 한철흠은 정색해서 오락회장에 앉아있다가는 또다시 미타하게 가슴에 걸리는 무슨 일을 생각해내고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는것이였다. 곽병

식은 애정어린 눈길을 그옆에 누워있는 조칠성에게로 옮겼다. 조칠성은 가슴을 헤치고 한팔을 옆에 누운 박광준의 배우에 던지고 정신없이 자고있었다. 깊은 잠에 든듯 숨결소리는 조용하고 고르로왔다. 얼굴은 전에없이 훤해보였고 약간 벌린 입귀에서는 숨을 내쉴 때마다 팥알만한 거품이 부풀어올랐다가 사라지군했다. 곽병식은 홀린듯 그 얼굴을 들여다봤다. 감때사납게만 보이던 얼굴이 이 순간엔 억세면서도 천진하고 순박해보였다. 놀라운 생각이 들었다. 늘 보아온 얼굴인데도 왜 여태 이렇듯 훤하고 온순하고 부드러운 빛을 보지 못했을가? 정신잃고 잠이 든 이 순간 그의 가슴속 깊은곳에 묻혀있는 순진하고 부드러운것이 은근한 후광처럼 내비친것인가? 곽병식은 광준의 배우에 올려놓은 그의 팔을 바로 갖다놓고 가슴을 여며주고 모포를 턱밑에까지 끌어올려 덮어주었다.

구석쪽에서 신음소리같은것이 났다. 곽병식은 그쪽에 눈길을 보냈다. 명보가 돌아누우며 찬일의 얼굴우에 손을 던졌다. 찬일은 입을 쩝쩝 다시고 불편해하며 얼굴을 움직였다. 곽병식은 그쪽으로 기여가서 명보를 바로 눕혔다.

명보의 손가락들에는 때가 새까만 붕대가 감겨있는데 끝이 풀려있었다.

(언제 다쳤을가? 톱에 긁히웠는가? 난 왜 모르고있었을가?)

그는 명보의 손을 조용히 쥐고는 붕대를 다시 감아서 매주었다.

누군가 옆에서 웃는것 같았다. 돌아보니 박광준이 눈꼬리에 주름을 잡으며 빙그레 웃고있다.

(아, 꿈을 꾸는군! 안해와 함께 발김을 매고있을가? 두 아들놈을 무릎에 앉히고있을가? 그 아들 이름들이 뭐더라? 장손이… 장호… 고것들이 지금 아버지 가슴에서 빛나는 메달을 만져보고있을지도 모르지.)

곽병식의 가슴에는 말할수 없는 행복감이 흘러들었다. 그는 눈길을 들어 잠자는 전사들의 얼굴들을 돌아보았다. 그 얼굴들은 소대장의 다정한 눈길에 화답하느라고 자면서도 저렇게 고르로운 숨소리를 내기도 하고 입술을 놀리기도 하고 눈가에 미소를 짓기도 하는것 같았다. 곽병식에게는 그것들이 하나의 립체미를 가진 단순한 얼굴들이 아니라 무한대한 힘과 빛을 감추고있는 신비로운 세계의 표정으로 생각되며 더욱 귀중하고 친근하고 아름찬 감정으로 가슴에 안겨왔다.

…곽병식이 바람소리에 놀라 잠을 깼을 때 벽에 걸린 등불이 꺼질듯이 가물거리고 밖에서 직일병이 발을 구르는 소리가 울렸다. 영악한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기승을 부리는 바람소리와 멀리서 포탄이 작렬하는 소리며, 직일병이 발을 구르는 소리는 졸음을 쫓고 그로 하여금 현실감에 돌아오게 하였다. 문득 래일아침부터 나무를 찾아 운반하다가는 회의시간을 짜내기 어려우리란 생각이 들었다.

곽병식은 일어나려고 했으나 잔등이 바닥에 녹아붙은듯 몸을 움직일수 없었다. 그는 돌아누우며 막 엎어졌다가 두팔로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그가 밖으로 나갔을 때 얼음이 밴듯한 찬바람이 세차게 뺨을 때렸다.

직일병인 찬일이가 문밖에서 덜덜 떨고있었다.

《춥소?》

《안요. 고약한 날씨두. 뜨끈뜨끈한 아래목 생각이 나는데요.》

《외투를 입소!》

《옛!》

찬일은 얼른 병실로 뛰여들어가려고 했다. 곽병식은 그를 멈춰세웠다.

《찬일동무!》

《옛?!》

《동무들을 5시에 기상시켜 용암골로 보내오!》

《?…》

《복창하시오!》

소대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지휘관의 권위를 품고 위압적으로 울리는바람에 옛 경상골의 시계수리공은 빳빳하게 굳어지며 차렷자세를 취했다.

《5시에 기상시켜 용암골로 보낼것!》

소대장은 인차 어둠속에 사라졌다.

찬일은 우들우들 떨면서 그가 사라진쪽을 바라보며 눈만 슴벅거렸다.

《원, 이 밤에 어디로 가신담.》

곽병식은 용암골로 들어가 산기슭을 헤매며 나무를 찾았다.

그날밤, 바람은 류달리 세찼다. 산발들을 깎아내릴듯이 기승을 부리는바람에 골짜기들은 무서운 함성을 지르며 울었다. 적들의 눈먼 포탄들이 산허리와 골짜기들에 날아와 무시로 터졌다. 얼어든 대기속에서 터지는 포탄의 파렬음은 전에없이 앙칼진 금속성을 내며 골짜기 가득 메아리쳤다. 여기저기서 우뢰치는 폭음, 폭음, 돌사태가 내리는 소리, 바람에 찢기며 흩날리는 구름짬으로 순간적으로 쏟아져내리는 달빛이 골짜기와 산허리를 더듬으며 어른거렸다.

무슨 일을 저지르고야만 말것 같은 밤!

곽병식은 한시간 남짓 산을 헤맨후에야 산중턱 사태가 진 자리에서 통나무머리가 삐죽이 내민것을 찾아냈다. 파보니 흙속에 또 3대의 나무가 묻혀있었다. 그는 온몸이 물주머니가 되여 그것들을 파내서 내놓고 만져보았다. 파편자리가 별로 없었다. 도끼로 대충 다듬어서 나란히 눕혀놓고보니 그쯘한 동발감들이였다.

그는 그옆에 앉아 모자를 벗어서 얼굴의 땀을 문질렀다. 그리고 후— 한숨을 내쉬였다. 소대병실에서 고요히 자고있을 대원들의 얼굴들이 떠올랐다.

그는 대견한 생각까지 들어 나무들을 자꾸 돌아보게 됐다.

그는 그것들과 이야기했다.

《이보게 친구들, 고마우이! 자네들두 날 만나 섭섭할건 없을거네. 갱도속에서 한식구가 돼보자구. 누가 자네들 푸른 가지들을 재로 만들어버렸구 누가 자네들 미끈한 허리를 파편으로 쳐서 꺾어버렸나! 그놈들을 치는 대들이판쌈을 보게 될거네!》

나무를 짚고 묵묵히 앉아있는 그의 눈에선 웅심깊은 분노가 빛나고있었다.

곽병식은 통나무를 일으켜세워놓고 어깨를 들이밀고는 허리를 폈다. 땅에 붙었던 나무통 한끝이 들리자 무쇠같은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지지누른다. 순간 휘몰아치는 바람을 안은 그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뒤걸음질치다가 통나무의 무게가 한옆으로 쏠려 비칠거리며 모재비걸음을 쳤다. 무엇인가 거대한 힘이 그를 앞으로 콱 밀치며 땅바닥에 멧다꼰졌다. 눈앞에서 불이 번쩍했다. 그는 얼굴을 때리는 모래와 입안에 쓸어드는 쓰디쓴 화약맛을 느끼며 초연속에 딩굴다가 포탄구뎅이속에 구겨박혔다. 머리를 싸쥐였다. 흙덩이들이 잔등을 아프게 때린다. 포화, 포화, 번개치는 섬광, 그때마다 어둠속에서 산들의 톱날같은 륜곽들이 언뜻언뜻 드러났다 사라진다. 산들은 마치 폭음에 소스라쳐 놀라며 껑충껑충 뛰여올랐다가는 어둠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며 산산부서지는듯했다.

곽병식은 포격이 뜸해진 다음 밖으로 기여나와 나무들을 만져봤다. 산산쪼각이 났다. 포탄에 명중된것이다. 그는 온몸에 전률을 느꼈다. 화염처럼 확 솟는 분노가 그의 몸을 불살랐다. 그는 달려나갔다. 초연을 헤치고 바람을 뚫고… 앞에서 신음소리가 났다. 어둠속에서 부상자를 업은 전사가 뛰여나왔다. 선검열 나왔던 련대 통신병들이였다. 불을 뿜는듯한 통신병의 눈이 그를 쳐다보며 디룩거렸다.

《소대장동지, 피하십쇼! 참모부 통보를 못들었습니까. 오늘밤 저새끼들이 마구 들부실판이랍니다!》

그 말이 딴 세상 소식처럼 느껴졌다.

곽병식은 달려나갔다. 손더듬으로 나무를 찾았다. 기여오르고 미끄러져내리고 딩굴면서 찾았다.

이윽고 그는 허물어진 포진지자리를 찾았다.

나무들을 끌어내서 나란히 눕혀놓았다. 하나, 둘, 셋, 넷… 열대였다.

이날밤 포격은 그만을 쫓아다니는것 같았다. 곽병식은 나무들을 은페시킬 장소를 찾았다. 포진지에서 열댓걸음 옆에 깊은 폭탄구뎅이가 입을 벌리고있었다. 그는 나무들을 메다가 그 구뎅이속에 굴려넣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힘든줄 몰랐다. 나무 한대라도 상하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일념뿐이였다. 그것들이 목숨이 있는것처럼 귀중하게 여겨졌다. 줄포탄들이 근처에 와 터졌다. 파편들이 날아지나가는 앙칼진 금속성이 그의 마음을 찢었다. 그는 포진지와 폭탄구뎅이사이를 뛰여다니며 나무를 메날랐다. 마감 나무를 메러 갈 때 그의 머리우에서 공기가 사납게 진동했다. 포탄이 날아오는 아츠러운 소리, 그는 자기 몸이 어떻게 날아갔는지 몰랐다. 이마와 가슴팍이 나무에 힘껏 부딪치는 충격! 시퍼런 번개불이 눈을 때린다. 곽병식은 나무를 꽉 끌어안는다. 세찬 폭풍이 옆구리를 치며 흙에 묻혔다. 귀안에서 앙—하는 소리가 터졌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그 음향속에서 누구를 부르는듯한 목소리들이 간간이 울렸다.

곽병식은 흙을 털며 머리를 들었다.

《소대장동지—》

《소대장동지—》

그 부름소리들은 골짜기밑과 릉선우에서도 울렸다. 막막한 어둠속에서도 자기 대원들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그는 나무를 꽉 그러안으며 흐느꼈다.

뜨거운 격동이 가슴을 쳤다. 희열이 북받쳤다.

《소대장동지—》

명보의 목소리다.

《소대장동지—》

박광준의 목소리다.

곽병식은 벌떡 뛰여일어났다. 어둠때문에 전사들이 아무것도 볼수 없다는것도 모르고 그는 팔을 내저으며 부르짖었다.

《내— 여기 있소— 동무들— 노다지판이요—》

달려온 전사들은 소대장을 부둥켜안고 돌아갔다.

《5시에 오라는데 왜 벌써들 왔소？》

《다치지 않았나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소대장동지！》

《야—》

《통신병들이 들렸댔어요！》

…소대 군무자총회에는 고병근중대장과 김문규정치부중대장이 내려왔다. 한시간도 못되는 짧은 시간에 진행된 군인들의 모임이였지만 많은 창발적인 발기들이 제기되였다. 분대호상간 경쟁이 체결되였으며 새로운 작업방법들이 발기되였다.

박광준을 비롯한 몇몇 전사들은 앞으로 갱도내부를 알뜰하게 꾸리자면 문틀, 문턱, 사물고, 밥상, 칼도마 등등 재목들이 많이 요구될것이므로 비록 동발감으로는 적당치 않더라도 쓸만한 나무들은 버리지 말고 다 운반해오자고 제기했다. 이날부터 소대는 새로운 열정으로 작업에 돌진했다. 전사들은 포화속을 뚫고 나무를 메고 뛰였다. 그들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구상해주신 요새화된 갱도를 눈앞에 그려보며 달렸다. 어버이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달렸다.

어느날새벽, 동발나무들을 메고 용암골어구에까지 나온 3소대원들은 고지로 올라가는 큰 골짜기를 따라 행군하는 긴 대오와 마주쳤다.

새벽 미명에 파르스름하게 보이는 초연속을 뚫고 외줄로 늘어선 대오는 열정에 넘쳐 꿈틀거리며 움직이고있었다.

련대 자동총중대였다. 그들은 무거운 물체가 들어 축 드리운 배낭들을 메고 땀을 철철 흘리며 지나갔다. 대오의 옆으로는 가마니에 넣은 무거운 짐들을 잔등에 잔뜩 실은 군마들이 머리를 끄덕이며 지나갔다. 말발굽밑에서는 불꽃이 번쩍번쩍 일었다. 그 대오속에는 역시 배낭을 진 강태욱련대장의 모습도 언뜻 보였다. 그들앞을 지나가는 대오에선 무엇인가 뜨거운 감격의 선풍이 휘몰아치고있었다.

전사들은 나무들을 내려놓고 벙벙해서 바라만 보았다. 명보가 한 마사원을 알아보고 소리쳤다.

《박격포아바이— 말잔등에 실은게 뭔—가요？—》

마사원은 얼굴을 돌리며 벌쭉 웃었다.

《어— 이거 3중대 명보아주바인가—복을 싣고 가네.—》

《뭔—가요？！—》
마사원은 다시 벌쭉 웃기만 하고 말고삐를 당기며 지나가버렸다.
그들은 첩첩 준령을 넘고 포연속을 뚫고 자기들에게로 어떤 사랑이 줄기차게 흘러오고있는지 아직은 모르고있었다.

자동총중대 전사들이 메고온것은 얍슬하고 번듯하게 넓은 돌들이였다. 채석장에서 까낸것들이였다.
《동무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 군단에 오셨댔소.》
강태욱련대장의 얼굴에는 감격과 흥분이 물결쳤다. 전사들은 뜨거운 정이 아름차게 안겨와 들먹이는 가슴으로 빙 둘러앉아있었다. 박광준은 벗겨진 목깃 단추를 채우며 몸가짐을 바로 했다. 명보는 련대장앞으로 다가앉았다.
곽병식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전선에 나오셨다는 그 한마디 말에 육친의 품에 안긴듯 온몸이 후더워옴을 느꼈다.
전사들의 숨결은 높았다.
련대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이께서는 전선을 시찰하시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씀을 하시였소. … 지금 미제침략군 우두머리놈들은 아군 방어선을 뚫어보려고 발악적으로 시도하며 비행기, 땅크, 대포, 자기의 추종국가 군대들까지 모조리 투입하고있다. 이 최후발악은 놈들의 강대성을 보여주고있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취약성을 드러내고있다. 놈들은 장기전에서 지쳤고 놈들의 내부는 염전사상으로 썩고있다. 도덕적으로 부패한 군대를 가지고는 우리의 철벽같은 방어선에 쥐구멍도 뚫을수 없다. 이것은 썩은 닭알로 바위를 치는것과 같다. 놈들은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우리 인민들과 군대의 정치도덕적단결이 날로 공고해지고있다는것을 모르고있으며 저들 내부의 정치도덕적부패를 보려 하지 않는다. 그자들은 전쟁을 힘내기로만 알고있다. 여기에 그들 침략군의 군사예술의 근본착오가 있다. 다른 의미에서 전쟁, 이것은 사상과 사상, 도덕과 도덕의 부딪침이다. …썩은 도덕은 생신하고 사랑에 충만된 무쇠같이 굳센 도덕의 힘앞에서 부서지고마는법이다. 공격해오는놈들에게 한치의 조국땅도 양보하지 말며 한놈의 침략군도 살려보내지 말고 제1참호앞에서 소멸해야 한다！ 이것은 적들의 유생력량을 없앨뿐만아니라 놈들의 내부에서 염전사상, 도덕적부패를 촉진시키는데도 의의가 큰것이다. …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화선에서 총을 쥐고 원쑤

와 직접 싸우는 전사동무들을 당은 철석같이 믿는다고 재삼 말씀하셨소!》
전사들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곽병식은 목이 메여 저도모르게 혁띠를 꽉 움켜잡았다. 승리! 자기들의 고된 강행군이며 참호를 파고 포격밑에서 피를 흘리고 원쑤와 맞붙어 혈투를 하고 나무를 메나르고 하는 이 어려운 《행군》의 목적지인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것 같았다.
강태욱련대장은 곽병식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는듯했다. 그도 련대장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강태욱은 그와 단 둘이서 무릎을 마주대고 이야기하듯 조용조용 말을 이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통신대대갱도안에 들어가보시였소. 다 돌아보시고나신 그이께서는 통신대대장에게 왜 온돌을 놓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였소. 통신대대장동무는 그이를 안심시키려고 땅속이기때문에 겨울에도 훈훈하여 추운줄 모르고 지낸다고 말씀올렸소. 그이께서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였소.
최고사령관동지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의 그늘이 비끼시였소. 문득 그이께서는 대대장동무의 잔등을 가볍게 두드리셨소. 〈대대장동무, 옛날부터 조선사람은 뜨뜻한 온돌에 잔등을 지지며 푹 자고나야 아침에 몸이 거뿐해지고 힘이 난다고 일러오오!〉 그이의 얼굴에는 다시 환한 미소가 어리시였소. 그이께서는 무엇인가 옛일을 더듬으시는것 같으시더니 가볍게 한숨을 지으셨소. 〈우리 어머님들은 저녁이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부엌에 장작불을 지피셨소. 그리고 아들들을 아래목에 눕힌 다음에야 마음을 놓으시고 밤새 물레질을 하시였소. 온돌을 놓읍시다. 갱도속이 아무리 춥지 않다 해도 온돌을 놓읍시다! 그러면 우리 전사들이 추운데서 잠복근무도 수행하고 보초도 서고 작업도 하고 돌아와서 뜨끈한 아래목에 누우면 어머니 품속에 있는거나 같이 생각되지 않겠소.〉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소.》
전사들속에서 누군가 눈물을 삼키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조선사람이다! 조선사람식으로 살며 우리 식으로 놈들과 싸워야 한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소.》
강태욱련대장은 말을 계속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굴뚝을 잘 내야 온돌에 불이 잘 든다고 하시면서 우리하고 마주앉으시여 그 문제를 놓고 오래 토론하시였소. 다른 부대 경험을 례로 드시면서 가르쳐주셨소. 굴뚝은 갱도 입구쪽에 내는것이 좋고 갱도 한쪽 벽밑을 따라 나오며 고래를 빼면 연기가 잘

빠진다고 말씀하셨소. 그리고 화선갱도에는 사단에서 채석장을 만들어서 온석을 공급해주라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셨소. 떠나시면서 그이께서는 최고사령부에 전과보고를 할 때면 화선갱도들에 불이 잘 드는가 어떤가도 잊지 말고 꼭 알려달라고 당부하셨소!》

강태욱련대장은 갱도에 온돌을 놓고 최고사령관동지께 불이 잘 든다고 보고를 올리자고 격정을 담아 말을 마쳤다.

전사들은 앞을 다투어 온석을 가슴에 안고 갱도안으로 뛰여들어갔다.

곽병식은 전사들과 함께 온석을 날랐다. 안에서는 김문규정치부중대장과 몇명의 전사들이 온석을 받아서 갱도량옆에 정히 쌓았다.

곽병식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돌이 아니라 헤아릴수 없이 많은 뜨거운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고귀한 그 무엇으로 느껴졌으며 그 무게는 따뜻한 사랑과 함께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의 중량감으로 느껴졌다. 전사들은 말없이 돌들을 날랐으나 갱도안에는 터질듯한 뜨거운 격정이 차고넘쳤다. 그들은 온석모서리에서 모래알만한 돌쪼각 하나라도 떨어질세라 조심조심 나르고 다루었다.

온석을 김문규정치부중대장에게 맡긴 박광준이 구석쪽에 돌아서서 팔소매를 눈에 가져가는것이 보였다. 곽병식은 가슴이 뭉클해지며 목구멍에서 설음같기도 하고 행복감같기도 한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갑자기 침묵을 째며 구석쪽에서 날카로운 속삭임이 터졌다.

《불효자식이지 뭐예요？!》

곽병식은 온석을 안은채 놀라서 그쪽을 보았다. 온석무지쪽에 조칠성이가 엉거주춤해서 머리를 떨구고 어찌할바를 모르고 서있고 명보가 홱 돌아서 뛰여나왔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방울이 흩날렸다. 곽병식은 돌을 나르고있는 전사들의 얼굴마다에서 번들거리는 눈물을 보고는 걷잡지 못할 격정에 휩싸여 밖으로 나왔다. 그는 갱도에서 파낸 버럭으로 이루어진 넓지 못한 마당가녁에 돌아서서 눈을 슴벅거리며 동쪽을 보게 되였다. 자욱한 포연의 바다우에 널려있는 고지꼭대기들이 다도해의 풍경처럼 펼쳐졌는데 그 저쪽 하늘과 포연이 한데 어울려 쇠물빛으로 끓고있는곳에서 이글거리는 거대한 불덩어리가 움쭉움쭉 뛰여오르는것이 보였다. 마치 포연속에 한 거인이 뻗치고 서서 무쇠팔뚝으로 그 불덩어리를 떠받들어올리는것 같았다.

그는 문득 놀라운 감명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매일아침 늘 보아온 우주의 발광체가 아니라 강태욱련대장이 언제인가 말한 방어전의 불바다우에 떠오른 눈부신 태양이였다!

6

이날 김문규정치부중대장은 갱도를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 전사들과 떠들썩 웃으며 담화했다.

《아침에 동무들의 눈물을 봤을 때 나도 속으로 울었소. 수령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갱도를 번쩍번쩍하게 꾸리자구. 우리는 모두 지난날 공장과 농촌에서 일해온 동무들인데 재간과 힘을 모은다면 무슨 일인들 못해내겠소. 칠성동무도 본때를 보이자구.》

그날은 하루종일 해별이 쨍쨍 내려쬐였으나 밤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댔다.

새벽에 일찍 잠을 깬 곽병식은 누구든 자지 않고있으면 무슨 얘기라도 하려고 몸을 일으켜 잠자는 대원들을 돌아보았다. 조칠성과 명보의 자리가 이빠진것처럼 비여있었다.

곽병식은 밖으로 나가 보초서고있는 박광준에게 물었다.

《소대장동지는 못들었습니까? 둘이서 밤새 쑥덕공론을 했는데요. 후방부 골짜기에 딩구는 늪도람통을 봐둔 모양입니다. 그걸 가져다가 갱도안을 꾸리자구 별별 궁리를 다 털어놓더니… 참 성급하기두… 그걸 가지러 간것 같습니다.》 박광준의 대답이였다.

날이 다 밝아서야 그들이 돌아왔다. 메고온것을 부려놓은 그들은 무슨 산짐승이나 잡아서 메고온 사람처럼 부산을 피우며 떠들어댔다. 아침식사후 휴식시간에 전사들은 도람통의 얄팍하고 번듯한 늪판을 만져보고 두드려도 보면서 갱도안 병실문들에 달 손잡이를 만들자거니 목욕탕바가지를 만들자거니 하면서 떠들썩한 론의들을 했다.

《온돌까지 놓으면 알뜰한 살림집 부럽지 않게 되겠는데 한번 번듯하게 꾸려놓잔말이요!》

하고 곽병식이가 말하자 명보가 눈을 빤짝이며 그 말을 받았다.

《눈이 번쩍 뜨이게 꾸리자요!》

흥겨운 론의끝에 신찬일의 의견대로 제일 만들기 쉬운 둥글넙적한 세면대야부터 만들기로 하였다.

《하, 이거 전사가 뻰쩍거리는 늪대야에다 세면을 한다! 허허…》

《좀 솜씨를 보이잔말이요. 몇년동안 참호만 팠다구 별별 기계를 다

만들고 다루던 옛날솜씨를 잊어먹었을가！》
《내앞에서 큰소리 치지 말라구. 이 손은 이래뵈두 배기계들을 다루던 손이야！》
전사들은 흥성거렸다. 곽병식은 그들의 이런 말들과 빛나는 눈들에서 창조적로동의 희열에 넘쳐 살아온 그들의 지난날의 생활체취를 느끼는듯했다. 곽병식은 조칠성, 리명보, 신찬일에게 중대 대장간에 올라가 오늘중으로 늄대야시제품을 몇개 만들라는 과업을 주었다. 점심시간에 그가 대장간에 올라갔을 때 세 전사는 크고작은 각이한 모양의 대야 세개를 만들어놓고 윤을 내느라고 보드라운 재로 닦고있었다. 그 늄대야시제품들을 안고 곽병식이 중대부로 갔을 때 그곳에는 황득범이와 서동길이까지 와있었다.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그는 자기를 쳐다보는 황득범중기소대장의 눈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했다. 부러워하는것 같으면서도 동정하는것 같은 이상야릇한 눈길이였으나 곽병식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미처 가늠해볼 경황도 없이 군관들의 떠들썩한 환성에 포로되고말았다.
군관들은 저마다 늄대야를 빼앗아 구경하며 감탄을 금치 못해했다.
김문규는 둥글넙적한 대야우에 몸을 굽히고 물을 푸푸 뿜으며 세면하는 시늉을 해보이고는 큰 소리로 웃었다.
《제법이요！ 괜찮아！ 하하하…》
《여보 3소대장동무, 누가 처음 이런 궁리를 했소？》 하고 고병근이가 물었다.
곽병식은 정치부중대장에게 웃음어린 눈길을 돌렸다가 중대장을 보며 대답했다.
《리명보하고 조칠성동무입니다.》
《명보가？！ 허, 그 친구가？！ 조칠성이라, 이거야 참！》 하고 고병근은 대견해하였다.
《중대장동무, 우리 로동계급대표가 어떻습니까？》
《대단하오！》
김문규가 그의 말에 호응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떠들어야겠습니다. 벽보, 전투속보에도 내고 민청회의에도 내놓겠습니다.》
황득범은 그 모든 말들에는 무관심한듯 알른거리는 대야에 이그러지게 비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며 시무룩 웃고있었다. 서동길소대장은 언제나와도 같이 열정에 불타는 눈으로 웃지도 않고 좌중을 돌아보며 말했다.

《3소대장동무가 중요한 문제를 시사해주었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소대에서도 불을 걸겠습니다!》

곽병식은 군관들의 이런 뜻밖의 환성에 어정쩡해졌다가 각이한 모양의 대야 세개를 탁자우에 나란히 놓으며 어느것이 더 마음에 드느냐고 물었다. 둥실둥실한 자기 몸 생김새처럼 언제나 모나게 노는것을 삼가하던 중기소대장 황득범이가 웬일인지 오늘은 얼굴까지 뻘개지며 제 주장을 우겼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인심 후하며 인민군대를 잘 돕고있는 강원도 아주머니들의 수수한 얼굴처럼 둥글넙적한 이 대야가 전사들의 마음에도 든다는것이였다. 군관들은 즐겁게 웃으며 그의 말에 공감했다.

《그럼, 강원도아주머니들 얼굴같은 이 모양으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곽병식은 웃으며 말했다.

군관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할 때 고병근중대장은 곽병식이더러 좀 남으라고 말했다. 서동길소대장이 자기는 벌써 모든것을 다 알고있다는듯 불덩이같은 손바닥으로 그의 주먹을 꽉 쥐여주고 나갔다. 아까 중기소대장에게서 느꼈던 이상한 눈길과 서동길의 이런 암시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아직은 모르고있는 곽병식은 가슴을 울렁거리며 중대장의 얼굴을 돌아보았다.

고병근중대장의 얼굴은 알수 없는 긴장에 굳어져있었고 김문규정치부중대장의 눈은 전에 없는 애정을 담고 그를 보고있었다.

곽병식은 무의식중에 자기 무릎을 쓸어만지며 의아스러운 눈길로 중대장을 쳐다보았다.

고병근중대장은 그의 손을 잡으며 나직이 물었다.

《어디 아픈데는 없소?!》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너무 과로해서 지쳤겠지?》

《괜찮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동무를 적후에 보내기로 결정했소! 저놈들이 우리 갱도가 요새화되기전에 어째보자는것 같소. 우리는 갱도를 완성하기 위하여 선손을 쓰자는게요. 련대장동지가 직접 조직한 습격전투요. 이제 곧 련대에 올라가 구체적인 지시를 받소.》

《알았습니다!》

곽병식은 자리에서 뛰여일어나며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김문규는 손을 잡고 문까지 따라나오며 그의 잔등에서 무엇인가 털어주었다.

곽병식은 밖으로 나왔다. 저 웃쪽 릉선에 서너발의 포탄들이 터지며

파편과 흙덩이들이 윙윙 울며 날려왔으나 곽병식은 가슴에서 준엄한 긴장과 함께 말할수 없는 환희가 터져올라 밝은 얼굴로 교통호를 따라 걸어갔다. 그가 (사람이란 정말 하루앞도 내다 못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둔각으로 꺾어진 교통호굽이를 돌아가는데 앞에서 무슨 검은 궤짝들이며 굵은 전기줄두루마리들을 안고 지고 한 련대장 마사원과 낯선 하사관들이 류정혜와 함께 떠들어대며 올라오고있었다. 류정혜를 보자 곽병식은 그들이 들고오는것이 새로 도착한 방송기재들이란것을 알았다. 마사원은 그를 보자 반겨웃으며 다가왔다.

《마사원아바이, 안녕하십니까?!》

곽병식은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했다.

《소대장동지, 훤합니다! 반가운 소식이라도 받았는가요?》

《우리한테서야 늘 기쁜 일뿐이지요!》

《하, 정말 그렇습니다. 그저 3중대에 오면 제 집에 온것 같다니까요. 허허… 련대에 올라가있으니 조심스러운것도 많고 해서 그저 중대에 있는게 제일이지요!》

《드문드문 오십시오. 우리 후하게 대접할테니!》

곽병식은 싱그러운 마초냄새같은것이 몸에서 풍기는 그와 마주서서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뒤에 서있는 류정혜에게 눈길이 갔다. 며칠전 밤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며 무엇인가 고무의 말이라도 해주고싶었던것이다. 귀밑을 홍조로 붉히며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서있던 정혜는 갑자기 얼굴을 들고 제식훈련이라도 하듯 마사원앞으로 힘차게 걸어나와 발꿈치에서 소리를 내며 그의 앞에 서서 보고했다.

《소대장동지, 방송원 류정혜 통과할만 합니까?!》

교통호를 막아섰던 곽병식은 웃으며 길을 내줬다. 마사원은 교통호를 따라 여전히 힘차게 걸어올라가는 처녀의 뒤모습을 대견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그를 보며 넌지시 말했다.

《보시오. 후방에 있었어도 다 규정대로지요.》그리고는 귀띔해주듯 얼굴을 그의 귀쪽에 가져오며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남자들속에 살면서는 저래야 됩니다. 착실하지요! 허참… 저런 딸만 있으면 업고다니겠수다!》

《왜, 아바이한테는 없나요?》

《맨 고추같은게 달린놈들이 한구들 가득하지요!》

곽병식은 이날 모든것이 즐겁고 유쾌했던지라 마사원의 팔을 부여잡고 그의 몸에 기대며 웃어댔다.

제 6 장

시 련

1

3소대에서는 20명의 대원들이 습격조원으로 선발되였다. 습격조명단의 첫자리에 이름이 적힌 조칠성은 명보의 어깨를 쥐여흔들며 한바탕 해보자고 하며 벌쭉거렸다.

그는 새 사람으로 소생한듯 활기를 띠고 떠들어대면서 뛰여다녔다. 명보는 습격조에 망라 못되여 서운해하는 동무들앞에서 그가 체면없이 기쁨을 뿜어대고있는것을 못마땅히 여기며 그저 오돌찬 몸매를 날래게 놀리면서 자기 차비만 수걱수걱 깐지게 하는것이였다. 그는 내의도 새것으로 갈아입고 신발끈도 낡은것을 풀어버리고 새것으로 바꿔 꿰였다. 박광준은 자기가 한철흠,조칠성,명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습격조에 망라된데 대하여 어정쩡해하는것 같았다. 곽병식은 습격조원들을 데리고 련대후방부 뒤골짜기에 가서 다른 구분대에서 올라온 네개의 습격조와 함께 련대정찰참모와 공병장의 지휘밑에 적후 기습전에서 필요한 훈련을 받았다. 하루 훈련이 끝난 어느날 저녁 습격조원들은 모여앉아 담배를 피우며 떠들썩하게 이야기판을 벌리고있었다. 그때 조칠성은 박광준이가 육중한 몸을 날려 장애물을 뛰여넘던 흉내를 내며 적후에 들어가 짐이 될가봐 걱정이노라고 익살을 부렸다. 그러나 명보는 다른 말을 했다. 《걱정말라요. 칠성동무도 광준아바이만큼 침착하게 행동하진 못할거예요. 적후행동에서는 무엇보다 침착성이 중요하거던요.》

곽병식은 여느때 같으면 웃어넘길수도 있었으나 적후습격을 앞둔 때인지라 저녁식사후 조칠성을 불러놓고 따끔한 지적의 말을 했다.

《습격조원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선 지휘관들이 신중히 토론했소. 물론 롱이겠지만 광준동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품지 마오. 전우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소. 동무는 전

투경험도 많은데 그를 더 도와줘야겠소.》
《알았습니다! 소대장동지, 그럼 제가 가서 빌가요?!》
습격전투에 나간다는 기쁨으로 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진 조칠성은 여전히 즐거운 얼굴로 말했다.
《그만두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되오. 그리고 그를 잘 도와주오.》
박광준은 습격조원들이 림시 류숙하고있는 토굴뒤 바위옆에 앉아서 근심스러운 얼굴로 발싸개를 다시 감고있었다.
《하긴 저도 동무들 짐이 될가봐 은근히 걱정입니다.》
곽병식이 그의 옆에 앉으며 이번 습격전투에서 민활하게 움직이자고 고무의 말을 했을 때 광준은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였다.
《광준동무는 왜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낮추어 생각합니까. 왜 자기 힘을 못믿고있나요. 자기 힘을 믿는 사람만이 용감할수 있습니다. 나는 광준동무가 잘 싸울수 있다고 믿기때문에 습격조에 망라시키자고 제기한것입니다.》
소대장의 이 말은 진실이였다. 그는 동발나무를 메나르는 작업과정에서 광준의 근면성과 성실성을 봤으며 포탄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쉬임없이 기분과 감정의 파동이 없이 꾸준히 일하여 누구보다 나무를 많이 메나르던 그의 모습을 보며 은근히 대견하게 여겼던것이다. 광준을 습격조에 망라시키는 문제를 놓고 한철흠이도 처음엔 머리를 기웃거렸으나 게으른 병사는 용감할수 없고 근면한 병사만이 참되게 용감할수 있다는 좌우명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싶어하는 그인지라 인차 동감했다.
박광준은 얼굴에 생기를 띠우며 소대장을 돌아봤다.
《사실 저한테 그런 결함이 있습니다.》
곽병식은 훈련에서 남다른 요구성으로 그를 대하며 몇번이고 반복동작을 시켰다. 박광준은 커다랗고 육중한 몸을 둔하게 움직이며 철조망밑을 기여다녔으며 담장에서 둔중하게 뛰여내렸다. 삵이나 다람쥐처럼 날래고 맵시있는 조칠성이나 명보의 동작에 비할 때 광준의 이런 동작은 웃음을 자아내는것이였으나 어찌나 극성스럽게 련습하는지 눈물겨울지경이였다. 박광준은 전사들이 보는 앞에서 거듭 반복동작을 하고도 창피해하지 않고 오히려 장한 일이라도 치르고난 사람처럼 웃으며 땀을 훔치는것이였다. 출발에 앞서 습격조에서는 감기에 걸린 두명의 전사를 제외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적후활동에서는 때로 기침소리가 뜻하지 않은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기때문이다. 떠나는 습격조를

바래우러 나온 군관들과 전사들 속에 섞여있던 찬일은 박광준의 바지주머니에 무엇인가 찔러넣어주고 부러운 눈매로 쳐다보며 말했다.

《광준동무, 이사람 딴 사람이 된것 같애. 출세를 했어! 난 앉아뭉개면서 대야나 만들게 됐으니 이거야 참…》

광준은 측은해하는 눈으로 그를 돌아보며 위로의 말을 하는것이였다.

《뭘 그러나, 차례가 이번뿐일라구. 우리도 갱도를 위해 떠나구, 대야를 만드는것도 갱도를 위한건데 너무 상심말라니.》

경계가 심한 적전연을 돌파할 때는 대대 박격포가 그들의 좌우편을 쏘아주어 무사히 지날수 있었다. 적 후방으로 10여리가량 들어가서는 비교적 마음을 놓을수 있어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였을 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습격조는 밋밋한 산기슭 관목숲의 어둠속으로 전진하다가 방향을 꺾어내려와서 앞에 보이는 묵은밭 건너편에 있는 산에 붙기 위하여 한데 몰켜서 정황을 판단하느라고 두리번거리고있었다. 이때 아래쪽에서 난데없는 총소리가 울리며 예광탄들이 그들의 눈앞을 스쳐지나가고 무엇인가 커다란 검은 덩어리가 육중하게 땅을 굴며 씩씩거리면서 그들이 있는 산기슭으로 마주 뛰여왔다. 습격조는 발견된줄 알고 그 자리에 엎드렸다. 탄알들은 앙칼진 비명을 지르며 관목숲에 와 박혔다. 곽병식은 자동총안전장치를 풀고 앞을 쏘아보았다. 예광탄들은 마주달려오는 검은 덩어리에 집중되고있었다. 검은 덩어리는 바로 그들에게서 얼마 안되는 묵은밭 지경까지 와서 껑충 뛰여오르는것 같더니 하늘이 허물어져내리는듯한 무시무시한 고함을 지르며 땅에 쓰러져 흙을 뿌리며 뒤채였다. 곽병식은 그제야 그것이 황소란것을 알아보았다. 우르르 밀려온 적병들이 도살장에서 도끼에 이마를 빗맞고 뛰쳐난 황소를 둘러싸고 죽어가는 그것보다 더 큰소리로 씨근덕거리며 마구 욕설을 퍼부었다. 허우대 큰놈이 히히덕거리며 황소대가리를 만져보더니 도끼를 번쩍 들어서 이마를 들이쳤다. 황소는 큰 한숨같은 소리를 내며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늘어졌다. 놈들은 달려들어 도끼와 칼로써 황소 배를 가른다, 각을 뜬다, 목을 자른다 야단법석을 했다. 땅딸보같은녀석이 그들이 엎디여있는 숲쪽으로 엉기적거리며 다가오더니 오줌을 갈기며 기침을 쿨렁쿨렁 깇었다. 습격조원들속에서 누군가 북받쳐오르는 적개심을 가까스로 참다가 터지는듯한 기침소리를 냈다. 그놈은 이쪽을 빤히 바라보았다. 곽병식은 머리칼이 곤두섰다. 놈은 그것이 자기편 기침소리인줄로 알았던지 돌아서 가버렸다. 그놈은 하사관쯤 되는지 백정일에 손을 대지

도 않고 서있으면서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던지 이쪽을 흘끔흘끔 돌아보았다. 또다시 누군가 참지 못해 톺는 신음이 섞인 기침소리를 내자 뒤따라 전염이 된듯 2,3명의 조원들이 기침을 깇었다. 곽병식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조원들을 돌아보며 경계를 시켰으나 자기자신도 기침이 터져오르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그는 한손으로 입을 꽉 막았다. 기침이란것은 막아보려고 긴장하면 할수록 더 기승을 부리는 모양이다. 곽병식은 목구멍이 참을수 없이 근질거리며 가슴이 꿈틀꿈틀 떨렸다. 피할길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 박두했다고 의식한 그는 단호한 생각까지 하게 되였다. 그러나 종심에서 기동해오고있는 적 중곡사포대대를 습격할 장소인 오봉령에 도착할 때까지는 어떤 역경에서도 전투를 피하라는 련대장의 명령을 받은 그로서는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또다시 누구인가 참지 못하고 기침소리를 냈다. 이때 투박하고 뜨거운 손이 곽병식의 손에다 모래알같은것을 쥐여주었다. 돌아보니 한철흡분대장이였다.

《소금입니다.…》 그제야 곽병식은 모든것을 알아맞히고 그 소금 몇알을 입에 깨물었다. 짭짤한 맛과 함께 입안과 목구멍에 시원한 물기가 돌며 끓어오르던 기침이 가신듯이 가라앉아버렸다. 소금은 습격조원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였다. 곽병식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빙그레 웃으며 그를 돌아보았다.

(참 어떤 사람인가! 빈틈이 없어.) 그의 이런 속말을 엿듣기라도 한듯 한철흡은 어색하게 웃어보였다. 그 인상적인 웃음은 곽병식의 가슴에 뜨거운 애정을 불러일으키며 귀중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흔히 사람들에게서 생길수 있는 예감,즉 혹시 이 사람을 잃으면 어쩔가 하는 어렴풋한 불안감까지 들었다. 소를 잡아서 둘러메고 적병들이 물러가자 습격조는 묵은밭을 날파람있게 뛰여넘어 건너편 산에 가 붙었다. 그들이 비교적 안전한 숲속으로 전진하게 되자 조칠성이가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소금도 있겠다,에이 참 요기나 했을걸 그랬네!》

적후활동에서는 때로는 이런 익살이 사람들의 담을 키우는데 보약처럼 효능이 있는지라 곽병식은 그의 든든한 어깨를 주먹으로 가볍게 때려주었다. 소대장의 이런 공감에 기분이 좋아진 조칠성은 뒤에서 따라오는 박광준을 돌아보며 훤한 웃음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박광준의 눈은 불을 뿜는듯 번쩍이고있었다. 아까 적병들이 들고 가는 소고기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를 먼 불빛에 언뜻 보는 순간부터 박광준에게는 적진의 밤세계가 오싹 소름이 끼치도록 다르게 보였다. 그에게는 저아래 어둠속을 비치는 모닥불둘레에 서있는 적병들이 피를 태워서 손을

쬐고있는것으로 느껴지고 여기저기서 번뜩이는 자동차불빛들은 피냄새를 맡고 영악스럽게 으르렁대며 달려드는 짐승들의 눈처럼 보였다. 그리고 땅속깊이 배여들고 대기속에 차있는 휘발유냄새도 다르게 느껴지며 가슴이 뛸 때마다 불덩이같은 적개심이 혈관벽들을 치며 울컥울컥 치밀어올랐다. 그는 이 전쟁에서 무엇보다도 소를 가졌던 농민들이 모욕당하고 땅이 욕을 본다고 생각하며 무엇이 그리 좋으냐는듯한 눈으로 조칠성을 보며 숨을 험하게 몰아쉬였다.

이때 그의 속마음을 알아주는듯 소대장의 뜨거운 손길이 주먹을 꽉 잡아주었다. 순간 박광준은 웬일인지 고마운 생각에 목이 메여 머리를 수굿하고 육중한 몸을 둔하게 움직이면서 칠성의 발꿈치를 따라 배밀이로 기여갔다.

그들은 전진했다. 걸음걸음마다 죽음이 노리고있는 그 길로, 숨을 죽이고, 크게 고동치는 가슴들을 안고 어둠속에 잦아들며 기여갔다.

전사들이 이런 길을 배밀이로 한걸음한걸음 기여가고있을 때 그들을 보낸 우리 군대의 지휘관들은 부하들에 대한 믿음과 함께 며칠밤씩 지지리 가슴태우는 모대김으로 하여 이마와 눈가장자리의 주름살이 늘어나며 자기의 값높은 청춘과 눈에 띄지 않게 한걸음한걸음 작별하는것이였다.

밤중에도 새벽에도 강태욱련대장은 고병근중대장을 전화로 찾았다. 그들사이에는 누가 들을가봐 저어하는듯 이런 속삭임이 오고갔다.

《안자오? 아직 소식이 없지?》

《예, 무사히 될겝니다. 련대장동지, 주무십시오.》

《그 동무들이 물기있는 음식을 너무 먹고 가지 않았소? 건빵은 넉근히 가지고 갔소?》

《련대장동지, 저하고 교대합시다. 주무십시오.》

《내 걱정은 말고 자오, 자오!》

늦가을의 써늘한 대기속에서 전선의 밤은 고요히 깊어갔다. 수많은 지휘관들의 불안한 가슴과 적들의 공포, 적아량군의 은밀한 군사행동들을 어둠으로 덮어주는 전선 밤의 이 거짓 고요는 강태욱련대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였다. 그는 하루밤에도 몇번씩 감시소밖으로 나가 저 먼 적후의 어둠을 바라보기도 하고, 겁에 떠는 벌레들의 촉각처럼 잠들줄 모르고 아군방어선과 하늘을 헛되이 더듬고있는 적 탐조등 불빛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거기에서 무슨 기미를 알아내려고도 했다. 상급참모부의 정찰통보에 의하면 련대와 맞서있는 적들은 증강무력의 도착을 기다리고있었다. 증강되여오는 중곡사포, 화학박격포의

포병대와 기갑부대들은 산악지대의 불리한 도로조건때문에 하루 100키로란 굼뜬 속도로 깊은 종심에서부터 전선으로 기여나오고있었다.

적들에게서는 증강무력이 도착만 되면 곧 공세를 취할 기미가 보였다. 그러나 강태욱련대장은 전투를 바라지 않았다. 그는 될수록 정면충돌을 피하고 갱도요새화를 빨리 완성하여 《갱도에 의탁한 방어체계》에 의한 전투를 벌려 적들에게 만회할수 없는 타격을 주고싶었다.

강태욱은 적들이 공격해오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대담한 습격전으로 적들의 증강무력을 소탕해버리고 배후교란작전을 벌려 놈들의 공세를 사전에 파탄시키며 시간을 얻어내여 갱도를 빨리 요새화할것을 결심했었다. 그는 습격전을 더 잘 조직하기위하여 이 결심을 병종참모일군들과 작전일군들의 집체토의에 붙였으며 제기된 의견들을 참작하여 주도세밀한 계획을 짰다. 5개의 습격조들의 편성, 훈련, 휴식은 계획대로 되였으나 이제 적후활동은 습격조원 매 성원들에게 달려있는것이였다.

이렇듯 강태욱련대장이 뜬눈으로 3일밤을 새우고있을 때 련합부대무전대는 적들의 공개무선통화를 잡았다.

태양계 행성들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각이한 호출암호를 가진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에테르파속에서 서로 가로채며 어지럽게 울렸다.

《해왕성! 목성이 말한다. 목성이 말한다. 기동중이던 기갑부대 석수령에서 기습당함.》

《해왕성! 해왕성, 비석거리 연유창고 폭발.》

《해왕성이 말한다! 해왕성이 말한다! 추격하라! 생포하라!》

《해왕성! 해왕성! 나는 수성!》

《목성이 말한다. 203미리 야포 파괴 23문.》

《헤메스중좌가 피살되였다.》

《해왕성, 헤리콥터를 보내라, 부상자 78명, 화재는 계속된다!》

《추격하라, 생포하라!》

《헤메스중좌 피살.》

《해왕성! 천왕성이 말한다! 미둔리 포탄야적장 폭발! 수색대를 보내라!》

《화성! 화성! 추격하라! 생포하라!》

《천왕성! 천왕성!》

《…추격하라! 생포하라!》

리성을 잃은 적들의 이런 공개통화는 아군 참모부들을 흥분으로 끓

어번지게 했다. 정찰참모들과 작전참모들이 지휘부의 토굴문돌쩌귀에 불이 일게 뛰여다녔으며 지도들에 기습장소들이 표기되고 참모중대교환수들은 다급한 전화독촉에 손이 모자랄지경이였다.

강태욱련대장은 침식을 잃다싶이했다. 그는 처음에는 환상적우주인들의 부르짖음같은 이 공개통화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아군참모부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적들의 상투적인 무전공세인줄로 넘겨짚었다. 그러나 무의식중에 밖으로 뛰여나가 아군방어선에 쏠렸던 수십갈래의 적 탐조등빛줄기들이 모두 자기편 종심에 쏠려서 서로 교차되면서 미친듯이 어둠속을 쓸고있는것을 보았을 때 이 모든것을 믿지 않을수 없었다.

다음날 새벽에 4개의 습격조는 부상자들을 업고 무사히 돌아왔으나 곽병식의 조는 소식이 감감했다. 이틀후, 사흘후, 닷새후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적 탐조등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듯 다시 아군방어선을 비치며 전선의 습관적인 안도감을 풍겼다. 이런 경우 불행과만 결부되기 마련인 온갖 억측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들 18명의 전사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가슴을 괴롭혔다.

고병근중대장은 끼니도 제대로 들지 않았다. 다른 모든 문제에서는 강태욱련대장이 말하듯이 가슴이 절벽강산같은 고병근이건만 사람들의 운명앞에서는 이렇듯 마음이 여리여지는것이였다. 그는 감시소에 나가 적진쪽을 바라보기도 하고 잠복초에 전화로 자주 알아보면서 습격조를 기다렸다. 그러지 않아도 검스레하던 얼굴은 빛이 꺼져흙빛이 되였으며 입술은 눈에 띄게 말라갔다.

여느때 같으면 밤에 자리에 눕기전에 김문규와 지난 생활의 추억도 나누고 롱말도 곧잘 던지던 그였으나 뜬눈으로 밤을 새며 담배만 연거퍼 피웠다.

그러나 김문규는 여전히 생활에 만족해있는 사람다운 누긋하고 안착된 모습 그대로 제강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정리하는가 하면 신문들을 뒤적거리며 담화준비도 하는것이였다. 그는 배낭에서 눈부시게 흰 목달개를 꺼내 갈아달면서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가만 생각해보면 사람의 마음이 별난게지요. 내가 군당선전부에서 일할 땐데 하루는 직일실에서 선전부에 전보온게 있으니 찾아가라는 전화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 부서동무들의 얼굴이 모두 흐려지더란말입니다. 그때 고향의 어머니가 앓고계셨던지라 나는 정신없이 직일실로 달려갔지요. 한데 알고보니 선전부장동무 누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이란말입니다. 허허허… 사람들 마음이란게 이렇거던요. 무슨 불길한 일이라도 생기면 인차 불행이나 재난부터 앞질러 생각한단말입니다. 이게 다 우리 인민의 비참한 지난 생활의 력사가 물려준 습관적인 심리가 아닌지도 모르지요. 과거에 언제 한번 훤한 날이 없이 벼락치듯이 들이닥치는 참혹한 재난을 하도 많이 겪으면서 살아와서 자연 마음이 그렇게 가는가보지요. 그러나 우리 후손들은 다르겠습니다. 그들은 앞날에 대하여 불안해할것도 없고 행복에 대해서만 생각하겠지요.》

바위처럼 웅크리고 앉아있는 고병근은 담배연기와 함께 큰숨을 후— 내쉬며 눈을 껌벅거렸다. 이 사람이 나를 위안하자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구나 하면서도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도 생각되였다.

한편 이렇듯 누긋한 그의 성미가 부럽기도 했다.

이때 문이 벌컥 열리며 서동길소대장이 뛰여들어왔다. 그는 열기를 뿜으며 부르짖었다.

《적후에 보내주십시오. 구원해오겠습니다. 이제는 뻔합니다. 이거야 일손이 잡혀야지요!》

김문규가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다.

《무슨 소리요?!》

고병근은 이렇게 격한 그를 처음 보는지라 놀라서 돌아봤다.

《중대장동지는 생각이 없어 앉아있는줄 아오?! 지휘관인 동무가 이러면 전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소. 동무가 진정 곽병식동무네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들이 피로써 얻어준 시간에 부리나케 갱도작업을 다그쳐야 할게 아니요! 안되겠소! 가기요!》

김문규는 결연히 일어나 서동길을 거느리고 갱도공사장으로 나갔다. 그는 《전우들이 피로써 얻어준 시간으로 갱도공사를 다그치자》라는 안건으로 공개당총회를 열고 전사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전사들과 함께 괭이질을 하고 버럭을 져날랐다.

새벽에 감시소에서 내려와 별생각없이 중대부문을 연 고병근중대장은 흠칫 놀라 서버렸다. 담배연기 자욱한 방안에 얼굴이 어떻다고 말할수 없이 심각하게 굳어진 김문규가 앉아있었던것이다.

고병근은 못볼것을 본 사람처럼 슬그머니 문을 닫고 돌아서나왔다.

(에이구 사람두, 제편에서는 속이 더 썩으면서두 내앞에선 그런 이야기랑 했지. 정치부중대장… 그래… 동무 일두 헐한건 아니여.)

고병근은 큰숨을 내쉬며 눈가장자리에 구슬픈 미소를 그리였다. 그럴수록 고병근은 김문규의 인간됨에 마음을 의지하게 되는것이였다.

아침에 강태욱련대장이 중대로 내려왔다. 그는 중대부에 잠시 들렸다가 고병근중대장과 함께 갱도작업장으로 걸음을 옮기던중 대장간쪽에서 울리는 크고작은 마치들의 률동적인 장단에 끌려 걸음을 멈추었다.

대장간에서는 찬일을 비롯한 습격에 못나간 전사들이 늪대야를 만들고있었다. 그들속에는 류정혜의 침통한 얼굴도 보였다. 련대장을 보자 전사들은 엉거주춤 일어났다. 련대장은 그들이 만들고있는 생활도구들을 만져보며 몇마디 칭찬의 말을 하고는 류정혜를 돌아보며 무엇인가 너그러운 말을 해주고싶어 그앞으로 나가려 했다. 그러나 이 순간 대장간 한옆 바위우에 놓여있는 윤기도는 밥통들이 눈에 띄여 무심결에 그 수를 눈짐작으로 세여보니 다름아닌 18개인것 같은 생각이 들어 련대장은 엄하면서도 흐린 얼굴로 서있다가 인차 대장간에서 나와 갱도작업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강태욱련대장이 정혜에게 하고싶었던 말은 이런것이였을는지도 모른다.

《정혜동무, 보병중대에는 녀성의 손길이 그립소. 전사들은 동무를 보면서 고향에 두고온 어머니와 누이와 애인의 얼굴을 생각할게요. 그러니 동무는 모든 녀성들을 대표하여 이 중대에 서있는 셈이 아니겠소. 전사들과 같이 한집안식구처럼 지내면서 그들의 생활을 밝게 해주기를 바라오!》

련대장이 돌아간 다음 정혜는 제자리에 옹크리고 앉아 보드라운 짚수세미에 재를 묻혀 밑굽이 꺼멓게 그슬린 밥통들을 닦기 시작했다. 머리칼이 헝클어져 이마우에 흘러내리고 이마와 코등에 땀이 송골송골 내돋았다. 홍조가 피여났던 얼굴이 점점 해쓱하고 소침하게 질렸다. 그는 련대장동지가 아까 분명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였을가 하고 생각해봤다. 그는 련대장이 커다란 기대에 찬 눈웃음으로 자기를 보던것을 상기하자 얼굴이 화끈거리며 자신에 대한 치욕스런 생각에 가슴이 에이는듯 아파났다. 자기는 고지에 나온 이후 어떤 감정으로 살았던가? 처음에는 조급증, 다음에는 자존심, 막대꼬챙이처럼 가슴속에서 치밀군하던 그 감정, 귀여움만 받으며 자란 응석받이 사내아이처럼 철없이 머리를 쳐들군하던 그 감정이 지금 와서는 그지없이 얄밉고 혐오스럽게 생각되였다. 정혜는 마감으로 곽병식소대장을 교통호에서 만났던 일을 생각하자 량볼이 불덩이처럼 뜨거워났다. 그리고 그가 이처럼 돌아 못오게 된데는 자기 책임도 일정하게 있지 않는가 하는 자책이 가슴을 괴롭혔다. 그는 땀을 흘리

며 밥통을 닦았다. 마치 닦으면 닦을수록 윤기를 내며 살아나는 빛이 암담한 절망의 어둠속에서 헤매고있을지도 모를 그들의 앞길을 밝히는데 약간의 도움이라도 될수 있는듯이.

《어이쿠, 아파라!》 하는 비명 비슷한 소리에 정혜는 놀라서 머리를 들었다. 마치질하던 몸이 장대하고 얼굴에 구레나룻자리가 시퍼런 상등병이 낯을 찡그리며 왼손을 털었다. 마치로 손가락을 친 모양이였다. 정혜는 얼른 일어나 꺼먼 피가 내돋은 그의 손가락끝에 붕대를 감아주었다.

풀무질하던 얼굴이 기름한 상등병이 그를 보며 웃음절반으로 빈정댔다.

《허우대가 그래가지고 엄살을 피우다니, 나는 간이 떨어질번했네! 대강대강 싸매주라요!》

구레나룻상등병은 그 말에 탓하지 않고 역시 웃는 얼굴로 받아넘겼다.

《다른데를 다쳐서는 찍소리도 안하지. 이 손은 이래뵈두 수백대의 양수기를 조립한 손이야! 남의 등을 쳐먹은 일도 없고 공짜를 받아먹은 일도 없고 굳은못이 박히도록 부지런히 벌었거던. 그런즉 손은 내 량심이란말이요! 허허…》

정혜는 새삼스러운 눈으로 손가락마디들이 굵은 크고 투박한 그의 손을 내려다봤다. 풀무질하는 상등병의 손이나 망치질하고 늪쪼각들을 자르고있는 전사들의 손이나 모두 형제들의 얼굴모습이 어슷비슷한것처럼 그 모양이 비슷했다. 정혜는 자연 수많은 재부들을 만들며 거칠어지고 투박해졌을 그 손들과 자기 손을 비교해보게 되였다. 이 세상에 나서 사람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창조해놓은것이 없는 자기의 해맑은 손이 부끄러워나서 뒤에 감추고싶은 충동까지 들었다.

정혜는 여기로 온 첫날부터 이들의 몸에서 땀냄새와 함께 풍기던 그 억센 기운이 어디서 오는것인가 하는것이 지금에 와서는 어렴풋이나마 알리는것 같았다. 그리고 그 억센 힘앞에서 자기의 자존심따위는 바람에 날려가는 한잎의 누런 락엽처럼 보잘것없이 생각되였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정혜는 더 정성을 담아 밥통을 닦게 되였다.

대장간의 전사들은 다급한 부름소리에 놀라서 돌아보았다. 중대부쪽으로 가는 교통호 둔덕우에서 서동길소대장이 한팔을 내저으며 소리치고있었다.

《대장간! 대장간! 몇 동무만 남고 갱도작업장에 올라가오! 련대

장동지도 버럭지게를 지였소! 습격조동무들이 목숨으로 얻은 시간인데 아껴야겠소!》

정혜는 눈물을 뿌리며 갱도작업장으로 뛰여올라갔다. 열정에 타는 서동길소대장의 그 목소리가 돌아오지 못한 18명전사들의 운명우에 울리는 조총의 메아리처럼 그의 가슴을 때렸던것이다.

2

오봉령에서의 적 포병단에 대한 3소대습격조의 기습은 성공적인것이였다. 그러나 수류탄의 작렬과 아우성과 혼잡과 충천하는 불길속에서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간 이러한 기습전투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던가를 정확히 기억한다는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보병중대들과 소대들에는 편제에 있기라도 한듯 익살군들과 이야기군들이 있어 그들에 의하여 아무 전투에서 누구는 어떻게 용감했고 누구는 어떻게 웃겼으며 누구는 어떻게 기지를 보였는가 하는것이 랑만적인 색채로 가미되여 하나의 옛말처럼 엮어지는것이다.

서른세굽이가 졌다는 오봉령 령길로 12문의 대구경곡사포를 끄는 견인차들이 땅을 진감하며 육중하게 기여오르고있을 때 박광준은 들볶는 가슴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들은 2개씩 묶은 반전차수류탄 4묶음씩 가지고 령길옆 산기슭의 요소요소에 엎디여있었다. 땅이 진감했다.

박광준은 무한궤도 견인차가 끄는 대구경곡사포의 대들보와 같은 포신을 보자 그저 엄청난 생각이 들며 가슴이 뛰였다.

소대장이 던진 첫 수류탄이 앞에서 가는 포에 명중되여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불기둥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신호로 하여 전체 습격조가 수류탄을 들씌웠다. 적 포병들의 행렬에서는 혼란이 일어났다. 련이어 터지는 폭발과 불길속에서 포차들에서 뛰여내리는 적병들의 그림자며 뒤걸음치다가 뒤에 오는 차와 부딪치는 대포며 불붙는 대포를 피해 앞질러 내빼려다가 가파로운 길옆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포들이 보였다. 아우성, 폭발, 불길, 그들은 혼란된 놈들의 포병행렬에 자동총련발사격을 퍼부었다. 《앞으로!》 하는 구령을 듣자 박광준은 벌떡 뛰여 일어나 정신없이 밑으로 굴러내려갔다.

그는 자기가 맡은 네번째 대포에로 달려갔다. 견인차는 화끈한 중유

타는 냄새를 풍기며 불붙고있었다. 그 불길에 운전간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며 그 밑땅에 너부러진 적병의 잔등이 언뜻 보였다. 박광준은 대포에로 달려가서 포신끝을 더듬으며 비옷천으로 지은것 같은 씌우개를 벗기기 시작했다. 그는 덤비지 않기 위하여 이따위 일은 황소주둥이에서 굴레를 벗기는것이나 다를게 없다고 생각하며 차근차근 끈을 풀고 그것을 벗겼다. 그리고는 미리 호주머니안에 넣어두었던 방어용수류탄을 꺼내 안전못을 입으로 물어서 뽑고 《옛다 한대 먹어라!》 하고 속으로 부르짖으며 포신안에 집어던지고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는 불발이라도 되지 않는가 해서 옆에서 기다렸다. 이윽고 귀청을 찢는듯한 폭음과 함께 포가 껑충 뛰여오르는것 같았다. 박광준은 《하, 고녀석이 야무진데!》 하고 수류탄을 칭찬하고는 두리번거렸다. 그는 전혀 겁이 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자기의 이런 모습을 안해가 볼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들었다. 그는 뒤포에로 달려갔다. 명보가 포신씌우개를 벗기려고 껑충껑충 뛰여오르고있었다. 그는 달려가서 명보를 번쩍 안아서 들어주었다. 이 순간 그는 한쪽 허벅다리를 몽둥이로 치는듯한 충격과 함께 목구멍에서 역한 화약내가 솟구쳐오름을 느끼며 몸을 비틀면서 쓰러졌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의 몸뚱이우에 적병들이 마구 덮쳤다. 눈앞에서 불꽃이 튀고 총성,함성이 들렸다. 뜨끈뜨끈한 역한 입김이 입안으로 마구 쓸어들었다. 박광준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억울한 생각과 함께 명보 생각이 가슴을 찔렀다. 그는 한놈을 안고 딩굴며 《명보! 명보!》 하고 불렀다.

…흐릿하게나마 의식을 회복한 박광준은 멀리서 울리는듯한 총성을 들으며 두리번거렸다. 그의 바로 옆에는 대포가 배때기를 하늘에 향하고 벌렁 뒤집혀져있었는데 포바퀴가 천천히 돌아가고있었다. 그제야 박광준은 자기가 령길에서 굴러떨어져 골짜기의 숲속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닫고 벌떡 몸을 일으키려고 했으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령길을 올려다봤다. 그쪽에서는 아직도 불길이 충천하고 비명소리,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총성은 아까 자기들이 기여내려왔던 산릉선쪽에서 울렸다.

박광준은 이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란 어떤 일이 있어도 전우들의 짐이 되지 않는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속에 바위같이 묵직한것이 들어앉는것 같았다. 그는 땅을 주고 행복을 안겨주신 수령님의 은혜에 더 보답하지 못한채 이렇게 주저앉게 된것이 억울하고 분했다. 령길에

서 적병들이 떠드는 소리가 어지럽게 들렸다. 저놈들이 자기를 갱도로 못돌아가게, 안해와 자기 발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못돌아가게 하려고 이 몸을 이처럼 피투성이로 만들어놓았다고 생각하자 앙심이 생기며 모진 마음이 들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인 내가 그냥 죽을수는 없다! 저놈들을 나한테로 끌어다가 피값을 치르자!)

이렇게 마지막 결심을 하고나자 광준은 담배 한모금이라도 가슴후련히 들이키고싶은 생각이 못견디게 나서 안주머니에서 담배쌈지를 꺼냈으나 인차 그럴 경황이 못된다는것을 깨닫고 도로 넣으려고 했다. 이 순간 그에게는 장렬한 최후를 마친 자기에게로 달려드는놈들중에서 남색공단천에 수까지 놓아서 곱게 기운 이 담배쌈지에 탐을 내는 놈들이 있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안해의 변함없이 깨끗하고 무던한 사랑이 깃든 그것을 더러운 손들이 릉욕하듯 주무르리라는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불로 지지우는듯 아파났다. 박광준은 더운 입김으로 그것을 쓸어만지며 정겹게 내려다보다가 모진 마음을 먹고 북 찢어서 바위밑에 밀어넣었다. 그리고 모든 시름을 던듯 마음이 가벼워져서두르지 않고 허리에 차있는 수류탄 두알을 꺼내여 안전못을 펴서 옆에 놓았다. 그리고나서 총을 들고 적들이 자기 위치를 잘 알수 있도록 하늘에 대고 마지막 총탄을 발사했다. 령길에서 《저쪽이다!》 하고 소리지르며 놈들이 밀려내려오는것이 보였다. 그러나 적병들은 무엇이 두려운지 주춤거리면서 허리를 구부정하고 기여내려오는것 같았다.

박광준은 수류탄을 틀어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부르짖었다.

《뭐가 겁나?! 이놈들아 빨리 오라!》

그러나 이때 하늘땅을 들었다놓는 자동총 련발사격소리와 함께 내려오던놈들이 비명을 올리며 쓰러져 나무토막처럼 굴러내리고 한사람의 그림자가 앞으로 달려왔다.

박광준은 보지 않고도 자기 소대장의 체취를 느꼈다.

《소대장동지! 왜 왔습니까?!》

소대장은 말없이 달려들어 그를 업고 골짜기를 따라 올리뛰였다. 박광준은 울음을 터뜨렸다.

《꽉 잡소!》 소대장은 엄하게 욕했다.

박광준은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에 그의 목을 꽉 끌어안고 헉헉 느끼며 울음을 삼켰다.

3

렉스포드는 신진대사를 위한 배설의 본능만 아니였던들 바깥출입을 거의 삼가했을것이다. 하루밤사이에 들이닥친 인민군대의 기습에 의하여 새 공격준비를 위하여 알심을 들여 마련하였던 포탄적재장과 포진지들, 기동중에 있던 중곡사포 등 모든것들이 녹아난 이 급변한 사태앞에서 놈은 당황하고 분개한 나머지 거의 절망상태에 빠졌다. 그나마 강한 자부심때문에 그 모든 심적고통을 한가슴에 안고 묵새기려고 애썼다. 그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제2제대의 백상기소령을 징벌함으로써 화풀이할수도 있었다. 하나 그것은 자기의 불안과 취약성을 드러내는것으로 되기에 삼가했다. 그는 자기의 이그러진 얼굴을 부하들에게 보일수 없어 가슴을 눅잦힐 때까지 방안에 불박히려고 했다.

가스등이 켜졌으나 방안은 전에 없이 어둑시근했다. 문밖에서 쌍보초가 뚜벅뚜벅 오가는 소리가 들릴뿐 방안은 죽은듯이 고요했다.

렉스포드는 의자에 앉아 한손으로 눈을 가리우고있었다.

피해장소를 시찰할 때 본 포탄적재장소의 불기둥이며 파괴된 대포들의 잔해들과 길바닥에 널려진 시체들이 어지러운 환영처럼 눈앞에 어른거린다.

밖에서 쌍보초들이 중얼거리는 소리에 렉스포드는 눈을 떴다.

방안은 악몽속에서처럼 교교하고 침침하다. 저 어둑시근한 구석이 아니면 휘장뒤에서 칼끝같은 눈길이 자기를 빤히 엿보고있는것 같아 그는 오싹 몸부림쳤다.

헤메스중좌의 야전가방이 탁자우에 놓여있다. 그것은 범접할수 없는 공포감과 구슬픔을 방안가득 풍기며 영원한 침묵속에 령구처럼 누워있었다. 야전가방의 터진 한쪽모서리로부터 토색과 황색의 얼룩무늬로 덮인 수첩이 삐죽이 내밀고있다.

렉스포드의 눈길은 자꾸만 그 수첩에 끌렸다. 설명할수 없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려는듯 놈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거닐었다. 헤메스중좌는 클라크의 신임장을 가지고 그의 부대에 온 심리작전장교였다. 부대에 체류한 이 며칠동안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흥미는 없었으나 어쨌든 각이 진 무테안경을 끼고 목사의 얼굴처럼 해말쑥하고 정중

한 그의 인상은 렉스포드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의 시체는 간데 없고 모자와 가방만 폭발한 포탄야적장근처에 떨어져있었다. 그가 어떻게 되여 그리로 가게 되였는지도 알수 없었다.

렉스포드가 구석쪽으로 갔을 때 탁자에서 버스럭 소리가 났다.

렉스포드는 흘찍 놀라서 돌아봤다. 가방모서리가 안에 든 물건의 무게때문인지 저절로 벌어지며 수첩과 무슨 가죽곽같은것이 비죽이 내밀렸다. 그리고 시꺼먼 물이 피처럼 뚝뚝 떨어지고있었다.

렉스포드는 탁자에로 다가가서 내려다봤다. 그것은 안에서 무슨 약병이 깨져서 약물이 슴새여내리는것이였다.

그는 수첩을 빼들었다. 뚜껑을 번지니 안에 《비망록》이라고 씌여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비망록》을 펼쳤다. 짤막짤막한 일기토막들이 적혀있다.

×월 3일

8군사령부에서 웨스트,포인트 동창 클레조대좌와 만남. 마셨다.

그는 나에게 아래와 같이 말했다.

《전쟁의 장기성이 미군을 타락시켰다. 모든것이 기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어제 전선중부에서 죽은 헐빈대좌의 령구를 비행기로 실어왔다. 사령부에 근무하는 그의 동생인 공병대위가 관을 열어보더니 기절했다. 다른자의 시체였던것이다.》

×월 27일

어제 정보장교 인톤중위가 나에게 귀띔했다.

《우리 미군에 당신과 얼굴이 비슷한자가 없을가요?!》

《왜?》

《상이군인들을 조심하시오.》

《왜?!》

《어제 술취한 상이군인 네명이 소좌를 찔러죽이고 그의 팔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범인들은 즉시 체포됐는데 그자들은 자기들의 무죄를 주장하고있습니다. 피살된 장교는 자기들의 상관이였는데 일선에서 자기들을 무모한 돌격에 내몰고 류탄포사격으로 퇴로를 막아버렸다는것입니다. 그자들의 론거란 이런거지요. 〈우리는 그 싸움에서 팔다

리를 잃었다. 너는 훈장을 받았다. 이것은 불공평이다. 너도 팔다리를 잘리워봐라.〉 장교의 시체를 조사한 결과 그 장교는 살인자들의 상관인게 아니라 그저 그와 얼굴이 비슷한 장교였답니다.》

《허…》

×월 16일

조선에 와서 첫 기쁨은 동향친구 렌레스를 만난것이다. 그는 ×사단 군의감으로 있다. 어제 그는 나에게 일선장교들중 60프로는 정신이상자로 봐서 틀림없다, 몽유병환자가 속출되는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월 19일

《우리는 인민군측에 주도권을 빼앗겼다. 그들은 싸울수록 강화되고 있다. 무적의 우리 제5공군도 평양이북에서 제공권을 빼앗겼다. 수치다!》 이것은 메클리스트중좌가 술취한김에 한 말이다.

×월 5일

나는 렉스포드부대에서 오늘 하나의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였다. 사병들속에서 이상한 《전쟁미신》이 류포되고있다.

전쟁의 장기성으로 하여 질쩍거리는 참호와 어둠침침하고 습한 은페호들에 한정없이 구겨박혀있게 된 사병들은 습진과 로이마치스에 허덕이며 밤마다 서물대는 이때문에 고통을 받고있다. 염전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그들속에서는 날이 갈수록 징조란것을 믿게 되여 일종의 숙명론 비슷한 《전쟁미신》이 질쩍한 참호에서 참호로, 은페호에서 매장터로, 병원으로 류포되면서 마침내 그것은 황당한 계률까지 만들어내고있다.

우매와 무지의 산물인 이 《전쟁미신》은 흑사병처럼 창궐하면서 현대교육을 받은 대학출신 장교들의 뇌수까지 좀먹고있다. 그 계률이란 모두 36조로 되여있기도 하고 56조로 되여있기도 한데 몇가지만 들어도 다음과 같은것을 렬거할수 있다.

—꿈에 이발이 부러지면 자기자신이 아니면 동료들중에서 누가 다음날 전투에서 죽는다. 꾀병을 앓으라!

—밤에 달이 무리를 두르면 다음날은 행운의 날, 전투에선 탄알을 아

끼지 말고 투전에선 돈을 아끼지 말라!
—아침에 국그릇에 탄알이나 파편쪼각이 들어있으면 그날은 무리죽음의 날, 전투를 피하라.
—행군도중에 짐승이나 벌레가 죽은것을 보면 그날은 복부에 치명상을 입는다, 앞장서지 말라!
—처벌했던자를 뒤에 세우지 말라! 앞보다 뒤를 더 살피라!
—죽을자의 얼굴엔 며칠전부터 표적이 나타난다. 자주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쳐보라!
—죽음의 신은 변소에 붙어있다. 야간사망자의 70프로는 변소에 갔다가 포탄에 맞았다. 밤에 변소에 자주 가지 말것!
—편지에 호언장담한자는 기필코 며칠후에 죽는다.
—빵에 붉은 반점이 있으면 죽음은 불가피하다. 종군목사를 찾아가라!

렉스포드는 수첩을 탁자에 내동댕이쳤다. 가슴에서 터져오르는 분노가 온몸을 불사르는듯했다. 렉스포드는 그가 자기뒤를 캔것 같은 모욕감도 느꼈거니와 원래 이런 감상주의자들을 혐오감으로 대해온지라 그의 분노는 가슴속 깊은데서 터져오른것이였다.

《저따위 감상주의자들이 장교제복을 입고있다니, 무엇이 〈전쟁미신〉이란말인가?! 그것은 나도 알고있다. 그것은 사병들이 심심풀이로 자기들의 전쟁체험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웃음거리 격언과 같은것이다!》

렉스포드는 자기가 고인에 대하여 너무 험담을 퍼부었다고 생각했던지, 아니면 자기자신도 은연중 그것에 감염되여 심란해졌던지 무엇인가 좀 생각을 돌리려고 담배를 피워물었다.

얼마후 민병일이란 상사가 면회를 요청해왔다. 민병일은 당직장교에게 용건을 말할수 없노라고 딱 잘라매며 중좌와의 면담을 검질기게 청원해나섰다.

렉스포드는 그를 무장해제시키고 만났다.

민병일은 백상기소령이 변용구소령을 사살한 사실을 고발하면서 증거로서 피살자의 방탄조끼에 박혀있었다는 4발의 이그러진 권총탄을 내놓았다. 민병일은 중좌의 놀라는 표정에 고무를 받고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저는 그때 숲속에 숨어서 모든것을 제눈으로 똑똑히 내다봤습니다.》

렉스포드는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며 민병일의 피둥피둥한 얼굴에서 기민하게 반짝이는 작은 눈을 쏘아보면서 위협조가 섞인 앙칼진 말

투로 쏘아붙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군은 그때 뭘했는가? 자기 상관을 왜 제때에 보호 못했는가?》

민병일은 펄쩍 뛰여올랐다.

《각하, 오해말아주십쇼. 전 그때 부상당한 몸인데다 탄알 한알 가지고있지 못했는뎁쇼!》

렉스포드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권총탄을 만지작거렸다. 이건 그에 대한 모해가 아닌가? 이자는 왜 지금에야, 백상기소령이 인민군기습과 관련하여 궁지에 빠져있는 바로 지금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밀고하는건가? 그를 일격에 꺼꾸러뜨리려는 심산인가? 이자는 그걸 통해 뭘 얻자는건가? 죽은 변용구소령의 충복으로서 단순히 보복을 하자는건가?

한편 렉스포드는 최근에 와서 백상기소령을 만날 때마다 느끼군하던 비정상적인 인상들을 종합해봤다.

피해망상증에 걸린 사람들에게서 특징적인 충혈되고 불안한 눈길, 필요이상 감정을 과장해서 표현하는것, 리유없는 경악, 발작적이고 모난 행동들, 마주치는 시선을 외면하여 피하는것, 때때로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 그는 이 모든것을 그의 사생활과 결부시켜 생각하려고 안했다. 이런저런 전투행동의 실패에서 오는 자격지심이려니 하고만 믿었었다. 그러나 민병일의 고발과 관련하여 판단해보건대 그것이 법관들이 즐겨 말하는 《범죄의식》이란 특수한 심리상태에서 오는것일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기소를 일축해버릴수 없었다. 그리고 장교도 아닌 하사관이 령관급장교를 감히 이런 방법으로 모해할수는 없는것이다.

이런 속심과는 달리 렉스포드는 민병일에게 부드러우면서도 은근한 협박조가 섞인 말을 했다.

《군의 기소는 한 장교의 운명과 관련된 신중한 문제요! 전문적인 수사에 의뢰하겠소. 만약 무죄가 판명되면 군은 명예훼손죄로 법의 제재를 받을수도 있을것이요. 나로서는 군의 불충분한 자료에 근거한 기소를 가지고 그를 체포할수는 없소. 그리고 만약 군에게 장교들의 리면생활을 파고드는 습벽이 있다면 고치는것이 좋겠소!》

민병일상사가 나간 다음 렉스포드는 돌로 굳어진듯 그 자리에 앉아있었다. 움푹한 눈확을 덮은 컴컴한 그늘속에서는 눈동자가 침울한 빛을 발산하고있었다. 그는 기소된 사살사건의 전말을 더듬어보는것이였다. 이런저런 원인에 의한 이따위 사살행위는 그가 성장한 텍사스에서만도 례

사로운 일로 되여있었건만 오늘 이 사건은 웬일인지 그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며 가슴울렁이게 하는것이였다. 하여 더듬어보고 또 더듬어봤다.

(백상기소령은 강복판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더면 그자신이 맞아죽었을것이다! 그리고 한번 더 뒤돌아봤더라면 이 모든데서 구원되였을것이다. …) 이렇게 생각하자 그는 악성감모가 올 때처럼 뼈마디들이 오싹해지며 싸늘한 전률이 가슴에서 머리끝, 발끝까지 흘러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더면! 뒤를 돌아보지 않았더면!)

이 생각은 거마리처럼 그의 뇌수에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지난 대전때부터 그의 군사관등급앞에는 언제나 《돌격》이란 단호한 부름이 애칭처럼 붙어다녔었다.

《돌격소위!》 《돌격중위!》 《돌격대위!》 그는 앞만 보았다, 담배꽁초도 어깨너머로 뒤로 휙 던졌다.

유일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몽매한 종족들이 자기네 도템을 숭상하듯 그는 악어의 기질을 사랑했다. 뒤걸음칠줄 모르는 악어는 그의 좌우명의 화신이였다. 그러나 이 순간 그는 다름아닌 뒤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것이다. 어떤 모해의 총구가 자기 뒤통수도 겨누고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집요하게 뇌수로 파고들었다. 렉스포드는 팔짱을 끼고 가스등이 켜져있는 탁자둘레를 뚜벅뚜벅 거닐었다. 벽과 천장에 꺾어져 비낀 그의 그림자가 괴물처럼 벽으로 기여다녔다. 그는 자기의 측근자들과 참모부내 장교들에 대하여 새로운 눈으로 하나하나 더듬어보는것이였다. 언제나 불평을 토로하는자도, 그의 의사에 때때로 저항해나서는자도, 맹목적인 집행자도, 자기의 총명을 뽐내며 새 작전적인 방안을 들고나오는자도 있었다.

그들자신은 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있을것인가?… 내가 그들에 대하여 평소에 인격을 존중하는척하면서도 위기가 오면 군기로 강박하며 은근한 멸시를 품고 대하는것처럼 그들 또한 나에 대하여 존경하며 보좌하는체하면서도 은근히 저주하며 앙심을 품고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제기하는 군사행동상 건의나 전술상방안들에 그 나쁜 감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단언할수는 없는것이 아닌가. 문득 그는 참모부내에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측근자인 번대머리소좌 젬킨을 생각했다. 그가 총명하며 보병야전전술에 해박하다는것은 장교들사이에서 공인된 사실이다. 그런데 내앞에서만은 왜 언제나 자기가 렬등함을 보이려고 하는가? 내가 전술적방안을 내놓으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아무런 의견도 없습니다!》 그

러나 전투는 실패한다. 그는 자기의 총명한 두뇌로 내 방안의 빈구석을 번연히 보면서도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해 그러는것이 아닌가. 그자는 자기의 비굴성으로 나를 모해하려는 야망을 위장하고있는것이나 아닌가?! 맹목적인 찬동! 그것이 나에 대한 모해가 아니였던가?!

먼 뢰성같은 폭음이 울려와 방안공기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인민군의 기습에 전몰한 포병대 장교들을 합장하는 조포의 메아리였다. 가스등의 불꼬리가 불안하게 떨며 벽과 천장에 꺾어져 비낀 그림자가 환영처럼 춤을 추었다.

쾅… 콰르릉… 조포의 그 울림은 어딘가 밖에서가 아니라 자기 가슴속에서 울리는것 같으면서 몸이 산산쪼각이 나는듯 저려나고 떨렸다.

렉스포드는 어금이를 꽉 앙다물며 속으로 부르짖는것이였다.

(나는 너희들의 모든 의사를 묵살해버릴것이다!…)

이날밤 민병일상사는 수류탄오발이란 그럴듯한 미명하에 세상을 하직했다.

민병일상사가 렉스포드의 방에 들어갔을 때 공달호는 개울가의 숲속에 엎드려있었다. 그는 어찌하여 그 사태가 벌어졌는가를 똑똑히 알고있었다. 그의 소대는 엄호임무를 받고 자동차에 타고 중곡사포포병대와 같은 행군서렬에서 기동하고있었다. 민병일상사는 언제나 죽을고비에는 자기들을 몰아넣는다고 투덜댔다. 대대장이 죽은 다음 1개중대병력이 되나마나한 그의 대대는 백상기소령의 휘하에 편입되고 말았던것이다. 백상기소령은 그들을 혹사했다.

공달호는 백상기소령을 보는 민병일상사의 눈에서 번뜩이는 적의의 빛을 한두번만 보지 않았다. 오봉령에서 포병대가 기습을 당할 때 공달호는 포견인차밑에 숨어있었다. 사고현장으로 달려온 백상기소령이 민병일상사의 뺨을 갈기며 《너를 군법에 처형하겠다!》고 을러댔다. 그는 숨을 죽이고 모든것을 내다보았다.

소령이 가버리자 민병일상사는 코를 풀더니 그가 사라진쪽을 바라보며 《자식, 보자!》 하고 뇌까렸다.

렉스포드의 방으로 들어가며 상사는 공달호의 멱살을 틀어잡더니 《너 여기 있다 부르면 들어와! 네가 본것을 그대로 말하란말이다!》 하고 오금을 박았다.

숲속에 엎드려있는 공달호는 결불에 맞았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활랑거렸다. 어떤 변이 들이닥칠지도 모를 일이였다. 그는 세상의 이 모든 소란을 피해 살고싶었다. 공달호는 개울을 건너가 물가의 바위옆에

붙어서 사태가 어떻게 벌어지나 하고 눈을 깜짝거리며 앞만 쏘아보았다.
얼마후 민병일상사가 나와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났다.
《꽝다리！ 꽝다리야！》
그는 바위밑에 구겨박혀 죽은듯이 엎드려있었다. 상사는 라이타불을 켜서 담배를 붙여물고 침을 몇번 뱉더니 길로 걸어가며 중얼중얼 욕설을 퍼부었다. 이 순간 그의 옆에서 시퍼런 번개가 번쩍하더니 요란한 폭음이 울렸다. 상사는 간데온데 없고 숲속에서 두 그림자가 달려나와 땅바닥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더니 서로 갈라져서 어디론가 뛰여갔다.
공달호는 질겁한 산짐승처럼 가슴을 찢는 비명을 지르며 나무가지들을 마구 꺾으면서 숲속으로 뛰여올라갔다. 그는 산속 어디까지 뛰여왔던지 무엇엔가 걸려 땅바닥에 엎어졌다. 사방은 고요했다. 그는 벌렁 누워서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하늘을 쳐다봤다. 자기의 헐떡거리는 숨소리가 온 하늘에 차고넘치는것 같았다.
(죽었구나！ 죽었구나！ 나까지 안다는걸 알면 릉지처참할게다. 아, 아！ 왜 그 끔찍한걸 봤던가！ 팔이 꺾어지면 꺾어졌지 왜 그놈에게 다 털어놓았던가！ 아, 아！…)
공달호는 작은 가슴에 억울한 마음을 다 담을수 없어 두팔로 머리를 싸안고 모대겼다. 이윽고 그는 마음이 좀 진정되여 일어나앉아서 머리를 쥐여뜯으며 생각에 잠겼다. 눈물에 뿌옇게 흐려진 그의 눈앞에서는 지나간 일들이 맹수의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불찌처럼 언뜻거렸다. 유수강격전에서 백상기소령이 자기네 대대장을 쏴죽이던 일, 민병일상사놈이 자기를 가시돋친 철조망에 내던질 때 눈앞에서 번쩍번쩍 일던 섬광, 아픔, 피, 그놈이 잔등을 밟고 오른팔을 비틀던 일… 방금전에 그놈이 당한 죽음… 렉스포드중좌는 어째서 그를 없애치웠을가？ 이제 또 무슨짓을 하려는것일가？！… 이런 생각을 좇고있는 공달호는 눈앞에서 도깨비불같은것이 춤을 추는 느낌이 들면서 몸에서 보숨털까지 곤두서는듯한 전률을 느꼈다. 어허, 끔찍해！ 이게 무슨놈의 세상인가？！ 어느놈이나 다 이발이 든든한 짐승들이야！ 공달호는 지금에 와서는 모든것을 속속들이 꿰뚫어보아온 자기 눈에 대하여 원쑤처럼 생각하지 않을뿐아니라 가슴에서 우월감 비슷한 감정이 은근하게 살아오르는것이였다. 그는 렉스포드와 백상기따위 장교놈들은 권세가 있으니 멀쩡해뵈지만 인심을 놓고 따지면 자기 손톱때보다도 못한 더러운 놈팽이들이라고 깔보며 땅바닥에 침을 퉤퉤 뱉었다. 하나 그따위것들밑에서 머리를 숙이고 마소처럼 부리우다가 언제 죽을지 모를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 가슴속 깊은데서 피

덩어리같은것이 불끈 솟아오르며 목구멍밑에서 부르르 떨었다.
숲을 왁살스럽게 헤치며 사방에서 수색병들이 달려드는 소리가 났다.
공달호는 몸이 얼음장처럼 되여 두리번거렸다. 술렁대는 숲우에서 형체 모를 그림자들이 얼씬거렸다. 그는 제자리에 납작 엎드려 눈을 딱 감았으나 자기 몸뚱이가 땅우에 덩실하게 부풀어올라있는것 같아 땅에 바싹 붙어 목을 움츠리고 팔다리를 가드라뜨리면서 숨을 죽였다. 웬일인지 수색병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윽고 의아한 생각에 머리를 들고 두리번거리던 공달호는 그것이 바람의 장난이였으며 얼씬거린 그림자들은 설레는 숲우에 던져진 키높은 나무들의 그림자란것을 알게 되자 첫순간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그러나 뒤따라 엄습해드는 자기모멸감에 몸이 화끈 달아올랐다.
얼마후 마음을 진정시킨 그는 두주먹우에 턱을 고이고 앉아 곰곰히 생각해봤다. 이제 소대로 내려가자고 해도 즉시 덜미를 잡혀 목을 잘리우리라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문득 인민군편으로 넘어가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인차 그런 엄두를 낸 자신에 대하여 놀라며 몸서리쳤다.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보니 인민군도 자기를 용서 안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전투가 붙을 때마다 땅에 머리를 구겨박기는 했지만 어쨌든 인민군편에 대고 총질도 했고 장교들과 하사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하여 매일과 같이 인민군에 대하여 험악한 욕설을 마구 퍼부었던것이다. 이 죄를 그들도 용서 안할것이라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후방으로 도망친다쳐도 나까짓건 10리도 못가 잡힐게다！ 날고뛴다 하는 날쌘치도 다 잡혔다.
그는 암담한 절망감에 맥을 잃고 허물어지듯 누워버렸다. 아,어디로 갈가？ 날이 이렇게 추워서 여기서 잘수도 없는데… 아,아,어디로 갈가？ 총총한 별들이 흐릿해지며 떨었다. 그는 자기가 울고있다는 것을 모르고있었다.

4

골짜기밑은 고요했으나 높은 산마루우에서는 가을바람이 기승을 부리고있었다. 바람은 나무가지들에서 마지막 잎사귀들을 털어버리고있었다.

회오리바람에 휘말려올라간 누런 락엽들이 하늘에서 새무리들처럼 떠돌다가는 깊은 계곡밑으로 날려내려갔다.

문득 바람도 고요해지고 몸부림치던 나무가지들도 무슨 소리에 귀를 강구는듯 숨을 죽이고 잠잠해졌다.

나무가지들을 헤치며 두사람이 서로 부축하면서 령마루에 올라섰다. 군복은 갈기갈기 찢어져 팔굽과 무릎이 드러내놓였고 한사람은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퉁퉁 부었으며 다른 사람은 핼쑥한 얼굴절반이 헝클어져내린 머리칼에 덮여있었다. 온갖 고초에 초췌해진 얼굴에서 피발이 선 눈들만이 빛나고있었다.

곽병식이와 박광준이였다.

광준의 왼쪽 바지가랭이는 쭉 째졌는데 그안에 칭칭 감은 붕대가 내보인다. 붕대엔 피가 배여나와 거멓게 말라붙어있다.

곽병식은 한손으로는 광준의 겨드랑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휘청거리는 참나무가지를 잡고 열기 떤 눈으로 두리번거렸다. 추격의 발길이 여기까지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한 다음에야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광준을 돌아봤다.

또다시 광풍이 일었다. 나무가지들이 아우성을 쳤다.

박광준은 쓰러졌다.

《광준동무! 광준동무!》

곽병식은 애끓는 목소리로 그를 잡아흔들었다.

《광준동무!》

박광준은 지쳐서 쓰러진 황소처럼 가쁜숨을 몰아쉬며 맥을 놓은 멍한 눈으로 소대장을 쳐다보고있었다.

바람은 락엽들로 그들 두사람을 묻어버리려는듯이 기승을 부렸다.

아, 몇날, 몇밤을 서로 부축하고 의지하며 걸음마다 죽음이 기다리는 가시덤불길을 헤쳐왔던가. 넘은 령은 그 몇이였으며 빠져나온 계곡은 얼마였던가. 적들은 골짜기마다 릉선마다 수색의 그물을 늘어놓고 산에 한벌 깔려 발칵 뒤지였다.

추격의 예광탄은 촘촘히 짠 그물처럼 어둠을 누비였다. 적들은 화염방사기를 메고 다니며 인민군이 숨어있음직한 산에 불을 질렀다. 풀넝쿨밑을 기여 포위망의 눈초리를 피하여 나오면 충천하는 불길이 앞을 막아섰다. 곽병식은 광준을 업고 불길속을 헤치는 순간에도 갈라진 동무들의 행방과 맡겨보낸 정찰보고때문에 더더욱 가슴이 조여드는것이였다.

박광준은 위기를 벗어나 숨을 돌릴 때마다 자기를 버리고 가달라고,

자기때문에 소대장동지까지 희생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때마다 곽병식은 그를 달래기도 하고 고무도 하고 부드러운 말로 위안도 하면서 예까지 끌고왔다.

이제는 걸어갈 기력도 용기도 그를 불러일으킬 말도 없는것 같았으나 곽병식은 《끝까지 데리고 가야 한다!》고 속다짐하고는 그에게 등을 돌려대며 키를 낮추었다.

《업히오.》

《소대장동지, 먼저 가십시오.》

《업히오!》

곽병식은 광준을 둘쳐업고 나무가지들을 헤치며 몇걸음 걸어나왔다. 이때 멀리 북쪽하늘이 마른 번개가 치는듯 번쩍이더니 쿠궁… 쿠궁… 하는 둔중한 포성이 울렸다. 뒤이어 쏴—쏴— 공기를 째는 소리가 나더니 저앞 릉선을 치달아오른 적들의 군용도로에 와 포탄들이 터지며 시꺼먼 연기가 풀썩풀썩 일었다.

《광준동무, 우리 포요! 우리 조가 무사히 도착한게 틀림없소!》

그들은 첩첩히 싸인 산발들너머 저멀리 초연의 연한 회색 운무에 덮인 아군 고지의 희끗한 봉우리들을 바라보았다. 거기는 중대가 있고 전우들의 따뜻한 미소가 있다. 지휘관들의 믿음과 친형과 같은 보살핌이 있는곳, 전사들의 익살섞인 롱담과 수더분한 마음들이 숨쉬고있는 곳, 웬일인지 버들치이야기를 하던 서동길의 얼굴이 떠올랐다. 고병근중대장의 은근한 눈길이 어른거렸다. 곽병식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가자! 가자! 중대로 가자! 곽병식은 발걸음을 옮겼다. 하나…둘…하나…둘… 바위처럼 무거운 박광준을 추슬러업었다. 광준은 그의 목을 그러안았다. 광준의 가슴이 떠는것이 등에 감촉된다. 따가운 구슬알같은것이 목덜미에 후두둑 떨어지더니 등골을 지지며 흘러내린다. 광준은 다시 목을 힘주어 끌어안더니 뜨거운것에 축축히 젖은 볼을 덜미에 대며 비빈다. 그의 뜨거운 입김이며 눈물이 그들의 두 몸을 확확 달아오르는 하나의 육체로 융합시키는듯 하다. 곽병식은 가슴이 벅차올라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몸을 앞으로 더 숙이고 걸음을 힘있게 내디뎠다. 순간 그는 겨드랑이밑을 불에 단 쇠꼬챙이로 쿡 찌르는 아픔을 느꼈다. 그 아픔이 전류처럼 온몸에 퍼지며 눈앞에서 노란 반점들이 춤을 추었다. 그것은 기습의 밤에 받은 상처다. 뜨끈뜨끈한것이 옆구리로 흘러내리며 왼쪽어깨가 처지였다.

(가자! 중대로 가자!… 가야 한다!) 곽병식은 다시 걸음을 옮

졌다. 웬일인지 불그스레한 김이 눈앞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는 뜨끈뜨끈한 김속을 헤쳐가는것 같았다. 숨이 컥컥 막혔다. 온통 하늘이 불그무레하게 황황 타오른다.

누군가 앞으로 걸어오는것 같다. 이게 누군가…

그는 자기가 숲을 벗어나 골짜기의 묵은밭, 공지에까지 나왔다는것도 그리고 광준의 무게까지 겹쳐서 얼굴을 힘껏 땅바닥에 찧으며 꼬꾸라졌다는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광준은 까무라친 소대장의 저고리를 헤쳐보았다. 겨드랑이에 감겨있는 붕대뭉치가 선혈에 함뿍 젖어있고 군복 아래도리까지 피가 즐벅했다.

광준은 이런것도 모르고있은 자기가 얼마나 미욱했는가 하는 생각으로 얼굴이 흙빛으로 질렸다. 상처의 붕대를 손질해주고는 소대장의 머리를 자기 무릎우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손바닥으로 소대장의 땀에 젖은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왼쪽볼에 박힌 모래알들을 털어버리고 앞머리칼에 붙은 마른나무잎사귀를 뜯어버리였다.

락조의 불그레한 빛이 소대장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소대장의 젊은 얼굴은 전에 없이 아름답고 환하게 보였다. 문득 광준은 자기 소대장의 얼굴이 아주 애젊은데 놀랐다! 광준은 여태 이런 눈길로 소대장의 얼굴을 쳐다본적이 없었다. 그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 순간에야 그는 비로소 너그러운 년장자의 눈길로 소대장의 얼굴을 뜯어보게 되였다.

땀에 젖어 윤기도는 차분한 머리칼에 덮여있는 보기 좋게 넓은 이마, 밋밋하게 도드라진 코밑에 면도칼 한번 대보지 않은것 같은 감실감실한 솜털수염이 살짝 덮여있는 웃입술, 고집스럽고 억세여보이는 턱…

명령하고, 지시하고, 엄격히 요구하고, 부하들에게 애정을 기울이는 지휘관의 얼굴은 광준의 어진 마음에 노상 나이들고 위엄스럽게만 여겨졌었다. 하나 이 순간 그 얼굴은 놀랍게 나이 어린데다가 곱고 야드르르하게 느껴졌다. 광준은 측은한 마음이 북받쳐 저도모르게 그의 머리칼을 몇번이고 쓰다듬어주고 어깨를 쓸어만지다가 군복밑에서 채 굳어지지 못한것 같은 도드라진 어깨뼈가 감촉되자 가슴이 에이는듯 아파났다.

(아니! 이런 어깨에 우리 소대가 매달려있었댔구나. 나이를 먹은것들이 애를 먹이구, 응석을 부리고, 걱정을 끼쳤지…)

광준은 기막힌 생각이 들어 흑흑 느꼈다. 이때 무슨 불길한 소리들이 들렸다. 광준은 소스라쳐 놀라 얼굴을 들고 두리번거렸다. 공지를 둘러싼 숲의 나무우듬지들이 술렁대며 떠드는 소리, 무기들이 철컥거리는 소리들이 울렸다.

(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쳤다.

한시간전부터 그들을 포위한 적들이 적당한 기회와 장소를 노리며 숲속으로 은밀히 따라왔다는것을 그들은 모르고있었던것이다.

광준은 몇걸음 달려나가며 격발기를 당겼다. 순간 그는 탄알이 한발도 남지 않았다는것을 생각하고는 비분에 몸부림치며 소대장을 돌아봤다.

《소대장동지! 소대장동지! 적이요!》

소대장은 세상 모든 시름을 던듯 땅우에 한팔을 던지고 누워있었다.

불어오는 무심한 바람결에 그의 윤나는 머리칼만이 이마우에서 나풀거렸다.

광준은 가슴이 찢어지는듯 아프고 쓰렸다. 그는 이 순간 자기자신보다도 젊은 소대장이 못견디게 아까왔다. 광준은 절뚝거리며 달려와서 바위같은 가슴에 소대장을 꽉 끌어안았다.

《여— 총을 놓고 손들라—》

《자식아— 손들라—》

《여— 며칠을 굶었나?—》

《밥을 줄게— 손들라—》

숲속에서는 적병들의 치졸한 부르짖음이 울려나왔다. 숲은 술렁댔다. 나무줄기들새로 기승을 부리는 짐승처럼 뛰여다니는 적병들의 그림자가 언뜻언뜻 보였다.

소대장을 가슴에 안고 놈들을 돌아보는 박광준의 눈에서는 시퍼런 분노의 불길이 펄펄 일고있었다. 그의 가슴에선 언제 배워넣었는지도 모를 욕설이 마구 끓어올랐다.

(이 앙심으로 독이 차서 속이 썩어 문드러진 새끼들아! 돼지처럼 무식한놈들아! 우리 소대장동진 시인이다! 머리칼 한오리 다치게 할줄 아느냐?! 내가 살아있는 한 네놈들한테 내줄줄 아느냐?!)

박광준은 자기도모르게 힘이 뻗치는 팔뚝으로 소대장을 안고 벌떡 일어났으나 몸을 기우뚱거리다가 한쪽무릎을 꿇고 주저앉고말았다. 그러나 그는 다시 모지름을 쓰며 일어나 얼마 멀지 않은 앞에 보이는 버섯지붕에 쑥대가 무성한 외딴집으로 비칠거리며 들어갔다.

짚 썩은 냄새와 눅눅한 곰팡내가 코를 찔렀다.

박광준은 소대장을 움푹하니 패운 부엌앞에 눕혔다.

밖에서 총소리, 달려오는 발자국소리, 떠들어대는 소리들이 어지럽게 울렸다. 숲에서 뒤쫓아나온 적병들이 집을 에워싸는 모양이였다.

반나마 허물어져내린 흙벽밖에서 우뢰치는 총성에 10년전에 버림

받은듯한 단간 초가집은 전률했다. 벽을 꿰고 날아들어온 탄알들이 뒤벽이며 온돌에 부딪쳐 먼지를 풀싹풀싹 일으켰다.
박광준은 몸으로 소대장을 덮으려고 하던 순간 소대장의 피발이 선 눈과 마주쳤다.
《소대장동지！》
《！…》
《소대장동지！》
《이게 어디요？！》
《포위됐습니다！ 적입니다！ 소대장동지, 저때문에… 저때문에… 왜 저까짓걸 버리지 않았나요？！ 왜 버리고 가시지 않았나요？！》
광준은 소대장의 팔을 꽉 잡고 온몸을 떨며 부르짖었다.
와지끈 소리가 나더니 총성이 울렸다.
곽병식이가 광준의 어깨에 팔을 올려놓고 쏜것이였다. 문으로 뛰여들던놈이 문턱에 배를 걸고 꼬꾸라졌다.
밖에서 어떤자의 멱따는듯한 소리가 울렸다.
《이자식들아— 안나올테냐？— 저항 말고 집에서 기여나와— 불을 지를테다！—》
박광준은 하나밖에 없는 수류탄을 뽑아들고 문턱뒤로 기여가려고 했다.
곽병식이가 그의 팔을 잡아끌었다.
《수류탄은 마감에！…》
화끈한 열풍을 일으키며 시뻘건 불줄기가 문으로 뻗쳐들어와서 집안을 훑었다.
삽시간에 천장과 벽은 불길에 휩싸였다. 집은 모닥불처럼 타올랐다！
우직우직 타는 소리, 서까래들이 툭툭 부러지는 소리… 한쪽 벽체가 허물어져내리고 천장에서 불덩어리들이 떨어졌다.
자욱한 연기와 몸뚱이를 지지는 열풍속에서 두사람은 마감으로 부둥켜안았다.
《박광준동무！》
《소대장동지！》
박광준은 소대장의 목을 힘껏 끌어안으며 소리없이 흐느꼈다.
《수류탄고리를 뽑았소？！》
《예！… 소대장동지！… 뽑았습니다！》
곽병식은 박광준의 잔등에 손을 모으고 꽉 끌어당겼다. 이 순간 그

는 자기 손에 쥐여있는 딴딴한 물체를 감촉했다. 권총! 군관학교 졸업식에서 수여받았던 권총! 그때 장중한 취주악이 울리는 가운데 감격의 눈물에 젖어 무한령 상상봉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 아버지처럼 끝없이 충실하여 이 권총을 손에 쥐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이 끝날 때까지 대오에 서서 싸우리라 맹세 다지던 일, 화선에 뛰여들어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뚫고 미제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부시고 승리의 기발을 휘날림으로써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된 영예를 빛내리라던 열정에 타는 젊은 가슴의 포부, 온갖 시련과 수난을 겪을대로 겪은 어머니의 여생을 행복하게 해드리고싶었던 마음, 그런데 이리도 일찌기 모든것이 끝난단말인가?! 23살의 청년으로 자기의 최후를 생각하기란 결코 헐한 일은 아니였다. 곽병식은 가슴이 찢기는듯 아파나 몸부림쳤다. 수령님의 아들답게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싸우지 못한다는 생각때문에, 어머니 생각때문에, 실현되지 못하는 자기 리상때문에 눈물을 삼켰다. 투쟁의 열정에 북받치는 젊은 가슴을 안고 불타는 수도의 거리를 거닐던 일이며, 모교의 벽에 씌여있던 맹세의 글발들이며, 전쟁의 길우에서 만났다 헤여진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들 그리고 무엇인가 형체를 분간할수 없는 귀중한것들이 한데 어울려서 신기루처럼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자체가 정지된듯한 찰나적이면서도 영원처럼 생각되는 이 순간에 그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한 파도처럼 적셔주며 승리의 쾌감까지 느끼게 해주는 다른 위안과 기쁨이 있었다. 이제 기습으로 얻은 시간으로, 자기들이 피흘리며, 목숨바치며 얻은 시간으로 갱도는 완성될것이였다. 최고사령관동지의 갱도전의 위대한 구상은 빛나게 구현될것이다! 세계전쟁사에 있어보지 못한 위대한 변혁과 기적이 일어날것이다! 갱도안에 온돌까지 놓으면 아마 강태욱련대장동지자신이 내려와서 부엌에 불을 지펴보고 최고사령관동지께 온돌에 불이 잘 든다고 보고를 올릴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날이 올것이다! 곽병식은 가슴이 터지는것 같으면서 《우리는 영생불멸할것이다!》 하는 웨침이 목구멍에서 터져올랐다. 그는 자욱한 연기와 몸을 지지는 화기속에서 박광준의 허리를 끌어안고 육탄이 되여 밖으로 나가려고 걸음을 옮겼으나 자동총의 긴 련발사격소리를 들으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제 7 장

어 머 니 의 이 야 기

1

화선에서의 처절한 싸움은 야전병원을 들볶아댔다. 부상병을 데리고 온 호송간호원들과 담가병들이 접수과로 뛰여들어와서 위훈 떨친 고지의 권위를 휘둘러대며 접수간호원에게 위협적으로 요구했다.

《동무, 빨리 접수하오. 1211고지에서 왔소!》

《921고지에서 온 부상자요! 영웅내신자요!》

야전병원에서는 성격이 드센 처녀들을 골라 접수과에 앉혔는데 그들은 자기나름으로 꾸며낸 전투경력이며 림기응변으로 호송간호원들과 담가병들의 요구를 밀어버리고는 환자접수 규정에 따라 일을 깐지게 처리했다. 그러나 사람 시달림에 습관되지 못한 어린 처녀들은 다급한 요구와 익살 앞에서 억이 막혀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풀썩 주저앉아 울기도 했다. 때로는 이런 눈물이 끌날같은 면박보다 더 유력했다. 나이 지긋한 담가병이 나타나 어린 간호원을 일으켜세우며 편을 들어주는것이였다.

《자, 일을 하라구, 덤벼치는 녀석들은 내 혼뜨검을 내줄테니!》

그러면 간호원은 두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접수대장을 펼쳐들게 되고 펄펄 뛰던 호송간호원들과 담가병들도 온순해져서 측은한 눈매로 처녀를 바라보며 차례를 기다리는것이였다.

야전병원 정치부원장 김봉순은 의무성원들과 같이 밤을 샜다. 그는 군의들과 간호원들이 부상병들에게 더 정성을 쏟도록 교양했으며 자기 부대로 도망치다가 잡혀온 꼬마병사를 타이르기도 하고 저녁마다 밖에 나가서 병동들의 등화관제때문에 직일관을 불러 호되게 꾸중하기도 했다.

김봉순은 짬만 있으면 부상병들속에서 지냈다. 그는 부상병들에게 국제정세며 전선과 후방 소식들을 전하기도 하고 그들의 공훈담이며 사랑이야기를 너그럽게 들어주기도 했다. 부상병들중에서 병원규률

을 곧잘 어기는 말썽군들은 봉순을 은근히 두려워도 했다. 그는 규률위반자를 잡으면 눈물이 쑥 빠지게 비판했으며 다시는 주사맞기 싫어서 숨지 않겠다는 등의 다짐을 받고야 놓아주었다. 병사들은 얼굴이 가무스름하고 눈에 유난히 정기가 도는 중좌견장을 단 이 어머니를 고향집에 두고 온 자기의 친어머니처럼 따르고 사랑했다. 이무렵 최고사령부 군의국은 류성운군의를 야전병원을 돕기 위해 파견해주었다. 그는 50이 넘은 로숙한 의사였다. 호인답게 기름한 얼굴에는 그 나이에 비해 주름살이 얼마 가지 않고 윤택이 돌았으나 머리칼은 하루아침 내린 서리를 들쓴듯 은발이였다. 그의 군복은 그리 큰 편도 아니였으나 어느모로 보나 몸에 붙지 않았다. 주름살이 잡히기 시작한 혈색좋은 목을 두른 목달개의 흰줄은 규정이상으로 고르롭지 못하게 내밀고있었으며 견장은 어깨에 붙지 못하고 번듯하게 떠있었다.

이 은발중좌는 사업에서 젊은이들 못지않은 놀라운 열정을 보였다. 신입병사들에게서나 흔히 볼수 있는 호기심어린 열정이 그의 눈에서 빛나고있는것은 특징적이였다. 그는 때로 과격하기도 하고 터무니없이 무모하기도 했다. 병원생활에서 갑갑증을 느끼고 엉뚱한 모험을 하려는 전사들을 붙잡아놓고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그 전사들과 동갑또래들의 말투로 펄펄 뛰며 성을 내는것이였다.

《동무만 싸워본줄 아는가,엉？！ 나도 공병전사밥을 1년이나 먹어봤단말이요！》

그리고는 전사들을 보내놓고 자기 뒤에 와 서있는 김봉순을 돌아보며 어처구니없다는듯 허허 웃는것이였다. 일손이 빌 때면 그는 맥을 잃고 멍하니 앉아서 무슨 생각엔가 골똘히 잠기는 일이 간혹 있었다. 그런 때면 그의 얼굴에 사생활에서 불행한 사람들에게서 볼수 있는 쓸쓸하고 허전해하는 기색이 엿보이는것이였다.

병원 간호원처녀들은 그를 따랐다. 그가 저쪽에서 오면 처녀들은 얼굴이 밝아지며 《우리 공병아바이 온다！》,《목수아바이 온다！》하고 소곤거리며 설레는것이였다.

김봉순은 그의 소탈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의용군으로 입대한 그는 요새 입당준비를 하느라고 복잡한 수술들을 끝내고는 밤깊어서 당규약책을 들고 정치부원장을 찾아와서는 늦도록 앉아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자라난 녀성혁명가의 알기 쉬우면서도 산 투쟁경험들로 충만된 조언들과 해석들은 그의 학습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김봉순은 당규약의 정치적개념들과 당생활규범들속에 깔려있는 심오한 사상들과 시련 많은 당건설경험들을 일반화한 명제들속으로 파고드는 그의 진지한 학습태도에 감탄했다. 그러나 외과의는 자기의 덜 발전된 정치의식으로 하여 때로는 천진한 판단을 발로시키군했는데 그때마다 김봉순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류성운은 묻는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소박한 인간됨이였다.

김봉순이 또한 야전병원의 중요한 문제들을 그와 토의했으며 그의 과학기술적인 조언들을 언제나 신중하게 받아들였다.

어느날 아침,그것은 야전병원의 례사로운 날 아침이였다. 류성운과 코가 오뚝하고 얼굴에 주근깨가 많은 수술실 간호장이 그날 수술환자명단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김봉순은 그 명단의 마지막 자리에서 《곽병식》이란 이름을 발견했다. 어머니는 가슴이 후두두 뛰며 속이 메스꺼워나는것 같았다. 하지만 다음순간부터 그는 완강히 부인했다. 이 세상에 동성동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구…

《어디 편찮습니까?》

류성운은 그의 얼굴을 걱정스레 들여다보며 물었다.

《아니요…》

김봉순은 수술명단을 다시 들여다보는척하면서 일상적인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오늘은 많구만요.》

《하지만 발전기가 새로 와서 조명이 해결됐으니까…》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아듣지 못했다.

봉순은 혼자서 (누구하고도 같이 가고싶지 않았다.) 수술대기실로 들어갔다.

작은 소창때문에 채광이 잘 되지 못해서 어슴푸레한 방안에 부상병들이 누워있었다.

봉순은 모성의 륙감으로 제일 구석쪽에 모포를 가슴아래까지 덮고 누워있는것이 아들이란것을 첫눈에 알아보았다. 김봉순은 가슴에서 무엇인가 툭 터지며 뜨끈뜨끈한것이 흘러내리는것 같은 감을 느꼈다. 그는 돌처럼 굳어진듯 한동안 문곁에 서있다가 아들의 침대곁으로 다가갔다. 아들은 자기옆에 지금 누가 와있는지도 모르고 깊은 잠에 든듯 고요히 눈을 내리감고있었다. 2년만에 만나는 아들,먼지 이는 전선길에서 20대안의 씩씩한 군관들을 만날 때마다 군관복을 입은 그 모습을 그처럼 보고싶었던 아들,피눈물 나는 전략적일시적후퇴의

길에서도, 재진격의 눈길우에서 솜외투를 쓰고 쪽잠이 들었을 때도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가슴을 희망과 행복과 삶의 환희로 적셔주던 아들, 그 아들이 치명상을 입고 어머니앞에 누워있는것이다.

김봉순은 모성의 본능에 이끌리려는 자기의 마음을 다잡으며 권총이 무겁게 드리워있는 혁띠를 꽉 움켜쥐였다. 이윽고 그는 침대모서리에 조용히 앉으며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어른이 다 된듯 나이 들어보이고 함부로 범접할수 없는 지휘관의 존엄이 얼굴에 깃들어있어 서먹한 감까지 들었다. 긁히우고 찢겨서 피가 말라붙은 해쓱한 얼굴에서는 웬일인지 턱이 약간 비뚤어진것처럼 보였다.

봉순은 아들의 이마며 볼을 쓰다듬어보고 손목을 꼭 쥐고 맥을 짚어보았다. 고르롭지 못한 맥박이 손끝에 감촉되는 순간 봉순은 가슴이 후둑후둑 뛰며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것은 어느 봄날 밭머리에서 메스꺼움과 함께 느끼던 태동으로부터 시련에 찬 이 20여년간 봉순의 가슴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희열에 차고넘치게 하던 그 생의 박동이였던것이다. 눈앞이 흐려지며 빨리 손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봉순의 가슴을 들볶았다.… 봉순은 아들을 번쩍 들어안고 정신없이 달려가 수술실로 들어간다. 머리칼이 헝클어져내린 봉순은 류성운박사앞에 아들을 내려놓고 그의 손을 잡으며 간청한다. 《선생님, 내 아들입니다. 10여년만에 찾았던 내 아들이예요. 어서 손을 써주십시오！》 외과의는 봉순의 두손을 꽉 잡으며 미소 어린 눈길로 안심시킨다… 하나 그것은 눈앞을 언뜻 스친 환각이였을뿐 봉순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봉순은 아들의 손목을 잡은채 침대모서리에 조용히 앉아있었다. 옆에서 울리는 《어머니！》하는 쨍쨍한 부름소리가 그를 흠칫 놀라게 한다. 봉순은 천천히 얼굴을 돌린다. 건너편 침대에 누워있는 중상자가 헛소리를 친것이다. 머리와 팔에 붕대를 칭칭 감은 17～18세의 어린 병사였다. 봉순은 몸을 일으키고 그에게로 다가가서 볼이며 목을 쓰다듬어주고 손을 꼭 잡아주었다.

옆에 누워있는 나이 지긋하고 구레나룻이 검스레하게 돋은 특무장이 물기어린 눈으로 봉순을 돌아보며 빙그레 웃는다.

《우리 참모장동지 련락병입니다. 집에서는 외아들이 돼서 응석을 부리며 자랐을겝니다. 허 참, 이 친구 오면서 내내 헛소릴 치거던요. …》

봉순은 정겨운 눈으로 어린 병사의 동실한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류성운이 들어오자 김봉순은 몸을 일으키며 그에게 말했다.

《군의동지, 이 어린 동무부터 봐주십시오. 중태에 빠진것 같습니다.》

…이날 오후 4시, 곽병식에 대한 수술이 한창 진행되고있을 때 야

전병원은 적 폭격기들의 맹폭격을 받았다. 환자는 제15호 대피소로 소개되였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손실은 컸다. 수술실과 약국이 직탄을 맞았고 식당이 허물어졌으며 피복창고에 불이 붙었다.

김봉순이 병원성원들과 함께 불길속에서 피복들을 건져내고있을 때 얼굴이 새까맣게 질린 수술실 간호장이 달려와서 보고했다.

《정치부원장동지! 마감 환자 수술을 계속해야겠는데 노보카인이 한방울도 없답니다.》

《뭐라구?!》

《가져오자면 두시간이 걸린답니다.》

《환자는 어디 있소?》

《15호 굴에요.》

김봉순은 달려갔다.

대피소앞 바위에 위생복우에 외투를 걸친 류성운이 은발을 싸쥐고 앉아있었다. 그옆에 젊은 군의 세명이 담배를 성급히 빨며 서성거리고 있었다. 자기들에게로 걸어오는 정치부원장의 노한듯한 얼굴을 보자 그들은 담배불을 꺼버리고 몸가짐을 바로잡았다.

봉순은 그들에게 눈길도 돌리지 않고 곧바로 굴안으로 들어갔다.

어둑시근한 굴안에는 녀군의들과 간호원들이 빙 둘러서있는데 그 안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뭣들 합니까. 빨리 어떻게 하시오!》

아버지의 음성을 닮은 아들의 쇠소리나는 갈린 목소리는 봉순의 가슴을 에이였다. 봉순은 얼굴이 해쓱하여 간호원들 뒤에 말없이 서있다가 돌아서 나왔다.

류성운은 자기앞으로 곧바로 다가오는 봉순을 놀라서 쳐다봤다. 봉순의 분노를 뿜는 눈길앞에서 그는 온몸이 돌처럼 굳어지는듯한 감을 느꼈다.

쏘는듯 날카로운 음성이 그의 머리우에서 울렸다.

《왜 앉아만 있어요?!》

《예?!》

류성운은 엉거주춤 일어났다.

《수술을 계속하시라요.》

《예?!》

《하시오!》

《마취가 다 깼는데… 이건… 이건… 모진 일입니다!》
류성운은 전률했다.
《하시오!》
봉순은 겁에 질린 외과의의 눈을 뚫어지게 쏘아봤다.
류성운은 한걸음 물러섰다. 무거운 외투가 그의 어깨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드팀없는 신념에 차있는 눈과 겁에 질린 눈은 마주 쏘아보며 부르짖고있었다.
《나는 떨립니다. 못하겠습니다!》
《하시오! 내가 책임지겠어요! 나는 당신의 재능과 사람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김봉순은 허물어진 식당자리로 갔다. 괭이질을 하며 흙을 뚜져내고 취사원들과 어울려서 서까래를 헤치고 가마를 끌어냈다. 머리칼이 헝클어지고 땀이 철철 흘러내렸다. 일로 고통을 이겨냈고 혁명임무에 파묻혀 슬픔을 잊고 살아온 봉순이였다. 방에 돌아오자 안경을 끼고 세포들에서 올라온 입당문건들을 검토해보고 표창내신서들을 썼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문이 벌컥 열리며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수술실 간호장이 뛰여들어와 기쁨과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정치부원장동지! 성공했어요. 수술이 끝났어요!》
김봉순은 안경을 벗으며 멍해진듯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처녀는 울먹이고있었다.
《정치부원장동지… 제가 그 동무의 말라터진 입안을 물에 적신 솜으로 닦아냈어요.》
처녀의 눈에선 눈물이 가랑거렸다.
《이걸 보세요. 솜에 이런게 묻어나왔어요.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처녀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흐느꼈다.
김봉순은 처녀가 내민 가제천으로 싼것을 풀어봤다. 이발부스레기였다.
정치부원장은 가제천에서 머리를 들지 않은채 조용하나 엄하게 타이르듯 말했다.
《나가보오!》
간호장은 몸가짐을 바로잡으며 정치부원장을 쳐다봤다. 그는 자기가 이런 준엄한 시절에 상관앞에서 함부로 눈물을 보인것이 죄로 된것

이라고 자책하며 경례를 붙이고 돌아서 나왔다.

방안에 혼자 남자 어머니는 허물어지듯 책상우에 쓰러지며 가제천에 얼굴을 묻었다. 어깨가 물결치며 흐느낌이 터졌다.

《애야… 장하다！》

김봉순은 간호장이 문밖에서 눈물을 닦다가 안에서 울리는 흐느낌소리를 듣고 류성운한테로 정신없이 달려갔다는것을 알리 없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류성운이가 뛰여들어왔다. 그는 어머니에게 달려오다가 놀랍고 준엄한 현실앞에서 굳어진듯 방가운데 서버렸다. 그의 눈은 경탄과 공포에 뒤섞여 어머니를 주시하고있었다.

비명같은 부르짖음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이것이 사실이란말인가요？！ 사실이란말인가요？！》

봉순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일어섰다. 물기어린 그의 눈이 믿음에 차서 군의를 마주보았다.

《군의동지, 고마와요！》

봉순의 음성은 사죄하며 사의를 표하듯 부드럽게 울렸다.

《정치부원장동지！ 전 몰랐습니다. 너무나 모집니다！ 모성으로서는 너무나, 너무나 모집니다！》

그리고 군의는 창문가로 가서 창턱을 짚으며 머리를 숙였다. 창밖에서는 이해의 첫눈인 희디흰 눈송이들이 날리고있었다. 눈송이들은 방안을 들여다보려는듯 유리에 붙었다가는 녹아서 눈물처럼 줄줄이 흘러내렸다.

봉순은 말없이 다시 자리에 앉아 안경을 끼고 입당문건을 펼쳤다. 그는 철필을 먹즙통에 꾹꾹 찍다가 창가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에 얼굴을 들었다. 두팔로 창턱을 짚고있는 군의는 머리를 떨구며 어깨를 부르르 떨었다.

《저한테도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비상했지요. 아하！…》

그리고 그는 슬픔에 이그러진 얼굴을 숙이고 서둘러 방에서 나갔다.

2

야전병원이 자리잡은 깊은 골짜기는 며칠째 내려쌓인 눈때문에 해가 뜨면 눈부신 은세계를 펼치고 삶의 환희를 불러일으키는 상쾌하고 찬 기운이 대기에 차고넘쳤다. 눈이 쌓여 묵직이 휘여든 소나무가지들

밑에서는 참새들이 인간세상의 재난에 대하여 서로 가로채며 이야기하듯 떠들썩하게 지저귀면서 푸드득푸드득 날아다녔다. 그때마다 눈덩이들이 은가루처럼 반짝이며 흩어져내렸다. 병원 구내길로 오가는 군의며 녀준의며 간호원처녀들의 얼굴에서는 입김이 날렸다.

이렇듯 화창하고 눈부신 날에 하나의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고있다는것을 상상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류성운은 입원실 담당군의에게 세밀한 조언과 과학적인 방조를 주고서도 마음을 놓을수 없어 중환자입원실의 곽병식을 매일 찾아갔다.

환자는 중태에 빠져있었다. 그의 푹 꺼져들어간 눈확은 거멓게 빛이 죽었으며 입술은 마르고 터서 까풀이 일었다.

밤마다 열이 오르고 헛소리를 쳤다.

류성운은 손수 체온을 재보고 주사를 놓고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의 박동소리를 들어보는것이였다. 류성운은 아들의 침대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있는 봉순에게 환자의 증상과 관련된 아무런 이야기도 안했다. 그는 이 엄격한 봉순에게 값눅은 위로의 말이 아무런 도움도 못되리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봉순이 또한 군의나 담당간호원에게도 한마디의 간청이나 하소연도 안했다. 봉순의 이런 침묵이 그들의 정성을 더 불러일으켰다. 봉순은 그저 긴장에 굳어진 얼굴로 이따금 군의의 얼굴을 말없이 쳐다보는것이였다. 땀에 젖은 군의의 얼굴에는 아낌없는 정성이 넘쳐흐르고있었다. 김봉순은 이 은발중좌의 가정에 대하여 다소나마 료해하고있었다. 그는 아들딸을 서울에서 원쑤들의 손에 잃었으며 의용군에 입대한 막내딸은 인천방어전투에서 전사했다. 병약한 안해는 후퇴의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로상에서 숨지였다. 그 모든 참화의 흔적인듯 서글픈 백발만이 그의 넓은 이마우에서 흩날렸다.

김봉순은 그가 자기에게도 그런 아들이 있었노라고 하던 말을 상기하며 모든 부상병들에게 다 그러하듯이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정치부원장인 자기와의 동지적의리감때문에 이처럼 정성을 쏟아붓겠거니하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김봉순은 긴장하게 굳어진 그의 얼굴에서 보다 다른 빛,심각한 사색의 깊은 주름살을 발견하고 놀랐다.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일가? 환자의 절망적인 중태를 의미하는것인가? 아니면 과학적인 탐색의 모대김인가? 그렇다,류성운은 곽병식을 두고 하나의 병리학적사색만 하는것이 아니였다.

곽병식을 수술대에 눕혀놓고 준의들이 환자를 위안하는 걸죽한 롱말들을 던지며 팔이며 다리를 결박하고있을 때 류성운은 수술장갑을

낀 손을 쳐든채 그들 뒤에서 습관적인 무뚝뚝한 시선으로 이제 곧 메스를 박아야 할 부상자의 몸을 넘겨다보았었다. 살가죽밑에서 유표하게 내민 발달되지 못한 쇄골, 밑끝이 치여들사한 흉골, 필요이상 발달하여 축 늘어진듯한 상박골, 이 모든것들은 유년시절의 영양부족이며 이 생명이 걸어온 고행의 력사를 말해주었다. 이런 골격과 근육에 담겨진 생명이 수술의 진통과 어떻게 싸울것이며 어떤 소생효능을 보일것인가. 그는 외과의의 본능으로 불안을 느꼈으나 첫 수술때 환자는 온순한 수면상태에 몸을 맡기고있었다. 두번째 수술때 류성운은 놀라운 현상을 보았다.

환자는 열기에 빛나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그를 보고있었는데 그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그 눈길은 지꿎게 좇아왔다. 처음 류성운은 자기 마음이 보이지 않는 억센 손아귀에 틀어잡힌듯한 압박감과 함께 공포감같기도 하고 불쾌감같기도 한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혀 땀을 흘렸다. 그는 환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일렀으나 응대가 없었다. 환자가 무의식상태에 빠져있다는것을 안 순간 그는 더럭 놀라며 그 눈을 뚫어지게 내려다봤다. 외과의는 크게 뜬 눈의 검은 동자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생의 불길을 보았다. 순간 그는 가슴이 벅차오르고 장쾌한 기운이 온몸에 번지여 굳어진 팔다리에 활달한 용기가 소생하고 든든한 배심이 마음을 떠받쳐줌을 느꼈다. 수술을 끝낸 그는 땀에 함뿍 젖은 몸을 침대에 던졌다.

(내가 그 청년의 눈동자속에서 본것은 무엇이였던가. 그때 나를 사로잡았던 감정, 내 가슴을 벅차오르게 한 그 감정이 전혀 생소한것은 아닌것 같은데…)

준엄하고 영웅적인 전쟁의 현실에 뛰여든뒤로부터 류성운에게는 이런 랑만적인 상념에 잠기는 버릇이 생겼었다.

지그시 내리감은 류성운의 눈앞으로는 그자신이 병사가 되여 긴 보총을 메고 배낭을 지고 수류탄 두알을 허리에 데룽거리며 걸어다닌 전쟁로상에서 목격한 준엄하고 영웅적인 생활화폭들이 스쳐지나는것이였다.

밤하늘에서 불비처럼 쏟아지는 소이탄에 불바다로 된 도시에서 들리는것은 아우성이 아니라 반항공 고사포병부대 지휘관들의 하늘을 찌르는 사격구령들이였으며 복구대의 노래소리였다.

들판에서 소잔등에 위장을 하고 밭을 가는 농촌아주머니들과 처녀들의 땀에 젖은 얼굴, 반나마 허물어져내린 학교벽에 나붙은 꼬마화가들의 미술전람회, 전선길에 떨어진 시한탄을 안고 뛰여가던 칠순에 난 할아버지, 남편이 전사한 고지에서도 《샘물터에서》를 웃으며 부르던 녀배우, 남편과 세 아들을 원쑤놈들에게 빼앗기고도 길에 나와서 전

선으로 행군해가는 전사들에게 따끈한 숭늉을 떠주며 잔등도 두드려주고 떠들썩하게 우스개소리도 하던 어머니, 마식령에서 만났던 지질탐사대원들, 어깨우에 다리를 놓아 보병들을 도하시킨 공병전우들.
(나는 분명 그 청년의 눈동자속에서 싸우는 조국의 의지력을 본것이 아니였던가！)
수술실 담당간호장이 눈물을 뿌리며 달려와 환자가 정치부원장의 아들이라고 말한것은 이때였었다.
(녀성으로 볼 때 너무나도 평범하고 소박한 이 어머니는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가？ 전혀 뛰여난데가 없는 그의 몸은 어찌하여 그처럼 완강한 의지력을 발휘하게 되는것인가？)
김봉순은 군의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던진 그 사색의 세계를 속속들이 꿰뚫어볼수 없었을뿐더러 그럴 정황도 못되였다.
김봉순은 하루일을 끝내고는 담당간호원을 교대하여 아들의 곁에서 밤을 새기도 했다. 어머니는 아들을 재우기 위하여 불을 끄고는 내내 어둠속에 앉아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는듯 그의 손을 꼭 쥐고 밤을 새웠다.
먼 전선쪽에서 간단없이 울려오는 포성이며 야간폭격기의 폭음에 소창유리가 불안하게 떨었다. 어디선가 멀지 않은곳에서 폭탄들이 터지며 서슬푸른 화광이 번개처럼 방안을 비칠 때마다 아들의 얼굴이 어둠속에서 언뜻거렸다. 그 순간 환자는 반사적으로 몸부림치며 버럭 소리를 내질렀다.
《영생불멸할것이요！…》
밑도끝도 없는 이런 소리는 어머니를 울리고야말았다. 어머니는 어둠속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며 아들의 팔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착실한 직일간호원처럼 이 사실도 간호일지에 적어넣었다. 이튿날저녁 류성운은 담당간호원에게 환자의 헛소리를 한마디도 빠짐없이 속기하라는 지시를 주었다.
이른아침에 류성운은 처녀의 눈물에 얼룩진 속기록을 들여다보았다.

새벽 1시 30분.
《광준동무！ 울지 말라구！… 우리는 영생불멸할것이요！》
새벽 2시 13분.
《안되오！ 중대로 가야 되오！ 하나…둘…하나…둘…》
새벽 4시 7분.
《(흐느낌) 갱도전의 구상은 실현될것이요…》

새벽 4시 31분.

《련대장동지! 새 소대를 주십시오! 칠성동무! 명보동무! 한철흠동무… 동무 영재가 아니요?!》

새벽 5시 7분.

《가자구!… 온돌방에 누워야지… 가자구!… 중대로!… 광준동무…하나…둘…》

속기록에서 시선을 뗀 류성운은 담배를 피워물고 한동안 생각에 잠기였다. 그의 얼굴은 밝아졌다. 이날 정치부원장을 만나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드님의 증상은 순수 림상학적원인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혼수상태에서도 싸움을 계속하고있습니다. 저 무엇이라고 말씀올릴가요. 이를테면 대뇌피질 해당 부위의 타성적인 초긴장이 다른 부위의 위축을 가져왔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환자는 독방에 옮겨졌다.

닷새후 그의 얼굴에서는 혈색이 피여나기 시작했다. 그는 눈을 떴으나 먹을것을 전혀 입에다 대지 않았고 망연자실한 사람처럼 천장을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다. 어머니와의 상봉도 그를 이런 상태에서 건져내지 못했다.

류성운이며 어머니며 간호장들이 찾아와서 기분상태는 어떠냐, 먹고싶은것이 없느냐고 물으면 그는 억지로 미소를 그려보이며 별로 생각이 없노라고 대답했다.

그는 번민하고있었다. 멍하니 천장만 쳐다보는 그의 눈에는 이따금 연 녹은 물과 같은 눈물이 가득 고여 떨고있었다. 그의 마음은 밤마다 적후로, 포탄야적장과 집결장소와 바람부는 릉선과 어두운 골짜기의 숲속을 헤매며 피타는 목소리로 쓰러진 전우들(그는 그렇게 생각하고있었다.)을 부르고있었다. 조국으로부터 자기가 맡았던 보병소대, 《장마행군》을 이겨냈으며, 공세적인 참호를 같이 팠으며, 질풍같은 반돌격으로 적 산병선을 짓이겨버렸던 전우들은 어디로 갔는가. 아, 용감무쌍한 소대는 이미 존재를 끝마쳤는가. 조난당한 배처럼 쪼각쪼각이 나서 이 전쟁의 불바다우에 흩어져버렸는가. 젊은 지휘관의 눈물은 날 샐 때까지 베개를 적셨다. 명멸하는 의식의 너울거리는 그림자와도 같은 이런 환상에 이끌리고나면 그의 몸은 식은땀에 함뿍 젖는것이였다. 그를 이런 상태에서 구원한것은 며칠후 야전병원마당에서 일어난 《소동》이였다.

그날 정오 곽병식은 허탈상태에 빠진듯 눈을 반쯤 내리감은채 맥을 잃고 누워있었다. 담당간호원이 환자에게 일광욕을 시키느라고 등화관제용 휘장을 말아올려놓았었다.

밖에서 벅적 떠들어대는 녀인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 목소리들은 불평을 터뜨리며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간청하며 호소하며 끓어번졌다. 부름소리, 그 목소리들의 홍수를 뚫고 침착한 다른 목소리가 도간도간 솟아올랐으나 녀인들의 목소리는 파도처럼 그것을 삼켜버렸다.

《아니！ 아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 말을 들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정말！ 정말！》

《여보세요！》

침착한 목소리는 다시 울렸다.

《돌아가들 주세요！ 여러분！ 다 됐어요！ 여러분, 이러지들 마세요！ 돌아가주세요！》

곽병식은 그것이 어머니 목소리란것을 알아듣고 창문쪽에 얼굴을 돌렸다.

×형으로 종이오리를 붙인 뙤창유리로 바깥정경이 내다보였다.

검은 솜저고리, 국방색 군복저고리, 흰저고리, 남색, 자주색 저고리…갖가지 옷차림을 한 수십명의 녀인들이 어머니를 떠밀며 욱욱 밀려들고있었다. 직일관 완장을 두른 키큰 군관이 팔을 쩍 벌리고 막아나섰으나 그자신도 비칠거리며 밀렸다.

흙먼지에 덮어진 흰저고리를 입은 다부지게 생긴 어머니가 소매를 팔굽까지 걷어올린 실팍한 팔을 어머니앞에서 삿대질하듯 흔들며 웨치고있었다.

《늙은것의 피라구 나무람하는가요？！ 업신여기는가요？！ 예？！ 예？！ 내 팔을 좀 보시유！ 시체 처녀들하구 비기겠소！》 실로 열렬한 탄원이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손을 높이 들어 흔들며 말했다.

《여러분, 노엽게들 생각마시고 돌아가주세요. 인젠 수혈이 끝났습니다. 돌아가주세요！》

그러자 녀인들은 다시 벅적 끓어번졌다.

《리곡리녀맹만 먼저 알리구서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

어요!》
《우리 솔골녀맹은 사람값에 못가나요?!》
《정말 섭섭해요!》
《섭섭해요!》
어머니는 녀인들의 손을 잡으며 달래였다.
《여러분, 노엽게들 생각말라요! 리곡리에다도 알린게 아니랍니다! 어떻게 먼저 알구서 달려왔어요!》
《아니예요!》
《아니 정말!》
《우리도 제 살붙이를 전선에 보냈소!》
그런데 또 한무리의 녀인들이 저쪽 언덕길로 해서 이쪽으로 달려오고있었다. 골짜기에 난 큰길로 해서 백여명의 녀인들이 달음쳐오는것이 보였다. 그 녀인들은 어느 공사장에서 일하다 말고 달려오는듯 손에손마다 삽과 괭이들을 들고있다.
그들은 부상병들에게 자기들의 피를, 사랑을, 온기를 불어넣어달라고 야전병원 마당으로 밀려드는것이였다.
그 모든것을 내다보던 곽병식은 그만 목이 메여 얼굴을 베개에 묻고 소리없이 흐느꼈다.
점심에 담당간호원이 운반식사를 가져왔을 때 그는 죽을 얼마 씹지 않고 꿀꺽꿀꺽 넘기였다. 마침 아들을 찾아왔던 봉순은 놀랐다.
《입맛이 좀 당기느냐?!》
《어머니, 먹구서 일어나야겠습니다!》
한달후 그는 류성운박사와 함께 산보까지 하게 되였다. 봉순은 저녁식사가 끝난 한가한 시간이면 눈에 덮인 강얼음판우를 거니는 그들의 모습을 멀리서 자주 보게 되였다. 그때마다 봉순은 얼굴에 떠오르는 행복한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아들의 건강회복과 그들 사이에 맺어진 친교가 어머니를 기쁘게 했던것이다.
《너희들은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많으냐?》 하고 김봉순은 하루 아들에게 물었다.
《참 어린애처럼 호기심이 많은분이던데요. 헤여질 때면 깊은 한숨을 짓군하는데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
《누구나 나이를 그만큼 먹으면 이것저것 불행한 일을 한두가지씩은 가지게 마련이지. 너는 아직 인생이란걸 모른다. … 나많은분들과 얘기할 땐 사생활문제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되느니라. …》

3

야전병원에서의 사업도 끝나가고 평양으로 올라갈 날이 박두해왔으나 류성운은 자기의 생활준칙을 허물지 않았다. 그는 저녁식사후의 휴식시간이면 예나 다름없이 곽병식에게 산보를 청했다. 그들의 로정은 언제나 같은 자리, 야전병원 정문을 벗어져나와서 눈에 덮인 강얼음판우를 걷는것이였다.

《이사람,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류성운은 늘 이런 말로 이야기의 허두를 떼군했다. 이야기는 점점 기탄없이 벌어졌으며 깊은데로 들어갔다. 새세대 청년들의 륜리관에 대하여, 전후의 포부에 대하여, 이 전쟁이 우리 인민들의 사상의식을 어떻게 단련시켰는가에 대하여… 사고방식에서 다소 현학적인 요소가 있는 외과의는 자기나름으로 조국의 의지력을 대표한다고 생각한 이 청년에게서 시대의 모든 해답을 받아내려는듯한 천진한 욕망을 보이고있었다. 얼음판우에는 그들의 발자국으로 길이 닦아졌으며 그옆에는 담배꽁초들이 널려졌다.

《…이사람아,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방어선에서의 갱도의 요새화에 대해서 깊이있게 말해줄수 없겠나?》

전에없이 푸근한 저녁이였다. 류성운은 곽병식의 팔을 스스럼없이 끼였다.

곽병식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피여났다. 첫날부터 외과의는 여러가지 저격무기와 대포들의 발전력사와 일반전술문제의 이러저러한 개념들에 대하여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것은 군사지휘관인 젊은이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주었다.

《군의동진 군사학에 대한 무슨 론문이라도 쓰시려는게 아닌가요?》

《그럴 생각은 없네만 내 한번 련대장이 돼서 동무를 틀어쥐구 지휘해보고싶다니까!》

《하하하!》

야전병원 토굴들의 굴뚝에서 나는 연기가 푸근한 대기속에 배여들어 평화시절의 한가로운 저녁을 련상시켜주었다.

《아, 좋은 저녁인데요!》

《좋아, 이런 상쾌한 공기속을 걷고나면 하루 피곤이 말끔히 가시고 머리가 시원해지네. 냄새를 맡아보라구. 이 골짜기 공기속에는 사람의 건강에 아주 좋은 솔잎냄새가 알맞춤하게 배여있네. 우리 환자들이 빨리 회복되는데는 조국자연의 혜택도 있는지 모르지.》

곽병식은 상쾌한 공기를 가슴가득 들이켰다가 후— 내뿜었다.

《나는 일반군사학을 학습하면서도 직업의식때문인지 사람의 생리적구조를 생각해보게 되네. 동무나 나나 사람들의 피부밑에는 두터운 지방층이 있네. 이 지방층은 외부로부터 침습하는 추위며 더위, 병균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튼튼한 방어선이네. 뇌수는 두개골과 머리칼에 의하여 보호되고 심장, 페장, 간장 등 기관들은 륵골이란 방어요새속에 보호되네. 피부에는 신경망이 빈틈없이 배치되여 외적이 침범하면 그 순간에 보고되거던. 게다가 뇌수의 지령없이 긴급정황을 처리할 수 있는 반사작용이란 비상수단까지 있단말이요. 생각해보라구. 체내에 병균이 침입하면 수만수억의 백혈구의 군단들이 달려나가 적을 포위섬멸하거던. 그리고 이것 보라구. 인간은 오른손을 로동의 기본수단으로 쓰고있는데 그건 가슴 왼쪽에 붙어있는 심장을 내대지 않고 보위하기 위해서네. 이 모든것은 자연계의 무의식적인 도태와 진화과정이 만들어놓은것이지. 한데 하물며 온 나라와 민족을 침략자들로부터 보위하기 위한 우리 군사과학의 모든 문제들에야 얼마나 큰 사상과 깊은 뜻이 깃들어있겠는가 하고 생각하게 되네.》

군사학에 대한 외과의의 이런 깊은 관심과 신중한 태도는 젊은이로 하여금 불타는 향학열로 습득했던 지식의 창고를 다 털어내여 열변을 토로하게 했다.

수천년 력사의 흐름속에서 전쟁은 크게 두가지 방법,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진행되면서 얼마나 많은 전법들과 군사행동 조례들과 공격과 방어의 각이한 양상들을 만들어냈던가! 밀집대형과 산개대형, 기병대의 우회와 포초, 강행도하, 허위공격, 산성과 요새에 의탁한 방어, 강선대포의 주조와 축성술, 중기관총의 발명과 산개대형의 발생, 교차화력, 면적사격, 지그자그형 참호의 발생, 무선전신 도청과 변신법의 발생, 심리전을 위한 피로사격, 돌파구형성을 위한 소모전… 곽병식은 문득 자기 화제가 너무 전문적인데로 기울어진다는것을 깨닫고 숨을 돌려 쉬고는 군의가 알아듣기 쉽도록 풀어서 말하기 시작했다.

《어쨌든말입니다, 전쟁이 생긴 첫날부터 전쟁은 크게 두가지 방법, 즉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진행되였지요. 방어하는측은 강적을 막아

내기 위해 장성을 쌓고 운하를 파고 보루를 건설하고 청야전술의 불길로 강토를 불살랐으며 각종 참호며 영구화점, 토목화점을 만드는 등 온갖 시도들을 다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약한측의 수세를 의미했습니다. 방어에 대한 이런 개념은 현대에까지 오며 수천년간 지속되였습니다. 그러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군대의 요새화된 갱도에 의탁한 적극적인 방어전, 이것은 방어에 대한 기성관념을 타파하고 방어와 공격을 결합한 군사예술사상 일대변혁이였습니다. 이것은 수세가 아니라 완강한 공격입니다. 산악이 많은 조선의 지형조건에 가장 알맞는 탁월한 전법입니다.

기성군사예술의 교조에 물젖었던 일부 사람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군사사상의 이 진수를 인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전쟁은 점차 자기의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제침략군의 모든 군사기술장비들은 평야에서의 전투를 기본으로 한것인데 조선의 산악조건들이 그것을 방해했지요. 우리 군대는 적군을 험악한 산악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전쟁진행과정에서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 측이 유리한 전술적가능성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인민군대는 벌판과 대도로에서 놈들을 끌고 구름우에 높이 솟은 산으로 기여올랐습니다. 조선전쟁에서는 도시나 벌판이 아니라 산을 빼앗는 싸움이 시작되였습니다. 오랜 침략전쟁의 경험으로 세습화된 적장군놈들은 평야지대의 전술을 고집스럽게 적용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런 사정들을 가장 현명하게 포착하시고 교조적인 군사예술의 낡은 명제들을 타파해버리시고 조선의 지형조건에 맞는 독창적인 탁월한 전법을 내놓으셨습니다! 모든 고지의 갱도들이 요새화된 조건에서 적들은 어떤 포화력이나 폭격으로도 그것을 파괴할수 없으며 수만, 수십만의 대군을 들이밀어도 아군방어선에 돌파구를 뚫을수 없습니다. 이것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 적들의 공격은 곧 패배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연 적들속에서는 비관주의, 염전사상, 무모한 공격에로 내모는 상관들에 대한 반항, 이를테면 정치도덕적부패가 시작되지요. 보십시오. 이것은 적들의 내부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공세로 됩니다. 우리는 갱도에 의탁하여 적 고지들과 후방에 대한 부단한 기습전을 벌립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누가 공격을 당하는것으로 되고 누가 수세에 빠지는것으로 됩니까? 결국 이것은 방어의 외피를 쓴 완강한 공세입니다. 장기전에서는 군대가 생기를 잃지 않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쟁이 지루하게 끌면 끌수록 권태를 느끼지 말고 군대가 왕성한 생활

력을 유지하고 서로 한가정 성원들처럼 단합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갱도안에서 전사들이 즐겁게 휴식하고 집에서처럼 마음붙이고 살수 있도록 온갖 은정을 돌려주십니다. 우리 군부대에 오신 그이께서는 금년 겨울엔 화선전사들이 누구나 고향집에서처럼 뜨뜻한 온돌에서 잘수 있도록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온돌에 대하여 가르치셨단말이요?!》

《예…》

류성운은 곽병식의 팔을 꽉 힘주어 끼였다. 그의 얼굴에는 환희와 흥분이 어리여있었다. 그들은 걸음을 맞추어 활기있게 걸어나갔다. 차거운 공기가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윽고 류성운은 그의 팔을 놓더니 걸음을 멈추고 담배를 피워물었다. 뒤에서 눈을 밟으며 뛰여오는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났다. 곽병식은 돌아봤다. 손에 벗어쥔 흰 위생모를 흔들며 담당간호원이 뛰여오고있었다. 얼음판에 뛰여든 처녀는 미끄러지는바람에 흠칫 몸을 뒤로 젖히였다가 인차 바로잡으며 깔깔 웃어댔다.

《여기 계시는걸 그렇게 찾았군요!》

《무슨 일이요?!》

《소대장동지, 알아맞히세요. 무슨 기쁜 일이 생겼겠나. 어서요. 하나, 둘, 셋…》

《편지 오지 않았소?》

《리명보라고 누구예요?》

《어디 있소?!》

《정치부원장동지가 가졌어요!》

《군의동지, 가보겠습니다!》

《…》

그는 정문쪽으로 뛰여가다말고 뒤돌아봤다. 군의는 여전히 머리를 수긋하고 얼음판우에 서있었다. 그는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듯했다.

어머니 책상의 새로 온 신문들우에 규격보다 작아보이는 봉투가 놓여있었다.

곽병식은 명보의 동실동실한 글씨를 알아보고 봉투를 뜯었다. 봉투속에서 명보의 목소리가 방안가득 울려나오며 그의 가슴을 마구 뒤흔들어놓는것 같았다.

보고싶은 소대장동지 앞

그리운 소대장동지,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편지를 읽으며 모두 울었습니다. 우리는 소대장동지를 다시는 만나지 못할줄 알았어요. 소대장동지가 일어나 산보까지 하게 되였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잘 있으니 여기 걱정은 하지 말고 천천히 잘 치료하시고 나오십시오. 소대장동지, 그곳에도 눈이 많이 내렸는지요? 여기 고지에는 눈이 한길씩이나 쌓였습니다. 우리는 갱도속 병실에 이사했습니다. 온돌에 불이 어찌나 잘 드는지 밤이면 모두 땀을 흘립니다. 찬일동무가 아래목은 소대장동지 자리라고 하면서 누구도 함부로 눕지 못하게 합니다. 참 한가지 기쁜 소식을 전해올리겠습니다. 정치부중대장동지가 갱도안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기 위한 소대별 창의고안경쟁을 조직했습니다. 1소대에서는 절구를 만들고 2소대에서는 함지를 만들고 숟가락을 중대인원수만큼 만들어서 제출했는데도 우리 소대한테 졌습니다. 소대장동지, 우리가 왜 이겼겠는가 맞혀보십시오. 신찬일동무가 말입니다, 배낭속에 지고 다니던 부속품을 다 털어서 벽시계를 만들었던것입니다. 칠성동무와 저는 그의 조수가 되여 시계바늘과 못들을 가느라고 손이 다 부르텄습니다. 유리가 없을뿐이지 시계는 제법 잘 갑니다. 하루 두번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에 치게 되여있습니다. 시계추는 련대포병수리소에 가서 깎아왔는데 별까지 새겨넣었습니다. 소대장동지, 갱도속에는 그리운것이 없습니다. 매일 흥겹고 번창한 생활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소대에 소대장동지와 박광준아바이가 안계시니 텅 빈것 같은게 어쩐지 이상합니다. 광준아바이는 소식이 감감인걸 보니 아주 후방에 들어가버린 모양입니다. 소대장동지! 소대장동지가 한철흠분대장동지한테 보낸 편지를 정치부중대장동지가 와서 전체 소대를 모아놓고 읽어주었습니다. 한철흠분대장동진 적후에서 전사했습니다. 소대장동지, 그때 우리는 집결장소에서 소대장동지와 박광준아바이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야 오지 않으니 한철흠분대장동지는 저희들을 데리고 찾아떠났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우리가 달려갔을 때 골짜기의 독립가옥은 우등불처럼 타오르고있었습니다. 우리는 산기슭에 숨어서 내려다보고있었습니다. 독립가옥을 둘러싼 적병들은 불붙는 집에 대고 마구 총질하고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막혀 울음을 터치고말았습니다. 그때 한철흠분대장동진 저를 꾸짖었습니다. 군인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비관할 권리가 없

다, 지휘관과 전우들을 목숨으로 구원하는것은 군인의 신성한 의무이다, 분대장동지의 목소리는 규정조항을 외우는것처럼 엄격하고 딱딱했습니다. 우리는 두조로 갈라져서 앞뒤로 들이닥치며 놈들을 마구 쓸어눕히고 불길속으로 뛰여들었습니다. 적진과 아군진지의 중간지대인 유수강상류까지 놈들은 우리를 쫓아오며 사격했습니다. 조칠성동무가 광준아바이를 업고 부분대장동지가 소대장동지를 업고 먼저 물을 건넜습니다. 분대장동지는 강염 모래불에 엎드려 달려오는놈들에게 사격하고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거의 건너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적병들이 분대장동지와 한덩어리가 되여 모래불에서 딩굴고있었습니다. 저는 자동총을 마구 갈기며 뛰여갔으나 물속에 쓰러지고말았습니다. 저의 눈앞에서는 불기둥이 일었습니다. 분대장동지는 자폭했습니다. 칠성동무가 제일 많이 울었습니다. 며칠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소대장동지, 저희들은 왜 분대장동지를 리해 못했을가요. 너무 딱딱하게 군다고 의견도 가지고… 인제는 누가 한철흠분대장동지처럼 그렇게 깐깐스레 요구를 하고 잔소릴 해주겠나요. 분대장동지가 원칙적인것을 요구한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너무 빈틈이 없다고 삐뚜로 달아나기도 하고 속으로 좀 못마땅히 여기기도 했단말이예요. 며칠후 특무장동지의 지시에 의해서 저는 한철흠분대장동지의 배낭을 정리했습니다. 배낭속에서 실로 꿴 단추묶음이 나왔습니다. 외투단추, 견장단추, 저고리단추, 잘다란 바지단추, 여러가지 호크들, 없는게 없었어요. 쩍하면 단추를 잃어먹군하는 저희들을 위하여 마련해둔 모양입니다. 소대장동지… 분대장동진 없습니다! 없어요!…

곽병식은 허물어지듯 걸상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싸쥐였다. 언제나 규정에 어김이 없던 그의 충실성때문에, 그가 가지고있던 인간적인 약점때문에 슬픔은 더 아프게 가슴을 찔렀다. 곽병식은 비분에 온몸을 떨었으나 너무 억이 막혀 울음이 나가지 않았다. 감싸주고 쓰다듬어주는듯한 부드럽고 따뜻한 체취가 그의 몸을 휩쌌다.

《애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봉순의 손길은 아들의 들먹이는 어깨며 헝클어진 머리칼을 쓸어만졌다.

《애야! 애야!》

무한히 자애롭고 부드럽기만 한 봉순의 얼굴은 놀랍게도 해쓱하니 질려서 떨었다. 그는 아들의 팔을 부여잡고 물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머니!》
참을성있는 가슴에 눌렸던 비애는 애무나 위안의 품에 안기면 터져오르고마는 법이다. 곽병식은 어머니가 곁에 오자 소리내여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가슴의 아픔을 참을수 없어 의자를 밀어던지며 뛰여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봉순은 아들의 무릎에서 떨어진 편지를 집어들었다.
편지를 읽고난 봉순의 얼굴에서는 좀전의 그 유화한 빛은 가신듯이 사라지고 실망의 그늘이 비꼈다.
노여움에 굳어진 봉순의 얼굴은 한순간에 늙어진것 같았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사람을 잃었어요!》
다시 의자에 와앉은 곽병식은 머리칼을 움켜잡고 부르짖었다.
봉순은 아들에게서 눈을 떼고 그의 옆 공간의 한점을 응시하고있었다. 그의 얼굴은 엄엄하게 굳어져있었다.
준절하고 싸늘한 기운이 방안을 가득채웠다.
《…어떻게 되여 이런 일이 생겼느냐. 나한테 다 말해라!》
아들은 억이 막혀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어머니!》
《네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라!》
《어머니!》
《말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지 않았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너는 대원한테 업혀있었다면서?…》
《예…》
《왜 보고만 있었니?!》
《저는 모르고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의식을 잃고있었나?》
아들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어머니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고 지친듯 눈을 내리감으며 귀밑머리를 쓸어올렸다. 어머니는 목이 쉰 소리로 물었다.
《그 한철흠이란 동무는 나이가 몇살이냐?》
《29살이였습니다.》
《어디 태생이냐?》

《재령이 고향입니다. 분대장이였어요!》
《그럼… 너의 대리인이였겠구나!》
《성실한 하사관이였어요! 진실한… 동무였어요!》
《아… 참… 좋은 동무를 잃었구나!…》
《어머니!》
곽병식은 설음과 비분이 북받쳐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없이 흐느꼈다.
어머니는 비애에 지쳐버린듯이 조용히 물결치는 아들의 잔등을 쓰다듬으며 타일렀다.
《꾹 참아라. 마음을 모질게 먹어라. 이런 땐 무슨 위안도 쓸데없느니라. 그저 제가 마음을 모질게 먹어야 한다! 다감한 감성만 가지고는 이 준엄한 시련을 이겨 못나간다. 혁명의 길에서 싸워이기자면 마음을 모질게 먹어야 한다. 이건 내가 지난 생활에서 얻은 진리다. 누구나 울고 슬퍼하고 가슴아파할수는 있다. 하나 그것으로 의무를 다하는건 아니지. 원쑤와 싸워이기자면 어떤 희생앞에서도, 어떤 손실앞에서도 끄떡 없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모범을 배워야 한다. 그이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에 나서신 뒤 아버님과 어머님, 삼촌과 동생을 잃으시고 왜놈들에게 시달림받으시는 조부모님들의 소식을 들으시고도 오직 조국의 광복을 위해 언제나 우리의 앞장에서 굳세게 걸어나가시였다. 그이처럼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그이처럼 조국의 일목일초와 자연을 사랑하시는분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 전쟁으로 온 강산은 불타지, 고아들의 눈물이 흐르지 않은곳이 없지. 좀 생각해봐라. 3천만을 한품에 안으신 그이의 가슴이 어떻겠느냐. 하지만 그이께서는 사람들앞에 나서실 때면 늘 환한 웃음을 지으신다. 그분의 강철의 의지가 우리를 승리에로 이끄는게다!… 너의 아버지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도 네가 철이 들면 다 이야기해주자고 했는데 사업에 쫓기다나니 그러지 못했구나. …》
밖에서 눈밟는 소리 같은것이 들렸다.
어머니는 누가 엿듣지 않나 해서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봤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젊음이 소생한듯 행복한 홍조가 피여나고 생기를 띤 두눈엔 그윽한 미소가 빛났다.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청춘시절의 옛말은 은은한 자장가처럼 그의 가슴에 흘러들었다. …

19살에 난 김봉순이가 산판목재소에서 일하는 억대우같은 총각 최무성이한테 시집온 이듬해 봄, 풀들이 파릇파릇 돋아나 온 천지에 싱그러운 풀냄새가 취할듯이 풍기고 새들의 노래가락이 강산에 차넘치던 어느 화창한 날 정오에 봉순은 밭머리에서 아들을 낳았다. 가난뱅이 최무성은 사람부자였다. 결의형제를 무은 목재소로동자들이 애기옷이며 기저귀감들을 들고 그의 오막살이에 찾아와 한구들 가득 앉아서는 누데기에 싸놓은 피덩이같은 갓난애기를 들여다보며 희희락락했다. 그 자리에는 야학에서 글을 가르치는 현선생이란분도 와있었다.

봉순은 부끄러워서 머리를 수긋하고 구석쪽에 쪼그리고 앉아있었다. 매사에 우둔하고 철이 없게만 생각되는 아버지는 창피한줄도 모르고 아이를 쩡쩡 시린 찬물에 담갔다내겠다고, 그래야 총기가 밝아진다고 하면서 덤볐다쳤다. 그렇지, 그래야 사내대장부가 된다고 부추기는 축들도 한둘이 아니였다. 무슨 일을 저지를것만 같아 조마조마해있던 봉순은 남편의 손이 닿기전에 아이를 얼른 안고 돌아앉아버렸다. 그러자 지붕이 들썩하게 웃음이 터졌다. 고생속에서도 즐거운 날, 명절날이였다.

결의형제들이 모여앉아 아이 이름을 짓느라고 론의들이 구구했을 때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있던 현선생이 큰기침을 한번 하더니 말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시장철 그 빛, 그 기상 변치 않는것이 소나무인데 소나무송자에 수풀림자라, 절개높은 조선의 아들이 되게 송림이라고 짓는것이 어떠냐고 했다.

밤마다 야학에서 늦게 돌아오는 아버지는 쌔근쌔근 자는 아들을 정신이 팔려 들여다보다가는 젊은 엄마를 돌아보며 벌쭉이 웃었다. 그리고는 혁명이요, 민족이요, 독립이요 하는 말로 안해의 가슴을 들먹이게 했다.

최무성은 야학에서 배운 글을 안해에게 가르쳤다.

어느날 봉순은 밭김을 매다가 나무그늘밑에서 송림에게 젖을 먹이며 남편에게서 배운 글을 한자한자 땅우에 써보고있었다. 이때 아이가 젖꼭지를 따끔하게 깨무는바람에 엄마는 하마트면 소리를 지를번 했다. 그는 애기의 입을 벌리고 안을 들여다봤다. 아래이몸에서 해빛에 빤짝하는것이 있었다. 차돌같이 하얀 이발이 발기우리한 살속에서 톡 삐여져나와있었다.

송림은 엄마를 쳐다보며 방긋 웃었다.

《아이, 참…》 엄마는 가슴에서 솟음치는 기쁨을 참을수 없어 마을로 달려가서 《갑산할머니, 애가 웃는걸 좀 봐요！》 《북청집아주머니, 이게 이발이 아닌가요？！》 하고 자랑하고싶었다.

봉순은 아이를 안고 덩실덩실 추어올리며 목재소쪽으로 가는 큰길에 나섰다. 이때 저쪽 산비탈길로 먼지구름을 날리며 누런 기병대가 달려오고있었다.

애기의 웃음에 홀려 세상시름을 다 잊고 강산도 하늘도 눈부시게만 보이던 봉순은 기병대에서 발사되는 총소리에 놀라 그자리에 얼어붙었다. 질풍같이 달려드는 기병들의 말발굽소리는 단꿈이 찰랑거리는 엄마의 가슴을 짓밟았다. 《와— 와—》 부르짖으며 달려드는 왜놈기병들의 머리우에선 장검들이 살륙의 빛을 뿜으며 번뜩거렸다.

기병들의 단말마의 기세에 얼이 나간 엄마는 아이를 안고 길한복판으로 정신없이 뛰여갔다. 그는 질풍같이 달려드는 기병들의 먼지구름속에 풀대처럼 말려서 도랑창에 구겨박히고말았다. 몽당치마를 뒤집어쓰고 애기를 안은채 꼬꾸라진 엄마는 땅을 뒤흔드는 말발굽소리와 칼들이 공기를 째는 회파람소리를 어렴풋이 들으며 까무라쳤다.

이날 목재소마을은 불타버렸고 야학선생은 칼에 찍혀 두동강이 나 학교뜰에 딩굴었으며 가슴을 찢는 녀인들의 통곡소리를 뒤에 남기고 50명의 로동자들이 말꼬리에 끌려서 징역살이 고생길로 떠나가버렸다.

그 무슨 행운이 도왔던지 살아남은 최무성부부는 수리한테 둥지를 털리운 새처럼 험악한 세월의 찬바람속에 던져졌다.

칠칠 그믐밤처럼 캄캄한 최무성의 눈앞에 아침노을처럼 불타며 떠오른것은 야학의 남포등밑에서 현선생이 하던 이야기였다. 왕청땅에 별천지가 생겼다. 조선의 태양이 누리를 비치고 백성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노래하며 춤추며 산다는곳, 농사군에겐 땅을 주고 아이들은 돈도 안받고 공부를 시켜준다는곳, 부녀자들도 남자와 평등해서 글도 배우고 연설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춤도 춘다는곳… 그리로 가자! 하루 살아도 조선의 태양밑에서 사람대접을 받으며 살아보자. 그들은 왜경들의 눈을 피해 깊은 산중 숲속을 헤치며 밤이나 낮이나 해가 뜨는쪽 동쪽으로, 동쪽으로 지친 다리를 끌며 걸어갔다. 숲속에 날이 어두우면 캄캄한 하늘에 애기별들이 앞을 다투어 빤짝이며 나타나고 앵돌아진 북두칠성이 긴 꼬리로 류랑인들의 길을 가리켜주었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떠오르는 해는 그들이 밤새 헛밟은 길을 바로잡아주군했다. 고달픈 길을 걸으면서도 엄마의 살뜰한 손길은 게으름을 모르고 꽃잎들과 풀잎들에 맺힌 이슬에 저고리고름을 적셔서 아들의 눈굽이며 코밑을 닦아주었다.

꼴망태를 메고 한손에 도끼를 쥔 최무성은 앞에서 묵묵히 걸어갔다.

봉순이는 털썩 주저앉으며 못가겠다고 울음을 터칠번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였으나 엄마를 쳐다보는 아들의 새별같은 눈을 보고는 다시 입술을 깨물고 천근같이 무거운 발을 옮겨디뎠다. 그들이 길을 헛갈려 깊은 수림속에서 헤매던 어느 그믐날밤에는 이글거리는 두개의 불덩어리가 앞을 떡 막아섰다. 그것은 숲속을 뒤지던 까마귀옷을 입은 왜놈경찰이였다.

한놈은 칼을 뽑아 머리우에 높이 쳐들고 다른놈은 허옇게 드러난 이발에 살기띤 웃음을 물고 포승줄을 풀었다.

《으흠！…》 그놈은 코를 벌름거리는것 같았다.

최무성은 한손으로는 불빛을 가리우고 다른 한손으로는 허리에 찬 도끼를 잡았다. 꽃나이 엄마의 눈앞에는 수풀우에 피가 랑자하고 고기덩이가 뿌려진 참경이 떠올랐다. 엄마의 전률이 애기의 가슴을 놀래웠던지 송림이 소스라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애기를 돌려안고 남편의 등뒤에 숨었다. 포승줄을 풀어든놈은 앞으로 다가왔다. 엄마는 서슴없이 남편의 앞을 막아서며 바스라지게 우는 애기를 놈들앞에 쳐들었다. 《이놈, 승냥이들아！ 이 피덩이부터 묶어라！》 남편의 우악스러운 힘은 엄마를 풀숲에 뿌려던졌고 도끼날은 어둠속에 번쩍거렸다.

번개같은 도끼산장에 두놈의 몸뚱이는 길바닥에 나딩굴었다. …

류랑의 험난한 길에 무슨 일인들 없었으랴. 남의 집 떡방아를 찧어주고 연자방아를 돌려주고 끼니를 얻어먹은 일이 한두번이 아니였으며 지주집의 도리깨마당질을 해주고 장작을 산더미처럼 패주고는 장알진 손바닥에 한줌의 좁쌀과 동전 몇잎을 받아가지고는 또다시 길을 떠났다. 가난한 사람들은 살길을 찾아가는 젊은 부부를 눈물로 바래우기도 했으며 풍산에서 왔다는 늙은 포수는 먼길에 애기의 손발을 얼구지말라고 산토끼가죽 한장을 선사하기도 했다. 칠순이 넘은 한 할머니는 세월탓에 나자부터 고생길을 걷는 아이에게 명이 길어 오래오래 살아 큰 사람이 되라고 한발이나 되는 삼노끈을 목에 감아주기도 했다. 험악한 그 세월에는 길에서 사람 만나는것이 제일 두려웠다. 들판과 숲속에서 함부로 날치던 《토벌대》와 경찰놈들이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짐들을 뒤져보고 발길로 툭툭 차버리며 어디서 떠난 《놈》인데 어디로 가느냐고 따지고들었다. 그때마다 최무성은 발끝을 내려다보며 풍산서 떠났는데 돈벌이좋은 고장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얼버무렸다. 어떤 때에는 거지행장을 한 특무놈이 이틀씩이나 따라오며 자기의 거짓신세타령을 늘어놓으며 눈치를 살피다가는 사라지기도 했다.

그들은 황황 불타는 동녘하늘을 바라보며 가고 또 갔다.
그들이 왕청땅 유격근거지에 도착한것은 이듬해 봄이였다.
젊으신 장군님께서 그들의 집을 마련해주시고 송림이를 잘 키우라고 모포 두장과 옷감으로 광목천까지 보내주셨다.
최무성은 청년의용군이 되였으며 봉순은 부녀회에서 일하며 배웠다.
그들은 송림이를 재워놓고 밤늦게까지 등불아래에서 **김일성**장군님께서 친필하신 론문들을 읽었으며 최무성이가 베껴온 《지주와 머슴군》과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를 소리내여 랑독하다가는 둘이 다 목이 메여 서로 외면하며 눈물을 훔치였다. 글눈은 봉순이가 먼저 틔였으나 혁명실천은 최무성이 앞섰다.
그래서 최무성은 청년의용군을 거쳐 유격대에 입대했으며 왜놈 《토벌대》를 치는 싸움에서 기관총을 빼앗은 다음부터는 기관총수로 되였다.
봉순이네 집에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유격대원들이 자주 들리였다.
미래를 위한 싸움에 한목숨 바칠 각오가 된 투사들이 다 그러하듯이 그들은 아이들을 무척 귀여워했다. 최무성의 전우들은 송림이를 안아보며 광복된 조국에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겠는가고 묻군했다. 그때마다 최무성은 늘 한가지 생각, 앞으로 창건될 정규군의 지휘관으로 키우겠노라고 말했다. 봉순은 딴 꿈을 가슴에 품고있었다. 아버지세대의 혁명투사들이 피흘리며 찾아준 조국땅을 화려한 집들과 웅장한 공장들로 수놓을 기술인재로 키우고싶었다. 이런 이야기끝에는 의례 보다 신중한 화제가 론의되였는데 그것은 이 아이들이 커서 아버지세대의 투쟁과 업적에 대하여 얼마나 경건한 태도를 취하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미래에 대한 공상으로 가슴이 부풀어오른 젊은 투사들은 불타는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은은하고 걸걸한 목소리들로 노래를 불렀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탄우속에 거칠어진 젊은 투사들의 얼굴이며 혁명의 노래를 어린것의 넋에 깊이 새겨넣으려는듯 아들을 안아서 노래부르는 아저씨들을 보게 했었다.
김봉순의 혁명의 길은 반유격구와 적통치구역에 간단한 련락을 갔다오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그는 그 임무를 어김없이 수행했다. 그해 가을 김봉순은 적통치구역 지하조직에 문건을 가지고 가라는 임무를 받았다. 그는 친정집으로 가는 농촌녀인의 행장으로 차렸기에 송림이를 업고 가야 했다.
떠남에 앞서 봉순은 경위중대로 찾아갔다. 최무성은 아들의 머리

를 말없이 쓰다듬더니 안해를 쳐다보며 빙긋 웃었고 봉순이는 머리를 소곳이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자기들 세 운명의 영별인사로 될줄이야 꿈엔들 생각했으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봉순은 밀고자에 의하여 적들이 늘여놓은 포위망속에 들게 되였다. 나루배에서 내리자 추격의 총성이 새벽공기를 째고 여기저기서 개들이 짖는 소리, 호각소리들이 어지럽게 울렸다. 봉순은 아이를 안고 키를 넘는 옥수수밭속을 가로질러 지하조직과 련계를 가지고있는 무산집으로 뛰여들어갔다.

무산집할아버지는 봉순의 두손을 꽉 잡으며 타일렀다.

《아이를 맡기구 가라구. 잡히는 날이면 저놈들이 애를 인질로 삼아서 더 괴롭힐거네.》

밖에서는 호각소리들이 자지러지게 울렸다. 봉순은 피눈물을 삼키며 송림이를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뒤문으로 빠져서 옥수수밭으로 뛰여나갔다. 비발치는 총탄에 옥수수대들은 태풍이 휩쓴듯 쓰러졌고 봉순은 미친개처럼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놈들에게 잡히고말았다.

두달후 봉순을 태운 호송마차는 백주에 거리에서 기습을 당했으며 그는 장군님께서 파견하신 의로운 동지들의 손에 부축되여 근거지로 향했다. 하지만 아이를 잃고 오는 엄마의 걸음이 쉬울리 없었다. 남편을 만나 무엇이라고 말하랴 하는 걱정이 앞서 발걸음은 옮길 때마다 무거워만졌다. 아, 그러나 이것은 아직 남편을 둔 안해의 행복한 번민이 아니였던가! 그가 그리운 품으로 돌아온 날은 사령부를 보위하는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기관총수 최무성의 장례일이였다.

전우들은 최무성이 그처럼 가고싶어했던 조국, 구만리로 비낀 조국의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를 무한령의 높은 령마루우, 매도 날아오르지 못한다는 산상봉에 묻기로 했다.

남편의 령구가 묘혈속으로 들어가고 하늘을 향해 영별의 조총이 울렸을 때 봉순은 터지는 통곡을 삼키며 쓰러지지 않으려고 휘청대는 애솔나무를 꽉 잡으며 몸을 의지했다.

그날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 시절에 그처럼 구하기 힘들었던 양초 두대를 가지고 오시여 친히 기관총수의 사진앞에 켜놓으시고 봉순이와 함께 오래도록 앉아계시였다.

그이께서는 내내 말씀이 없으시다가 밤이 깊어서 자애로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혁명을 하자면 커다란 손실도, 이런 가슴아픈 희생도 피할길 없다는데 대하여, 자신께서도 왜놈을 치고 조국을

찾는 이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아버님과 어머님을 잃고 삼촌과 동생을 잃었는데 그 슬픔이야 무슨 말로 위안할수 있으련만 끝까지 혁명을 하여 먼저 간 이들의 혁명정신을 후손만대에 살리겠다는 철석같은 맹세를 다지고 살며 싸우니 슬픔도 사라지고 용기가 백배해지더라고 말씀해주셨다. 봉순은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사령관동지앞에서 목놓아울었다. 어버이 그 사랑에 설음이 더해지며 울음이 터졌던것이다.

《봉순동무, 어떤 일이 있어도 송림이를 찾아야겠소. 그 애를 아버지의 뒤를 이을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키워야겠소. 아버지가 다하지 못한 일을 송림이가 할게요! 그러면 최무성동무는 살아있는거나 같소.》

봉순이는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었다.

《저를 유격대에 받아주십시오!》

날이 훤히 밝아올무렵 봉순은 치렁치렁한 머리태를 잘랐다. 남편의 뒤를 따라 마지막 숨이 질 때까지 혁명과 사령관동지께 충실하겠다는 성스러운 맹세인듯 칠흑같은 머리칼은 그의 치마앞에 소복소복 떨어졌다.

봉순은 이튿날부터 경위중대에 나가 남편의 기관총을 닦기 시작했다. 기름이 아니라 피눈물로 총을 닦았다!

…광복된 조국의 가을날 봉순이는 무산집을 찾았다. 불타버린 집터의 무성한 잡초속에는 주추돌만 남아있었다.

빈 집터에 찾아온 낯선 녀인한테로 모여온 마을 할머니들은 몇해전에 왜놈 《토벌대》놈들이 이 집 식구들을 집안에 가둬놓고 휘발유를 쳐서 집채로 불살라버렸다는 기막힌 사연을 이야기했다.

봉순이 그 집에 얻어다 기르는 사내아이가 없었느냐고 묻자 할머니들은 눈이 커지며 그를 쳐다봤다. 팔순이 된 할머니가 하는 말에 의하면 왜놈들은 그 애를 얼궈죽일 심산으로 두만강 얼음장우에 내버리고는 망을 보고있었는데 아이에게로 접근하는자는 무조건 총살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다. 엄마를 찾는 어린것의 울음소리는 밤새도록 울렸으며 대안마을 녀인들은 잠을 자지 못했다. 이튿날아침 할머니가 나가보니 망을 보던놈은 도끼에 머리가 두쪽으로 갈라져 얼음판우에 딩굴었고 아이는 간데온데 없었는데 조화인것은 겨울인데도 얼음판과 하늘사이에 무지개가 걸려있었다는것이다. 신앙심이 강한 로파의 과장된 이야기는 하늘과 땅을 다 뒤져서도 아들을 찾아내려는 봉순이의 열망에 키질을 했다.

1946년도 초봄 토지개혁사업을 지도하러 황해도쪽에 나갔던 한 혁명투사는 그 지방농민들속에서 인망이 높은 향토시인 곽선생의 집에서 최무성이와 똑같이 생긴 아이를 봤다는것을 장군님께 보고했다.

장군님께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봉순이에게 친히 전화를 걸어주시였다.

《…봉순동무, 곧 떠나가서 알아보오!》

언제나 수식이 없고 진심 그대로이신 장군님의 짤막한 말씀에 봉순은 목이 메여 전화기를 쥔채 한동안 말못하고 서있었다.

봉순이 곽선생댁에 들려 랭수 한사발을 청한것은 해가 뉘엿뉘엿 저물녘이였다. 타향에서 고생을 하다 광복을 맞아 고향으로 가는 행인들이 많던 시절이라 동정심 깊은 곽선생부인은 추호의 의심도 없이 길손을 맞아들여 랭수를 권하고 다리쉼을 하며 저녁요기까지 하고 떠나라고 권했다.

봉순은 못이기는척하고 넉넉치 못하나 알뜰하게 거둔 방안에 들어섰다.

첫눈에 띄운것이 벽에 붙어있는 가족사진이였다. 코밑수염을 소복이 기르고 두루마기를 입은 점잖게 생긴 중년남자가 7～8살의 소년을 안았고 그옆에 눈언저리에 행복한 미소를 떠운 안해가 공손히 서있었다. 사진속의 소년이 틀림없이 자기 아들이란것을 생각했을 때 봉순이의 가슴은 어떠했으랴.… 아들의 왼쪽 입귀에 있는 기미까지 알아본 봉순은 페부에서 터져나오는 부르짖음을 꿀꺽 삼키며 태연하게 앉아있으려고 애썼다.

곽선생부인은 어디가 편치않으냐고 물으며 베개까지 내려놓으며 집이 루추하지만 좀 누우라고 했다. 집의 아버지는 무슨 일을 보는가고 묻자 부인은 머리를 소곳이 숙이며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남편이 광복을 맞아 토지개혁 선전대를 맡아가지고 밤잠을 잊고 일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집안에 아이가 몇이냐고 묻자 곽선생부인은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며 서글픈 미소를 지으면서 사진을 쳐다봤다.

결혼생활 20년에 자식이라고는 저것 하나밖에 보지 못했다는것이다.

봉순은 저도모르게 이것저것 더 물었는데 부인은 서름서름한 대답속에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웃방에서 기침소리가 나더니 사이문이 드르륵 열렸다. 그 시절 지방일군들속에서 류행된 토목양복을 입은 곽선생이 부석부석한 눈을 비비며 나왔다. 그는 안해에게 《여보, 좀 나가보오.》 하고 분부하고는 봉순의 앞에 앉으며 자기를 소개했다. 부엌에 나간 안해가 솥을 부시는 소리가 났다.

곽선생은 피곤에 충혈됐으나 정열이 넘치는 그윽한 눈길로 봉순을 뜯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지으며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나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려워 마시고 숨김없이 말씀해주십시오. 혹시 저 애 육친이 되시는분이 아니신지요. 저 애는 혁명에 나선 고결한분들의 아들이온데… 지난 세월 기구한 운명이 우리 가난한 품으로 가져왔댔습니다.…》

부엌에서 무엇이 철썩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곽선생은 그 소리를 들은체를 안했으나 무르팍을 꽉 움켜잡으며 머리를 떨구었다.

《…광복이 되여 조국광복을 위해 투쟁하시던분들이 장군님을 모시고 개선하신만큼 오늘이 오리라고 각오했습니다.》

곽선생은 또다시 깊은 한숨을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한분들의 자제들을 맡아 돌보는것은 백성들의 응당한 도리입니다. 어려워마시고 말씀해주십시오.》

이때 봄별에 얼굴이 새까맣게 탄 아들이 뛰여들어왔다.

아들은 심상치 않은 방안분위기를 눈치채고 두리번거리였다. 곽선생은 나가 놀다 오라고 타일렀다. 아들은 웃방으로 올라갔다가 무슨 볼일을 만들어 두번이나 아래방으로 내려와서 길손의 얼굴을 곁눈질해보고는 밖으로 사라졌다. 봉순은 아들을 와락 끌어안으며 《송림아, 내 아들아!》 하고 부르고싶었다. 하지만 자기가 찾는 행복이 광복이 되여 광명의 길을 걷는 이들 내외에게 불행의 그림자를 던지리라 생각했을 때 모진 행동을 삼가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다고 북받치는 감정을 누르며 모대기기는 더 괴로운 일이였다. 봉순은 이런 밤길에 어디로 가느냐는 곽선생부부의 만류를 뿌리치고 길을 떠났다. 그는 마음이 약해질가봐 뒤돌아보지 않고 간이역까지 30리길을 앞만 보며 걸어나왔다.…

《나는 한달후에야 청산된 지주의 잔여분자들에 의해 너의 양부모가 피살되였음을 알았다. 네가 고인이 된 분들의 은혜를 잊어서야 쓰겠느냐. 그래서 네 이름을 바꾸는것도 서두르지 않았고 기회만 생기면 너와 함께 양부모의 무덤을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정세가 복잡해만지다나니 그렇게 되지 못했구나.…》

아들은 눈물에 젖어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군복을 입은 어머니의 모습은 더 자애롭고 더 친근하게만 그의 가슴에 안겨왔다.

《어머니!》

《응?》

《어머니, 언제면 전쟁을 승리하고 장군님을 뵙게 될가요.》

봉순은 말없이 아들의 잔등을 쓸어만졌다. 봉순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보일듯말듯 피여오르고 눈빛은 꿈꾸는듯 부드러워졌다. 왕청땅

작은 집을 찾으시여 전사한 남편의 슬픔을 함께 나누시며 격려의 말씀을 하여주시던 사령관동지의 숭엄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두 눈엔 눈물이 방울방울 맺혔다.

아들은 조용히 걸어서 창결으로 가더니 휘장을 움켜쥐고 밖을 내다보았다. 밖에서는 소담한 눈송이들이 소리없이 내렸다. 그의 눈에서는 심각한 빛이 타오르더니 머리를 떨구며 큰숨을 내쉬였다. 그 소리에 봉순은 눈을 슴벅거리며 아들의 뒤모습을 바라보았다. 커다란 격정을 참는듯 아들의 잔등은 무겁게 오르내렸다. 어머니는 다 자란 아들의 생각을 건드리고싶지 않은듯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나직이 속삭였다.

《너 왜 그러구 섰냐?!》

말없이 돌아서는 아들의 눈엔 물기가 떨고있었다.

《장군님을 만나뵙게 된다면 무슨 낯으로 그이앞에 서겠어요. 한 일이 너무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자라서도 사랑만 받고있으니… 아버지는 장군님을 받들고 크게 살고 장하게 목숨바칠줄도 알았는데 전 아직 참,통이 작구 속도 깊지 못하거던요!》

봉순은 아들에게 전에없이 마음이 든든하게 의지되면서 얼굴이 환히 밝아졌다.

《너무 조급해말아라. 우리 맞들구 싸워서 장군님의 사랑에 크게 보답하자. 나도 일을 하다가 밤에 누워서는 너를 영웅으로 만들어가지구 장군님앞에 데리고가서 큰절을 시키는 꿈도 꿔본단다.》

아들은 어머니앞에 와앉아 손을 잡으며 격정을 토로했다.

《어머니,전 당장이라두 전선으로 뛰쳐나가 원쑤놈들을 족치고싶어요!》

《원 녀석두… 가서 자거라.》

먼곳에서 폭탄들이 터지는 소리가 우르릉 울려왔다.

야간폭격기들이 눈먼 폭탄을 던지는 모양이였다.

뒤따라 산너머 어딘가 가까운데서 폭음이 터지며 창문들이 떨었다.

《이게 군단 후방사령부쪽이 아니냐?》

전등불이 껌벅거렸다.

노크도 없이 문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수술실간호원이 뛰여들어왔다.

처녀는 눈이 둥그래서 숨을 헐떡거리며 부르짖었다.

《정치부원장동지! 류성운군의동지가… 왜 저러시는지… 〈내가 너를 죽였구나.〉 하고 혼자소리를 하면서 그냥 진정을 못해요.》

4

그는 수술대기실 창문곁에 머리를 싸쥐고 앉아있었다. 헝클어져내린 은발이 그의 손등에서 떨고있었다.

김봉순은 류성운의 옆으로 다가갔다.

《군의동지, 무슨 일이세요?！》

그는 눈물이 번들거리는 얼굴을 들고 몸을 일으켜 창문쪽으로 돌아서며 팔짱을 끼였다. 그리고는 가슴이 꺼져내리는듯한 한숨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저를 혼자 있게 해주십시오！》

이튿날 깊은 밤중에 류성운은 봉순의 방으로 찾아왔다.

《정치부원장동지！ 저는 정치부원장동지와 당신의 아들을 만난후부터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봉순은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그의 얼굴은 전에없이 의젓하고 억세고 단정해보였다. 자기앞에 앉아있는 봉순을 쳐다보는 정직하고 순박한 그 눈에서는 눈물이 떨고있었다.

《저는 정치부원장동지의 가정을 보고, 정치부원장동지가 아들을 대하는것을 보고 제가 겪은 가정적재난의 원인을, 제가 불행하게 된 까닭을 더 명백히 알게 되였습니다. 저는 어제저녁 정치부원장동지가 아들에게 한 이야기도 우연히 밖에서 듣게 되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에게 교훈으로 되는 이야기인것 같아서 허물이 되는줄 알면서도 자리를 뜰수 없었지요. 가슴이 터져와 참을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한때 가정이 있었지요！ 안해가 있고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두 딸… 그것들은 똑같이 머리가 총명하고 다감한 애들이였습니다. 정의와 량심을 등지고 미련한 짐승이 되면 살기 헐한 세상에서 그 애들은 총명하고 다감하고 지혜로운만큼 불행을 타고난게라고 생각했지요. 저는 그것들의 앞날을 내다보며 동정했지요. 측은한 마음이 앞섰던겝니다. 처가 그것들에게 모진 소리를 할 때면 저는 오히려 낯을 붉히며 막아나섰습니다. 〈여보, 당신은 그것들이 불쌍하지 않소. 집에 있을 때나 기를 펴게 하오. 이게 어떤 사회요！ 황금만능, 권력만능의 사회란말이요. 지성은 억눌리고 재능은 모해와 질투의 재를 맞아 시들어버린단말이요！ 내 꼴을 보오. 그 애들도 사회에 나

가면 내 꼴이 된단말이요. 제발 집에 있을 때나 활기를 펴게 하오!〉 제 말은 늘 이런것이였지요. 이랬던 제가 언제 한번 자식들에게 엄격한 요구성으로 대한적이 있었겠습니까. 시대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제기하는 문제점의 높이에서 자식들에게 엄격한 요구를 들이댄적이 있었겠습니까. 정치부원장동지! 준엄한 시대의 바람앞에서 우리 가정은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정치부원장동지! 저는 자신을 누구보다 가정에 충실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는 훌륭한 아버지로 자처했습니다. 사랑은 동정이 아니라 엄격한 요구성이란걸… 아,왜 일찍 몰랐을가요! 왜 일찍 깨닫지 못했을가요! 정치부원장동지! 저는 과거에 제딴의 애국적인 감정을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제 가슴속에 있은 애국적인 감정은 얼마나 추상적인것이였던가요! 그 사람이 진실한 애국자인가 아닌가,참된 혁명가인가 아닌가는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가를 보면 안다고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정치부원장동지! 정치부원장동지와 당신의 아들이 이 모든것을 깨우쳐주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저는 평양으로 떠나야 합니다. 후방으로 들어가고싶지 않습니다. 전선에 남고싶습니다. 총창으로 원쑤놈들을 찔러넘기며 자식들의 원한을 풀고싶습니다. 정치부원장동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에 제기하여 저를 전선 가까운 여기에라도 남게 해주십시오!》

뜻하지 않은 이러한 고백은 김봉순을 격동시켰다. 김봉순은 그가 아니라 자기자신이 그런 체험을 한것처럼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눈물에 젖어 그의 이야기를 듣고있었다. 이 심각한 정신생활을 겪고있는 성실하고 불행한 사람에게 아낌없는 고무와 도움을 주고싶었다. 그러나 한편 무엇으로도 잃어버린 생활을 되찾아줄수는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여지는듯 아팠다.

평양은 류성운을 부르고있었다. 보다 넓은 범위의 요긴한 사업에 그가 필요했던것이다.

이튿날 류성운을 바래고 방에 돌아온 어머니는 가슴이 허전하고 쓰리여 한동안 할일을 찾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었다.

마침 방에 들어온 곽병식은 어머니의 좋지 못한 얼굴색을 보며 이렇게 물었다.

《떠나셨습니까?》

《떠났다. 여기 있고싶어하는걸 겨우 설복시켜 보냈구나.》

《어머니,어쩐지 병원이 텅 빈것 같지요?》

《거기 앉거라.》

곽병식은 어머니곁에 앉으며 두손을 책상우에 올려놓았다. 어머니는 따뜻한 손길로 아들의 찬 손등을 꼭 쥐고 해빛이 흘러드는 소창쪽을 보며 생각에 잠겨 말하는것이였다.

《너는 우리가 하는 이 전쟁을 두고 깊이 생각해본 일이 있느냐?》

곽병식은 의아해서 어머니를 쳐다봤다.

《저놈들한테서야 이 전쟁이 파괴구 살륙이구 략탈일뿐일테지.

우리는 파괴도 많이 당하고 가슴아픈 손실도 헤아릴수 없이 입었지만 얻은것은 더 많다. 이 전쟁은 커다란 창조과정인것 같구나. 나는 요새처럼 위대한 변혁의 기운을 느껴본적이 일찍 없었던것 같다. 이 전쟁에서 우리 조선사람들은 자기를 찾고있다! 무엇이 우리 조선사람들에게 맞으며 맞지 않는가,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가. 전쟁은 의사들이 말하는 리트머스 시험액보다 더 명백하고 준절하게 갈라놓고있다. 너희들이 전선에서 참호대신 요새화된 갱도에 의한 방어전을 택하고있을 때 한편에서 사람들은 자기 신념이며 사업방법이며 사고방법,지어는 가정륜리까지 검토해보고 새로운 교훈으로 무장되고있는게 아니겠니. 우리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쇠퇴해지는것이 아니라 날에 날마다 풍부해지고 강해지고있다. 모두들 새 인간들로 탄생되는것 같구나! 생각해봐라. 그러니 사람들이 정신도덕적으로 얼마나 풍부해지고 억세여지고 생신해지고있느냐말이다!》

그리고 김봉순은 류성운의 피눈물나는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주었다.

《정혜라구요?! 류정혜?!》

아들은 펄쩍 뛰여올랐다.

《너 왜 그러니?!》

《어머니,우리 고지에 야전방송국이 생겼는데 류정혜란 방송원이 있어요! 처음엔 모두들 함경도 처녀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서울동무거던요.》

《아니,너 그게 무슨 소리냐?!》

곽병식은 주먹으로 자기 무릎을 때렸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눈길이 아버지를 닮았거던요! 참 왜 몰라봤을가. 어머니,그분이 지금 어디쯤 갔을가요?!》

《최고사령부로 올라가는 련락군관차를 탔는데 아마 지금쯤은 철령을 넘어갔을게다! 원 넌 산보랑 하면서두 그렇게 통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냐?!》

《이 일을 어떻게 한다?!》

《정말 바보구나!》

이들 두 모자는 마치 자기들자신이 불행에서 구원된듯이 기뻐했다.

어머니는 한결 밝아지고 젊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해빛이 흘러드는 창문앞으로 걸어가며 큰 시름이라도 던듯 한숨을 내쉬였다.

《됐구나! 됐다! 그처럼 자기를 깊이 검토하고 뉘우치는 사람이 불행해질수가 있나. 옛날부터 지내봐두 진실한 사람이 자기때문에 불행해지는 일은 없더라.》

곽병식은 입원실에 돌아와서도 이날 내내 류성운박사와 그의 딸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장마행군》때 령을 넘어와서 도하장에서 정혜를 처음 만나던 일, 그에 대해 늘어놓던 서동길소대장의 이야기, 그날밤 밖에 나와서 비를 맞으며 어색하게 서있던 일, 나무를 메나르는 소대로 자주 내려오던 정혜, 배우겠다고 부르짖던 정혜, 그때 곽병식은 싸우려는 의욕은 좋으나 의지가 약하고 감상적인데가 있는 처녀라고 경시했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가슴아픈 가책과 함께 뜨거운 련민까지 불러일으키는것이였다.

(나한테는 사람들에 대하여 인차 규정하고 단정해버리는 버릇이 있어. 이 고약한 버릇이 어디서 생겼을가? 내게 그 무슨 우월감이라도 있단말인가?…)

그는 이날 류정혜에게 아버지 소식을 전하는 편지를 썼다. 그리고는 호실의 젊은 군관들이 떠들어대는 롱담에 끼여들지 않고 아래목에 누워서 깍지낀 팔에 머리를 얹고 천장을 멍하니 쳐다보며 생각에 잠겨있었다.

오후에 같은 호실 입원환자인 어느 포부대화력부관이 뛰여들어와서 평양상공에 백여대의 아군분사식 추격기편대들이 나타나서 적기의 편대들을 포위하여 요정냈다는 소식을 전했다. 젊은 군관들은 뛰여일어나서 입원실이 허물어져내릴지경 만세를 부르며 불안고 딩굴었다.

5

존경하는 소대장동지!

3보총수 전사 박광준이가 한자 올립니다. 오늘 찬일동무에게서 편지를 받고 이렇게 붓을 듭니다. 소대장동지, 몸은 어떠하십니까? 상처가 도지지 않는지요? 그리고 식사랑도 제대로 하시는지요?

저는 약이 하도 좋아 다리상처도 거의 아물고 며칠전엔 머리에 배긴 파편도 꺼냈습니다. 여기 군의동지들과 간호원동무들은 저에 대해서 무슨 큰 영웅이기나 한것처럼 대접하며 살뜰하게 보살펴줍니다. 매일 와서 체온을 재보고 맥을 짚어보고 눈도 들여다보고 먹고싶은게 없는가, 베개가 높지 않는가, 다리밑에 뭘 괴여달라는가 이럽니다. 소대장동지, 그러니 제속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런 대접을 받게 싸웠나요. 정말 창피한 생각이 들어 몸에서 진땀이 다 납니다.

소대장동지, 이 미련한것을 용서해주십시오. 적후에서 소대장동지가 부상당한 몸이란것을 모르고 업히우고 끌려오면서 애만 태우고 종내 소대장동지를 쓰러뜨린것을 생각하면 가슴을 갈구리로 콱 찍어서 훑어내리는것 같습니다. 소대장동지는 저를 믿어주셨는데 저는 구실을 못했습니다. 나이값도 못하는 제가 무슨 사람축에 가겠습니까.

소대장동지, 저는 눈처럼 하얀 백포우에 누워서 호강을 하는것이 죽도록 괴롭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밖에 나가 비자루질도 하고 부엌에 불도 넣어주군합니다.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니 마음이 좀 가벼워지긴 합니다. 얼마전에 병원밖에 나갔다가 고사포탄 탄피 두개를 얻어왔습니다. 놋쇠로 된건데 함부로 내버릴게 아닌것 같아서 주어왔습니다. 어디다 요긴하게 쓰지 못할가 하고 두루 궁리하다가 며칠 끙끙거려서 등잔을 만들었습니다. 심지는 붕대천으로 하고 나무마개를 꼭 막은 우에 양철씌우개까지 붙이니 제법 남포등 못지않게 됐습니다. 놋쇠로 된것이여서 재로 닦으니 알른알른 윤이 돌게 됐습니다.

소대장동지, 이 등잔을 갱도안 병실에 켜놓고 그밑에서 소대장동지가 하는 정치상학도 받아보고 고향에서 온 편지랑도 같이 《독보》할 생각을 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소대장동지와 함께 있으면서 이때까지 잘 싸우지 못한것들을 봉창하고싶습니다. 그런데 요새 여기 부상병들속에서는 불길한 소문이 돕니다. 퇴원하는 군인들중에서 아바이축들은 무조건 도로복구대대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소대에 돌아가 싸우지 못하고 길닦이나 할걸 생각하니 눈앞이 막막해집니다. 어떤 친구들은 도망쳐갈 쑥덕공론도 하는것 같은데 인민군대의 고상한 규률을 어떻게 어깁니까.

그렇다고 그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자니 기막힌 생각만 듭니다.

소대장동지,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만약 못돌아간다해도 우리 련대 76미리에서 온 동무들이 있는데 그 인편에 등잔은 꼭 보내올리겠습니다. 이런 실토를 해서 소대장동지에게 또 걱정을 끼

쳤습니다. 제 걱정은 마시고 어서 완쾌하여 소대로 돌아가 주십시오. 우리 소대를 영웅소대로 추세워주십시오.

소대장동지！ 그곳 형편은 어떠한지요. 여기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영화구경을 꼭꼭 하는데 어제는 《또다시 전선으로》라는 우리 나라에서 만든 영화를 봤습니다. 매일 십자로에서는 붉은 완장을 두른 경무원들이 복장정돈이 잘 안된 군인들을 단속하고있습니다. 정말 여기는 후방입니다. 여기 와서 저는 우리가 이긴다는 자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습니다. 여기 국영상점에서는 글쎄 이 전쟁판에 물가가 내려 상점문이 터지게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상점에 없는게 없습니다. 솜옷, 구두, 아이들 내의, 장갑, 치약, 치솔, 단추, 바늘… 다 있습니다. 야간폭격이 있은 다음엔 군중시위때처럼 인민들이 길을 꽉 메우고 달려나와서 전선으로 나가는 도로들을 눈깜빡할 사이에 닦아놓습니다. 어제는 우리 병원 상공에서 우리 《제비》들 하고 저놈들의것하고 공중전이 붙었습니다. 쌕쌔기 두놈이 불덩이가 돼서 거꾸로 박히는것을 제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걸 보노라니 주먹릉선에 처음 나가 싸우던 일이 생각나며 눈물이 다 납디다. 요새 여기서는 뒤숭숭한 소문이 돕니다. 우리 호실에 유식한 부분대장동무가 있는데 그의 말이 미국에서 대통령을 갈았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된자식은 《아이크》란 별명을 가진 아이젠하워인지 하는놈이랍니다. 그놈은 침략전쟁에 이골이 난놈인데 《아이쿠！》 하고 놀라기를 잘해서 《아이크》라고 한답니다. 속대는 없는놈인 모양입디다. 그런데 그놈이 주제넘게도 조선전쟁에서 무슨 수를 쓴다고 하면서 《신공세》를 떠벌인답니다. 이런 말까지 들으니 저는 견뎌배기지 못하겠습니다. 소대장동지, 소대에 돌아가시거든 당분간은 제 자리에 누구를 받지 말아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이렇게 쓰다간 끝이 없겠습니다. 이만 붓을 놓겠습니다. 소대장동지, 빨리 완쾌되여 퇴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광준 올립니다.

한가지 잊었습니다. 거기서 소대장동지한테 글재주가 있다는것이 알려지지나 않았는지요. 간호원들이 알랑거리며 부탁한다고 해서 병동벽보 같은데 글을 자주 내지 마십시오. 재주가 알려지면 구락부주임자리 같은데 잡힐수 있습니다. 병원문세야 제가 잘 알지요. 제 말을 명심해주십시오.

편지를 읽고난 곽병식은 눈물이 그렁해졌다. 말로 형용하기 어려

운 행복감이 가슴에 젖어들었다. 같은 호실의 군관들이 돌아가며 그 편지를 읽었다.

40줄에 들어선 번대머리 공병참모는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는 눈으로 그를 보며 서글픈 미소까지 지었다.

《허참… 이건 직속부하가 없는 우리 참모일군들은 맛볼수 없는 기쁨이요!》

그러자 포병화력부관이 눈을 반짝이며 자기 자랑을 하는것이였다.

《우리 포병중대에도 이런 무던한 전사가 몇이 있소. 아무 일에서나 한모를 단단히 막지요. 포를 산에 끌어올린다든지 포진지를 굴설할 때면말이요. 평북도 출신 한 장탄수아바이는 담배에다 무슨 풀뿌리를 섞어서 피워 토굴안에 늘 향긋한 냄새가 풍기게 한단말이요.》

이럴 때면 누가 어쩌는것처럼 자기 말에 늘 론쟁적성격을 부여하고싶어하는 정찰소대장이 격한 목소리로 끼여들었다.

《우리 군대에서 이른바 〈아바이〉라고 부르는 층에 속하는 전사들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내릴 때가 됐다고 보네. 그들은 동작도 굼뜨고 전투에서 이렇다할 뛰여난 공로를 세우지 못한다 해도 이 전쟁에서,장기전에서말이네. 그들의 수고가 크다는걸 인정해야 되네. 례하면 토굴에 온돌을 놓는것도 굴뚝을 세우는것도 그들이 하네. 식당일은 누가 말아하는가. 갱도작업이 시작되였을 때 대장간을 꾸려놓은것은 누구들인가?! 군대의 궂은 일은 그들이 말아 수걱수걱 한단말이요!》

군관들은 그의 말에 공감되면서도 공연히 열을 뿜는통에 그것이 재미나고 우스워 껄껄거렸다.

곽병식은 밤에 박광준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혼자 눈물을 지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 랭수마찰을 하고 달리기를 시작했다.

적 폭격기편대들이 하늘높이 떠서 비행운을 날리면서 북으로 날아갔다. 낮이나 밤이나 폭음이 그침없이 우르릉거렸다. 중앙신문들과 지방신문들은 미제공중비적들의 후방인민들에 대한 무차별폭격만행을 세계여론앞에 폭로규탄하고있었다.

중앙방송은 미제식인종들의 세균전만행에 대하여 보도하고있었다. 탕개가 팽팽히 조여진듯한 긴장한 분위기를 모든곳에서 느낄수 있었다. 부상병들은 구석구석에 모여앉아 적들의 《신공세》나발에 대하여 론의했으며 가까와온 전쟁의 종말에 대하여,아군의 필연적승리에 대하여,최고사령부의 전략적구상에 대하여 온갖 제나름의 억측들을 보태가면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근처 어느 산골짜기에 분사식추격기비

행장이 생겼다느니, 요새 후방에서 새로운 포부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철령을 넘어오고있다느니, 아군정찰병들이 적참모부들에 숨새여들고있다느니 하는 풍문들이 돌았다. 어느 련대 후방부마사원이 철령마루에서 새벽에 전사들의 솜외투를 입고있는 한 장령을 만났는데 그는 마사원에게 담배까지 권하며 《동무, 이젠 시작해볼 때가 되지 않았소?!》 하고 말하였다는것이다. 《화선통신》이라고 일컫는 전사들의 이 소식통은 구수한 농민적인 환상이 가미되여있었지만 어쨌든 거기엔 전사들의 념원과 갈망이 숨쉬고있었던것이다.

어느날 새벽 정치부원장이 군단사령부로 불리워 올라가자 병원분위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였다.

병원성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알지 못할 흥분이 깃들어있었다.

병동과 병동사이로 군관들이 뛰여다녔다. 모든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빨라진듯했다. 이쪽저쪽에서 병원책임일군들이 군의나 간호장들에게 무엇이라고 소곤소곤 지시를 주는것이 보였다.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경례를 힘있게 붙이며 돌아서서는 여기저기로 달려갔다. 안경을 낀 녀준의가 뛰여가다가 무엇엔가 걸려서 철썩 넘어졌다. 여느때같으면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겠는데 누구도 웃지 않았다.

밤중에 《당원 부상병들은 15호 대피굴로 모이라! 걸을수 없는 동무들을 제외하고는 한명도 빠지지 말것!》 하는 엄숙한 전달이 왔다.

기차 턴넬같은 15호 대피굴엔 부상병들이 문자 그대로 립추의 여지없이 가득차서 붐비고있었다. 여기저기에 켜놓은 카바이드 등불이 흥분에 술렁대는 사람들의 얼굴을 비쳤다. 전우들에게 업히워온 동무들도 있었다.

곽병식은 공병참모에게 이끌려 사람들속을 헤치고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려고 몇번 시도하다가 겹겹이 들어선 사람들의 파도에 밀려나군했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쥐여서 옆으로 밀치며 소리쳤다.

《비키시오!》

《좀 비키란말이요!》

돌아보니 담가가 들어오고있었다. 담가우엔 두다리에 키브스를 한 머리가 희슥한 고급군관이 누워있었다. 그 군관의 퉁퉁한 얼굴에도 흥분이 물결치고있다. 담가가 들어가면서 굴안은 더 끓어번졌다.

《비키시오! 비키시오!》

《동무, 좀 자리를 내라구!》

《동무들, 조용합시다.》

《자, 여기요！》

술렁대는 군중들, 갑자기 앞에서부터 조용해지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듯이 가라앉으며 엄숙한 정적이 깃들었다. 누구인가 군중들의 한복판에 나선 모양이다.

곽병식은 앞사람의 어깨를 짚고 발돋움하며 내다보려고 했으나 머리들이 가리워 아무것도 볼수 없었다. 여기저기서 기침소리들이 울렸다. 곽병식은 숨을 죽이고 귀를 강구었다.

이윽고 격정을 누르며 침착하고 나직하게 떨리는 목소리가 안쪽에서 울려나왔다.

《당원동지들, 당원동지들！》

그것은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곽병식은 뜨거운 감격에 사무쳐 가슴이 울렁거렸다.

《우리 조국에 조성된 엄중한 군사정치정세와 관련하여 당중앙위원회는 각급 당기관들과 정치기관들, 당단체들과 전체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미풍같이 가벼운 술렁거림이 장내를 지나간다. 모두들 옷깃을 여미며 몸가짐을 바로잡는것이다. 누구나없이 자신들의 운명이 력사적인 마당에 서있다는 자각을 느낌으로 하여 장내에는 신성하고 경건하고 엄숙한 정적이 깃든다. 이 순간 혁명의 수도와 이곳과의 먼 지리적 거리감은 일소된듯했다. 그들은 마치 여기 강원도 산골짜기의 어둑시근한 굴속이 아니라 위병들이 경건히 지키고 선 당중앙위원회 청사앞에 줄지어 서서 최고사령관동지의 음성을 직접 듣고있는듯 숭엄하고 행복한 감정에 사로잡혀있었다.

편지를 읽는 어머니의 격정에 찬 목소리가 굴속에 울려퍼졌다. 그 구절구절들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앞에 조성된 엄중한 군사정치정세를 통찰해보시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탁월한 예지가 번뜩이였고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그이의 반석같은 믿음이 맥맥히 흘러넘쳤다！ 그리고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침략군의 《신공세》 모험을 짓부셔버릴 천재적방도와 승리를 환히 내다보시는 천리혜안의 안광이 눈부시게 빛발쳤다！ 그 구절구절들에서는 적들의 준동에 항거하여 일떠선 인민대중의 신성한 분노가 우뢰쳤고 놈들의 숨통을 최종적으로 무자비하게 짓눌러버릴 그이의 단호한 결심이 뢰성처럼 울리며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결사전에로 부르시는 호소가 힘차게 울렸다.

《만일 미제침략자들이 새로운 군사적모험을 감행한다면 전체 장병들은 귀중한 조국의 한치의 땅도 적들에게 내여주지 말며 때를 놓치지 말고 원쑤들에게 섬멸적타격을 가하여 그들의 운명을 서산락일의 비운으로 만들며 우리의 종국적승리에로의 전국의 위대한 전환을 조성하라.》

수령님의 이 호소는 전사들의 격정을 터치고야말았다. 누군가 앞쪽에서 목청껏 웨쳤다.

《**김**—**일**—**성**—장군—만—세—》

《만세—》

《만세—》

굴이 떠나갈듯 만세를 불렀다. 깡충깡충 뛰여오르며 만세를 부르는 전사들도 있었다.

곽병식의 바로 옆에 선 부상병이 짚고있던 쌍지팽이를 던지고 주먹으로 어둠을 찌르며 부르짖었다.

《동무들— 전선으로 나가자！— 놈들의 운명을 서산락일의 비운으로 만들자—》

《서산락일로 만들자—》

《서산락일로—》

《만들자—》

주먹들은 격랑처럼 솟아올랐다. 이 순간 곽병식은 설레는 군인들의 머리와 머리들 사이로 편지를 가슴에 안고있는 어머니의 황황 타오르는듯한 얼굴모습을 내다보았다.

순간 아들의 마음은 이 격정의 파도를 헤치고 나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수령님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싶은 격동을 느꼈다.

앞쪽에서부터 노래소리가 터졌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곽병식은 자기가 격동때문에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것도, 두볼로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리는것도 의식 못하고있었다.

닷새후 퇴원한 그는 중대로 어서 가고싶은 조급한 마음때문에 자동차를 기다리느라 늑장을 부리지 않고 전선으로 나가는 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어떤 친구들은 보병의 《11호차》로써야 언제 전선에까지 도착하겠느냐고 하며 고개마루턱에서 자동차를 기다리자고 했다. 그러나 곽병식은 자동차는 도중에서 만나면 얻어탈셈치고 우선 자기의 행군능력을 시험해보기 위해 걷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전사들에게 보내는 선물과 닷새분의 쌀이 든 미대, 통졸임통, 절인고등어 여섯마리가 든 배낭은 어지간히 무거워서 행군능력을 시험해보는데는 알맞춤했다. 그는 걸어오다가 눈이 다져진 길바닥에 난 무한궤도자국들을 발견하고 다음 차단소에 와서 증명서검열을 마치고나서 다리쉼을 하면서 이 길로 땅크들이 지나갔는가고 검열원에게 물었다. 전쟁로상에서 세련된 그 검열원은 자기 말에 멋을 부리며 밤에 전선길을 걸어봐야 조국의 위력을 아노라고 했다. 그날밤 곽병식은 길에서 수많은 각종 대포의 행렬들을 만났는데 무한궤도 견인차가 끄는 대구경포를 보았을 때는 《우리한테도 저렇게 많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났다. 그는 달려들어 몰래 포신을 밀어보다가 뒤따르는 견인차운전수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으나 강유력한 조국의 맥박이 뛰고있는 이 밤길이 즐겁고 흥겹기만 했다.

어느 령길에서 휴식하고있는 땅크종대를 만난 그는 땅크병들에게 다가가 담배불을 빌며 반가운김에 호기심을 너무 드러냈다가 그만 의심까지 받게 되였다. 땅크병들은 우르르 몰려와 그를 둘러쌌다. 몸이 옆으로 퍼진 땅크지휘관은 그의 배낭을 뒤져봤다. 그는 배낭속에서 유지에 싼 절인고등어를 발견하자 크게 웃으며 《아, 보병동무구만!》 하고 웨치며 곽병식의 손을 덥석 잡아흔들었다. 곽병식이가 갱도이야기며 거기에 있는 보병전사들의 심정에 대하여 말하자 땅크지휘관은 그 이야기를 더 듣고싶다고 하며 같이 타고 가지 않겠느냐고 청했다. 그리하여 곽병식은 이날밤 호강을 하며 사단후방부 뒤골짜기까지 왔던 것이다.

제 8 장

돌 파 구

1

지난 2년간의 조선전쟁에서 참패를 거듭한 미제국주의자들은 모든 정치적 모략과 외교의 교활성마저 버리고 벌거벗은 야수가 되여 또다시 미욱한 힘내기(강태욱련대장은 미8군의 《하기공세》요, 《추기공세》요 하는 그 모든 공세들을 이렇게 불렀다.)에 달라붙었다. 전쟁실패의 책임전가와 피비린내나는 정권쟁탈의 칼부림속을 헤치고 대통령자리에 뛰여오른 《아이크》란 별명을 가진 살인장군 아이젠하워는 정계와 군부의 통수부를 극악무도한 살인귀들과 호전광들로 교체하고 《신공세》의 호언장담으로 자기의 취임연설을 했다 한다. 온갖 머리글자의 략어들로 된 군사용어와 작전지도의 좌표밖에 볼줄 모르는 주제에 가슴에서 허영과 우매한 야심만 꿈틀거리는 이 모험가들은 《아이크》의 《신공세》나발이 그 무슨 창세기적인 기적이라도 낳을듯이 기세등등하여 조선전선에서 50년 가을과 같은 전국을 조성한다고 떠들어댔다.

강태욱련대장은 감시소를 떠나지 않았다. 잠도 거기서 잤고 하루 3끼식사도 운반해다 먹었다. 련대 전연에서는 적들의 아무러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이전보다 더 고요했다. 그러나 그는 정세의 모든 추세로 이 음흉한 정적을 믿지 않았다.

강태욱은 인내력있게 감시소에 배겨서 때를 기다렸다. 그는 지휘관의 촉각과 후각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적의 동태를 살폈다. 전연적고지에서 난 삽소리, 돌이 군 소리, 꿱꿱 부른 소리 하나 빠짐없이 그에게 보고되였으며 그는 그것을 제때에 우에다 통보했다. 그리하여 어느 고지에서 새벽 4시에 돌이 군 소리가 났다는것까지 우에 보고되였다. 전선은 팽팽하게 긴장되여있었다. 이런 때 어느 한 지휘관의 그

릇된 판단이라도 그것은 수백문의 포문을 열게 하고 수백명,때로는 수천,수만명의 예비대를 잘못 이동시켜 만회할수 없는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강태욱은 신경을 바싹 도사리고 감시소에 앉아있었다.

뜬눈으로 밤을 샌 그는 얼굴이 부석부석해지고 눈이 충혈되였다. 감시소에서의 그의 작업,그것은 교대없는 근무였다. 그는 담배를 벗하여 밤을 샜다. 요새는 부관이 동맥경화가 올수 있다는 유식한 소리를 하며 그것마저 어디다 감추고 통졸임통으로 만든 재털이까지 치워버렸다. 그리고는 달달한 사탕물이 든 물통을 옆에 갖다놓았다.

강태욱은 배심 든든하여 적의 공세를 기다리고있었다. 6개의 고지를 포괄한 련대방어선은 갱도의 요새화가 끝나고 갱도에 의탁한 방어체계로 완전히 이전했던것이다. 조선전쟁의 실정과 조선의 특수한 지형조건에 맞게 방어문제를 해결하신 최고사령관동지의 독창적인 방침에 의한 갱도를 기간으로 하는 방어체계,이것은 군사예술사상 하나의 사변이였으며 위대한 전환이였다.

강태욱은 갱도전의 위력으로 세계의 면전에서 놈들의 공세를 속이 후련하도록 들부시고싶었으나 적 참모부는 아직도 기회를 노리며 망설이는것 같았다.

그는 이따위놈들과는 싸움하기에 성미가 맞지 않는다고 적 참모부에 앉은자들을 욕하면서도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련대를 엄격한 요구성을 가지고 틀어쥐고있었다.

하지만 적들의 오랜 침묵은 련대지휘부내 일부 성원들속에 해이를 일으켰다. 강태욱은 어느 한 참모일군이 신발을 벗고 잔것을 알자 그를 감시소에 불러다가 호되게 꾸중하며 전쟁에서 《우연성》과 《군사적교활성》이 노는 롱간을 강조하면서 《무는 개는 소리가 없다.》는 속담까지 인용했다. 한편 그는 거사를 앞두고 전사들을 푹 휴식시키며 잘먹이자고 마음먹고 각 중대별 《료리경기대회》를 조직했다. 판정위원회는 련대량식관리장이하 각 공급소대장들과 이름난 대식가인 황득범이와 주인다운 태도로 유명한 자기 마사원으로 조직해서 순회판정을 하게 했다.

어느날 새벽 감시소로 마사원이 뛰여들어왔다. 그는 볼이 부어서 3중대의 사태에 대하여 보고했다.

3중대에서는 반찬을 24가지나 만들었는데 무우를 네모나게도 세모나게도 썰어 김치를 만들었으며 콩나물도 긴것,짧은것 따로 따로 갈라서 채를 만들어 가지수를 늘였다는것이다.

마사원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씨근거렸다.
《량식관리장동지가 동요를 해서 말썽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형식주의가 어디 있습네까. 전 애당초 등수에 못든다고 우겼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소?》
《고병근중대장동무가 들구일어났습니다. 련대후방부에서 내려보낸 판정조항엔 가지수가 많아야 한다는것도 있다는겝니다. 그러자 아, 량식관리장동지가 동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보를 안했습니다. 옥신각신이 생겼는데 량식관리장동지가 동요를 하는통에 고병근중대장동진 제편에서 되려 기세가 올라서 으르기까지 한단말입니다. 〈이건 웃을 일이 아니다. 전사들의 사기문제다. 내무규정 몇조몇조에 걸어서 련대장동지한테 신소장을 올리겠다.〉 하면서말입니다.》
강태욱은 이런 때면 어린애가 되여 생떼를 쓰는 고병근의 얼굴이 떠올라 배속에서 터지는 웃음을 가까스로 참으며 짐짓 엄한 얼굴로 듣고 있었다.
이때 널문이 삐거덕 열리며 온몸에서 후방군관들 특유의 산뜻하고 생신한 기운을 풍기는 곽병식이가 들어와서 보고했다.
《련대장동지, 3대대 3중대 3소대장 곽병식은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누구야?!》
강태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가 손부터 잡아당기며 문곁에 놓여있는 나무걸상을 가리켰다.
《거기 좀 앉소. 우리 신중한 얘기를 하던중이요.》
《나갔다오겠습니다.》
《아니요. 동무네 중대문제요. 앉아서 좀 듣소.》
련대장은 마사원과 마주앉으며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래 등수는 못준단말이지?》
《안됩니다!》
《여보 3소대장동무, 동무네 중대장이 또 기질을 보였소.》
강태욱은 문곁의 곽병식을 돌아보며 말했다.
모자를 벗고 땀에 함뿍 젖어 김이 문문 피여오르는 혈색좋은 얼굴이며 머리칼을 손수건으로 닦고있던 곽병식은 빨리 련대의 생활속에 뛰여들고싶은 조급한 마음으로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련대장의 짤막한 설명을 들은 곽병식은 웃음을 참지 못해 얼굴가득 티없이 환한 미소를 지었는데 이때 그의 눈엔 보일듯말듯한 물기까지 어렸다.
(련대구나! 그리웠던 보병생활이구나!)
오래간만에 고향의 정든 생활로 돌아온것 같은 행복감과 함께 뜨거운 눈물같은것이 목을 메웠다.
련대장은 능청스레 젊은 소대장을 돌아보며 물었다.
《이거 어떻게 한다? 좋은 방도가 없을가?…》
《저 써클경연대회에선 공로상이란것도 있던데요.》
그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련대생활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기쁨을 안고 번지였다.
《그렇지. 그래!》
련대장은 무릎을 탁 쳤다가 웬일인지 주저했다.
《공로상은 너무 커, 너무 크단말이야. 노력상을 주는게 어떨가?》하며 마사원을 쳐다봤다.
마사원은 벌쭉이 웃으며 뒤덜미를 만졌다.
《련대장동지, 저두 그리 야박하진 않습니다.》
마사원이 나간 다음 강태욱은 곽병식의 앞으로 다가갔다. 병식은 련대장의 얼굴과 눈이며 온몸에서 내뿜는 육친의 정에 몸을 맡기듯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태욱은 그의 팔과 어깨를 쓰다듬다가 머리를 한팔로 안아서 자기의 가슴에 꽉 대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왔구만!…》
《련대장동지!》
곽병식은 웬일인지 흑흑 느끼게 되였다.
밥상을 들고 들어온 부관이 그들을 보자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서있다가 상우에 백포를 펴놓고 두사람의 아침식사를 차려놓았다.
강태욱은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든채 머리를 수긋하고 밥을 퍼먹는 그를 대견한 눈매로 바라보았다. 숟가락으로 밥을 꾹꾹 다져서 맛스럽게 떠먹는 품이 꼭 최무성의 모습이다.
강태욱은 수천수만리 행군길의 뽀얀 먼지구름과 포연탄우에 가리운 저 먼 세월의 감회가 가슴가득 밀려들어 입가장자리에 주름살을 잡으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병식은 그를 쳐다보더니 행복한 눈웃음을 지었다.

《체하겠어. …》

《련대밥을 오래간만에 먹으니 정말 꿀맛입니다.》

《그래… 그래… 객지밥이야 아무리 찰밥이라도 제집 조밥보다 못하단 말이 있지.》

련대장은 땀에 젖었다나서 더욱 윤기도는 그의 새까만 머리칼을 보며 물었다.

《아직 몸이 충실치 못한가?》

《?!…》

《땀은 왜 그리 많이 흘렸나?》

《뛰여와서 그렇습니다. 가재령에 올라서니 이쪽이 보이는데 견딜수 있어야지요. 냅다 뛰였습니다.》

《40리나! 허,청춘이야. 나이가 좋구만!》

강태욱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중대장동지랑 그새 별고 없었나요?》

《고병근이? 그사람이야 여전하지. 서동길이,최호찬이,황두범이 잘 있소. 동무네 중대장이 며칠전에 련대회의에 왔다가 풀이 죽어서 나한테 묻더구만. 동무가 포병참모장 부관으로 갔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이냐구…》

《소문이란게 무섭군요. 그런 비슷한 일이 있을번했습니다. 쩍하면 그런데 걸린단말입니다. 빨리 나이를 먹어야지.》

《왜 그 나이가 적어서?!…》

련대장은 전화기를 들었다.

《중대에 걸려고 그럽니까?!》

《음…》

《걸지 말아주십시오.》

《갑자기 뛰여든단말이지. 그래 그게 더 좋지!》

밥상을 방금 물리자 감시소 바로 옆에서 포탄들이 터지며 감시구로 시꺼먼 연기가 날려들었다.

《벌써 아침인사야?!》

하며 시계를 보더니 강태욱은 감시소로 천천히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어딘가 먼곳에서 줄포탄이 터지는 소리가 울렸다.

강태욱은 감시구 턱을 짚고는 밖을 내다보며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가만 가만, 저기 120미리 골짜기 아닌가. … 저 사람들이 정신들이 쑥 빠졌거던…》

련대장은 전화기를 들더니 541번이란 지휘관을 불러내서 호되게 꾸중하기 시작했다.

《동무네 정신이 있소?！ 지금 몇신데 아직까지 식당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가말이요. 뭐이? 그런데 왜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가말이요. 내가 여기서 다 보구있는데. 포지휘기가 눈이 멀었다구 못보겠나. 부엌에 가보라구！ 부엌에 불이 살아있더라도 물을 치지 말라구. 그럼 굴뚝에서 흰 연기가 더 난단말이요. 하하하…》

강태욱련대장은 활달한 걸음으로 자리로 돌아오며 정력이 넘치는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 왔소. 때마침 잘 왔단말이요. 이제 한바탕 들부실판인데. 당중앙위원회 편지는 거기서 접수했겠지?…》

《예…》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때를 놓치지 말고 원쑤들에게 섬멸적타격을 가하여 놈들의 운명을 서산락일의 비운으로 만들며 우리의 종국적승리에로의 전국의 위대한 전환을 조성하라고 하셨는데 학습하면 할수록 얼마나 거대한 뜻을 내포하고있는가가 알리오. 때를 놓치지 말고, 종국적승리에로의 전국의 위대한 전환… 이 가르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종국적승리！ 위대한 전환！ 응, 생각해보라구！ 원쑤들에게 결정적인 반격을 가할 때는 왔네！》

련대장의 이야기를 듣는 병식의 얼굴엔 환희와 흥분이 물결치며 홍조가 타올랐다.

종국적승리… 위대한 전환… 공격… 공격… 이 말은 봄우뢰처럼 그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어둑한 토굴과 질퍽거리는 참호에서의 지루한 방어도 끝장날 때가 됐구나. 위대한 전환… 오, 위대한 전환！ 곽병식의 가슴은 터질듯이 벅차올랐다.

련대장은 유쾌한 얼굴로 감시소안을 거닐며 말했다.

《나는 소대장들이 제일 부럽거던. 자동총을 메구 쫄쫄한 대원 삼사십명 거느리구 한바탕 두들겨댔으면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나.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접수토의하는 과정에서 각 중대와 소대들에서 좋은 발기들이 많이 올라오고있소. 후방부들에서는 전연갱도들에 두달분의 예비식량을 장만해줄것을 결기했소. 직사포중대들에선 몽땅 고지에 올려보내줄것을 제기해왔소. 동무네 최호찬이는 련포군이 지원사격

만 해달라, 그러면 자기 소대는 3층감시소를 단숨에 먹어버리겠다는 게요. 최호찬이다운 제기요. 그 발기는 동무네 중대에서도 론쟁중이요. 때마침 잘 왔소!》

2

련대장감시소가 있는 고지에서 1035고지로 나가는 릉선엔 한길 넘는 교통호가 파져있었다. 이것은 지난해 가을에만 해도 없었던것이다. 교통호안엔 눈이 날려들어 쌓여서 어떤데는 허벅다리까지 푹푹 빠졌다. 이따금 포탄들이 날아와서 릉선 여기저기에서 터졌다.

겨울의 얼어붙은 대기속에서 포탄 터지는 소리들은 더 날카롭게 떨며 울렸다. 그 소리들은 지난 가을에는 쾅쾅 둔중하게 울렸다면 지금은 캥캥하고 앙칼지게 짖어대는것 같았다. 파편들이 윙—부르릉—휙—하는 괴상한 소리로 울며 날아가고 거밋한 흙발이 교통호안의 눈우에 뿌리웠다. 그때마다 곽병식은 교통호벽에 바싹 붙어서기도 하고 허리를 구부정하고 뛰기도 했다. 가슴이 후두둑 뛰였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어깨우의 흙을 털며 혼자 속으로 웃었다.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한번 부상당했다나면 처음엔 좀 떨린단 말이 과연 일리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는 교통호에서 대대들에서 올라오는 련락병들이며 선검열 다니는 통신병들을 자주 만났다. 입김을 훌훌 날리며 익숙한 걸음걸이로 교통호를 따라 걸어오던 그들은 새 군복을 산뜻하게 입은 젊은 군관에게 깍듯이 경례를 붙이고는 교통호 벽에 붙어서며 길을 내주었다. 그리고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련락병도 뒤에 달지 않고 혼자 걸어가는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히야— 쌩쌩한데!》

《부관감이로구나야!》

《빨리 별을 달았지?!》

《뭘 우리 포병부사단장은 26살인데!》

1035고지로 올라가는 가파로운 릉선에 판 교통호를 따라 올라가던 곽병식은 대구경포탄에 교통호 한쪽 벽이 허물어진데서 끊어진 전화선을 잇고있는 대대통신병 두명을 만나 구면인 한 통신병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였다. 신대원인듯한 감때사납게 생긴 통신병이 선을 련결하

며 두덜거렸다.

《이거야 정말！… 이거야！》

《선이 자주 끊어지오？》 하고 곽병식은 구면인 상등병에게 물었다. 상등병은 그저 빙그레 웃어보였으나 감때사나운 통신병은 뻰찌로 전화줄 껍질을 신경질적으로 벗기며 두덜거렸다.

《방송만 하면 이 모양이지요. 포사격이 드립다 넘어오는데 아무리 단단한 쇠줄이래도 견더내나요. 암만 불어야 저새끼들이 포사격으로 대답하는데… 교통호가 허물어져 보병친구들도 매일 밤 자지 못하면서 보수작업을 하지요. 젠장.》

상등병이 그를 꾸짖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여기 선이 끊어지는것도 방송탓인가！》

《그저 그렇다는거지요.》

《그런 말 말라구. 녀동무가 갱도에 와 수고하는것만도 고마운 일이지 그 동무 속이야 어떻겠나. 우리가 좀 고생하면 뭐라는가.…》

그리고 상등병은 동의라도 구하는듯 곽병식을 쳐다봤다.

(아직도 이 고지에 있구나！)

곽병식은 이렇게나마 그의 소식을 듣는것이 반가왔다. 그는 련대가 가까와질수록 류정혜가 방송국과 함께 어딘가 더 중요한 방향에로 옮겨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것이다.

《그래 요새도 방송을 하오？》

《예,밤마다 꽝꽝 불어대지요！》

상등병은 장한듯이 대답했다.

곽병식은 1035고지로 올라가는 교통호를 따라 활기있게 걸어갔다. 그는 추위때문에 입김을 훌훌 날리며 좌우편을 돌아봤다. 릉선이나 산기슭이나 할것없이 온통 포탄 터진 자리들뿐이고 눈우에는 화약재가 시꺼멓게 덮여있었다.

교통호에도 허물어진것을 다시 파올려 보수한 자리가 여러군데 보였다. 이 모든것들은 전선에서 흔히 볼수 있는것들이였으나 그에게는 이 순간 무심히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류정혜가 방송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 적들의 《보복》일것이며 그가 겪은 시련의 흔적들일것이라고 생각하니 포탄 터진 자리,교통호가 허물어진 자리 하나하나를 놀라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되였다. 그사이 정혜도 많이 변모되였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적후습격임무를 맡았던 날 바로 이렇게 비좁은 교통호에서 자기에게 지나갈만한가고 쏘는듯이 보고를 하

고는 정보로 걸어서 옆을 스쳐지나가던 모습이 떠올랐다. 곽병식은 저도모르게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는 걸음을 다그쳤다. 귀전에서 바람소리가 윙윙 울었다. 아버지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자, 내가 보고 느꼈던 모든것을 다 이야기해주자, 군사학에 대한 취미도 《은발중좌》란 별명도… 얼마나 기뻐하랴!

1035고지에 도착한 곽병식은 다소 어리둥절해졌다. 그새 고지는 몰라보게 달라졌던것이다. 고지에 있던 중대부는 칼릉선으로 나갔고 그 자리에는 대대부가 자리를 틀고 앉아있었다.

고지뒤 경사면 중턱에는 직속구분대의 갱도구멍들이 여기저기 뚫리고 박격포진지들이 구형으로 배치되여있었다. 그우에는 고사기관총좌지들이 여기저기에 있었다. 자기가 병원침대에 누워있는 사이에 여기 방어선이 얼마나 강화되였는가 하는 생각이 가슴가득 안겨왔다.

그가 대대부에 들려 대대장에게 인사한 다음 칼릉선으로 뛰여나가 열화같은 상봉에 대한 예감으로 가슴을 들먹이며 갱도안의 중대부앞에까지 갔을 때 몸이 뚱뚱한 낯선 병사가 앞을 막아섰다. 직일병이였다.

《어디서 오시나요? 좀 기다려야겠습니다. 군관회의중입니다.》

《동문 언제 이 중대에 왔소?》

《한달반이 됩니다.》

《나는 3소대장이요!》

《예— 이야길 들었습니다. 퇴원해오는 길이나요?》

직일병은 반색을 했다.

《그렇소.》

《저… 소대장동지, 오실 때 가재령을 넘어오셨겠지요?》

《…》

《가재령너머에 곡사포려단이 와있다는데 정말인가요?!》

《그건 모르겠소만 나는 땅크를 타고 나왔소!》

《땅크요?! 야, 됐구나!》

이때 중대부안에서 떠들어대는 소리가 울려나왔다.

곽병식은 출입문앞으로 다가섰다. 출입문에 쳐있는 병사용 개인천막이 안에서 울리는 소리들때문인지 묵직이 흔들리고있었다.

안에서 서동길의 격한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왜 반대하는가. 공연히 적만 놀래우고 아무 일도 못치를수

있단말이요. 놈들의 150문의 대포가 포탄을 물고 거기를 조준하고있는데 포화의 불바다속을 40명의 전사가 무사히 통과할수 있는가말이요. 실제적인 가능성을 생각해야지！》

《그만두오. 동문 밤낮 그 소리란말이요！》

최호찬의 분노한 목소리다.

《적들이 〈신공세〉를 시작하기전에 우리가 먼저 3층감시소를 타고앉아야 하오. 우리가 당의 편지를 받고 결사전은 왜 맹세했나. 결사전이란말이요！ 한개 소대를 잃더라도 해봐야 되오！ 그럼 2소대는 앉아서 구경이나 하지！ 동무가 나서라는게 아니요. 내가 하겠소！ 우리 소대는 궐기했소！》

서동길의 격한 목소리가 그 말을 막았다.

《우리 소대 전사들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지휘관은 실제적인 가능성을 타산해야 되오.》

《2소대장,떨려서 그러는게 아니요？！… 허허허…》

《가만,가만！ 좀 조용조용히들 이야기하라구.》

고병근중대장의 목소리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군관들의 말소리를 듣는 곽병식은 어느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수 없었다. 그저 그 모든 목소리들이 오래동안 헤여졌다 만나게 되는 형제들의 음성처럼 하나같이 귀중하게 안겨왔다. 그리고 저들은 그사이에 많이 달라졌을것이며 자기는 멀리 뒤떨어졌으리라는 초조감과 함께 인제야 젊음을 깡그리 바쳐도 아까울것 없는 참되고 보람찬 생활속으로 왔다는 행복감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눈물이 솟구치는것은 웬일일가？ 그는 웃음을 참는 사람처럼 볼을 실룩거리며 두눈을 슴벅거렸다.

부엌에 내려가 불을 지피던 직일병은 이 소대장동지가 왜 저러는가 하고 의아스레 쳐다보다가 다시 머리를 숙여 아궁안을 들여다보며 봐서는 안될것을 보고난 소년처럼 낯을 우습강스럽게 찡그리고 빙긋 웃었다.

《담배들을 작작 피우라구. 목이 다 칼칼해나누만！》

하는 김문규정치부중대장의 목소리가 울리더니 천막을 들치며 그의 얼굴이 쑥 내밀렸다.

김문규는 그를 보자 눈이 휘둥그래졌다.

《아니 이게 누구요？！ 호랑이 제 소릴 하면 온다더니！》

그는 안에다 대고 소리쳤다.

《3소대장이 왔소！》

담배연기 자욱한 중대부에서의 떠들썩한 상봉, 포옹과 악수와 롱담과 반가운 웃음소리들은 그를 어정쩡하게 만들었다.

사람좋은 황득범이는 그를 안고 커다란 주먹으로 가슴을 툭툭 치며 말했다.

《여— 됐네 됐네, 살아 돌아왔구만！ 다시 만나지 못할줄 알았더니 왔구만 이사람！》

최호찬은 그 인상적인 열기 띤 눈을 번들거리며 그의 혁띠를 꽉 움켜쥐고 흔들어대며 웃음 절반으로 떠들어댔다.

《병원생활에 아주 재미를 붙이는줄 알았지. 뭐니뭐니해두 보병이 그립지 어드래？！ 하하… 자네 복이 있네. 마침 잘 왔어！》

서동길은 모욕당한 분기가 가시지 않아선지 그저 머리를 수굿하고 그의 손을 으스러지게 잡아흔들고는 자리에 앉아버렸다.

고병근이와 김문규는 소대장들이 안고 돌아치는바람에 자기들의 차례가 돌아오지 않아서 벙글거리며 서있었다.

《아니 이 사람들, 병원에서 나온 사람을 좀 아끼라구. 마구 두드리구 흔들어대면 어찔텐가…》

고병근은 이렇게 말하며 그의 어깨박죽이며 팔굽을 쥐여보았다.

이때 문에 친 휘장이 들썩하더니 《소대장동지—》

하고 웨치며 명보가 뛰여들어와서 그의 목에 매달렸다. 병식은 그를 꽉 껴안았다. 뒤이어 3소대 전사들이 우르르 밀려들어와서 자기 소대장을 얼싸안고 돌아갔다. 직일병이 뛰여가 알렸던것이다.

《소대장동지！》

《소대장동지！》

《소대장동지！》

열광적인 포옹, 악수, 환성, 걸상이 넘어지고 군관들이 웃어댔다.

조칠성이가 전사들속에 에워싸인 소대장을 업어서 번쩍 들었다. 어느틈에 전사들은 자기네 소대장을 목마를 태워가지고 와 밀려나갔다.

《하하…》

《허허허…》

고병근이도 김문규도 소대장들도 웃어댔다.

《한번 부상당했다 와봤으면 좋겠는걸. 이 몸엔 감기도 안걸리니.》 하며 황득범이가 껄껄거렸다.

소대장을 목마태운 전사들은 떠들어대고 웃어대면서 갱도를 꽉 메우

며 병실쪽으로 밀려갔다. 갱도의 천장 가림대가 소대장의 머리 정수리에 스칠듯이 지나갈 때마다 불룩한 배낭을 안고 뒤따라가는 박광준은 아슬아슬해나서 소리를 질렀다.

《소대장동지, 머리를 숙이십시오! 숙이십시오!》

앞에서 활개를 치며 기세등등하여 걸어가던 명보는 마주 걸어오다가 어리둥절해 서있는 독고세를 보자 버럭 엄포를 놓았다.

《비켜!》

독고세는 3소대의 등등한 기세에 눌려 한옆에 비켜서서 어리둥절한 눈으로 그들을 돌아보며 엉뎅이를 철썩 치고 그 자리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더니 자기네 병실쪽으로 냅다 뛰여갔다.

소대 병실에 들어와서 빙 둘러앉아 한참 떠들어대고 첫 상봉의 흥분도 가라앉았을 때 전형적인 하사관의 체취가 몸에 푹 밴 젊은 분대장이 이 모든 상봉의 분위기에 종지부를 치듯 한걸음 척 나서며 토막토막 잘라서 보고했다.

《제…1분대장… 고…문…칠!》

곽병식은 이 순간 한철흠의 생각에 가슴이 저려났다. 그는 한철흠자리에 온 신임분대장의 얼굴을 뜯어보려고는 하지 않았으나 눈이 동그랗고 입술이 얄팍하고 어딘지 모르게 규모가 잡혀보이는 단단한 인상, 즉 자기의 존재를 고집스럽게 주장하는듯한 인상을 받았다.

(한철흠보다 어떨가…)하는 생각이 가슴 한구석에 스며들었으나 그는 인차 이런 상념에 순간이나마 잠긴것을 뉘우치며 반갑게 분대장의 손을 잡았다.

《언제 왔소?》 그는 스스럼없이 물었다.

《한달전에 예비련대에서 왔습니다.》

《함께 싸워봅시다.》

다음 곽병식은 말없이 광준의 손을 꽉 잡았다. 광준은 가슴에 뜨거운 정이 사무쳐 얼굴이 붉깃해지며 눈에 물기까지 어렸다.

《소대장동지, 다시 못보는줄 알았습니다.》

《나두 도로복구대대에 갔을게라고만 생각했지요.》

《소대에 하두 오구싶으니 이 미욱한 머리에두 꾀가 생깁디다요…》

《꾀?! 아바이한테 꾀요?!》

명보가 눈을 반짝이며 그의 옆에 다가앉았다.

박광준은 정어린 눈웃음으로 전우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어디선가 관절염은 아무리 진찰해봐도 모른다는 말을 들은 일이

생각난단말이요. 며칠후에 도로복구대대로 뽑는다는 소문이 돌자 밤에 무릎을 안고 끙끙 앓음소리를 냈지. 웬걸 이튿날아침에 나하구 동갑벌인 안경쟁이 의사가 자그마한 망치를 들고 와서 내 무릎을 똑똑 두드려보거던. 그리고나서 얼굴이 해쓱해서 쏘아보며 자기 방에 오라더군. 그는 나를 호되게 꾸중하며 변절자라고까지 욕하데. 하하하… 방안에 사람들이 나가고 단 둘이 남았을 때 난 그의 손을 덥석 잡으며 실토를 했지. 그러자 왜 꼭 그 소대로 가야 하느냐고 묻는게 아니겠나. 나는 내 진정을 말했네. 동무들 이야기를 했지. 그랬더니 더 성이 나서 펄펄 뛰는게 아니겠어… 그럼 그렇다고 말할게지 없는 재간에 꾀는 왜 부렸느냐고… 아, 욕을 퍼부어대는데 귀청이 떨어지는줄 알았다니깐… 하하하…》

모두들 웃어댔다.

《떠나올 때 서로 주소까지 교환하구 작별했네. 그래서 내가 생각한게 뭐인가. 그저 제일 힘이 있는게 진정이라는거네. 우리 군대에선 말이여…》

《야, 이건 또 화선철학인데요!》

하고 명보가 환성을 올렸다.

곽병식은 광준을 대견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몇달전만 해도 어리무던하고 말없이 근면하기만 하던 이 전사가 언제 이렇게 활달해지고 자기 이야기에 사람들을 집중시킬줄도 알게 되였는가 하는 놀라운 생각이 들었다. 그는 오래간만에 한자리에 모여앉은 명보며, 조칠성이며, 찬일이며 이 모든 전사들의 얼굴을 돌아보느라니, 이제는 세상 더 부러울것이 없을것 같으면서 따뜻한 가정적인 행복감에 온몸이 잠겨드는것이였다. 문득 병원에서 작별을 앞둔 밤에 어머니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어머니는 소대라는것도 하나의 가정이나 다름없는데 기다리는 전사들에게로 빈손으로 어떻게 돌아가겠느냐고 하면서 대원들에게 선물로 주라고 학습장과 목달개를 한보따리 싸서 주었다.

곽병식은 배낭을 열고 그 선물을 꺼내여 대원들에게 나눠주었다.

공책에 흰 목달개 한개씩을 받쳐 가진 전사들은 기쁨에 넘쳐 어쩔바를 몰라했다. 풀을 먹여서 다리기까지 하여 빳빳한 그 목달개는 전사들로 하여금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와 안해와 누나들의 알뜰한 손길을 생각하게 했다. 전사들속에서 제일 좌상인 박광준은 공책과 목달개를 두손에 받쳐들고 례절을 차려 정중한 인사말까지 했다.

《소대장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한테는 우리 동무들을 대

표해서 제가 따로 인사말을 쓰겠습니다.》

그가 이 말을 어찌나 정중하게 했던지 전사들은 무슨 례식에나 참가한것처럼 얼굴들이 정색해졌다. 그러자 곽병식은 광준의 손을 잡고 소탈하게 웃으며 이런 어색하고 정중한 분위기를 깨쳐버리려고 했다.

《광준동무, 뭘 이러십니까. 허허…》

명보가 행복에 겨워 밝은 미소를 짓고 소대장과 전우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저는 이 목달개를 아꼈다가 승리의 열병식에 갈 때 달겠어요!》

전사들은 그것이 하나의 목달개가 아니라 마치 그 무슨 신성한것인것처럼 어디다 간수했으면 좋을지 몰라 한동안 들고있었다. 전사들의 손에 손마다에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순결하고 강직한 마음처럼 희디흰 목달개가 눈부시게 빛나고있었다.

3

갱도— 그것은 하나의 지하요새이며 지하궁전이였다.

고병근중대장은 곽병식을 데리고 갱도의 구석구석까지 구경시키며 자주 이렇게 말했다.

《어때?!… 이게 시가 아니요! 땅파기만 하는 내 가슴두 뻐근해지며 별스러워질 때가 있단말이요! 자네 우리한테 오더니 시를 다 잊어먹은게 아니야? 그래, 이슬방울도 없구 무지개도 없구 해빛도 없구 갈매기두 없구 캄캄한 땅속이라 저녁노을두 없겠다… 시인들한테야 별로 느낄게 없을테지. 한데 우리 가슴은 별스러울 때가 많단말이요! 보병밥을 먹는바치구 젠장 이슬방울같은 사치한게 아예 없는 땀내나는 시를 지어보는게 어때. 나는 갱도속을 걸으면 가슴이 자꾸 별스럽거던. 어떤 땐 내가 이거 좀 주책이 없어진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단말이요.》

입구를 좀 지나서부터 갱도는 지난날의 좁고 답답한 굴이 아니라 가슴이 탁 트이게 넓고도 높은 지하갱도로 뻗었다. 곽병식은 고병근이와 나란히 서서 갱도 한복판으로 걸어가고있었다. 동발들은 위병들처럼 갱도 량쪽벽에 주런이 서서 그를 반겨맞는듯했다. 그도 또한 위병들을 사열하듯 그 동발 하나하나를 눈여겨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였다.

지난해 가을 포연탄우속을 기여다니며 어깨가 벗어지고 피가 터지면서 메고 온것들은 어디에 서있으며 련대장동지와 함께 메고 온것은 어디 서있는가… 그에게는 어느날 산중턱에서 어깨가 축 처진 자기 손을 잡고 련대장동지가 하던 말들이 감회깊이 생각났다. 그때만 해도 그는 련대장의 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지하요새의 표상을 눈앞에 보지는 못했던것 같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주체적인 군사사상을 목숨으로 관철하려는 강태욱련대장의 철석같은 의지력이 적들의 광란적인 공격을 격퇴하는 속에서도 이런 지하요새를 짧은 기일에 구축할수 있게 했으며 그리고 이 고귀한 결실속에는 수많은 전사들과 함께 자기자신의 피땀도 스며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뿌듯한 보람과 행복감을 느꼈다.

고병근중대장은 그를 돌아보며 빙그레 웃었다.

《지난 가을 내가 욕심을 부리다가 련대장동지한테 혼뜨검이 난걸 눈치챘댔소?》

《언제말입니까?》

《생각 안날게요. 적들은 계속 바라오르는데 감시소에 앉아서 암만 생각해봐야 서동길이네 방어선이 터질것 같단말이요. 그래서 동무네를 몰래 떼내서 서동길이한테 보내주려구 했지. 한데 련대장동지가 그 기미를 알아챘단말이요… 하하하…》

《하하하… 알겠어요!》 두 군관은 마주보며 유쾌하게 웃었다.

고병근은 등불 두개가 환히 켜져있는 동발옆의 널문을 열어제꼈다. 안에서 후끈한 김이 쓸어나왔다.

목욕탕이였다. 뽀얗게 김이 서린 속에서 물을 끼얹는 소리며 전사들이 히히덕거리며 떠들어대는 소리가 울렸다.

고병근은 안에다 대고 소리쳤다.

《어느 소대야?》

《중기 1분대입니다.》

《물이 뜨거운가?》

《예— 중대장동지, 어서 들어오십시오. 잔등을 밀어올리죠!》

《수세미가 있어?》

《예—》

《춥지 않아?—》

《들어오십시오. 주을온포에 온것 같습니다!》 《달리자 달—리자— 나의 자동차—》

《노래는 건국실에 가 불러야지！》

《예— 기분이 좋아 그럽니다— 중대장동지, 들어오십시오— 하하…》

곽병식은 옷을 훌렁 벗어버리고 당장 뛰여들어가고싶었다.

《들어갈가？》 하고 고병근이가 혁띠고리에 손을 가져가며 물었다.

《들어가자요！》

《가만… 이따 하자구！》

곽병식은 중대장에게 안내되여 《콩나물공장》, 건조실, 세탁소, 식당, 건국실과 병실들을 돌아봤다. 그를 더욱 놀라게 한것은 이 갱도속에 바위짬에서 이가 시린 샘물이 펑펑 쏟아져나오는 우물이 세곳이나 있는것이였다.

식량창고에는 예비식량들이 가득가득 쌓여있었으며 미역이며 마른 명태들이 줄지어 결려있었다. 그리고 비타민결핍증을 방지하기 위한 마른 사과들이며 솔잎물이 그릇마다 가득가득 장만되여있었다.

가로등처럼 동발들에 결려있는 등불빛에 갱도안은 어디 가나 환히 밝았다.

소대병실들이 있는곳에서 몇걸음 떨어져 널문을 알뜰하게 해서 닫은 방이 있었다.

고병근중대장은 그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흡족한 얼굴로 말했다.

《방송실이요！ 없는게 없거던！》

고병근은 화선대장간에서 포탄깍지로 만든것이 분명한 알른거리는 문손잡이를 건드려보며 말했다.

《동무네 박광준이가 만들어붙인게요. 이전엔 쇠줄로 만든것이였는데 처녀가 손을 상한다고 이런 멋쟁이를 척 갖다붙였지.》

곽병식은 중대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 문이 활짝 열리며 정혜가 뛰여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곽병식은 밤새껏 방송을 하다가 군인외투를 어깨에 걸친채 쪽잡이 든 정혜를 그려보며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이건 정말 멋진데요. 가구점에서 팔던 문고리이상입니다. 요새도 방송하는가요？！》

《하지 않구. 매일밤 하네.》 하고 말한 고병근중대장이 걸음을 옮기려 하자 그는 머뭇거리며 또 물었다.

《매일밤 합니까？！》

《그 일도 전투요！》

《이 문고리는 호텔문에 달아도 손색이 없겠는데요… 매일밤 방송을 합니까？！》

고병근은 이 사람이 병원에 갔다오더니 귀가 좀 어두워지지 않았느냐는듯 그를 흘깃 돌아보고는 뚜벅뚜벅 걸음을 옮겨갔다.

병실들이 자리잡은곳을 지나 한참 들어가자 갱도는 층계를 따라 약간 치달아오르더니 둔덕진곳에서 광장처럼 넓어졌다가 부채살처럼 사방으로 가지를 쳐서 갈라져나갔다.

고병근은 둔덕진곳에 오르자 걸음을 멈추며 흐뭇한 얼굴로 말했다.

《여기를 뭐이라고 부르는지 아오？ 〈모란봉〉이란말이요. 바위투성이구 이래뵈여두 다 이름들이 붙어있소.》

고병근은 가지를 쳐서 나간 소갱도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그 이름을 불러댔다.

《여기 중앙갱도는 〈중앙거리〉요. 이 〈중앙거리〉를 중심으로 제일 저쪽 작은 갱도는 〈역전거리〉, 저건 〈서문거리〉, 이 가운데것은 〈대동문거리〉, 저쪽것은 〈가루개〉, 그옆의것은 〈한철흠복수갱도〉요. 요전에 조칠성이가 저기 와서 무슨 생각을 하는겐지 우두커니 서있는걸 보니까 나두 속이 좀 별스럽더란말이요. 좋은 분대장이였지！…》

고병근은 눈에 티라도 든듯 굵은 엄지손가락마디로 눈굽을 비비적거리며 외면했다. 곽병식은 한철흠분대장에 대한 아픈 추억에 가슴이 뜨거워났다. 그는 서둘러 화제를 돌리려고 두리번거리다가 저쪽 뒤중앙갱도에서 삐여져나간 볼품없이 낮고 좁은 갱도구멍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긴 뭡니까？》

《아 그거, 신찬일동무게요. 자기 직장이 있던 거리 이름을 아무데나 하나 붙여달라고 정치부중대장한테 자꾸 제기해서 하나 이름을 달아준게요. 〈서문밖거리〉요. 그 동무는 매일아침 와서 〈서문밖거리〉를 청소하오.》

전사들은 그 이름들을 부르며 바위들만 울퉁불퉁한 이 갱도들에 정을 붙였으며 갱도를 더 사랑하고 알뜰하게 거두게 되였다. 해빛 한가닥 스며들지 않는 여기 땅속깊은곳에서도 자기들의 마음이 항시 달려가는 수도의 거리들 이름을 조석으로 부르며 언제나 수령님께서 계시는 혁명의 수도를 몸가까이 느끼며 그이와 함께 숨쉬며 살려는 전사들의 랑만적인 지향은 그의 가슴을 격동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다.

부채살처럼 가지를 뻗은 《서문거리》며 《대동문거리》를 따라 내려가보니 탄띠를 물고 결전의 시각을 묵묵히 기다리고있는 중기들이

설치된 중기화점들과 직사포 진지들과 잠복초들이 자기 위용을 적들앞에서 숨기고 죽은듯이 때를 기다리고있었다.

고병근은 그의 손을 덥석 잡으며 부르짖었다.

《어떻소! 싸워볼만 하지! 미국놈 한놈도 남지 않을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해볼수 있단말이요!》

곽병식은 지난날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만 봐도 원쑤들의 포격이 들씌우는 참호에서 흙에 파묻혔던 일이며 류산탄밑에서 소대가 피투성이 되여 딩굴던 일들을 생각할 때 이런 지하요새를 구상하여주신 최고사령관동지의 위대한 사랑에 목이 메였다. 그는 갱도를 돌아보면서 모르는 사이에 자기 힘이 거인처럼 자라나며 싸우고싶은 욕망,저들의 《기술적우세》를 믿고 허세를 부리는 미제와 한번 부딪쳐보고싶은 걷잡을수 없는 욕망이 혈관마다에서 꿈틀거림을 느꼈다. 젊은 시인은 이 지하요새에서 고병근중대장이 어렴풋한 느낌으로 깨우쳐준 시,우리 시대의 싸우는 인민의 참신한 시정신을 보았던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민의 이 위대한 창조력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지혜있는 머리와 재간있는 손들이 평화적로동에 돌려진다면 이 땅우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창조할것인가 하는 아름찬 생각도 하게 되였다. 걸음걸음마다 무게있는 사상과 뜨거운 심정과 랑만의 거세찬 파도가 밀려들어 그의 가슴에선 참을수 없는 시상이 기슭을 들부시는 파도의 포말처럼 용솟음쳐올랐다. 마침내 시인의 환상은 불덩이같은 자기 마음이 반제전선의 보루에 뛰여올라 세계반제투사들에게 웨치는 목소리의 메아리를 듣는것이였다.

여기 갱도에 와보시라! 이것은 조선사람들의 반제사상의 기백이며 미제를 요정내려는 조선의 자세이다!

그들은 제1잠복초에 오래동안 엎드려있었다. 잠복을 서던 박광준이와 명보는 두 지휘관에게 자리를 내주고 한옆에 물러앉았다.

고병근과 곽병식은 잠망경으로 적진을 내다보았다.

곽병식은 잠망경을 통하여 바로 눈앞에서 적 3층감시소의 층층으로 된 화구들의 시꺼먼 아가리들을 본 순간 하마트면 소리지를번했다.

(아니,이렇게도 가깝다니… 50메터도 안되겠구나!)

지난 1년간 적아간의 끊임없는 공방전은 이 릉선에서도 방어선을 이렇듯 가까이 접근시켜놓았다. (후에 전쟁경험연구자들이 그 거리를 재본데 의하면 46메터라는 전쟁사상 류례드문 거리였다.)

적들은 자기들이 차지한 1035고지의 급한 앞경사면을 리용하여 3층으

로 된 완강한 영구화점을 굴설하였다. 이 영구화점과 깊은 교통호로 련결된 토굴들에는 한개 대대 력량의 적 병력이 둥지를 틀고있었다. 아군습격조의 비호같은 기습에 떨고있는 놈들은 영구화점의 화구들과 교통호들이며 토굴의 출입문우를 철조망으로 얼기설기 덮어버렸다. 릉선우에서 머리를 움츠러뜨린것 같은 이 괴물은 멀리서 보면 그 무슨 비밀감시대와 흡사했다. 그래서 고지나 릉선들에 제나름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습관된 어느 지휘관이 그것을 편리상 3층감시소라고 불렀는데 후에는 공식작전문건들에까지 그렇게 표기되게 되였던것이다.

적방어선의 돌출부에 있는 이 괴물의 화구로부터 내뿜는 화력은 아군갱도의 화구를 노렸으며 린접고지들도 시끄러운 측면사격때문에 적지 않은 장애를 받았다. 정찰과 공병의 력량을 배합한 아군파괴조가 폭약을 안고 3층감시소로 여러번 육박했으나 이렇다할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적들은 기회만 있으면 이 돌출부로부터 공격성과를 확대하여보려고 여러차례 불의공격했으나 그때마다 중간지대에서 아군의 무서운 화력을 들쓰고 피투성이 되여 주저앉고말았다.

지금 적들은 밤마다 4개의 탐조등 불빛으로 이 공간지대를 대낮처럼 밝히고있었으며 150여문의 각종 대포로 조준하고있어 개미그림자 하나 얼씬해도 순식간에 불바다로 덮인다는것이였다.

적병들은 이곳을 《지옥의 일각》이라고 불렀다.

밤마다 잠망경으로 내다보면 적들의 부서진 총자루와 군복쪼박지들이 너풀거리는것이며 해골들이 너저분히 널려있는것들이 탐조등 불빛에 희미하게 보였다.

이 공간지대의 자유로운 왕래자인 바람은 량측 잠복초병들의 기침소리, 담배내 등을 날라가고 날라오군했다.

《1소대장이 저 불바다로 소대를 데리고 뚫고 나가겠다는게요. 서동길동무는 안된다고 반대하거던. 련대에서도 론의중이요. 하여튼 적의 〈신공세〉를 쳐부시구 전환을 가져오자면 우린 저놈 고지를 타고앉아야 하오. …》

고병근중대장이 돌아간 다음에도 곽병식은 잠복초에 엎드려있었다. 그는 자신으로도 가늠할수 없는 집요한 생각에 사로잡혀 적진을 뚫어지게 쏘아봤다. 이윽고 그는 적의 시꺼먼 화구를 넘겨다보며 어처구니없이 웃었다.

(허, 참… 전쟁이 이렇게 되다니! …)

그리고 옆에 있는 명보를 돌아보며 물었다.

《서로 말을 주고받을수도 있겠소.》

《예, 바람이 이쪽으로 불 때면 저놈들이 웅얼웅얼거리는 소리까지 들려요.》

×

점심식사후 서동길소대장은 곽병식을 데리고 갱도입구옆에 있는 바위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며 그사이 중대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다가 문득 그답지 않은 신중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인간생활에는 녀성이 꼭 있어야겠어. 모두 명랑해지고 환해지고 뭐라고 할가 하여튼 땀내 풍기고 텁텁하던 우리 보병중대에 윤기가 돈단말이요. 1소대장은 대원들의 외모정돈을 평화시절이상으로 요구하게 됐네. 한번은 최호찬이와 같이 방송실앞을 지나가는데 그 친구 저도모르게 혁띠고리를 바로잡는단말이요. 그래서 놀려줬더니 버럭 성을 내지. 하하하…》

《허허허…》

서동길은 주먹으로 그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제 허물은 생각 안나?! 대학물도 먹었다는 사람이 장작개비처럼 꽛꽛해서 뭘그래. 혁명동지로서 허물없이 지내야지. 가만 저기 오는구만! 사단에 회의를 올라갔는데 벌써 오나.》

곽병식은 무의식중에 벌떡 뛰여일어났다. 저쪽 산기슭을 에돈 교통호굽이에 류정혜가 나타났다. 그는 교통호둔덕우의 눈을 두손으로 쥐여 꼭꼭 다져서는 앞쪽하늘에 공처럼 뿌려올리고는 떨어지는것을 달려나오며 한손으로 탁 쳐서 눈가루를 들쓰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눈을 털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즐거운듯 하늘을 쳐다봤다. 그는 무심결에 이쪽을 보며 얼굴이 환히 밝아지는것 같더니 교통호를 따라 미끄러지면서 달려내려왔다.

이 순간 곽병식에게는 파랗게 얼어붙은 하늘과 눈에 덮인 릉선과 새로 파올린 교통호둔덕 흙의 빛갈들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그 색채가 선명하게 살아나는것 같으면서 정혜가 신선한 공기를 이쪽으로 몰아오는듯한 느낌이 들었다. 문득 그는 쑥스러운 생각이 들어 그쪽에서 외면하여 서동길을 보며 말했다.

《아, 정말 중대가 그리웠네.》

정혜는 어느사이엔가 그들옆으로 달려와 상기된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였다.

《정혜동무, 보라구. 이렇게 멀끔해서 돌아왔소! 허허허.》

서동길은 즐겁게 웃으며 말했다.

곽병식은 스스럼없이 정혜와 악수했다. 정혜는 눈처럼 흰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찍어내고는 돌아온것이 곽병식이 아니라 서동길이라도 한듯 그만을 쳐다보며 말했다.

《련대에 들렸다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곽병식은 반가움을 감추며 말하는 처녀의 모습을 보며 은근히 대견스럽게 생각했다. 철없는 소녀처럼 활달하기만 하던 체취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퇴색했으나 몸에 꼭 맞는 산뜻한 군복밑에서 숙성한 처녀의 생기가 약동하고있었다.

정혜는 상쾌하게 큰눈에 미소를 가득 담고 서동길을 보며 물었다.

《명보동무랑 모두 만나서 어쨌나요?!》

《굉장했소. 목마를 태우고 야단을 쳤소.》

《아이, 나도 그걸 좀 봤을걸!》

정혜는 두손을 맞잡고 머리를 가볍게 흔들며 나직이 부르짖었다.

서동길은 갑자기 얼굴을 찌프리며 흰눈을 시꺼멓게 더럽힌 포탄터진 자리들과 부서진 바위들이 너저분한 불타고 파헤쳐진 땅을 돌아보고 새 한마리 날지 않는 하늘을 쳐다보더니 퉁명스럽게 내쏘았다.

《젠장, 바람에 설레는 백양나무라도 한그루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두손으로 군관혁띠를 꽉 그러쥐고 분기를 참는 사람처럼 몸을 떨더니 돌아서서 갱구쪽으로 걸어갔다.

《소대장동지, 왜 가세요?!》

정혜는 그를 붙잡아두려는듯 이렇게 부르짖었다.

《무기소제를 시켜야겠소.》

곽병식은 그가 사라지자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감을 느끼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러나 부질없는 정서의 희롱이라고 생각하고싶은 이런 마음을 인차 다잡고는 정혜와 사이를 두고 바위에 걸터앉아 그의 아버지에 대하여 자기가 아는 모든것을 이야기해주었다.

《은발중좌… 아, 악착한 지난 세월이!…》

이렇게 속삭이고는 더 말을 못하는 정혜의 볼로는 이슬같은 눈물

이 방울방울 굴러떨어졌다.

《아버지는 완전히 청춘으로 소생하셨소. 정혜동무도 아버지를 만나면 첫눈엔 알아보기 힘들거요. 얼마나 활기있게 생활하고 정력적으로 사업하신다구, 류성운군의동지의 손에 의하여 수많은 부상자들이 소생하여 다시 전투대오로 돌아갔소. 나 역시 그중 한사람이요. 정혜동무가 이렇게 고지에서 싸우는줄 아시면 마음속 그늘도 가셔져 얼마나 희망에 넘쳐 왕성한 열정으로 사업하시겠소. … 정혜동무, 잘 싸워서 아버지의 여생을 행복하게 해올리오.》

정혜는 한없는 기쁨과 긍지로 하여 가슴이 한껏 부풀어올랐다. 그는 아버지의 지성의 손길이 끝없이 갔을 곽병식의 건강한 모습이 전에없이 친근하게 안겨왔다. 정혜는 며칠전만 하여도 아버지를 봤을 그의 눈을 귀엽고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윽고 곽병식이 그의 사업에 대하여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자 처녀의 눈길은 웬일인지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곽병식은 미처 그 원인을 캐여볼 경황도 없이 포사격이 넘어와서 갱도안으로 들어갔다.

4

최호찬소대장은 3층감시소 부근 적진에 대한 사판을 만들었다. 짬이 생길 때마다 그의 소대에서는 사판을 둘러싸고 3층감시소 습격전투에 대한 가상훈련이 진행되였다. 그리고 최호찬은 대원들의 투지를 련마하여 담을 키우기 위해 권투훈련을 조직했다. 감시정찰임무를 맡고 갱도에 와있는 정찰분대의 곰처럼 몸이 장대하고 주먹이 세기로 이름난 정찰병이 1소대의 권투훈련을 도와주었다.

그는 포승줄 쓰는 법이며 주먹으로 적의 급소를 치는 타격법의 비결을 아낌없이 대주었다.

권투훈련시간이면 1소대의 병실은 들썩했다.

최호찬은 정찰병과 맞붙은 자기 대원에게 소리쳤다.

《강타! 강타! 턱밑을, 턱밑을 쳐라! 강타! 그렇지, 련속으로…》

한고패 겪고난 대원은 얼굴에 즐벅한 땀이며 코피를 자랑스럽게 씻으며 물러나앉고 다음 전사가 정찰병과 맞붙었다.

《면상을 노려라! 그렇지… 후퇴 말라! 앞으로! 강타 강타! 련속으로!》

씩씩거리는 숨소리, 웨침소리… 웃음은 금지되였다. 훈련은 긴장하게 진행되였다.

이런 때면 다른 소대의 전사들도 와서 부러운 눈매로 구경하며 주먹이 근질거려했다. 1소대의 대원들은 구경군들앞에서 제자리 뜀뛰기도 하고 주먹으로 허공을 치기도 하며 예비운동을 하면서 은근히 뽐을 냈다.

사기가 부쩍 오른 그들은 요새 갱도안에서 판을 쳤다. 식당에 와서도 밥을 먼저 타려 했으며 목욕탕에 와서도 떠들썩 웃으며 몸에 물을 끼얹고 팔근육자랑을 했다. 몇몇 전사들은 벌써 포승줄을 장만해서 꽁무니에 차고 다녔으며 손에 붕대까지 감고 다녔다.

신찬일은 1소대옆을 지나가다가도 권투훈련이 있을 때마다 들어가서 구경했다. 그리고는 어깨가 축 처져서 남몰래 한숨을 짓는것이였다.

(…우리 소대는 어떻게 된 셈판이야. … 소대장동진 온 날부터 잠복초에만 가 엎데있고, 남은 당중앙의 편지를 받고 펄펄 뛰고있는데 우리는 주눅이 들었어. …)

그는 초조해났다. 전쟁도 마감고비에 들어선것 같은데 이렇게 어물어물하다 다시 경상골로 돌아간단말인가. 자기에겐 쉬운 일만 맡기고 적후습격에도 데리고 가지 않았다. 박광준이만 해도 적후에 가서 부상까지 당하고 병원에 갔다오더니 제법 름름해보이지 않는가.

그는 바싹 초조해진데다가 1소대에 대한 은근한 시기심 비슷한 부러움까지 뒤섞여서 속이 괴로왔다. 그러나 약삭바르고 경우가 바른 그는 그런 기미를 전혀 나타내지 않고 1소대의 권투를 구경하고 와서는 소대원들앞에서 그 흉내를 내며 웃겨댔다.

승벽이 센 조칠성은 1소대의 기세가 부러우면서도 절대 구경하러 가지 않았으며 한편 소대의 기세를 부쩍 추켜세운 최호찬소대장에 대한 은근한 존경을 품고있었다. 조칠성은 갑갑해진 마음으로 자기 소대장을 여겨보았다. 소대장은 1소대의 결심이며 그들의 기세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무슨 두드러진 각오를 하는것 같지도 않았다. 1소대의 기세가 자기들에게는 이처럼 큰 충격을 주고있는데 소대장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자극도 못준단말인가? 소대장동지는 전사들의 이런 심정을 왜 전혀 모르는척하고있는가?! 만약

소대장이 최호찬소대장처럼 무엇이나 들고 나온다면 자기는 온몸을 들이밀어 그것을 떠받들것이며 중앙갱도에 나가 창격전춤이라도 추면서 떠들어대고 선전하여 식당이나 목욕탕에 와 우쭐대는 1소대 친구들의 코대를 꺾어놓을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대장은 병원에 갔다오더니 어딘가 모르게 좀 달라진것 같았다. 혈색좋은 얼굴은 팔팔하면서도 나이들어보이고 걸음걸이는 황득범중기소대장을 따라가려는지 무겁게 보였다. 눈에는 늘 봐야 웅심깊고 신중한 생각이 어려있는것 같았다. 소대장은 잠복초에 오래 나가 적정을 살펴보았고 전사들에게 적들의 《신공세》음모의 내막에 대하여, 후방에 대한 폭격만행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였다. 조칠성에게는 소대장이 부상당하여 피를 흘린 다음부터는 어쩐지 처음 배치되여왔을 때 자기 마음을 그처럼 끌었던 생신하고 팔팔한 패기대신 무엇인가 딱히 짚을수 없는 다른것이 몸에 들어앉은것 같았다. 그는 이것이 소대장자신이나 소대를 위하여 좋은것인지 아니면 해로운것인지 가늠할수 없어 눈만 슴벅거렸다.

그는 어느날 갑갑증이 나서 불쑥 이렇게 물었다.

《소대장동지는 1소대에서 제기한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담성으로 봐선 아주 훌륭한게요. 만약 그것이 결심으로 채택되면 우린 뒤에서 1소대동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말아야겠소! 그런데 그건 왜 묻소?!》

《우리도 뭘 좀 해야 될게 아닙니까?!》

《해야지. 동무들모두가 생각하라구. 내 혼자 머리로는 부족하오.》

조칠성은 소대장이 부상당하고나더니 확실히 모든데서 자신을 잃고 주저한다고 생각하니 속이 끓었다.

어느날 저녁 소대 전체가 신문독보를 마치고 담배들을 피우며 휴식하고있는데 독고세가 뛰여와서 조칠성이에게 한가지 청을 했다.

독고세는 붕대를 감은 주먹으로 왼손바닥을 습관된듯 툭툭 치며 말했다.

《…현리전투때 얻은 비옷이 있지?》

《있어. 배낭안에 사품을 싸놓았어. 왜?》

《그걸 줄수 없겠나?》

《그걸?… 그건 해서 뭘해?》

《저, 그말이야. 권투련습하는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야겠는데.》

《모래주머니?! 아— 알겠어!》

《달라구!》
《줄수 있어. 인젠 그 주먹으로 모다구라두 박아넣을수 있나?》
조칠성은 눈을 껌뻑거렸다.
독고세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어깨박죽을 씨룩거렸다.
《뭘, 그저 댓놈이야…》
조칠성은 벌떡 일어나며 배를 내댔다.
《댓놈이라구 했지?! 자, 내 배를 치라구! 내가 아야 소리만 치게 하면 주겠어!》
조칠성은 배심좋게 을렀다.
독고세는 너그럽게 웃었다.
《자, 이 친구 봐라… 어쩌자구 이래?》
《치란말이야!》
《자, 이러지 말구 달라니깐… 군의소 신세를 지자구 그래?》
조칠성은 소대원들을 돌아보며 너털웃음을 웃었다.
《하하하… 자신없으면 돌아가게! 다른 친구를 보내라구! 하하하…》
《정말 맛을 볼테야?》
독고세는 자기앞에 떡 뻗치고 서있는 조칠성이를 노려보았다.
그러자 온 소대가 와 뛰여일어나며 응수를 들었다.
《여, 1소대 대표! 독고세! 맛을 보이게!》
《하하…》
《허허…》
《조칠성이! 배에 힘을 주라! 3소대 대표! 배에 힘을 주라!》
벅작 고아대는 전사들속에서 명보가 뛰여나오며 심판을 맡아나섰다.
1소대의 권투훈련을 눈여겨보았던 찬일은 눈이 휘둥그래서 조칠성의 옷자락을 잡아채며 소리쳤다.
《칠성이, 이사람 정신있나. 어쩌자구 이래?!》
그 소리는 전사들의 벅작 떠들어대는 소리에 묻혀버리고말았다.
심판인 명보가 손을 높이 들었다가 공기를 째며 내리쳤다.
《시—작—》
독고세의 주먹이 조칠성의 배에 날아들었다. 조칠성은 흠칫 놀라며 몸을 뒤로 기우뚱했다.
와— 웃음이 터졌다.
《독고세!》

《칠성이！》
《강타！》
《배에 힘을 주라.》
독고세는 머리를 두팔사이에 박고 《적수》의 배를 노려보며 주먹으로 냅다쳤다. 조칠성은 그때마다 《응！ 응！》 소리치며 배를 내댔다.
《독고세！》
《독고세！》
《칠성이！》
《독고세！》
독고세의 주먹은 칠성의 배에서 펑펑 튀여났다. 조칠성은 얼굴이 수수떡처럼 벨개서 그의 주먹을 밀어던졌다.
독고세는 이를 사려물고 땀을 뿌리며 주먹을 내질렀다.
전사들은 와—와— 떠들어대며 웃어댔다.
《칠성이 좋다！》
《좋다—》
《독고세！》
《독고세！》
《칠성이！》
《강타！》
약이 오르고 맥이 빠진 독고세는 땀을 씻으며 씩씩거리더니 몇걸음 뒤걸음질쳤다가 《야—》 하는 소리와 함께 달려나오면서 힘껏 주먹을 내질렀다.
조칠성이 《응！》 소리를 지르며 배를 내밀었다. 그바람에 독고세는 벌렁 뒤로 넘어졌다.
《와—》
《만세—》
《조칠성이！》
《조칠성이！》
《와하하—》
《조칠성이！》
《와하하—》
전사들은 뛰여오르며 웨쳐대고 웃어댔다. 독고세는 그 웃음소리에 쫓기듯 벌벌 기여서 도망쳐나갔다.

조칠성은 승리자의 쾌감에 벙글거리며 땀을 씻었다. 그리고는 저고리를 걷어 불깃하게 피가 몽킨 배를 내려다보며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야— 그 친구 쎈데…》

곽병식은 전사들속에 어울려서 너무 웃다나머지 눈물까지 나서 손등으로 눈을 문지르며 조칠성이를 쳐다봤다. 칠성이도 벙글거리며 소대장을 봤다.

《칠성동무, 갖다주라구!》

《그건 왜요?… 또 누가 가지러 오겠지요.》

《그럼 쓰나. 어서 갖다주오.》

조칠성은 다시 승벽이 살아나서 얼굴이 벌개지며 1소대쪽에 대고 삿대질을 하면서 말했다.

《내 저 친구들이… 참… 우쭐대지만 않았어두 군소리없이 줘요. 그까짓 풍천쪼박이 다 뭔가요. 살까지 베줄 처지에. 다람쥐같은 독고세까지 내앞에서 큰소릴 치게 됐으니, 하하. 남한테 물건을 가지구세를 써서야 사람값에 못가지요. 소대장동지, 갖다주구 오겠습니다.》

곽병식은 1소대의 발기자체에 대해선 의혹이 가는 점들이 더러 있었으나 그들이 만약 3층감시소의 습격을 담당하게 된다면 성공하여 영예를 얻기를 충심으로 바라고있었다. 그리고 자기자신은 앞에 나설 자격은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뒤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일에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저녁식사후 고문칠분대장이 조용히 좀 만날수 없겠는가고 제기해왔다. 무엇인가 속내 깊은 이야기를 하고싶어하는 얼굴이였다.

그들은 갱도어구에 나가 앉았다. 처음엔 날씨며, 식사의 질이며, 요즘 갱도안에 생긴 쥐들이 미대를 쏠기 시작하는데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고문칠은 생각 깊은 눈으로 소대장을 돌아보며 이런 말을 했다.

《어제 있은 일입니다. 쥐 쏜 미대를 깁지 않아 쌀이 흘러내린것을 보고 명보동무를 호되게 지적했습니다. 취침시간이 지난 뒤 저는 한철흠분대장복수갱도 어구에 서있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가 머리를 들었을 때 저는 그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습니다. 소대장동지, 전사들의 가슴에는 한철흠분대장동지에 대한 추억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희생된 동지에 대한 이런 신성한 감정을 봤을 때 저는 많은것

을 생각하게 되였습니다. 저는 한철흠분대장동지에 비하면 부족점이 많은것 같습니다.》

자존심 강한 하사관의 이런 솔직한 고백은 소대장을 감동시켰다. 곽병식은 그가 이처럼 속깊은 생각을 품고있는것이 대견스럽고 기뻤다. 그를 안아주고 고무해주고싶었다. 곽병식은 분대장의 잔등에 팔을 얹고 그의 단단한 어깨를 꽉 쥐였다.

《한철흠분대장동무는 부하들에 대한 요구성이 강하면서도 자기자신 빈틈없이 정확한 모범을 보였고 말없이 근면하고 성실한 동무였소. 개인적으로는 내 생명의 은인이요. 나자신이 일생을 두고 잊을수 없는 동지요. …》

이어서 그가 어떻게 사업하였는가를 이야기해주었다. 고문칠은 깊은 생각에 잠겨 듣고있었다.

《문칠동무, 동무자신이 소대라는 이 가정의 심정을 깊이 리해하고 귀중히 여긴다면 전사들은 동무를 더 따르며 존경하게 될게요.

전사들의 그런 마음을 소중히 여겨야 하오. 그것이 다 승리를 마련할수 있는 하나의 밑천이 아니겠소.》

《소대장동지, 고맙습니다!》

문칠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곽병식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한철흠분대장은 전사했지만 벌써 이 신임분대장의 가슴속에 그리고 소대 전체 전사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다는것을 느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혁명대오에 들어선 자기 어머니와 자기자신에 대하여도 생각하게 되였다. 그는 혁명에 몸바친 이들의 영생불멸하는 그 정신은 부단히 새 사람들로 교체되는 이 혁명대오에서 얼마나 줄기찬 피줄로 뻗어나가는가 하는 가슴 뜨거운 생각을 하게 되였다.

곽병식은 신임분대장의 손을 꽉 쥐였다. 이런 격동이 분대장의 가슴에도 옮겨진듯 그는 흥분하여 말했다.

《소대장동지, 1소대에서 새로운 발기를 들구 일어나는통에 우리 소대 일부 동무들은 좀 기가 꺾인것 같습니다. 우리두 좀 뭘 가지구 떠들어야겠습니다.》

《전사들의 사기를 떨궈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내용이 여물지 못한것으로 허세를 부려도 안되리라고 보오. 분대장동무, 만약 1소대가 3층감시소 습격을 맡게 된다면 우린 그들을 적극 도와야겠소. 이런 정신으로 전사들을 교양해야겠소.》

《예.》

담화를 끝낸 다음 고문칠은 병실로 돌아오며 앞에서 걸어가는 소대장의 모습을 존경어린 눈으로 쳐다봤다.

(내가 좋은 소대에 배치되여왔구나!)

곽병식은 매일 제1잠복초에 나가서 전사들과 함께 엎디여서 적정을 근기있게 감시하며 3층감시소 주변지형을 세심하게 연구했다. 그는 명보와 광준의 조와 함께 잠복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소대장이 나타날 때마다 두 전사는 소곤소곤 주고받던 이야기를 중단하는것이였다. 그는 요새 와서 명보의 얼굴이 더 환히 피여나고 박광준의 눈이 더 생기를 띠고 빛나는것을 느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있었는지 알고싶은 호기심도 없지 않았으나 지휘관으로서 전사들끼리 하는 이야기까지 까밝혀놓으라고 요구하는것 같아서 삼가했다.

어느날 밤중 곽병식은 잠결에 누가 자기를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다.

박광준이와 명보가 옆에 앉아있었다. 그들의 얼굴엔 홍조가 불타고있었으며 두눈에서는 생신한 령감의 빛이 빛나고있었다. 박광준의 얼굴은 더 젊어보이고 기백에 차있었다. 언제나 무던하고 겸손한 얼굴모습에 습관되였던 소대장은 이 전사에게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고 놀라서 일어나앉았다.

《소대장동지, 달게 주무시는 잠을 저희가 깨우지 않았나요?》

이렇게 말하는 박광준은 다시 사죄하는듯한 얼굴모습으로 돌아가며 머리를 숙였다.

《왜 자지 않아요?》

《…》

박광준은 숨을 몰아쉬였다. 그의 겸손한 가슴속에서 누를수 없는 흥분이 뒤설레고있음이 분명했다.

소대장은 박광준이앞에 다가앉으며 그의 뭉툭한 무릎우에 손을 올려놓았다.

《저한테 무슨 말할게 있습니까?》

《…》

명보가 팔굽으로 그의 옆구리를 건드리는것 같았다.

《서슴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저… 다름 아니라 소대장동지 고맙습니다. 소대장동지어머님이 집

의 무식한 녀편네한테까지 편지를 해주셔서…》

곽병식은 의아한 눈으로 그를 보았다. 그 이야기는 낮에 식당에서도 했었다.

그는 명보를 돌아봤다. 명보는 홍조에 붉어진 얼굴에 수집은 미소를 담고는 자신은 말하지 않고 광준이를 끄드기기만 했다.

곽병식이도 그를 고무했다.

《광준동무, 말씀하십시오! 저하구야 못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광준은 머리를 숙이며 어줍게 웃다가 스스로 제 생각에 놀라는듯 눈이 빛나며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소대장동지, 저희들이 주제넘은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당에서 보낸 편지를 받들구 결사전에 들구일어났는데 저희들이라구 어찌 가만있겠습니까. 이번 싸움에선 소대장동지 걱정을 끼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요새 저… 명보하구는 의논해봤습니다만…》

광준은 고개를 들고 소대장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에선 다시 생기가 살아났다.

《소대장동지, 저는 그저 나서부터 땅밖에 뚜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땅 팔 궁리밖에 못했습니다. 잠복초밑으루다 3층감시소쪽으로 뚫고나가면 어떨가요?!…》

명보가 불만스러운 눈으로 광준을 보며 보태여 말했다.

《…또 있지 않아요. 거리가 장바 두어기장만밖에 안돼요!》

곽병식은 놀랐다. 이때까지 그의 가슴에서 아리숭한 섬광으로 비치던 생각… 잠복초에 엎디여 3층감시소를 살필 때마다 비범한 착상의 예감으로 가슴을 뒤설레게 하던 그 생각을 이 겸손하고 무던한 전사로부터 들은것이다. 곽병식은 그의 손을 잡아흔들었다.

《광준동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대장동지!》

두사람의 흥분된 부르짖음은 잠자는 전사들을 깨웠다.

고문칠분대장이 일어났고 조칠성이가 열정에 이글거리는 눈을 번득이며 다가앉았다. 신찬일이가 눈을 비비적거리며 촉기빠른 감각으로 병실안의 돌변한 공기를 느끼며 의미심장한 얼굴로 광준이옆에 와 앉았다. …그들은 밤새도록 박광준이와 명보의 착안을 놓고 토론했으며 아침에는 고병근중대장도 그것을 알게 되였다.

5

이튿날아침 중대군관모임에서 당중앙위원회 붉은 편지를 받들고 전사들의 높은 전투결의와 창조적열정을 옳게 동원하여 적의 《신공세》 음모를 짓부실 전투준비를 빈틈없이 갖출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젊은 군관들은 전투적흥분으로 가슴을 설레이며 담배들을 피우면서 열정에 넘치는 심정들을 나누었다. 이때 고병근중대장이 군관들을 돌아보며 만약 《3층감시소》고지를 점령할 전투임무를 준다면 3소대에서는 잠복초밑으로부터 《3층감시소》 쪽으로 비밀갱도를 뚫고나가 단숨에 고지를 점령할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찬이가 소탈하게 웃으며 곽병식을 보고 전사들이 결사전에 일떠선 이때 지하굴을 통해 전진한다면 고지는 언제 점령할것이며 또 그것은 적의 화력을 지나치게 고려하는것이 아닌가고 말했다. 여기에 서동길이 끼여들어 불같은 말로 자기 심정을 내뿜는바람에 동지적이고 허심한 론쟁이 벌어졌다.

인간관계에서나 사업상문제에서 언제나 경향적이여서 그 무엇을 열렬히 지지하고 사랑하고 동정하고 그 무엇을 적극 반대하고 규탄하면서 자기 피를 설설 끓이며 살아가는 서동길은 3소대의 결의를 적극 지지하면서 최호찬의 말에 항변해나섰다.

《3소대의 발기가 왜 좋은가？》 서동길은 이렇게 자문하면서 열변을 토했다. …3층감시소밑으로 비밀갱도를 파고 들어간다면 적들의 배후로부터 한개 중대가 아무런 손실없이 불의에 적의 방어지탱점에 뛰여들어 일대 혼란을 일으켜 적들이 예비대를 출동시킬 짬도 없이 삽시간에 고지를 점령할수 있다, 중요한것은 불의성이다, 불의성은 현대전에서 때로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 서동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최호찬의 생각의 부당성에 대하여 여지없이 론박했다. 하여 론쟁은 끓어번졌다.

서동길은 최호찬을 론박하면서도 역시 불의성이란 론거를 내둘렀다.

만약 우리가 최호찬의 생각대로 지상으로 3층감시소에 육박하자면 사전에 강력한 포병준비사격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만 되면

적들은 벌써 기미를 알아채고 강력한 화력으로 전선을 덮는다, 이것은 벌써 적들에게 모든것을 공개해놓고 하는 싸움이며 막대한 희생을 전제로 하는 이런 전투는 모험이라는것이다.

젊은 군관들은 마치 《3층감시소》를 점령할 전투임무가 부과되여 그 어떤 결심을 내려야 할 절박한 요구라도 제기된듯이 열중하여 토론하였다. 고병근은 젊은 군관들의 투쟁의욕과 패기를 보여주는 이런 론의가 그들의 지휘능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몇마디씩 끼여들며 능청스러운 눈길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돌아봤다. 그도 어느새 그 열기에 휘말려들어 저도모르게 《사회자》의 역을 놀게 되였다.

고병근중대장은 자기가 어느 의견에 쏠리는것 같은 표정을 나타내지 않고 내내 눈에 웃음을 담고 이따금 사마귀가 있는 그 특징적인 눈섭을 올렸다내렸다하며 소대장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있었다. 그는 누구의 말에나 공감하는듯 눈을 크게 뜨기도 하고 혹은 얼굴은 보지 않고 머리만 끄덕였는데 소대장들은 이에 고무를 받아 마음놓고 제 속을 털어놓게 되였다. 고병근은 서둘러 결론을 짓지 않고 서로 자기 의견의 정당한 면을 명백하게 주장하고 상대방의 부당한 면을 날카롭게 론박하게 함으로써 그들스스로가 점차 명백한 인식에 도달하여 옳고 유익한것을 선택하게 하며 자기자신도 정확한 결론을 가지려는 심산이였다. 그는 최근에 와서 강태욱련대장으로부터 이 《듣는 예술》을 배워서 체득한것이 분명했다.

열이 오른 최호찬과 서동길은 중대장의 이 능청스러운 마음을 간파못했으나 몸이 곰처럼 둔하면서도 눈치가 여간 빠르지 않은 황득범중기소대장만은 모든것을 알아차리고 눈을 내리깐채 유순하고 무던한 얼굴로 앉아있었다. 게다가 매사에 신중하며 생각을 거듭 검토해보고야 의사를 발표하는 황득범은 몸을 천천히 일으키고 우선 혁띠고리를 바로잡아놓고 엉뎅이를 가볍게 털고는 헛기침을 두어번 했다. 그리고는 누구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뜨직뜨직하게 말했다.

《몇가지 물어보겠소. 불의성이라, 옳은 말이지. 그런데 비밀굴을 파고 들어가다가 갑자기 굳은 암반이 앞을 막으면 어찌겠는가? 그러면 무작정 시간이 걸리겠는데, 시간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시간도 중요하지요.》 이렇게 말하며 황득범은 답변해달라는듯 곽병식을 보았다.

곽병식은 좀 당황해진듯한 얼굴로 대답했다.

《시간문제 역시 중요하오. 굳은 암반이 나오겠는가? 이 문제는 우리 소대에서 론의가 구구했지만… 제1잠복초로 나가는 갱도를 파던 경

험으로 봐서 지질상 별차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만 할수 있소. 공병들의 방조를 받으면 판정되리라 믿는데…》

황두범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또 한가지 묻지요. 1소대장동무의 생각대로 앞으로 우리가 만약 지상으로 공격해나간다면 공간지대를 빨리 극복하는 문젠데 포화력과 각종 저격무기의 교차사격이 들어오면 일정한 력량의 손실은 예견해야 되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사들을 아껴서 갱도까지 마련해주셨는데… 이래도 일없겠는지… 만약에 지휘관이라도 부상당하면 어떻게 한다…》

최호찬이가 말했다.

《내가 쓰러지면 제1대리인이 있소！》

이렇게 말하는 최호찬의 눈은 이글거렸다. 그는 떠듬거리며 현리포위전과 대구산전투를 상기시켰으며 해안면에서 그자신이 수류탄묶음을 안고 기여나가 적 토목화점을 공중 날려보내던 이야기를 했다.

《언제 우리들한테 손실과 희생의 위험이 앞을 막아서지 않은 일이 있었는가말이요. 우리 보병들이 그래 평탄하고 안전한 대로로 열병행진하듯이 걸어왔소？！ 철조망밑을 기여다니구 쏘구역을 뛰여다니며 찢기구 피터지며 이때까지 싸워왔지. 우리들한테 있는 밑천이란게 뭐요. 용감성이요. 희생이 있을수 있다, 손실이 있을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는가말이요. 전투구분대의 지휘관들이 이런 소리부터 앞세운다면 무슨 결심을 내릴수 있겠소. 요새 갱도에서 살면서 제때에 목욕을 하구 두부를 앗아먹더니 모두 해이됐는지. 허허허！》

최호찬의 용감성에 대하여 믿고있는 군관들은 그의 말에 감동되였으며 아리숭한 가책까지 느꼈다.

고병근중대장은 련대에서도 우리의 투쟁결의를 알아 때가 되면 전투명령을 내릴테니 너무 성급해들 말고 돌아가서 더 연구들 해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관들은 열중한 론쟁의 분위기에서 벗어 못난채 한동안 생각에 잠긴 얼굴로 앉아있었다.

사람좋은 황두범은 담배를 붙여물고 요새 자기네 병실벽에 댄 피복뒤에서 밤새 쥐새끼들이 찍짹거리는데 그것들이 아마 《련애》를 거는 모양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으나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못하자 제혼자 어색하게 웃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최호찬이가 곽병식에게 담배를 권하며 말을 건넸다.
《동무네 소대에서 누가 이런 생각을 처음 했소?》
《박광준동무를 비롯해서 여러 전사들이요.》
《그 취사원말인가?… 하하하… 내 어쩐지 그 생각에 누룽지냄새가 좀 난다 했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오! 나는 그 동무를 잘 알고있소. 그는 광복후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땅을 받고 장가를 들었소. 안해하구 둘이서 성인학교에 다니며 문맹을 퇴치했소. 지난 세월에 남한테서 수모만 당하며 살아오던 그들이 광복후 장군님의 품에서 사람대접을 받으며 살았소. 그들만큼 우리 사회제도의 고마움을 가슴깊이 느끼고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소. 그는 언젠가 나한테 자기는 빚군의 심정이라고 말했소. 그는 늘 잘 싸워 보답하지 못한것을 뉘우치고있소. 이런 전사가 왜 전쟁승리를 위하여 생각해서는 안된단말이요. 명보동무에 대해선 동무도 잘 알게요. 나는 전사들의 이런 마음들이 승리를 마련하는 중요한 밑천이라고 생각하오. 만약 이런 전사들이 전쟁마당에서 주인구실을 못한다면 그건 우리 지휘관들의 사업에서 무슨 결함이 있기때문일게요. 지휘관들이 그들의 마음을 옳게 인도하여 영웅성을 발휘하게끔 지도 못한데 책임이 있을게요. 이런 보통전사들이 우리 대렬을 구성하고있기때문에 우리 군대에서는 대중적영웅주의가 발휘된다고 생각하오! 선발된 영웅이나 지휘관이 제혼자 일을 칠것 같소?! 아니요! 그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되오. 보통전사들말이요! 군대의 생활을 떠메고 나가는 그들말이요! 그 사람들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용모도 별로 뛰여난데 없고 말도 투박스럽고… 어떤 사람은 지난 생활의 인습때문에 이러저러한 약점도 있지만 가슴속에 숨어있는 정신들이 계발되기만 하면 무서운 힘을 낸다고 믿소. 그건 바다와 같은 힘이요!》
…곽병식이가 소대로 돌아왔을 때 부엌아궁앞에서 박광준이 쇠줄로 무엇인가 엮고있었다.
《자지 않소? 그게 뭐인가요?》
《예, 광주리 비슷한걸 하나 조그마하게 엮어보려구요.》
《그건 해서 뭘하오?》
《방송원동무가 어제 내 목달개를 달아주겠다구 하길래 벗어줬더니 바느질감들을 모두 철갑모에 담아가지고있는게 아닙니까. 남자들이야 담배쌈지에다 손칼이나 하나 있으면 제격이지만 녀자들이야 어디

그렇습니까. 필요한게 많지요.》 이렇게 말하던 광준은 비로소 소대장의 흥분된 얼굴을 알아보고 근심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 곽병식은 병실에 들어와 누워서 잠을 청했으나 이 밤 오래도록 자지 못했다.

은근한 가책이 가슴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아까 최호찬소대장이 한마지막 말에 열을 올렸던 자기를 생각하니 얼굴이 뜨거워났다. 자기 성격은 어딘지 모르게 일면적인데가 있고 관용성이 부족한것 같았다.

도량이 크지 못한 자기 인격을 놓고 그는 번민했다. 그때 같이 웃어주고나서도 자기 주장을 얼마든지 설득력있게 말할수 있지 않았던가. 리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감정이 섞인 말을 그라고 받아들이기 헐하겠는가. 최호찬의 경우 그는 자기 주장에 대하여 확신을 가진 나머지 나의 주장에 대하여 소극적이라고 생각할수 있다. 그는 자기의 대담한 가슴으로 승리의 길을 헤쳐온 지휘관이 아닌가! 나에게 그의 의견이 납득 안되는것처럼 그에게도 나의 의견이 접수 안될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무슨 권리로 감정을 휘둘렀는가?!

여기에는 그저 인식적인 차이만 가로놓여있을지도 모른다. 내 말이 아무리 옳다해도 거기에서 감정의 울부짖음을 들었을 때 그는 진실을 듣지 못할것이다. 그만이 관대해야 되고 나는 옳기때문에 감정까지 휘둘러도 좋다는 식의 인간관계를 누구에게 요구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불공평하고 비동지적인것이겠는가. 문득 최호찬의 의견이 옳은것이 아닐가 하는 의혹이 들었다. 그리고 자기가 생사고락을 같이 하여온 박광준이나 명보에 대한 애정에 눈이 흐려 문제의 본질을 투철하게 보지 못하고있지 않는가 하는 위구심까지 들었다.

이 밤 곽병식은 최호찬이 돌파하려는 공간지대를 눈으로 정확히 보고 판단하기 위하여 탐조등빛이 대낮처럼 밝히고있는 고지정점으로 기여올라갔다. 그곳은 쥐새끼 한마리만 얼씬거려도 땅크포와 기관포의 교차화력으로 불바다가 된다는 절대 위험구역이였다. 곽병식은 배밀이로 기여올라가서 포탄구뎅이속에 숨어서 전방을 살펴보았다.

두개의 탐조등빛이 교차된 초점에 놓여있는 공간지대와 적방어전연들을 손금보듯 내려다본 그는 단호하고 명백한 마음을 가지게 되였다. 한시간동안 언땅에 엎드려 감시를 계속하며 최호찬이 하던 말을 거듭거듭 검토해본 그는 고지에서 내려오며 역시 같은 결론을 지을수밖에 없었다.

이 순간 곽병식의 가슴에는 최호찬의 대담하고 결단성 있는 모든 훌륭한 품성들이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곽병식은 그처럼 귀중한 지휘관이 대원들을 거느리고 과오의 길로, 무익한 죽음의 길로 가려고 생각하는것을 수수방관할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안고 교통호쪽으로 뛰여내려왔다. 그는 이 밤으로 그를 찾아가 모든것을 깨우쳐줌으로써 동지적의리에 충실하리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훈훈해지며 가라앉는것 같았다. 포탄에 뿌려난 흙밥이 눈과 뒤범벅이 되여 얼어붙어 미끄러운 산기슭을 따라 뛰여내려오던 그는 대대부로 올라가는 교통호에서 두사람의 그림자가 밀고 닥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다. 서동길소대장과 류정혜의 목소리였다.

곽병식은 그쪽으로 다가갔다. 포탄에 허물어진 교통호옆에서 서동길소대장이 정혜의 손에서 삽을 앗아내고있었다.

《정혜동무, 말하시오! 말하시오! 누가 뭐라고 했소?! 나한테 다 말하시오!》

《소대장동지, 아니, 아니예요!》 서동길은 곽병식을 보자 그에게로 마주와서 손을 내저으며 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3소대장동무, 이 사실을 알고있었소?!》 곽병식은 파올리다 만 참호바닥이며 정혜의 흐려있는듯한 얼굴을 돌아보다가 서동길의 손에서 삽을 받아쥐고는 참호바닥을 툭툭 치며 무거운 숨을 내쉬였다.

《나는 여태 누가 이렇게 매일밤 교통호를 파올리는가 했단말이요! 동무는 더 옳지 않소! 동무야 모든걸로 봐서 어떻게 무관심할수 있소?!》 서동길은 곽병식을 쏘아보며 열을 내뿜었다.

《소대장동지, 이러지 말아주세요. 제가 무슨 소릴 들었겠어요. 제 혼자 괴로와서!…》 정혜는 죄지은 소녀처럼 애원하는 목소리로 그를 달래보려고 했다. 그러나 서동길은 곽병식에 대해서인지 다른 누구들에 대해서인지 모르게 격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옳지 않소! 옳지 않단말이요! 문제를 세워야겠소! 알아봐야겠소!》 그리고 서동길은 갱도쪽으로 걸어갔다.

곽병식은 어둠속에 멀어지는 그의 뒤모습을 한동안 바라보고있었다. 정혜를 위하는 그의 분노가 고마왔으며 그의 인간됨에 존경이 갔다. 곽병식은 머리를 떨구고 서있는 정혜의 흐린 얼굴을 흘깃 돌아보고는 소리없이 한숨을 내쉬고 삽으로 교통호를 파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삽날로 교통호바닥을 말끔히 긁어서 흙덩이들을 힘있게 내뿌렸다. 정혜는 두볼이 화끈 달아오름을 느끼며 교통호바닥 흙을 익숙하게 긁어모으는

삽날이며 걸싸게 움직이는 그의 잔등을 묵묵히 내려다보다가 호— 한숨을 내쉬였다. 이 순간 정혜는 그가 마음이 웅심깊고 힘이 장사인 거인처럼 느껴지고 그앞에 자기는 조그마한 계집애처럼 생각되였다.

이윽고 그들은 교통호를 따라 갱도로 돌아오고있었다. 전선의 밤은 고요했다. 하늘을 쓸던 탐조등불빛은 서로 교차된채로 환히 빛나고있었다. 두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류정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어떤 땐 서동길소대장동지가 막 무서워나요.》

《우리 황득범중기소대장동무가 뭐라구 하는지 아오? 서동길이한테서 정의감만 빼놓으면 혁띠고리밖에 남지 않는다나, 하하하…》

《첨 만났을 땐 그런것 같지 않더니…》

《전쟁의 불길이 사람들 성격을 좋게 베려주고있소.》

그 말에 정혜는 무슨 뉘우침이라도 들었던지 머리를 소곳이 숙이고 말없이 뒤를 따랐다. 곽병식은 그가 왜 밖에 나와서 포격에 허물어진 교통호를 파올렸겠는가 하는 심정이 짐작되였으나 값눅은 위로나 일반적인 고무의 말을 하기 싫어서 그냥 앞에서 걸어갔다. 정혜 또한 괴로운 마음을 하소연하고싶었으나 자기의 약한 면을 다시 보이기 싫었던지 입을 다물었다. 그리하여 둘은 갱도까지 오면서 더 말이 없었다.

6

정혜는 요새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처음 이 고지로 왔을 때 그는 이제 방송만 시작하면 모순에 찬 제국주의군대 내부에서는 파국적인 와해가 일어나며 매일과 같이 아군방어선 전연으로 투항병들이 꼬리를 물고 넘어오고 자기는 밤에 방송을 하고 낮에는 그들에 대한 심문에 참가하는 등 분망한 나날을 보내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동안 밤을 새우며 방송했으나 그의 진리의 목소리에 대하여 적군은 포병대의 《보복》사격으로 대답했다. 교통호와 참호들이 매일밤 허물어지고 전화선들이 끊어지고 개별적화점의 화구들이 무너져내려앉았다. 투항병은 고사하고 적군내부에서는 털끝만한 동요나

분규도 일어나는것 같지 않았다. 정혜는 때로는 산기슭 교통호에 나가 서서 절망에 흐려진 얼굴로 어둠속에 누워있는 적진의 컴컴한 릉선들을 바라보며 별의별 생각을 다하게 되였다. 저 적들의 방어선엔 진리와 량심의 호소에 귀기울이는자들이 한명도 엎디여있지 않단말인가. 저기에는 리성이 타락되여 동물의 본능만 남은자들이 인간증오의 거품을 물고 엎디여있는가. 마침내 정혜에게는 그런 짐승들과 인간의 언어로 말하는것이 헛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어둠속에 누워있는 적방어선의 컴컴한 릉선들이 죽은 리성과 량심들이 굳어져서 쌓이고쌓인 거창한 무덤처럼 끔찍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무리지어 자고있는 파충류들의 번들거리는 잔등처럼 혐오스럽게 보이기도 했다. 하여 정혜는 그들과는 언어로써가 아니라 오직 총탄으로만 《말》해야 하며 소멸해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

정혜는 총을 잡고 전투에 참가하고싶은 충동을 매일과 같이 느꼈다. 물론 그는 이런 생각때문에 괴로운것은 전혀 아니였다. 포격이 끝난뒤 전사들이 힘들여 파올린 참호와 교통호들이 허물어져내리고 전화선들이 뭉턱뭉턱 끊어져버린것을 볼 때면 몸둘바를 몰라했다. 밤중이고 새벽이고 허물어져내린것들을 보수하러 나가는 전사들이나 선검열 나가는 통신병들은 단 한마디의 불평의 말도 안했다. 그들의 이런 침묵은 그의 가슴을 갑절로 괴롭혔다. 사업에서 의욕과 신심을 잃게 된 정혜는 자연 가슴이 위축되여 지휘관들과 전사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였다.

밤마다 방송기용 수동식 발전기를 돌리러 오는 전사들도 그가 하는 방송의 내용이며 실효에 대하여 별로 묻지 않았다. 정혜에게는 그것이 자기 사업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성을 말해주는것처럼 생각되며 손맥이 풀렸다.

마침내 정혜는 그들앞에서 죄를 짓는것 같은 가책감까지 느끼게 되여 매일밤 밖에 나와 포격에 교통호가 허물어진데를 찾아서 몰래 파올림으로써 이런 가책을 덜려고 했던것이다.

이튿날 무슨 볼일이 있어 중대부로 가던 정혜는 안에서 울려나오는 김문규정치부중대장의 큰 목소리에 놀라서 걸음을 멈추었다.

《다 우리 군관들의 책임이요! 그 동무가 여기 와서 얼마나 중요한 사업을 하고있소!》

정혜는 안에서 자기에 대한 론의가 진행된다는것을 알자 돌아서려고

했으나 무엇인가 알수 없는것이 가슴을 틀어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동발에 기대여 머리를 소곳이 숙이고 화끈거리는 얼굴로 서있었다.

《포사격에 참호나 교통호가 좀 허물어지면 어쨌단말이요! 크게들 생각해야지! 우리 혁명군대가 총으로만 싸우는가?! 적들을 향해 사상전도 벌려야지! 1소대장동무, 알아봤소?》

탁자가 삐거덕거리더니 최호찬소대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알아봤는데 우리 소대엔 그런 불평의 말을 한 동무가 없습니다!》

《중기소대…》

《예… 우리도 없습니다…》

《없다면 좋소. 그러나 깊이들 생각해봅시다. 어느 개별적인 한 병사가 우리의 방송에 대한 대답으로 적들이 포사격을 해대서 참호와 교통호가 무너진다는 말을 할 때에는 깊이 생각 못하고 말했을수도 있소. 그러나 그 말을 정혜동무가 들었다면 마음이 어떠했겠는가를 생각해보오.》

문규는 잠간 말을 끊었다가 다시 잇는다.

《비록 개별적인 한 전사의 즉흥적인 말이였다 하더라도 우리 지휘관들은 깊이 생각해야 하오.

또 우리 지휘관들부터가 정혜동무의 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잘 리해하고 그를 잘 도와주었는가? 물론 잘 도와준 동무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동무들도 일부 있었을것이요.

정혜동무는 녀성으로서 보병중대에 와서 지내자니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운 점들이 많겠소. 그런데 우리들이 지휘관으로서 그를 보살펴줬는가. 중기소대장동무, 좀 말해보오.》

《잘 보살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대원들이 방송실에 불필요하게 접근 못하도록 통제만 했습니다.》

《동무야 거기를 인발지뢰나 묻혀있는곳처럼 겁나했지. …》 하고 서동길소대장의 목소리가 끼여들었다. 누구인가 키득거렸다. 주먹으로 책상을 탕 치는 소리와 함께 고병근중대장의 엄한 목소리가 울렸다.

《이게 웃을 일이요?!》

방안은 쥐죽은듯 고요해지고 김문규정치부중대장의 웅글은 목소리가 계속 울렸다.

《옳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혜동무의 목소리가 울려갈 때마다 적들이 포격과 폭격으로 광분한다는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방송이 적들을 전률

케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한다는 구체적증거요. 다시 말하면 정혜동무의 목소리를 적들이 무시하지 못하며 그 목소리를 매우 두려워한다는 증거란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살펴주고 고무해주지 않아서야 되겠소？！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한다면 사람이란 녀성에 대한 태도에서 진면모가 드러날 때가 많소. 성실한 사람인가, 의리깊은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 우리 지휘관들이 대원들에게 교양을 잘해야겠소. 녀성을 존중하고 도와줄줄 아는 좋은 품성을 키워줘야겠소. 저 동무는 여기 와서 식당일도 거들어주고 상처에다 약도 발라주고 우리를 많이 도왔소. 그런데 우리는 뭘로 도와줬느냐말이요. 우리 보병중대에 녀동무가 와있다는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일이요！》

탁자가 씨룩거리더니 큰 한숨소리와 함께 고병근중대장의 침통한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왜 안조기오？ 내부터가 틀려먹었더랬소. 나는 첫날부터 부담으로만 생각했단말이요. 오는게 반갑기는 하면서두 걱정이 앞섰단말이요.… 나는 홀아비품에서 자라서 정말 녀자문세는 모르오. 남들처럼 누이들도 없었소. 여섯살까지 아버지가 지어주는 밥을 먹고 일곱살부터는 내가 아버지 밥을 지었소. 련대에 회의 올라가서두 다른 중대장들이 고병근이가 요새 환해졌다고 놀려주면 면구해서 얼굴을 붉혔단말이요. 락후했소. 이게 무슨 사상이요！ 우리모두 큰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자리에서 툭툭 털어버리구 도와주잔말이요！ 전사들에게도 그를 돕고 고무하도록 교양을 잘 줘야겠소！》

정혜는 자기 일이 가지는 의의와 자기에 대한 지휘관들의 관심을 느끼며 가슴속에서 행복감인지 설음인지 모를 뜨거운것이 북받쳐올라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다. 그는 누가 볼가봐 얼른 눈물을 훔치고는 방송실로 돌아왔다. 정혜는 심중에서 진정으로 울려나오는 이런 애정과 지지를 난생처음 받아보는것 같았다.

그리고 그 사랑과 지지의 힘에 의거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을것만 같은 신심이 생겼다.

방송실에 돌아와 잠시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힌 정혜는 새로운 기분으로 자기를 돕기 위하여 온 특무상사와 함께 갱도를 따라가며 늘여놓은 마이크줄도 검열해보고 밖에 나가 라지오수신기의 안테나줄도 살펴보았다. 이때 그는 대대부에서 내려오는 교통호를 따라 강태욱련대장이 대대장과 몇명의 군관들을 거느리고 걸어오는것을 보았다.

정혜는 련대장뒤에서 따라오는 그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군관이 련대공병장이란것을 알아보았다. 정혜는 그들이 무엇때문에 이렇게 오는가를 벌써 짐작하며 커다란 변혁의 선풍을 가슴가득 안았다.

그는 교통호로 뛰여내려와 마주오는 련대장에게 경례를 붙였다.

《어, 정혜동무요. 모두 잘 있소?!》

《네, 중대장동지랑 모두 잘 계셔요!》

련대장은 웃으면서 갱도속으로 들어갔다. …

제 9 장

충 성 의 한 마 음

1

강태욱련대장은 자기의 방어선에서도 적들의 운명을 서산락일의 비운으로 만들며 우리의 종국적승리에로의 전국의 위대한 전환을 조성하라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가르치심을 집행할 결정적인 순간이 닥쳐왔음을 자각하고있었다.

그의 결심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지향되고있었다.

첫째는 자기의 예비대를 아낌없이 전선에 투입하여 갱도를 강유력한 무력으로 증강하는것이였고 둘째는 결정적인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돌파구를 뚫을 마련을 하는것이였다.

강태욱련대장은 이미 3층감시소 밑으로 비밀갱도를 뚫을 결심으로 참모인원들과 함께 그 설계를 작성했었다. 그는 당중앙위원회 붉은 편지를 받들고 구분대들에서 올라온 전투결의들을 검토하다가 3중대의 착안이 자기의 결심과 거의 일치하는데 놀랐다.

강태욱은 고병근을 불렀다. 련대장의 갑작스러운 부름에 다소 어리둥절해졌던 고병근은 용건을 알자 마음을 눅잦히며 그 전투결의를 올려보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3소대전사들인 박광준이와 리명보의 발기,그에 대한 곽병식소대장의 깊은 관심,중대군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벌어졌던 동지적이고 허심한 론쟁들… 강태욱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휘관이 거듭되는 승리와 공로에 자만함이 없이 언제나 군중들속에서 겸손하고 허심하게 지내면서 전사들의 심정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할줄 안다면 그는 나날이 총명해지고 전투마다에서 희생과 손실을 최소한 적게 내면서 승리를 거둘것이다. 하나 만약 몇번의 승리에 자만하여 자기를 내세우며 자신의 결심과 의지면 못

해낼 일이 없다고 자부한다면 그는 벌써 암둔해지기 시작하며 전투와 생활에서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표현력이 부족하여 어색한 손세를 보태가면서 이야기하는 고병근을 바라보는 강태욱의 얼굴에는 대견한 미소가 떠올랐다.

고병근중대장이 돌아간 다음에도 강태욱은 거듭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참, 경탄할 일이군! 그 동무들이 어떻게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됐을가?!…)

강태욱은 담배를 피우며 방안을 뚜벅뚜벅 거닐었다. 마침내 그는 이것이 우연한 일치가 아니며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당중앙위원회의 붉은 편지를 받들고 일떠선 우리모두의 충성의 마음들이 하나의 지향으로 줄달음쳐온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가슴이 벅차 올랐다.

그는 련대공병들로만 비밀갱도 공사를 진행하려던 최초의 계획을 바꾸어 공병의 지원밑에 3중대로 공사를 밀고나가야 빠른 시일안에 완성할수 있다는 결론을 지었다.

강태욱련대장은 대대장과 공병장을 비롯한 참모인원들과 함께 3중대에서 하루밤 묵으면서 비밀갱도 공사계획에 전사들의 창발적의사를 널리 반영하도록 하였다. 전사들의 발기에는 공병기술적 가능성들과 넓은 전술적고려가 부족한 점들이 많았으나 놀라운 창조적지혜와 기발한 착상들이 번뜩이고있었다.

강태욱은 참모인원들과 함께 전방감시소들에 나가 몇시간씩 적정을 료해하고 전사들과 담화한 다음 중대장, 정치부중대장과 마주앉아 오래동안 신중하게 토의하고 군관모임을 열었다.

모임에서 련대장은 이런 말을 했다.

《최호찬동무의 결의는 군인의 용감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귀중한것이요.

승리를 위한 어떤 희생도 두려워않는 이런 과단성있는 품성은 중대에서 앞으로도 존중시되여야 하겠소. 우리가 비밀갱도를 통하여 공격하자는것은 전적으로 불의성때문이요. 지난 1년반동안 적군은 자기 방어선을 포병을 비롯한 온갖 증강기재들과 공병장애물들로 강화할대로 강화해놓았소. 자리가 없어서 대포를 더 배치하지 못하며 지뢰를 더 묻지 못할 형편이요. 이리하여 적아간의 방어선에서는 순수 군사장비상으로 볼 때는 하나의 힘의 균형 비슷한것이 형성되였소. 이런 조건에서는 불의타격만이 적군의 참모지휘체계와 화력망들에 일대 혼란을 조성하고 승리를 위한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을수 있소.

아군이 비밀갱도를 통해 포병준비사격도 없이 불의에 적 방어지점뒤에 뛰여든다면 적군의 모든 방어체계는 일대 혼란을 일으킬것이요. 왜냐 하면 놈들의 영구화점들은 뒤를 쏘게끔 화구를 내지 않았으며 포병들은 중간지대와 아군 방어전연과 후방에 대해서만 사격제원을 구해놓고 또 그렇게 배치되여있기때문이요. 우리는 적들이 이렇게 혼란된 틈에 선견소대들이 달려나가 하나의 돌파구를 형성하고 그 성과를 확대하여 전 련대가 총공격에로 넘어갈 계획이요!》

군관들은 일어나서 차렷자세를 취하고 련대장의 명령을 접수했다.

강태욱련대장의 명령은 짤막하고 예리했다.

비밀갱도공사는 련대공병의 지원하에 12일동안에 완성할것,적군들이 어떠한 기미도 눈치차리지 못하게 절대비밀을 지킬것,그러기 위하여 전화나 무선에서 이 공사와 관련된 문제는 일체 언급하지 말것,공사진행보고는 고병근중대장이 직접 서면으로 련락병을 통하여 할것,다른 구분대 성원들도 알 필요가 없으므로 이 공사를 《식당작업》이라고 명명할것,버럭은 여기저기에 펴놓고 새벽 적 정찰기가 뜨기전에 눈으로 덮어버릴것.

군관모임이 끝난다음 강태욱련대장은 3소대 병실에 가서 전사들과 담화했다.

강태욱은 이 발기가 평범한 모범로동자의 아들이며 련락병이였던 리명보와 과거에는 이름 없는 농민이였으며 취사원이였던 박광준을 비롯한 여러 전사들에 의하여 제기된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제국주의군대는 전쟁의 주인이 백만장자들과 몇놈 안되는 장군들이고 수백만의 사병들은 이 전쟁에 아무런 리해관계도 없을뿐더러 그저 탄알받이노예로 전쟁마당으로 끌려다니고있을뿐이요.

아무리 침략전쟁에 이골이 난 장군놈들의 두뇌라 해도 최고사령관동지의 탁월한 사상에 의하여 움직이는 수백만 우리 전사들의 대중적영웅주의와 창조적지혜앞에서야 어림이나 있소. … 안되지!》

강태욱련대장은 크게 웃고나서 말을 이었다.

《동무들이 지난해 가을 갱도를 꾸리던 일들을 생각해보라구. 나무를 메나르고 온돌을 놓고 절구,듶대야랑 만들어서 갱도안에 살림을 꾸렸는데… 이 모든게 한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써야 이루어질수 있겠소. 그때 경험을 살려서 대중적영웅주의와 대중적인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소! 나는 동무들을 믿겠소!》

비밀갱도작업은 첫날과 이튿날에 벌써 4메터 이상씩의 굴진속도를 올렸다.

갱도속에서 키운 전사들의 힘과 열정은 하나의 지향을 향해 열풍처럼 휘몰아쳤다. 그 열풍속에 1소대도 휘말려들어 다른 소대에 뒤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식사후 최호찬은 갱도어구에 나가 함박눈이 푸실푸실 내리는 뿌연 하늘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서있었다. 얼굴에 날아와 앉는 상쾌한 눈송이, 푸근한 날씨, 식당굴뚝에서 피여나와 땅우로 기여가는 연기에서 풍기는 생활의 구수한 냄새… 여느때 같으면 이 모든것이 하나로 어울려 지난날의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들을 수많이 불러일으켰으련만 최호찬의 가슴은 무거워났다.

그는 이때까지 적들의 어떤 화력앞에서나 돌격앞에서도 꺾인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이 순간 그는 어딘지 모르게 자기가 꺾인것 같으면서 마음이 괴롭고 허전했다. 지난해 가을 주먹릉선에서 3소대와 교대하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 곽병식이 허물어진 참호를 파올리고 탄약들을 새롭게 닦아서 자기에게 인계해주던 일이 생각났다. 그가 돋보였다. 전투경험도 어리고 공훈도 적고 체구도 작지만 그를 나보다 크게 보이게 하는것이 무엇일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함박눈만 하염없이 쏟아붓는 저 뿌연 하늘처럼 가슴이 흐려서 명백한 결론을 끄집어낼수 없었다. 누군가 뒤에 와서 그의 팔을 잡아 나꾸챘다.

《아니 여기서 뭘 하오?!》

서동길소대장의 기쁨에 넘친 얼굴이다.

《평양상공에서 아군 제비들이 적기들과 공중전을 했소. 대승리를 거두었소! 중화, 신막쪽으로도 한바퀴 돌았다누만!》

최호찬은 서동길의 흥분을 그대로 받아안고 전사들의 만세소리가 터지고있는 갱도안으로 달려들어가며 전쟁도 마감고비에 들어선듯 한데 분발해야 되겠다고 속다짐했다.

2

그날밤, 련대후방부 골짜기에서는 사단 포병들과 고지에서 포운반에 동원되여 내려온 보병전사들과의 떠들썩한 상봉이 벌어졌다. 3중대

에서도 고문칠분대장의 인솔하에 30명의 전사들이 왔었다. 그들은 분해해놓은 직사포의 포신, 포가, 포바퀴, 방순들 옆에 앉아 담소했다.

키가 작달막하고 약삭바르게 생긴 포병분대장이 포운반을 협조하러 온 보병전사들에게 담배를 권하며 오늘 밤 욕을 보겠는데 목도를 해본 동무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런 때면 나서기 좋아하는 찬일이가 목도뿐이겠는가 보병에서 2,3년 굴렀는데 무슨 일인들 못해 봤겠는가고 말했다. 이때 명보가 조칠성의 옆구리를 꾹꾹 찌르는것을 누구도 눈치 못챘다. 조칠성은 돌아앉더니 눈을 내리감고 손으로 직사포의 긴 포신을 쓰다듬으며 살뜰한 정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넉두리를 했다.

《체격이 미끈도 하구나! 얼마나 멋쟁이야! 에이참 대황령전투땐 무슨 노여움이 들었댔나. 한방도 쏴주질 않았지. 우리 보병들이 쓰러지면서두 님자를 얼마나 목메게 불렀다구.

어디갔다 인제야 오노, 이 미끈한 장사야!》

그는 마치 의리를 저버린 친구에게 노여움을 터뜨리는 사람 같았다.

포병전사들이 생각에 잠겨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있었다. 잠자코 있던 포병분대장이 자책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말 못하는것하구 나무람 말라구. 그땐 후방에 들어가 길닦이를 했다네. 산악전에서 직사포는 쓸모없는줄 알 때지. 다 지난 일이야.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박격포를 중히 여기시자 그 친구들이 어깨가 으쓱했지만 우리 직사포도 고지에 올리라고 가르치셨거던. …

옛날 일이야 자꾸 거들게 있나. 이제 꽝꽝 쏴줄테니 노여움일랑 풀자구. …》

그러자 조칠성은 그 말이 마음에 들어 무릎을 철썩 치며 활기띤 얼굴로 포병들을 돌아봤다.

《갱도속에다 방석우에 모셔줄테니 면바로 쏘아만 달라구. 우리 중대는 련대 료리시합에서두 노력상을 탔는데 갱도속엔 없는게 없소. 그저 포소리만 내줘두 우리는 힘이 부쩍부쩍 난단말이요. 우리 보병들한텐 대포는 열병행진때 북소리와 같단말이요. 소리만 들어두 힘이 나거던. 포병은 보병의 고수라 이런 말도 있지 않는가. 하하하.》

눈이 내렸다. 바람이 일면서 눈발이 엇비스듬히 날렸다. 그들은 험한 산골짜기와 가파로운 산비탈 길을 톺아 포를 고지에로 끌어올려야 했다.

고문칠네 분대는 포가를 맡았다. 포가에 감긴 바줄에 목도채 4개를 꿰고 그것을 어깨에 떠메고 《영차!》소리에 맞춰 한걸음한걸음을 옮겼다.

바람에 날리는 눈송이들은 그들의 화끈 단 얼굴을 때리며 눈앞을 뿌

옇게 가리웠다. 그러나 전사들은 《포를 모셔간다》는 기쁨때문에 한동안 힘든줄 몰랐다.
누군가 말했다.
《하, 이거 하늘이 꽃보라를 뿌리는구만!》
신찬일은 맨 꽁무니에서 조칠성이와 짝이 되여 목도채를 멨다. 걸음걸음을 옮길 때마다 포가의 무게때문에 목도채는 칼날처럼 어깨에 배겼고 사등뼈가 댕강 부러져나갈것처럼 휘청거렸다.
《영차!… 영차!…》 앞에서 고문칠분대장이 소리질렀다. 대원들은 갖가지 목소리의 화음으로 분대장의 《영차》소리에 호응했다. 명보의 쨍쨍한 목소리, 조칠성의 담찬 목소리들은 한데 엉켜서 포가의 무게에 항거하며 울렸다.
《영차!》
《여잉차!》
《여잉차!》
억대우같은 조칠성은 땀에 젖어 짓누르는 포가의 무게와 싸우는 그 속에서도 가만 있지 않고 찬일의 울상이 된 얼굴을 흘끔흘끔 돌아보며 고양이 우는 소리를 냈다.
《아이고! 죽겠구나! 아이고! 죽겠구나!》 그가 이렇게 익살을 부리며 목도채를 부쩍부쩍 어깨로 떠받들며 용을 쓸수록 신찬일은 짓누르는 목도채에 눌려 허리가 꼬부라들었다.
《영차!》
《여잉차!》
《여엉차!》
신찬일은 그 익살에 지지 않으려고 이를 사려물고 죽을 힘을 다해 어깨로 목도채를 떠받들었다. 찬일의 목소리는 다른 목소리들우에 높이 치솟아올랐다.
《여잉차!…여잉차!…여잉차!》
그를 고무해주듯 고문칠분대장의 목소리가 앞에서 우렁차게 울렸다.
《영차! 영차!》
신찬일은 그 목소리에 맞춰 힘차게 소리쳤다.
《영차! 영차!》
이번엔 조칠성이 제편에서 지는척하고 어깨를 낮추며 우는 소리를 냈다.
《여잉차!…여잉차!…여잉차!…》
명보가 앞쪽에서 코소리를 내며 그의 익살에 응수했다.

《야앙 차！…야앙차！…요잉차！…》

고문칠이가 장난질을 말라는 엄한 구령인듯 위혁적으로 부르짖었다.

《영차！ 영차！ 영차！》

그러자 대원들의 목소리는 그의 목소리에 맞춰 같은 장단으로 울렸다.

《영차！》

《영차！》

《영차！》

포가는 씽씽 앞으로 전진했다.

《좋—다！》

《좋—지！》

《좋—다！》

《좋—지！》

퍼붓는 눈에 눈앞은 안개에 가리운듯했고 얼굴들로는 눈석임물과 땀물이 범벅이 되여 흘러내렸다. 솜동복은 속까지 함뿍 젖고 내의는 화끈 달아오른 몸에 착 달라붙었다.

1035고지로 오르는 골짜기 막치기에서 한숨 쉰 다음 그들은 목도채를 버리고 어깨에 포가를 올려놓고 급한 경사지로 톺아올랐다. 쌀한 배낭을 메고도 나무그루터기를 붙잡으며 오르는 이 고지로 포가를 메고 오르기란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니였다.

《어기영！》

《치기영！》

앞에서 끌며 뒤에서 밀며 한걸음 또 한걸음 고지로 기여올랐다.

그들은 한덩어리가 되여 힘을 줄 때마다 화끈한 기운을 뿜으며 밀고 당기며 한걸음한걸음 톺아올랐다. 퍼붓는 눈속에서 어느사이 포가와 사람은 하나의 허연 눈덩어리가 되여 용을 쓰며 움직이고있었다. 때로는 지쳐서 숨을 돌리는듯 잠시 멈춰섰다가 다시 열을 뿜으며 움쭉움쭉 올라갔다. 포탄이 근처에 와 떨어져도 그 열정의 덩어리는 허물어지지 않았다.

《어기영！》

《치기영！》

사갈을 신었으나 발이 자꾸 미끄러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게다가 물에 잠궜다낸것처럼 푹 젖은 바지가랭이가 다리에 척 달라붙어 움직이기 더 말째였다. 퍼붓는 눈은 바람에 엇비스듬히 날리며 그들의 얼굴을 갈겼다. 그들은 눈석임물에 가리워지는 눈앞을 손등

으로 자꾸 문지르며 입속으로 흘러드는 찝찔한 땀물을 푸푸 내뿜었다.
　눈먼 적 포탄들이 터졌다. 윙—휙—후루룩—파편들이 날아다녔다. 그들은 말없는 가운데 힘의 균형이 파괴되면 포가가 내리굴수 있기때문에 누구나 포탄이 바로 옆에 와 터져도 엎드려서는 안된다는것을 자각하고있었다.
　어기영 치기영 소리는 어느덧 잦아들어가고 단숨결소리만 높았다.
　고문칠은 짓누르는 무게에 지탱하여 다리를 떡떡 버틸 때마다 무르팍이 부르르 떨렸다. 그는 맥이 진한 나머지 저도모르게 주저앉을가봐 겁이 났다.
　어깨를 내리누르는 포가를 통하여 맥박처럼 전해오던 전사들의 억센 어깨힘도 진해버린지 이미 오래고 전률 같은것이 느껴졌다.
　그는 눈으로 흘러드는 눈석임물을 손등으로 씻더니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한철흠분대장동지 복수를 위하여! 영차!》
　누군가 그의 목소리를 받아 격정에 넘쳐 웨친다.
　《복수를 위하여! 영—차—》
　《영차!》
　《영차!》
　영차소리는 다시 살아났으나 명보는 호응 못했다.
　명보는 가슴에서 설음같은것이 터지며 눈굽이 뜨거워났다.
　옛 분대장에 대한 그리움때문인지,이 어려운 시각에 그의 이름을 불러준 신임분대장에 대한 고마움때문인지 명보의 볼로는 뜨겁고 짠것이 자꾸 흘러내려 입술을 적신다. 그에게는 분대장이 전에없이 친근하게 느껴진다. 무슨 아리숭한 가책이 가슴을 찌른다.
　《영차!》
　《영차!》
　명보는 여물지 못한 어깨로 포가를 떠받들며 단숨결을 내뿜으면서 소리쳤다.
　《영차!…영차!》
　갑자기 가슴을 파고드는 자지러지는듯한 비명과 함께 적 포탄이 그들의 머리우로 날아드는것 같았다.
　그러나 포탄들은 멀리 뒤쪽에 날아가 웅글은 소리를 내며 터졌다. 포사격이 넘어오기 시작하자 신찬일은 조급증이 나서 발을 재게 놀리려들었다. 그러나 전체의 균형에 의하여 발을 재게도 뜨게도 놀릴수

없었다. 목구멍에서 단 쇠비린내가 확확 풍겨올랐다.
찬일은 손바닥으로 얼굴의 땀을 훔치며 고지를 올려다봤다. 어둠속에서 퍼붓는 눈발은 뿌연 안개의 소용돌이처럼 눈앞을 가리였다. 그 안개를 뚫고 하늘끝까지 닿은듯한 고지의 거밋거밋한 륜곽이 내리누르듯 숨막히게 쳐다보였다. 그는 눈을 크게 뜨며 (아, 언제 저기까지!)하고 속으로 부르짖었다. 순간 자기를 지탱해주고있던 그 무엇이 꺾어지는듯한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눈앞에서 불꽃들이 튀고 우악스러운 힘이 자기를 마구 휘두르는듯했다. 그바람에 찬일은 발을 헛딛다가 한쪽무릎을 꿇고말았다. 이것은 찰나적인 순간이였다. 포가를 떠받들었던 힘의 균형이 허물어져 한옆으로 왈칵 쏠리며 넘어졌다.
명보는 필사적으로 끌어올린 포가를 굴러내리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강렬한 충동과 함께 포가에 감았던 바줄을 꽉 틀어잡았다. 그러나 육중한 포가는 자기에게 매달려있는 두사람, 고문칠분대장과 명보를 끌고 사정없이 미끄러져내려갔다. 바람을 탄 포가가 눈발을 날리며 미끄러져내려 두사람은 나무토막처럼 튀여오르기도 하고 딩굴면서 끌려갔다.
전사들은 그뒤를 쫓아 달려내려가며 소리 소리 질렀다.
《바줄을 놓아요!》
《바줄을 놓으라구!》
포가가 눈속에 묻힌 바위에 부딪쳐 멎는바람에 두사람은 골짜기밑 눈구뎅이에 뿌리워 나가떨어졌다.
전사들은 달려내려와 그들을 안아일으켰다.
분대장과 명보는 온몸이 눈에 범벅이 되여 그 모습을 알아볼수 없었다.
전사들은 모여들어 눈을 털어주며 한마디씩 했다.
《분대장동지, 다치지 않았나요?!》
《명보, 일없어?!》
명보는 팔다리를 놀려보며 머리를 끄덕이고는 자기 앞에 서있는 박광준을 쳐다보며 물었다.
《포가가 상하지 않았을가요?》
박광준은 그가 기특한 아들이기라도 한듯 눈속에서 찾아온 모자를 단정하게 씌워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게야 무쇠덩인데 상했을라구. … 에참, 모두 눈때문에 무사했군!》
고문칠은 박광준의 뒤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서있는 찬일에게로 가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 다치지나 않았소? 내가 미처 몰랐소. 어려워말구 올라가라구.》

찬일은 정신이 흐리멍텅하여 얼이 나간 사람처럼 하염없이 퍼붓는 눈발속에 서있었다. 돌아서 포가곁으로 가는 분대장의 뒤모습이 보였다. 다른 전사들도 우르르 밀려가서 포가를 멜 차비를 했다.

분대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광준동무!》

《옛!》

《찬일동무 자리를 메오.》

그 목소리는 찬일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참을수 없는 수치감이 몸을 불사르고 가슴에서 결기같은것이 욱 치밀어올랐다. 찬일은 눈에 미끄러지면서 달려내려가 자기자리에 선 박광준을 밀쳐버리고 분대장을 보며 부르짖었다.

《분대장동무! 메겠습니다! 메겠습니다! 제힘으로 메올리겠습니다. 뼈가 부서져도 좋습니다.》

《어기영 치기영!》

《어기영 치기영!》

바람에 엇비스듬히 날리는 눈발속을 헤치며 전사들의 어깨에 떠받들린 포가는 가파로운 산비탈을 톺아 한걸음한걸음 올라갔다.

찬일은 이를 사려물고 죽을 힘을 다내여 어깨로 목도채를 떠받들면서 다리에 힘을 주어 땅을 버티였다.

《영차!》

《영차!》

찬일의 어깨에는 친근한 전우들의 억센 어깨힘과 억척같은 의지가 흘러들었다. 그는 자기몸이 포가를 통하여 흘러드는 그 힘과 융합되여 하나의 박자에 맞춰 률동적으로 움직임을 느꼈다. 그러자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배심이 생기는것이였다.

여기저기에 와 눈먼 포탄들이 터졌다.

(개놈새끼, 이마로 날아들테면 들어라. 받아넘길테다!)

《영차!》

《영차!》

이밤 포가는 피줄과 같은 뉴대로 가슴과 가슴들을 이어주었다.

포가를 갱도까지 끌어올린다음 신찬일은 갱도밖에 나와 앉아있었다. 어느새 눈이 그쳤다.

화끈 달았던 몸을 식혀주는 시원한 기운과 함께 커다란 만족감이 가슴 뿌듯이 스며들었다. 그는 땀을 들이며 무심결에 포를 끌어올린 산비탈과 저아래 골짜기쪽을 바라보느라니 새삼스럽게 놀라운 생각이 들었다.

(아니, 우리가 이런 높은데로 포를 끌어올렸다니?! 사람힘이란 무서운게지. 그리구 찬일이, 님자는 어떤가!)

문득 그는 아까 있은 일들을 생각하자 가슴 짜릿한 뉘우침과 함께 소대라는 이 가정에서 자기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슴벅차게 느꼈다. 그는 이마에서 땀을 훔치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세상이 더 넓어진것 같고 자기몸도 우람하게 자란듯한 감을 느꼈다.

《찬일동무, 뭘하오?》

소대장이 다가왔다. 찬일은 목도채를 쥔채 엉거주춤 일어났다. 곽병식은 자기를 쳐다보는 전사의 눈에서 행복에 겨운 사람에게서만 볼수 있는 눈물 같은것을 보자 그의 팔을 덥석 잡았다.

《찬일동무, 참 수고했소. 맥이 쭉 빠졌지요?》

《소대장동지, 한바탕 누구하고 씨름이라도 하고싶습니다.》

3

고지에 끌어올린 직사포들은 즉시에 조립되여 갱도속의 포진지들에 배치되였다. 인심이 후한 보병중대전사들은 포병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이 갱도에 정을 붙이게 하기 위하여 분주히 뛰여다녔다. 식당에서는 칼도마장단이 울리고 특무장은 창고문을 열어제끼고 언돼지 반토막을 출고했으며 취사원은 귀한 손님이 오면 대접하려고 담가두었던 깍두기김치까지 푼푼히 퍼내왔다. 전사들은 포병들이 든 병실에 불을 더 지피였다.

갱도속은 명절기분으로 흥성거렸다.

고병근중대장은 군관들을 데리고 새로운 직사포로 증강된 포진지들을 돌아봤다. 그들은 좌지를 차지한 직사포의 믿음직한 위용을 보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고병근은 밋밋한 포신이며 듬직한 방순을 쓰다듬어봤고 서동길은 포가와 포바퀴를 주먹으로 두드렸다. 얼굴에 노상 미소를 띠우고있는 황두범은 서동길을 건드리며 너무 그렇게

손을 대지 말라고 눈짓했다.

포병지휘관은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빙그레 미소를 짓다가 만져봐도 일없다는듯 방향조절기를 돌려 포신까지 움직여보였다.

《멋있구만. 이젠 저놈들 방어전연의 화점이나 땅크좌지도 직접 조준사격으로 날려보낼수 있겠구만!》 하고 서동길이가 환성을 올렸다.

최호찬이 손바닥으로 방순을 또닥또닥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 중대가 이렇게 듬직한 어른을 모셔보기는 처음이네.》

그러자 서동길은 익살스런 눈길로 황득범을 쳐다보며 한마디 했다.

《중기소대장, 이전에는 동무네가 중대에서 제일 중무기라고 존대를 받았지만 이젠 세월이 달라졌어.》

사람좋은 황득범은 그 말이 마음에 들어 몸을 뒤로 젖히며 입을 크게 벌리면서 웃어댔다.

《하하하…》

그러나 이때 고병근중대장은 웬일인지 눈시울이 자꾸 뜨거워나 머리를 숙이고 포바퀴만 쓸어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포병의 지원없이 전사들을 전투에로 이끌던 지난날들이 생각났다. 그는 피눈물을 뿌리며 교조주의자들의 죄행을 단죄하였다. 군대의 책임적인 자리에 기여들었던 교조주의자들은 산악전에서는 포가 필요없다고 하면서 후방깊이 끌어갔다. 포병의 뒤받침이 없이 전투를 지휘하자니 주먹으로 땅을 치게 되는 일은 얼마였으며 가슴아픈 손실은 얼마나 당할번했던가. 그러나 오늘은 산악이 많은 조선의 지형조건에 맞게 포병을 리용할데 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주체적인 군사사상이 현실로 되여 이렇듯 믿음직한 각종포들이 배치되여오지 않았는가. 더우기 세계 어느 나라 전쟁력사에 평야지대에서만 위력을 나타낸다고 생각한 직사포를 구름우에 높이 솟은 산악들에 올려놓고 직접 조준사격으로 적을 소멸하게 한 례가 있었던가. 이것은 최고사령관동지의 주체적군사사상이 포병분야에 구현된 또 하나의 빛나는 결실이다. 이 독창적포병리용방법에는 전쟁마당에서 적과 직접 맞붙어싸우며 피땀을 제일 많이 흘리는 우리 보병들에 대한 그이의 가장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는 것이다! 고병근은 생각하면 할수록 눈시울이 자꾸 뜨거워올라 눈을 슴벅이며 군관들을 쳐다보지 못했다.

중대부로 돌아왔을 때 고병근은 군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됐소, 이젠 문제없소! 앞으로 보포협동을 잘하자면 우리 동무들이 포병들과 서로 허물없이 한 형제처럼 지내야겠소!》

그리고 오늘밤에는 우선 포병들을 목욕시키고 푹 쉬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날 직일군관인 3소대장 곽병식이가 이 지시를 집행했다. 건조실에서는 포병들의 내의를 건열소독하고 목욕탕에서는 그들의 몸을 말끔하게 씻도록 했다.

보병전사들은 자기들의 목욕탕을 자랑하고싶어 장작을 후하게 안아다가 불을 지피고 포병들의 평가와 반영을 듣기 위하여 몇 전사가 그들과 함께 목욕을 했다. 그속에 조칠성이가 아니고 누가 끼우랴.

목욕탕안은 김이 뽀얗게 서려 앞이 보이지 않았다. 건장한 몸뚱이들이 그림자처럼 어른거리며 물을 끼얹고 떠들어대고 웃어댔다. 비누칠을 하여 미끈미끈한 몸들이 서로 부딪치며 밀치며 붐비였다. 온몸에 비누거품을 들쓰고 수건으로 가슴팍을 열심히 문대는 축이 있는가 하면 뜨끈뜨끈한 물을 가슴에 끼얹으며 코노래를 부르는 전사들도 있었다. 조칠성이는 수세미로 명보의 잔등을 밀어주고있었다. 조칠성이가 뜨거운 물을 끼얹을 때마다 명보는 밑에서 윽윽 용을 쓰며 소리쳤다.

《빡빡 문질러요! 간지럽기만 하네.》

《가만 있어. 넨장, 갱도속에서 잘먹고 잘 지내서 살만 포동포동졌구나! 이것보지. 뼈다구두 쇠장대처럼 꿋꿋해졌다니! 허허허…》

조칠성은 포병들이 들으라는듯 우야 큰 소리로 말하며 웃어댔다.

포병들은 그를 흘끔흘끔 돌아봤다.

조칠성은 신바람이 나서 두손으로 수세미를 움켜잡고 살이 올라 미끈거리는 명보의 잔등을 문지르며 《신고산타령》까지 불렀다.

목욕탕안은 떠들썩했다. 씩씩거리는 숨소리, 노래소리, 웃음소리, 물장구치는 소리…

《여— 구림이, 수세미를 다 썼나?!》

조칠성은 구림이란 그 부름소리에 전기에 닿은듯 놀라며 두리번거렸다.

《여—구림이, 요—친구야, 빨리 쓰라구.》 아까 목소리가 재차 독촉한다.

구석쪽에서 구림이가 짜증을 냈다.

《좀 가만 있으라요! 쳇, 목욕탕에 와서까지 구림이, 구림이야!》

조칠성은 명보에게 귀띔했다.

《들었나? 구림이라고 했지?!》

《뭐?!》

《구림이라고 하지 않았어？！》

조칠성이와 명보는 사람들속을 헤집고 들어가서 구석쪽에 돌아앉아 어깨를 부지런히 문지르고있는 전사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구림이！…》 하고 조칠성이가 나직이 불러봤다. 안장코에 눈이 유별나게 반짝이는 고집스러운 얼굴이 흘깃 쳐다봤다. 그리고는 다시 그들에게 잔등을 돌리고 씩씩거리며 하던 일을 계속했다.

조칠성은 눈을 끔쩍거리며 명보에게 수군거렸다.

《지키구있으라구！…》

밖으로 나간 조칠성이가 포장을 만나고 소대장을 만나고 광준이를 만나고 구림이를 알고있는 모든 《관계자》들을 만나 무슨 쑥덕공론을 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얼마후 목욕탕안에서는 《잡았다—》 하는 소리가 울리고 조칠성이와 한 포병전사가 구림이를 끌고 탈의실로 나왔다. 포병들과 보병전사들이 뒤따라 우르르 밀려나왔다.

탈의실에는 이미 걸상우에 종이와 만년필이 마련되여있었으며 그 앞에 박광준이와 포장이 짐짓 엄숙한 얼굴로 서있었다.

《왜 이래요？！…놓아요！…왜 이래요？！》

탈의실에 빙 둘러선 포병들과 보병전사들은 와— 웃음을 터뜨리며 웨치고 떠들어대며 손벽을 쳤다.

《볼기를 치게！》

《어머니를 노엽힌 자식에게 곤장을 멕여라！》

《와하하…》

《허허허…》

《이 친구！ 병사재판이야！》

《곤장을 멕여라！》

《검사동지, 어서 론고를 하시오다！ 어머니를 노엽힌 자식을 용서마오！》

구림이는 약이 올라 얼굴이 시뻘개서 뻐드럭거리며 부르짖었다.

《놔요. 무슨 상관이야요？！》

조칠성이 눈을 부릅뜨며 욱박질렀다.

《상관이라구？！ 상관이라구？！ 아직 자기 죄상을 모르겠느냐. 편지 한장 안해서 우리 어머니 애간장을 태운 죄를 모르겠느냐말야？！》

그러자 구림이는 버럭 역증을 냈다.

《메달 하나 못달구 어떻게 편지를 내요？！》

의협심 많은 박광준은 포장에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건국실에 가

자고 청했다.

이리하여 포병전사들과 보병전사들은 구림에게 옷을 입혀가지고 건국실로 밀려갔다.

구림을 책상에 마주앉히고 종이와 만년필을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전사들은 그의 옆에 빙 둘러앉고 서서 떠들어댔다. 어떤 전사들은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문지르며 어떤 전사들은 목의 물기를 닦으며 벙글거렸다.

포장이 벅적 끓어번지는 포병들과 보병 전사들을 돌아보며 큰 대사를 치르는 사람다운 만족감을 가지고 정중한 얼굴로 엄숙하게 말했다.

《동무덜, 조용들하시오.》

그리고 구림을 내려다봤다. 구림은 만년필을 쥐고 《보고싶은 어머니》라고 적고는 더 쓰지 못한채 숨만 가쁘게 몰아쉬였다. 만년필 쥔 손이 떨리고 잔등이 오르내렸다. 가슴에 사무쳐오르는 정이 너무나 크고 아름차서 그것을 술술 풀어서 엮어내릴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듯 했다. 옆에 선 전사들이 편지는 날씨이야기로부터 꼭지를 떼야 잘 풀려내려간다느니, 안부가 늦은 사죄부터 하라느니 하며 일러주었다. 구림은 더 혼란에 빠진듯 붓방아만 찧었다. 곽병식은 측은한 눈매로 보다가 포장더러 그를 혼자두고 모두 나가는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그러나 포장은 그 성미에 혼자두면 몇자나 쓰겠냐고 하면서 곽병식의 귀에 대고 무엇이라 귀띔했다. 곽병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자 포장은 보병과 포병 전사들을 둘러보며 우리 의사를 대표하여 갱도의 시인—곽병식 소대장동지가 편지를 불러주는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전사들은 《옳수다》, 《찬성이요》 하며 떠들어댔다.

약삭바른 찬일이가 벽에서 등불을 벗겨다가 구림의 옆에 갖다대며 타일렀다.

《차근차근 받아쓰게나.》

건국실안에는 정적이 깃들었다.

곽병식은 처음엔 이것을 병사들의 웃음거리로 생각했으나 막상 임명되고보니 정색해져서 머뭇거리며 심각한 생각에 잠기게 되였다.

야전병원에서 지난 세월의 긴 이야기를 해주던 자기 어머니의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부상병들에게 자기들의 피를 수혈해달라고 밀려오던 어머니들과 아주머니들의 긴 행렬이 떠올랐다.

누군가 구석쪽에서 무엇이라고 소곤거렸다.

곽병식은 구림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흰 종이우에 머리를 숙이고 온순하게 기다리고있었다. 그에 대한 측은한 생각이 앞섰다.

조칠성이가 의아한 눈길로 소대장을 쳐다봤다.

곽병식은 자기 입만 보며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있는 전사들의 얼굴을 돌아보았다. 저들에게도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들이 계신다는 생각을 하자 하나의 가정으로 단합된 화선병사들의 커다란 우정이 가슴가득 안겨오며 뜨거운것이 목구멍에서 치밀어올랐다.

그는 그것을 그대로 내뿜었다.

《어머니,저를 이 세상에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저때문에 속을 태운 어머니！ 어머니의 아들 구림이가 화선 갱도에서 이 편지를 올립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밥먹는 법,세면하는 법을 가르쳐주시고 말도 걸음걸이도 옷입는 법도 웃어른 존대하는 법도 다 가르쳐주셨습니다. 제가 이갈이를 할 때에는 이발을 하나하나 흔들어서 뽑아주시고 배앓이를 하면 약손으로 제 배를 쓸어만져 고쳐주셨습니다.》

머리를 수긋하고 편지를 받아쓰던 구림은 흑흑 느껴울었다.

박광준이가 커다란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달래였다.

《이사람아,참으라니,참아. 에이구,마음두 원 참…》

나이든 전사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어딘가 벽쪽을 바라보았고 어린 전사들은 고향집에 두고 온 자기 어머니들을 생각해서인지 외면하여 눈을 슴벅거렸다.

구림은 결김에 눈을 빗씻더니 다시 머리를 깊이 숙였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속만 태웠습니다. 집에서 뛰쳐나온 다음 편지 한장 올리지 않은 이 아들을 용서해주십시오. 큰 공훈을 세워 어머니를 한꺼번에 기쁘게 해올린다는것이 그만 어머니를 노엽혔습니다.

어머니,제가 어머니를 잊어서 편지 안한것은 아니였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의 마디 굵은 손을 저는 언제나 몸에 느끼고있습니다.…》

구림은 눈물에 번들거리는 얼굴을 들더니 불쑥 물었다.

《감탄부호 있나요？》

와— 웃음이 터졌다.

나이 지긋한 포병이 노기 띤 얼굴로 버럭 소리쳤다.

《문법도 제법인게…》

다른 전사가 웃는 전사들을 돌아보며 구림이를 두둔해나섰다.

《웃지들 말라요！ 이게 구림이 혼자 잘못인가요？！》

명보가 그의 옆에 다가서며 감탄부호를 큼직하게 찍으라고 일렀다.

《어머니,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고향과 부모처자를 사랑하지 않는 전사는 나라를 사랑할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박광준이와 나이 든 상등병들이 의미심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를 먹으니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여요. 저도 인제는 열일곱살이 되였으니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절대로 어머니를 노엽히지 않겠습니다. 보고싶은 어머니, 저는 집을 떠난후 인민군대 포병의 직사포 포수로 되였습니다. 군관동지들과 하사관동지들이 말을 더듬던 버릇도 고쳐주고 친형처럼 저를 타일러서 사람으로 키워줬습니다.

어머니, 저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솜동복도 입고 제가 좋아하는 콩나물국도 먹고있습니다. 저는 몸이 튼튼합니다. 제 걱정은 절대 마시고 후방에서 인민군대원호사업을 잘해주십시오. 어머니, 우리는 지금 당중앙위원회에서 보낸 편지를 받들고 언제나 결사전에 나설 준비를 갖추고있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잘 싸워 장군님의 충실한 전사가 되여 꼭 어머니를 기쁘게 해올리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조칠성동무도 만나고 우리 집에 들렸던 중대 동지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같은 갱도에서 싸우게 되였습니다. 저는 포병으로서 이들을 도와 대포를 어김없이 쏘겠습니다. 포탄 한발도 헛쏘지 않고 어머니가 바늘귀를 꿰던것처럼 백발백중하겠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푹 놓으시고 부디 몸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중앙위원회편지를 받들고 어머니도 후방에서 인민군대원호사업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구림 올림 ○○전선 갱도속에서…》

아마 이날 구림의 옆에 있던 조칠성이가 흐린 얼굴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나간것을 눈치챈것은 곽병식소대장 혼자뿐이였을것이다. 곽병식이 밖으로 나왔을 때 내리던 눈은 그쳤고 대기는 푸근했다.

두리번거리던 곽병식은 눈우에 난 발자국을 발견하고 전사의 알길없는 마음이 더듬어간 그 자국, 자국을 따라 갱도 웃쪽으로 올라갔다.

저 웃쪽 산중턱에 둥실한 바위같은것이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조칠성이였다.

《왜 여기 나와있소?》

《답답해나서 나왔습니다. …》

곽병식은 그의 옆에 다가앉았다.

조칠성은 벌쭉이 웃으며 그를 돌아봤다.

《소대장동지는 이렇게 푸근한 날이 좋습니까? 눈보라가 치는 날이 좋습니까?》

《동무는 어느편이 좋소?》

《소대장동지는요?》

《동무부터 말하오!》

《저는 눈보라치는게 좋습니다! 아우성치며 막 들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역시 그렇소!》

정말 이날 밤중에 무서운 눈보라가 터졌다.

분노한 조국의 거센 입김같은 눈보라는 하늘높이 치솟아 달빛을 가려버리고 사람들을 전률케 하는 무서운 함성을 지르며 얼어붙은 산악들우를 휩쓸었다.

밤중에 밖에 나갔다온 고병근중대장은 신선한 찬기운을 풍기며 3소대병실에 들려 곽병식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슨 변이 터지겠소. 세월도 기미를 알아챘단말이요!》

4

중대는 낮에 밤을 이어 비밀갱도를 뚫었다. 갱도속공기는 전투적인 긴장으로 팽팽해졌다.

그러나 매일밤 방송시간이면 방송기용 수동식발전기를 돌리기 위하여 한명의 전사가 동원되여오군했다.

조칠성은 자기의 우악스러운 힘으로 불이 번쩍 일게 발전기를 돌리면서도 마이크앞에서 류창하게 말하는 처녀의 얼굴을 홀린듯이 바라보다가는 영어방송시간이 끝나면 이것저것 엉뚱한 질문을 하는것이였다. 그놈들의 말에도 엄마나 조카나 외삼촌 같은 말들이 있는가? 하는 등인데 이럴 때면 조칠성의 눈에서는 살기떤 빛이 번뜩였다. 《손을 들지 않으면 죽여버릴테다.》, 《참모부가 어디냐?》, 《련대장이 어디 숨었냐?》, 《군기를 어디다 감췄냐, 대라!》 그는 이러루한 협박조의 말들을 배워가지고는 그것을 수첩에 적어놓고 몇번씩 발음해보다가는 혀가 돌아가지 않으면 이건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짐승들의 말이 분명하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명보는 얼핏 보기에 이 동원을 달가

와하지 않는것 같았다. 정혜가 방송할 때면 명보는 경계하는듯한 의아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다가는 끝난후면 무슨 말을 했는가고 묻는것이였다.

정혜가 방송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주면 이 꼬마병사는 다소 안심된듯 눈빛이 부드러워지는것이였다. 명보는 련대후방부 량식창고나 탄약창고에 가서 다른 고지에서 온 자기또래의 전사들을 만나면 자기네 갱도에는 없는것이 없으며 지어는 처녀까지 와있다고 자랑하는터였으나 이처럼 아름답고 마음 살뜰한 처녀가 온갖 더럽고 악독한 죄악을 빚어내는놈들의 말을 한다는것이 어쩐지 은근히 속에 걸리는것이였다. 정혜의 민감한 눈길은 그의 얼굴에서 이런 속마음을 다 읽어보고있었으나 그것을 탓하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이 소년병사의 티없이 깨끗한 마음을 더 기특하게 여기며 그를 극진히 사랑해주었다. 누가 지시한것도 귀띔해준것도 아니였으나 박광준이와 정혜와의 사이에는 남다른 관계가 맺어지고있었다. 정혜는 생활상 불편이 있으면 박광준아바이에게만 스스럼없이 말했으며 다른 군관들이나 하사관들의 친절을 함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이로 하여 박광준아바이는 처녀를 대견하게 생각하며 정혜가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것저것 보살펴주며 시중을 들어주었다. 박광준은 방송실부엌을 네번이나 뜯어고쳐서 불이 황황 들게 해주었으며 연기가 새지 않게 아궁이마를 말끔하게 흙매질해주었다.

마음 누긋한 아바이전사의 보살핌속에서 정혜는 생활상 불편을 그다지 느끼지 않고 안심하고 지낼수 있었다. 갱도속의 보병전사들은 언제 봐야 머리칼에 윤기가 빛나고 얼굴이 발깃하게 상기된 처녀의 생기발랄하고 환한 모습을 보며 처녀들이란 어쩌면 자기몸을 저리도 알뜰하게 거두는것일가 하고 신기해하는것이였다.

정혜는 자기 일을 끝내고는 비밀갱도작업에서 지친 전사들을 돕기 위해 유익한 일들을 궁리해내고는 그 일에 정성을 깡그리 쏟아부었다.

그는 박광준아바이가 발기했으며 곽병식소대장에 의하여 열렬히 지지되고 관철된 그 일이 성공되기를 열망했다. 비밀갱도공사, 그것은 암반과 사람의 의지력과의 처절한 싸움이였다. 괭이끝이 뭉청뭉청 모지라지고 정대가리가 쩍쩍 갈라지며 말리였다. 무쇠도 견디지 못해 문드러져버리는 이 싸움에서 오직 사람들만이 땀으로 미역을 감으면서도 지칠줄 모르고 암반과 부딪치고있었다.

하나의 암반을 뚫고 들어가면 또 새로운 암석층이 《안된다!》 하고 웨치듯이 앞을 막아서는것이였다. 돌가루와 땀물에 범벅이 된 분대와 분대들이 교대되면서 초를 다투어 작업은 계속되였다.

정혜는 앉아있을수 없었다. 그는 식당에 가서 밥가마에 숭늉을 끓여가지고는 막장으로 찾아갔으며 솔잎물로 《차》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사과나 복숭아에 못지 않게 비타민이 많다고 말하면서 전사들에게 권했다. 전사들은 그 물을 달게 마셨다. 조칠성은 솔잎《차》를 고뿌에 따라들고는 명보를 위하여, 광준이를 위하여, 찬일의 시계도구들을 위하여, 정대를 위하여, 쇠메를 위하여, 비밀갱도를 위하여, 암반이 더 나타나지 않기를 위하여… 모든것을 위하여 든다고 하면서 꿀꺽꿀꺽 마셨다. 그리고는 《술》이 쓰다고 하면서 얼굴을 찌프리며 머리를 흔들었다. 명보는 그 모양이 우스워 깔깔거렸고 찬일은 그바람에 경상골 국영식당의 번거로운 일요일저녁이 생각나는지 눈이 흐리멍텅하게 부드러워지며 침을 삼키는것이였다.

박광준은 암반에서 까낸 넙적한 바위쪼각을 들어다놓고 그우에 자기 솜장갑까지 툭툭 털어서 깔며 정혜더러 여기 앉아서 명보와 조칠성이가 메질하는거나 구경하다가 가라고 일렀다. 정혜는 무랍없이 앉으려다말고 울퉁불퉁한 암벽에 장중한 부각처럼 움직이지 않고 붙어서있는 곽병식소대장의 모습을 흘깃 쳐다보게 되였다. 막장에 켜있는 등불빛에 땀물이 번들거리는 그의 구리빛 얼굴, 그늘 비낀 눈확에서는 생각에 잠긴 눈길이 부드럽게 웃음지으며 이쪽을 보고있었다.

정혜는 순간 몸가짐이 빳빳하게 굳어지고 수집음에 볼이 달아오름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지휘관들의 위엄앞에서 종종 느끼군하는 압박감비슷한 알길 없는 감정때문이라고 단정하며 그 부질없는 감정에 항거하듯 박광준이가 깔아준 솜장갑우에 털썩 앉아버렸다.

메질이 시작되였다.

명보가 채양이 뒤로 가게 모자를 돌려쓰고 정대를 잡았으며 조칠성은 손바닥에 침을 두어번 뱉아서 썩썩 문대더니 률동적으로 메를 휘두르기 시작하였다. 쩡! 쩡! 소리를 내며 메가 정대에 부딪칠 때마다 불꽃이 번쩍번쩍 튀여났다.

조칠성의 목덜미에서는 땀이 번들거렸다. 률동적인 메질에 흥이 북받치자 조칠성은 장난기 섞인 걸걸한 목청으로 노래가락을 먹이였고 명보는 잽싸게 정대를 돌리며 쨍쨍한 소리로 재치있게 받아넘겼다.

그것은 조칠성이가 며칠밤을 새며 끙끙거려서 꾸며낸것을 곽병식이가 대강 다듬어준 《대가리타령》이란것이였다.

엥야 뎅야라

어느놈 대가리냐
그것도 모를가
미국놈 대가리다
두들겨라 패라
좋다 좋지!

엥야 뎅야라
어느놈 대가리냐
그것도 모를가
《아이크》놈 대가리다
두들겨라 패라
좋다 좋지!

엥야 뎅야라
어느놈 대가리냐
그것도 모를가
클라크놈 대가리다
두들겨라 패라
좋다 좋지!

엥야 뎅야라
어느놈 대가리냐
그것도 모를가
리승만대가리다
큰 대가리, 작은 대가리
몽땅 박산이다!

엥야 뎅야라
무슨놈 나발이냐
그것도 모를가
《신공세》나발이다
두들겨라 패라
좋다 좋지!
…

메질소리와 튀여오르는 불꽃과 노래가락은 하나의 현란하고 장쾌한 조화를 이루며 박진적인 률동으로 정혜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그는 메질하는 전사들의 단 숨결속으로 자기 몸과 마음이 휘말려들어감을 느끼며 저도모르게 그 률동에 맞춰 머리와 몸을 가볍게 흔들게 되였다. 이 순간 정혜에게는 그들이 하는 이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재미나고 흥겹고 보람찬것처럼 느껴졌고 자기도 머리칼을 잘라버리고 그들과 같이 퇴색한 군복에 탄띠와 긴 보총을 메고 3소대 대오의 마감병사 다음에라도 서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정혜는 전사들의 작업을 주의깊게 주시하고있는 곽병식소대장을 돌아보았다.

이런 전사들을 데리고 이런 일을 하고있는 그가 전에없이 돋보이며 그는 얼마나 행복할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인젠 어디쯤 파들어왔을가요?》

정혜는 옆에 있는 신찬일에게 물었다.

《적진이 멀지 않았시다. …》

신찬일은 적이 엿듣기라도 하는듯 귀속말로 속삭였다. 그 말에 정혜는 내가 어디까지 와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며 가슴이 조여들었다. 곽병식은 위안하는듯한 미소를 지어보이며 그를 돌아보았다. 정혜도 밝은 눈웃음으로 대답했다.

정혜가 돌아올 때 곽병식소대장도 중대부에 작업정형을 보고하러 함께 떠났다. 곽병식은 밋밋하게 경사져올라간 낮고 좁은 비밀갱도를 따라 허리를 구부정하고 익숙한 걸음걸이로 앞에서 성큼성큼 걸어갔다. 땀에 함뿍 젖은 그의 퇴색한 군복잔등은 젊음과 열정을 억제하지 못하는듯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억세게 움직거렸다. 정혜는 그의 몸속에 아버지의 지성이 저렇게 살아서 움직이는것 같으면서 그의 몸이 전에없이 소중히 느껴졌다. 그러나 병원에서 퇴원하자바람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전사들과 함께 잠복도 서고 교통호도 파고 메질도 우악스럽게 해대며 그 몸을 마구 혹사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정혜는 땀에 질벅히 젖은 그의 잔등을 보며 《몸을 아껴서 일하세요.》 하고 타이르고싶었으나 웬일인지 가슴이 울렁이며 그 말이 나가지 않았다. 동발들에 드문드문 매단 등불옆을 지날 때마다 땀밴 생활의 친근한 온기가 정혜의 머리칼이며 볼이며 가슴을 부드럽게 감싸주는듯했다. 여러번 오고간 길이였으나 이 밤 정혜는 웬일인지 새삼스러운 눈으로 물기에 젖어 석탄빛으로 번들거리는 울퉁불퉁한 암벽을 보며 이 지하세계에 한가닥의 해빛도 살랑대는 미풍도 푸른 잎새들의 설레임도 없는것을 가슴 짜릿하게 느끼게 되였다.

그들이 중앙갱도로 나와 불빛밝은 《모란봉》에 올라섰을 때 곽병식은 걸음을 늦추며 정혜와 나란히 서서 걸었다. 정혜의 얼굴은 상기되고 상쾌하게 뜬 눈은 불빛에 유난히 빛났다. 그는 무의식중 혁띠를 꽉 쥐였다.

《정혜동무, 아버지한테서 소식이 있소?》

《없어요. …》

《?!…》

《편지가 도중에 류실됐거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가요?》

이런 경우 사람들은 흔히 불행한 억측들을 수없이 하게 되는것이다. 곽병식은 묵묵히 걸으며 생각했다. 정확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야전우편이 정혜의 편지라고 소홀히 다루었겠는가? 그러면 류성운군의가 평양이 아니라 다른 전선에 나가있는가? 곽병식에게는 야전병원에서의 저녁산보가 생각나며 류성운군의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해졌다.

《편지는 그날로 보냈겠지요?》

《아니… 이틀후에 부쳤어요. …》

곽병식은 그 말에 울컥해졌다. 녀자들이란 왜 이렇게 막히고 까다롭게 꼬여있을가 하는 생각이 들며 가슴이 답답해났다. 무거운 한숨을 내쉬였다.

정혜는 조여드는 가슴을 안고 숨을 죽이고있었다. 그 이틀때문에, 바로 그 이틀때문에 찾았던 아버지를 다시 잃지 않을가 하는 불안감이 갑자기 가슴에 엄습해들었기때문이다.

정혜는 그날밤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한 긴 사연의 편지를 아버지에게 쓰다가 펜을 던지고 얼굴을 싸쥐며 울음을 터뜨리고말았었다. 아버지가 모든것을 깨달은 지금에 와서 그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지며 가슴이 미여지는듯했었다. 그리고 오빠와 언니에 대한 애달픈 그리움이 가슴을 허비고 아버지에 대한 종전의 그 감정이 암처럼 가슴에서 되살아났던것이다. 정혜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에 모대기며 눈물에 젖어 이틀밤을 꼬박 새운 다음에야 아버지를 보고싶은 딸의 심정으로 가슴이 맑아져 편지를 부쳤었다.

《정혜동무, 동무는 아버지에 대하여 아직도 뭔가 의혹을 품고있는게 아니요?》

이렇게 묻는 곽병식의 목소리는 날카로왔다.

《정혜동무, 나는 아버지가 내 생명의 은인이란 의미에서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군인의 량심으로서말이요, 아버지의 심각한 체험과 번민

을 존경하게 되였소. 아버지는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참된 혁명가인가 아닌가, 참된 애국자인가 아닌가를 알수 있노라고 말씀했소. 나는 오늘 그 말을 아들딸들의 립장에서 해석해보고 싶소. 가정에서 부모님들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만이 수령님과 혁명과 조국 앞에서도 참되게 충실하리라고말이요. 정혜동무, 우리가 여기서 잘 싸운다면 우리를 고생속에서 키운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아버지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편지를 쓰오. …》

정혜는 머리를 소곳이 숙이고 혁띠를 꽉 그러쥔채 그의 옆에 서있었다.

《이것을 정혜동무와 아버지, 한 가정의 작은 문제로만 생각마오. 지금은 우리 군대의 모든 소대와 분대들과 함께 매 인민반, 매 가정들이 전쟁의 불바다속에 뛰여들어 결사전의 대오에 들어서고있소. 모든 가정, 소대, 중대, 여기 갱도속에 있는 우리모두가 하나의 사상의지로 단합해야만 이길수 있소. 정혜동무, 회답만 기다리지 말고 아버지 주소로 매일 편지를 써보내오. 그중 하나라도 받아보신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힘을 내서 일할수 있겠소!》

《소대장동지, 지금 제 형편에서 무슨 기쁜 소식을 전할게 있겠어요. 매일 매일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온 중대가 저를 성원해주고있는데 제 사업은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류정혜의 얼굴에서 가랑거리는 눈물을 본 곽병식은 놀랐다.

그의 얼굴은 무엇인가 더듬으며 생각해보는것 같더니 점차 준엄하게 굳어졌다. 류성운군의가 어머니에게 했다는 교훈적인 말들이 떠오르며 이 처녀에게도 너무 자기 반성에 치우치는 그런 감성적인 기분이 다소나마 깃들어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이 들었기때문이다.

《정혜동무, 만약 동무한테 하소연하는 습관이 있으면 그것부터 고치오. 나약한 감성으로는 아무 일도 못치르오. 하물며 우리가 지금 어떤 놈들과 싸우고있소. 우리 군대가 지금 어떤 인내력과 생활력을 가지고 이 장기방어의 시련을 이겨나가고있소. 목표를 향해 완강한 의지력으로 돌진해야 되오. 우리 동무들이 암반을 뚫고 들어가는것을 보오. 내 생각에는 정혜동무가 괴로와할 근거가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오. 저 놈들이 방송하면 왜 포사격을 하겠소. 그 목소리를 겁나하기때문이요.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저놈들 진지에서는 반드시 무슨 변화가 생기고있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날이 있을게요! 조급해마오! 10년이고 20년이고 불어댈 배심으로 방송을 계속하오!》

곽병식은 정혜의 가슴에 승리의 환희를 안겨주고싶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통쾌한것인가를 맛보게 해주고싶었다. 하여 그는 걸어가면서 손까지 저으며 열정적으로 말했다.

그들이 걸어가는 앞쪽에서 벽시계 치는 소리가 울렸다. 문득 정혜는 중대부가 가까와지고 방송실이 눈앞에 보이는것을 아쉽게 생각하게 되였다. 이 길이 해뜨는 지평선 저쪽까지 아득히 뻗어있어 이처럼 가슴시원한 이야기를 끝없이 끝없이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방송실에 돌아온 정혜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겨 오도카니 앉아있었다. 어쩌면 그는 그처럼 확신을 가지고 말할수 있을가. 그의 말대로 정말 적들은 자기 목소리를 두려워하며 놈들속에서는 머지 않아 무슨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며 가슴이 트이는것 같았다. 한편 정혜는 웬일인지 손으로 화끈거리는 두볼을 쓰다듬어보게 되였다.

이틀후 정혜는 련대정치부에 방송원고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는길에 요사이 야전우편소에 나가 일하는 련대장 마사원을 만났다.

수없이 찢기고 긁히워서 낡아빠진 우편가방을 멘 마사원은 멀리 1035고지쪽을 바라보며 두덜대고있었다.

《개놈자식들, 또 지랄이군!》

그쪽에서는 흙기둥들이 하늘높이 치솟아오르더니 이윽고 둔중한 폭음이 울려오며 대기가 떨었다.

《저게 동무네 중대쪽이 아니요?》

《그래요. …》

《해토무렵도 되지 않았는데 저놈들이 벌써 지뢰신관포탄을 쏜단 말이야. 갱도입구라도 허물어보자는게지. 어림도 없어. …》

그리고 마사원은 깜빡 잊었다는듯 서둘러 우편가방을 열며 류성운이가 누구냐고 묻고는 모서리가 구겨지고 보풀이 인 봉투를 내주었다. 정혜는 마사원을 먼저 보내고는 교통호벽에 기대서서 봉투를 뜯었다. 가슴이 활랑거렸다. 그의 눈길은 글줄을 따라 달리였다.

5

…정혜야, 나는 네가 인천방어전투에 나갔다는 소식을 풍문에 듣고 전략적으로 일시 후퇴가 시작된후에도 불바다로 된 서울에 남아서 너

를 기다렸다. 모든 사람들이 북으로 떠났으나 나는 망설이고있다가 미국놈들이 영등포쪽까지 들어왔을 때에야 배낭을 메고 길을 떠났다. 나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을 들씌운 그 저주로운 낡은 세계가 포성의 울부짖음과 함께 다가오고있는데 내 가슴은 옛생활을 다시 받아들일수 없었다. 결연히 일어나 길을 떠났다. 후퇴하는 대오속에서 녀성군인들을 보면 달려가서 네 소식을 알아보려고 했으나 너를 아는 동무는 하나도 없었다. 나는 천리길을 걸어들어오며 길가의 집담벽, 굴뚝, 전주들에 혹시 네가 볼수 있지 않을가 해서 《정혜야, 아버지는 북으로 간다!》는 글을 수없이 써놓군했다. 정혜야! 전화에 그슬린 네 얼굴을 가슴에 안아보고싶구나! 나는 후퇴하다가 신막에서 한 공병분대를 만나 그들과 함께 수백리를 걸어오는 과정에 저절로 그들의 성원으로 되여버려 자기 직분이며 학위를 감추고 전사로 입대했었단다. 우리 가정과 우리 겨레들에게 끝없는 불행을 들씌운 미국놈들을 숨이 질 때까지 찔러죽이고싶은 모진 생각이 내 가슴에 바위처럼 들어앉아있었다. 나는 내 이 손으로 전호도 파고 다리도 놓고 미국놈을 여러놈 찔러죽이기도 했다. 그러나 당의 밝은 눈이 넓은 전쟁마당에서도 나를 찾아내여 군관강습소에서 석달동안 공부를 시켜서 너무나도 과분한 초소에 내세워주었다. 이 류성운이를 말이다. 나는 당의 믿음에 보답하려고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고있다. 이것이 그사이 내가 걸어온 간단한 경로이다.

정혜야, 나는 지금에 와서 너하구 어리석은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혁명군대에서 같이 복무하는 전사로서 흉금을 털어놓고 할 얘기가 많다. 지난날 나에 대한 네 감정을 오늘에 와서는 나는 충분히 리해할수 있다. 나는 가슴을 뜯으며 번민했다. 네가 옳았다! 아버지로서 나는 너희들에게 잘못 대했었다. 전쟁의 나날에 그것을 더욱 깨닫게 되였으며 피눈물로 후회했다. 창호나 미혜는 열혈청년의 울분 하나만으로 싸우다가 참사를 당했다. 내 마지막 희망이며 기쁨이며 사랑인 너만은 그런 무분별한 길에 내보낼수 없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네앞을 지꿎게 막았었다.

정혜야, 그것은 탁월한 령도가 없고 창조적인 사상이 없고 독창적인 전법이 없는 싸움이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군대의 일원으로 되여 싸움의 길을 걸으면서 나는 그것을 통절히 깨달았다.

더우기 곽병식동무와 그의 어머니를 만나서 낡은 사회에서는 볼수 없는 동지적친교가 맺어진것은 나의 사상생활에서 큰 자극으로 되였으

며 또한 행복으로 되였다. 나는 곽병식동무의 수술을 하고나서 많은 생각을 했다. 그 수술은 큰 충격으로 되였으며 자기의 지난날을 돌이켜보게 하였다.

나는 곽병식동무로부터 갱도전을 비롯한 최고사령관동지의 독창적인 군사사상에 대하여 들으며 북받치는 감개를 누를수 없었다. 그리고 네 오빠와 언니도 이런 탁월한 사상의 해빛밑에서 싸웠더라면 그런 쓰라린 패배와 참혹한 죽음이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며 가슴이 터져올랐다.

정혜야, 그곳 갱도속에서 전사들과 함께 싸우고있는 너는 정말 행복하다. 보병전사들에게서 겸손하게 하나하나를 배워서 훌륭한 혁명전사가 되여 잘 싸워라! 나도 다시 전선으로 탄원해나가겠다. 네 편지를 받으니 힘이 솟는다. 젊음이 되살아난다. 우리 잘 싸우자! 원한을 품고 저세상으로 간 네 어미와 오빠, 언니들의 복수를 하자!

정혜야, 지난 세월은 내 머리에 일찌기 서리를 뿌렸지만 나는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젊음이 넘치는 열정으로 싸우고있다. 내 딸아, 잘 싸워서 가슴에 훈장을 가득 달고 승리의 광장에서 만나 이 아버지 품에 안겨다오. 우리도 열병대오에 함께 서서 우리에게 소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믿어주고 사랑하시여 이 영광의 대오에 세워주신 장군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리자!

정혜는 아버지의 편지에서 받은 감격을 음미하듯 눈을 지그시 내리감고 교통호벽에 기대여 까딱 움직이지 않고 서있었다. 그의 기다란 속눈섭밑에서는 눈물방울이 이슬처럼 맺혀서 반짝이고있었다. 그는 공병전사때의 아버지 모습이 어떠했을가 하고 생각해보았다. 정혜는 지난날 길을 닦는다든지 다리를 복구하는 공병들속에서 그런 류의 아바이전사들을 자주 보았었다. 그들은 다리 부러진 안경을 실끈으로 이어 꼈든가, 군복차림이 단정치 못하거나 공연히 허세를 부리는것 같은 동작들로 하여 로동자, 농민 출신의 아바이전사들과는 달리 어딘지 유표하게 어색한데가 있었다.

정혜는 군관복을 입은 아버지 모습은 마음씨 무던한 후방부련대장 비슷할게라고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나왔다. 정혜는 상쾌하게 동그란 눈을 떴다. 눈물어린 그 눈길은 생기에 넘쳐 반짝이며 앞을 보고있었다. 이때 그는 자기 몸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난듯한 감을 느꼈다. 가슴에 묵직하나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것이 추처럼 드리워 중심이 생기고 등뒤에서 든든한것이 떠밀어주는것 같으면서 자기도 인제는 고지의 전사

들과 어깨겯고서도 짝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생겼다. 정혜는 처음으로 느끼는 이런 감정이 조금만 부주의하여도 몸에서 날아가버릴것 같은 천진한 불안감에 싸여 고지쪽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걸음걸음마다 자기 마음이 저 해빛 찬란한 겨울의 파란 창공으로 풍선처럼 날아오르는듯한 쾌감때문에 걸음은 가벼워만졌다. 하늘에 떠서 백열로 이글거리며 눈부신 빛발을 뿌리는 태양이며 그밀,눈에 덮여 은백색으로 번쩍이는 험악한 산악들과 릉선의 넘실대는 파도들이 전에없이 삶의 희열을 불러일으키며 선명하게 안겨와 자기가 새롭게 탄생한듯한 아름찬 환희를 느꼈다. 정혜는 이 모든 격동을 누구에게나 토로하고 나누고싶은 충동을 억제할수 없어 걸음이 빨라졌다. 그는 교통호의 굽이굽이를 따라 머리칼을 날리며 뛰여갔다. 선 검열 다니던 통신병들과 포탄을 운반하던 박격포탄약수들이 처녀에게 길을 내주고는 의아해서 돌아보다가 알수 없다는듯 서로 마주보며 빙긋 웃었다.

정혜는 중대부에 들려서 돌아왔다는것을 보고하고는 방송실에 잠시 머물러 가져온 원고도 놓고 옷도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3소대 병실로 갔다. 직일병과 몇명의 전사들이 온돌아래목에 편안히들 앉아서 담배들을 피우고있었다. 소대장은 1개 분대를 거느리고 비밀갱도로 나갔으며 나머지는 버럭운반에 동원되였다는것이다.

정혜는 비밀갱도안으로 들어갔다. 자기가 받은 소식을 함께 기뻐해줄 박광준아바이,명보,조칠성이,찬일이 등의 친형제와 같은 다정한 얼굴들을 눈앞에 그리니 절로 걸음이 빨라졌다. 안에서 후끈한 바람이 불어오며 누군가의 말소리가 웅웅 울려나오고 뒤따라 곽병식소대장의 웃음소리도 들렸다. 순간 정혜는 자기가 기쁨에 들떠서 가볍게 놀지 않는가 하는 자책이 들며 얼굴이 뜨거워났다. 그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늦추며 여느때처럼 식당에 들려 숭늉이라도 떠가지고 올걸 그랬구나 하는 후회에 잠겼다. 바로 이때 몇걸음 앞 천장에서 《딱!》 하고 무엇인가 꺾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정혜는 소스라쳐 놀라며 뒤걸음질쳤다. 순간 짜르릉하는 우뢰치는 소리와 함께 눈앞이 아찔하게 캄캄해지며 무엇인가 후끈하면서도 불가항력적이고 무자비한 바람이 자기 몸을 뒤로 밀쳐버림을 느꼈다. 정혜는 태풍에 휩쓸리는 풀잎처럼 가볍게 딩굴며 머리와 어깨를 무엇엔가에 아프게 부딪쳤다. 매캐한 먼지가 가슴에 쓸어들며 숨이 콱 막혔다. 온 누리가 무거운 정적에 짓눌린듯한 무서운 적막감이 엄습했다. 그는 암담한 어둠속에서 몸부림쳤다.

(아니,아니,왜 이럴가? 왜 이리도 고요하담?… 왜?!… 왜?!)

그는 어둠속에서 허둥지둥 기여나가며 손더듬해봤다. 칼날같이 날카롭기도 하고 삐죽삐죽한 바위모서리들이 손바닥이며 볼이며 턱을 아프게 찔렀다.

《악!》

정혜는 놀라며 물러섰다. 그는 숨이 컥컥 막히는 먼지구름속을 뚫고 정신없이 달려나왔다. 먼지와 돌가루를 들쓴 처녀는 헝클어진 머리칼을 흩날리며 중앙갱도로 뛰여나왔다. 그는 앞못보는 사람처럼 발을 마구 헛디뎠다. 그의 폐부에서는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터져올랐다.

《아—아— 굴이 허물어졌어요—》

그 부르짖음은 갱도안에 메아리쳤다. 갱도의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병실들과 식당과 목욕탕과 건국실에서 전사들이 쏟아져나와 중앙갱도를 꽉 메우며 현장으로 달려갔다. 갱도 한복판에 망연자실하여 서있는 정혜는 정신없이 달려가는 전사들의 물결에 이리 밀리우고 저리 밀리우고 했다. 그것은 마치 홍수가 난 강물에 드리운 버드나무가지가 세찬 물살에 몸부림치며 흔들거리는 모양과 흡사했다. 전사들은 달려가면서 저저마다 입을 열었다.

《누가 깔렸나?!》

《3소대장동지와 조칠성이래!》

《누구라구?!》

《어느쪽이야?!》

《비밀갱도야!》

《동발이 꺾어졌나?》

《여,등불들을 가지고 가자구!》

《다른 동무들은?》

《마침 버럭을 지고 나갔대!》

정혜도 전사들에게 떠밀리며 그곳으로 갔다. 붐비는 전사들의 머리우에서 10여개의 등불들이 켜지고 전지불들이 앞을 비쳤다.

전사들은 허물어져내린 바위돌짬에 얼굴을 박고 목이 터지게 부르짖었다.

《소대장—동—지—》

《칠—성—동무—》

피타는 목소리들이 부르고 또 불렀으나 앙칼지게 모가 난 바위돌은 무심하고 싸늘한 침묵을 지켰다. 전사들은 억이 막혀 굳어져버렸다. 전사들속을 헤집고 나온 고병근중대장이 떨리는 손으로 허물어져내린

바위들을 더듬어보고 전사들의 얼굴을 돌아보더니 버럭 소리질렀다.
《왜들 서있소？！ 왜들 서있는가말이요？！ 빨리 파내자구！》
전사들은 그것이 돌격구령이기라도 한듯 왁 달려들어 바위며 흙이며 돌부스럭지들을 끌어냈다. 전사들은 붐비면서 괭이와 삽으로 혹은 맨손으로 바위들을 안아냈다. 불이 번쩍 일게 괭이질하던 정치부중대장 김문규가 허리를 펴고 전사들을 돌아보며 웨쳤다.
《동무들,빨리！ 빨리！ 곽병식동무와 조칠성동무 생명이 우리 손에 달렸소！》
정혜는 이 절박한 순간 자기도 그들을 위하여 돌멩이 하나라도 끌어내주고싶은 심정에 이끌려 앞으로 헤집고 나가려고 했으나 그때마다 붐비는 전사들의 등에 부딪쳐 뒤로 밀려나군했다. 그리하여 정혜는 왈랑거리는 가슴을 안고 동발옆에 비켜서있게 되였다. 전사들의 구제작업을 보고있는 그의 눈앞에는 불길하고 참혹한 환영들이 자꾸 어른거려 가슴이 화들화들 떨렸다.
큼직한 바위와 암반쪼각들을 굴려낼 때마다 전사들은 새로 생긴 틈바구니에 얼굴을 박고 목청껏 부르짖었다.
《소대장동무—》
《칠성동무—》
정혜에게는 전사들의 구제작업이 점점 느리게 진행되는것만 같이 생각되였다. 그는 조여드는 가슴을 진정할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싶었다. 한초… 한초가 흐른다.… 피방울같은 시간！ 목숨과도 같은 시간！ 한시간,두시간이 흘렀다. 아니 정혜에게 그렇게 생각되였을뿐 5분,10분이 지났을따름인지도 모른다. 명보와 박광준은 땀이 번들거리는 얼굴로 숨을 헉헉 몰아쉬며 정신없이 삽질을 한다. 붐비는 전사들,숨소리들,괭이소리,시간이 흐른다. 갑자기 전사들은 맥을 잃고 우두커니 서버린다. 절망의 기운이 굴속을 휩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누가 불길한 암시라도 했단말인가？！
정혜는 아연해졌다. 그의 마음은 숨막히게 캄캄한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것 같았다. 이때 뒤에서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울렸다.
《산 사람들을 놓고 이게 무슨 짓들이요？！》
얼음장같이 선뜩하는 그 부르짖음에 정혜는 놀라서 돌아봤다. 전사들의 머리들뒤에 방한모를 눌러쓴 강태욱련대장의 근엄한 얼굴모습이 나타났다. 그옆에는 대대장의 근심어린 얼굴도 보였다. 정신이 번쩍 들게 신선한 기운을 뿜는 련대장의 얼굴에서는 노기가 떨고있

었다. 련대장은 앞으로 걸어나와 신찬일의 손에서 괭이를 앗아쥐면서 노기를 누르는 목소리로 말했다.

《돌에 깔려 죽을 사람들이 아니요! 파자구!》

그리고는 괭이를 머리우에 높이 들었다가 힘껏 내리찍으며 앞을 막은 바위부스럭지들을 와르르 와르르 허물어내렸다. 전사들은 다시 힘을 얻어 작업을 계속했다. 이윽고 강태욱련대장은 자기옆에서 삽질하는 고병근중대장을 돌아보며 여기 와있는 모든 전사들에게도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어려서 광산에서 일할 때 이런 일을 수두룩하게 겪어봤소. 여보, 중대장동무. 동무네 중대에 광산이나 탄광에서 일해본 동무들이 있소?!》

그리고는 눌러쓴 방한모를 올려 뒤통수에 붙이고 주먹으로 이마의 땀을 씻으며 고병근중대장을 의미있게 돌아보았다. 고병근중대장은 련대장의 얼굴을 흘깃 여겨보더니 태연스러운 얼굴이 되며 느릿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 동무밖에 없습니다. …》

《그것 보오. 모두 처음이니 가슴이 한줌만해졌거던. 하하하… 중대장동무, 식당에 지시해서 뭘 좀 푸짐하게 끓여놓소. 저 동무들이 나오면 잘 대접해서 푹 재워야 할게 아니요. 조칠성의 식성이야 내가 잘 알지. …》

풍상고초를 다 겪은 강태욱련대장의 이런 천연스러운 모습을 보자 정혜는 정말 무슨 큰일도 난 일이 없으며 이제 허물어져내린 버럭들을 좀 파내면 곽병식소대장과 조칠성이가 웃으면서 뛰여나오리라는 생각이 들며 절로 가슴이 든든해졌다.

전사들도 활기를 띠고 구제작업을 계속했다.

이때 직일군관인 황득범이가 전사들을 헤치며 달려왔다. 고병근은 불길한 예감에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돌아봤다. 황득범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적이 공격을 개시할 차비인것 같다고 보고했다.

《뭐요?!》 고병근은 펄쩍 뛰여오르며 눈에서 불을 뿜었다. 그리고는 피로운 얼굴로 허물어져내린 굴쪽에 눈길을 주었다가 련대장을 쳐다봤다. 그는 곁에 련대장이 있으니 마음이 의지되면서 자기의 심리적파동을 그대로 드러내놓게 되였던것이다.

강태욱련대장은 옆에 선 전사에게 괭이를 넘겨주고 손바닥을 두어번 툭툭 털더니 느릿한 목소리로 말했다.

《음… 저놈들이 집적거려보자고 한단말이지. 잘 됐군. 중대장동무, 저놈들에게 갱도의 위력을 좀 보여줘야 할것 같소！》

련대장의 눈이 불꽃처럼 타오르더니 시꺼먼 눈섭끝이 떨렸다.

《중대장동무, 적을 한놈도 고지에 올려놓지 말고 방어진지전연에서 모조리 소멸하오. 구제작업에는 한개 분대만 떼구오. 사람이 많으니 오히려 방해되오. 나는 포병감시소에 올라가있겠소！》

전투준비명령이 내렸다. 전사들은 갱도를 메우며 달려나갔다.

《…무리죽음을 주자！…》

《복수하자！》

단숨에 감시소로 뛰여올라간 고병근은 감시구를 열어제끼고 방어진지전연을 한눈에 살펴보았다.

아군과 적군의 경계를 이룬 골짜기는 안개처럼 자욱한 연막탄연기로 덮여있었다. 그속으로부터 얼핏 보기에 무질서하게 산개한듯한 적병의 검은 무리들이 달려나왔다. 적들은 제놈들과 아군사이의 최단거리인 3층감시소 앞으로는 공격하지 않고 1소대 전연인 제1릉선과 2소대 전연인 제2릉선 그리고 그 어간의 골짜기로 올라왔다. 놈들은 지난 가을처럼 산병선을 늘이거나 전투단위들의 경계를 짓지도 않고 수백명의 졸병들을 마구 흩어놓고 올리밀고있었다.

고병근은 적의 산개대형을 굽어보면서 적지휘부에 엎드려 이쪽을 노려보고있을놈들의 술책을 꿰뚫어보고 조소를 금치 못했다. (무우대가리같은 자식들！…)

아군 갱도의 화구들을 로출시키고 화력을 분산시키려는 잔꾀가 뻔했다. 고병근은 이따위 탄알받이들을 잡자고 화구들을 드러내고 탄알들을 랑비할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박격포중대장을 전화로 찾아 포사격을 요청했다. 그는 제1릉선과 제2릉선에 련발사격을 퍼부어 적을 골짜기로 몰아달라고 요구했다. 박격포중대장은 알만하다고 대답하고는 포탄들을 두 릉선과 골짜기어구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떨구었다.

고병근은 자기 속심을 인차 알아맞힌 박격포중대장과 배심이 맞아 더욱 성수가 나서 목에 피줄을 살구며 소리쳤다.

《좋다！ 좋지！ 올가미를 바싹 죄여주오！》

박격포련발사격의 올가미는 점점 죄여지면서 놈들을 골짜기의 좁은 구역으로 몰아넣었다. 박격포탄의 작렬로 릉선과 골짜기는 검은 연기에 덮였다. 적병들은 와와 밀리면서 골짜기로 달려내려오기도 하고 어떤놈들은 기미를 알아차렸던지 올가미에서 벗어나려고 도로 릉선

으로 치달아오르다가는 포탄벼락을 맞아 튀여오르는 흙덩이와 함께 공중 뿌리워오르기도 했다.

골짜기의 좁은 구역에서는 적병들이 와글거렸다.

고병근은 이때 1소대와 2소대의 린접에서 몇개의 화구들을 열어제끼고 교차사격을 퍼붓도록 명령했다. 골짜기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와글거리던 적병들은 광풍속에 휘말려든 풀대들처럼 이리저리 무데기로 쓰러졌다. 그리고는 고요해졌다. 첫순간 고병근에게는 저놈들이 모두 엄살을 부려 죽은척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 마침내는 자기 중대가 틀고앉은 고지가 장수처럼 느껴지면서 그 장수가 한번 코김을 내불자 원쑤놈들이 데죽고 맞아죽어 저렇게 삽시간에 쓰러진것이 아닌가 하는 동화적인 환각까지 들면서 너털웃음이 터져나오려는듯 배속이 꿈틀꿈틀 떨렸다.

고병근은 자기 몸에서 이상한 변화를 느꼈다. 그는 수많은 전투를 겪어왔지만 여느때없이 배포가 유해지고 그닥 꽤바르지 못한 자기 머리가 슬슬 잘 돌아가는데 놀랐다.

그는 아까부터 연막탄연기에 자욱히 덮인 깊은골쪽에 눈길을 자주 돌리고있었다. 깊은골을 덮은 그 자욱한 흰 연기는 음흉한 계교를 감추고있는듯 안개처럼 고요히 서려오르기도 하고 바람에 날려 이쪽으로 슬금슬금 기여오르기도 했다.

고병근은 서동길을 전화로 찾아 깊은골밑에서 적의 움직임이 있는것 같으냐고 물었다. 서동길은 자기들도 그쪽에 신경을 자꾸 쓰게 되여 몇번 위협사격을 퍼붓고 돌들을 굴리며 만세까지 부르면서 허위반돌격을 해봤으나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이때 강태욱련대장이 그를 전화로 찾았다.

《고병근동무요? 깊은골쪽에서 적들의 기동이 보이오?!》

《저놈들이 우리 주목을 딴데로 끌려고 허위시위를 하는것 같습니다.》

《옳소! 나도 그렇게 봤소!》

고병근은 뇌리를 치는 예감에 눈길을 번개같이 제1릉선쪽에 돌렸다.

제1릉선을 따라 몇발의 연막탄들이 한줄로 떨어지더니 솜뭉치같은 흰연기들이 풀썩풀썩 일었다.

고병근은 1소대장 최호찬에게 모든 화구들을 열어제끼고 일제사격준비를 갖추라고 명령했다.

몇순간이 지나서 바람에 흩날리며 퍼지는 연막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얼른거리더니 5,6명의 적병들이 1소대전연으로 산짐승처럼 날래

게 뛰여올라왔다.

뒤따라 또 한무리의 적병들이 그렇게 미친듯이 달려오고 중대의 전체 방어전연으로 1개 대대가량의 병력이 산병선을 늘이고 와와 밀려왔다.

고병근은 주먹으로 감시구바닥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1소대! 일제사격! 쐇!》

태풍에 휩쓸린듯 적병들은 릉선에서 딩굴었다. 한놈이 벌떡 뛰여 일어나더니 도망쳐내려갔다. 순간 놈은 몸을 비틀었다. 그놈의 잔등에서 불줄기가 뿜어나오더니 놈은 황적색 화염에 휩싸여 몸뚱이가 그대로 불덩이로 되여 나딩굴었다.

(화염방사기다!)

고병근은 적이 전투의 혼잡을 타서 화염방사기병들을 돌입시켜 갱도안을 불사르려고 꾀하였다는것을 알자 온몸에서 피줄이 툭툭 뛰며 터져오르는 증오를 참을수 없었다. 그는 펄펄 뛰여오르며 소리쳤다.

《1소대! 쐇! 쐇! 화염방사기병들을 한놈도 살려보내지 말라! 쐇! 쐇!》

놈들은 처음에는 포탄구뎅이나 흙둔덕같은 뒤에 숨어서 견뎌배기려고 했으나 세찬 화력에 질겁하여 도망쳐내려갔다.

어떤놈은 화염방사기통에 탄알이 명중되여 불길에 휘감겨 나딩굴기도 하고 어떤놈은 급해맞아 잔등에 걸머지였던 화염방사기통을 벗어팽개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냅다 뛰여내려갔다.

고병근은 한편 중대의 전방어전연으로 밀려오는 적의 산병선들을 향하여 갱도의 전체 화력으로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그는 화력밀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적의 산병선을 토막토막 잘라놓고는 그 하나하나의 토막들에 집중적인 교차사격을 퍼부어 일격에 휩쓸어버렸다. 이따금 감시구앞에서 초연과 흙먼지가 날리며 시야를 막기도 했다. 갱도는 무서운 화력을 내뿜었다. 땅이 진감하고 갱도벽이 드르릉드르릉 울며 공기가 마구떨었다. 고병근은 적진에서 돌변하는 기운을 륙감으로 느꼈다. 그는 밑을 내려다봤다. 릉선들의 량편 기슭과 골짜기밑에서 살아남은 적병놈들이 일제히 도망치기 시작했다.

《한놈도 살려보내지 말라!》 고병근은 주먹으로 공기를 내리치며 부르짖었다. 이때 화약내가 감시구로 확 풍겨들며 흙먼지가 시야를 가렸다.

《전방— 적릉선에— 땅크 발견—》 감시병의 새된 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고병근은 머리를 번쩍 들고 앞을 쏘아봤다. 짙은 초연에 가려 거밋하게 뵈는 적릉선의 돌출고지옆에 청회색 하늘을 배경으로 웅크리

고있는 3대의 땅크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 땅크들의 동음이 가슴을 울리는듯싶었다. 적은 땅크포의 직접조준사격으로 갱도의 화구들을 제압하면서 살아남은 력량을 뽑아내자는 심산이였다.
고병근은 전화로 직사포지휘관을 찾았다.
《직사포! 전방의 적땅크를 발견했는가?!》
《옛!》
언제나 그리웠던 포병지휘관의 담찬 대답소리는 그의 정력을 더욱 북돋았다.
《소멸하시오!》
고병근은 성급히 쌍안경을 눈에 가져갔다.
우측 땅크의 뒤꽁무니에서 불꽃이 튀더니 시꺼먼 연기가 풀썩 피여올랐다. 땅크는 불길에 휘감겼다. 뒤미처 좌측땅크의 포탑밑과 앞대가리,가운데 땅크의 뒤꽁무니와 배에서 불꽃들이 튀더니 그것들도 불길에 휘말렸다. 가운데 땅크가 요동을 쓰는듯하더니 릉선의 앞경사면으로 기여나왔다. 아마 얼이 나간 조종사놈이 뒤걸음친다는것이 앞으로 왈칵 내몬 모양이다. 땅크는 기우뚱하더니 바위처럼 육중하게 밑으로 굴러내렸다. 그놈이 굴러내리며 모든것을 깔아뭉개고 짓이기고 들부시는 소리가 들려오는듯싶었다.
《만세—》
《만세—》
갱도의 여기저기에서 만세소리가 터져올랐다.
고병근은 전사들에게로 달려갔다.
화구들의 옆에서 전사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돌아치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여오르기도 하면서 만세를 불렀다. 독고세가 구림을 업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양도 보였다. 고병근은 전사들과 어울려서 껄껄 웃기도 하고 만세도 부르다가 소대장들로부터 전투경과보고를 받았다.
련대장이 전화로 그를 찾았다. 고병근은 2소대의 전화기로 달려가서 송수화기를 들었다.
《고병근동무요?! 잘—싸웠소! 인원기재에 무슨 손실은 없소?》
《없습니다!》
《포병관측소에서 대충 계산한데 의하면 오늘 동무네 고지에는 1,600여발의 포탄이 떨어졌소. 그리고 6대의 비행기가 날아들어 폭격했는데 두대는 고사총에 맞아 떨어졌소.》
《예?!… 우린 전혀 몰랐는데요!》

《허허… 그랬을테지！》

고병근은 문득 오늘 전투에서 보여준 갱도의 견고성, 빈틈없는 화력망, 박격포와 직사포의 위력 그리고 언제나 싸움만 붙으면 신경을 쓰게 되던 폭격, 포격의 피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투를 지휘하니 자기 머리도 전에없이 총명하게 돌아가던 일 등을 생각하게 되였다. 그는 이렇듯 믿음직하고 강유력한 갱도를 마련하여주신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정으로 목이 메였다.

고병근은 물기어린 눈을 슴벅거리며 말했다.

《한건의 손실도 없습니다！ 전사들은 만세를 부릅니다！ 련대장동지…》

고병근은 송수화기를 놓고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있었다. 이런 때 곽병식이 그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정을 잘 표현하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곽병식을 빼놓고 자기들만 이런 승리의 쾌감과 이름할수 없는 벅찬 감정을 맛보는것이 미안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럴수록 곽병식과 조칠성에 대한 걱정은 이 무던하고 텁텁한 중대장의 가슴을 더욱 옥죄였다.

중대가 전투에로 달려나간 다음 정혜는 옆에서 울리는 절통한 부르짖음소리를 듣고 놀라서 돌아봤다.

박광준이가 허물어져내린 바위를 안고 잔등을 마구 떨며 통곡하고있었다.

《소대장동지！》

가슴을 찢는 그 부르짖음은 정혜의 마음이 지탱하고있던 마지막 발판을 허물어버린듯했다. 그는 구제작업을 계속하는 전사들속을 뚫고 달려나가서 손으로 바위들이며 돌부스럭들을 마구 굴려냈다. 그의 이런 행동은 구제작업을 하는 전사들에게 방해로 되였다.

《정혜동무, 비키시오！》

하고 누군가 소리쳤다. 류정혜는 한동안 물러섰다가는 다시 돌들을 안아냈다. 그러다가는 절망적인 불안감, 초조감, 어느 책임적인 지휘관을 불러와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수 있을것만 같은 걷잡지 못할 감정에 몸을 맡기고는 자기가 어디로 뛰여가는지도 느끼지 못하며 마구 달려갔다. 동발들과 암벽들이 날아지나고 등불들이 언뜻거렸다. 포연이 확 덮친다.

갱도의 화구들에 몰켜서 사격하는 전사들의 잔등들이 보였다. 우뢰치는 기관총소리, 부르짖음, 폭음… 감시구에서 번뜩이는 화광에 고병근중대장의 얼굴이 언뜻 보였다. 중대장은 그를 돌아보며 무엇이라고 격

정적으로 소리쳤으나 그 소리를 알아들을수 없다. 전투의 소음에 갱도안의 암벽도 동발도 몸부림쳤다. 류정혜는 자기가 없는 사이에 구제작업장에서 무슨 일이 생긴것만 같은 절박한 생각에 쫓겨 또다시 그리로 달려갔다. 이렇듯 그는 이날 구제작업장과 싸우는 지휘관들사이를 몇번이고 뛰여가고 뛰여왔는데 자기자신도 어찌하여 그렇게 되였는지 알수 없었다.

태풍에 노호하는 무변대해를 상상하라! 흰 갈기를 날리며 치솟아올라 하늘을 물어뜯는 시커먼 격랑, 사납게 울부짖는 바다를 위압하며 흩날리는 컴컴한 구름장들과 번뜩이는 번개불, 그 하늘과 바다사이의 어둑한 재빛공간에서 하나의 반점처럼 보이며 날아다니는 새를 상상하라! 광란하는 대자연의 울부짖음에 놀라 날아오른 작은 새는 자기의 가슴에 그 어마어마한 격동을 담을수 없어 바다와 하늘사이의 공간을 가로세로 날다가는 내려앉을 돌섬이나 나무토막을 찾지 못하면 심장이 터져 돌멩이처럼 떨어지며 노호하는 바다에 삼키워버리고만다!

그러나 류정혜는 걷잡지 못하게 파동치던 마음을 인차 다잡았다. 그는 배낭속에 비상용 양초를 간수해두었던것을 생각하고 방송실로 뛰여가서 그것을 꺼내가지고 왔다. 정혜는 양초 석대를 한손에 모아쥐고 불을 켜달아 홰불처럼 추켜들고 구제작업장을 비쳐주었다. 한데 모아쥔 초는 더 빨리 녹아 초물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처녀는 손등이 따가운줄도 모르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까딱 움직이지 않은채 서있었다. 정혜는 오직 자기 한몸을 깡그리 불살라서라도 숨막히는 어둠속에서 뒤채기고있을 그들에게 빛발을 보내주고싶은 모진 마음이 앞설뿐이였다. 아, 그렇게만 될수 있다면… 그렇게 될수 있다면… 그러나 이것은 한갖 랑만적인 욕망일뿐 뒤에서 누군가 《동무, 손을 데겠소!》하고 버럭 소리지르며 그의 손을 덥석 쥐더니 다 타버린 초끄트러기들을 앗아서 땅에 던졌다.

정혜는 놀라서 돌아봤다. 김문규정치부중대장이다. 그의 뒤로 고병근중대장과 소대장들, 전사들이 구제작업장으로 달려오고있었다.

정혜는 마음이 의지되는 군관들이 달려오자 웬일인지 울음이 왈칵 터져오를것 같아 머리를 소곳이 숙이고 그 자리를 떴다.

건조실옆을 지나던 그는 반쯤 열려진 문으로 다 마른 내의들이 줄지어 걸려있는것을 들여다보게 되였다. 어제 3소대 전사들의 일손을 도와 함께 빨아놓았다가 아침에 널어놓은것들이였다. 그 내의들을 보자 정혜는 전에 없는 친근감이 가슴에 사무쳐와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정성스레 개여서 쌓아놓기 시작했다. 차츰 들볶던 가슴이 한결

가라앉고 마음이 진정되여갔다.

괴로운 일이나 슬픈 일이 생기면 버들방천에 나가 빨래를 하거나 다듬이질을 하며 몰래 눈물을 삼키면서 그 모든 가슴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던 녀인들의 미덕이 그의 몸에도 배여있었던것이다.

정혜는 구김살이 몹시 간 내의들에 물을 뿜어 눅눅히 추겨서는 손으로 다독다독 눌러 풀다듬이질한것에 못지않게 하나하나 다듬어놓았다.

그는 내의들을 차곡차곡 포개여 놓다가는 이따금 흘러내리는 차분한 머리칼을 손등으로 밀어올리면서 호—한숨을 짓기도 하고 내의저고리 앞섶이나 팔소매들을 눈여겨 살펴보기도 했다. 내의들의 아래섶에는 병사들의 이름자들이 감장실로 서툴게 수놓아져있었다. 조칠성의 것은 여기저기가 찢어졌고 맬끈 하나 성하게 붙어있는것이 없었다. 언제나 사람들을 들썩하게 웃기며 갱도속 생활에 화기를 돋구던 그의 억세고 거치른 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떠오르며 가슴이 에이는듯 아파났다. 그 성미에 굴속에 갇혀있자니 얼마나 갑갑증이 날가,… 정혜는 이런 생각을 쫓아버리려는듯 내의를 툭툭 털어보기도 했다. 명보의 것은 그의 몸에 비해 어처구니없이 큰것이였다. 맞는것이 없는바치고는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제일 큰것을 입으려고 한 모양 같았다. 시름속에서도 정혜의 입가엔 저도모르게 미소가 떠올랐다.

(어쩌면 생각들이 이리 천진할가, 어린애들처럼…)

이런 생각들을 하던 정혜는 다른것을 손에 쥐자 누구의것일가 하고 살펴봤다. 아래섶이며 소매끝이며 목깃을 아무리 봐야 표적이 없었다.

마침내 앞가슴 맬끈옆에서 소대장표식을 발견했다.

순간 정혜는 가슴이 예리한 물건에 찔리운듯 아파났다. 요전날 그에게 몸을 아껴서 일하라고 타이르지 못한것이 후회되였으며 그가 교대없이 굴속으로 들어갔기에 이런 참화를 당한것만 같이 생각되였다.

(소대장동무두 왜 교대 없이 들어갔어요. 교대 없이… 교대 없이…)

정혜는 건조실에 서려있는 김때문인지 팔을 힘주어 놀려선지 몸이 화끈거리고 머리칼이 자꾸 흘러내렸다. 그의 눈앞에는 지난해 가을 장마철에 령밀 통신초소앞에서 곽병식소대장을 처음 만나던 일이며, 나무를 메나르던 일, 갱도공사보장을 위한 적후습격전투에로 그가 떠나던 일들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펴놓은 내의잔등을 쓰다듬으며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소대장동지는 왜 언제나 어려운 일의 앞장에만 서야 하나요？！…왜 언제나 그래야만 되나요. …)

이 순간에도 무거운 바위가 그의 가슴을 지지누르고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정혜는 마치 자기 가슴이 무거운 물체에 짓눌리운듯 답답해나며 숨이 막혔다.

불길한데로만 달리며 뒤채기는 이런 상념은 그의 가슴속에 차고있던 사업에서의 불성공에서 오는 분하고 억울한 감정과 그리고 그밑에 깊이 묻혀있던 오빠와 언니를 비롯한 모든 가까운 사람들의 불행과 관련된 온갖 아픈 추억들을 모조리 흔들어깨워 들추어놓고야말았다. 정혜는 가슴이 걷잡을수 없게 떨리며 설음이 터져올랐으나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가까이 아는 사람들은 왜 언제나 이런 운명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정혜는 이런 불길한 상념들에서 벗어나려는듯 얼굴을 쳐들며 흔들었다.

문득 조칠성의 생각이 났다. 웬일인지 그만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슬쩍 벗어나 익살스레 웃으며 나타날것 같은 안도감이 갔다. 그러나 곽병식소대장동지는 그보다 약한 사람처럼 생각되였다. 이 생각은 집게처럼 그의 가슴을 저려나도록 집고는 놓아주질 않았다.

밖에서 마주 걸어오는 발자국소리가 울리더니 두사람의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됐나？！》

《말말라구. 아직 파들어가는데 에이참… 목이 쉬도록 불러봐야 감감이야. …》

정혜는 건조실문가로 가서 내다보았다.

콩나물을 수북이 담은 함지를 안은 독고세와 땀에 후줄근해지고 눈이 휘둥그래진 신찬일이가 갱도복판에서 마주서 이야기하고있었다.

《다른 동무들은 마침 버럭 운반하러 나갔다지？…》

《나두 까딱했더면… 소대장동무가 쉬라고 하는게 아니겠나.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버럭 운반하러 우기구 나갔지. 소대장동진 교대도 없이 막장에 와계셨어. 아 참, 우리가 소대장동지를 더 아꼈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줄을 어떻게 알았겠나. 아무리 불러봐야 아직 소리 없는걸 보니…》

《아, 참… 좋은 소대장동지였지！…》

정혜는 흰 팔을 드러내놓은것도 잊고 그들옆으로 나서며 분에 떨리는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동무들은 부끄럽지도 않아요？！ 왜 벌써 그런 소리들을 해요？！ 동무들은 어쩌면！…》

《아, 아… 그런게 아니요. …》

하며 찬일이가 변명하려고 하였으나 정혜는 솟구치는 눈물을 보이기 싫어 홱 돌아서 뛰여들어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던지, 정혜는 누군가 뒤에서 자기를 보고있는듯한 감을 느끼며 머리를 돌렸다.

문밖에 고병근중대장이 뒤짐을 쥐고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있었다. 그의 팔소매는 험상궂게 찢겨져있었다. 정혜는 죄지은 소녀처럼 얼른 일어났다. 그앞에서 언제나 무뚝뚝하던 고병근중대장은 기특해하는 눈길로 처녀를 보며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 이거 안됐소. 무슨 이런 수고를 다하오. 정혜동무, 이제 다 무사히 될거요. …》

정혜는 내의를 손에 든채 머리를 떨구고있었다. 고병근은 무겁게 한숨을 짓더니 말을 이었다.

《우리 보병들하구 지내자니 고생스러운 일이 한두가지 아니겠는데, 내라는게 이래놔서, 참… 고민하지 마오. 저놈들은 정혜동무의 방송에 질겁하여 가슴이 서늘할거요. 이제 차차로 투항해오는놈도 있을게구. 저 3소대장도 구원될게요. 아무렴, 맘을 누긋하게 먹으면 다 되오.》 그리고 고병근중대장은 어색하게 웃어보이고는 머뭇거리다가 가버렸다.

정혜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부드러운 말을 들으니 알수 없는 설음이 북받쳐올랐다. 그러나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고는 허리를 구부정하고 돌아섰다.

6

그들, 두사람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든 생활과 절연된 어둠속에 누워있었다.

《소대장동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예?! 왜 아직 소식이 없을가요?!》 하고 조칠성은 중얼거렸다.

막 엎어져 코를 서늘한 돌바닥에 대고있던 곽병식은 몸을 뒤채겨 반듯이 돌아누우며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파들어오고있을게요!》

《물론 파들어오겠지요. 그런데 왜 아직 깜깜인가요!》

《믿고 기다리기요!》

곽병식은 참기 어려운 고통을 가까스로 누르며 간단히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시계를 눈앞에 갖다댔으나 어둠때문에 아무것도 볼수 없었다. 벌써 며칠이 지나갔는지 아니면 불과 몇시간이 지났을뿐인지 시간의 흐름을 가늠할수 없는것이 죽도록 안타까왔다.
굴이 허물어져내렸을 때 처음 한동안 그들은 손더듬으로 바위부스레기들과 흙을 정신없이 파내며 구멍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바위와 바위들의 틈바구니에 얼굴을 박고 온 중대원들의 이름을 목이 터지도록 불렀다. 그들은 바위부스레기들을 더 파내다가 굴 한모퉁이가 허물어져내리는통에 하마트면 깔릴번했다.
굴이 아주 허물어져내릴 위험이 있었다. 하여 두사람은 어둠속에 까딱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게 되였다.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며 숨쉬기가빠났다.
곽병식은 내내 시계를 귀에 대고있었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 목숨같은 시간이 덧없이 암담한 공간으로 토막토막 떨어져나가버리는듯한 그 소리는 비밀갱도공사가 지연되며 련대의 총공격이 지연된다는 생각으로 그의 가슴을 옥죄였다. 군단과 전선사령부에서 지원되여나오는 포차들의 불빛이 눈앞에서 언뜻거리고 강태욱련대장과 고병근중대장, 김문규정치부중대장의 초조한 얼굴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박광준, 리명보, 신찬일을 비롯한 대원들의 환하면서도 퉁퉁 부어오른듯한 얼굴들이 잡힐듯이 바로 눈앞에 보였는데 때로는 그것들이 흐릿하게 구름처럼 흩어지기도 하고 한데 어울려서 끝없는 암흑의 공간으로 떠올라가며 눈보라 세찬 밤 추녀밑에서 행인들의 길을 밝히는 초롱불처럼 흔들거리기도 했다. 어둠, 공기의 희박감, 적막감, 갈증때문에 앞가슴을 마구 헤쳐놓고 쓰러져있는 곽병식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듯 온몸의 정신을 집중해서 눈을 크게 뜨며 바라보았으나 그것은 구름속을 누비며 살같이 날아가는 달처럼 어둠속에 사라졌다가는 솟아나오며 눈부신 빛발을 뿌리기도 하고 다시 어둠에 가려 어슴푸레해지며 흔들거리다가 어떤 악착스런 힘이 빼앗아간듯 가뭇없이 사라졌다. 캄캄한 어둠이 숨구멍들을 틀어막듯 콱 덮치며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소대장동지! 소대장동지! 숨이 막혀 못참겠소!》
조칠성이 몸을 뒤척이며 무엇인가 바위에 힘껏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곽병식이 정신이 들었다.
《가만있소! 왜 움직이오! 파들어올 때까지 힘을 아껴야 하오!》
《파들어온다구요! 파들어온다?!》

《파들어오고있소!》

《파들어오겠지요. 나같아도 피투성이 되도록 파들어오지요. 그런데 뭣들 하는거야?! 며칠이 지나도록…》

《며칠은 무슨 며칠이요! 동무가 급해하니 시간이 많이 흐른것 같이 생각될뿐이요. …》

《정말 그럴가요? 두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을가요?!… 소대장동지! …가슴이 왜 이렇습니까?!… 공기가… 다 없어진게 아닌가요?! 소대장동지!…아, 나는 못참겠소!…》

곽병식의 눈앞에는 열기 띤 눈을 디룩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앞가슴을 헤집고있을 조칠성의 모습이 선히 떠올랐다. 바다가에서 갈매기들의 자유로운 날음을 보며 자라난 그, 격랑과 부딪치며 내달리는 고기배에서 일한 그, 도래굽이를 치며 하늘높이 솟아오르는 파도의 포말에 더운 몸을 식히며 살아온 그가 아니였던가. 그로서는 이런 밀폐된곳 어둠속에서 온갖 고통을 참아낸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울것인가… 그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그는 조칠성에게로 기여가서 손더듬으로 땀에 젖은 얼굴이며 가슴팍을 쓰다듬어주고 번열이 떨어지라고 바지발목단추까지 벗겨주면서 위로의 말들을 했다. 곽병식은 그가 전우들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끔 장마행군때의 이야기며, 주먹릉선에서 칼릉선의 2소대와 지원사격을 하던 이야기며, 적후에서 박광준이와 자기가 최후를 결심했다가 구원되던 이야기들을 했다. 조칠성은 무엇인가 상기하는듯 잠자코 있더니 후 한숨을 내쉬였다.

《소대장동지! 소대장동지도 이렇습니까? 난 숨을 못쉬겠습니다. 재가 가슴에 들어찬것 같은게 이상합니다!》

《그런 생각을 마오, 자꾸 생각하면 더 답답해나오. 동무들 생각을 하오! 이런 땐 동무들을 믿어야 마음이 든든해지오!…》

갑자기 귀안에서 《앙—》 하는 소리가 울리며 적막감이 엄습해들었다.

곽병식은 무엇인가를 찾으려는듯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렸다. 끝없이 무한대한 어둠이 그를 에워싸고있었다. 반듯이 누워서 어둠속을 쳐다보면 볼수록 자기 몸우에 무게를 가진듯한 어둠이 점점 두껍게 쌓여져서 아득히 높은 산악을 이루어 형언할수 없는 중압감으로 가슴을 짓누르는것이였다. 얼굴과 목에 진땀이 흘렀다. 숨이 막혔다. 뛰여 일어나 요동을 치며 그 산악같은 어둠을 허물어버리고싶다. 소리소리 지르면 가슴이 후련해질것만 같다. 그러나 곽병식은 옆에서 모대기고있는 조칠성에게 안정과 위안을 주기 위하여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었다.

(파들어올것이다. …좀 있으면 구멍이 펑 뚫리고 밝은 빛이 쏟아져들어오며 동무들이 뛰여들어와… 우리를 얼싸안을것이다！)

곽병식은 몸을 뒤척이며 돌아누웠다. 눈앞에서 노랗고 빨간 동그라미들이 날아다녔다. 의식이 흐려지던 곽병식은 거친 숨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둠속에서 조칠성이 답답함을 참지 못해 안깐힘을 쓰고있었다. 헐떡거리는 숨소리, 이 구석 저 구석에 몸을 부딪치는 소리. 곽병식은 벌떡 뛰여일어나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가 조칠성의 몸뚱이를 부둥켜안았다.

…사람은 림종의 순간에야 진정한 어둠을 본다. 캄캄하게 흐린 그믐밤하늘에는 우주를 흐르는 빛발들이 은근한 후광처럼 비쳐든다. 수백길 지심속에 허물어져내린 갱 막장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어디선가 구원의 손길이 뻗쳐오리라는 희망이 한동안 가슴을 어슴푸레 밝혀준다. 그러나 그 희망마저 꺼져버리면 림종의 순간 마지막으로 명멸하던 생의 불꽃이 꺼지는 순간, 콱 덮치는것과 같은 어둠이 달려들며 인간에게서 지각이며 리성이며 모든것을 빼앗아가기 쉽다.

조칠성에게는 그것이 닥쳐왔다.

조칠성은 맥을 놓고 그에게 몸을 의지했다.

곽병식은 그를 눕혀놓고는 팔목을 꽉 움켜쥐여 흔들며 부르짖었다.

《칠성이, 칠성동무, 정신을 차리라구！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갱도를 마련해주시고 우리가 뜨뜻이 지낼수 있게 온돌까지 놓도록 해주셨는데 한번 싸움도 못해보고 이렇게 쓰러지면 되는가. 살아서 끝까지 싸우자구！》

《소대장동지, 밖에서 파들어오겠지요？！》

《파들어오오！》

《아, 그런데 난 왜 이럴가요 젠장, 왜 이래요？！》

《이런 땔수록 동지들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하오. 그것이 약하면 더 암담해져 견디기 어려워나오. 명보동무나 찬일동무나 광준동무나 그 동무들은 우리를 구하려고 지금 무진 애를 쓰며 파들어오고 있을게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괴로울게요. …》

조칠성은 잠자코 있었다. 자기의 지난 생활을 더듬어보고있는것 같았다. 이윽고 그는 자기를 뉘우치며 모대기는듯 몸을 뒤채기며 가쁜 숨을 내뿜었다. 그가 무엇인가 상기하며 고민하는게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안도감이 왔다. 그러자 온몸이 솜처럼 나른해지며 그 자리에 누워버렸다. 또다시 무거운 어둠이 가슴을 짓누르고 숨이 가빠났다. …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조칠성의 갈린 목소리가 들렸다.

《소대장동지！》
《…》
《소대장동지！ 아하 어디 있습니까？！》
조칠성은 어둠속에서 이따금 이렇게 소대장을 찾았다. 그때마다 곽병식은 《내 여기 있소.…》 하고 대답해주었다.
곽병식은 자기에게 의지하고싶어하는 조칠성의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그에 대한 측은한 생각도 들었다. 그에게서 이런 의존심은 처음 보는 일이였다. 그럴수록 소대장은 그에게 안도감을 주기 위하여 될수록 몸을 뒤채기지 않고 반듯이 누워있으려고 애썼다.
《소대장동지는 어떻습니까. 나는 목에서 불이 붙습니다. 아,물…》
조칠성의 이런 하소연은 그에게도 참을수 없는 갈증을 불러일으킨다. 갑갑증이 나고 번열이 나고 목구멍에서 황황 불길이 타오르는것 같다.
어디선가 쓰르라미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소곤소곤 속삭이는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비가 내리는 소리로 들린다. 비는 좍좍 소리를 내며 퍼붓는다. 어느덧 장마행군때 비속을 걸어가던 전사들의 발들이 눈앞에 환히 보인다. 비물이 쿨쩍거리는 발,발,발들… 물웅뎅이를 첨버덩거리며 걸어가는 발들,퍼붓는 비에 물보라가 뽀얗게 일어나는 길로 걸어가는 행군대오의 발자국소리 처벅처벅처벅,포성이 울린다！ 돌격의 함성이 울린다！ 나팔소리가 귀청을 때린다.… 전사들은 한달음에 령을 내린다. 골짜기에 내려오니 깎아지른듯한 절벽우에서 폭포가 쏟아져내린다.
고병근중대장은 전사들을 돌아보며 이 골짜기만 벗어져나가면 평양이니 모두들 물에 뛰여들어 전쟁 3년간에 흘린 땀을 씻으라고 명령한다. 전사들은 옷을 벗어던지고 폭포수 떨어지는 물속으로 뛰여든다. 전사들은 웃어대며 떠들며 물장구를 치고 자맥질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는 다시 솟구쳐오르기도 하고 서로 붙안고 물쌈을 하기도 한다. 박광준이와 명보는 서로 물을 끼얹으며 좋아라 웃어댄다. 조칠성은 우로 솟아오르지 않고 고기처럼 물밑에서 유유히 헤염쳐 돌아가고 있다. 곽병식은 급해서 단추를 마구 벗기며 물속에 풍덩 뛰여든다. 그는 해살이 스며드는 파란 물밑으로 자맥질해 들어간다. 물밑은 고요하다. 부풀어난듯 크게 확대되여보이는 전사들의 팔다리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리고 유리알같이 반들거리는 조약돌이며 모래들이 보인다. 그는 물을 꿀꺽꿀꺽 마신다. 그러나 물은 뜨겁고 짜다. 그는 놀라서 몸을 꿈틀거리며 솟아올랐다가는 다시 자맥질하여 들어가며 물을 들이

킨다. 물은 역시 불같이 뜨겁고 짜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며 번열이 난다. 그는 물우로 솟아오른다. 어찌된 일인가. 전사들은 간곳 없고 그 혼자만이 뜨겁게 끓어번지는 물우에서 몸을 뒤척이고있다. …

곽병식은 놀라서 정신을 차린다. 여전히 어둠, 고요, 목에서 불길이 황황 타오른다. … 어디선가 실개천이 조잘조잘 속삭이며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는 다시는 환각에 우롱당하지 않으려는듯 그 소리를 믿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어둠속 어디선가 들려오는 물의 속삭임소리는 거대한 힘으로 그를 유혹한다. 어느덧 곽병식은 해빛을 받아 반짝이는 실개천의 조잘거리는 흐름을 눈앞에 환히 본다. 물비린내까지 풍겨온다. 물! 물! 찬물속에 머리를 틀어박고 꿀꺽꿀꺽 마시고싶은 충동을 억제할수 없다. 그는 말라터진 입술을 감빨며 그리로 기여간다. 끝없이 멀다. 조잘거리기도 하고 찰랑거리기도 하는것 같은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더욱 마음이 조급해지며 목구멍을 불로 지지는것 같다.

그는 왼팔을 내뻗쳐 물을 덥석 쥔다. 물이 아니라 동그랗고 싸늘한 물체가 손에 잡힌다. 그것을 만져본다. 시계였다. 조칠성을 안고 딩굴 때 뿌리워 나간 모양이다.

(아, 시계소리였댔구나. …)

그는 시계소리가 그처럼 많은 환상을 불러일으켰다는것을 알자 맥이 탁 풀리며 쓰러지고만다.

그는 온몸을 불사르는듯한 갈증을 이기지 못해 두팔을 맥없이 던지고 벌렁 누웠다가는 태질을 하듯 막 엎어져서 몸부림친다. 아, 물! 물! 이때 그의 머리속에 물기에 번들거리던 바위생각이 아지랑이처럼 아물거린다.

그는 머리를 꽉 움켜잡고 정신을 바싹 가다듬으며 생각한다. 어디던가? 어디에 있던가? 언제 봤던가?… 그는 고기냄새를 맡은 맹수처럼 눈에 불을 켜고 그 생각을 집요하게 좇는다. 이때 막장 오른쪽담벽이 물기에 늘 젖어있었던 생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친다. 그는 메를 휘두르고나면 몸이 화끈 달아올라 그 서늘한 바위에 잔등을 붙이고 쉬였던것이다. 방향에 대한 지각을 완전히 상실한 그는 처음 허물어져내린데를 찾아내고 그곳을 기준으로 하여 오른쪽을 판단한다. 곽병식은 오른쪽암벽을 따라 기여가며 성급하게 손더듬해본다. …축축히 젖은 바위가 손바닥에 감촉되자 그는 말라터진 입술을 콱 갖다대며 마구 비빈다. 서늘한 기운이 입안에 쓸어들고 온몸에 번진다. 그러나 그

것으로 성차지 않다. 물속에 머리를 틀어박고 마시고싶다. 배가 터지도록 꿀꺽꿀꺽 마시고싶다! 하여 더 안타까운 갈증을 느낀다. 그러나 그는 바위옆에 웅크리고 앉아 고삐를 끊고 내달리는 말처럼 날뛰는 조급한 마음을 억센 의지로 다잡고 곰곰히 생각해본다.

부석바위에서 슴새여나와 이슬처럼 맺혀있는 이 물기를 어떻게 하면 한데 모아서 마실수 있겠는가? 과연 어떻게 하면 속이 후련하도록 꿀꺽꿀꺽 마실수 있을가? 곽병식은 옆구리에 찬 개인붕대포를 만지작거리다가 그것을 떼낸다. 그는 고무레자를 북 찢고 안에서 솜뭉치와 붕대두루마리를 꺼내서 그것으로 바위에 맺혀있는 물기를 조심조심 찍어낸다. 솜뭉치는 물기를 한껏 빨아들여 인차 축축하게 젖는다. 어느덧 조금만 힘주어쥐여도 손가락 짬으로 써늘한 물이 흘러내리게 된다. 됐구나! 됐구나! 물이 있다! 물이 있다!

그의 말라터진 입가엔 회심의 미소가 어린다. 곽병식은 물이 철철 떨어지는 솜뭉치를 입에 대고 그 시원한것을 욕심껏 빨아들이고싶었으나 조칠성을 생각하고 그에게로 기여간다. 그는 왜 이처럼 몸도 움직임없이 한마디 하소연도 없이 잠자코 있는것인가? 내 꾸중을 듣고 이를 악물고 자존심을 지키고있는것인가? 그 성미에 얼마나 번열이 나고 갑갑할텐가? 그는 솜뭉치를 들고 조칠성을 찾아 어둠속으로 기여간다. 조칠성은 뒤켠구석에 막 엎어져있었다.

곽병식은 식은땀이 질벅한 그의 얼굴을 쓰다듬어보고 물이 철철 흐르는 솜뭉치를 말라터진 입술에 갖다댄다.

《이게 뭡니까?!》

《물이요!》

《어디서요?!》

《내 찾아냈소!》

《빨아마시라구!》

조칠성은 헉 하고 모질게 흐느끼는것 같더니 솜뭉치를 쥔 그의 손을 뿌리친다.

《내까짓게 뭐라구요. 소대장동지부터…》

《무슨 소리요?! 마시라구!》

곽병식은 한팔로 그의 머리를 안고는 솜뭉치를 입안에 우악스럽게 틀어민다.

《마시란말이요! 명령이요!》 곽병식의 험악한 목소리는 위압적으로 울린다.

조칠성은 물을 꿀꺽꿀꺽 넘기더니 불덩이같은 손으로 그의 팔을 더듬어서 으스러지게 잡고 몸을 떨며 울음섞인 말을 터뜨렸다. 곽병식은 아연해서 그를 쥐여흔든다.

《칠성동무！ 칠성동무！ 왜 이리오？！》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소！ 없어요！ 나는 소대장동지를 속였소！…》

《무슨 소리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이구 친척이구 다 없어요！ 다 죽었소！ 저 원쑤놈의 새끼들이 다 죽였소！》

조칠성은 비분에 떨며 부르짖었다.

…거무칙칙한 하늘을 물어뜯으며 길길이 솟구쳐오르는 파도와 그우에 떠있는 눈꽃처럼 희디흰 갈매기무리들의 자유로운 날음과 어부들의 괄괄하고 통이 큰 성미, 어촌아낙네들의 드세고 걸치레 모르는 말씨는 어린 칠성의 담을 키워주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피발이 선 눈으로 아들을 가로쏘아봤는데 그것이 저녀석이 꽤 사람구실을 하겠는가 하고 가늠해보는 엄한 사랑의 눈길이란것을 알기에는 칠성의 나이가 너무 어리였다. 칠성의 어린 가슴에서는 아버지에게 자기를 나타내보이고싶은 배심이 은근히 살아올랐다. 어느날 어부들은 선주놈의 낡아빠진 배를 모래불에 들어올려 수리하고있었다. 칠성은 갈매기알이 많으나 누구도 올라가지 못하는 아찔하게 높이 솟은 바위우로 보란듯이 기여오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바다물속으로 떨어지고말았다. 사람들이 달려왔다. 칠성의 아버지는 웃도리를 훌렁 벗어던졌으나 물속에 뛰여들지 않고 넙적한 바위우에 웅크리고 앉아서 시퍼런 바다물속을 들여다만 봤다. 바다가로 몰켜와 왁작 떠들며 야단법석을 치던 아낙네들은 아버지가 방정을 떨지 말라는듯 엄한 눈길로 돌아보자 모두 입을 다물고말았다.

물밑에서 정신을 차린 조칠성은 일이 이렇게 틀어진바치고 조개잡이나 하자는 배심으로 자맥질해다니며 조개를 주어가지고 우로 솟구쳐올랐다. 아버지는 말없이 돌아서 가버렸다. 녀인들은 칠성이가 조개까지 잡아가지고 나온것을 보자 그 애비에 그 아들이라고 하면서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대견해하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이제 자라서 또 어느 녀자 속을 썩이겠는가고 한숨을 지었다. 그후부터 아버지가 밤이면 몰래 자기 베개도 바로 베워주고 차버린 이불도 덮어주고 발도 꽉 쥐여본다는것을 알게 되자 칠성은 어리광을 부려보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어느날 아버지는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와 두팔을 쩍 벌리고 누워서 동생들을 배우에 올려놓고 《말타기》

를 시켰다. 그때 칠성은 가래짝같이 큰 아버지의 손바닥에 자기 손을 견줘보며 아버지는 힘도 장사고 주먹도 이렇게 큰데 왜 사람을 치지 않는가고 물었다. 아버지는 술기운에 불그레해진 눈에 웃음을 가득 담고 이놈아, 손이란건 사람을 치라고 있는게 아니라 벌어먹으라고 붙어있는게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느냐는듯 어머니를 쳐다봤다. 어머니가 얼굴이 환해지며 웃자 칠성이도 따라웃었다. 동생들도 덩달아서 아버지의 배를 탕탕 구르며 좋아라 손벽을 쳤다.

어느해 가을 아버지네들은 늘 타고 오던 낡아빠진 배가 아니라 다른 목선에 실려왔는데 모두들 피기없는 얼굴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태풍에 휘말려들어간 배가 산악처럼 솟구쳐오르는 파도우에 떴다가 떨어지는바람에 원체 낡아빠진 선체가 견디지 못하여 쩍 갈라지고말았던것이다. 부서진 배쪽에 매달려 파도에 정처없이 밀리던 어부들은 다른 어촌의 목선에 구원되였던것이다. 수중혼이 될번하다가 살아돌아온 남편들을 맞아 방에 눕혀놓은 어촌아낙네들은 어서 몸을 추서게 하려고 했으나 어느 집에나 끼니쌀도 변변치 못하였다. 성미 드센 어촌아낙네들은 선주놈에게로 몰려가 밀린 품삯을 내라고 들이댔다. 선주놈은 품삯은커녕 오히려 자기 배를 잘못 몰아 깨먹었노라면서 그날 배를 탔던 어부들에게 배값을 걸머지웠다. 이런 생벼락같은 소리를 듣자 분을 참을수 없었던 녀인들은 선주놈에게 네놈은 우리 남편들이 살아돌아온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 우리가 과부신세로 됐으면 속이 편하겠느냐고 소리지르며 품삯을 내라고 요구했다. 선주놈이 내리치는 개화장에 이마가 터진 두 녀인이 피투성이 되여 쓰러졌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선주놈에게로 달려가서 아무리 돈없고 천대받으며 사는 사람들의 안해라고 해서 네놈이 감히 손찌검을 할수 있느냐고 소리치며 그놈의 멱살을 틀어쥐고 넝큼 들어올렸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짓밟아버렸다. 파도소리 소란한 그날밤 왜놈경찰들은 아버지를 끌어갔다. … 아버지는 광복이 되여서야 감옥에서 나왔다. 칠성이가 쇠장대를 들고 선주놈네 집을 찾아갔을 때 놈은 이미 뺑소니쳤다.

광복후 남으로 도망쳤던 선주놈과 그의 아들이 전략적일시적후퇴때 미국놈을 등에 업고 들어와서 만행을 하기 시작했다. 놈들은 광복직후부터 고기잡이배에서 선장으로 일한 로동당원인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들을 한데 묶어서 도래굽이로 끌고 가서 바다에 처넣었다. 바다는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의 무덤으로 되였다.

《…나는 그후부터 바다가 보기 싫어졌어요! 재진공때 병원에서 퇴

원하여 나오다가 고향에 들렸는데 살아남은 마을할아버지가 죄다 얘기해줬어요. 저놈들이 사람들을 총으로 쏴죽인줄 압니까. 부러진 노대로 쳐죽이고 자전거줄로 때려잡았소. 저놈들이 사람잡이를 끌내고 술상을 벌렸는데 한놈의 말이 조씨네 문중것들은 다 쓸어버렸는데 칠성이놈만 군대에 나가서 빠졌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치안대장〉 장택기란놈은 조칠성이 그놈은 애비를 닮아서 승벽이 세구 성미가 돼먹기를 이만저만이 아닌데 집소식만 들어두 간이 터져 늘어날게다, 가만놔둬두 눈물을 질질 흘리며 시들어버릴게라구 했답니다. 소대장동지, 내 저놈들한테 꺾이기 싫어 웃으며 살았어요! 남한테 우는 소릴 하기 싫구 동정을 받는게 싫어 속였소! 이 쌈판에서 뼈를 아끼는걸 보면 깔보게 되구 참지 못해서 동무들한테두 그렇게 됐어요. 난 바다가 보기 싫어졌소. 저놈들은 나한테서 바다를 빼앗아갔소!》

《칠성이!》

《소대장동지! 아하! 아하! 저놈들을 생각하면 이 가슴에 바다같은게 끓어번져 못참겠소!》

《이기자구! 복수하자구!》

《소대장동지, 복수하겠어요, 복수! 그리고 배터지게 웃으며 살겠어요!》

곽병식은 그의 머리를 가슴에 붙안고 비분보다도 그 인간에 대한 애정때문에 눈물이 솟았다. 이것이 조선사람이다! 자기의 아픔과 슬픔과 약한 점을 감추고 웃으며 살아가면서 싸우는것, 이것이 조선사람의 성미다!

7

허물어진 굴을 파헤치고 전우들이 뛰여들어갔을 때 소대장과 전사는 부둥켜안은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었다.

두사람을 업어다가 병실 따뜻한 아래목에 눕히고 주사를 놓은 다음 안정을 시키니 의식을 회복했다.

3소대 병실은 문안하러 온 중대 군관들과 전사들로 가득찼다. 떠드는 소리, 활기띤 웃음소리가 계속됐다.

리명보는 박광준이 땅을 치며 통곡하던 흉내를 내여 좌중을 들썩하게

웃겼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곽병식소대장과 박광준에게로 쏠렸다.

박광준은 빙그레 웃으며 얼굴이 불깃해져서 덜미를 만졌다.

《지금 생각하니 우습지, 그땐 정말 제가 방정맞은 생각을 했길래 소대장동지를 아주 잃는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명보를 넌지시 돌아보며 한마디 던졌다.

《명보동무! 요친구야! 남의 흉 볼것 있나. 저는 왜 얼굴을 싸쥐고 야단을 쳤댔나, 엉?! 허허허…》

이렇게 웃는 그의 눈굽에서는 행복과 기쁨의 눈물이 빛나고있었다. 이때 곽병식은 그의 손가락끝들에 마른 피가 엉겨붙은것을 보게 되였다. 자기앞에 대견한 미소를 짓고 앉아있는 고병근중대장, 김문규정치부중대장 그리고 명보와 다른 전사들의 손도 같은 모양이였다. 곽병식은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흙버럭을 뚜지고 바위를 끌어내느라고 피터진 그 손들을 한데 모아 가슴에 그러안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모여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돌아봤다. 몇년만에 헤여졌다 만난 형제들처럼 그 얼굴들이 더욱 따뜻하고 살뜰하고 미더웁게 생각되여 육친의 정이 가슴에 사무쳐왔다.

식당에서 미리 준비해놓았던 미음과 푸짐하고 신선한 반찬들을 가져왔다.

고병근중대장은 조칠성에게 숟가락을 쥐여주며 말했다.

《들라구. 련대장동지가 내려와서 동무들을 잘 대접하라고 일러서 준비해놓은거요. 자, 들라구. 련대장동지두 동무 식성을 잘 안다고 말씀했소, 허허…》

조칠성은 여느때 같으면 배포유한 소리라도 한마디 던졌을텐데 웬일인지 어색하게 웃을뿐이였다. 그는 전사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같이 웃기도 했으나 그들의 시선을 피하는것이 알렸다.

고병근은 반찬그릇을 그앞에 갖다놓으며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용케 견뎠단말이야, 그 성미에…》

조칠성은 머리를 수굿하고 미음을 퍼먹기 시작했다. 그의 귀가 빨갛게 상기되는것을 곁눈으로 느끼며 곽병식은 그를 감싸주고싶은 마음에서 굴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는 자기 혼자 알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는 중대장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둘이 있으니 서로 의지되면서 마음이 더 굳세여졌습니다.》

《그랬을거요.》 하며 김문규는 숨을 크게 내쉬였다.

《나는 가슴에 재만 남는줄 알았다니깐, 허허 참…》

《정치부중대장동지, 동지들에 대한 믿음이란게 참 힘있는것이였습니다. 여기서 파들어온다는 생각이 없으면야 저희들이 무슨 힘으로 그걸 견뎌내요. …》

《가만, 이거 다 식겠소. 이러다간 안되겠소. 정치부중대장동무, 갑시다.》 하고 고병근은 펄쩍 놀란듯 부산을 피우며 일어나서 모여선 군관들과 전사들에게도 헤쳐가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3소대 전사들도 림시로 다른 소대 병실에 가있고 식사가 끝나면 두사람을 푹 재우며 여기에는 직일병만 남기라고 지시했다.

3소대 병실에서 나온 고병근과 김문규는 중앙갱도를 따라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중대장동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저녁 비밀갱도작업을 다그칠 문제로 군무자총회를 열가 하는데요. …》

《군무자총회를？…》

《예…》

《빈 구호만 부르지 말구 결의목표를 똑똑히 내세우구 불을 지르기요！ 참, 이거 비밀공사만 아니면 사단신문에다두 내서 소문이 자자하게 떠들면서 해보겠는데…》

《기한전에 해낼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을가요？》

《기한전이라, 건 맘먹기탓이긴 한데 음.》

고병근은 미간을 찌프리고 눈을 엄하게 빛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건조실쪽에서 흘러나오는 구성진 퉁소가락에 눈길이 부드러워지며 걸음을 멈췄다. 그는 머리를 기웃하고 눈을 지혜롭게 내리뜨고는 퉁소가락이며 식당에서 나는 칼도마장단이며 목욕탕에서 들리는 전사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를 듣고있는것이였다.

탄약통, 비린내 풍기는 고등어가마니, 쌀포대, 장작단, 얼군 돼지고기, 모포두루마리 등을 안고 지고 갱도속을 오가는 전사들의 얼굴마다에는 생신하고 씩씩한 활기가 넘치고있었다. 그들은 서로 만나서는 익살스러운 롱말을 던지며 웃어대기도 하고 잔등이나 엉뎅이를 철썩 때리며 지나가버리는것이였다.

고병근은 갱도안에 차고넘치는 이 번거로운 생활의 소음과 움직임속에서 억세고 도도한 생활의 맥박을 엿듣는것 같았다. 그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김문규를 돌아봤다.

《좀 들어보라구. 허참, 이거 무슨 날 같지 않소？！ 명절날이나 장날이나, 허허…》

《이번 일을 통해 우리 동무들을 더 사랑하게 되구 더 믿게 되였습니다!》
《이런 사기면 기한보다 앞당겨서도 완수할수 있겠소! 군무자총회를 엽시다!》
《제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때 건조실 널문이 열리며 하얗게 마른 내의를 한아름씩 안은 정혜와 키가 껑충한 3소대의 한 전사가 나왔다.
정혜는 두 군관에게 눈인사를 하고는 옆으로 지나갔다.
고병근은 걸음을 늦추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얼굴은 전에없이 부드럽고 상냥해졌다.
《참 기특한 동무요. 우리 식구가 다 됐거던.》
김문규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처녀가 처음 왔을 때 그가 기뻐하면서도 당황해하던 일이 생각났던것이다. 김문규는 이처럼 용감하고 능청스러운데도 있는 지휘관에게 어쩌면 이렇듯 단순하고 순박한데도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며 그의 소박한 사람됨에 애정이 더 가는것이였다.
《정치부중대장동무, 나는 갱도에 정이 붙었소! 전쟁이 끝나도 여기서 그냥 살고싶소! 동무야 과학원이나 대학으로 돌아가겠지. 웬통 대리석으루다 번들거리는 과학원 현관에 이 보병중대장이 나타나면 모르는체 마오. 산에서 나서 산에서 자라고 산에서만 싸운 위인인데 도시구경이랑 시키구 가슴을 덥힐게랑 사다가 푸짐하게 대접도 하란말이요. …》
《원 참 중대장동무두, 나는 중대장동무곁에서 내내 일하고싶습니다. 어디로 떠난단말입니까. …》
《전쟁도 끝날 날이 다가오는것 같은데 이제 헤질 날이 있을게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벌써 전후복구건설 구상을 끝내시였다오. 당에서 부른다면 인재들이야 가야지. 어디 가서나 이 갱도를 고향집처럼 잊지 말란말이요. 갱도를 꾸리던 솜씨로 도시를 건설하고 공장을 복구하면 다 잘될게요.》
김문규는 가슴이 반석같던 이 중대장이 오늘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의아해서 그를 돌아봤다.
고병근의 눈에는 미래를 내다보는 기쁨과 함께 알지 못할 서글픔이 배여 그 무뚝뚝하고 순박하던 눈이 전에없이 웅심깊고 따뜻해보였다.
곽병식은 식사를 물리고 명보가 깔아주는 자리에 누웠다. 따뜻한 온돌에 잔등을 붙이니 푸근하고 행복한 안도감에 온몸이 녹아들며 눈이 스르르 내리감겼다. 달콤한 졸음이 몰려오며 부드럽고 훈훈한 안개

에 감싸이는듯 모든것이 흐리멍텅해졌다.
 풀잎이 이슬방울을 털며 살랑대는것 같고 락엽무지속으로 고슴도치가 뛰여다니는것 같은 상냥하고 즐거운 음향이 그의 가슴속에 자욱히 서린 졸음을 흔들어놓았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달그닥거리는 소리, 곽병식은 몽롱한 의식속에서도 그것이 직일병으로 남은 명보가 자기들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발끝으로 걸어다니며 조용조용 식기들을 거두고 방을 치우는 소리란것을 흐릿하게 느꼈다.
 (얼굴을 싸쥐고 눈물을 흘렸다지. 내가 제 형이나 아저씨라도 되는가. 아 참, 우리 소대에 어찌다가 저런 귀염둥이가 있을가.)
 그는 명보를 불러앉히고 무엇인가 살뜰한 말이라도 해주고싶었으나 도무지 눈이 떠지지 않고 입술을 놀릴수도, 목을 움직일수도 없다. 그저 온몸이 솜처럼 풀리며 부드럽고 아늑한 안개바다의 끝없는 고요속으로 깊이깊이 잠겨들어가는듯했다. 내리감은 눈우에 덮여있는 어둑한 보라빛 하늘이 언뜻 환해져서 눈을 떴다.
 류정혜가 가슴가득 눈부시게 환한것을 안고 들어왔다.
 《정혜동무!》
 류정혜는 그 한마디에 얼굴이 환하게 상기되였으나 소대장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빨래를 온돌에 내려놓다가 흑 하고 느꼈다. 그리고는 자신을 다잡지 못하고 얼굴을 한손으로 가리우며 외면한채 달려나갔다.
 곽병식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는 눈을 조용히 내리감고 반듯이 누워있었다.
 얼마후 문밖에서 명보의 목소리가 울렸다. 아마 식당에 그릇들을 갖다주고 돌아오는길인 모양이다.
 《누가 뭐라고 합디까?》
 《아니 눈에 뭐가 좀 들어가서…》
 《에익 고놈 쥐새끼들이 천장을 싸다녀서 먼지를 자꾸 떨군단말입니다. 다 소멸해버려야지!》
 《내의들을 갈아입도록 하세요.》
 정혜는 명보에게 끌려서 들어오는것 같았다.
 《야! 막 눈처럼 희네! 우린 암만 빨아두 이렇게 안돼요. 그전에두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많이 하긴 첨이지뭐. 다리미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가.》
 《다리미? 그건 간단한데요!》
 《어떻게?》

《내가 련락병으로 있을 땐데 한번은 외국기자가 찾아왔어요. 중립국이라나요. 우리 중대장동지하구 담화하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배낭에 간수했던 새 군관복을 꺼내서 입혔더니 배낭속에서 구겨져서 주름살투성이 아니겠어요. 그런 옷을 입혀 어떻게 중대장동지를 〈국제무대〉에 내세워요. 생각해보다가 로획한 보병삽에다 불을 떠놓고 다려봤더니 진짜배기 다리미 못지 않아요. 제법이지요뭐…》

《명보동무, 다음부터 우리 그렇게 하자요! 갱도속에서 모두 옷을 다려입구 명절에랑 바지에 줄을 쭉쭉 세우고 다니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예!…》

《분대별로 갈라놓을가요? 찾기 쉽게.》

《그래요.》

…

《특무장동지가 좀 너무하지 않아요?》

《왜요?!》

《이걸 봐요. 명보동무한테 이런 내의를 입히다니.》

《특무장동지가 그랬나요? 내가 골라입었는데요. 아무래도 맞는게 없는바치군 남들이 커서 못입는걸 입는 편이 낫지요뭐.》

《글쎄… 나두 명보동무가 큰맘을 쓴줄로 알았어요.》

《첫 큰맘인가요, 그저 그렇게 됐지요.》

《크지 않구, 큰맘이지뭐!》

명보는 그 말이 우스운지 소리를 낮추어 키득거린다.

그들의 재미나는 이야기에 끌렸던 곽병식은 눈길을 문가에 돌렸다. 눈처럼 하얀 내의무지옆에서 정혜는 어머니나 맏누이들의 얼굴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미소를 짓고있었다. 그는 인차 무엇인가를 저어하는듯 조용히 일어나 나가버렸다. 순간 곽병식은 허전한 감을 느꼈으나 반듯이 돌아누우며 눈을 내리감고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지난해 장마철의 그 준엄하고 캄캄한 밤, 통신병처녀의 나무라는 목소리를 들으며 울음을 터뜨리던 처녀의 모습이 어렴풋이 생각나며 지금은 그가 얼마나 억세고 친근한 전우로, 이 갱도속 생활을 밝게 해주는 하나의 귀중하고 살뜰한 빛으로 되였는가 하는 행복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웬일인지 그에게는 그 밤 쫙쫙 퍼붓는 비를 맞으며 야숙하던 전사들의 가슴에 부드러운 온기와 온갖 친근한것들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타오르던 등불, 이름없는 통신초소의 그 등불이 달무리와 같은 빛을 두르고 환히 눈앞에 어리였다! 지금 이 순간 곽병식은 그

때 그 등불을 바라보던것처럼 가슴이 훈훈해지며 마음이 환히 밝아지는것이였다. 그는 온몸에서 생신한 활기가 피여나며 또다시 사색하고 움직이고 투쟁하고싶은 활달한 욕망이 솟음쳐올랐다.

(비밀갱도작업을 더 다그치자! 봉창을 하자! 기한전에! 기한전에! 아버지처럼 죽은 다음에도 걸어나가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는 이렇게 속다짐하며 기분 좋은 피곤에 몸을 맡기고는 깊은 잠에 떨어졌다.

저녁식사후 중대부앞 네번째 동발에 걸려있는 벽시계가 8시를 치자 김문규가 조직하고 계획한대로 병실들에서 소대들이 2렬종대를 지어서 밀려나와 군무자총회 자리인 《모란봉》으로 향하였다. 각 소대들에서는 구호판을 든 전사를 앞세우고 노래를 부르며 행진해갔다.

가슴에 끓는 피를 조국에 바치니
영예로운 별빛이 머리우에 빛난다
…

노래소리로 갱도안은 들썩했다. 모든 행동이 제한된 갱도속에서 생활하는 전사들에게 있어서는 비록 짧은 거리나 이처럼 대렬을 짓고 제식동작을 해보며 걷는것이 비길데없이 유쾌한 일이였다. 그래서 모두 명절기분으로 흥성거렸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적들의 운명을 서산락일로 만들자! 모두다 결사전에로!》라고 쓴 구호판을 든 명보는 걸어가면서 다른 소대의 구호판에 흘끔흘끔 눈을 팔았다. 2소대의 구호판에는 《결사전의 시각은 닥쳐왔다!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조국을 위하여! 모두다 앞으로!》라고 씌여있었다. 명보는 자기네 소대의 구호가 뜻이 더 깊은것 같았고 구호판도 구름나무노전으로 엮은 1,2소대의것보다 널판자로 단단하게 짠 자기네것이 더 좋은것 같았다. 그래서 우쭐해져서 구호판을 번듯하게 들고 어깨를 들썩거리며 걸어나갔다. 소대들은 경쟁적으로 기세를 보이며 목청껏 노래를 불렀다.

구호판뒤에서 가고있던 서동길소대장이 뒤를 돌아보며 한눈을 우습강스레 감으며 손짓하자 2소대의 대렬속에서는 북소리와 징소리가 일시에 터졌다. 갑자기 울린 북소리와 징소리에 갱도는 떠나갈듯했다. 귀청을 찢는듯한 그 소리는 다른 소대의 노래를 삼켜버리며 전사들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모든 전사들의 눈이 2소대에 집중되였다. 서동길소대장은 흐뭇한 만족감을 감추고 활개를 치며 대오앞에서 걸어갔다. 징을 잡은 뚱뚱보전사의 기세는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그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여 두손에 쥔 징을 박자에 맞춰 힘껏 치다가는 한손을 멋부리듯 번쩍 쳐드는것이였다.

그때마다 전사들의 머리우에서는 둥그런 징이 눈부신 황금빛을 뿌리며 번쩍거렸다. 서동길소대에서는 벌써 퉁소,저대,피리,만도링 등의 화선악기를 여러 점 만들었었다. 징은 중대 대장간에서 두들겨 만들어 마치자리가 여러군데 났으나 재로 극성스럽게 닦아내고 치약으로 다스려서 얼굴이 비치도록 윤이 번들번들 나는것이였다.

북소리,징소리,노래소리… 온통 2소대판이였다.

최호찬은 자기 소대에도 북이며 징이 다 있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나올 궁리를 못한 자신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동시에 서동길의 능청스러움에 놀랐다. 징 잡은 전사의 옆에서 걸어가는 독고세가 부러움을 참지 못해 한번만 쳐보자고 졸랐으나 그 뚱뚱보전사는 스스로 흥분되고 신바람이 나서 그의 말을 듣지도 못하는것 같았다. 1소대 대렬속에서는 옆을 보지 말고 똑바로 걸으라는 하사관들의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최호찬소대장은 서동길의 기세에 꺾이지 않으려는듯 대원들을 돌아보며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를 불렀다. 곽병식은 그 모습을 보자 즐거운 웃음이 터져오름을 참을수 없었다.

방송실옆을 지날 때 서동길은 북소리,징소리에 놀라 뛰여나온 정혜더러 자기네 대렬에 와 서라고 손짓했다.

정혜는 장쾌한 징소리에 뛰노는 가슴을 안고 웃음이 물결치는 얼굴로 대렬을 보다가 곽병식소대장과 시선이 마주쳤다. 곽병식은 눈을 끔쩍하며 머리를 젓고는 최호찬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정혜도 또한 최호찬소대에 동정이 갔는지라 그들의 대렬속에 스스럼없이 뛰여들어가 서동길소대에 지지 않으려는 1소대 전사들의 그 우렁찬 노래소리에 자기의 특유한 목소리를 보태주는것이였다. 정혜는 전사들과 씩씩하게 발맞추어 걸어가며 머리를 쳐들고 목청을 다해 노래를 불렀다.

동발마다 등불이 환히 켜진 《모란봉》에는 이미 고병근중대장과 김문규정치부중대장이 나와있었다.

고병근은 구호판을 앞세우고 북과 징을 치며 노래를 부르면서 회의장으로 모여오는 대렬들을 보며 경탄을 금치 못해서 허리에 두손을 올리고 만족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이건 완전히 시위요! 정치부중대장동무,저것 보우.

저 친구들이 구호판에 징까지라, 하 이거 대단하오. 하하하…》
그리고 그는 눈끄리에 깊은 주름살을 잡으며 빙그레 웃고있는 김문규의 무던한 얼굴을 애정에 넘친 눈길로 흘깃 돌아보았다. (참 잘 조직했거던!)
이렇게 하여 이날 군무자총회가 열렸다.
전사들은 《모란봉》을 중심으로 하여 가지를 친 작은 갱도들과 중앙갱도에 숨을 죽이고 앉아서 정치부중대장의 보고를 들었다.
김문규는 전사들의 한복판에 서서 손에 자그마한 수첩을 쥐였으나 그것은 보지 않고 당중앙위원회 편지의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최근 국내 군사정세에 대하여 누가 엿듣기라도 하는듯 목소리를 죽여 한집안식구끼리 무릎을 맞대고 의논하듯이 조용조용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사들의 가슴을 더 죄였다. 전사들의 눈앞에는 후방깊이 매일같이 날아드는 적폭격기의 대편대들이 발전소언제와 저수지, 철교, 도로를 폭격하며 도시와 농촌의 평화적주민들에게 나팜탄, 세균탄을 뿌리는 만행들과 원산과 통천 앞바다에 와있는 적함대들과 전선에서 적들의 대집단들이 기동하고있는 정경들이 손금보듯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적들의 《신공세》를 짓부시기 위하여 결사전에 일떠선 후방의 지하공장들에서 교대없이 밤을 새우며 포탄을 깎고있을 로동자들이며 전선에 더 많은 식량을 보내기 위하여 벌써 눈이 덮인 밭에 퇴비를 내고있을 농촌의 아버지, 어머니들, 도로와 다리들을 복구하고있을 복구대들과 전선군인들에게 보내기 위하여 거의 다 생산하여 산더미처럼 쌓인 여름군복더미며 전선으로 증강되여나오는 최신형대포들의 견인차들과 흰 위장포를 씌운 땅크들의 동음이 가슴을 울리며 들려오는듯했다.
《…동무들, 우리 계선에서 적들의 운명을 서산락일로 만드는데는 비밀갱도가 큰 의의를 가집니다. 련대참모부가 작전적고려밑에 타산한 그 기한전에 완성해야겠습니다. 적참모부가 아직 기미를 못채고있을 때에 은밀히 완성해놓아야 놈들의 방어선에 불의에 돌파구를 뚫을수 있습니다. …토론들을 하십시오. …》
김문규는 이렇게 말하고 중대장을 돌아보고는 자리에 앉았다.
고병근중대장은 앉은채로 전사들을 돌아보며 웃는 얼굴로 말했다.
《결의를 다지는것도 좋지만 좋은 대책이나 창안을 내놓으면 더 좋겠소.》
회의장에 오면서부터 기세를 올린 2소대에서 두명의 전사가 한꺼번에 뛰여일어났다. 토론은 련이어 계속되였다.

그들은 기한전에 공사를 완성할것을 다짐하면서 소대별경쟁을 조직할것을 제기했다.

박광준의 뒤에 앉아있는 조칠성은 그의 넙적한 잔등에 이마를 대고 먼길을 달려온 사람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며 씨근거리고있었다. 북소리, 징소리에 맞춰 회의장으로 올 때 조칠성은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뜨거운 바위같은것이 얼얼하게 딩굴기도 하고 열풍이 소용돌이치는것 같기도 하면서 숨쉬기 가빠났다. 팔다리에 힘이 뻗치고 몸이 부풀어나며 거인처럼 드세여지고 후끈한 취기가 도는것 같으면서 흥겨워났다. 그는 언제인가 자기가 이런 감정을 여러번 체험한 일이 있은것 같았다. 조칠성은 광복후 고향어촌에서 있은 시위에 빠짐없이 참가했었다. 토지개혁을 지지하는 군중시위, 로동법령발포 경축시위, 산업국유화법령발포 경축군중시위, 공화국창건을 기념하는 경축시위, 미군의 남조선 철거를 요구하는 군중시위… 시위들은 매일과도 같이 있었다. 조칠성은 어머니가 닭알속을 넣고 들깨까지 발라서 빚어준 주먹밥 세덩이를 수건에 싸서 꽁무니에 차고 해뜨기전부터 달려나가 사람들의 물결속에 섞이여 기세등등하여 걸어갔다.

프랑카드가 바람을 한껏 안고 펄럭이고 기발이 나붓기고 나팔이 울리고 북이며 꽹매기소리가 가슴을 뒤설레게 했다. 조칠성은 해풍에 탄 가슴을 드러내놓고 먼지와 염열의 바다속을 헤염쳐가며 목이 쉬도록 《적기가》를 불렀다.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노래의 이 구절은 조칠성의 배심을 키워주었다.

그는 이따금 놀라운 눈으로 만세를 부르며 자기옆을 흘러가는 군중들속의 한사람, 한사람의 얼굴을 뜯어봤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모두 어디선가 본것 같은 그러루한 얼굴들인데 그 사람들이 수천수만이 모여 같이 걸어가니 이처럼 힘이 난단말인가.… 조칠성은 담이 커져서 시위에서 돌아왔다.

이튿날새벽 그는 어로작업에 나가는 배에 몸을 싣고 황금빛으로 불타는 바다가의 장엄한 아침해돋이를 보며 이 세상에 두려울것이란 하나도 없고 못해낼 일 또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었다.

지금 조칠성은 자기앞을 막고있는 떡판같은 박광준의 잔등에 이마를

붙이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있다. 그는 오락회나 전사들의 이야기판에서는 판을 쳤으나 이런 모임에서는 주눅이 든 사람처럼 늘 뒤구석에 숨어서 나서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웬일인지 딱히 가늠할수 없는 자책감으로 가슴이 저려나고 토론들을 들어보면 모두 에둘러서 말하는것 같으면서 성차지 않았다. 가슴에서 무엇인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목구멍에 뜨끈한 김같은것이 막혀 숨이 찼다. 해풍이 기승을 부릴 때처럼 귀구멍에서 웅웅 소리가 난다.

조칠성은 얼결에 뛰여일어났다. 그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웨치려고 했는데 목구멍이 열리지 않아 숨이 컥 막혔다. 앞에 앉아있는 군관들의 모습들이 불그레한 안개에 싸인듯 흐릿하게 보였다. 전사들속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났다.

고병근중대장은 하 이거 어떻게 된셈인가고 놀라는듯한 눈으로 그를 보고있었다. 곽병식은 첫순간 그가 엉뚱한 익살로 회의분위기를 흐려놓지 않을가 하는 불안감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였으나 열기에 이글거리는 그의 눈을 보자 부추기고싶은 생각에서 웃음을 지어보이며 말했다.

《칠성동무, 제기할것이 있으면 천천히 말하오. …》

소대장의 얼굴을 보자 그는 속에서 설설 끓어번지는것을 한꺼번에 내뿜고싶었다. 했으나 웬일인지 목구멍이 아주 꽉 막히고말았다. 그는 번열이 나는듯 가슴에 두른 탄띠를 옆으로 제껴놓으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였다.

《칠성이, 앉으라구!》 하고 뒤에서 누군가 나무라며 그의 바지가랭이를 잡아챘다. 조칠성은 모욕당한듯 얼굴이 험해져서 반발적으로 몸을 떨면서 주먹을 쳐들었다. 이 순간 가슴을 답답하게 덮었던 뜨거운 김이 탁 트이며 자신도 알수 없는 부르짖음이 터져나왔다.

《우리 힘을 믿으면 됩니다. 제힘말입니다!》

밑도끝도없이 조칠성은 이렇게 말해놓고는 머리를 수긋하고 가슴을 오르내리며 숨을 몰아쉬였다.

김문규는 그의 얼굴을 주의깊게 보고있었다.

《저는… 소대장동지와 함께 굴속에 갇혀있으면서 그게 어떤겐지 알았습니다. 나와보니 모두들 목이 쉬였더구만요! 굴을 파들어오며 이 조칠성이를 불렀겠지요. 나도 목이 터지게 동무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동무들이 못견디게 그리워졌어요. 동무들을 잘못 대한것도 후회하게 됐지요. 사실 처음 동무들이 파들어오지 않는것 같은 옹졸한 생각까지 들었던것입니다. 나는 늘 자기 힘만 믿었지 여기 박광준동무랑 신찬일동무랑도 앉아있지만…》

찬일은 눈을 민감하게 깜빡이며 그의 뒤모습을 지켜보고있다가 자기 이름이 언급되자 얼굴이 벌개지며 곁에 앉은 명보에게 속삭였다.

《다르긴 달라, 솔직하지, 옳게 말해!》

여기저기서 너그러운 웃음소리가 났다.

그러나 조칠성은 얼굴이 더 험해지며 부르짖었다.

《나는 제힘을 알고있는가?!… 동무들,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한숨을 내쉬고 한동안 덤덤히 서있더니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동무들도 아다십이 나는 바다에서 일했습니다. 그게 내 성미에두 맞고 좋았지요. 바다도 나를 맘들어하는것 같았습니다. 내 눈엔 고기떼들이 잘 보였거던요. 우레기같은건 잡지도 않았지요. 부러운게 없었습니다. …》

이렇게 말하는 그의 눈은 웃음을 띠며 부드럽게 빛났다. 그 눈은 갱도의 암벽을 뚫고 저 멀리 안개속에서 넘실대는 동해의 물결을 향수에 젖어 바라보는것 같았다.

《…46년도에 첫 로임을 타서 어머니한테는 까만 고무신, 아버지한테는 담배물부리하구 〈증산〉 한보로, 동생들한테는 콩사탕을 사가지고 집으로 뛰여갔지요. 아버지는 큰기침을 하고 그것들을 받아쥐고 지배인아바이두 이런 물부리를 물고있다고 말했는데 속으로 무등 기뻐하는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내 손을 잡고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구 동생들 보구 형은 인제는 큰어른이 됐는데 너희들이 반말질하면 못쓴다,… 너희들두 자라서 형님처럼 큰사람이 돼야 한다고 타일렀지요. 그때부터 나는 모자도 삐뚤게 쓰지 않구 점잖아진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존대하구 동생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게 점점 재미나기 시작했지요. 세상 부러운게 없는것 갈구… 우리 가정은 화목했지요. …전략적일시적후퇴때 미국놈들이 어중이떠중이를 끌고들어와 사람잡이를 시작했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잔등에 망짝같은 돌을 비끄러매서 바다에 처넣었습니다. 조씨문중을 다 쓸어버렸지요.… 더 말 안하겠습니다. 그후부터 바다를 보는게 싫어졌지요. 저놈새끼들이 이 가슴에서 바다까지 빼앗아갔단말입니다. …》

어느 구석에선가 흑! 하고 느끼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정혜가 흐느끼는 소리였다. 조칠성의 말을 들으며 전사들은 자기자신들이 전쟁로상에서 본 신천땅이며 원쑤들에게 생매장당한 애국자들, 해방된 마을 동구밖 수양버들에 매달려있던 녀맹위원장이며 고아들의 울음소리며 그리고 자기들의 가정과 친척들이 입은 재난에 대하여 상기했다. 장내에는

울분과 저주의 열풍이 소용돌이쳤다. 전사들은 침묵속에서 술렁댔다.
김문규는 장내를 돌아보고 조칠성의 얼굴에 시선을 멈추었다. 그의 눈은 사납게 번뜩였고 드센 가슴이 오르내릴 때마다 목구멍에서 피거품이 끓는듯 거치른 숨결소리가 들렸다.
《…동무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날창에 미국놈 천놈,만놈을 꿰도 성차지 않겠소! 그렇지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 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계십니다. 우리를 결사전에로 부르시며 적들의 운명을 서산락일의 비운으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조칠성의 맘도 알아보시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것 같습니다. 인제는 마감으로 저놈들 숨통을 찔러넘길 때가 됐단말입니다! 이 비밀갱도란게 저놈들 가슴팍을 찌르는 날창이 아니겠습니까?! 파겠습니다! 주먹으로 바위를 쳐서라도 구멍을 뚫겠습니다!》
이때 1소대쪽에서 누구인가 벌떡 뛰여일어나 주먹을 쳐들며 구호를 불렀다.
《미제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주자! 비밀갱도를 완성하자!》
전사들은 우르르 밀려일어나며 구호를 불렀다.
《죽음을 주자!》
《완성하자!》 정혜도 자기 심장만큼한 주먹을 쳐들며 웨쳤다.
하여 암반과 사람의 의지력과의 치렬한 싸움은 계속되였다. 정혜는 밤에 방송을 끝내고는 전사들과 함께 삼태기 지게를 지고 비밀갱도에서 나오는 버럭을 운반했다. 중대대렬명단에 없는 이 처녀를 자기들의 한 가족성원으로 생각하는데 습관된 전사들은 구태여 그의 수고를 치하하지 않았으며 말리지도 않았다. 정혜에게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기뻤다. 버럭은 적 정찰기들의 눈에 띄지 않게 교통호를 따라 멀리 가서 여기저기 뿌려던지고 눈을 덮어놓았다. 버럭을 운반할 때면 박광준은 정혜를 앞세우고 가고싶어했다. 그는 눈가장자리의 주름살에 너그러운 미소를 담고 정혜의 지게끈을 알맞춤하게 맞춰주기도 하고 어깨가 배기지 않게 자기 솜장갑을 지게끈밑에 받쳐주기도 했다. 정혜는 버럭짐을 지고 갱도에서 나오다가도 저앞에서 걸어가는 박광준을 보면 종종걸음으로 달려가 그의 옆에 가지런히 서서 걸었다. 그때마다 아바이는 반겨 웃어주었다.
전사들과 함께 버럭을 나르던 고병근은 언제나 가지런히 서 가는 그들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큰소엽을 따르는 송아지같지 않느냐고 곽병식에게 말했다. 그들의 그런 우정을 보는것이 곽병식에게는 무척 기뻤다.
어느 이른아침 정혜는 박광준아바이와 함께 버럭을 버린 자리에 눈을

덮어놓고 가지런히 앉아 땀을 들이게 됐다. 아바이는 쌈지를 꺼내 무릎우에 놓고 담배를 말았다. 손가락끝들에 붕대가 감겨져있어 불편해하자 정혜는 자신의 손으로 재치있게 말아서 권했다. 박광준은 기특해하는 눈으로 처녀를 보며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었는데 정혜는 방긋 웃으며 야전병원에 있을 때 손을 부상당한 동무들의 담배를 말아주었노라 대답했다.

정혜는 담배쌈지에 눈이 갔다. 남색 공단으로 큼직하게 기운 쌈지덮개에는 금실로 마주앉아있는 새끼곰 두마리가 수놓아져있었다. 마음후하고 손길 알뜰한 녀인의 체취에 호기심이 끌린 처녀는 쌈지를 쥐고는 눈에 전혀 띄지 않는 실밥이며 새끼곰을 찬찬히 살펴보며 집 아주머니가 지은겐가고 물었다. 광준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안해가 새로 지어보낸것이라고 하며 그 사람은 본게 없고 리론수준이 낮아놔서 말동무는 못되지만 그쯤한 손재간은 좀 있는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새끼곰은 아들놈들인데 큰녀석은 자기처럼 제 앞치레도 못하는 맹물인데 작은놈은 뱉이 세고 감때사나와서 이제 어디 내놓아도 짝지지 않을게라고 말했다. 봄별밑에서 피여오르는 땅김처럼 훈훈하고 구수한 농민가정의 입김을 가슴가득 들이키며 정혜는 옆에 바위처럼 앉아있는 광준의 얼굴을 쳐다봤다.

박광준은 눈가의 주름살들의 사연 많은 계곡들에 은근한 미소를 감추며 신선한 아침노을에 보라빛으로 물든 저 먼 련봉들의 넘실대는 파도를 바라보고있었다.

《방송원동무는 전쟁이 끝나면 평양중앙방송국에 올라가겠지요? 그 고운 목소리를 헛되이 썩일수야 없지…》

문득 이렇게 말해놓고 그는 깊은 한숨을 지었다.

정혜는 뜻밖의 이런 말에 웃음이 났으나 이 아바이전사의 얼굴이 너무도 진지하고 상심해하는것 같아 자기의 진심을 고백하지 않을수 없었다.

《저는 여태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저 의대에 가서 공부를 끝내구 아버지 뒤를 따라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도록 병치료나 하자고 맘먹었더랬어요.》

《의사야 도회지 의사보다 촌 의원들이 더 공대를 받지요. 의술이 고마운거야 옛날 세상에 약 한첩 못쓰고 고생한 농사군들이 더 알지요. 우리 마을에 맥을 볼줄 알고 침술을 가지고있는 할아버지 한분 계셨는데 떠받들려 살았다오. 말이 난김에 실토하오만…》

박광준은 하던 말을 중동무이하고 실눈을 하며 담배를 뻑뻑 빨았다. 정혜는 웬일인지 가슴이 울렁거렸다.

《나는 오래전부터 방송원동무를 마음에 두고있었소. 고향에 모시고가 우리 농촌 의사 자리에 앉히고싶어서말이요. 정혜동무처럼 알뜰한 손이 애들의 머리만 짚어줘도 열이 뚝뚝 떨어지구 체한게 쑥—쑥—내려갈게 아니요. 우리 마을 사람들도 그렇지. 내가 전쟁에 나가 메달 몇개를 차구 우쭐해서 돌아온것도 대견하겠지만 의학박사 딸을 데려왔다면 얼마나 반가와하겠소. 내 주제넘게 이런 꿈을 꿨다구 나무람 마오. 그저 해보는 소리지요.》

정혜는 그 마음이 고마와 얼굴에 홍조를 곱게 피웠다. 그리고 이 아바이전사가 어쩌면 이리도 엉뚱한 공상을 했을가 하는 놀라움과 자기 마음을 은근히 유혹하는 전사의 고향에 대한 순박한 호기심에 끌려 기쁨이 흐르는 눈으로 그를 돌아봤다.

《고향이 좋은가요？！…》

《아무리 좋아야 금강산 같겠소만 산도 그만하면 괜찮구 강물도 맑다오. 우리 농민들이야 땅에 정을 붙이고 살지요. 우리 고장 땅은 농군들 마음씨처럼 성미가 곧고 후해놔서 땀을 흘린 이상으로 소출을 낸다오. 편지가 왔는데 얼마전에 우리 이웃마을에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오셨다오. 그이께서는 품앗이반을 무어 일한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남자들이 전선에 나가고 적은데 여러 집이 한데 모여 일하면 일도 헐하고 흥겨울뿐더러 부족한 축력과 쟁기도 어부러쓰니 좋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앞으로 농촌을 협동화하는데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는것이요！ 정혜동무, 어쩌면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농사짓는 사람의 맘속을 그렇게도 환히 헤아려보시고계시겠소！… 내 좀 사설을 늘어놔도 좋겠소？》

《전 아바이 생각을 듣고싶어요.》 박광준은 담배연기를 들이켰다가 후 내뿜으며 눈을 내리감아 실눈을 하고 미소를 지었다.

《생각이랄게 별로 없지. 우리 보병전사들이란게 이야기판을 벌리기 좋아하구 무슨 〈철학〉 같은걸 풀기 즐겨하다나니 어느새 나한테도 그런 버릇이 붙어서 이런저런 궁리를 해보게 되지요.… 요새 와서 내 눈엔 땅이란게 참 별스레 엄엄해보인단말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럴가 하고 눈을 감고 가만 생각해보는게 아니겠소. 우리 나라 밭 치구 전사들이 지나가지 않은 밭이 어디 있겠소. 숱한 전호와 참호들이 패이구 가는곳마다 포진지 팠던 자리구 반땅크홈들이지요. 우리 전사들의 핀들 얼마나 뿌려졌소. 수많은 전사들의 피땀이 스민 조국땅을 이제 와서 쪼각쪼각 나눠서 누데기로 만들어가지고 저마끔 농사를 지을수 있겠는가.… 그건 이 전쟁에서 제가 흘린 피땀을 모독하는거나 다름없구 아무모로 보나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지요. 생각해보라니. 군대에 나와 분대,소대에 속해서 목숨을 내걸구 서로 도우면서 싸운 우리들인데 이제 총을 벗어놓구 집에 돌아가서 또다시 밭에다 지경돌을 세우고 네것내것 갈라놓고 제 농사만 짓는다면… 허허… 참 얼마나 어처구니없구 체면이 깎이는 일이겠소. 일전에 린접련대 마사간에 있는 고향동무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 두루 얘기해봤는데 그 친구도 같은 생각을 하더라니까. 참 우리 농민들이야 병사가 돼서 넓은 전쟁판을 돌아다니며 보고 느낀것도 많지만 도량들이 커지고 아무 일에서나 힘과 마음을 한데 모아서 내밀어야 이긴다는 큰 진리를 배운게 아니겠소. 승리한후 집에 돌아가면 땅을 노닥노닥 기운 누데기처럼 만들었던 그 밭지경돌은 싹 밀어버리고 마을을 번듯하게 꾸려놓을 욕심이라니. 그때면 의사도 농촌에 와야 일할 흥이 더 날게요. 정혜동무,대학에 가서라도 내 권하는 말을 잊지 마오!…》

정혜는 이 아바이전사가 승리와 그후의 사업에 대하여 뚜렷한 표상을 가지고 눈앞의 현실을 보듯 내다보고있는데 감동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비밀갱도를 뚫고 나가는 모든 전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것 같았다. 비밀갱도에서 울려오는 메질소리는 밤이 깊어지면 중앙갱도에까지 쩌러렁—쩌러렁— 메아리쳐울려왔다. 무쇠와 암벽의 그 울부짖음소리는 눈을 감고 누워있는 정혜의 가슴을 뒤흔들며 그에게서 영웅적인것,숭고한것과 관련한 온갖 상념들을 불러일으켰다. 하루는 정치부중대장 김문규가 들려주던 만민에게 광명을 주기 위하여 요괴의 아성으로 쳐들어가 주먹으로 성벽을 깨뜨려버리고 해님을 하늘에 들어올렸다는 장수에 대한 전설이 회상되였다. 그리고 저 비밀갱도의 어두운 막장에서 일하는 곽병식소대장과 그의 대원들이 승리의 광명을 가져오기 위하여 그 장수와 같은 기상과 힘으로 낮이나 밤이나 지칠줄 모르고 땀을 뿌리며 암벽을 들부시고있다는 믿음이 갔다. 한편 정혜는 구슬픈 련민의 마음으로 서울의 광장에서 쓰러져버린 자기 오빠의 동무들과 이곳 보병전사들을 비교해보게 되는것이였다.

그들은 혁명의 랑만적인 바람을 가슴가득 안고 판가리 순간을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기도 했으며 비오는 날 밤이면 교수대와 관련된 비장한 순간을 노래부르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할 때 생활에서 주인이 되여본 일이 없었으며 또 그런 자각도 부족했던 그들은 염증나는 사회에 대한 권태,폭발적인 반항심리,사소한 실패후의 영탄적인 한숨을 자주 보이기도 했다. 그들은 생활에서의 비실천력,비활동성을 청렴한 지식청년의 사치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였다.

정혜는 보병들속에 오자 얼마 안되여 자기가 전혀 새로운 사람들속에 와서 생활하기 시작했다는것을 예리하게 느꼈다.

정혜가 온 첫날 중대특무장은 숟가락을 가지고 왔느냐고 물었다. 처녀가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지자 특무장은 너그럽게 웃으며 보병이 되자면 생활을 제힘으로 알뜰히 꾸릴줄 알아야 한다고 일깨워주며 이제 지내보면 다 알게 된다고 말했다.

보병, 그것은 강력한 화력과 총창으로 적을 무찌르며 승리의 길을 개척해나가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결속짓는 군대의 자랑찬 기본병종이며 전쟁의 땀내풍기는 근로자들이였다. 그들은 적과 직접 맞서 싸우면서도 하나같이 자신의 명예나 공명을 바라지 않고 성실하게 피땀을 흘렸으며 묵묵히 교통호를 파고 갱도를 굴설하고 군대의 살림도 알뜰히 꾸려나갔다. 아, 보병, 이 말속에는 얼마나 많은 뜻이 담겨져있는가! 이들 보병전사들속에서 살면서 정혜는 근면하고 락천적이고 지혜로운 우리 인민의 참된 체취를 느끼는듯했다. 어제날 생활의 주인이였던 이들은 오늘 그 생활을 지키는 싸움에서도 역시 주인이였다. 그들은 이 장기전의 나날에 끊임없는 전투와 포화의 불바다속에서 그리고 추위와 지하생활의 온갖 난관과 결핍 속에서도 맥을 놓고 한숨을 짓지 않았으며 주인다운 안착된 침착성과 마음 누긋한 살림군의 솜씨로 군대의 살림을 꾸려나가는것이였다. 그들은 게으름을 모르고 무엇인가 늘 생각하고 궁리해내고 모여앉아 의논했으며 손에서 큰일, 잔일을 놓지 않고 근면하게 땀을 흘렸다. 한번도 남의 등을 쳐 제속을 채워본 일 없고 남의 재물에 손을 대본 일도 없으며 온갖 죄스러운 일에 더러워진적 없이 오직 신성한 로동의 땀에만 젖었던 병사들의 손, 곡식을 가꾸고 정교한 기계를 깎아내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퍼내고 석탄을 캐내는 일들에서 투박해지고 마디가 굵어졌으나 보배로운 재간이 깃든 병사들의 볕에 그을은 손들은 죽음이 울부짖는 이 전쟁의 불바다속에서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것들을 마술사와도 같이 만들어놓는것이였다. 그들의 손에 들어오면 사람의 생명을 앗으러 날아왔던 앙칼진 파편도 담배불을 붙이기 위한 부시로, 송곳으로, 못으로, 식도로 되여버리는것이였다. …

병사들은 지하병실을 윤기가 흐르게 꾸렸으며 통나무로 절구를 만들어서 비지를 끓이고 찰떡을 쳐서 화선식탁을 명절날처럼 푸짐하게 장식했다. 그 손들에 의해 통신줄의 철사는 불에 휘여낸 오동나무판자에 걸려 화선악기로 되여 암벽으로 둘러싸인 갱도안에 찬란한 해빛

과 새들의 우짖음과 바람에 설레는 숲에서 풍기는 싱그러운 풀냄새를 련상시키는 음악의 선률이 흘러넘치게 했다. 마를줄 모르는 이 인민적창조력의 샘물로 하여 1년이고 2년이고 한 지점에 붙박여 그것도 지하갱도에서 살면서도 군대는 움속의 싹처럼 파리해지거나 쇠퇴돼가는것이 아니라 한창나이의 청년처럼 혈색이 좋아지고 정력이 넘쳐 노래와 웃음과 여유작작한 익살로 명랑해지여 생활력과 전투력이 왕성한 무적의 힘을 키운것이였다. 갱도전을 구상하신 최고사령관동지의 탁월한 예지는 벌써 이 모든것을 내다보신것이 아니였던가！…

정혜는 농사일밖에 모르고 성인학교에서 겨우 글쓰는 법을 배웠을뿐인 박광준전사가 발기한 비밀갱도에 대한 착상이 련대참모부의 작전계획에 포함되여 오늘은 전사대중들속에 명령으로 하달되여 암벽을 뚫는 메질의 메아리와 함께 진척되고있다는것을 생각할 때 절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21살의 이 처녀는 나이가 나이였던것만큼 자기의 다감한 감성과 다혈적인 흥분이 앞서 그 하나의 현상밑에 숨어있는 심원한 진리의 암시를 아리숭하게만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인민의 위대한 힘과 인민적지혜의 바다와 같은 자양분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솟아나오는 이 눈에 띄우지 않는 도덕적인 힘과 생활력이야말로 적군에게는 없으며 우리 군대에게만 있는 승리의 한 비결이였다는것을 썩 후에 가서야 눈가의 주름살에 감회의 눈물을 반짝이며 회상할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이 밤 정혜에게는 이러한 상념들을 불러일으키며 울려오는 메질소리가 가슴에 반석같은 신념을 다져주는것 같았고 상급정치부에서 보내준 방송원고의 페부를 찌르는듯한 표현들과 문구들이 어느 유능한 정론가에 의하여 씌여진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이 보병들의 생활에서 찾아낸 철학이며 진리처럼 생각되였다. 하여 이 밤, 그의 목소리는 보다 신념에 차서 신랄하고 위압적으로 울리면서 류산탄이 번개치듯 터지고 조명탄이 튀여오르고 탐조등의 빛줄기가 살륙의 장검처럼 어둠을 란도질하고있는 전선의 야공을 뚫고 적진우의 저 컴컴한 하늘로 날아가 조종의 메아리처럼 울려퍼지기도 하고 징벌을 내리는 철추의 울부짖음으로 미제침략자들의 가슴에 떨어져내리기도 하는것이였다. …

제 10 장

결 사 전

1

류정혜의 목소리가 밤마다 날아가는 저쪽, 초연이 안개처럼 서려있는 흐릿한 하늘밑에는 적군의 방어선이 펼쳐져있어 거기에서는 다른 세계의 생활이 헐떡거리며 숨쉬고있었다.

산허리를 돌아간 지그자그형의 참호들과 산기슭을 에돌기도 하고 릉선으로 기여올라가 뒤턱으로 넘어간 수십갈래의 우불구불한 교통호들과 수없이 널려있는 토굴들의 컴컴한 구멍들옆에는 1년여의 장기방어에서 전선생활이 토해놓은 오물들과 배설물들이 너저분하게 쌓여있었다. 자주 내리는 눈에 덮였다가도 두엄무지처럼 열을 내며 썩고있는 그것들은 인차 눈속에서 시꺼멓게 드러나 대기속에 역한 악취를 풍기는것이였다. 낮이 좀 푸근해지면 그것들이 한벌 깔린 교통호나 참호바닥은 시궁창처럼 질쩍거렸다. 그러나 장기방어의 지루한 생활에서 라태해질대로 라태해진 적군은 하급장교나 하사관이나 졸병할것없이 이 더러운것들에 습관되여 전혀 역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놈들은 전선에서 인간생활이 흐르는 유일한 통로라고 할수 있는 그 비좁고 질쩍거리는 교통호를 따라 대양건너에서 실어온 썩은 밀가루포대와 탄약상자들을 메날랐고 겁에 질린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리는 신병들을 끌어왔으며 송장들과 부상자들을 메가고 도망병들과 자총자들을 무자비한 처형이 기다리는곳으로 끌고 갔다.

이 세상의 모든 길들이 집에서부터 시작하여 집에서 끝나는것처럼 교통호들을 따라가면 장교들과 사병들이 사는 토굴들이 있었다. 인민군포사격의 피해를 면할 정도로 유개를 덮은 토굴들에서 사병들은 사람 아닌 생활을 하고있었다. 통풍구도 해빛이 흘러들 소창도 없이 허리를 굽히고 기여들어오는 출입구멍 하나만 뚫린 토굴, 음침한 미궁과

도 같은 그 토굴의 탁한 공기속에서 사람들은 썩고있었다. 그놈들은 장기방어에도 불구하고 적응이란 《면역》이 형성될수 없는 그 무서운 감정 즉 죽음에 대한 공포와 습진, 각기병, 옴 따위의 온갖 피부병들과 서물대는 이때문에 더해진 불면증에 허덕이며 갑갑하고 짜증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었다. 사병들은 짬이 생기면 이잡이를 벌렸다. 그들은 이것을 《뫼돼지사냥》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내의 여벌이 있는 선임하사들과 장교들은 입었던 내의들을 휘발유를 쳐서 불살라버렸다. 그들의 울적한 마음을 위로하는 생활이란 여가가 생기면 트럼프장을 펼쳐놓고 운명을 점쳐보고, 서로 손금들을 봐주고, 죽은자들의 몸에서 훔쳐낸 돈, 손칼, 만년필, 라이타, 시계 따위를 대고 투전을 노는것이였다. 그리고 밤에 자리에 누워서는 질쩍거리는 교통호를 따라 어수룩한 사병들이 날라온 황당한 풍문을 들으며 가슴을 울렁이였다. 그 풍문이란 이를테면 전라도 라주땅 어느 마을에서 얼룩배기 암소가 말하는 송아지를 낳았는데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고 사람들이 묻자 송아지는 눈물을 떨구며 자기가 저 금성산의 풀을 다 뜯어먹고 털갈이를 아흔아홉번 해야 끝난다고 말했다는것이다. 그밖에 정감록의 누렇게 썩은 책장들에서 나왔음이 분명한 물과 불의 재난에 대한 황당한 풍설들이 어둠침침한 토굴들의 탁한 공기속에 뜬김처럼 서려돌았다. 토굴들은 같은 공포에 떨고 같은 고생을 겪으면서도 화목하지 못했다. 돈, 담배, 내의, 비상용 건빵의 빈번한 도난사건때문에 다툼질이 그칠줄 몰랐고 화투목을 가지고 속임수를 쓴 하사를 투전판에서 피투성이 되게 뭇매질했다. 때로는 별 끈턱도 없이 패거리싸움이 붙었다.

밤이 되면 비수처럼 차거운 쪼각달이 떠있는 하늘밑에서 장기방어가 펼쳐놓은 토굴 《마을》의 둥글둥글한 흙지붕들은 군복을 입은 그 인간무리들을 합장해놓은 무덤처럼 보여 공동묘지의 괴괴한 정적이 깃들었다. 어둠속 여기저기에서 보초병들의 겁에 질린 눈들이 번뜩거리고 철조망들에는 이를 얼궈죽이느라고 희끗희끗하게 걸어놓은 내의들이 바람에 날리며 온갖 무시무시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교통호 굽이굽이들에서는 인민군방송을 듣는자가 없는가 하고 싸다니는 수색병들의 전지불이 묘지의 린광처럼 펀뜩거렸다. 장교들은 인민군 고지를 점령하면 저 《방송원년》의 목에 올가미를 걸어서 하늘에 매달겠다고 이를 갈았으며 수색병들에게는 방송을 듣는자에 대하여서는 가차없이 쏴눕혀도 좋다는 《특권》을 주었다.

속물이고 소인일수록 자그마한 권리라도 부여받으면 오만해지고 안하무인이 되듯이 수색병들도 밤이면 교통호들에서 판을 치며 변소에

나왔던 사병들에게 왜 빨리 들어가지 않고 머뭇거리느냐고 함부로 빰을 갈기는가 하면 보초병들에겐 왜 북쪽하늘을 봤느냐,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트집을 걸어 못살게 굴었다. 하여 밤중이면 교통호에는 얼씬하는 그림자 하나 없었다. 그러나 암흑세계를 이룬 이 방어선에는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뛰여다니는 하나의 그림자가 있었으니 수색병들도 교통호에서 그를 만나면 장교놈들이 공달호를 멸시해서 부르던것을 본따서 희떠운 롱말을 한마디씩 던졌다.

《어, 꽁다린가?!》

《아래 우 다 무사한가?!》

그러나 그 사병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듯했다. 그저 주춤 멈춰서서 그들을 멍청하니 쳐다보며 턱을 덜덜 떨었다.

때가 오른 그의 얼굴에서는 롱지거리에 응대하는 아무런 표정도 떠오르지 않는것 같았다. 땀에 젖고 흙과 온갖 오물이 묻어 마대처럼 꽛꽛해진 그의 군복은 성한데가 없이 너덜거렸다.

수색병들은 절뚝거리며 달려가는 그의 뒤모습을 돌아보며 한마디씩 했다.

《즈 자식 아주 벙어리가 됐당게로.》

《듣지도 못하는 미물이 됐어.》

세번째놈은 동정어린 한숨을 지었다.

《지긋지긋한 방어가 사람을 저꼴로 만들었지…》

넷째놈은 이사이로 침을 찍 뱉으며 다른 말을 했다.

《모른단말이야. 저런 미물속에 더 엉큼한 생각이 도사려.》

공달호는 그들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이 방어선에서 모든 궂은일을 다 맡아했다. 그래야 북에서 날아오는 방송을 들을수 있다는것을 그는 알고있었다. 권태증이 나는 장기방어의 나날에 게으를대로 게을러진 장교들속에서는 하나의 류행이 생겼다. 그들은 무시로 날아드는 인민군 박격포탄과 추위때문에 바깥출입을 하기 싫어 토굴들에 105미리 포탄깍지를 들여다놓고 그것을 오강대용으로 썼다. 공달호는 매일 더러운 생활에 빠져있는 장교놈들의 뒤치닥거리를 했다. 온갖 가렴증때문에 자지 못하여 눈이 충혈된 그자들은 그에게 화풀이를 하며 욱박질렀다. 그는 속에서 분기가 터져올랐으나 때를 기다리며 반항하지 않았다. 달호의 속심을 모르는 장교놈들과 사병들은 모두 그를 업수이 여겼으며 어떤 장교놈들은 자기들의 토굴에 들어와 더러운것을 치우는 그 앞에서 부대의 기밀과 관련된 이야기도 털어놓고

했다. 누구도 공달호를 인민군의 방송과 관련하여 의심하지 않았다.
어느날 이 방어선의 교통호들에 마스크를 낀 하사들이 나타나서 크레졸을 뿌리더니 몇시간후 렉스포드가 참모인원들을 대동하고 시찰을 나왔다.
장교들은 사병들을 토굴속에 몰아넣고 얼씬 못하게 했다. 며칠전에 있은 인민군 갱도에 대한 공격전투후 대대 중대들에서 벌어진 사태와 질쩍거리는 교통호때문에 구역질이 나고 화가 치밀어 미간을 찌프리고 걸어가던 렉스포드는 교통호굽이에서 나타난 몰골이 말할나위없이 허름한 사병을 만났다. 공달호는 질겁하듯 뒤걸음질치며 교통호벽에 붙어섰다.
렉스포드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유심히 쏘아보았다. 그의 뒤에 서있던 백상기소령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놈은 어디서 게바라나왔는가?!)
그때문에 모든 일이 그르쳐질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다.
렉스포드는 그 사병을 뚫어지게 쏘아보더니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찔렀다. 그안에 보신용 권총이 들어있다는것을 알고있는 장교놈들은 숨을 죽였다. 그러나 놈이 꺼낸것은 권총이 아니라 은박지로 싼 쵸콜레트였다. 그는 그것을 공달호의 발밑에 던져주고는 지나가버렸다.
이윽고 렉스포드는 살기띤 웃음이 꼬리치는 눈으로 백상기를 돌아보며 물었다.
《저자는 본래 병신인가?!》
《각기병에 걸렸댔는데 아주 병신이 된것 같습니다.》
《이름은?!》
《공달호인데 우리 장교들은 〈꽁다리〉라고 부릅니다.》
부대의 실태는 파멸적인것이였다.
군대는 라태해질대로 라태해져서 무기와 탄약을 닦지 않은것은 물론이고 자기 얼굴과 손도 씻지 않아서 때가 더덕더덕 끼였고 토굴마다에서는 악취가 풍겨나왔다. 사병들속에서는 인민군 갱도에 대한 신비적으로 과장된 풍문이 떠돌았다.
《저 고지 갱도에는 수백개의 화구가 있다. 우리가 산중턱에까지 올라갔을 때 갑자기 모타가 돌아가는 윙—소리가 나더니 땅이 쩍쩍 갈라지며 수백개의 화구가 일시에 눈앞에 나타나 불을 뿜었다. 화구들에는 신형무기가 배치되였다. 화염방사기 비슷한것인데 쭉쭉 내뻗는 불길이 한개 소대씩 불고기로 만들어버렸다.》, 《아니다. 나는 고지에서 인민군대의 그림자도 못봤다. 갱도안에는 기계들만 설치되여있다. 수

백개의 화구들이 똑같이 불을 뿜고 똑같이 중지했다.》,《아니다,그건 거짓말이다. 나는 노래소리를 들었다. 갱도안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들이 물은 어디서 마시고 밥은 어떻게 해먹겠는가. 사람이 없어.》

《갱도안엔 신형대포가 있다. 우리앞에서 전진하던 소대는 요란한 폭발과 함께 몽땅 하늘로 날아가버렸다. 그 자리는 땅이 시꺼멓게 타서 벌컥 뒤집혀져있었다.》…

1035고지 상공에서 고사기관총에 맞아 시꺼먼 연기를 뿜으며 후방보급소골짜기에 불시 착륙한 포지휘기 조종사는 이렇게 말했다 한다.

《당신들은 제가 무엇을 봤는지 아십니까? 해전에 참가해본 사람은 내 말을 인차 리해할것입니다. 불바다우에 떠있는 하나의 지상함대를 보았습니다. 아군이 공격할 때 여섯개의 인민군 고지들은 전함, 순양함,구축함들처럼 서로 엄호하면서 무시무시하게 불을 뿜었습니다. 그것은 침몰하지 않는 함대였습니다! 그것은 전함과 같은 생활력을 가진 요새였습니다. 한톤짜리 폭탄도 203미리 곡사포탄도 그 요새를 깨뜨릴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쩔수 없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포병대에 대한 험담을 삼가하시오!》

부대들에서는 자총사고가 속출했다. 전투기피는 전염병처럼 만연되였다. 야맹증환자들이 무리를 지어 의무소로 몰려들었다. 그들중 일부 유식하다는 선임하사들이 자기들은 몇달째 야채와 물고기를 먹지 못해서 《비타민A 결핍증》이 왔노라고 두덜대며 후방보급장교들의 태공과 절취행위에 욕설까지 퍼부었다. 《비타민A 결핍》…《비타민A 결핍》… 이 말은 사병들속에 음탕한 류행가처럼 빨리 퍼졌다. 죽음의 공포에 떠는 사병들은 그 말을 구세주의 이름처럼 불렀다.

한 헌병중위가 하루밤 기지를 보였다. 그는 밤중에 야맹증환자들을 수용한 천막들앞에서 하늘에 대고 경기를 란사했다. 그리고는 천막으로 뛰여들어 《공산군 습격이다—》 하고 소리쳤다. 모두가 날파람있게 도망쳐서 살곳을 찾아 숨어버렸다. 앞을 보지 못해 넘어져 이마를 깬자는 불과 여섯명이였다. 그 여섯명만 병원에 후송하고 나머지 120여명은 눈앞에서 불이 번쩍 일게 귀뺨을 갈겨서 돌려보냈다. 술에 곤드레만드레 취한 무신론자인 한 미제침략군대위놈은 출전하는 중대의 명복을 빌려온 종군목사의 멱살을 틀어쥐고 부르짖었다.

《이 멀쩡한 자식아! 네자신이 십자가를 들구 우리 앞장에 설테냐?! 용감하라구?! 갱도앞에서 네자신이 용감해봐라! 군인들은

자기보존의 본능도 없는줄 아느냐. 짐승보다 못한 무린줄 아느냐？！ 이 개자식아！ 이 자식아！》

하느님의 《신성》을 모독한 대위놈은 현지에서 즉결처분되였다. 그날밤 콘자레스 라리란 중위놈이 권총자살했는데 그의 몸에서는 클라크에게 보내는 유서가 발견되였다.

《클라크장군 각하,저의 죽음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민군갱도 화구앞에서 만신창이 되여 죽느니 차라리 고국이 보낸 탄알 한발로 이 세상과 하직하고싶었습니다. 저는 죽음으로 아놀드사단장과 그의 참모부,그의 야만적인 의지의 집행자—혼성부대장 렉스포드중좌의 전횡을 고발합니다. 이들은 인민군 갱도를 파괴하지 않은채 순프로씨아식 규률의 강압으로 수백명의 군인들을 죽음에로 내몰았습니다. 나는 죽음으로 살인자들을 고발합니다.》

렉스포드는 이날밤 깊도록 자기 방에 앉아있었다. 지난해말 8군사령부의 복도와 층계들에서 만났던 참모부 장교들의 희멀쑥한 얼굴들이 떠올랐다. 그들은 자기뿐만아니라 전선에서 올라와 어디가 어느 부서인지 몰라 어리둥절해서 복도에서 기웃거리는 장교들을 조롱하는듯한 눈웃음으로 돌아보군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저자가 901고지에서 피멸당한 부대장인가？》

《저잔 뭐야？！》

《포위당했던 그 장교네.》

《아—》

《신통히 녀자들한테만 용감한 영웅들이요.》

《허…》

그자들은 서류들을 안고 복도로 사뿐사뿐 걸어다니기도 하고 층계를 따라 미끄러지듯이 내려가면서 이런 귀속말을 주고받으며 자기네만 아는 결말질로 히히닥거렸다. 어떤 뚱뚱보는 나비처럼 가볍게 층계로 뛰여올라서는 맵시있게 홱 돌아서 복도로 역시 가볍게 걸어가는것이였다. 또 어떤자들은 문을 소리없이 살짝 닫고는 재치있게 한바퀴 팽그르 돌아서는 발을 딱 붙였다가 앞을 곧바로 보며 걸어갔다.

렉스포드는 이런 멋만 부리는자들중 몇명을 붙잡고 전선형편이며 인민군이 갱도를 요새화한 조건에서 독가스탄을 쓸수밖에 없는데 빨리 그것을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그들은 앵무새처럼 《제기하겠습니다.》란 말을 반복하고는 가버렸으며 이튿날 다시 만나 어떻게 되였느냐고 물으면 무엇말인가고 눈이 휘둥그래지는것이였다.

렉스포드는 그자들의 이마에 납덩이를 하나씩 박아주고싶었다. 비대한 참모부의 기구들과 전선장교들을 시비질만 하면서 자신들은 포소리도 들어 못본 참모장교들의 무리들은 렉스포드의 부아를 돋구었다.

렉스포드의 환멸과 절망감은 극도에 달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의 대통령 취임은 모든 분위기를 일신해버렸다. 가차없는 인사조동이 진행되고 내려오는 명령과 지령들의 어조가 단호해졌으며 대대적인 무력증강이 진행되였다.

8군참모부의 인사관계를 보는 한 대좌는 렉스포드에게 사령부내 유력한 부서에서의 군무를 권고했다. 하지만 그는 《신공세》의 앞장에 서리라는 야심을 품고 전선으로 달려나왔던것이다.

그는 정계와 군부의 통수부에 새로 뛰여오른 우두머리들의 눈에 띄우는것이 중요했다. 이번의 공세는 지난 가을의 패배에서 훼손당한 명예를 회복하고 출세의 발판을 닦는 절호의 기회였다. 처음엔 그도 부대내의 염전기운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려고 했다. 장기전의 그늘은 염전사상이라고 누가 일찌기 말했는데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오늘 시찰의 결과는 너무나 절망적인것이였다. 무엇보다도 군대를 휩쓴 만성적인 라태에서 오는 더럽고 구질그레한것들로부터 풍기는 악취를 참을수 없었다. 장기방어의 산물인 이 모든것들이 어디서 왔단말인가?! 군인인 렉스포드의 사고력은 인내력과 의지 박약, 죽음의 공포에서 야기되는 염전사상이란데까지 이르러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더 깊은데를 꿰뚫어볼 능력이 없었다. 인간정신은 창조적로동의 열정에 의해서만 타락과 부패에서 구원될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간파할수 없었다. 그자신 신성한 로동의 땀을 흘리며 숟가락 하나 만들어본 일 없고 남의 로동의 피땀에만 기생하여 살아왔는지라 이 생명본능의 진리를 리해할수도 없었다. 하여 일년내내 고인물처럼 고착된 방어진지에 괴여서 부대는 악취를 풍기며 썩어갔다. 이 썩은 고인물에서 염전, 도난, 자살, 원인 모를 호상 증오, 온갖 라태 등등이 병균들처럼 번성했다. 렉스포드는 인류력사의 합법칙적행정을 역행하는 반동적인 군대가 장기전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타락하고만다는것을 리해 못했다. 그리하여 이 밤 그는 번민하며 분노하며 피로와하면서도 다른 방향에서 수습대책을 탐색하고있었다.

밤중에 그의 보좌관인 젬킨소좌가 들어와서 참모부가 탐색한 세가지 방안을 제기했다.

첫째, 인민군정찰병들과 내통한듯한 부락 하나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소탕작전을 벌림으로써 사병들의 용감성을 계발할것.

둘째, 《국군》장교들속에서 한 용사를 선발하여 그에게 백방의 지원을 주고 1차공격에서 살아만 돌아와도 훈패와 상금을 가슴에 안기고 기한전 승급을 제기함으로써 젊은 장교들의 공명심을 계발할것.

단검으로 손톱을 다스리며 참을성있게 듣고있던 렉스포드는 세번째 방안에서 술 이야기가 나오자 오늘 하루동안 가슴에 쌓이고 쌓였던 울화를 한꺼번에 터뜨리고말았다. 그는 걸상을 밀어던지고 뛰여일어나서 단검끝을 소좌의 코앞에서 경련적으로 흔들어대며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참모부는 사색을 말고 집행이나 하시오!》

젬킨이 쫓겨나간 다음 렉스포드는 얼굴이 창백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앉아있었다. 이런 발작은 요새 와서 그에게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였다. 그때마다 그는 숨쉬기 가빠나고 눈앞이 아찔해지는것이였다. 이윽고 그는 사지가 나른해지며 피곤을 느꼈다. 허탈상태에 빠진듯 걸상에 몸을 싣고 늘어져있던 렉스포드는 잠시후 비범한 한 장교가 나타나면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할수도 있다는것을 생각하고 일어나 방안을 거닐다가 무엇엔가 흠칫 놀란듯 굳어져버렸다. 비상한 착상이 떠오를 때면 언제나 그러하듯 그의 눈은 령감에 젖어 부드럽게 빛났다. 비록 그것이 젬킨이 제기한 두번째 방안의 변종에 불과하다는 의식이 자존심을 자극했으나 외면한채 자기의 《착상》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이튿날 아침 백상기는 때아닌 휴가명령을 받았다. 그 희한한 소문은 순식간에 방어선에 퍼졌다. 그는 깨끗한 접시와 사발에 담긴 신선하고 푸짐한 료리들이며 늦잠이며 아버지와 계모앞에서의 무훈담의 밤이며 봄날처럼 아늑할 진해만에서의 산보 등을 눈앞에 그리며 면도를 하고 손톱을 다스리고 트렁크를 꾸렸다. 부대장교들과 사병들의 선망의 눈길을 등뒤에 느끼며 휴가의 길을 떠났던 그는 20리도 채 못가서 체포되여 즉시 렉스포드의 방에 압송되였다.

렉스포드는 살기띤 눈으로 그를 쏘아보더니 말없이 책상빼람에서 불룩한 봉투를 꺼내서 그안에 든것을 거꾸로 쏟아놓았다. 네알의 이그러진 권총탄이 탁상에서 딩굴었다. 렉스포드는 그것들을 상기앞에 한줄로 세워놓고 실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이것은 변용구소령의 방탄조끼에 박혀있던 권총탄이요. 나는 미8군소속장교를 사살한 군을 군법회의에 넘기기로 결심했소. 기소된만큼 나로서도 어쩌는수 없소. 기소자는 민병일상사요!》

백상기의 얼굴빛은 종이장처럼 창백하게 질렸다가 점점 새까맣게 죽

어가며 관자노리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렉스포드는 말없이 그를 쏘아보고있었다.

방안공기는 얼어붙은듯했다.

머리를 싸쥐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던 백상기는 벌떡 뛰여일어나며 소리질렀다.

《당신은 왜 지금에야 나를 체포합니까?!》

그의 이런 행동에서는 죽음을 앞둔자의 단말마적인 무분별이 느껴졌다.

렉스포드는 두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뛰여일어나 분노를 터뜨렸다.

《닥치오!》 그리고 그는 무겁게 걸어서 소창가로 가더니 밖을 내다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군이 용사인줄 알고 묵살해버리려고 참아왔소. 그러나 오늘에 와서 쓸모없는 장교란것이 판명된 이상… 아까울게 없소! 아까울게 없소!》

《중좌님!》

튀여나올듯이 크게 뜬 백상기의 눈에서는 일루의 희망이 빛나며 눈물까지 떨구었다.

며칠후 렉스포드와 종군목사는 새 전투복을 차려입고 얼굴에 혈기가 왕성한 백상기를 데리고 일선으로 나왔다.

백상기는 장교들과 사병들 앞에서 자기는 이 력사적인 시각에 한가한 시간을 보낼수 없었는바 휴가를 포기했노라고 말하고 자기 대대에 갱도를 파괴할 임무를 달라고 렉스포드에게 《청원》했다.

렉스포드는 3백문대포의 일제사격이 그들의 공격을 반주해줄것이라고 언명했고 종군목사는 류창한 목소리로 그의 명복을 빌었다.

날이 어둡자 방어진지는 공격준비로 들끓었다. 비좁은 교통호는 뛰여가고 뛰여오는 장교들과 사병들로 붐비였다. 포병대는 사병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하여 인민군 고지들의 전연에 일제사격을 퍼붓고있었다.

습관적으로 장교들의 토굴에 더러운것들을 치우러 들어갔던 공달호는 포탄깍지를 안고 나오다가 뒤등에서 들리는 백상기소령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를 모해하려는 놈들이 있다. 지난 가을 3대대에서 편입되였던 놈새끼들은 아낄것 없다! 몽땅 앞장세워라!》

공달호는 그 말을 듣자 얼이 빠진 사람처럼 허둥지둥 걸어나오다가 교통호에서 마주오는자들과 부딪치기도 하고 돌부리를 차고 넘어지기도 했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샘터까지 왔는지 몰랐다.

그곳은 그가 장교들의 세면물을 떠가기 위하여 파놓은 샘이였다. 언

제나 김을 올리며 괴여있는 맑은 샘물에는 그의 눈물이 수없이 뿌려졌으며 이 작은 인간의 번민과 공상에 타는 가슴이 내뿜는 한숨이 자욱히 서려있었다. 그곳은 이 암흑세계에서 그가 찾아놓은 유일한 안식처였으며 인간으로 돌아와 마음놓고 울고 분노를 터뜨리고 공상도 할수 있는 자유로운 보금자리였다.

공달호는 샘결에 털썩 주저앉아 이제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는 암담한 절망감보다도 가슴을 너무나 세차게 두드려 자신도 그것이 무엇인지 가늠할수 없는 벅찬 흥분에 싸여 이글거리는 눈으로 인민군고지쪽을 바라보았다. 오늘밤엔 웬일인지 방송도 안했다. 고지 꼭대기에서는 포탄들이 터지며 불덩어리들이 튀여오르고있었다. 공달호에게는 문득 그 선녀같은 아씨가 이 밤도 이쪽을 보려고 산꼭대기에 올라왔다가 포탄에 맞아 지금 피흘리며 쓰러져있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들며 가슴이 저려났다. 그리고 지난 겨울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다정하고 옳은 말을 날려보냈으나 이쪽에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줄 알고 영영 가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들며 가슴이 허전해졌다.

처음 방송을 들었을 때 공달호는 듣기좋은 말로 이쪽을 구슬려보자는게라고 생각하며 장교들이 하는 본새대로 온갖 험하고 더러운 욕설들을 마구 퍼부었었다.

그러나 날이 감에 따라 달빛을 타고 날아오는 그 목소리가 자기들을 얼뜨기로 보며 함부로 얼려넘기려 하는것이 아니라 추석이 오고, 겨울이 닥쳐오고, 설날이 다가온다는것을 알려주면서 같은 심정이 되여 고향에 두고온 부모처자들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보초를 서느라고 얼어터진 귀와 손발에 대하여 아픈 마음으로 이야기한다는것을 알았다.

어느 맵짠 추운 날 달호가 토굴에 옴을 퍼뜨렸다는 루명을 쓰고 중위의 명령에 의하여 선임하사의 발길밑에서 매질을 당하고 이 샘터에 내려와 코피를 닦고있을 때에도 어머니의 입김 같은 그 목소리는 샘터로 찾아와 얼마나 억울하며 얼마나 고달프냐고 위로하며 누구를 위하여 이 고생을 하며 누구를 위해 전쟁에 끌려나와 싸우는가 생각해보라고 타일렀다. 이 방어진지의 밑바닥세상에서 장교놈들이 부르다싶이 《꽁다리》신세로 사람으로서는 못할 궂은 일을 다하면서도 온갖 수모와 매질을 당하며 살아온 그는 처음으로 그런 살뜰한 동정의 목소리를 듣자 설음이 북받치고 참고참아온 울분이 터져올라 꺽꺽 느끼며 울음을 터뜨렸다. 때마침 밤하늘에서는 뿌연 구름장을 가르며 눈부신 달빛이 컴컴한 어둠속으로 폭포처럼 줄기차게 쏟아져내렸다. 달

빛을 받은 그의 눈에서 푸른 눈물이 떨며 흘러내렸다.

세찬 눈보라가 짐승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산악들을 휩쓸고난 어느 새벽의 얼어붙은듯한 고요속에서 아씨의 저주에 떠는듯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당신들이 고용되여있는 괴뢰군은 장교와 사병들로 무어져있는데 그것을 복종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군사판등급으로만 보지 말고 장교 계급장을 붙인놈들이 어떤자들인가 눈을 밝혀서 살펴보라, 악질장교놈들은 미국놈들에게 붙어먹는 매판자본가, 지주놈들의 자식들이거나 그 끄나불들이다, 전선의 이 새벽 헌 사병복을 입고 떨고있는 당신들은 천대받고 굶주리며 살아온 지난날의 실업자, 가난한 농사군, 로동자, 수공업자, 머슴군들이다. … 공달호는 눈앞이 번쩍 트이며 이 세상이 두쪽으로 갈라지는것 같아 가슴을 들먹이며 귀를 기울였다. 미국놈들은 조선을 침략하고 우리 민족을 노예로 만들려고 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은 미국의 백만장자들과 놈들에게 붙어먹으려는 남조선의 지주, 매판자본가들과 괴뢰도당들의 리익을 위한 전쟁인데 당신들은 무엇때문에 싸움판에 끌려나와 사람 아닌 고생을 다하면서 자자손손의 치욕으로 될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목소리는 알기쉬운 말로 미국놈들과 놈들에게 붙어먹는 놈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남조선세상의 더러운 속내를 까밝히고 미국놈들이 조선사람들에게 가한 짐승같은 만행과 악질장교놈들의 행패질에 대하여 치를 떨며 단죄하면서 세상의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당신들이 더잘 알터이니 자기자신의 눈으로 본것을 놓고 생각해보라고 타일렀다.

렉스포드놈이 무고한 사람들을 지뢰원으로 내몰던 참경이며 변용구, 백상기, 민병일놈들이 서로 죽일내기를 하던 몸서리치는 일들과 지긋지긋하게 더러운 일들이 한데 어울려 트레트레 흐린 흙탕물처럼 소용돌이치며 눈앞을 흘러갔다. 이런 생각을 할수록 공달호에게는 자기네 방어진지가 웬일인지 쓰러져가는 헌집처럼 생각되여 얼굴에 고소해하는 미소를 그리며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이놈세상이란것도 집하구 같은거야, 장교놈들은 웃대가리에 앉아서 내려다보니 번듯한게 살기좋은것 같지만 밑바닥에서는 다 보여. 우에서 내려다보면 잘 안뵈나 밑에서 올려다보면 다 보인단말이거던. 어느 기둥이 기울어지구 어느 서까래가 썩구 어느쪽벽에 금이 가구 지붕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려 비가 새는거랑 다 보인단말이야. …)

눈이 푸실푸실 내리는 어느날 새벽 그가 샘터에 내려와 장교놈들의 세면물을 길으며 방송소리를 듣고있는데 방어진지앞 골짜기에서 폭발소

리와 함께 조명지뢰가 뛰여오르고 뒤따라 기관총련발사격소리가 고막을 찌르며 울려왔다. 공달호는 전투가 붙은줄 알고 미리 봐두었던 바위짬에 몸을 감추었다가 조용해진 다음 릉선으로 올라갔다. 토굴마을은 발칵 뒤집혀서 공포에 떨고있었다. 장교놈들이 살기띤 눈을 번뜩이며 서슬이 등등해서 토굴로 들이닥쳐 주먹으로 사병들의 따귀를 함부로 후려치며 《수상한자》들을 끌어내는가 하면 배낭들을 뒤져보고 사품들을 발길로 마구 걷어차며 행패질했다. 토굴문앞과 교통호 여기저기에 사병들이 몰켜서서 겁에 질린 눈으로 두리번거리며 수군거리고있었다.

교통호들이 교차된 《십자로》의 둔덕우에 인민군편으로 넘어가다가 이편 지뢰에 걸쳐 다리를 뭉턱 잘리운 이등병의 시체가 던져져있었다. 그의 백지장같은 얼굴에서는 사람의것 같지 않게 크게 뜬 눈이 하늘을 뚫어지게 쏘아보고있었다.

두명의 장교가 죽은 도망병과 평소에 가깝게 지낸 여섯명의 사병들을 공모자로 끌어내여 철조망 쇠말뚝에 묶어놓았다. 네번째 쇠말뚝에 묶이운, 얼굴에 주름살투성이인 늙은 이등병이 집에 일곱남매를 두고왔노라고 울음을 터뜨리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있었다고 항변했다.

이 방어선에서 소문난 고자질쟁이며 출세욕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인간백정노릇을 맡아하던 턱이 뾰족한 안경쟁이 상사놈이 그의 얼굴에 침을 탁 밷으며 뇌까렸다.

《자식, 악다구니질 그만해. 나는 벌써부터 네놈을 수상하게 봤어. 혀바닥만 잘 놀리면 맘을 감출수 있을것 같애?! 네놈이 눈은… 눈빛만은 감추지 못했어! 흐린 마음 먹은놈 눈은 흐려있구 앙심품은 놈의 눈은 칼끝처럼 번뜩이구… 화냥년눈은 밤고양이눈처럼 반들거린단말이다. 헤헤헤…》

저주를 퍼붓는 여섯명 사병들의 울부짖음을 막아버리며 렉스포드의 명령에 따라 때를 기다리던 기관총이 살륙의 불을 뿜자 그들은 피투성이가 되여 꼬꾸라졌다.

상사놈이 지껄인 소리는 선뜩한 얼음쪼각처럼 달호의 가슴에 박혔다. 공달호는 오한을 만난 사람처럼 이발을 악물며 전률했다. 자기자신도 어디선가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는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났다. 이튿날부터 그는 눈에 노상 웃음을 담으려고 애썼으며 누구나 쳐다볼 때에는 그 사람의 썩 뒤를 뚫어지게 봄으로써 초점이 멍청하니 흐려지게 하려고 꾀하였다. 그리고 군대의 밑바닥생활에서 요령과 꾀를 배운 그는 슬그머니 귀머거리행세를 하며 턱을 떨었는데 이런

꾀는 인차 믿음을 받아 어느놈도 그를 인민군방송과 련관시켜 생각하지 않게 되였다. 하여 그는 밤마다 샘터에 내려가면 선녀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다는 제나름의 락때문에 온갖 수모와 뭇매질을 당하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남들이 끔찍해하는 궂은일을 말아하며 너덜거리는 옷을 걸치고 절뚝거리며 방어진지의 구석구석을 뛰여다녔다.

그는 밤에 물길러 샘터에 와서는 어머니나 누이앞에서 옛말을 듣는 소년에게서나 볼수 있는 호기심과 동심이 되살아난 눈을 슴벅거리며 바람결에 멀어졌다 가까와지기도 하고 때로는 별들이 총총한 밤하늘에 가득차서 울리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때로는 채찍소리처럼 귀청을 찌르며 사병들의 얼마 안되는 봉급과 보리쌀을 떼먹는 장교들과 선임하사들의 죄행을 단죄하고 당신도 그런 일을 겪으면서 왜 용서해두는가고 귀띔해주기도 했다. 공달호는 벌써 석달전에 자기 돈을 투전판에 밀어넣고도 주지 않는 분대장의 뺨을 마음속으로 마구 후려치다가는 어쩌면 우리들의 이런 속내까지 알고있을가 하는 놀라운 생각이 들어 두리번거렸다. 그에게는 밤마다 고운 목소리를 날려보내는 그 아씨가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속에 선녀처럼 몸을 감추고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을 속속들이 내려다보며 말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눈이 푸실푸실 내리는 푸근한 밤이면 그 아씨는 꿈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이북에선 자기네들같이 억눌려서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임금처럼 나라의 주인이 되여 공장이랑 땅이랑 백화점이랑 바다랑 다 차지하고 있다는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는 옛말의 재미있는 대목을 듣는 소년처럼 앉음새를 바로 가지며 눈이 동그래져서 마음씨 인자한 누이의 머리처럼 보이는 인민군 고지꼭대기를 바라보게 되는것이였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있노라면 머리가 핑돌며 꿈에 취해버린것 같으면서 울려오는 목소리가 꾀꼴새나 종달새 목청보다 더 달콤하게 들리였다.

마침내 그는 고지우의 밤하늘에서 눈처럼 흰옷차림의 선녀가 긴치마자락과 저고리고름을 날리며 서있는 모습을 그려보게 되였으며 반짝이는 별들이 선녀의 옷자락에 달려있는 옥보석 구슬처럼 느껴졌다.

이쯤되면 공달호는 공상에 빛나는 눈을 스르르 내리감고 꿈속에서처럼 선녀같은 아씨의 손길에 이끌려 현란하게 눈부신 세계로 들어가서 은혜로운 세상이 주는 밭도 가슴에 안아보고 큰 공장으로 들어가는 로동자들의 씩씩한 물결속에 끼여 함께 웃으며 걸어도 보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넓은 교실에서 공부도 해보는것이였다. 그리고는 청어굽는 냄새나 마당 가득 풍기며 살아보자던 벌레같은 자기 인생의 옛리

상을 돌아보며 측은해하는 미소를 보내기도 하는것이였다. 그는 가슴을 쭉 펴고 참된 삶의 길로 뛰여들고싶은 욕망에 밤마다 가슴을 불태웠으나 그때마다 수색병,정보원,고자질쟁이,악질장교놈들의 검은 마수가 덜미를 와락 잡는것 같은 느낌에 오싹 몸부림치며 주저주저하다나니 이날에 이른것이다.

피치못할 죽음의 공격에로 끌려나게 된 이 밤 공달호는 지난날 결단을 내리지 못한것을 가슴을 치며 후회하였다. 그리고 량편이 무서운 화력으로 맞불질하는 형편에서는 탈출이 밤나비가 불길속으로 날아드는것처럼 무모한짓이라고 생각할 때 눈앞이 더 막막해졌다. 게다가 지난 겨울 내내 의지하여 살아온 그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으니 자기 몸이 황량하고 살벌한 세상에 버림받은듯한 서글픔까지 겹쳐 절망감은 극도에 달했다. 그럴수록 한편 사람답게 살아보고싶은 욕망이 여느때보다 더 세차게 북받쳐올라 불찌같이 타는 눈으로 어둠속을 뚫어지게 내다보았다.

뒤에서 우악스러운 손이 덜미를 잡아쳐드는바람에 그는 와뜰 놀라며 돌아봤다. 분대장의 찌프린 얼굴이다.

《자식 뭘해 출발하는데!》

이날 밤 렉스포드는 약속대로 삼백문대포의 일제사격으로 인민군고지를 포격하였고 백상기대대는 자욱한 포연속에서 공격을 개시했다.

일년내내 계속된 포격에 사태가 내려 가파롭고 미끄러운 산기슭을 따라 그들은 밀고 당기고 미끄러져내렸다가는 다시 기여오르며 한걸음 한걸음 톺아올랐다. 흙덩이가 굴러내리는 소리,무기들이 철컥거리는 소리,씩씩거리는 숨소리,이새로 내뱉는 욕지거리,인민군 고지는 마치 수백마리의 개미들이 자기 다리로 기여오르는것도 모르고 서있는 코끼리처럼 꿈쩍을 안했다. 앞에서 기여오르는 사병의 커다란 궁뎅이뒤에 머리를 박고 가슴이 한줌만해서 기여오르던 공달호는 엉거주춤 일어나며 고지를 올려다봤다.

이 순간 그는 산중턱과 꼭대기에서 그 수를 한눈에 헤아릴수 없는 불구멍들이 열리며 하늘이 허물어져내리는듯한 우뢰소리와 함께 불줄기들이 뿜어나와 선두 소대들의 사병들을 삼켜버리는것을 봤다. 그는 《악!》소리를 지르며 땅우에서 딩굴었다. 지진처럼 땅이 떨고 열풍이 휘몰아치며 몸이 그대로 익어버리는것 같았다. 폭음,총성,욕설,비명,울음소리… 공달호는 미국놈을 위한 개죽음을 당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불길속에서 벌떡 솟구쳐일어나서 숨막히는 포

연속으로 뛰여내려갔다. 그는 폭음도 총성도 비명도 듣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가 미칠듯한 소리를 내지르는것 같았으나 그 소리도 듣지 못했다. 단지 자기 가슴이 방망이질하는 소리가 하늘끝까지 가득차서 쿵쿵쿵 울리는 소리만 들었다. 그는 어두운 포연속에서 담장같은것에 부딪쳐 뒤로 나가떨어졌다. 이 순간 그는 누구의 발길엔가 엉치를 마구 걷어채웠으나 남의 살처럼 아프지 않았다. 맞으며 쳐다보니 백상기소령이였다.
《꽝다리새끼구나！ 어디로 도망쳐？！ 나가라！ 나가라！ 올라가라！ 네까짓 꽝다리새끼가 목숨이 아까와？！ 올라가라！》
공달호는 무슨 힘에 이끌렸던지 벌떡 솟구쳐일어났다.
백상기는 외마디소리를 꽥 지르며 주먹으로 그의 뒤등을 쳐서 앞으로 밀쳐버렸다. 그바람에 공달호는 꼬꾸라질듯이 비칠거리며 앞으로 발을 헛딛다가 몸을 가누고는 두다리를 떡 뻗치고 섰다. 이 순간 그의 가슴에서는 피덩어리같은것이 소리치며 터져올라 그것이 불길처럼 타번지며 온몸을 황황 불사르는듯했다.
《앞으로！ 돌격！ 도망치는놈새끼들은 쏴죽일테다！ 돌격！》
가까운 앞쪽 자욱한 포연속에서 권총을 휘두르며 사병들을 몰아세우는 백상기의 잔등이 언뜻거렸다. 공달호는 설음같기도 하고 울분같기도 한 걷잡지 못할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팔다리를 와들와들 떨며 눈물을 뿌리면서 부르짖었다.
《나는 〈꽝다리〉가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네놈은 짐승이다！ 짐승이다！ 짐승이다！ 나는 사람이다！》
공달호는 왈칵 방아쇠를 당겼다. 눈앞에서 번개가 치고 몸이 뒤로 흠칫 밀리웠다.
앞에서 짐승의 울부짖음같은 소리들이 끓어번졌다.
《아—아—아—》
《대대장이 죽었다！》
《아—아—아— 암살이다！》
《누가 쐈느냐？！》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공달호는 비로소 자기가 어떤 용단을 내렸는가를 깨달았다. 그는 가슴에 엉키고 엉켜서 자기를 죽도록 괴롭히던 피고름이 쑥 빠져나간듯 몸이 홀가분해졌다. 공달호는 하늘로 날아오르는듯한 쾌감을 이기지 못하여 환희의 탄성을 내지르고싶었으나 이제 발각되여 잡히기만 하면 끝장이라는 위구심이 뒤따라 입을 꽉 다물

고 부르르 몸부림쳤다. 기력이 허약한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난 이런 상반되는 감정의 소용돌이는 그의 머리를 핑 돌게 하고 어지럼증까지 일으켰다. 그는 달려가다가 폭탄구뎅이속에 굴러떨어지고말았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사위는 고요하고 매캐한 초연이 무거운 안개처럼 골짜기 가득 서려있었다. 폭탄구뎅이에서 기여나와 두리번거리니 여기저기 널려있는 시체들이 보였다. 그는 이 무시무시한 사지에 자기 혼자 외토리로 남았다는 생각이 들자 와뜰 놀라서 멈춰섰다가 인민군고지쪽을 향해 뛰여올라갔다. 그러나 그 어떤 위구심에 우뚝 멈춰섰다. 자욱한 초연이 안개처럼 눈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위는 숨막히게 괴괴하다.

갑자기 엄습하는 고독감에 공달호는 얼굴을 싸쥐고 비칠거리다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았다. 이윽고 그는 팔다리를 늘어뜨리고 하늘을 향해 누워버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초연속에서 가늠할수 없는 공기의 파동이 일며 훈훈하고 상쾌한 봄바람같은것이 얼굴우를 스쳐지나갔다. 공달호는 흐리멍텅한 속에서도 귀에 익은 방송원아씨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것을 붙잡아 의지하려는듯 팔을 들어 허우적거렸다.

(아, 아씨! 아씨!)

그는 일어났다.

공달호는 자기를 부르는듯한 그 목소리에 용기를 얻어 초연의 안개속에서 비칠거리며 고지를 향하여 걸음을 옮기다가 무엇에 흠칫 놀란듯 마구 뛰여올라가며 다급한 소리를 내질렀다.

《사람—살려—주—시—오—》

…공달호는 전사들에게 이끌려 갱도속에 들어오자 치욕스런 괴뢰군복을 벗어 갈기갈기 찢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는 류정혜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때 정혜의 마음은 어떠했으며 전사들 가슴 또한 어떠했으랴!

갱도속의 전사들은 그의 옷을 불살라버리고 목욕을 시키고 배낭들을 들춰서 여벌로 간수했던 내의들과 낡은 작업복을 입혔다.

3소대 병실에서는 조칠성이가 공달호에게 면도를 하라고 손거울과 칼을 주었다. 공달호는 거울속에 비친 자기의 희멀끔한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놀라며 이것이 나인가고 묻는듯이 전사들을 돌아보며 어줍게 웃었다.

조칠성이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벙글거렸다.

《허, 새신랑감이군! 이런 미남자를 〈꽁다리〉라구 불렀다니 죽

일놈자식들!》

박광준도 명보도 찬일이도 모두 즐겁게 껄껄 웃었다. 정혜도 두손을 맞잡고 얼굴을 홍조로 태우며 전사들과 같이 웃었다.

이런 떠들썩한 환대에 어정쩡해도지고 다소 우쭐도 해진 공달호는 전사들의 청에 의하여 괴뢰군에서 고생살이하던 이야기를 하다가 얼결에 더러운 생활에 빠져있는 장교들의 뒤치닥거리를 하던 일까지 말하게 되였다. 그 말을 듣자 조칠성은 주먹으로 땅을 치며 격분을 터뜨렸다.

《뭐라구?! 당신은 조선사람 얼굴을 더럽혔소! 이렇게 찾아만 안 왔어두 용서 안하겠소! 당신한테두 조선사람 피가 있소, 없소?!》

청천벽력같은 이런 부르짖음은 그로 하여금 비로소 존엄있는 인간적인 감정에로 돌아오게 한것 같았다. 그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서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뚫어지게 보더니 방바닥에 풀썩 엎드렸다. 그리고는 억이 막힌 사람처럼 꺽꺽 느끼며 울었다.

박광준은 씨근거리는 조칠성을 흘겨보며 그의 주먹을 꽉 잡아서 진정을 시켰다. 그리고는 측은해하는 눈으로 공달호를 내려다보더니 오르내리는 그의 잔등을 다독다독 두드리며 타일렀다.

《님자, 이런 욕을 탓하면 사람질을 못해.… 저쪽에서야 이런 쓸욕을 해주는 사람이 있던가. 부모 내놓고야 누가 이런 욕을 해주겠나!》

《네네, 알아요!… 내 알겠어요!》

공달호는 전사들앞에 엎드려 울었다.

2

이튿날 새벽 4시, 아놀드사단장이 극비밀리에 작전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벌써 기미를 알아차리고 흥분에 들떠 웅성거리는 장교들을 둘러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아이젠하워가 전선을 시찰하고 돌아가서 비준한 《신공세》의 《계획》을 펼쳐보였다.

전전선에서 지상군의 일제공격은 바다로부터 륙전대의 상륙개시와 함께 시작된다. 미16군단으로 편성된 륙전대는 미제5전략공군과 미해군7함대의 강력한 지원밑에 서해안에서는 한천과 남포사이로, 동해안에서는 원산과 통천사이로 상륙하여 높은 기동력으로 공격성과를 확대하여 조선반도를 절단함으로써 인민군의 전선부대들과 그 예비대

들을 후방으로부터 고립시킨다. 공격을 개시한 지상군은 바다에서 상륙한 륙전대의 일부 력량과 협동하여 인민군전선부대들을 《포위섬멸》한 다음 륙전대의 기본력량과 합세하여 인민군의 전략적예비대들과 후방기지들을 《소탕》하면서 일거에 압록강,두만강까지 북상하여 빠른 시일안에 전쟁을 《승리》로 결속지을것이였다.

사단장놈은 각 부대들에 전투임무를 주고 작전구역을 할당하였으며 부대와 부대사이의 린접계선을 그어주었다.

렉스포드부대의 작전개시와 함께 인민군방어선 제2제대후방에 락하산부대가 투하될것이다. 렉스포드부대전연의 6개의 고지들은 포위되여 인민군 갱도들은 그들을 수용하는 《포로수용소》로 되여버릴것이다. 렉스포드부대는 갱도와의 전투를 피하여 될수록 손실을 적게 내며 북상하라! 신속한 기동을 위하여 지휘부들을 앞으로 옮기라!

렉스포드는 곧 부대를 향해 떠났다. 이런 때 그의 기분을 잘 맞출줄 아는 운전사는 차를 질풍같이 내몰았다. 차가 산굽이를 돌 때마다 아찔하게 높은 절벽들이 연거퍼 앞으로 덮치는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으나 놈은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며 눈에서는 차디찬 섬광이 번뜩이고있었다. 이번에도 륙전대의 활동에는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지상군의 역할을 홀시하는것 같은 《신공세》의 계획은 그의 화를 돋구었으며 그럴수록 전반적전략계획을 놓고볼 때 자기 부대의 작전구역이 너무 구석진곳이고 부차적인 방향에 따돌려진듯이 생각되였다. 렉스포드는 질투와 야망으로 그늘진 얼굴로 작전이 개시되면 전선의 주목을 곧 자기에게 끌리라고 벼르며 어금이를 꾹 앙다물었다. 그러나 이 순간 자기부대의 진로와 최후의 《점령지구》에 굴지의 탄광과 희유금속광산이 몇이 있다는 사정은 그의 마음을 한결 위로해주었다.

놈은 벌써 불타는 도시들과 마을,대화재의 불길처럼 산야를 휩쓸며 북상하는 부대들의 모습과 자기 가문 재벌의 화물선들이 이 땅의 항구들로 밀려들며 울리는 긴 배고동소리의 메아리를 듣는듯했다.

부대로 돌아오자 렉스포드는 제일전연 3층감시소로 참모부의 1제대를 끌고나오리라 결심했다.

그는 참모부의 의사나 장교들의 기분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이 결심을 단행하였다. 정의로운 도덕과 리성으로 안받침되지 못한 미욱한 의지력은 왕왕 이런 방향에로 타락되여 파멸을 앞당기기마련인것이다.

3층감시소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철문으로 봉쇄된 안전한 방에 렉스포드는 자기의 거처를 정했다. 지하 수메터의 깊은곳에 위치한 이

방안엔 습한 기운과 함께 언제나 괴괴한 정적이 깃들어있었다.
그들의 상공으로는 하루종일 중폭격기 편대들과 습격기 편대들이 날아가고 어딘가 인민군대의 먼 후방을 폭격했다.
그리고 수백 수천문의 대포들이 인민군 1제대와 2제대 방어선들을 불바다로 덮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닷새나 지나도 락하산병 부대는 투하되지 않았고 총공격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무선으로 상급참모부에 문의하는것은 금지되여있었다.
사단과 군단 그리고 아득히 높은 그우에서는 무엇인가 망설이고있는것이 분명했다.
렉스포드는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고 입술이 타서 꺼풀까지 일었다. 그는 상급참모부에 대하여 저주에 찬 욕설을 퍼부어대며 매일과 같이 감시구를 통하여 굶주린 승냥이와 같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인민군고지들을 노려보고있었다. 인민군 고지들은 매일같이 포격당하면서도 태연자약한 자세로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화력전의 허세도 부리지 않는 고지들의 그 태연한 침묵이 렉스포드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저 속에는 어떤자들이 살고있는가? 왜 응수를 안하는가? 저자들은 어찌자는 심산인가?…놈은 초조하고 불안해졌다.
어느날 새벽 3시경,3층감시소의 제일 좌측 화구앞 20여메터지점에서 어떤자의 그림자가 얼씬거리더니 퀙—퀙— 부르는 소리가 울렸다.
《여—여—여—》
화구는 짤막한 사격으로 대답했다.
《여—여— 쏘—지—말—라— 나는 2중대장—이—다— 쏘—지—말—라. 여—여—쏘지 말라— 살려—달—라—》
두명의 이등병이 중간골짜기로 내려가 그를 업어왔다.
업혀온 중위의 몰골은 모든 상상을 초월한것이였다. 불에 타고 파편에 찢기고 흙투성이된 군복은 꺼멓게 피가 엉켜붙은 몸뚱이우에서 너풀거리고있었다. 웬일인지 앞머리칼이 한줌이나 뭉청 빠져서 손에 쥐여있었고 한쪽 귀끝이 탄알에 잘리워있었다. 탄알들이 관통한 왼쪽다리는 너덜거렸다. 그 몰골을 보자 렉스포드는 사병들속에서 돌아간 갱도에 대한 모든 풍문들이 진실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소름이 끼쳤다.
중위놈은 정신이상자의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더니 부르르 경련을 일으키며 울었다. 그리고 백상기대대의 괴멸에 대하여 보고했다. 백상기소령이 사병들속에서 쏜 총탄에 맞아 쓰러지자 또 몇명의 장교들이 뒤에서 날아오는 총탄에 꺼꾸러지고 공격서렬에서는 일대 혼

란이 생겨 무질서한 퇴각이 시작되였는데 그들도 인민군의 화력권을 살아서 벗어날수는 없었다는것이다.

《누가 백소령을 쐈는가?!》

렉스포드는 눈에 불을 켜고 죽어가는 중위의 눈을 들여다봤다.

《저는 그때 다리에 부상당하여 누워있었는데 제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꽁다리〉라고 부르던놈이… 아아… 그놈이 쐈습니다! 똑똑히 봤습니다!》

《뭐라구?! 그따위놈이?!》

렉스포드는 중위에게서 외면하더니 바지주머니에 두손을 찌르고 허리를 펴며 눈을 지그시 내리감았다. 시꺼멓게 빛이 꺼진 그의 입술이 눈에 띄지 않게 떨면서 신음소리같은것이 새여나왔다. 얼마전 백상기대대의 일선참호들을 시찰할 때 절뚝거리며 달려오던 기형적인 사병의 몰골이 떠올랐다. 그러자 가슴이 조그마한 못에 쿡 찔리운듯 아파나며 온몸의 근육이며 창자들까지 푸들푸들 떨리는듯한 오열을 느꼈다. 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비좁은 방안을 왔다갔다했다. 가슴한가운데를 조그마하고 단단한 곤충이 물고 놓지 않는것 같은 혐오감과 아픔에서 오는 전률이 몸에서 멎지 않았다. 그는 중위가 죽은것도 사병들이 달려들어와 그를 끌어내가는것도 몽롱하게밖에 의식하지 못하며 방안을 거닐었다.

젬킨은 벽에 붙어서서 놀라는 눈으로 그의 이런 거동을 유심히 노려보고있었다.

렉스포드는 갑자기 자기 거처인 이 지하의 방이 무덤속처럼 답답해났다. 그는 감시구로 나가 도망병이 넘어간 저쪽 세계의 산발들을 바라보았다.

저 아득히 먼 북쪽하늘에서 소용돌이치고있는 시꺼멓고 흰 구름장밑에서 눈에 덮인 희끗희끗한 산발들이 대집단군의 공격서렬처럼 옆으로 산개하면서 이쪽으로 밀려오고있었다. 그는 문득 놀라운 생각이 들어 눈을 크게 뜨고 산발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에게는 이때까지 조선의 산악들이 등고선으로 표시된 한낱 지리학적개념들로 점령군의 기발을 날리기 위한 공격목표로만 보였다. 그러나 이 순간 그것들은 전혀 다르게 보이는것이였다. 그는 우선 그 산발들이 어느 하나도 고립무원하게 떨어져있지 않고 혈맥처럼 이어져 줄기차게 흘러내리고있다는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렉스포드의 생각은 여기에서 공달호란 사병도 저 혈맥처럼 이어져서

흘러내린 어느 한 산기슭에서 태여났으리라는데까지 이르렀다.

(그자도 조선사람이였지!)

순간 놈은 자기앞으로 밀려드는 내부에서 무한대한 힘이 꿈틀거리는 것 같은 거대한 산악들의 파도를 보았다! 구름을 떠이고 하늘끝까지 솟아있는 그 산악들의 파도들은 흰 갈기를 날리며 치솟아오르는 노한 파도처럼 뒤설레였다. 그는 조난당한 배의 마스트에 매달려있는 마지막 선원이 하늘끝까지 치솟아올랐다가 자기에게로 아우성치며 덮쳐드는 파도를 보며 경악하는것 같은 눈으로 조선의 산악들을 보고있는것이 분명했다.

감시구의 쇠기둥을 꽉 움켜잡고있는 놈의 이마에서는 질벅하니 땀이 흘러내렸다. 놈은 이날밤 불길한 꿈을 꾸었다.

…어느 항만의 잔잔한 바다물결이 락조의 여광에 누런 빛으로 반짝이고있었다. 그는 낯모를 창부와 함께 모래불에 누워있었다. 온몸에서 정욕같기도 하고 공포같기도 하고 삶에 대한 집요한 미련같기도 한 감정이 꿈틀거렸으나 웬일인지 몸을 움직일수 없었다.

요부는 곁에서 좋아라 깔깔 웃어대며 그의 얼굴에 불찌같이 따가운 모래를 뿌렸다. 그는 푸푸 모래를 불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오싹 몸서리치며 돌아봤다. 그것은 콘자레스중위였다. 그의 가슴에서는 피가 줄줄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콘자레스는 말없이 빤히 내려다보더니 두손으로 그의 목을 죄였다. 《클라크, 장군에게 보내는 내 편지를 내라!》하고 거품을 물고 부르짖었다. 놈은 콘자레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모지름을 쓰며 그 이그러진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자세히 뜯어보니 그것은 콘자레스가 아니라 백상기였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백상기는 그를 내려다보며 벌쭉거리고있었다. 《헤헤헤… 천만에… 천만에… 천만에…》 마사진 레코트판에서처럼 백상기의 입에선 이런 말소리만 흘러나왔다. 이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며 와—와—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쪽에서 낮에 본 시커먼 산악같은 파도가 빤짝이며 밀려오고있었다. 백상기가 그것을 돌아보더니 도망쳐갔으나 렉스포드는 몸이 천근같이 무거워 손가락하나 까딱할수 없었다. 검은 파도는 그를 향해 밀려왔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파도가 아니라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의 무리였다. 그들은 얼음장같이 찬 기운을 풍기며 와 밀려들어 그를 에워쌌다. 중년남자들과 청년들과 녀인들이였다. 모두 낯선 얼굴들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지뢰원에서 죽은자들이구나… 그는 벌거벗은채로 모래불에 숨을 죽이고 누워있었다. 몸은 모래불에 녹아붙은듯 움직일수 없었다. 울타리를 이루어 빙 둘러선 사람들은 말없이

그를 내려다봤다. 귀속에서 앵— 소리가 날 정도의 무거운 정적… 그를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눈들은 불을 뿜으며 시퍼렇게 번득이였다. 그는 겁에 질려 온몸을 가드라뜨리며 눈을 감으려고 했으나 눈이 감기지 않았다. 어디선가 종소리같은것이 뎅—뎅—뎅— 하고 느른하게 울려왔다. 아, 저것이 조종의 메아리란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악— 소리를 질렀다.

눈을 떠보니 꿈이였다. 온몸이 식은땀에 축축히 젖었다. 번대머리 젬킨이 얼굴이 해쓱해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꿈을 꾸지 않았는가요?》

《아니요.》

《당신은 분명 무슨 소릴 질렀는데요.》

렉스포드는 잠자코 있었다. 젬킨은 담배를 피워물며 씨벌여댔다.

《나두 방금 괴상한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중좌님, 당신도 헛소리를 지른단말입니다. 참 괴이한 일입니다. 꿈에 치과의사가 당신 이발을 뽑는게 아니겠습니까. 래일부터 일체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어리석은 소릴 작작하고 자기나 하오!》

렉스포드는 버럭 역증을 내고 돌아누워서는 모포를 푹 뒤집어썼다. 치과의사가 내 이발을 뽑았다. 저자가 진짜 그런 꿈을 꾸었는가? 아니면 나를 은근히 골려주자는겐가. 언제인가 인민군의 기습에 피살된 헤메스중좌의 비망록에서 본 구절이 머리에 번개쳤다.

《…꿈에 이발이 빠지면 자기자신이 아니면 동료들중에서 누가 죽는다. …》 젬킨의 꿈과 자기의 꿈을 련관시켜 생각하니 가슴이 섬찍했다. 이런 꿈이며 황당한 말들은 그의 가슴에서 공포감까지는 불러일으키지 못했으나 무엇인가 께름한 불쾌감을 자아냈다.

이튿날 아침 그의 행동에서는 원인 모를 주저가 생겼다. 밖으로 나갈 때면 언제나 서슴없이 나갔는데 문어구에서 흠칫 놀라며 멈춰섰다. 교통호안에 인민군박격포탄이 떨어질것만 같았던것이다. 그는 문결에서 잠시 망설이게 되였다. 그런데 다음순간 자기가 서있는 바로 이 문어구에 포탄이 날아들것만 같은 위구심이 들었다. 그래서 도망치듯 후닥닥 뛰여나갔는데 뒤따라 다른 생각이 가슴에 엄습해들었다. 앞에 줄포탄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날카로운 예감이였다. 그는 문어구에서 뛰여나온것을 후회하게 되였으며 저도모르게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버렸다. 속이 메슥메슥해지며 전신에 가벼운 전률이 흘러갔다.

정오때 교통호들의 교차점에서도 이와 같은 주저가 생겼다. 그의 정신속

에서는 세개 네개의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서로 가로채면서 부르짖어댔다.
《우측으로!》, 《좌측으로 가라!》
《아니 복판으로 가야 안전하다.》 이런 때면 그의 눈은 초점이 흐려졌다.
그는 밤이면 자주 무서운 꿈에 시달렸다. 그의 손에 의하여 죽었거나 그의 명령으로 처형된자들이 피를 흘리며 찾아왔다. 조선의 산악들과 함께 악몽으로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이 나라의 밤이 역겹도록 싫어났으며 두렵기도 했다. 비수날같이 찬빛을 뿜던 그의 눈 동공이 흐리멍텅해지고 눈굽이 질적하니 풀렸다. 그의 마음에는 침울한 그늘이 비꼈다. 그는 매일아침 동쪽하늘에 솟아오르는 해가 구세주의 얼굴처럼 반가우면서도 그 찬란한 빛살이 역겨웠으며 밤하늘에서 빤짝이며 미소짓는 별빛마저 싫어졌다.
명랑성이나 락천성은 지성이 낮은데서 오는것이라고 멸시했으며 노래부르거나 혈기왕성하여 벌쭉거리는자들에 대하여는 어떻게나 트집을 걸어 앙갚음을 하고싶은 욕망이 꿈틀거렸다. 이것은 삶에 대한 질투였는바 그것은 언제나 까다로운 변덕으로 나타나는 법이다. 외교와 처세에 능한 젬킨소좌와 참모장교들도 그 변덕에 맞추지 못하여 시달림을 받게 되였다.
이러한 어느날 깊은 밤중 렉스포드는 자기 잠자리밑에서 괴이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땅속에서 맹수가 발톱으로 강철판이나 널판자를 긁으며 밖으로 기여나오려고 무진 애를 쓰는듯한 음향이였다. 한동안 울리던 그 소리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들을라치면 그쳤다가 얼마후 다시 쇠장대로 바닥을 툭툭 올리밀며 장난치듯 두들겨보는 소리로 변하여 얼마간 울리다가는 또다시 지심속 깊은곳으로 잦아들고 마는것이였다.
옆에 누웠던 젬킨소좌가 벌떡 뛰여일어나며 얼굴이 해쓱하게 질려서 그를 보았다.
《들었습니까?! 들었습니까?! 어제 새벽에도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산군이 우리 땅밑으로 파고들어오는게 아닐가요? 저들은 장교들까지도 로동자나 농사군들이여서 땅파기에는 능수지요.》
렉스포드는 담배를 피워물고 젬킨의 살이 진 뻔뻔스러운 얼굴을 말없이 노려보았다. 분명 무슨 불쾌한 음향이 울린것만은 사실이나 이 순간 그의 날카로운 신경은 그 사실보다도 그것을 인차 공산군의 은밀한 준동과 결부시키려드는 젬킨의 방정맞은 직감에 더 날카롭게 쏠

렸다. 렉스포드는 그가 지휘부의 1제대를 여기로 옮기는데 대하여 불만을 품은데 대하여 상기했으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의지를 흔들어보려고 꾀한다고 단정했다.

렉스포드는 살기띤 찬웃음이 흐르는 눈으로 그의 멀쩡한 눈을 노려보며 밸듯이 뇌까렸다.

《요새 와서 당신은 신경이 매우 허약해진것 같소. 폭발이 무시로 일어나는 일선에서는 이런 지진과 같은 땅의 진동은 례사로운 일이요!》

그는 이튿날 낮에 젬킨에게 방을 옮길것을 명령했다. 혼자 있으면서 누구의 간섭에 의해서도 자기의 신경이 흔들리우지 않으면서 그 불쾌한 음향이 어디서 울려오는가를 판단해보고싶었던것이다. 렉스포드는 침침한 정적속에서 자리에 반듯이 누워 그 소리가 울려오기를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새벽녘에 그 불쾌한 음향은 그의 가슴을 위협하듯이 울려왔다. 렉스포드는 자리에서 뛰여일어나 땅바닥에 귀를 대고 들어봤다. 그러나 그 소리는 그에게 잡히지 않으려는듯 어디론가 잦아들고말았다. 이때 밖에서 인민군 박격포탄이 터졌는지 천장이 울리며 가스등의 불꼬리가 춤을 추며 그림자들이 얼른거렸다. 다시 정적이 깃들었다. 그가 자리에 누우려는데 또다시 그 불쾌한 음향이 울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이 벽에서 울렸다. 그리고 뒤따라 천장과 바닥에서 마치로 철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혼잡을 이루며 울리는것 같았다. 렉스포드는 얼이 빠진듯 눈이 퀭하여 초점을 잃은 시선으로 공간의 한점을 응시하다가 벽으로 달려가 귀를 대고 숨을 죽였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가슴이 쿵쿵 방망이질하는 소리만 높게 울렸다. 그에게는 문득 이 모든 음향들이 자기의 육체속에서 부정맥같은것이 뛰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그는 더럭 원인 모를 공포에 전률하며 신비감에 휩싸여버렸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땅밑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다. 내 가슴속에서 울리는 소리다! 아,이건 운명의 예고가 아닌가?!)

렉스포드는 밖으로 뛰여나가 신선한 밤공기를 욕심스레 들이키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언제 나왔는지 젬킨소좌가 옆에 와 서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귀띔했다.

《공산군쪽에 넘어간 도망병에 대하여 사단에 보고해야 되지 않을가요? 그자는 공산군측에 아군의 화력배치며 공격기도들에 대하여 알려줬을게 아닙니까?》

렉스포드는 적의가 번뜩이는 눈으로 그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언명했다.

《당신은 또 나를 자극하고싶소? !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의지는 흔들리지 않소! 사단에 두가지 문제에 대하여 청원하오! 공격시간을 앞당겨줄것, 포병을 더 증강시켜줄것!》

3

비밀갱도는 적진지밑으로 깊숙이 뚫고 들어갔다. 작업의 마감단계가 가까와오자 고병근중대장은 엄격한 전투경계하에서 굴진을 진행케했다. 언제 어디서 구멍이 펑 뚫릴지 몰랐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대대 박격포들이 적진을 답새길 준비를 갖추고있었다. 굴속에는 자동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두개 분대의 인원들이 전투준비상태로 서있었고 작업하는 인원들도 모두 무기를 휴대했었다. 암석층이 끝나고 부석부석한 모래땅이 나오자 고병근중대장은 조명등들을 끄라고 했다. 방금 적병들의 기침소리며 말소리가 들려올것만 같았다. 전사들은 캄캄한 어둠속에서 입속말로 속삭이며 일했다.

곽병식은 결전의 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자 흥분을 금치 못했다. 그는 대원들의 전투준비상태를 깐지게 검열했으며 그들과 자주 담화하였다. 그 담화들에서 그는 전사들이 당중앙위원회 편지정신을 정확히 파악하고있는가, 이번 전투에서 어떤 공훈을 세울 결의를 다지고있는가, 3층감시소부근 지형과 화력배치정형에 대하여 잘 료해하고있는가 등을 알아보고 모르는것을 차근차근 가르쳤다.

그날 곽병식은 비밀갱도작업교대를 앞두고 잠시나마 해바라기를 하고싶어 늘 나가군하던 갱도어구로 나갔다.

명보가 이미 나와있었다. 둘은 가지런히 앉아 해빛을 쪼이며 먼산발들을 바라보았다.

후방으로 들어가며 첩첩 싸인 련봉들이며 산줄기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가까운 산들은 포탄이 파헤쳐놓아 꺼멓게 보였으며 먼 산들의 양지쪽은 벌써 눈이 다 녹아 진흙빛으로 보였다.

포소리도 비행기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중턱과 골짜기마다 뿌연 초연이 서려있는 산줄기들 우로는 쪽빛하늘이 비껴있었다. 향긋하고 시크무레한 풀냄새며 락엽이 썩은 냄새가 밴 봄바람이 불어올것만

같았다. 명보는 목단추를 헤쳐놓고 해빛에 시여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는 희열에 넘친 목소리로 말했다.

《소대장동지, 저 하늘을 보십시오. 야, 벌써 풀물이 든게 아닌가요. 막 새파랗네！》

《금년엔 철이 이르단 말이 있어. 이제 봄비가 올거야.》

《봄비요？！ 야, 저 하늘에서… 높기두 하지… 소대장동지！ 해빛이 이렇게 따뜻하니 몸이 나른하게 녹아나는것 같지 않아요？！》

곽병식은 명보를 오래 데리고있으면서도 그가 이처럼 행복감에 겨워하는것은 처음 봤다. 이 친구 오늘 어찌된 셈인가 하는 의아쩍은 생각도 들었다. 그는 정겨운 눈매로 명보의 얼굴을 돌아봤다. 입을 벙싯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는 명보의 보숭털이 보르르한 얼굴에는 끝없는 삶의 환희가 넘치고있었다. 그렇다, 명보의 눈에는 산과 하늘과 골짜기와 나무들이 모두 새로운 생신한 빛으로 채색된듯 더없이 아름답고 장엄해보였다.

그는 살랑대는 미풍과 따스한 해빛이며 상쾌한 공기에 취해있었다.

곽병식은 이런 명보가 더 기특하고 사랑스러워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명보, 노래라두 한마디 부르자구.》

《노래요？！ 소대장동지, 전쟁이 끝나구 봄비가 내리구 하면 여기 산들에두 풀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겠지요？》

《10년만 지나면 숲이 무성해질거요.》

《야— 그때는 어떨가. 도시들은 어떻게 건설되구 농촌마을들은 얼마나 변할가요. 소대장동지, 저는 이따금 이런 생각을 해요. 언제나 한번은 꼭 우리 중대가 피흘리며 싸운 고장들을 돌아보자, 간혹 일을 쓰게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우리가 싸우면서 고생한 이야기를 해주자, 그도 사람의 량심이 있을테니 가책을 느끼고 일을 잘하게 될것이다. 하하하…》

《좋은 생각인데.》

《그땐 저두 수염이랑 날테니깐 제 말을 신중히 들을게 아닙니까, 하하…》

《그럴테지…》

《소대장동지는요？》

《나말인가, 어디로 가든지 동무만은 배낭속에 넣구 가겠다니깐.》

《안되지요. 저는 전쟁이 끝나두 이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자들이 한놈 남지 않을 때까지 중대에 남아있겠어요. 소대장동지, 거절한다구 섭섭해 말라요. 하하하…》 명보는 소대장에게 몸을 기대며 웃어댔

다. 곽병식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가 몸을 꽉 안았다.
저녁 6시에 3소대는 비밀갱도작업을 인계받았다. 1분대가 제일 먼저 굴진에 달라붙었다.
작업은 역시 캄캄한 어둠속에서 진행됐다. 이따금 전지불로 비쳐보고는 흙을 파냈다. 어둠속에서 삽소리, 정소리, 가쁜 숨소리만 높았다.
조칠성이와 찬일이 소곤거렸다.
《이상한데？…》
《공병들이 틀림없이 측량했겠는데…》
《인젠 구멍이 뚫리겠는데말이야…》
《우리가 잘못 뚫어서 비뚜로 나간게 아닌가？》
곽병식은 전사들과 같이 땀에 흠뻑 젖어 삽질을 하다가 공병들을 데려올테니 좀 숨을 돌리며 쉬라고 일렀다.
전사들은 일하던 자리들에 주저앉아 담배들을 피우며 땀을 들였다.
박광준이만은 쉬지 않고 정대로 막장 벽을 쿡쿡 찔러보고있었다.
명보가 일어나서 그의 손에서 정대를 앗으며 말했다.
《좀 쉬라요. …》
박광준은 굴천장을 쳐다보며 후— 한숨을 내쉬였다. 그의 입김에 부스러져내리듯 흙이 부스스 떨어졌다. 차거운 흙모래들이 밑에서 쉬고있는 전사들의 등골로 흘러들었다. 고문칠이가 별생각 없이 전지불로 천장을 비쳐보더니 후닥닥 뛰여일어나며 소리질렀다.
《락반이다！》
전사들은 너무 급한 나머지 외마디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떼굴떼굴 굴어서 몸을 피했다.
어둠속에서 와지끈 소리가 울리며 풀썩하고 무엇이 떨어지더니 쏴— 하고 흙모래가 쏟아져내리며 굴속을 먼지구름으로 채웠다. 전사들은 입을 틀어막으며 기침을 참았다. 먼지속이 뿌유스름하게 밝아지면서 찬 공기가 그들의 얼굴에 끼얹혔다.
《아니… 천장에 저게 뭐야？》 명보가 새된 소리를 질렀다. 모두 천장을 쳐다봤다. 사람 하나 드나들만한 구멍이 펑 뚫려 별이 총총한 하늘이 내다보였다.
그들은 뚫린 구멍밑으로 몰려들어 달빛을 얼굴에 받으며 우를 쳐다봤다. 밖은 죽은듯이 고요했다. 만약 구멍이 3층감시소옆에 뚫렸다면 아무 소리라도 들릴것이 아닌가？ 잘못 파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이 그들의 가슴을 휩쓸었다.

고문칠분대장은 신찬일을 중대부에 련락보내고는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고 바깥동정을 살폈다. 여전히 고요했다.

명보가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다.

《분대장동지, 제가 머리를 약간 내밀어보겠어요.》

조칠성이가 넝큼 목마를 태워서 명보의 몸을 천장구멍으로 밀어올렸다.

밑에서 광준이 총을 주면서 속삭였다.

《여… 조심하라구…》

명보는 구멍으로 머리를 내밀고 두리번거렸다. 깊은 포탄구뎅이 속이였다. 마침 그로부터 열발자욱쯤 앞에서 웬 미제침략군놈이 바지춤을 걷어쥐고 꺼꺼부정해서 그를 노려보고있었다. 그놈은 이 외딴 포탄구뎅이속에 와 뒤를 보려다가 펑 뚫린 구멍으로 웬 사람의 머리가 쑥 내미는 통에 눈이 뒤집혀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던것이다.

명보는 그놈을 쏘아보며 몸을 움지락거렸다.

놈은 질겁해서 도망쳐 올라가면서 비명을 질렀다.

《아—악—》

저놈을 없애치우지 않으면 모든 비밀이 탄로된다는 생각이 명보의 뇌리를 쳤다. 그는 조칠성의 어깨를 차며 뛰여올랐다. 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땅속에서는 여러 손들이 그의 다리를 잡아서 내리끌었다. 명보는 버둥거리며 그 손들을 뿌리치고는 포탄구뎅이 우로 뛰여올랐다.

그놈은 3층감시소뒤 교통호쪽으로 정신없이 뛰여오르며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질렀다. 명보는 놈의 잔등을 겨누고 짤막한 련발사격을 퍼부었다. 놈은 몸을 뒤로 젖히며 허우적거리더니 교통호안으로 굴러떨어졌다.

(저놈이 숨이 붙어있으면 안된다!)

명보는 날듯이 달려올라가서 교통호안으로 뛰여들었다. 미제침략군놈은 교통호바닥에 막 엎어져 누구인가를 불러대고있었다. 명보가 그놈을 내리까고 죽음을 확인한 다음 몸을 일으켰을 때 갈래 많은 교통호를 따라 번들거리는 철갑모들이 달려드는것이 보였다.

명보는 달려드는놈들에게 련발사격을 퍼붓고는 교통호옆 둔덕에 뛰여올랐다. 몽둥이로 왼쪽 어깨박죽을 힘껏 때리는것 같았다. 그는 한고패 핑 돌아갔다. 코안과 입안에서 화약내가 물씬 풍겼다.

이 순간 그는 중대가 못견디게 그리워났다. 중대로, 전우들의 품으로 돌아가고싶은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틀어잡았다.

명보는 땅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안된다, 이놈새끼들아…) 그는 적을 비웃으며 아래로 비밀갱도의 구멍이 있는쪽으로 허둥지둥 달려내려갔다. 그러다 흠칫 놀란듯 멈춰선다! 무엇을 생각했던지 그는 방향을 바꾸어 구멍에서 멀리로 3층감시소옆을 에돌아 아군 진지쪽으로 뛰여갔다.

그러나 그쪽으로부터도 시꺼먼 무리들이 담벽처럼 일어서며 앞을 막았다. 명보는 온몸을 떨며 련발사격을 퍼부었다. 몇놈이 꼬꾸라지는것이 언뜻 보였다. 그는 홱 돌아서 적아간 중간지대인 골짜기쪽으로 냅다뛰였다. 총탄들이 바람처럼 옆을 스치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산기슭을 따라 철조망토막들을 뛰여넘고 무너진 참호를 건너뛰며 달렸다.

(개놈새끼들… 안돼!) 그는 자기를 추격하는 적을 비웃고있었다. 그는 여태 자기가 부상이나 그 이상의것을 당하리란 생각은 해본적이 없는지라 적을 조롱하는 장난기 비슷한 개운한 느낌에 떠받들려 뛰였다.

(개놈새끼들 안돼!)

서너명의 검은 그림자들이 땅속에서 솟아난듯 불쑥 앞에서 일어서며 놀란 개가 짖는듯한 소리를 질렀다. 그것들은 컴컴한 담장처럼 우중충하고 위압적인것으로 느껴졌다. 명보는 자기도 모를 앙칼진 소리를 지르며 자동총을 휘둘렀다. 놈들은 한데 몰키며 이리저리 꼬꾸라졌다. 그는 땅속에서 뻐드럭거리는놈들의 옆을 지나 냅다 뛰였다. 그는 비발치는 탄알의 울부짖음소리도 듣지 못했다. 넙적다리로 뜨거운 김같은것이 물씬 솟아오르며 자기 몸이 공중 들리는듯한 감을 언뜻 느꼈다. 18살의 소년병사는 뒤에서 자동총에 맞아 쓰러졌던 놈이 피가 끈적거리는 허리에서 수류탄을 뽑아서 던진것을 몰랐던것이다. 그저 증기목욕탕에 들어온것처럼 숨이 답답해나고 온몸에 참을수 없는 번열을 느꼈다.

그는 자기 두손이 이처럼 시원한것은 눈을 그러쥔때문이며 볼을 아프게 찌르고있는것이 철조망가시란것을 어렴풋이 느끼며 정신이 들었다. 그제야 명보에게는 모든것이 명백해졌다. 그는 중대가 있는 고지를 한번 더 보고싶어 머리를 들었으나 눈앞이 아찔해지며 얼굴을 눈우에 떨구고말았다.… 지난해 가을 참호에 온 련대장동지가 자기의 등을 또닥또닥 두드려주며 고병근중대장동지와 롱말을 하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니 중대장동무, 이런 착실한 련락병을 왜 내놓았소? 제가 뛰쳐났나? 쫓겨났나?… 허허…》

그리고 곽병식소대장이며 조칠성, 박광준의 얼굴들이 떠올랐다. 그들이 모두 자기가 왜 이렇게 목숨을 바쳤는가를 끝내 모르면 어쩌나 하는

섭섭한 생각도 들었다. 그는 다시 고지를 보려고 모지름을 썼으나 얼굴을 눈우에 박고말았다. 흐릿한 눈앞으로 짤막하나 그 하나하나가 해빛을 받은 이슬처럼 눈부신 생애의 토막토막들이 날아지나갔다… 그것은 소년단 분렬행진의 떠들썩한 울림으로부터 시작된 생애였다. 봄날의 명절 4.15가 오면 손에 손을 잡고 만경대로 찾아가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14살 어리신 나이에 조국을 찾으리라 맹세를 다졌건만 어찌하여 자기들은 밥상머리에서 응석을 부리고있는가 뉘우쳤었다. 아,모닥불,황황 타오르는 소년단야영의 모닥불,명보는 나팔을 너무 불어 입술이 동그랗게 부풀었었다. 별이 총총한 방학의 밤길,성인학교로 가는 어머니,아버지들의 손목을 끌고 달려갔었다. 파벽돌을 모아서 식료공장에 하늘에 닿는 높다란 《소년호》 굴뚝을 선물했었다. 민청에 든 이듬해 봄,송아지친구들과 풀밭에 누워 별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사랑이란것이 있어 누이들이 저렇게 이뻐지는게라는 말을 들으며 가슴을 들먹였었다.… 아니다. 그의 생애는 앞에 무지개로 비껴있었다. 그는 뒤를 돌이켜보며 추억의 한숨을 지어본 일이 없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공상의 눈부신 별무리들속으로 날아다녔다. 이 애통한 마지막 순간에도 명보는 적의 방어선에 돌파구를 뚫고 총공격을 개시한 련대의 눈부신 공격서렬을 보는것이였다.

명보의 눈앞에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올리는 맹세문의 서명란에 적어넣었던 자기 이름 석자가 불길처럼 타올랐다.

흰 위장포를 날리며 달려온 곽병식소대장이 버럭 소리지른다.

《명보동무！ 왜 그리구 있나？ 군화가 벗겨졌나？！》

《격발기가 고장났어요！》

《격발기라니？》

《소대장동지！》

《명보동무,뭐라구？！》

《같이 가자요！ 같이 가자요！》

명보의 작은 몸뚱이는 경련을 일으키듯 벌떡 일어났으나 모재비로 꼬꾸라지고말았다. 그바람에 자기 몸이 나무토막처럼 골짜기밑으로 굴러내리는것을 명보는 의식하지 못했다.

비밀갱도구멍밑에서는 박광준이와 조칠성이를 비롯한 전사들이 명보를 구원하자고 구멍으로 펄펄 뛰여올랐다.

고문칠분대장이 그들을 꽉 부둥켜안았다.

《놓아요！》,《놓아요！》

전사들은 몸부림치며 버둥거렸다. 분대장을 뿌리치고 다시 구멍에

매달렸다. 고문칠은 그들을 와락 잡아끌어내렸다. 전사들은 바닥에서 딩굴었다 다시 뛰여올랐다.
뒤늦게 달려온 곽병식소대장은 벽력같은 소리를 질렀다.
《섯! 섯!》
고문칠이가 박광준이와 조칠성을 꽉 끌어안았다.
전사들은 몸부림쳤다.
《구멍을 막소!》 곽병식은 나직이 말했다.
박광준과 조칠성은 머리를 번쩍 들며 소대장을 쳐다봤다. 비분에 타는 그 눈들을 차마 볼수 없었다. 곽병식은 가슴에서 무엇인가 탁 터지며 뜨끈뜨끈한것이 흘러내리는 감을 느꼈다.
《구멍을 막소!》
《소대장동지!》
《막소!》
박광준이 머리를 푹 떨구더니 그 육중한 몸을 부르르 떨면서 소리없이 흐느꼈다. 조칠성은 허물어지듯 털썩 주저앉으며 땅을 쳤다.
《막소! 일어섯! 막소!》 곽병식은 부르짖었다.
박광준이 헉 느끼더니 긴 동발목을 안고 구멍밑으로 걸어갔다. 조칠성은 반사적으로 벌떡 뛰여일어나서 가마니를 안고 달려나갔다.
곽병식은 배밑에서부터 터져오르는 비분을 참느라고 입술을 피터지게 깨물었다. 그는 홱 돌아서 어디라없이 정신없이 뛰여나갔다.
고지뒤턱 박격포진지우에서 고병근중대장이 머리칼을 흩날리며 주먹으로 공기를 내리치면서 박격포병들에게 소리치고있었다.
《쏫! 쏫! 쏫!》
곽병식은 중대장에게로 달려갔다.
《중대장동지! 명보를 안아오겠습니다!》
《가오! 명보를 놈들에게 넘겨줄수 없소! 가오!》
《쏫! 쏫! 쏫!》
박격포들은 위협사격을 퍼부었다. 포탄들은 적고지 여기저기서 튀면서 적병들에게 보복을 안기며 놈들이 명보에게 접근 못하도록 했다. 적고지는 삽시에 시꺼먼 포연에 덮였다. 파편들이 울부짖었다.
곽병식은 포연속을 뚫고 산기슭을 따라 중간골짜기로 달려내려갔다. 그는 포연의 어둠속에서 딩굴었다.
곽병식이가 철조망 쇠말뚝에 걸린 명보를 안았을 때 그의 몸은 아직 따뜻했다.

4

슬픔을 겪고있는 련대의 방어선우에 대자연의 부드러운 위안처럼 봄눈이 하염없이 흩날리고 때아닌 천둥소리는 하늘땅을 뒤흔들며 조포의 메아리처럼 아득히 먼 산악들의 지평선까지 울려퍼졌다.

오늘 18살의 한 소년병사가 전사했다! 돌파구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채 누리지 못한 청춘을 바쳤다. 그의 코밑에는 아직도 수염이 돋지 않았으며 어느 한 처녀도 그를 두고 가슴 울렁인 일이 없다. 학교책상에 채 풀지 못한 기하학문제를 남겨둔채 전선으로 달려나왔던 소년이였다. 노래도 잘 불렀고 공상도 많았고 글도 곱게 썼고 목수재간도 있었던 전사다!

오늘 18살의 한 소년병사가 돌파구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청춘을 바쳤다. 출생증을 공민증과 바꾸기전에 펜을 총으로 바꿔쥔 청년이다. 자라서 아버지처럼 로력혁신자로도 될수 있었고 학자로도 당일군으로도 될수 있었던 인간이다.

리명보!… 리명보! 그 이름은 삽시간에 온 련대에 퍼졌다.

《그 동무 몇살이던가?!》

《고향은 어딘가?!》

《량친은 계신가?!》

박격포진지와 직사포진지들에서, 각 대대의 갱도들에서, 출전을 앞둔 정찰병들의 토굴에서, 련대 후방부의 마사원들속에서, 전방 붕대교환소의 간호원처녀들속에서 그 이름은 가장 살뜰한 부름처럼, 청춘의 영예처럼, 헤여진 혈육들의 이름처럼 울리였다. 전선을 방문했던 종군작가들의 수첩과 외국 통신기자의 수첩에도 그 이름은 적히였다.

아, 이 땅의 산과 들과 강들에서 하나의 작전적테두리안의 전투임무를 수행하다 청춘을 바친 전사들은 그 얼마였던가? 어떤 전사는 끊어진 전화선을 잇다가, 어떤 전사는 중기화점을 파다가, 어떤 전사는 도하장에서 다리를 놓다가 전사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수행하는 작은 임무들이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의 영예를 빛내기 위함이라는 숭고한 사명감을 자각하고있었기에 그 어떤 희생앞에서도 걸음을 주춤거리지 않았다. 눈부신 미래에 태여날 후대들이여, 이 땅을 무심히 밟고 다니지

말라. 걸음걸음마다 무명전사들의 피땀이 스며있다. 여름 무더위속에서 밭을 가꾸면서 마지막 한이랑을 소홀히 다루지 말라. 그밑에 최후결사전의 탄피들과 부러진 총창들이 묻혀있을지 어이 알랴, 험한 준령을 톺아오르는 지질학도여, 산세가 가파롭다고 짜증내지 말라. 그 자리가 고지를 지켜 싸운 마지막 병사가 수류탄을 입에 물고 육탄이 되여 굴러떨어진 자리인지 어이 알랴! 선혈에 걸어진 땅우에 숲은 술렁대고 도하전의 불바다에 덮였던 강우에 짙은 안개가 서리고 물새가 고운 목청으로 그대의 넋을 홀린다 해도 청소한 조국의 영예를 떠메고 나갔던 무명전사들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들은 당신들과 같은 나이에 영별의 고통을 참을 줄 알았으며 고귀한 희생의 값높은 영예를 갈망하며 살았음을 명심하라!

곽병식은 명보를 안고 허둥지둥 걸어갔다. 그들은 명보를 담가에 눕히려 하지 않고 내내 교대로 안고 걸어갔다.

소대장의 뒤에서는 명보가 적들과 맞불질할 때 그에게로 보내달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박광준, 조칠성, 신찬일 등 전우들이 머리를 수긋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 따라가고있었다. 고요히 잠든듯한 명보의 얼굴에서는 벌써 눈이 녹지 않았다.

곽병식은 걸음을 멈추고 명보를 추슬러안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봄눈이 녹아내려 턱밑에 물방울이 주렁주렁 맺혔다.

권선기를 멘 3～4명의 통신병들이 껄껄 웃어대며 마주걸어오다가 그들 일행을 보자 죄지은듯 얼른 길에서 물러서서 자기들끼리 무엇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들은 갔다. 눈은 하염없이 퍼부었다.

박광준이 무슨 생각이 났던지 소대장옆에 다가와 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소대장동지, 아까 명보동무 배낭을 들춰보니 이 목달개가 나왔습니다.… 열병식에 갈 때 달겠다구 아껴온건데 달아줄걸 그랬어요.》

박광준은 유지에 싼 목달개를 내보였다.

조칠성이가 그런 말로 소대장을 더 괴롭히지 말라는듯 광준이를 흘겨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다.

《가자요!》

소대장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박광준은 더 말을 못하고 손바닥으로 눈물만 빗씻으며 따라갔다. 조칠성은 타는 가슴을 추기려는듯 눈을 한웅큼 쥐여서 입에 쓸어넣더니 와작와작 씹어넘겼다. 신찬일은 몇걸음 뒤에서 머리를 수긋하고 제나름의 생각에 잠겨 따라가고있었다.

봄눈에 젖은 곽병식의 얼굴은 엄숙하게 굳어지기도 하고 비분에 떨기도 하고 망연자실하여 멍청하니 풀리기도 했다. 전우와의 영별의 길을 가는 그의 가슴속에서는 헤아릴수 없이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고 지나오는 모양이였다. 그의 얼굴은 점차 부드럽고 환해지는듯하더니 물기어린 두눈에 미소같은것이 떠올랐다. 그는 무엇인가 지난날의 즐겁고 보람있었던 일들을 상기하는 모양이였다.

뒤에서 누군가 혼자말처럼 속삭였다.

《그래두 날씨가 푸근해서.》

곽병식은 그 소리에 와뜰 놀란듯 걸음을 멈추고 얼굴이 흙빛으로 질리며 눈만 하염없이 퍼붓고있는 아득히 먼 재빛공간을 쏘아보더니 터져오르는 비분을 참으려고 눈을 감으며 아래입술을 떨리도록 깨물었다.…

돌아오는길에 찬일은 더 멀리 떨어져 따라왔다. 곽병식소대장은 다른 대원들은 앞서 보내고 그에게로 다가갔다.

찬일은 머리를 수굿하고 깊은 후회에 잠긴듯한 얼굴로 터벅터벅 걸어오고있었다.

소대장을 보자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찬일동무, 왜 그러오?…》

신찬일은 머리를 더 깊이 숙이며 가슴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였다.

《소대장동지!》

《갑시다!》

《소대장동지!… 아하—참… 전 명보처럼 크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질책하고있는것 같았으나 곽병식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 병사의 약점을 알고있었으나 지금에 와서 그런것들이 다 하찮게 생각되였다. 그의 가슴은 오늘 무한히 관대해져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 사랑스러운 점만 생각하고싶었으며 그들을 더 뜨겁게 이끌며 아끼고싶은 심정이 가슴 가득 차있었다.

곽병식은 그의 얄팍한 어깨와 팔을 잡아흔들며 애정에 넘쳐 타일렀다.

《찬일동무, 무슨 그런 소릴 하오. 우리 같이 고생하며 얼마나 잘 싸웠는데! 자 갑시다.》

찬일은 머리를 떨구고 자기 모멸감에 떨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관자노리와 골이 패인 뒤덜미에서는 눈녹은 물이 흘렀다. 곽병식은 그를 진정시키려고 들먹이는 어깨에 손을 얹어 꽉 그러안아 자기 가슴에 붙였다.

《자, 그만. 누가 보겠소! 갑시다!》

곽병식은 봄눈에 함뿍 젖은 신찬일을 고지로 끌고 올라오며 대들이판 싸움은 이제부터인데 잘 싸워서 봉창을 하라고 고무해주었다. 그가 자기 직업을 멸시하는 말을 꺼내자 곽병식은 웃어보이며 타일렀다.

《무슨 소리요. 전쟁에서 이긴 다음 우리 나라에서도 시계를 만들게 될지 아오. 화선에서 싸운 본때로 조선시계를 큼직하게 만들어내야 될게 아니요!》

병실에 들어가니 담배연기 자욱한 속에서 놀라는 눈들이 일시에 그를 돌아봤다. 기둥에서는 여전히 등불이 타오르고 벽에는 대렬을 지은듯 배낭들이 주런이 걸려있었다. 오른쪽으로부터 다섯번째에는 유표하게 커보이는 명보의 배낭이 다른 배낭들과 어깨겯고 서있는듯 걸려있었다. 배낭 뒤주머니에는 무기소제기름통이 주인이 쓰고 찔러넣은 그대로 삐죽 내밀고있었다.

전사들은 그 배낭밑의 그가 누웠던 자리를 내놓고 앉아 침통한 얼굴로 담배를 피우고있었다.

곽병식은 지쳐버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와서 주저앉아 무의식중 구름노전바닥을 자꾸 쓰다듬었다. 그의 체온이 스며있는듯 자리는 따뜻했다.

문득 이 모든것이 꿈이며 현실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가슴을 흔들었다. 방금 문을 차고 명보가 뛰여들어오며 그 챙챙한 목소리로 밖에서 봄눈이 펑펑 쏟아진다고 떠들어대며 나가보자고 손목을 끌것만 같았다. 곽병식은 방안이 그지없이 공허하고 허전함을 느꼈다.

보병소대란 이 시련 많은 가정에서 그가 생기와 웃음과 모든 밝은 빛을 걷어가지고 가버린듯했다. 리명보는 과연 이렇게 큰 인간이였던가! 사람은 가버린 뒤에야 자기의 인간됨과 크기를 보여주는것인가!

곽병식은 어디나 대원들이 없는 외딴데 가서 목놓아 울고싶었다. 그는 병실에서 나와 갱도를 따라 허둥지둥 걸어갔다. 어제 명보가 이제 봄이 오고 봄비가 내릴게라고 하던 말이 생각나자 갱도입구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명보와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던 그 자리에서 눈을 맞으며 밤을 새고싶었다.

갱도입구까지 거의 나온 그는 밖에 가지런히 앉아있는 두 전사의 잔등을 보고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나 많은것들을 잔뜩 두고 그게 먼저 가다니… 어허, 기막힌 노릇이여!…》

박광준의 목소리다.

《…이제 공격명령만 내려라！ 없다！ 없어！ 개놈새끼들, 뼈두 못추릴줄 알아라！》

조칠성의 이를 가는 소리다.

《칠성이, 이사람아！ 으흐흑…》

조칠성의 팔이 광준이를 꽉 안는다.

《왜 자꾸 쿨쩍거리기만 하는거야. 내친김에 콱 울라구. 병실에 들어가선 이러지 말게. 덩지 큰 우리까지 이러면 소대장동지 속이 어떻겠냐말이요. 소대장동진 오늘 한풀 늙었어… 이젠 우리가 소대에서 구실을 더 해야 될게 아니야…》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자 곽병식은 걸음을 돌렸다. 그는 중대부로 가 고병근중대장앞에서 가슴 후련히 울어보자고 마음먹었다.

중대부 부엌아궁에서는 장작불이 황황 타고있었다. 안에서 고병근중대장과 김문규정치부중대장이 주고받는 말소리가 났다.

《중대장동지, 부모들에게는 제가 편지를 쓰겠습니다. 훈장내신서는 래일아침까지 올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주먹으로 책상을 탕 치는 소리가 나며 고병근중대장의 부르짖음이 울렸다.

《그녀석이 이렇게 되자구, 이렇게 되자구 련락병을 못하겠다구 뻗댔지！ 놔주지 말아야 했을걸데！ 곁에 데리구있어야 했을걸데！ 아니！ 아니요！ 련락병으로만 있을 동무가 아니였소！ 벌써 생각이 컸단말이요！ 다르거던！ 그래서 놔줬더니！ 아하！ 내 가슴을 이렇게 만들자구 뛰쳐나갔지…》

책상이 씨룩거리며 큰 흐느낌소리가 터졌다.

《중대장동지, 이러지 말아주십시오. 전사들이 듣겠습니다. 우리부터어서 식사를 합시다.》

《난… 괜찮소！ 일없소！ 여보, 정치부중대장동무, 3소대장한테 좀 가보우！ 나는 일없소. 그 사람이야 오죽하겠소！ 가봐주오！》

부엌에 황황 타는 불그림자가 곽병식의 얼굴에서 얼른거렸다. 그는 웬일인지 슬픔도 잦아들고 그 대신 모진 마음이 가슴에 들어앉았다.

병사들은 돌아온 소대장을 쳐다봤다.

곽병식은 활달하게 걸어들어가 온돌에 걸터앉더니 가죽집에서 권총을 꺼내 분해하기 시작했다. 전사들은 숨을 죽이고 지휘관의 행동을 주시했다.

소대장은 아무 말없이 소제대로 총신을 쑤시기 시작했다.

방안에는 정적이 깃들었다. 구석쪽에서 어느 하사관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이 속삭였다.

《동무들, 무기들을 닦읍시다!》

소대는 숭엄한 침묵속에서 무기들을 닦았다…

5

전날에 내린 봄눈도 밤새 녹아 땅속에 잦아들고 이른새벽부터 자욱한 안개가 골짜기를 덮더니 조심조심 고지로 기여오르기 시작했다. 하늘도 땅도 숨을 죽인듯 고요했다. 적진지에서도 아직 총 한방 쏘지 않았으며 아군 갱도속의 전사들도 잠을 깨지 않은듯했다.

이런 고요하고 희붐한 새벽에 강태욱련대장은 부관을 데리고 1035고지로 가는 교통호를 따라 걸음을 다그치고있었다. 교통호바닥 군데군데에 괴여있는 눈석임물때문에 그의 장화는 목까지 흙탕물투성이가 되였다. 련대장은 질쩍거리는 바닥에 미끄러져 두세번 넘어질번했는데 여느때에 일이 이쯤되면 의례 부관을 돌아보고 계절과 날씨와 보병들의 생활을 두고 몇마디 롱말을 했으련만 오늘 새벽에는 말없이 걷기만 했다. 3중대의 갱도에 들어온 그는 곧 군관모임을 소집했다.

련대장의 혈기왕성한 몸에서 풍기는 싱그럽고 찬 이른봄 기운은 젊은 군관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모임에서 련대장은 래일 새벽 4시에 비밀갱도를 통하여 적 고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라는 전투명령을 하달했다.

그리고 련대장은 군관들과 담화했다. 그는 따져보고 찔러보고 하나하나 더듬어보듯이 군관들의 준비상태를 검열해본 다음 고병근중대장의 얼굴을 돌아보았다.

《빠진것들이 없소? 생각들 해보우. 모든 우연성을 예견해야 되오. 사소한 빈틈이라도 있어서는 안되겠소.》

강태욱련대장은 부하들에게 안정을 주는 누긋한 목소리로 띠염띠염 말하며 자신도 생각에 잠긴 눈으로 군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돌아봤다. 군관들은 머리를 수긋하고 생각을 더듬었다. 기침소리가 났다.

고병근중대장이 일어나며 근엄한 얼굴로 말했다.

《저의 제1대리인은 곽병식동무입니다!…》

지휘관이 전투를 앞두고 자기 대리인을 임명하는것은 규정상 요구이

나 어쩐지 이 말을 듣자 군관들은 전쟁의 준엄성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며 얼굴들이 엄숙하게 굳어졌다.

상밑으로 서동길의 불같이 뜨거운 손이 곽병식의 무릎을 《해보세나!》 하고 다짐하듯 꽉 움켜잡아 흔들었다.

강태욱련대장은 고병근의 얼굴도 곽병식의 얼굴도 보지 않고 눈을 내리뜨고 탁자우의 한점을 응시하고있었다. 그의 눈은 준엄하게 번뜩이고있었다. 련대장의 표정을 보아서는 대리인에 대하여 동의하는것인지 그렇지 않은것인지 분간할수 없었다. 그의 눈은 이 순간 분명 이제 3중대의 100명 전사들이 뛰여들어야 할 불바다를 보는것 같았다.

련대장은 탄약들의 보충과 예비대의 동원과 포군들의 지원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리고 있을수 있는 손실도 예견하여 련대군의소 전방치료소를 갱도에 내보내겠으니 부상병들은 갱도로 후송하라고 지시했다.

강태욱련대장은 탁자우에 놓여있는 야전가방을 열더니 신호권총과 록색신호탄 세발을 고병근중대장앞에 내밀었다.

《동무네는 이번 전투에서 보조타격방향이요. 주타격은 1대대 방향에서 진행하겠소. 동무들이 ○○릉선을 점령해야 주타격방향에서 련대의 총공격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소. 때문에 이번 전투에서 동무들의 임무가 가장 중요하오. ○○릉선을 점령하면 신호탄으로 보고하오. 그것은 곧 련대의 총공격신호로 될것이요!》

고병근중대장이 헛기침이 나와서 주먹을 입에 가져다댔다.

강태욱련대장은 믿음과 애정에 찬 눈으로 이제 결사전의 불바다속으로 보내야 할 군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돌아보았다. 련대장의 목소리는 나직하면서도 웅심깊게 울렸다.

《이 전투를 고지 몇개를 점령하는 싸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되겠소. 이번 놈들의 〈신공세〉만 파탄시키면 저놈들은 다시는 머리를 못쳐드오. 때문에 지금 세계인민들의 이목은 우리한테 쏠리고있소. 우리 조선사람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아성에 멸망의 돌파구를 뚫은 인민이요. 이번 우리가 2년간 강화해놓은 놈들의 방어선에 뚫은 돌파구도 그러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오! 자부심들을 가지고 전투를 지휘해야겠소…》

군관모임이 끝난 다음 《모란봉》에서 군무자총회가 열렸다. 고병근중대의 보병전사들뿐만아니라 갱도에 와있는 포병들과 통신병들, 공병들, 정찰병들, 사단에서 내려왔다는 방역군의와 화학참모까지 왔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흥분과 기쁨이 넘치고있었다.

전사들은 술렁대며 떠들어댔다. 여기저기서 쾌활한 웃음소리가 터졌다. 전사들은 진정을 하지 못하고있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2년간의 지루한 장기방어도 끝나고 공격, 공격이다! 2년간의 방어, 말로 옮기기는 쉽지만 그것은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나날들이였던가. 그 사이 우리는 가슴아픈 손실도 입었지만 얻은것은 더 많고 더 고귀한것이였다. 참을성을 길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배웠고 한치의 땅, 한알의 모래를 피로써 지켜싸우면서 참된 애국주의의 《대학》을 졸업했다. 우리는 서로 더 살뜰해졌으며 더 믿게 되였으며 혈육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의 가정처럼 단합되였다.

《조칠성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다 모였는데 한마디 하라구! …》

1소대의 독고세가 포병들쪽을 보며 그를 부추기였다. 조칠성은 갱도의 벽에 줄지어 걸어놓은 휘황찬란한 등불이며 전사들의 눈부신 얼굴들을 돌아보며 가슴에서 뜨거운것이 자꾸 치밀어올라 말을 못하고 벙글거리고만 있었다.

《야… 이거 명절같은데.》 그는 이 한마디를 하고는 더 말을 못했다.

《차—렷—》 하는 우렁찬 구령소리가 앞에서 울렸다.

삽시에 갱도안은 엄숙한 정적에 휩싸였다. 앞쪽에서부터 전사들의 속삭임소리가 흘러왔다.

《군기!》

《군기다!》

《야!》

《군기!》

뒤쪽에 선 전사들은 발돋움하여 앞을 내다봤다.

눈부시게 흰 례식장갑을 낀 군기수들이 련대기를 들고 보무당당히 걸어나왔다. 청소하나 그 이름을 세계에 떨친 위대한 공화국의 국장이 기폭에서 황금빛으로 번쩍이고있었다.

전사들은 숨을 죽이고있었다.

강태욱련대장, 고병근중대장 그리고 중대군관들과 배속 포병군관들이 그 뒤를 따라 경건한 표정으로 걸어나왔다.

곽병식은 대오의 앞, 고병근중대장의 뒤에 서있었다. 엄숙한 분위기에 눌려 그의 가슴은 고요히 뛰놀고있었다. 전사들이 앞을 다투어 뛰여나가 결의토론들을 하였으며 최고사령관동지께 보내는 맹세문에 서명했다. 곽병식은 차례를 기다리며 군기를 보고있었다. 그의 가슴은 감격에 벅

차올랐다. 1948년 2월 저 군기와 함께 최고사령관동지앞을 눈물에 젖어 행진해 지나가며 맹세를 다졌던 전사들이 떨친 위훈이 그대로 황금빛으로 아로새겨져 기폭이 저렇듯 장중하게 드리워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들중 어떤 전사들은 락동강언덕에 쏘지 못한 탄알이 남아있는 탄띠를 가슴에 두른채 누워있으리라. 어떤 전사들은 가벼운 안개가 기여오르는 문경고개의 중턱에 수천리 행군길에 닳아떨어진 군화를 신은채 그처럼 보고싶었던 남해쪽에 머리를 향하고 누워있을것이며 어떤 전사들은 하늘에 솟은 대구산 상상봉에 누워 별처럼 조국땅을 굽어보고있으리라. 성전의 길에서 전사들은 쓰러졌어도 그들의 이름은 영생하는 민요처럼 인민들속에 영원히 울려퍼질것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이 부르는 길로 목숨바쳐 달려나갔던 혁명의 넋들은 저 기발과 함께 대오의 머리우에서 황금빛발을 뿌리며 펄펄 나붓기고있는것이다. …

누군가 그의 잔등을 가볍게 떠민다.

《3소대장동무!》

곽병식은 정신이 번쩍 들며 상념에서 깨여나 앞을 본다. 차례가 된것이다. 그는 앞으로 걸어나갔다.

강태욱련대장은 엄숙하고 정중한 눈길로 그를 맞이하여 맹세문의 서명란을 손가락으로 가리켜주었다.

《여기요. 제 이름을 쓰오!》

련대장의 그 말에서 여느때 없는 친근한 음조를 느끼자 곽병식은 눈길을 들었다. 그러나 강태욱련대장의 얼굴은 이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엄하고 무뚝뚝해보였으며 단지 입가의 주름살이 좀 깊이 패이며 대견해하는 미소를 보일뿐이였다.

《최송림동무! 서명하오!》

《?!…》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적으라구!…》

그는 련대장의 고무해주는듯한 눈웃음과 군모밑으로 나온 희끗한 머리칼을 보며 그리고 높은 숨결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온몸에서 뜨거운 피가 소용돌이치는듯한 감을 느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련대에 온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걷잡을수 없이 한데 어울리며 눈앞을 스쳤다.

가슴이 벅차올라 숨이 가빠나고 무엇인가 아리숭한 자책감이 들면서 몸이 더운 땀에 젖는것 같았다. 그리고 이때까지 자기를 뒤에서 떠밀어주기도 하고 마음을 굳세게 받쳐주기도 한 눈에 보이지 않던 그 힘이 무엇이였던가를 한순간에 깨달았다. 그는 육친의 품에 안긴듯한 행복감과

아울러 자기 마음이 그 어떤 숭고한 정신앞에 서있는것 같으면서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펜을 쥐였다. 그는 펜을 쥐였다! 그 옛날 야학선생이 지어준 이름, 아버지와 어머니, 그의 전우들의 풍상고초에 말라터진 입술을 고향의 이슬처럼 적셔주기도 했다는 이름, 저녁노을이 불타는 이국의 황야에서 기관총을 안은채 쓰러진 아버지가 마지막 숨결로 불렀을 이름, 자기 생명과 사명을 말해주는 그 이름 석자를 최고사령관동지께 올리는 맹세문의 서명란에 피방울을 떨구듯 또박또박 적어넣었다.

…두사람은 작별을 앞두고 갱도입구옆에 있는 바위에 걸터앉아 오래동안 이야기했다.

강태욱은 친아들 대하듯 송림의 어깨며 잔등을 가볍게 두드리기도 하고 턱을 슬쩍 건드리기도 하면서 몸을 들썩거리며 웃어대기도 하고 위혁하는듯 눈섭을 세우고 쏘아보기도 했다. 그는 이때까지 자기 감정을 억제하며 주지 못했던 그 사랑을 결사전을 앞둔 이 시각 가슴을 풀어헤치고 마음껏 주고싶은 모양이였다. 그럴수록 송림은 자꾸 어려운 생각이 들어 몸을 옹송그리고 홍조를 띠우기도 하고 이따금 어줍게 웃기도 했다.

강태욱은 김봉순어머니의 성격에 대하여, 송림이때문에 자신이 겪은 난처한 감정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즐겁게 웃었다.

《…호랑이를 키워낼 어머니요!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좀 죽었소. 빨찌산때는 더했다니까. 나랑 옴짝을 했는줄 아오. 한동무가 공청회의에서 원칙밖에 모르고 너무 독하다고 슬쩍 건드렸다가 도로 된매를 얻어맞고 혼쌀이 났소. 글쎄 작년 가을 자네를 뒤에 들여왔을 때 나한테 어떻게 야단을 쳤는지 아나… 그래서 나는 새끼범을 곰한테 맡겨놓고 뒤에서 으르렁대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써보냈지… 하하하…》

최송림은 머리를 떨구고 빙그레 웃으며 무릎을 꽉 짚고있는 련대장의 마디굵은 손을 곁눈질해보며 저 손으로 아버지와 수없이 악수했으리라고 생각하니 가슴가득 육친의 정이 흘러들었다.

《해보니 어떤가? 보병소대장이란 자리가 빠근하지? 어려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닐테지?》 하고 련대장은 물었다.

최송림은 두손으로 무릎을 짚고 눈길을 땅에 떨군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어려운게 없습니다. 뭐나 다 이겨낼수 있어요. 하지만… 동지들이 희생됐을 땐… 그 땐 정말 참지 못하겠어요. 이겨내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한 그는 어제 잃은 명보에 대한 아픈 추억이 가슴가득 밀려와 순식간에 눈이 흐려졌다.

강태욱은 그의 잔등에 무겁게 손을 얹으며 큰숨을 내쉬였다.
《어렵지, 어렵지 않구! … 그러나 육친이나 전우들 가슴에 제 손으로 흙을 덮어봐야 사람이 아까운것도 조국땅이 귀중한것도 더 깊이 깨닫게 되지…》
송림은 어제 터뜨리지 못한것이 불현듯 이 대범하고 큰 가슴앞에서 자꾸 솟구쳐올라 눈물이 가득 고인 눈을 슴벅거리며 련대장의 말을 듣고있었다.
강태욱은 전우의 아들에게서 이런 성스러운 눈물을 보자 《다 자랐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한시름 놓은듯한 긴 숨을 내쉬였다. 이 순간 그는 기쁘기도 했고 대견스럽기도 했으며 새세대들이란 이렇게 빨리 자라는것인데 김봉순동무나 자기가 더는 그를 부모의 로파심으로 대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 그러자 웬일인지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졌으나 지휘관으로서의 그에 대한 믿음만은 반석같아졌다.
《잘 싸우라구!》
강태욱은 떠날 때 이렇게 말하며 그 쏘는듯이 부리부리한 눈으로 송림의 얼굴을 보면서 손을 으스러지게 잡아주었다.
최송림은 오래도록 서서 교통호를 따라 멀어져가는 련대장의 뒤모습을 바라보노라니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정이 가슴가득 사무쳐오며 눈물이 솟구쳤다. 어머니가 슬픔에 쓰러져 우시던 간도의 그 밤, 장군님께서 아버지 사진앞에 양초 두대를 켜놓으시고 하신 말씀이 가슴에 힘있게 울려왔다.
《봉순동무, 어떤 일이 있어도 송림이를 찾아야겠소. 그 애를 아버지의 뒤를 이을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키워야겠소. 아버지가 다하지 못한 일을 송림이가 할게요. 그러면 최무성동무는 살아있는거나 같소!》
일찌기 20여년전에 하신 장군님의 그 말씀은 오늘 결사전을 앞둔 이 시각 최송림의 가슴속에서 불멸의 메아리처럼 울리며 혈관마다에서 충성의 피를 끓게 했다.

련대장과 작별한 최송림은 갱도로 돌아왔다. 갱도안은 전투준비를 빈틈없이 끝내고 휴식하는 전사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로 들썩했다.
병실에 들어가니 병사들이 빙 둘러앉아있는 가운데 신찬일이가 자기 창조물인 벽시계를 고치고있었다.
《어디가 고장생겼나?》
《누가 봐주던 안봐주던 똑…똑… 군소리없이 잘 가던 녀석인데 우리가 떠난다구 앙탈을 부리는게 아니야?!》

《허참, 기계란건 말째단말이요. 소처럼 불기를 칠수두 없는거구… 어드메가 탈이 났는가？！》

전사들은 신기해하는 눈으로 찬일의 손재주를 보며 한마디씩 했다. 그러나 찬일은 아무말없이 뾰죽한 대바늘같은것으로 시계안 치차들을 툭툭 건드려도 보고 깊은 구석쪽을 살짝살짝 다쳐보면서 옛 직업의 흥취에 빠진듯 코노래까지 부르는것이였다.

그의 앞에 올방자를 틀고 앉은 박광준은 마치 의사 손에 어린것을 맡긴 촌아바이처럼 무릎만 쓸어만지며 걱정스러운 한숨을 내쉬였다.

《이거 참, 우리가 갱도를 떠나면 새 부대 동무들이 올터인데 뭬라고 하겠나. 그 친구들이 가면서 시계까지 마사놨다고 할게 아닌가. 뒤거두매를 하는걸 보면 사람됨됨이를 안다고 하는데 시계가 척척 가야 갱도맛이 나는건데 어디가 탈이 났을가？》

찬일은 얼굴을 들지 않은채 퉁명스럽게 뇌까렸다.

《첫, 이거야 체했구만. 반편같이…》

《체하다니？》 하고 박광준이가 눈을 크게 떴다.

《누가 〈밥〉을 너무 우둔하게 줬어. 그러니까 체했지！》

《하하하…》

《하하하…》

전사들은 어처구니가 없어 서로 마주보며 즐겁게 웃었다.

신찬일은 시계를 세우고 추를 흔들어놓았다.

시계는 떽…떽…떽… 흥겨운 생활의 맥박처럼 가기 시작했다.

《재간은 재간이군！》

《하, 보배손이야！》

수더분한 이 보병전사들은 찬일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시계수리공은 웬간히 우쭐해져서 그들을 돌아보며 몇시나 됐을가고 물었다. 소대장이 시간을 대주자 그는 익숙한 솜씨로 분침을 돌려놓았다.

조칠성은 입귀에 담배를 문채 담배연기를 피하여 실눈을 하고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세상에 시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갱도 시계만한건 없어. 도시 멋쟁이처럼 희뜩하지두 않구 이렇게 수수한게 실속이 있어 맘에 든단말이야. 누가 봐주던 안봐주던 그저 떽떽떽 잘 간단말이거던. 우리 보병하구 같은 걸음새야！》

《이 세상에야 별의별 시계들이 다 있을테지？ 한데 그 많은것들이 어디다 시간을 맞출가？ 우린 대렬을 지을 때면 우익병사에게 맞추

는데…》 하고 박광준이가 말했다.

찬일은 그 질문이 마음에 드는듯 눈을 총명하게 반짝이며 광준을 돌아봤다.

《하, 광준이 이사람, 참 신통하네. 내가 왜놈 시계방에 취직해서 견습공으로 일할 때 그걸 주인놈한테 물었다가 혼쌀이 났네. 시계를 고쳐 밥벌이 하겠다는 녀석이 그것도 모르느냐구 하면서 시계망치로 이마를 쳤는데 혹이 이만큼 났다니깐. 반년을 부려먹구나서 주인놈은 그걸 대주는데, 저… 영국에말이야 그리니찌란 천문대가 있다누만. 이 세상 시계들은 그 천문대시계에 기준해서 맞춘다나. 한데 내 요새 가만 생각해보면 그게 다 얼빠진 수작이란말이요. 그놈 말라빠진 그리니찌때문에 내 수모를 당하구 이마에 혹까지 났다고 해서가 아니라…》

전사들은 껄껄 웃었다. 그러자 찬일은 더 열을 내서 이야기했다.

《우리 갱도앞에서 얻어맞은 미, 영 침략군놈들 꼬락서니를 보란말이야. 포로를 잡아보면 몸에서 송장내 같은게 풍기구 이가 밖에까지 나와 기여다니지 않던가말이야. 아니 그렇게 께끈하게 망해가는것들 시간에 맞출 바보가 어디 있겠나말이요?! 지금은 반제투쟁시대란말이요!… 내가 이런 말만 하면 왜들 웃기만 하나. 내 말이 틀리는가? …우리 조선사람들 주먹에 16개 제국주의침략군놈들이 얻어맞아 박산이 되는 꼴을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조선을 쳐다보게 되고 평양시간에 따라 생각하고 움직이게 될 날이 오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든단말이네. 나는 요새 이런 궁리를 해봤지. 전쟁이 끝나면 한번 세계기준시계를 큼직하게 만들어보자. 그리니찌아니라 그 하내비가 와두 겨루지 못하게 딱딱 맞는걸말이야. 지난날에 나는 우리 조선사람들이란건 남이 만든 시계도 제대로 못고치는줄로 알았네. 그런데 인젠 문제가 다르거던. 못해낼게 없을것 같네. 전쟁을 겪고나니 담이 커졌다고 할는지!》

박광준은 웅심깊은 생각에 잠겨 머리를 무겁게 끄덕였다. 조칠성은 찬일의 무릎을 치며 탄성을 올렸다.

《아니! 언제부터 그런 담이 큰 생각을 하게 됐나?!》

《글쎄 딱히 언제부터던지 나두 모르겠어!》

전사들은 어리둥절해진 찬일의 얼굴을 보며 유쾌하게 웃어댔다. 신찬일은 자기가 무슨 말실수라도 해서 이렇게 웃는줄 알고 구원을 청하듯 소대장의 얼굴을 쳐다봤다.

최송림은 그의 말에 공감을 표시했다.

《찬일동무 말이 옳소! 이 전쟁에서 우리 조선사람들 성미가 달

라졌소.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던 미국놈 코대를 꺾어놓으면서 담이 커졌단말이요. 이제는 학교를 지어도 도시를 건설해도 모두 큼직큼직하게 벌릴게요!》
이날밤 병사들은 출전의 시각을 기다리며 잠들지 못했다. 이런때면 언제나 전사들은 다감해지고 부드러워지는 법이다. 어떤 전사들은 고향에 편지를 썼고 어떤 병사들은 이곳으로 새로 올 구분대의 동무들을 위하여 갱도의 구석구석을 마감으로 청소했다.
최송림은 밖으로 나왔다. 푸근한 밤대기가 그를 감싸주었다. 화선에서 흔히 있는 직일포들의 화력전도 뜸해지고 밤은 고요했다.
그는 낮에 련대장과 함께 앉아있던 바위에 걸터앉아 목단추를 헤쳐놓고 시원한 공기를 가슴가득 들이켰다가 후 내뿜었다.
이제 몇시간 있으면 공격, 공격이다 라고 생각하니 지난 가을 이 계선으로 나온후부터 있었던 모든 일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아, 이날을 기다려 얼마나 많은 시련들을 이겨냈던가!
하늘을 더듬는 탐조등불빛에 련대장 감시소가 있는 고지의 륜곽이 어슴푸레하게 드러나보인다. 련대장동지도 지금 주무시지 못하고있겠지. 낮에 련대장동지가 이번 전투의 의의에 대하여 하던 말이 생각났다. 돌파구! 돌파구! 이 말은 장쾌한 북소리처럼 그의 젊은 가슴을 뒤흔들어놓았다. 그렇다, 적의 방어선에 우리가 뚫는 돌파구는 하나의 작전적인 의의만 있는것이 아니다. 반제반미투쟁의 새 세기로 들어가는 돌파구를 열어놓으신 강철의 령장 **김일성**원수!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국주의에게 내리막길을 선언한 인민! 위대한 수령! 위대한 인민!
문득 최송림은 자기가 력사적인 순간앞에 서있다는것을 자각했다. 그는 격동에 뛰노는 가슴을 진정할수 없어 교통호를 따라 어디라없이 거닐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덩이같은 볼을 쓰다듬었다. 갱도안에서 전사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은은히 울려나왔다.

전호속의 나의 노래
고향으로 울려가라
조국땅을 보위하려
총을 멘지 삼년석달…

(나의 짤막한 일생… 내가 이 세상에 나서 위대한 사상과 진리를 배우며 자라난것은 이 력사적인 순간을 위한것이 아니였던가! 나의

청춘, 나의 희망, 모든것은 이 순간을 갈망한것이 아니였던가! 몸이 산산부서져 가루가 되더라도 돌파구를 뚫자! 나의 모든 사상과 도덕과 의지의 힘으로… 그렇다. 뚫을것이다. 뚫고야말것이다! …)

그는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져서 걸음을 멈추었다. 이러한 숭고한 감정에 의하여 승화된 그의 마음은 누구인가를 찾고있었던것이다. 누구에게나 이런 벅찬 감정을 고백하며 이밤 끝없이 끝없이 이야기하고싶었다. 류정혜동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있을가? 그는 왜 보이지 않을가? 문득 이렇게 생각하게 된 최송림은 갱도로 발걸음을 옮겼다. 갱도안 공기는 전에 없이 훈훈하게 느껴졌다.

급한 걸음으로 오가는 하사관들이 경례를 붙이며 지나갔다. 노래소리, 이야기소리가 흘러나오는 병실들옆을 지나 머리를 수긋하고 걸어가던 그는 갑자기 신선하고 환한 빛발이 얼굴을 스치는것 같아 앞을 바라보았다.

《모란봉》쪽에서 박광준이와 류정혜가 동발마다 걸려있는 등잔에 석유를 새로 부어넣고 불을 달고있는것이 보였다.

박광준은 알른알른 윤기나게 닦아놓은 등잔에 석유를 부어넣고 정혜는 그의 뒤를 따라가며 성냥을 켜서 불을 달고있었다. 정혜가 등잔심지에 손을 갖다댈 때마다 불꼬리가 어리광부리듯 춤추면서 눈부시게 피여오르군했다.

송림에게는 처녀가 성냥불이 아니라 손끝의 조화로써 자기의 밝은 마음을 심지마다 환하게 켜놓는것이여서 갱도에서의 이 마지막 밤이 이리도 신비롭고 휘황하게 밝은것이 아닌가 하는 꿈같은 생각이 들었다.

박광준이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정혜를 돌아본다.

《정혜동무, 내 참 할 말이 많소.》

정혜는 불빛을 받아 은실처럼 반짝이는 머리칼을 쓸어만져 단정히 붙이고는 박광준아바이를 쳐다본다.

최송림은 취한듯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새 정혜동무가 없었더라면 우리 이 땅속생활이 어떠했을가. 허참, 우리를 환히 밝혀준셈이지. 이제 새 동무들이 오면 우리를 대하던것처럼 꼭 같이 대해주오. 그리고 우리 소대 아궁은 새벽녘에 불이 잘 들고, 식당굴뚝은 바람이 몹시 불 때면 가마니로 싸줘야 한다는거랑 잊지 말고 전해주오.》

류정혜는 가슴에서 무엇인가 막지 못하게 치밀어오르는듯 머리를 숙이며 외면했다.

최송림은 그들에게로 걸음을 옮겼다.

이때 때아닌 나팔소리가 갱도를 뒤흔들며 울렸다. 전투준비를 선언하는 그 나팔소리는 가슴을 찔렀다. 그는 흠칫 놀라며 돌로 굳어진듯 서버렸다.

강태욱련대장은 오랜 군사지휘관의 륙감으로 적진에서의 이상한 기미를 눈치채고 공격시간을 두시간 앞당긴것이였다.

류정혜는 소스라쳐 놀라 가슴을 한손으로 부여잡고 《아니！ 벌써？！》 하고 부르짖으며 두리번거리다가 저만쯤 뒤에서 최송림소대장이 옆구리의 권총을 쥐고 홱 돌아서는 모습을 보았다.

《소대장동지！》

그러나 최송림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나팔소리가 부르는곳으로 달려갔다.

6

나팔소리는 갱도안의 평온한 분위기를 깨뜨리고 출전의 태풍을 일으켜놓았다.

무장한 소대와 분대들이 갱도를 메우며 비밀갱도쪽으로 달려나갔다. 그들의 발자국소리가 갱도를 진감했으나 류정혜에게는 그것이 전사들의 발자국소리인지 자기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인지 분간할수 없었다. 정혜는 아연해진듯 동발옆에 서서 바람처럼 지나가는 전사들의 얼굴,얼굴을 돌아보았다. 그는 그 얼굴들을 영원히 가슴속에 새겨두고싶었다.

정혜는 달려가는 매 전사들의 팔을 붙잡고 잘 싸우세요！ 승리하고 돌아오세요！ 하고 당부하고싶었으나 웬일인지 말이 나가지 않고 그저 억이 막힌듯 목이 멜뿐이였다.

전사들은 달려나갔다. 그것은 사람들의 급류였다. 전사들의 물결속에서 그는 최송림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사납게 찌프린것이 다른 사람의 얼굴같은데도 왜서 그리도 선명하게 안겨오는것인지…

《소대장동지！》 정혜는 자기가 소리를 내여 목청껏 불렀는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그렇게 부른것인지 몰랐다.

소대장은 돌아보지 않고 권총 쥔 손으로 모자채양을 밀어올리며 번개같이 지나간다. 순간 정혜에게는 자기가 그와 단 5분도 이야기해본 일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허비였다. 고문칠,박

광준, 신찬일, 조칠성.

《칠성동무!》 정혜는 새된 소리로 불렀다. 조칠성은 머리를 홱 돌리더니 벌쭉 웃어보인다.

《잘 싸우세요!》

그는 손을 들며 소리쳤다. 마지막 병사가 지나간 다음에도 정혜는 그 손을 내리지 못한채 서있었다. 갱도에 메아리친 나팔소리는 그의 가슴에서 친근하고 귀중한 모든것을 걷어내간듯 허전해졌다.

누군가 팔을 덥석 잡는다.

《정혜동무!》

《예?!》

김문규의 심각하게 굳어진 얼굴, 거센 숨소리.

《방송을 계속해주오! 저놈들이 전혀 기미를 못차리게 부드러운 말들을 날려보내오. 흥분하면 안되오!》

《옛!》

결사전으로 뛰여드는 전사들을 위해서라면 아낄것이 없는 정혜였다.

정혜는 방송실로 뛰여갔다. 오르내리는 가슴을 누르며 부드럽고 느릿한 목소리로 마이크앞에서 말하기 시작했다. 원고없이 하는 방송이였으나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지혜롭고 설득력있는 말들이 미리부터 가슴에 마련되여있었던것처럼 슬슬 풀려나왔다.

《죽음의 공포에 신음하고있는 미군병사들이여! 〈국군〉병사들이여! 봄이 온다. 따뜻한 봄, 모든 생명이 소생하는 봄이 온다! 풀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꽃이 필것이다. 모든 생명들이 노래하며 피여나는 봄이 온다. 이 봄이 당신들의 운명에 무엇을 가져다줄는지, 포성의 메아리조차 울려가지 않는 먼 후방과 대양건너 있는 당신들의 신임대통령은 또다시 〈신공세〉의 모험으로 병사들이여, 당신들을 죽음에로 내몰고있다. 맥아더의 〈크리스마스공세〉와 리치웨이의 〈하기, 추기공세〉가 그랬던것처럼 아이젠하워의 〈신공세〉도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죽음밖에 가져오지 않는 전투를 기피하라! 투항하라! 우리는 국제협정대로 포로를 대우한다. 먼도 즐거운 포로생활을 누리고있다. 무기를 던지고 생명안전이 담보된 인민군편으로 넘어오라! 봄이 온다! 모든 생명의 소생을 기약하는 봄이 온다. 이 해의 봄비에 자기들의 몸이 송장이 되여 썩지 않기를 바라거던 총을 던지고 투항하라!…》

밖에서 발자국소리, 귀에 설은 목소리들이 울렸다. 갱도를 차지할 새 구분대가 도착한 모양이였다. 정혜는 방송을 계속한다. 이윽고 먼

지진의 여파처럼 땅이 송두리채 움쭉 들렸다 내려앉는것 같더니 모든것이 부르르 전률하며 등불이 꺼질듯이 떨고 천장에 쳐놓은 천막에 흙이 떨어진다.

(아, 아！ 시작됐구나！)

정혜는 자리를 차고 뛰여나갔다. 갱도를 오가는 낯선 전사들속을 누비며 갱도의 전방감시구로 올라가는 층계를 따라 정신없이 뛰여올라갔다. 감시구에 엎드려 고병근중대가 나간 3층감시소 고지와 무명고지쪽을 바라본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지난날 결사전이란 말을 일상용어나 다름없이 습관처럼 외우며 눈앞에 그려봤던 표상보다는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한 준엄하고 처절한 전경이였다. 적후방의 캄캄한 하늘로부터 수십갈래의 대들보같은 탐조등빛줄기가 뻗어나와 3중대가 뛰여든 고지를 찌르고있었다. 그 탐조등불빛이 교차된 초점, 대낮처럼 밝아진 고지는 불바다의 광란속에서 자기를 지탱하려는듯 모지름을 쓰며 울부짖고있었다. 시뻘건 불길이 고지 꼭대기와 기슭을 핥는다. 치솟는 포연, 흙기둥, 커다란 불덩이들이 하늘에 튀여오르기도 하고 둥실한 물체들이 비명을 지르며 끊임없이 날아오르고 탐조등불빛에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포연이 옆으로 확 퍼지며 모든것을 삼켜버리기도 하고 파도처럼 줄줄이 솟구쳐오르기도 한다. 그러다가도 고지가 송두리채 터져오르며 용암을 내뿜듯 크고작은 불덩어리들이 수없이 날아오르며 요란한 굉음이 밤대기를 뒤흔든다. 태풍에 휘뿌리는 비방울과도 같이 파란 예광들의 물결이 고지에 들씌운다. 포탄들이 날아드는 비명, 폭음, 불길, 포연, 불바다…

정혜는 대기를 뒤흔드는 폭음의 거세찬 파동에 숨이 컥컥 막혔다. 고지에는 사람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불바다는 중대를 삼켜버린듯했다. 아, 3중대는？！ 최송림소대장동지, 박광준아바이, 신찬일동무, 조칠성동무… 백명 전사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들은 어떻게 되였는가？！ 정혜는 가슴이 죄여들었다. 전사들은 저 불바다속에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내던지며 원쑤와 판가리싸움을 벌리고있는데 자기만이 이렇게 안전한 갱도속에 남아있는것이 괴로왔다. 문득 박광준아바이가 마감으로 하던 말이 생각나자 그는 중앙갱도로 내려갔다.

갱도는 새로 온 구분대의 전사들과 련대군의소 전방붕대교환소 준의들과 위생지도원들과 담가병들, 통신병들로 붐비였다.

그들은 정혜를 보자 이 지하갱도속에 어쩌면 이리도 이쁘장한 처녀가 살고있는가 하고 놀라는듯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전사들은 처녀의 몸에서 그 어떤 위엄을 느낀듯 길을 피해주고는 저들끼리 수

군거리기도 하고 어떤 전사들은 벌쭉거리며 몇마디 말을 건네기도 했다. 몸이 뚱뚱한 전사가 앞을 막아서며 여기 우물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정혜는 그 전사에게 우물을 대주고는 3소대가 있던 병실로 가서 새로 온 전사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 병실아궁은 새벽에 불이 잘 든다는것을 말해주었으며 식당으로 가서는 바람이 불 때면 굴뚝을 가마니로 싸주어야 한다는것도 일러주었다. 기름 얼룩이 간 취사복을 입은,몸이 장대하고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취사원이 식당안에서 판을 치며 돌아갔다. 다른 3,4명의 전사들은 그의 일손을 돕는 협조성원에 불과했다. 취사원은 왁살스럽게 그릇들을 대강 물에 헹궈서는 찬장에 올려놓기도 하고 가마를 수세미로 부셔내고 물을 부어넣기도 했다. 어찌나 성급하고 일솜씨가 거치른지 물이 절반이상이나 부뚜막에 흘러내렸다. 정혜는 불만의 눈길로 그의 일솜씨를 보고만 있었다. 그의 왁살스러운 기세로 보아 며칠이 못가서 식당의 이 모든 세간을 다 망그러뜨릴것만 같았다.

뎅그렁 하는 소리와 함께 가마뚜껑과 식기 몇개가 부엌아궁이앞에 떨어졌다. 정혜는 반사적으로 식기를 들어서 가마목에 올려놓고는 재가 묻은 가마뚜껑을 물에 씻었다. 그 가마뚜껑은 박광준아바이와 명보가 박격포탄상자에서 뜯어낸 널판자와 가시철조망을 잘라서 만든 못으로 무은것이였다. 정혜는 그에게 이 모든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해주고싶었으나 웬일인지 억이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는 해쓱하게 질려서 가마뚜껑을 수세미로 문지르고 마른 걸레로 물기를 말끔하게 닦아낸 다음 가마우에 정히 덮어주었다. 옆에 서있던 얼굴이 갸름하고 눈이 총명한 상등병이 처녀의 얼굴에서 그의 모든 심정을 읽은듯 취사원에게 핀잔의 말을 했다.

《권동무,아껴서 다루라구！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것들인데 망탕 다루는가？！》

취사원은 정혜를 돌아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내 일솜씨가 거칠어서 이렇소. 내 이래뵈두 모르는게 아니요. 소중히 다루겠소. …허허…》

정혜는 그 마음이 고마와 살뜰한 미소를 그려보이려고 했으나 웬일인지 얼굴이 굳어지며 더 해쓱해졌다.

이 순간 그의 가슴은 3중대전사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차있었던것이다.

방송실로 돌아온 정혜는 자기가 싸우는 전사들에게 털끝만한 도움도 못주는 불필요한 존재로 되여버린것 같은 안타까움으로 하여 빛이

가신 얼굴을 두주먹에 고인채 앉아있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만 앉아있을가?)
문득 그에게는 싸우는 전사들에게 자기의 목소리를 날려보낼수 있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그의 얼굴은 소생한듯 밝아지며 눈이 빛났다.
류정혜는 방송기앞에 마주앉아 포연속으로 달려가는 전사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스위치를 넣었다. 순간 류정혜는 자기 마음이 싸우는 전사들과 한 혈맥으로 이어진듯 가슴가득 뜨거운 정이 흘러들어옴을 느꼈다.
《여기는 화선방송국입니다! 여기는 화선방송국입니다. 류정혜가 말합니다! 박광준동무! 조칠성동무! 신찬일동무! 최송림소대장동지! 용감하세요! 류정혜가 말합니다! 귀중한 동지들, 영웅적인민군전사들이여, 우리를 땅의 주인, 공장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에 보답할 때는 왔다! 최고사령관동지께 올린 맹세대로 이 땅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모조리 쓸어눕히자! 전사들이여, 피끓는 조선청년들의 기개를 보여주자! 류정혜가 말합니다.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앞으로, 앞으로!》
총탄과 나팜탄, 지뢰신관포탄으로도 불태우고 삼킬수도 파묻어버릴수도 없는 처녀의 순결한 가슴속에서 울려나오는 그 목소리는 포연을 뚫고 자유로운 새처럼 창공높이 날아올라가 돌격하는 전사들의 머리우에서 울려퍼졌다.
수류탄으로 철조망을 끊어버리고 3층감시소로 육박하던 최송림소대장도 박광준전사도 신찬일, 조칠성이도 그 목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만세—》 하고 부르짖자 전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교통호로 뛰여들어가 달려드는 적병들을 찔러넘겼다.
류정혜는 볼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르고 숨이 찼다.
《영웅적인민군전사들이여! 최고사령관동지께 엄숙히 맹세한대로 미제침략자들의 운명을 서산락일의 비운으로 만들자!》
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분대장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동무! 동무! 스피카가 포탄에 명중됐소!》
《예?!》
류정혜는 어떻게 밖으로 뛰여나왔는지 몰랐다. 확성기나팔을 설치했던 중기화점의 화구로 포탄이 날아들어 모든것이 만신창이 되여 허물어져버렸다.
그는 분격을 참을수 없어 머리칼을 움켜잡고 전률했다.

이때 그의 옆으로 두명의 담가병이 빈 담가를 맞들고 달려갔다.
정혜는 뒤에 선 허우대큰 담가병의 팔을 붙잡고 쏘는 눈으로 쳐다보며 물었다.
《누가 부상당했어요？！》
《중대장동지요！》
《어느 소대장인가요？！》
《고병근중대장동지라는데두… 이 동무가？！》 담가병은 역정을 냈다.
앞에 선 유순한 담가병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중상이라오…》
《예？！》
정혜는 방으로 뛰여들어와 위생가방을 메고는 정신없이 달려나갔다.

탐조등빛이 환히 밝힌 릉선에서는 포연이 뭉게뭉게 타래쳐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사나운 바람에 쫓기듯 낮게 떠서 흩날리기도 했다. 고병근중대장을 실은 담가는 포연과 울부짖는 탄우속을 누비며 갱도로 달려오고있었다. 얼마전 중대가 만세의 함성으로 2년간 방어의 침체한 정적을 깨치며 질풍처럼 휩쓸고 나간 그 길을 거슬러 고병근은 의식을 잃은채 네 전사의 어깨에 떠받들려 돌아오고있었다.
그는 돌격이 일시 좌절된것 같은 2소대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중기분대와 함께 달려나가다가 적 포화력의 차단구역에서 쓰러졌던것이다. 여러군데가 파편에 찢어진 군복저고리 앞섶은 헤쳐져있는데 가슴에는 붕대가 두툼하게 감겨져있다. 담가가 기우뚱거릴 때마다 그의 몸이 흔들거린다. 헝클어져내린 머리칼밑에서 반쯤 내리감은 눈이 피빛으로 타며 하늘을 응시하고있다. 그 눈은 무엇인가를 보고있는것 같다. 그는 자기앞으로 어린시절에 본 서해의 장엄한 저녁노을이 끝없이 다가오는것 같기도 하고 그 노을이 불타오르는 하늘로 자기 몸뚱이가 둥둥 날아오르는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뜨거운 파도같은것이 덮칠 때마다 화끈거리는 람홍색 물결속으로 헤염쳐가는것 같기도 했다. 어딘가 아득히 먼 하늘가에서 자기를 지원하는 사포군과 군포군의 수백수천문 대포들의 발사광이 비치는듯 하늘은 간단없이 번뜩이고있다.
고병근은 지금 혼미한 의식속에서 자기가 공격을 계속하고있다고 믿고있었다. 그는 자기 량옆에 산개하여 함성을 지르며 달려가는 전사들의 노도와 같은 공격서렬을 보고있었다. 전사들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무엇이라고 웨쳐대는 소대장들의 얼굴이 언뜻언뜻 보였다. 고

병근은 부르짖었다. 《1소대장! 몰키지 말라! 산개하라!》
《2소대장! 뭣하는가?! 앞으로 앞으로!》
《중기! 좌측을 갈기라!》
갑자기 모든것이 흐리멍텅해지며 흐느낌소리같은것이 들리더니 자기몸이 허공에 뜬채 멎어버린다. 웬 처녀의 목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린다.
《조심조심 걸어요! 환자가 출혈을 더 하겠어요!》
환자라니? 어디에 환자가 있단말인가? 누가 부상당했단말인가?…
《야단났군, 이거 어쩐다?! 신호권총을 떼놓지 않았구만!》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옆구리를 만지는것 같았다. 무엇때문에 신호권총을 떼놓는단말인가?! 신호는 뭘로 하는가?! 고병근은 눈을 뜨고 두리번거렸다. 그는 먼 어둠속에서 비쳐오는 탐조등불빛들이며 뒤로 물러가는 철조망퉁구리와 불붙는 나무그루들과 자기 발치에 붙어있는 낯선 전사의 겁에 질린듯한 얼굴을 보자 몸을 벌떡 일으켰다. 혁띠에서 신호권총을 떼내던 독고세의 얼굴이 놀라서 쳐다본다. 정혜가 그의 손을 잡고있었다.
고병근은 버럭 소리질렀다.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이런데 와있는가?!》
《중대장동지, 부상당했습니다! 갱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 왔어요. 저 앞이 갱도입니다!》 하고 독고세가 말했다.
고병근은 그제야 겨드랑이밑의 뻐근한 통세와 온몸이 솜처럼 나른해짐을 느끼며 가렬처절한 전쟁마당을 돌아보는것이였다. 저 앞에 우중충하게 솟은 아군 갱도가 있는 고지, 그가 처음으로 정면에서 쳐다보는 그 벌거숭이고지는 쓰러진 고병근을 굽어보며 울분을 터뜨리는듯 포연과 흙덩이들을 뿜어올리고있었다.
고병근은 이를 악물고 뒤를 돌아보았다. 3층감시소 고지뒤와 무명고지 일대는 지진처럼 땅이 튀여오르고 불덩이들이 날아다니고있다. 탐조등이 대낮처럼 밝히고있는 릉선우에는 뛰여다니는 련락병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고 그 저쪽에서는 중기관총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모든것을 삼켜버리고 재로 만들어버린듯한 사품치는 불길과 포연의 대해가 노호하고있을뿐이였다.
고병근은 가슴에서 산악같은 분노가 치밀어 담가채를 잡은채 몸을 솟구치면서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머리칼은 폭풍에 흩날렸고 튀여나올것처럼 크게 뜬 눈은 이 불바다를 한눈에 담은듯 피빛을 뿜으며 번들거렸다. 고병근은 벽력같이 소리질렀다.

《담가를 돌려라！》
그러나 담가는 이미 초연속을 헤치며 고지로 치달아오르고있었다. 고병근은 담가에 쓰러져 몸을 뒤채기며 손을 뻗쳐 앞채를 멘 전사의 어깨를 와락 거머쥐였다.
독고세의 이그러진 얼굴이 놀라서 돌아봤다.
《돌리오！》
독고세는 외면하여 머리를 홱 돌리며 담가채를 고집스럽게 앞으로 끌었다. 포탄들이 가까이 와 터지며 포연과 흙모래가 담가에 덮씌웠다. 고병근은 달려가는 담가우에서 몸을 마구 흔들리우면서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독고세동무！ 섯！… 나는 쓰러졌어도 죽어서도 지휘관이요！ 명령이요！ 섯！ 섯！》
담가는 얼어붙은듯 섰다. 고병근은 자기 손을 잡는 정혜의 해쓱한 얼굴을 보았다. 처녀는 부르짖고있었다.
《중대장동지！ 후송돼야 합니다！ 중대장동지！》
고병근은 처녀의 손을 으스러지게 잡고 머리를 떨구더니 담가를 메고있는 전사들을 돌아보았다. 그는 갈린 목소리로 나직하게 타일렀다.
《왜 이렇게들 답답한가？！ 지금 내 한목숨이 중요한게 아니야. 우리 모두 최고사령관동지앞에 맹세한 몸들이 아닌가… 돌려세우라구… 이게 나를 살리는게야… 돌려세우라구…》
전사들은 눈물을 뿌리며 돌아섰다. 그들은 100명의 전우들이 포화속에서 목숨을 내던지며 돌파구를 뚫고있는 그곳으로 자기 지휘관을 떠메고 달려갔다. 정혜는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중대부는 적들의 어느 지휘관놈이 거처하고있던 천장이 낮은 은페부에 위치하고있었다. 로획한 가스등불이 방안을 비쳤다. 식료품의 상표며 탄약함의 글자들이 어지럽게 그려있는 양철과 널판자로 벽을 두른 비좁은 굴안에는 통신줄이며 철갑모들이 란잡하게 딩굴고있었으며 습한 썩은내와 휘발유내가 코를 찔렀다.
고병근중대장을 맞들어 들여다눕히자 무전수, 전화수, 특무장, 서기등 중대부성원들은 모두 놀라서 일어났다.
정혜는 배낭을 중대장의 머리밑에 피여주었다.
밖에서 포탄들이 터지는 진동에 굴은 산산부서져 날아가버릴듯이 움씰거렸다. 철근서까래를 깐 천장에서 흙모래가 떨어지고 가스등이 꺼질듯 가물거렸다.

특무장이 허리를 구부정하고 서서 그사이 정황을 보고했다. 무명고지 좌측으로 가지를 친 릉선을 따라 내밀던 최호찬소대는 적군의 세차례의 반돌격을 격퇴하며 전과를 확대하는중이였다. 주타격방향인 기본릉선을 따라 공격하던 서동길소대에서는 련락병을 두번이나 파했으나 돌아오지 않았는데 돌격이 좌절된것 같다는것이다.

《좌절이라구?》 고병근은 참을수 없는 모욕이라도 당한듯 눈을 지그시 내려감으며 입을 꽉 다물었다. 입가장자리에 늙은이들처럼 깊은 주름살이 패인다.

…2년간에 걸쳐 온갖 방어축성물들과 최신과학기술이 고안해낸 공병장애물들과 주밀한 화력망으로 강화된 적 방어선에 불의에 뚫려진 돌파구—그것은 미제침략군8군의 새로운 야욕에 찬 포만한 배를 푹 찌른 날카로운 비수였다. 숨통을 찔리운 짐승이 근육을 푸들푸들 떨며 입을 딱 벌리고 단말마의 함성을 내지르듯이 수백문 대포들이 불아가리를 열고 일선부대의 참모부에서부터 8군사령부의 각 병종 참모부들에 이르기까지 온통 질서가 뒤집히고 수라장이 되여 유선과 무선이 서로 가로채며 짖어대고 전신타자기들이 불이 일게 절컥거리고 큰 우두머리들과 작은 우두머리들이 주먹을 내휘두르며 부르짖어댔다. 지급명령들과 지령들이 우박처럼 말단 참모부들에 쏟아졌다. 비대증에 허덕이던 자들은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침대에서 놀라 굴러떨어진 자들이 눈곱도 닦지 못한채 직승기를 타고 일선으로 날아왔다. 비행장들에서는 폭격기와 습격기와 추격기들이 폭탄을 안고 까마귀떼처럼 날아올랐다. 포병과 보병예비대들이 길을 메우며 달려나왔다. 하여 불바다의 광란이 일어났다.

눈을 지그시 내리감고있는 고병근에게는 밖에서 울리는 폭음이며 땅의 진동이 죽어가는 짐승의 단말마의 전률처럼 느껴지면서 참을수 없는 혐오감과 증오를 불러일으킬뿐이였다. 그는 눈을 번쩍 뜨고 특무장을 쏘아보았다.

《누가 첨에 좌절이란 말을 했소?!》

《제 생각에…》

《동무 생각이라구?! 이런 환경만 아니면 처벌하겠소. 동무는 서기동무와 함께 탄약통을 메고 1소대로 나가오. 독고세동무를 따라가오. 정치부중대장동무더러 거기 계속 남아서 1소대의 공격을 보장하라 하오. 나는 2,3소대와 함께 기본릉선을 맡겠소! 집행하시오!》

특무장은 중대장의 배심에서 기세가 올랐던지 벌쭉 웃으며 경례를 붙이고 서기와 독고세를 데리고 뛰여나갔다.

중대장이 주저없이 내뿜는 명령이 울리자 낯선 굴안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가신듯 사라지고 결단성있는 전투구분대지휘부의 엄숙한 긴장이 방안 가득찼다. 무전수들과 전화수들은 좀전까지만해도 불바다속의 외로운 섬처럼 느껴지던 이 중대부와 련대와의 맥을 잇기 위하여 전건을 두드리기도 하고 목청껏 상대방을 호출하기도 했다. 이윽고 처녀처럼 곱살하게 생긴 전화수가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고병근중대장에게 송수화기를 내미는것이였다.

《중대장동지！ 련대장동지가 찾습니다！》

중대장은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잠자코 있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빈대가 열구리를 물어뜯은 격입니다！ …태백산 1번동지！ 알겠습니다. 예…예…》

은폐부입구쪽에서 포탄이 터졌다. 밀려드는 먼지구름과 함께 최송림소대장이 뛰여들어왔다.

《중대장동지！ 어디를 다쳤습니까？！》

《보고하오！》 고병근은 지휘관의 위엄으로 그의 물음을 막아버렸다.

온몸에 흙을 뒤집어쓴 최송림은 허리를 구부정한채 차렷자세를 취하며 보고했다.

《1번동지, 3소대는 3층감시소 수색을 끝냈습니다. 포로 46명, 살상자는 계산못했습니다！》

《사고는 없소？》

《신찬일동무가 포로를 때렸습니다.》

《왜 때렸소？》

《장교놈인데 시계를 풀어주면서 살려달라고 애걸한모양입니다.》

《맞아싸오！ 동무는 기본 릉선으로 나가 서동길동무를 지원하오！ 적들은 포화력으로 증원무력이 닿지 못하게 릉선을 차단하고있소. 나도 그쪽으로 나가다가 맞았소. 될수록 인원손실을 적게 내며 통과하기를 바라오！ 동무네가 내밀지 못하면 내 담가를 타고 나가서라도 밀어버릴테요. 가오！》

최송림이가 문앞에 갔을 때 등뒤에서 《가만！…》 하는 중대장의 속삭임이 분명히 들렸다. 돌아봤다. 그러나 중대장은 아무런 말도 안한듯 여전히 입을 무겁게 다물고있었다. 단지 무엇인가 믿음과 열망에 타며 이글거리는것 같기도 하고 애정에 넘쳐 행복하게 빛나는듯

한 눈길이 그를 보고있었다. 중대장에게서 이런 눈길을 처음 보는 그는 가슴이 울렁거려 그 자리에 굳어져버렸다. 보일듯말듯한 미소를 보내는 그 눈길은 최송림을 자기곁으로 부르고있었다. 그는 허리를 구부정하고 다가갔다. 배낭과 모포두루마리에 기대 비스듬히 누워있는 고병근은 그의 혁띠고리를 움켜잡더니 빙그레 웃어보였다.

《믿겠소! 사단에 협주단이 왔다는데 끝내고 보기요.》

그는 이 마지막 말을 할 때는 어딘가 최송림의 오른쪽 귀우를 보는것 같았다. 그가 하고싶은 말이 이 말이 아니란것을 깨달은 최송림은 알길 없는 불안감과 애석한 정이 가슴에서 북받쳐올라 중대장의 두손을 꽉 잡았다.

《중대장동지, 군의소에 가야 하지 않을가요.》

《괜찮아. … 의학박사 딸을 옆에 두고 무슨 걱정이요. …》

이렇게 말하며 고병근은 웃음어린 눈길을 앞구석쪽에 돌렸다. 얼굴을 돌린 최송림은 비로소 가스등곁에 서있는것이 정혜라는것을 알아보고 놀랐다.

중대장과 작별하고 문쪽으로 걸어가며 최송림은 정혜더러 좀 나와달라고 눈짓했다.

정혜는 뒤따라 나왔다. 그들은 은페호문앞 교통호벽에 의지하여 마주 서있었다. 하늘과 산악들을 더듬으며 서로 교차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는 수십갈래의 탐조등 불빛을 배경으로 두사람은 서있었다. 폭음, 섬광, 폭풍, 쏟아지는 흙비속에 두사람은 서있었다. 릉선을 휩쓸며 지나가고 지나오는 탐조등 불빛이 가까이 마주 서있는 두사람의 얼굴을 눈부시게 밝혔다가는 내던지듯이 어둠속에 묻어버리군했다.

《왜 후송못했소?!》

《어쩔수 없었어요!》

《중대장동지를 책임지고 맡아주오.》

《네…》

《설복해서 될수록 빨리 갱도로 후송하오. 그리고 동무도 다시 여기로 오지 마오. 오지 마오! 알겠소?》

정혜는 억울하여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원망에 찬 눈으로 최송림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흐느낌과 함께 부르짖었다.

《소대장동지!》

이 순간 정혜는 온몸이 뜨거운 불꽃들에 휩싸이는듯하면서 머리가

펑 돌았다.
최송림소대장의 손이 그의 한팔을 으스러지게 틀어잡고있었다.
이때 앞에서 울리는 폭음에 땅과 대기가 요란하게 진동했다. 그들은 앞으로 뻗어나간 릉선쪽을 돌아보았다.
그쪽에서는 어마어마한 불바다가 설레이고있었다.
시꺼먼 포연이 장벽처럼 솟아오르고 그 밑에서 이글거리는 불덩이들이 울부짖으며 날아다니고 우에서는 검은 흙덩이들과 바위들이 하늘높이 튀여오르고있었다. 때로는 지각전체가 하늘에 날아올랐다가 산산쪼각이 나 떨어지는것 같고 때로는 어둠속에서 불길의 파도만 넘실댔다. 산악이 그대로 들렸다가 떨어지는듯한 굉음에 밤대기는 물론 땅도 산산쪼각이 나 흩날려버릴듯이 떨었다. 최송림은 그 불바다를 쏘아보았다. 그것은 군관학교졸업식에서, 불타는 수도의 거리를 걸으며, 모교에 들렸을 때 동창생들의 소식을 들으며 그리고 전화의 나날에 자기의 젊은 가슴이 삶의 보람을 두고 공상하면서 애타게 기다리며 갈망한 일이 있는 그런 전경인것 같았다. 하여 그는 오랜 세월을 두고 찾아다니던, 한번 겨루어보고싶은 적수와 맞다들린듯한 상봉의 환희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서 속으로 부르짖었다.
(저것이다！…저것이다！)
이 순간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단순한 포격, 불의 광란으로만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어린시절부터 자기 가슴에 혐오감과 증오를 키워준 세상의 크고작은 모든 악들이, 즉 자기가 만났거나 상상한 그 모든 자기 량심의 원쑤들이 저렇게 한덩어리가 되여 땅우에서 딩굴며 요동을 치고 아가리로 불을 뿜어대고 흙덩어리들을 하늘에 뿌려던지기도 하고 영악스럽게 부르짖어대면서 앞을 막아서있는것 같았다. 그는 공포감대신 참을수 없는 분노가 혈관마다에서 꿈틀거림을 느끼며 환희인지 전률인지 모를 걷잡을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몸을 떨었다.
최송림은 단호한 몸움직임으로 정혜를 돌아봤다.
《저기를 뚫고 나가야 되나요？》
《그렇소. 저쪽에서 서동길동무가 힘겨운 시련을 겪고있소. 어떤 일이 있어도 그에게로 가야 하오！》
…정혜는 소대장이 사라진쪽 화광이 번뜩이는 어둠속을 바라보며 속으로 부르짖었다.
(이겨내세요！ 이겨내세요！)
정혜가 은폐호로 들어왔을 때 고병근중대장은 무슨 깊은 생각에 잠

긴듯 눈을 지그시 내리감고있었다.
《갔소?》 그는 눈을 뜨지 않은채 물었다.
《네…》
《걱정말라니. 무사히 뚫고 나갈게요!》 고병근은 이 말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번지였다. 그리고 모두숨을 내쉬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훌륭한 청년이야. 나한테두 저런 동생이 있었소.》 고병근은 행복하면서도 서글픈 미소를 얼굴에 그리였다. 그리고 눈을 뜨고는 갑자기 활기를 띠며 위혁하는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두 시작하기요! 상처를 봐주오. 동무 맘대루 베낼건 베내구 뜯어낼건 뜯어내서 쌈이 끝날 때까지 견디게만 해주오!》
정혜는 주저없이 붕대를 풀기 시작했다.

7

포화력의 차단구역을 뚫고 나온 최송림의 소대는 허물어진 은폐호와 교통호와 릉선우에서 적병들과 뒤섞여서 육박격투를 벌리고있는 서동길소대를 지원하여 싸움판우에 기세충천한 함성을 지르며 덮쳐들었다. 살아남은 적병들은 골짜기밑으로 혹은 릉선을 따라 앞고지쪽으로 도망쳤다.
최송림은 릉선우측의 허물어진 교통호에 엎드려 사격하는 서동길을 만났다.
《2소대장동무!》
서동길은 놀라서 돌아보더니 뛰여일어났다. 그는 맨머리바람인데다가 온몸이 험상궂게 찢겨서 군관복차림이 아니면 누군지 알아볼수 없을 지경이였다. 두 군관은 말없이 와락 포옹했다.
《3소대장동무, 릉선좌측을 지키라구!》
오랜 방어전의 인습이 몸에 밴 그는 무의식중 이렇게 결심한 모양이였다.
최송림은 주먹으로 그의 잔등을 치며 부르짖었다.
《무슨 소린가?! 적들에게 숨쉴틈을 주지 말고 공격해야 되오!》
서동길은 어둠속을 달려나가며 부르짖었다.

《소대—주의！ 나를 따라 돌격 앞으로！》

허물어진 은페호와 교통호의 그늘속에서 용수철처럼 튀여일어나 새벽 어스름속으로 달려나가는 서동길소대 전사들의 모습들이 뚜렷이 보였다. 최송림은 자기 소대쪽으로 달려오며 자동총을 머리우에 높이 쳐들고 웨쳤다.

《동무들, 적들의 운명을 서산락일로 만들자！ 나를 따라 돌격앞으로！》

그들은 릉선을 따라 올라가며 도망치는 적병들에게 사격을 퍼부었다. 적병들은 천둥소리에 쫓기는 집짐승무리처럼 흩어지기도 하고 한데 몰키기도 하면서 아우성을 치며 딩굴고 숨고 서로 밀어제끼며 달려올라갔다. 렉스포드도 그 무리들속에 끼여있었다. 몸이 질둔한놈은 사병들처럼 날파람있게 제몸을 놀릴수 없었다. 그는 철조망가시들에 긁히우기도 하고 포탄구뎅이 같은데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버둥거렸다. 사병들은 이 절망적인 어둠속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수 없었고 또 알아볼 경황도 못되였다. 그들은 앞에서 뚱기적거리며 자기들의 도주를 방해하고있는 그자를 밀쳐버리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면서 릉선을 따라 도망쳤다. 렉스포드는 처음엔 그들을 멈춰세우며 질서를 잡아보려고 권총을 내두르며 위협적인 소리를 내지르기도 했으나 이 파멸의 시각 그의 권위란 너무나도 보잘것 없는것이였다. 사병들은 자기들의 방어지탱점의 한가운데에 불의에 난데없이 뛰여든 인민군구분대의 파죽지세의 공격에 신화적인 공포를 느끼고 놀라서 뛰여오른 짐승처럼 미쳐날뛰며 도망치는것이였다. 무엇으로도 이 퇴각의 홍수를 막을수 없다는것을 알자 렉스포드는 계급장을 뜯어버리고 사병들속에 끼여 냅다 뛰기 시작했던것이다. 뒤에서는 공격하는 인민군의 함성과 그 위력이 신비적으로 전해진 《따바리》들이 울부짖었다. 귀밑을 스치는 쇠바람, 비명, …옆에서 뛰던 사병들이 무리로 꼬꾸라졌다. 단말마의 비명, 구원을 청하는 부르짖음, 죽어가며 저주를 퍼붓는 소리, 렉스포드는 한데 몰켜서 붐비며 도망치는 사병들속에서 이리 밀리우고 저리 밀리우면서 허둥지둥 뛰여가다가 뭉클한것에 걸려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다가 자기 뒤덜미를 겨누는듯한 총성에 질겁하며 옆으로 굴러서 포탄구뎅이속에 떨어졌다. 그는 탐조등빛이 교차된 캄캄한 하늘을 절망에 찬 눈으로 쳐다보며 얼굴을 싸쥐였다.

(아, 아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는가？！ 어찌하여 이런 파멸이 왔는가？！)

지금에 와서 그에게는 인민군이 지하갱도를 파고들어왔다는것이 불을 보듯 명백해졌다. 그러나 그때는 자기 방 땅밑에서 울린 그 소리를 왜 믿지 않았던가？！ 그는 분명히 그 소리, 죽음을 예고하는듯한 신비로운 소리를 들었었다.

(아, 아！…그때 모든것을 알아차렸더라면！…아, 아！ 그땐 모든것을 수습할수 있지 않았는가！…)

렉스포드는 때늦은 후회로 가슴이 찢어져 이마를 땅에 쪼으며 통곡했다. 하루새벽에 닥쳐온 이 모든 패배는 어디에서 왔는가？

백상기소령의 사살행위, 군대내에서의 염전기분의 만연, 호상기만, 책임회피, 불신임, 자기자신의 참모부에 대한 불신임과 젬킨소좌에 대한 의혹 그리고 참모장교들과 부하들의 사고력을 마비시킨 자기의 독단과 나아가서는 자기자신의 리성과 지각까지 의혹을 품게 된 정신분렬, 놈은 이 모든것들이 종합되여 자기가 그 소리를 믿지 않게 되였다는것이며 군대를 부식시킨 눈에 보이지 않는 도덕적인 부패와 분렬이 이처럼 용이하게 돌파구를 뚫리게 했다는것들에 대하여 추리할 경황도 능력도 없었다. 태풍처럼 모든것을 쓸어버리며 들이닥치는 인민군의 공격앞에서 그의 뇌수는 위축되여 돌멩이처럼 굳어져 이미 인간적인 사고력을 잃어버렸던것이다. 오직 이 순간 놈의 몸을 지배하고있는것은 살아남고싶은 동물적인 욕망뿐이였다. 려송연을 피우고, 맥주를 마시고, 포만하게 먹고 녀자들을 릉욕하고, 권세를 휘둘러 명령하고 처벌하고, 도시들을 점령하고, 략탈하고, 불지르고, 무훈메달을 세보고, 자기의 기념비며 대사자리를 공상해보고, 자신의 펜끝에 따라 생사운명이 결정되는 온갖 문건들에 건성건성 수표도 하고, 점령지의 먼지 이는 길에서 차에 몸을 싣고 회파람으로 단조로운 군가도 부르는 등 이 모든 생활감정들에 대한 서글픈 향수가 탕수처럼 가슴에 밀려들어 놈은 짐승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포탄구뎅이에서 기여나왔다. 살고싶었다！ 그러나 이 순간 선뜩하고 무자비한것이 그의 잔등을 푹 찔렀다. 렉스포드는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펄쩍 뛰여오르며 뒤돌아봤다. 어디선가 본것 같은 얼굴이 눈앞에서 이그러지며 떨었다. 다음 순간 눈부신 백광에 어둠이 산산쪼개지며 터져버렸다.

조칠성은 자기가 어떤놈을 찔렀는지도 모르고 몸을 비틀며 총창을 잡으려는 그놈의 잔등을 콱 차버리고 함성을 지르며 소대와 함께 돌격해나갔다.

최송림소대장은 전사들의 앞장에서 자동총을 휘두르며 뛰여갔다. 옆

에서 달려가며 웨치는 전사들의 함성은 그의 마음을 떠받들어주는듯했다. 앞에서 도망치는 적병들의 철갑모와 잔등이 언뜻거렸고 교통호, 은폐호, 철조망퉁구리들, 불타는 나무그루들이 휘휘 날아지나갔다.

《만세!》

《만세!》

옆에서 시퍼런 불길이 번쩍하고 터졌다. 최송림은 폭풍에 날려 모로 나가떨어졌다. 귀안에서 앙—하는 소리가 나며 숨이 막혔다. 누군가 몸우에 와 육중하게 콱 덮치며 목을 끌어안았다.

《소대장동지! 소대장동지! 다치지 않았습니까?》

박광준이다. 다친데는 없다. 전사들의 함성은 들리지 않고 사나운 눈보라소리 같은것이 머리우의 대기를 흔들었다. 얼굴을 번쩍 든 최송림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어둠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괴물이 이쪽으로 뚱기적거리며 다가오면서 수만수억개로 보이는 불덩어리의 반점들을 부채살모양으로 뿜어대고있었다. 예광탄들은 앙칼진 소리로 울부짖으며 그들의 머리우로 바람처럼 날아지나갔다.

《저게 뭡니까?!》 박광준은 부르짖었다.

최송림은 입안에 쓸어든 모래를 씹으며 말없이 앞을 쏘아보았다. 예광탄의 불빛때문에 앞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무엇인가 거대한 덩어리가 모든것을 미욱스럽게 짓뭉개며 굴러오는것을 온몸으로 느낄수 있었다. 악을 쓰며 으르렁거리는 발동기소리, 철거덕거리는 쇠소리, 꺾어지고 부서지고 짓이겨지는 소리…

뒤에서 전사들이 새된 소리로 부르짖었다.

《땅크다!》

《땅크다!》

앞에서 어떤 자가 소리질렀다.

《아이쿠— 다리야— 제편이다—》

땅크는 도망치는 자기편 사병들을 마구 깔아뭉개며 육중하게 굴러오고있었다. 놈들은 두번째 저지선이 돌파당하자 고지우에 올려놓았던 두대의 땅크를 릉선을 따라 내몬것이였다.

땅이 울렸다. 누군가 그의 옆으로 기여왔다. 조칠성이다.

《소대장동지, 내 저놈새끼 모가지를 비틀어놓으랍니까?!》

이렇게 말하는 조칠성은 앞에서 기여오는것이 무쇠덩어리가 아니라 무슨 게사니 비슷한것이기라도 한듯 구미가 당겨서 눈을 탐욕스레 번뜩였다. 이때 신찬일이가 눈을 영민하게 빤짝이며 얼굴을 쑥 내밀었다.

《소대장동지！ 저두 가겠습니다！》

《좋소, 동무네 둘이서 뒤에 놈을 맡소！ 릉선밑으로 우회하여 나가오！》

조칠성은 신찬일을 돌아보며 벌쭉 웃었다. 둘은 어둠속에 사라졌다.

최송림은 박광준을 데리고 교통호를 뛰여넘어 릉선기슭에 붙어 배밀이로 기여나갔다. 박광준은 숨을 헐떡거리며 그의 옆에서 기였다. 옆에서 보니 훤해지는 새벽하늘을 배경으로 하여 땅크의 자태가 뚜렷이 보였다. 그놈은 긴 포신을 내뻗치고 육중하게 기우뚱거리며 굴러나오고있었다. 땅이 꺼져내릴듯이 움씰거렸다. 역한 중유냄새가 코를 찔렀다. 최송림은 가슴이 왈랑거렸다. 탐조등빛이 릉선을 스쳤다. 땅크는 주춤 멈추는것 같더니 각도를 약간 꺾으며 짐승같은 소리로 기승을 부리며 내달렸다. 포신에는 말뚝채로 뽑힌 철조망이 걸려있고 무한궤도 짬에는 적병의 군복같은것이 끼여서 너펄거리며 돌아갔다.

최송림은 몸서리치며 몸을 벌떡 일으키면서 반전차수류탄 두알을 뿌렸다. 박광준이도 뒤따라서 뿌렸다. 땅크는 불길에 휩싸였다. 류크가 벌컥 열리며 한놈이 기관단총을 란사하며 뛰여내리고 뒤따라 여러 놈들이 철갑우로 기여나왔다. 최송림은 놈들을 향하여 자동총을 휘둘렀다. 놈들은 철갑에서 굴러떨어졌다. 한놈이 무엇이라고 외마디소리를 지르며 손을 내흔들었으나 뒤쪽에서 날아온 총탄에 그놈도 철갑에서 미끄러떨어졌다.

뒤에서 전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왔다.

박광준이가 그의 팔을 잡아흔들며 환성을 올렸다.

《소대장동지, 저걸 보시오！ 저걸 보시오！》

뒤 땅크의 포신이 돌아가고있었다. 류크가 열려있는 포탑에 조칠성이와 찬일이가 매달려서 안에 대고 무엇인가 위협적인 말로 을러메고있었다. 그들, 두 전사는 무한궤도가 끊어진 땅크가 멎어서자 포탑으로 기여올라가서 류크가 열리기를 기다렸었다. 이윽고 류크가 열리며 땅크병놈들이 기여나오려고 했다. 이때 조칠성은 포탑우에 뛰여올라서서 올리미는 대가리들을 마구 걷어차넣으며 위협적으로 부르짖어댔다. 그리고는 사격을 피해 포탑옆에 붙어서는 안에다 반전차수류탄만 들이밀고 방송원에게서 이미 배워두었던 서툰 영어를 써먹기 시작했던것이다.

《싼 오바 비찌！ 턴 유간！ 유아 뎃드맨！ 싼 오바 비찌！ 턴 유간！》

(개새끼！ 포신을 돌려라！ 죽여버릴테다！ 개새끼！ 포신을 돌려라！)

최송림이가 그들에게로 달려갔을 때 조칠성은 안에다 대고 《파이

아!》(쐇!)하고 소리쳤다.
　땅크는 움씰하고 뛰여오르며 포신에서 불을 뿜었다. 포탄은 저 앞릉선의 도도록한 봉우리에 가 터졌다.
　찬일은 포탑에서 달려온 소대장을 내려다보며 너무 기쁘고 벅차서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질렀다.
　《소대장동지! 비틀었지요?! 목을 비틀었지요?! 하하하…》
　《비틀었소! 비틀었소! 찬일동무, 장하오! 하하하…》
　달려온 전사들이 땅크를 만져보며 그들을 쳐다보고 웃어댔다.
　《파이아! 파이아!》
　조칠성이가 소리칠 때마다 땅크는 움씰거리며 길다란 포신에서 불을 토했다. 신찬일은 그때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포탑의 손잡이에 매달려 소궁둥이를 차듯이 발바닥으로 철갑을 내리차며 신바람이 나서 소리질렀다.
　《개놈새끼, 잘한다! 아메리카! 파이아! 하하하… 양키! 잘한다! 파이아! 파이아! 하하…》
　박광준이가 그를 쳐다보며 부러움에 찬 목소리로 웨쳤다.
　《찬일이, 이 사람아, 동문 영웅이야! 하하하.》
　전사들은 그 소리에 맞장구를 치며 웨쳐댔다.
　《찬일이, 잘하네. 하하…》
　《여, 경상골! 경상골! 괜찮아, 하하하…》
　《허허허…》 최송림은 이 불바다속에서도 태평스럽게 웃음판을 벌린 전사들을 돌아보며 웨쳤다.
　《동무들, 한놈도 살려보내지 말자! 돌격 앞으로!》
　전사들은 떠들썩하게 웃어대다가 만세의 함성을 지르며 기세충천하여 소대장의 뒤를 따라 달려나갔다.

8

　정혜는 고병근중대장곁을 떠나지 않았다. 고병근은 정혜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정혜가 붕대를 풀고 상처를 보자 저도 모르게 비명 비슷한 소리를 내며 외면한 순간부터였다. 그는 자기 상처에 대하여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의 이런 침묵은 범접할수 없는 위

엄을 풍기며 정혜로 하여금 자기 상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말며 말도 하지 말것을 엄격하게 요구하는것 같았다.

그는 누워있달뿐이지 군사지휘관으로서 완강하게 활동하고있었다. 소대들과 배속구분대들에서 달려온 련락병들의 보고를 받고 새로운 지시들을 하달하고 상급참모부들에서 내려오는 무전이나 전화를 받고 해당한 답변을 해주었다.

강태욱련대장은 몇번 전화를 걸어 증강무력을 더 보충해달라는가고 물어왔다. 그때마다 고병근은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였으며 모든 것을 련대의 주타격방향에 돌려달라고 념원했다. 그리고는 능청스러운 롱말까지 슬쩍 덧붙이며 련대장을 안심시키려고 했다.

《련대장동지, 이 고병근이한테는 왜 늘 이런 일만 차례집니까. 마초를 베야 하는가 하면 또… 하하하… 한가지 청이 있습니다. 승리한 다음 이 고병근이한테 그 친구들더러 한턱 내라고 일러주십시오. 주타격방향을 맡은 중대장들말입니다. …예？！… 예？！… 무슨 말씀입니까？！》

고병근의 얼굴은 갑자기 당황해하는 빛을 띠였다.

감도가 좋은 수화기에서 울리는 련대장의 격한 음성은 정혜에게까지 들렸다.

《왜 나를 속이려드는가말이요？！… 동무는 누워있단말이요！ 누워서 전화를 걸고있단말이요. 나는 보고있소！》

고병근은 손바닥으로 송수화기를 막으며 정혜더러 일으켜달라고 부탁했다. 정혜는 고병근의 잔등밑에 손을 넣고 일으켜앉혔다. 일어날 때 고병근은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냈다.

《련대장동지, 제가 목이 쉬여서 그렇습니다. 안심해주십시오. 전투가 끝나면 곧 후송되겠습니다.》

《그옆에 있는건 누구요？！ 정혜동무요？！》

《예…》

《바꾸오！》

고병근은 정혜에게 송수화기를 내밀었다. 정혜는 수화기를 귀에 대며 고병근중대장을 흘깃 돌아봤다. 고병근의 이글거리는 눈이 그를 위협조로 쏘아보았다.

정혜는 눈물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련대장동지, 류정혜가 전화받습니다！》

《중상이요？！》

《아니… 예… 제가 책임지겠어요.》

《후송하오!》

《예…》

이때 1소대 련락병 독고세가 화약냄새를 풍기며 뛰여들어왔다. 그는 숨을 헐떡거리며 보고했다.

《중대장동지!… 1소대는… 1소대는 릉선의 적들을 소멸했습니다. 적들의 최후의 참호를 점령하고 차후임무를 대기하고있습니다!》

《수고했소! 1소대는 2,3소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측 골짜기로 진출하여 적의 배후를 타격하오. 소대장동무에게 전하오! 2,3소대와 함께 적을 그 골짜기에 몰아넣고 포위섬멸할것!》

독고세가 뛰여나간 다음 정혜는 고병근중대장을 다시 자리에 눕혔다. 고병근은 무엇엔가 흠칫 놀란듯 정혜의 팔을 꽉 움켜잡으며 신음소리를 냈다.

《중대장동지! 인젠 후송해야겠습니다!》

고병근은 말이 없었다. 그는 천장의 한점을 응시하고있었는데 그의 눈동자속에서는 불길이 황황 타오르는것 같았다. 근처에서 수십발의 포탄들이 터져 토굴이 들었다놓이며 등불이 꺼졌다.

캄캄해졌다. 매캐한 먼지속에서 정혜는 얼른 성냥을 켜서 가스등에 갖다댔다. 불이 켜지자 그는 중대장을 돌아봤다. 고병근중대장은 여전히 그 불타는 눈으로 천장을 보고있었다. 그는 자기의 온 생명력으로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고 포격과 포격의 사이사이에 들려오는 먼 자동총련발사격소리, 수류탄 튀는 소리, 돌격하는 소대들의 함성, 정혜가 듣지 못하는 소대들의 그 모든 맥박소리들을 소란한 전투의 소음속에서 가려듣고있는것 같았다. 고병근중대장의 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선이 소대들에 뻗치고있어서 소대들에서 일어나고있는 모든 변화들이 이 순간 중대장의 눈동자에 이렇게 비쳐지는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중대장의 눈은 때로는 무엇인가 타이르며 고무하는듯 부드러워지다가도 분노에 떨며 끌날같이 날카롭게 번뜩이기도 하고 전사들을 최후승리에로 부르는듯 황황 타오르기도 했다. 그때마다 과연 소대들쪽에서는 총성들이 격렬하게 끓어오르고 만세의 함성이 우렁차게 들려왔다. 마침내 정혜는 중대장을 이 자리에서 옮길수도 없으며 또 옮겨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 갑자기 이상한 적막감이 느껴졌다. 계속되는 포격에 지진처럼 떨던 땅이 안정을 찾은듯 고요해졌다.

《들리오? 정혜동무! 정혜동무, 이게 무슨 소리요!》

고병근중대장의 얼굴에서는 생기가 피여났다.

정혜는 귀를 강구었다.

쉭—쉬휘—쉬쉬휘—쉬—쉬—휘—휘—

공기를 째며 달려가는 맹수의 꼬리에서 일어나는 회파람소리같기도 하고 거인 목수가 톱으로 통나무를 켜는 소리같기도 하고 드넓은 수림의 바다가 세찬 바람에 설레며 울부짖는 소리같기도 한 거창한 음향이 토굴우의 대기를 쓸며 날아지나가고있었다. 정혜는 밖으로 뛰여나가더니 인차 환성을 지르며 달려들어왔다.

《중대장동지! 우리 포병! 우리 포병이 일제사격을 해요!》

고병근은 주먹으로 땅을 치며 상반신을 벌떡 일으켰다.

《밖으로! 나를 밖으로 내다주오! 정혜동무! 동무들!》

정혜와 련락병, 감시병들은 담가를 들어서 고병근중대장을 고지꼭대기에 올려다 눕혀놓았다. 새벽하늘은 불그레하게 동이 터왔다.

고병근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북쪽하늘가를 돌아보았다. 수백문 대포들의 발사광에 먼 후방 산악들의 거친 파도와 같은 륜곽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우의 하늘은 화재가 난듯 황황 타오르고있었다. 가까운 후방과 먼 후방에서 쿵…콰강…쾅…쾅당…구궁…쿵구궁…구구궁…쿵… 하고 포성들이 끊임없이 울렸다. 새벽하늘은 하나의 거대한 북으로 변하고 하늘우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천, 수만의 고수들이 소고와 대고들을 성수가 나서 두들겨대는듯했다. 그러자 재빛하늘에서 수백, 수천의 불꽃들이 직선을 그으며 휘—휘— 날아오다가 꺼지며 쉭—쉭—쉬휘—휴—위—후루룩— 하는 소음이 하늘을 덮었다. 장엄한 포화의 소음은 가없이 넓은 하늘을 수많은 탕개줄로 팽팽하게 조이면서 선선한 공기의 파동으로 대기를 세차게 흔들었다. 불탄 대지도 지심깊이 울리며 포성에 환호했다. 고병근의 얼굴은 더 준엄하게 굳어지고 눈에서는 물기가 떨었다.

그는 얼굴을 천천히 돌려 눈물이 끓는 눈으로 1소대와 2, 3소대가 나간 릉선들을 바라보았다.

그쪽에서는 중기와 경기, 자동총의 련발사격소리들이 끓어오르고 전사들의 함성이 하늘에 터져올랐다. 거기에서도 분명히 거대한 변혁의 선풍이 휘몰아치고있었다.

고병근은 속에서 불길같은 힘이 북받쳐오르는듯 몸을 떨며 련락병에게 명령했다.

《련락병! 무전수에게 전할것! 태백산 1번동지! 우리는 최후의 돌격에로 나감! 고병근! 복창!》

련락병은 차렷자세를 취하며 복창하고는 은폐호로 달려갔다.

이 격한 부르짖음으로 고병근의 몸에서는 마지막 힘이 빠져나간것 같았다. 그는 맥을 잃고 허물어지듯이 누워 눈을 조용히 내리감고 단숨을 가쁘게 몰아쉬였다. 이때 그의 얼굴과 목과 헤쳐놓은 가슴팍을 부드럽고 산뜻한것이 간지럽혔다.

고병근은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이게 뭐요? 이게 뭐요? 왜 이렇게 시원해지오?》

중대장의 손을 잡고 꿇앉아있던 정혜는 놀라서 하늘을 쳐다봤다. 머리우에 펼쳐진 끝없이 넓은 젖빛하늘에서는 운무처럼 부드러운 보슬비가 수만발의 대포알이 날아가는 공기의 파동에 가볍게 흐느적이며 엇비스듬히 날리면서 내려오고있었다. 아군 대포병집단의 일제사격은 하늘을 뒤흔들어 불탄 대지에 봄비를 일찌기 뗠궈주면서 이해의 봄을 앞당겨오는듯했다.

정혜는 두팔을 날개처럼 벌리고 화끈거리는 얼굴과 손바닥에 봄비를 맞으며 환희와 설음이 북받쳐올라 소리쳤다.

《봄비! 중대장동지! 봄비가 와요!》

고병근은 얼굴이 부드럽게 풀리며 눈을 크게 떴다가 꾹 내리감으며 봄비를 맞았다.

(어허… 봄이 오는구만!)

그는 봄비에 눅눅히 젖은 땅에서 풍기는 신선한 기운을 가슴 뻐근하게 들이키며 빙그레 웃었다. 박광준전사의 안해가 두엄달구지를 몰고 들로 나가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땅김이 안개처럼 피여오르는 산비탈밭에서 귀밀씨를 뿌리는 산촌 고향사람들의 근면한 모습이 꿈속의 환영처럼 얼른거렸다. 돌연 눈앞이 환히 트이며 아침해살에 금실,은실로 반짝이며 날리는 봄비속으로 달려가는 중대의 슬기롭고 용맹한 공격서렬이 눈부시게 보였다. 만세의 환호성이 가슴을 뒤흔들었다.

《앞으로!… 앞으로!… 서산락일의 운명으로 만들라!… 앞으로!… 앞으로!》

이마와 볼로 비물이 흘러내리는 얼굴을 흔들며 고병근은 헛소리를 질렀다. 그는 바위같은 가슴을 세차게 들먹이며 몸부림쳤다.

《1소대!… 3소대!… 중기!… 앞으로!》

정혜와 신호수는 중대장을 붙잡고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중대장동지!…》

《중대장동지!…》

이윽고 고병근은 눈을 번쩍 뜨더니 그들을 돌아보았다.

《동무들,이렇게 주저앉아있을게 아니요,나가기요! 담가를 드오!

앞으로!》

얼마후 담가는 봄비속을 뚫고 소대들의 뒤를 따라 달려나갔다. 봄비는 고병근중대장을 소생시킨듯했다. 그는 상반신을 일으키고 옆에서 따라오는 신호수를 돌아보며 웃음어린 얼굴로 말했다.

《신호수동무! 돌격나팔을 부오! 자, 동무들, 앞으로! 앞으로!》

신호수는 담가뒤에서 따라가며 돌격나팔을 계속 불었다. 나팔소리는 보슬비속을 헤치고 험악한 산악들의 줄기줄기와 계곡들우에, 봄비가 날리는 저 먼 하늘가에 메아리쳐갔다.…

9

2,3소대는 릉선의 작은 봉우리를 넘어서자 밀려올라오는 적병들의 새로운 무리와 맞다들었다. 적들은 포사격으로 자기네 사병들의 퇴로를 차단하면서 고용병들을 강제로 올리밀고있다. 적 산병선의 뒤에서는 줄포탄들이 터졌다. 튀여오르는 흙덩이와 시커먼 포연의 구름들이 주춤거리는 졸병들을 앞으로 몰고있었다. 포탄이 날아오는 비명소리는 집짐승무리들우에서 울리는 채찍소리처럼 졸병놈들을 앞으로만 줄달음치게 했다. 적병들은 이리 밀리우고 저리 밀리우면서 또 와 몰켰다가 흩어지기도 하면서 떠들고 욕지거리를 하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달려올라왔다.

앞을 막아선 아군의 산병선을 보자 적들의 무리속에서는 주저와 동요가 일어나며 절망적인 목소리들이 벅적 끓어올랐다. 뒤걸음질치는 자들도 보였다. 와와 고아대며 몰켜서 붐비는 무리들 뒤에서 하사관놈들의 위협적인 부르짖음이 울렸다. 총성이 울리고 뒤걸음질치던 자들이 꼬꾸라졌다. 적병들은 그 시체들을 밟으며 앞으로 한걸음한걸음 다가왔다.

아군은 산병선을 유지하면서 한걸음한걸음 침착한 보조로 욱실대는 무리들을 맞받아나갔다. 아군 전사들은 이 무리들을 무찌르지 않고는 릉선까지 내밀수 없다는 자각으로, 독전대의 총부리에 몰리운 적병들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어차피 자기가 죽는다는 동물적인 본능때문에… 가장 무자비하고 가장 처절한 전쟁수행방법인 육박전은 이날 새벽 피치 못할것으로 되였다.

최송림은 산병선 한복판에서 나가고있었다. 적들은 횡대도 아니고 종대도 아닌 무리들을 지어서 욱욱 밀리며 올라왔다. 역한 썩은내와

술냄새가 뒤섞여서 풍겨왔다.
산병선 좌측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술을 처먹었구나！》
뒤따라 조칠성의 목소리가 울렸다.
《술루다 담을 키우구 접어들어？！ 맑은 정신으론 떨렸던게구나？ 술 한잔에 목숨을 판 짐승들아！》
박광준이가 소리쳤다.
《동무들, 봄비도 오겠다 저놈들 시체로 두엄을 내세！》
적병들의 무리들속에서도 졸병들의 기세를 돋구느라고 술취한 목소리가 꿱꿱거리고있었다. 정신없이 몰려올라오던 적병들의 무리들은 컴컴한 담벽을 이루고 멈춰섰다.
순간적인 정적.
최송림은 번개같이 눈길을 달려 한눈에 그 무리들을 쏘아봤다. 철갑모밑에서 살륙의 빛을 뿜는 눈 눈, 눈들은 시퍼런 띠처럼 번뜩이며 앞을 막아서고있었다.
《앞으로—》
최송림은 벽력같은 소리로 웨치며 달려나갔다. 적병들은 그 소리에 와뜰 놀란듯 무리를 헝클며 미칠듯한 함성을 지르면서 무질서하게 달려들었다. 아군은 산병선을 유지하며 소리없이 달려나갔다. 하여 두 세계, 두 도덕, 두 힘은 마주 달려온 산불처럼 부딪쳤다. 그러나 최송림은 날카로운 직감과 번개같은 판단으로 린접의 형편과 대원들의 움직임을 장악하고있었다. 그는 짤막하고 단호한 웨침으로 대원들을 자기 의지대로 움직여서 적의 무리를 토막치듯이 갈라놓기도 하고 한데 몰아서 구뎅이 같은데 몰박아넣고 마구 족치고 짓이기였다. 서로 찌르며 차넘기며 총탁으로 까며 쓰러졌다. 하늘을 찌르는 함성, 비명, 쇠붙이가 부딪치는 소리, 깨지는 소리, 꺾어지는 소리, 터지는 소리, 찢기는 소리… 기세 충천한 전사들의 무자비한 타격에 지휘가 혼란된 적은 이리저리 떼지어 돌아치다가는 또다시 와 몰켜서 몇개의 덩어리로 되여 덤벼들었다가 얻어맞아 산산이 흩어지면서 쓰러졌다. 혈투마당은 릉선에 화재처럼 번진다. 오직 봄비만이 이 혈전의 의의를 밝히는 서정적인 화음인듯 결사전의 불바다우에 소리없이 내리고있다.
최송림은 교통호를 뛰여넘어가며 입을 찢어지게 벌리고 달려드는 털부숭이놈의 상판을 총탁으로 깐다. 피투성이 된 얼굴이 이그러진다. 어떤놈이 옆으로 덮치며 그의 목을 그러안는다. 역한 입김, 그는 전

률하듯 몸을 비틀며 놈을 멨다꼰진다. 땅바닥에 던져진놈의 얼굴에서 질겁한 눈이 번뜩인다. 콱 짓밟는다. 징그러운 비명, 튀여오르는 흙덩어리, 시퍼런 섬광이 눈앞을 스친다. 달려드는 얼굴, 얼굴들, 누군가 옆에서 그를 부르는것 같다. 어느사이에 그는 적과 아군이 한데 몰켜서 붐비며 찌르고 박고 차는 무리들속에 든다. 적병들의 이그러지고 푸들푸들 떠는 얼굴들, 살기를 뿜는 눈, 헤벌린 입, 영악스럽게 드러내놓인 이발, 입김, 그는 자기가 어떻게 찌르며 내리까는지 의식하지 못한다. 그저 가슴에서 분출되는 뜨거운 불길같은것을 마구 휘두르며 불사르고 문질러버리는것 같다. 눈앞에서 흙빛, 군복빛이 언뜻거리는가 하면 허옇고 누렇고 빨건 띠같은것이 넘실거리고 색색의 섬광이 끝없이 번쩍인다. 이슬인가, 눈물인가, 창끝인가, 피방울인가, 번쩍인다. 번개친다. 삽시에 모든것이 탁 흐려지며 뿌연 안개바다에 잠겨버린다. 그 사품치는 안개속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리고 흙탕물 같기도 하고 불그레한 반점들 같은것이 번들거리며 흐른다. 다시 눈앞이 환히 트이며 땅이 곤두서고 몸이 하늘같기도 하고 심연같기도 한 나락으로 굴러떨어진다. 숨막히는 정적, 어둑한 안개바다가 점점 짙어지면서 눈앞을 흐른다. 그것은 점점 무겁게 내리누른다. 그러나 갑갑증은 나지 않고 온몸이 말할수 없이 편안한 안식에 잠긴다… 아, 이렇게 끝장이란말인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한순간이 지났는지, 아니면 오랜 세월이 흘렀는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암담한 어둠을 흔들며 들려오는 소리… 그 소리의 메아리인듯 귀안에서 찡—찡—하는 소리가 울린다.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어떻게 들을수 있는가？！… 숨을 쉬여본다. 썩은 냄새같은것이 코를 찌른다. 축축하고 끈적거리는것이 코등으로부터 볼로 지렁이처럼 징그럽게 기여가는것 같다. 만져보고싶었으나 팔이 뭉클한것에 짓눌려 움직일수 없다. 참을수 없는 갑갑증을 느낀다. 몸을 꿈틀거리며 팔을 빼고는 경련적으로 더듬어본다. 뭉클한것, 끈적거리는것, 돌멩이같은것, 나무뿌리같은것이 얼굴과 목을 짓누르고있다.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진흙투성이 된 적병의 구두발과 써늘한 다리다. 그제야 그는 자기 몸이 적병들의 시체더미속에 묻혀있다는것을 깨닫고 몸부림치며 그것들을 밀어던지고 솟구쳐오른다. 시체더미속에서 뛰여오른 최송림은 흐리멍텅하나 열기에 번들거리는 눈으로 사위를 돌아본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자욱한 안개바다가 무거운 침묵속에서 흐르고있을뿐, 그 안개바다를 흔들며 선명하게 들려오는 나팔소리, 행군길에서 딩굴어 오그라지고 탄알에 구멍이 뚫린것

을 땜하고 두드려편 중대의 정다운 나팔소리다. 돌격나팔소리는 그의 고막을 찌르고 가슴을 뒤흔든다. 그것은 고병근중대장이 마지막 피방울을 흘리며 보내는 소리가 아닌지?!

…최송림은 적병들의 시체들우를 수없이 넘어서 흙탕물을 더듬어도 보고 부서진 바위들을 만져도 보면서 기여가다가는 또다시 몸을 일으켜 두리번거리고 안개속으로 달려간다. 저 앞 사품치는 안개의 어둑한 공간에서 무엇인가 검은 그림자가 꿈틀꿈틀거리며 일어난다. 최송림은 그 그림자를 놓치지 않으려는듯 눈에 불을 켜고 곧바로 달려간다.

그것은 허리 부러진 나무그루다. 그러나 건잡지 못할 미련과 쓰러짐없이 서있는것을 만났다는 격동에 목이 메여 나무를 쓰다듬어 꽉 안고 몸부림친다. 크고작은 앙칼진 파편들과 찢기고 갈라진 터슬터슬한 껍질들이 손바닥에 감촉된다. …신음소리가 들린다. 품에 안긴 나무의 신음인지, 자기 마음의 신음소린지… 그러나 그 신음소리는 어딘가 다른데서 들리는것 같다. 최송림은 두리번거리며 온 정신을 날카롭게 집중해서 귀를 강군다. 분명히 저 옆쪽 안개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다. 그는 상봉의 예감에 가슴이 후두둑 뛰며 환희에 휩싸여 달려간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도 감촉되지도 않는 후끈한 장벽같은것에 힘껏 부딪쳐 뒤로 비칠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한다. 코구멍에서 역한 쇠비린내와 화약내가 풍기고 관자노리에서 뜨끈한것이 얼굴을 간지럽히며 흘러내린다. 최송림은 손등으로 그것을 씻는다. 피다! 피가 흐른다! 그는 앞을 쏘아본다. 안개속에 흙범벅이 되여 벌렁 누워있는 장교놈, 이그러진 창백한 얼굴, 독기에 번뜩이는 고리눈, 그를 향한 커다랗게 확대되여보이는 검은 총구멍이 떨고있다. 최송림은 터져오르는 증오심으로 하여 와락 달려들어 놈의 가슴팍에 자동총을 란사하고는 마구 짓밟아버렸다. 그리고는 얼굴을 들어 막막한 안개바다를 돌아보며 목이 터지게 소리질렀다.

《3분대!》

《2분대!》

《1분대!》

《광준동무!》

《칠성이!》

《찬일동무!》

…

자기 목소리의 메아리인지 아니면 그 누구의 대답소리인지 뒤에서 무슨 웨침소리가 울리는것 같다. 최송림은 홱 몸을 돌린다.

저 앞 안개속에서 검스레한것들이 꿈틀꿈틀 움직이는것 같더니 그림자처럼 너울거리며 일어난다. 다음순간 그는 안개에 허리를 묻고 서있는 전사들의 모습들을 알아보고는 북받치는 격정에 정신없이 뛰여간다. 전사들도 소리치며 달려온다. 육박격투에 부대껴 흙투성이 되고 찢기고 피 터져 누가 누군지 분간할수 없는 험악한 얼굴들이 그를 에워싼다. 그는 조칠성이며 박광준이며 신찬일,고문칠이와 소대 전사들의 얼굴들을 알아본다. 보이지 않는 얼굴들도 있다.

최송림은 그 친근한 얼굴들을 한품에 안고 볼을 비비지도 못한다. 그저 엄청나게 놀라운 현실앞에 선듯 단숨만 모질게 몰아쉬며 그 얼굴들을 돌아본다. 전사들도 눈을 번뜩이며 소대장과 전우들을 돌아본다. 그들은 소리치지도,울지도 웃지도 못한다. 그저 숨소리들만 높다.

이때 뒤에서 《소대장동무!》 하고 불렀다. 돌아봤다. 몸매 다부진 자동총중대의 1소대장이였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우리는 3소대와 2소대의 린접으로 진출하게 되였소. 3중대장동무의 지시요!》

그리고 그는 홱 돌아서 릉선의 우측 경사지쪽으로 뛰여갔다.

최송림은 억센 힘이 자기를 뒤에서 받쳐주고있다는것을 느끼며 승리의 신심을 더욱 굳게 다지였다.

아군 포탄들이 날아가는 소리가 대기를 세차게 뒤흔들고 나팔소리가 울려온다. 그 나팔소리는 점점 가까이 오면서 그들을 돌격에로 부르고있다. 1소대와 2소대 쪽에서 그 나팔소리에 화답하여 만세소리들이 터져오른다.

최송림은 전사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하고 자기 목소리가 아닌 갈린 소리로 우렁차게 웨치고는 홱 돌아서 달려내려갔다. 그는 전사들이 또다시 산병선으로 산개하여 자기 옆에서 달리고있음을 의식하며 적을 추격하여 내려갔다.

《만세—》

《만세—》

이 순간 최송림은 자기가 자기 혼자의 판단이나 의지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는것을 가슴뻐근하게 느꼈다.

그는 저 나팔소리와 다른 소대들의 함성을 들으면서 모든 소대들이며 매개 전사들과 포진지들,마지막 피방울을 떨구며 달려오는 고병근중대장이며 자기자신이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혈맥같은것에 련결되여있으며 그 혈맥으로부터 뻗쳐오는 완강한 의지력에 의하여 자기자

신도 움직이는것 같았다. 하여 그는 온몸에서 활달한 정력과 자신만만한 패기를 느끼며 달려내려갔다.

《만세—》

《마안—세—에—》

저앞에서 릉선 우측을 꿰뚫고 나간 2소대와 자동총소대가 함성을 지르며 적을 좌측 골짜기로 내리몰고있는것이 언뜻언뜻 보였다. 빈틈없는 조직력으로 째여진 대오는 적을 함정에 몰아넣고있었다. 흩날리는 안개들사이로 골짜기밑에서 어디론가 뚫고나가려고 이리저리 몰리며 와글거리는 적병들의 퍼런 군복무리들이 보였다. 그 무리들속에서 시꺼먼 포연이 치솟아올랐다. 폭음,비명,장교들의 단말마적 부르짖음,욕지거리소리가 들렸다.

《만—세—》

《마—안—세—에—》

잡관목숲을 쓸며 달려내려가던 3소대는 불길을 만났다. 밑에서 뻗쳐올라오는 세줄기의 거세찬 불길은 경사진 둔덕에 부딪쳐서는 하늘로 치솟아올랐다. 열풍을 뿜으며 앞을 막아선 황적색 화염의 담장앞에서 소대는 불의의 정황을 판단하고 수습할 사이도 없이 질풍같은 돌격속도의 타성에 의하여 불길속에 그냥 휘말려들고말았다.

그 불길이 릉선밑에 매복한 3대의 화염방사기에서 내쏜것이란것과 적들이 3소대의 산병선을 불사르고 빠져나가려고 한다는것을 제일 처음으로 간파한것은 건너편 릉선에서 포위망을 좁히며 돌격해내려오던 1소대장이였다. 비밀갱도 공사과정에 최송림소대장과 자기를 비교해보며 많은 자책감을 느껴오던 그는 릉선을 핥으며 기여오르는 불줄기들을 본 순간 그것이 자기 소대앞으로 달려오기라도 하는듯 흠칫 놀라며 걸음을 멈췄다. 그는 건너편 릉선을 보며 가슴을 찢는듯한 아픔과 함께 저도모르게 소리소리 질렀다.

《3소대장,—3—소—대—장—》

전우의 피타는 목소리는 울부짖는 탄우속을 헤치고 격전장에 메아리쳤다. 릉선의 급한 경사지를 따라 사태처럼 밀려내려오던 1소대 산병선은 소대장의 비통한 부르짖음에 놀라 멈춰섰다. 하사관들과 전사들의 시선은 소대장에게로 집중되였다.

최호찬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구령을 쳤다.

《소대,주의! 목표! 전방 릉선의 화염방사기! 쏴!》

1소대전사들은 자기앞으로 달려드는 탄우의 울부짖음에도 아랑곳 하

지 않고 서서 화염방사기에 대고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최호찬은 산병선으로 뛰여다니며 주먹을 휘두르며 험악한 욕설을 마구 퍼부어댔다.

《쏫! 탄알을 아끼지 말라! 개놈새끼들! 죽일놈새끼들! 안된다! 쏴라! 쏫! 련발로 쏫! 쏫!》

화염방사기가 소멸되자 1소대는 다시 공격을 계속했다.

이때 3소대는 불길과 연기 속에서 딩굴고있었다. 관목숲은 그대로 불바다로 되여 황황 타올랐다. 그 불길이 날리는 시꺼먼 연기속에서 하나의 불덩어리가 펄펄 뛰여다니고있었다. 그것은 최송림소대장이였다. 그는 불길에 휩싸여 딩굴고있는 전사들을 물이 고인 폭탄구뎅이와 교통호안에 뿌려던지고있었다. 전사들은 흙탕물속에서 몇번 뒤채기다가는 뛰여나왔다. 최송림은 자기 몸에 불길이 달린것도 모르고 숨막히는 연기와 화기 속으로 정신없이 뛰여다녔다. 누군가 뒤에서 그를 덮쳐안고 폭탄구뎅이속으로 굴러떨어졌다. 차거운 물속에 첨벙 뛰여든 순간 최송림은 흑 느끼며 돌아봤다. 얼굴이 꺼멓게 그슬린 박광준전사였다. 이때 십여명의 적병들이 연기속에서 뛰여나와 달려들었다. 최송림은 흙탕물속에서 일어나며 놈들에게 자동총련발사격을 안기고 뛰여나왔다. 뒤따라 전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교통호와 폭탄구뎅이들속에서 뛰여올랐다.

최송림은 자동총을 머리우에 높이 쳐들고 전사들을 돌아보며 부르짖었다.

《앞—으—로!—》

얼굴이 시꺼멓게 그슬고 불에 탄 군복들이 너덜거리는 전사들이 총창을 비껴들고 함성을 지르며 불길속으로, 연기속으로 달려나갔다. 그들이 웨치는 함성은 우렁찬것도, 장쾌한것도 아니였다. 비분과 증오에 떠는 피타는 부르짖음이였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수 없는 무서운 소리였다. 밑에 깔려서 웅심깊게 울리는것 같으면서도 하늘을 찌르는 그 소리는 전장을 뒤흔들었다. 불길과 연기를 뒤에 날리며 달려나가는 전사들도 있었다. 불에 타서 너풀거리는 군복을 날리며 달려나가는 전사들은 거의 태반이였다. 가슴에서 분출되는 분노를 참을길 없어 바람을 탄 바위처럼 뛰여오르며 달려간다.

인민군 산병선이 불길에 타서 재로 흩날려버린줄 알고 떼를 지어 밀려오던 적병들은 시꺼먼 연기의 장막속에서 뛰여나오는, 화염에 타고 그슬려서 사람모습을 잃은 이 검은 질풍의 울부짖음앞에서 얼이 빠져 대오를 수습하지 못한채 밀리우기 시작했다.

산병선의 앞장에서 달려내려가는 최송림은 흩날리는 연기속에서 무리를 지어 밀리우는 적병들에게 자동총을 휘둘렀다. 불길이 날름거리는 꺼멓게 탄 관목숲에서 꼬꾸라지고 딩구는 적병들이 보인다. 그는 산병선을 돌아봤다. 불에 탄 팔소매를 뜯어버려 흰 내의우에 조끼를 입은것 같은 조칠성이가 총창을 번뜩이며 달려드는 적병을 푹 찔러넘기는것이 보인다. 박광준이가 머리를 구겨박고 도망치는 적병을 쫓아가 총탁으로 내리까고 발길로 걷어차는것이 언뜻 보인다.

《앞—으—로！—》

최송림은 자기가 이렇게 웨친다는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자동총을 휘두르며 달려내려갔다. 그는 옆에서 누군가 쓰러지는것 같아 머리를 홱 돌렸다. 어느 전사인가 딩굴고있다. 벌건 잔등이 보였다. 한놈의 적병이 그를 타고앉는다. 최송림이가 총구를 돌리는 순간 그 전사는 놈을 옆으로 멨다꼰지고는 벌떡 몸을 일으키고 총창을 쿡 내리박으며 《야—》 하고 소리친다. 신찬일이다. 최송림은 그에게 소리쳐주고싶으나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며 말이 나가지 않는다. 두세명의 전사들이 그의 앞을 바람처럼 가로 지나가며 앞에서 도망치는 적병들에게 덮친다. 포연이 흩날리며 앞을 가린다. 껑충 뛰여올랐다가 꼬꾸라지는 적병들, 폭음, 비명, 함성,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 웨침소리, 튀여오르는 흙덩어리들… 공중 떠오르는 철갑모…

달려가는 최송림의 눈앞에서는 땅이며 하늘이며 포연이며 적병들의 무리며 모든것이 한데 뒤범벅이 되여 물결치기도 하고 산산부서지며 언뜻거리기도 한다. 그의 귀전에 정치부중대장 김문규의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동무들—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앞으로— 원쑤들을 한놈도— 살려보내지 말—라—》

최송림은 웨침소리가 울려오는쪽에 머리를 홱 돌렸다. 언제 나타났는지 김문규는 2소대 공격서렬의 한끝에서 달려드는 서너명의 원쑤들에게 자동총사격을 안기고는 비칠거리는 그놈들을 발길로 마구 걷어차서 꼬꾸라뜨린다음 펄펄 뛰여오르며 포연속으로 날아든다. 뭉게치는 포연속에서 그의 웨침소리가 울려나왔다.

《복수하라！ 죽이라！ 동무들— 앞—으—로—》

김문규의 웨침소리는 그의 가슴에서 설설 끓어번지던것을 탁 터쳐놓고야말았다.

최송림은 비분과 적개심이 불줄기처럼 터져올라 속으로 마구 부르짖으면서 달려내려갔다. 용서치 말라！ 수령님께 끝까지 충실했던 소

대의 귀염둥이 리명보동무의 이름으로! 한놈의 원쑤도 살려보내지 말라! 복수하라! 죽이라! 한철흠분대장의 이름으로! 바다에 수장된 조칠성동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들의 이름으로! 복수하라! 죽이라! 용서치 말라!

달려내려가는 그의 눈에서는 비물인가, 땀방울인가, 피눈물인가 끝없이 흩날린다.

3～4명의 적병들이 급해맞아서 높다란 바위우로 기여올라가서 수류탄을 뽑아든다. 귀청을 찢는 총소리와 함께 놈들이 미끄러져 떨어지는것이 보인다. 폭탄구뎅이에서 십여명의 검은 무리들이 불쑥 솟아오른다. 최송림은 자동총을 란사하며 놈들을 짓밟고 포연속으로 뛰여나간다. 도망치는 무리들속에서 한놈이 돌아서서 총을 번쩍 들며 달려든다. 누군가 몸을 날려 그놈을 찔러서 쓰러뜨린다. 조칠성인것 같다.

앞가슴을 열어제낀놈이 눈을 희번뜩이며 포연속에서 걸어나오며 무엇이라고 부르짖다가 앞으로 꼬꾸라진다. …

…포연속을 뚫고 릉선으로 사태처럼 밀려내려가는 산병선, 폭음, 함성, 바람의 울부짖음 치솟는 흙기둥, 흩날리는 포연, 곤두서는 땅, 총창이 번뜩인다. 피투성이 되여 이그러지는 양키놈의 길죽한 얼굴이 옆으로 날아지나간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장벽같은것이 앞을 콱 막아서고 사방에서 팽팽한 대기가 그를 잡아끄는것 같기도 하고 들이미는것 같기도 하다. 이 보이지 않는 힘의 균형이 최송림을 멈추게 한다. 그것은 갑자기 닥친 정적이였다. 그는 놀랍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여 멍한 눈으로 두리번거린다. 뿌연 대기속에서 하늘이며 산들이 오르내리면서 춤을 추고 골짜기의 바위들과 너저분한 시체들이 끝없이 흔들리며 뒤로 밀려나가는것 같다. 앞에는 적도 포연도 흙기둥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끝없이 고요하기만 하다. 정적… 정적… 다만 딛고 선 땅만이 자꾸 흔들리며 뒤로 뒤로 밀리는것 같다. 그는 몇걸음 앞으로 걸어가며 쓰러질듯이 비칠거리다가 가까스로 몸을 가누며 얼굴을 들어 주위를 돌아본다. 안개에 덮인듯한 뿌연 대기속에 세월의 풍운에 거칠어지고 험악해진 봉우리같기도 하고 바위같기도 한 모습들이 우뚝우뚝 솟아있다. 아니다. 그것은 불바다, 피바다를 헤쳐와서 험상궂은 모습을 한 혈육들보다 더 친근하고 귀중한 전우들, 그들모두의 마음을 자기 마음처럼 아는 사람들의 군상들이다. 불에 타고 포연에 그슬리고 피터지고 찢기고 흙투성이 된 거무칙칙한 그 모습들은 형언할수 없이 장엄

하게 보인다. 이마에 때묻은 천 같은것을 감은 전사, 불길에 타서 너덜거리는 군복저고리를 걸친 전사, 총창에 찢겨 벌건 가슴을 드러낸 전사, 흙탕물칠갑을 한 전사, 누가 누군지 분간할수 없다. 허리 부러진 고목옆에 서있는 소매없는 군복을 입은것이 조칠성이 같기도 하고 그 뒤에 서있는 흙투성이 된 몸이 실한 전사가 박광준이 같기도 하다.
최송림은 그들에게로 달려가려 했으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며 말을 듣지 않는다. 그들도 어딘가 자기 뒤쪽만 보는것 같다. 뒤에서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난다. 최송림은 천천히 돌아봤다. 연기가 김처럼 서려오르는 숯으로 된 나무그루옆에 정혜가 서있다. 처녀의 머리칼은 군모밑에 헝클어져 내려 검댕이 칠한 이마 절반을 내리덮었고 볼은 긁히우고 한쪽 군복소매가 찢겨져있다. 최송림은 그 모습을 한품에 안아주려는듯 한걸음 두걸음 다가가다가 자기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처녀의 눈에서 떨고있는 눈물을 보자 걸음을 멈춘다. 정혜의 얼굴로는 경련이 지나가고 무엇인가 말할것을 말하지 못하는듯 입술을 다물고있다. 그제야 최송림은 그의 한손에 들려있는 신호총을 봤다.
류정혜는 몸매를 바로잡고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붙인다.
《소대장동지! 고병근중대장동지는 승리의 신호탄을 올릴 영예를 소대장동지께 주고싶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병근중대장동지는 전사들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속인원은 자기 대원보다 잘 먹여야 한다고…》
《정혜동무, 뭐라구?! 뭐라구요?!》
《중대장동지는 끝까지 전투를 지휘하시다가… 의식을 잃고 후송됐어요.》
정혜는 이 순간의 격정을 한가슴에 담을수 없는듯 흑 느꼈다. 헝클어진 머리태가 처녀의 가슴우에서 흩날렸다.
김문규가 신호권총을 받아쥐고 그것을 최송림에게 내밀며 부르짖었다.
《쏘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쏘오! 높이, 높이 쏘시오!》
뒤에서 누군가 털썩 주저앉는 소리가 났다. 조칠성이다. 그는 주먹으로 땅을 치며 부르짖는다.
《이놈새끼들아! 더 없느냐?! 더 오라! 더 오라!》
최송림은 둔덕진곳으로 뛰여올라갔다. 그는 머리우에 신호총을 높이 쳐들고 몸부림치면서 하늘에 발사했다. 탕!… 탕!… 탕!… 신호탄들은 하늘에 날아올랐다. 최송림은 신호권총을 쳐든채 돌로 굳어진듯 움직이지 않고 서서 우주의 항성처럼 아득한 공간으로 날아가

는 신호탄들을 쳐다봤다.

이때 북쪽 하늘에서 그가 쏜 신호탄에 화답하듯 십여발의 붉은 신호탄들이 여기저기서 날아올랐다. 뒤이어 아군 포병의 일제사격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고 주타격방향으로 공격하는 련대의 함성이며 수백,수천의 총소리들이 하늘가득 끓어올랐다.

골짜기의 전사들과 하사관들과 군관들은 억이 막힌 사람들처럼 목이 꺽 메여 어리둥절해진 눈으로 포성이 울리는 하늘쪽을 보고만 있었다.

이윽고 김문규정치부중대장이 권총을 쥔 한손을 번쩍 쳐들며 소리질렀다.

《동무들,승리요! 승리요! **김일성**원수님의 전사들인 우리가 이겼소! **김일성**원수 만세—》

《만세!》

《만세!》

《만세!》

전사들은 손에 손마다 틀어쥔 총들을 하늘높이 쳐들며 목이 터지도록 만세를 부르다가는 서로 붙안고 돌아가며 울며 웃어대다가도 다시 뛰여오르며 만세를 부르는것이였다.

류정혜는 이런 승리의 환희를 자기의 좁은 한가슴에 받아들이기 아름차기라도 한듯 만세도 못부르고 숨만 크게 쉬며 두리번거리다가 박광준아바이에게로 달려갔다.

《아바이!》

정혜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처녀는 자기가 소리를 내여 흐느끼고있는지 웃고있는지 분간 못했다.

박광준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정혜동무,우리가 이겼소! 이겼다니까! 저놈들은 패했어! 민심을 거역해서 하는 일이 잘되는걸 못봤어! 저놈들은 그래서 망했거던. 허허허… 정혜동무,저걸 보라구 하,저걸 보라구! 중기소대장동무가 하늘에 날아오르는군!》

정혜는 얼굴을 들었다.

전사들과 군관들이 부둥켜안고 돌아가며 만세를 불렀다. 그우에 황두범중기소대장의 육중한 몸뚱이가 날아오르고있었다. 전사들이 기쁨을 참을수 없어 던져올리는것이였다. 웃음소리,웨침소리,만세소리… 황두범은 허공에 날아오를 때마다 무엇이라고 숨가쁜 소리를 내지르며 버둥거렸다.

《허허허…》

《하하하…》

정혜는 박광준아바이와 함께 눈물이 그렁하여 웃어대며 그 모습들을 보고있었다. 이 순간 그는 인간의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그는 이런 커다란 승리의 환희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야말로 세상에 태여난 보람도 없을것이라고 생각하며 누구인가를 찾고있었다.

최송림은 소대장들과 한데 어울려 만세를 부르다가 문득 가슴이 뜨거워나며 목이 메여왔다. 지난해 가을 화선갱도들에도 온돌을 놓아 전사들을 고향집에서처럼 뜨뜻하게 재우라고 말씀하신 최고사령관동지의 영상이 떠올랐던것이다.

최고사령관동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독창적인 전법들과 갱도전에 대한 구상에 의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마련해주신 갱도속에서 살면서 장수힘을 키웠습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온석으로 놓은 온돌우에서 살면서 어버이 그 사랑으로 하여 우리 전사들은 추운줄도 배고픈줄도 두려운줄도 모르고 싸워이겼습니다!

최송림은 가슴의 격동을 참을수 없어 두손을 높이 쳐들며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김일성**원수 만세!》

《만세!》

《만세!》

그의 앞으로 류정혜가 달려왔다. 한손으로 머리칼을 쓸어만져 바로 잡으며 다가오는 그의 얼굴은 전에 없이 밝고 아름다와보였다.

《소대장동지!》

최송림은 상쾌한 기운을 가슴가득 안으며 처녀앞으로 걸어갔다.

《정혜동무!》

봄비가 내렸다.

이해의 풍년과 승리와 행복과 그 모든것을 약속해주는 봄비는 불탄 대지우에 축복의 노래처럼 고요히 속삭이며 내렸다.…

×

이날 오전, 봄비에 축축히 젖은 전사들은 고지에서 포로들을 호송하고 박격포, 중기, 경기, 각종 보총들, 무전기, 전화기, 탄약 등등의 전

리품들을 정리하고있었다. 그 일도 헐한 일은 아니였다.

박광준은 올해의 풍년을 두고 생각하며 류달리 흥겨운 기분으로 전리품들을 거두었다. 그는 피땀으로 농사를 지은 밭에서 이삭을 주을 때와 같은 욕심으로 탄알 한발,통신줄 한토막이라도 허술히 다룰세라 다 거두어모았다.

통신줄두루마리를 메고 릉선을 걸어가며 두리번거리던 그는 폭탄구뎅이옆에서 한 미군장교놈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놈 옆구리에는 값이 나보이는 단검이 떨어져있었다.

박광준은 그 단검을 들어서 칼끝에 묻은 흙을 훅훅 불어버리고 무슨 역한 냄새라도 나지 않는가 해서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아보았다.

이때 보총들을 한아름씩 안고 지나가던 최송림,조칠성,신찬일들이 그에게로 다가왔다. 최송림은 단검을 쥐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값진 골동품임에 틀림없는 단검의 손때묻은 상아칼자루에는 글자들이 새겨져있었다. 나이가 나이였던만큼 호기심에 끌린 그는 류정혜를 불러다가 번역시켰다.

《기회는 단 한번,먼저 찌르라!》

최송림은 단검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조칠성은 망짝같은 돌멩이를 들어 그것을 내리쳤다. 흉기는 동강이 나버렸다. 그리고 승리자들은 껄껄 웃으며 죽은자의 상판을 내려다봤다.

그놈의 앙다문 입에는 실오리같이 가늘고 하얀 풀뿌리가 내돋은 흙이 한입 가득 물려있었다.

《죽으면서도 물어뜯은게요…》

하고 최송림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때 그들의 뒤에 와 서있던 김문규가 그의 말을 받았다.

《참,신통하오. 허허허,이놈 꼴을 좀 보오. 미국놈 심보 그대로요! 죽어뒈지는 마지막순간까지 뭔가 물어뜯고야마는게 미제침략자들의 본성이 아니겠소. 저놈들이 이 세상에 있는 한 총을 튼튼히 틀어쥐고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맘을 늦췄다가는 큰변이 나오.》

전사들은 의미심장한 그의 말을 듣고있다가 포연이 자욱한 골짜기 저편 미제침략군이 둥지를 틀고있는 어둠컴컴하게 보이는 적진고지들을 증오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탄약들을 접수하고 방어진지를 파올리기 위하여 식사가 마련되여있는 토굴쪽으로 걸어갔다.

최송림은 활기에 넘쳐,그러나 승리자의 자만이 없는 겸손한 얼굴로 전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갔다.

그들은 최후승리를 이룩할 그날까지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위대한 정의의 성전에서 굴함없이 함께 싸울것을 서로 눈웃음으로 다짐하며 활달하게 걸어갔다. 투쟁이 앞에 있고 시련이 내다보일수록 참된 젊음은 더욱 생기에 넘쳐 약동하는것이다.

—우 산 장 에 서—

장편소설 **돌파구**

제 2 판

저자 리종렬 편집 량성원
표지, 삽화 김용광, 민응식 교정 김경희
콤퓨터편성 고려전자출판물사 문정실, 박영애
낸 곳 문학예술출판사
인쇄소 외국문출판사인쇄공장
1판발행 주체63(1974)년 7월 27일
2판인쇄 주체94(2005)년 8월 1일
2판발행 주체94(2005)년 8월 5일

ㄱ—450107